

QA시스템
聖經研究
시리즈

44

사도행전

기독교지혜사

성서연구원

BIBLE RESEARCH GROUP

사도행전

Acts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
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1:8)

*ἀλλὰ λήμψεσθε δύναμιν ἐπελθόντος τοῦ ἁγίου
πνεύματος ἐφ' ὑμᾶς, καὶ ἔσεσθέ μου μάρτυρες
ἐν τε Ἱερουσαλὴμ καὶ ἐν πάσῃ τῇ Ἰουδαίᾳ καὶ
Σαμαρείᾳ καὶ ἕως ἐσχάτου τῆς γῆς.*

사도행전 차례

사도행전 서론	〈18제〉 ...	11
제 1 장 제자들이 성령 강림을 기다리다	〈33제〉 ...	22
제 2 장 성령의 강림과 역사(役事)	〈37제〉 ...	34
제 3 장 베드로가 앓은뱅이를 일으키다	〈35제〉 ...	48
제 4 장 사도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다	〈29제〉 ...	59
제 5 장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급사(急死) 하다	〈28제〉 ...	71
제 6 장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곱 집사를 세우다	〈17제〉 ...	83
제 7 장 공회원들 앞에서 증언하던 스테반이 순교당하다	〈55제〉 ...	90
제 8 장 유대의 경계를 넘어 이방으로 복음 전파가 시작되다	〈26제〉 ...	113
제 9 장 이방 선교를 위한 새로운 일군의 선택	〈29제〉 ...	122
제 10 장 고넬료와 그 가족(家屬)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다	〈26제〉 ...	133
제 11 장 이방인에 대한 전도 사역의 정당성과 안디옥 교회의 등장..	〈19제〉 ...	143
제 12 장 헤롯의 교회 핍박과 하나님의 개입	〈25제〉 ...	151
제 13 장 세계를 향한 복음의 확장-바울의 제 1 차 전도 여행(1) ..	〈44제〉 ...	160
제 14 장 세계를 향한 복음의 확장-바울의 제 1 차 전도 여행(2) ..	〈21제〉 ...	174
제 15 장 예루살렘 총회	〈25제〉 ...	181
제 16 장 소아시아와 유럽을 향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1)	〈26제〉 ...	190

제 17 장	소아시아와 유럽을 향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2)	〈27제〉 ... 201
제 18 장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끝마치다	〈22제〉 ... 213
제 19 장	에베소에서 행한 바울의 사역	〈25제〉 ... 222
제 20 장	바울의 고별 설교	〈29제〉 ... 233
제 21 장	3차 전도 여행을 끝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바울	〈26제〉 ... 245
제 22 장	바울의 변론(辯論)	〈19제〉 ... 255
제 23 장	공회 앞에 선 바울과 그를 죽이려는 음모	〈22제〉 ... 262
제 24 장	벨릭스 앞에서의 바울의 변론	〈22제〉 ... 271
제 25 장	바울을 재판하는 베스도	〈18제〉 ... 281
제 26 장	아그립바 앞에서 변증하는 바울	〈19제〉 ... 289
제 27 장	바울의 항해와 난파	〈20제〉 ... 297
제 28 장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	〈23제〉 ... 305

사도행전 특별 자료 차례

사도행전 서론 〈연구 자료〉	기독교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19
사도행전 서론 〈지도 자료〉	바울의 전도 여행로	20
제 1 장 〈연구 자료〉	그리스도의 승천(昇天) 사건이 지니는 의미	33
제 2 장 〈본장의 요절〉	47

제 4 장	〈연구 자료〉	교회의 기능	70
제 5 장	〈화보 자료〉	삼비라의 죽음	82
제 6 장	〈본장의 요절〉		89
제 7 장	〈화보 자료〉	순교당하는 스테반과 목격자 사울	112
제 9 장	〈본장의 요절〉		132
제 10 장	〈본장의 요절〉		142
제 11 장	〈화보 자료〉	환상을 본 베드로	150
제 12 장	〈본장의 요절〉		159
제 13 장	〈본장의 요절〉		173
제 14 장	〈본장의 요절〉		180
제 15 장	〈본장의 요절〉		189
제 16 장	〈본장의 요절〉		200
제 19 장	〈연구 자료〉	사도행전에 나오는 각종 신(神)	232
제 20 장	〈본장의 요절〉		244
제 21 장	〈본장의 요절〉		254
제 23 장	〈본장의 요절〉		270
제 24 장	〈연구 자료〉	로마의 항소(抗訴) 제도	280
제 25 장	〈본장의 요절〉		288
제 26 장	〈화보 자료〉	예수를 만난 바울	296
제 27 장	〈본장의 요절〉		304
제 28 장	〈연구 자료〉	로마의 군대 조직	313

사도행전 서론

1. ㉠ 본서는 누구에 의해서 기록되었는가?

- ㉠ (1) 본서에는 이 책의 저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본서는 누가복음과 함께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Adolph Harnack, Theodor Zahn, James Moffatt, A.B. Bruce).
- (2) 그 이유로 본서는 누가복음의 기록자인 누가와 동일한 인물이 저술했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으며(1:1; 눅서론 ㉠ 1; 눅 1:3) 또 본서에 기록된 사건 중 어떤 기사는 4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참조, 눅 24:29, 52).
- (3)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Policarp, A. D. 69-155)이나 폴리갑의 제자 이레니우스(Irenaeus, A. D. 140-200), 역사가 유세비도 본서를 누가의 작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 (4) 특별히 위의 주장들과 더불어 초대 교회의 전승들에는 바울의 동료였던 누가가 자신의 여행기를 기초로 해서 본서를 기록했다고 전한다. 본서의 저자가 바울의 동료였다는 사실은 '우리'라는 말을 사용한 여러 귀절들을 보아 명백히 알 수 있다(참조, 16:10-17; 20:5-21:18; 27:1-28:16).
- (5) 한편 '우리'로 표현된 바울의 동역자가 '누가'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 근거는 적어도 바울과 자신을 동일한 위치에 둘 만한 사역자요 바울과 긴밀한 유대 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되었던 자만이 '우리'라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6) 그런 측면에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부터(드로아, 16:10) 시작하여 빌립보 지역의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했으며(16:40) 3차 전도 여행 말기(20:6)와 예루살렘 입성(21:17) 그리고 로마에 호송될 때까지(27:1-28:16) 바울과 동행했던 의사 누가를 지목할 수 있다(참조, 몬1:24; 담후4:11). 본서의 기록에 의학 용어가 빈번하게 사용되는 점에서도 의사 누가가 본서의 기록자였음을 확정할 수 있다(참조, 1:3; 3:7; 9:18, 33; 13:11).
- (7) 결국 위의 여러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약간의 반대설이 있기는 하지만 본서는 누가에 의해 기록되었음이 분명하다.

2. ㉡ 본서는 누구에게 보내기 위해 기록되었는가?

- ㉡ (1) 본서는 데오빌로에게 보내기 위해 기록된 것이다.
- (2) 즉 본서는 누가복음에 이어서(1:1) 두번째로 데오빌로에게 보내졌는데 그의 신분은 누가복음 1:3에서 각하로 소개된 것으로 보아 로마의 고급 관리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 (3) 한편 이 데오빌로가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을 가리키는지 잘 알 수는 없으나 그는 실제 인물로서 누가의 편지를 받을 당시 그는 이미 복음을 듣고 신앙을 가진 자였음을 알 수 있다(눅 1:4).

3. ㉢ 누가가 본서를 기록한 동기와 목적은 무엇인가?

- ㉢ (1) 본서의 저작 목적은 누가복음의 앞부분에 기록된 대로(눅 1:1-4) 데오빌로로 하여금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는 데' 있다.
- (2) 즉 본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에 이어 사도들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를 계속해서 차례대로 써 보내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 (3) 이외에도 본서는 첫째, 로마인에게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하여, 즉 로마인들은 항상 사

12 사도행전 서론

도들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기록되었다(참조, 18:12-17; 23:18-35; 24:24-27; 25:1-12; 28:30, 31).

- (4) 둘째,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진실성을 알리기 위하여 본서는 기록되었다. 그래서 본서는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참조, 2:36; 3:20; 4:27; 5:42; 11:17; 15:25, 26; 28:31).
- (5) 셋째, 본서는 동방의 신비주의 사상에 사로잡힌 헬라인들에게 기독교를 가르칠 목적으로 기록되었다(참조, 14:8-18; 17:16-31).
- (6) 결국 본서는 로마가 지배하던 당시에 헬라의 신비주의적인 사고에 빠져 있던 각계 각층의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변증하며 유대인들에게 기독교가 참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기록되었다.

4. Q 본서는 언제 기록되었는가?

- A (1) 본서는 누가복음이 기록된 후 얼마 되지 않아(1:1) 쓰여졌기 때문에 누가복음보다 조금 늦은 A.D. 63, 64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참조, 녹서론 Q 5).
- (2) 왜냐하면 본서에는 바울의 순교 사실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참조, 28:30, 31), A.D. 64년에 시작된 로마의 박해에 관한 기사나 예루살렘의 함락(A.D. 70)에 관한 사건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 (3) 그중에서도 특히 본서의 마지막 부분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잡혀가서 약간의 자유를 누리며 옥중 생활하는 모습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28:30, 31).
- (4) 이것은 본서가 로마의 박해로 인한 사도 바울의 순교(A.D. 66년경) 이전에 기록되었음을 말해 준다.
- (5)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 본서는 누가복음보다 조금 늦은 A.D. 63, 64년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이 가장 확실시되고 있다.

5. Q 본서는 어디에서 기록되었는가?

- A (1) 본서의 기록 장소 역시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본서는 로마에서 기록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Jerome).
- (2) 한편 학자들에 따라서는 본서가 누가의 고향인 안디옥이나(Hilgenfeld) 또는 누가가 생전에 오랫동안 머물렀던 예베소에서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자들도 있다.
- (3) 그러나 누가는 바울이 로마로 끌려갈 때 바울과 동행하였으며(27:1) 끝까지 바울의 곁에 남아 있으면서 바울의 옥중 전도 활동을 자세하게 기록하였다(28:30, 31; 답후 4:11).
- (4) 이와 같이 누가가 바울의 옥중 생활을 자세하게 기록하였고 또 그가 바울을 좇아 로마까지 갔다는 사실은 본서가 로마에서 기록되었다는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 (5) 그러므로 본서는 로마에서 기록되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6. Q 본서의 명칭은 무엇인가?

- A (1) 본서는 한글 개역 성경에서 '사도행전'이라고 불리어지고 있다.
- (2) 한편 이 명칭이 권위있는 사내 산 사본(Codex Sinaiticus, A.D. 4C)에서는 '행전'(헬, 프락세이스)으로, 바티칸 사본(Codex Vaticanus, A.D. 4C 중반)과 베자 사본(Codex Beza 혹은 Codex Cantabrigiensis, 5, 6C)에서는 '사도들의 행전'(헬,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으로 나타나고 있다.
- (3) 뿐만 아니라 초대 교부들은 본서를 '사도행전'(라, 악타 아포스톨로룸)이라고 불렀다(Origen, Tertullian, Clement of Alexandria).
- (4) 결국 본서의 명칭은 위의 사본들에서 유래하여 '사도행전'이라 불리게 되었다.
- (5) 또한 본서의 명칭은 다른 책들과는 달리 수신자의 이름이나 지명을 본따서 붙여진 것이 아니라 본서의 내용에 근거하여 붙여졌다.

7. **㉠** 본서가 신약 성경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해 말하라.

- ㉠** (1) 본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와 바울의 서신을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 (2) 사실 우리가 본서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바울 서신을 이해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살전 2:2에 있는 빌립보에서 당한 바울의 고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6:19-24에 있는 사건을 알아야 하며 살전 3:1, 2에 있는 디모데라는 인물을 알기 위해서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관한 기사 중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바울의 전도 활동을 알아야 한다(참조, 16:1-3).
- (3) 이것을 볼 때 본서는 주의 복음을 이방 세계에 증거하는 바울의 사역을 이해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매우 귀중한 자료임을 알 수 있다.

8. **㉠** 본서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라.

- ㉠** (1) 첫째로 본서는 신약 성경 중 유일한 역사서로서 복음서가 그리스도의 전기를 기록하고 있음에 반해 본서는 사도들 특히 베드로와 바울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초대 교회의 역사서이다.
- (2) 둘째로 본서에는 구약에서 약속된 성령의 역사가 직접적으로 나타난 성령 강림의 역사(役事)가 기록되어 있다(골 3:28, 29).
- (3) 즉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교회를 세우는 원동력이 되었으며(2장) 사도들의 복음 증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 (4) 셋째로 본서는 구약의 율법 중심적인 사고 방식이 신약의 복음 중심적 신앙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10:9-16, 28; 11:1-18; 20:7).
- (5) 넷째로 본서는 로마 세계와 동방의 신비주의 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 기독교의 복음을 증거하는 변증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참조, 10장; 24:24-27, ㉠3).
- (6) 다섯째로 본서는 바울의 행적과 그의 서신을 연구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자료들을 제시해 주고 있다.
- (7) 다시 말하면 본서에는 바울의 회심에서부터(9장) 3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13:4-21:17)과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로마로 끌려가기까지(22:17-28:31) 바울의 모든 전도 활동이 기록되어 있다.
- (8) 마지막으로 본서는 초대 교회의 설립 당시에 활동했던 여러 중요한 인물들이 대거 소개되고 있다. 즉 본서는 베드로(1-12장)와 바울(13-28장) 이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직접 목격한 요한(3장), 야고보(12장), 빌립(8장)과 첫 순교자 스테반(7장), 회심한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시켜 바울의 활동 무대를 마련해 준 바나바(11:24-26)가 소개되고 있다.

9. **㉠** 본서의 중심되는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라.

- ㉠** (1) 본서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앞부분(1-12장)은 베드로의 활동상이, 뒷부분은(13-28장) 바울의 활동상이 기록되어 있다.
- (2) 이중에서 핵심되는 줄거리는 첫째, 성령의 활동이다. 즉 이 성령의 활동은 본서 전체의 줄거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초대 교회가 설립되고 사도들이 능력을 받아 고난 속에서도 담대할 수가 있었다.
- (3) 둘째로 본서에는 초대 교회 성도들의 생활상이 잘 나타나 있는데 이들은 서로 교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 주며 과부들을 구제하기도 하였다(2:43-47; 4:32; 6장).
- (4) 셋째로 본서에는 집사 제도가 생겨난 유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6장) 사도들은 복음 증거와 기도하는 데에 전념하기 위해서 교회를 돌보며 봉사할 수 있는 집사들을 선택하였다.

14 사도행전 서론

- (5) 네째로 본서에는 신약의 복음을 오해한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박해하며 그들의 전도 사역을 끈질기게 방해하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다(7:59;8:1-3;9:1, 2, 22, 23, 28, 29; 14:19;17:5;21:27-36;23:12-14).
- (6) 마지막으로 본서의 후반부(13-28장)에는 바울의 선교 활동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바울의 이러한 활동은 바울 서신(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13 권)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 (7) 그러나 본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방인이라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인데(10:44-48;16:19-34) 이러한 사상은 복음이 이방 세계로 뻗어 나가는 발판이 되었다.

10. ㉠ 본서의 저자가 본서를 기록하기 위해서 참고한 자료(눅 1:3)는 무엇인가?

- ㉠ (1) 본서를 자료에 따라 분류할 때 후반부(16-28장)의 대부분은 바울의 동역자(몬 1:24)인 누가가 직접 바울의 전도 여행에 관여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자료에 의지하지 않고도 쉽게 기록할 수 있었다.
- (2) 그러나 문제는 누가가 직접 목격하지 않은 전반부(1-15장)의 사건을 어떻게 해서 기록할 수 있었느냐는 것이다.
- (3) 한편 성경에서는 누가가 여러 개의 자료를 이용하여 본서를 기록하는 데 참조하였다는 근거가 있다(눅 1:3).
- (4) 그래서 19세기 후반에 활동한 독일 태생의 교회사가(敎會史家)인 하르낙(Adolf von Harnack)은 누가가 안디옥 자료, 바울 자료, 예루살렘-가이사라 자료, 예루살렘 A 자료, 예루살렘 B 자료 등 5가지 자료를 참고하여 기록했다고 주장하였다.
- (5) 또한 20세기 중반에 활동한 영국의 신학자 윌리엄 버클레이(William Barclay)는 예루살렘 교회 자료, 가이사라 교회 자료, 안디옥 교회 자료 등 3자료설을 주장하였다.
- (6) 그러나 이러한 학설 역시 불확실하며, 다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베드로의 설교 부분(2:14-36;3:11-26;4:8-12;10:34-43;11:1-18;15:6-11)이 그의 동역자인(참조, 벤전 5:13) 마가에 의해, 예루살렘 교회의 전반적인 활동(15장)이 바나바에 의해, 사마리아 전도 활동에 관한 기사(8:4-13)가 빌립에 의해, 스테반의 설교와 순교에 관한 기사(7장)가 바울에 의해서 누가에게 알려졌다는 것이다.
- (7) 결국 누가는 마가, 바나바, 빌립, 바울의 자료와 증언을 참고로 하여 본서의 전반부(1-15장)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8) 뿐만 아니라 누가는 바울의 전도 여행에서 직접 목격하지 못한 부분을 바울의 동역자인 디모테나 실라, 아굴라·브리스길라 부부, 가이오(19:29)에게 의존하여 기록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11. ㉡ 본서의 저자인 누가에 대해서 소개하라.

- ㉡ (1) 누가는 수리아의 안디옥에서 태어난 헬라인으로서(11:20) 직업은 의사였다(골 4:14).
- (2) 그가 언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는 잘 알 수 없으나 그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에서 바울과 동행하였고(16:10, 11) 그 후 바울의 동역자(몬 1:24)로서 빌립보 전도(16:40)에도 참여할 정도로 열심있는 자였다.
- (3) 또한 그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바울과 동행하였으며(20:6; 21:17) 바울이 로마로 잡혀가서 옥중 생활을 할 때도 끝까지 그와 함께 있을 정도로 의리있는 신앙인이었다(27:1-28:16; 담후 4:11).
- (4) 그의 마지막 생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그는 에베소나 비두니아에서 84세를 일기로 편안히 죽었다는 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5) 한편 누가의 문학적 자질과 그의 인격에 관해서는 누가복음 서론 ㉠2를 참조하라.

12. ㉠ 본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성령의 역사(役事)는 초대 교회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 ㉠ (1)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2:1-4)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은 사도들은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교회를 설립하고 이방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 (2) 즉 그리스도가 죽은 뒤 두려움에 떨던 사도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였는데(2:14;4:31) 그 실례로 스테반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복음을 위해 순교하였으며(7:55, 56),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하였다(8:29).
- (3)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성령 계시를 통해 가이사라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증거하였고(10:19)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의 도움으로(11:24, 25) 바울은 세계 선교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결국 이 바울에 의해 이방 세계가 주의 복음을 접하게 되었다.
- (4) 이와 같이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 결과 예루살렘과 주변에 있는 이방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생기게 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바로 성령의 역사이다.
- (5)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본서가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 하여 본서를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Thiessen).

13. ㉠ 본서와 바울 서신 사이의 공통되는 내용을 서로 비교하라.

본서	내용	바울 서신
8:3;9:1-10	바울의 회심	딤후 1:13-16
9:23-25	바울이 다메섹에서 도피하다	고후 11:32, 33
9:28;15:2;20:16;24:17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다	롬 15:25, 26; 갈 1:17, 18;2:1
14:19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들에 맞다	고후 11:25
17:5-9	테살로니가에서 핍박받는 바울	살전 3:4
17:16	바울이 혼자서 아덴을 떠나다	살전 2:18;3:1, 6, 7
18:1;20:2	두번째 고린도를 방문하다	고전 2:1;4:19;16:5
18:24-28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사역하다	고전 1:12;3:6
19:20, 26	에베소에서 복음의 문이 열리다	고전 16:9
19:29, 30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우다	고전 15:32
19:33	은장색 알렉산더	딤후 4:14
20:2	일루리온에서 복음을 전파하다	롬 15:19
20:4	에베소 성도에게 유명한 두기고	엡 6:21
20:4	밀레도에 남겨진 드로비모	딤후 4:20
28:16-20	옥에 갇힌 바울	엡 6:19, 20

14. ㉠ 본서 후반부(13-28장)의 핵심 인물인 바울에 대해서 소개하라.

- ㉠ (1) 바울은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히브리인으로서(롬 11:1) 로마의 식민지인 길리기아의 수도 다소에서 태어나(22:3) 어려서부터 이방 문화와 로마의 풍속을 익히며 로마 시민으로서 성장하였다(22:7).
- (2) 그 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가말리엘 문하(門下)에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받았는데 그는 이때 배운 교훈으로 기독교인을 박해할 정도로 율법에 열심을 갖게 되었다(8:3;22:3).

16 사도행전 서론

- (3) 그러나 다메섹 도상(道上)에서 회심(回心)한 바울은(9장) 아라비아로 가서 3년간 훈련을 쌓은 뒤(갈1:17)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세 차례나 전도 여행을 다닐 만큼 훌륭한 하나님의 일군이 되었다.
- (4) 그리고 세번째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은 그를 시기하는 유대인들의 손에 붙잡혀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오게 되었으나 그는 오히려 이것을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을 만큼 복음에 열심을 가진 자였다(27, 28장).
- (5) 그 뒤 로마 감옥에서 석방된 바울은 소아시아와 서바나를 방문한 후 또다시 체포되어 A. D. 65년경에 순교했는데 이것을 볼 때 바울은 죽는 순간까지 복음을 위해 애쓴 자였음을 알 수 있다.

15. ㉠ 세 차례에 걸친 바울의 전도 여행의 행선지와 그 지역에서 일어난 중요 사건을 간단하게 도표로 작성하라.

A		행 선 지	중요 사건 및 특기 사항	해당 구절
1차 전도	안 디 옥	1차 전도 여행 출발지로서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가 함께 떠남	13:1-3	
	실 루 기 아	배를 타고 구브로로 향함	13:4	
	구 브 로		13:4	
	살 라 미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함	13:5	
	바 보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함	13:6-12	
	버 가	밤빌리아에 있는 지역. 마가 요한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감	13:13	
	안 디 옥	비시디아에 있는 지역. 안식일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함.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함	13:14-51	
	이 고 니 온	회당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함. 유대인과 이방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들로 치고 능욕함	13:51-14:5	
	루 스 드 라	루가오니아 지역에 있는 성. 앓은병이름 고친 후 쓰스와 허메로 인정받고 섬김을 받음	14:6-18	
	더 베	루가오니아 지역에 있는 성. 여기서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밤빌리아, 버가, 앓달리아로 돌아가 앓달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에 돌아옴으로 1차 전도 여행 마침	14:20-26	
2차	안 디 옥	바울과 바나바가 다룬 후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 지역으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떠남(2차 전도 여행 시작)	15:35-41	
	더 베	루가오니아 지역에 있는 성	16:1	
	루 스 드 라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함	16:1	
	이 고 니 온		16:2	
	드 로 아	바울이 환상을 봄	16:6-8	
	네 압 불 리	사모드라게에 있는 지역	16:11	
	빌 림 보	로마의 식민지로 마게도나 지경의 첫 성. 자주 장사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함. 점치는 귀신들린 여종을 고쳐 주고 감옥에 갇혔으나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림	16:12-40	
	암 비 불 리		17:1	
아 불 로 니 아		17:1		

전 도	데살로니가	세 번에 걸쳐 안식일에 회당에서 강론함. 시기한 유대인들이 야손의 집에 있는 바울과 실라를 찾아왔으나 찾지 못함	17:1-9
	베뢰아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뢰아까지 쫓아와서 소동함	17:10-13
	아덴	실라와 디모데는 베뢰아에 있고 바울은 아덴으로 와서 철학자들과 논쟁함	17:14-34
	고린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집에 거주함. 실라와 디모데를 만남. 1년 6개월을 머무름	18:1-17
	겐그레아	서원한 대로 머리를 깎음	18:18
	에베소	회당에서 유대인과 변론함	18:19-21
	가이사라		18:22
	예루살렘	2차 전도 여행을 마침	
3 차 전 도	안디옥	3차 전도 여행 출발	18:22
	갈라디아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님	18:23
	브루기아	"	18:23
	에베소	알렉산드리아 사람 아블로가 회당에서 가르침. 은장색 데메드리오로 인하여 큰 소동이 일어남	18:24-19:41
	마게도냐 아가야	2차 여행 때 방문한 지역을 두루 다님	20:1-6,
	드로아	유두고를 살림	20:7-12
	앗소		20:13, 14
	미들레네		20:14
	기오		20:15
	사모		20:15
	밀레도	에베소에 있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강연함	20:17-38
	고스		21:1
	로도		21:1
	두로		21:7
	둘레마이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하루를 묵음	21:7
	가이사라	전도자 빌립의 네 딸이 예언함	21:8-14
예루살렘	3차 전도 여행 끝. 유대인이 바울을 죽이려 함	21:15-40	

16. ㉠ 본서에 기록된 중요한 사건과 초대 교회 설립 당시 기독교에 영향을 미친 사건들을 연대별로 도표화하라.

㉠ (1)

연대(A.D.)	사	권	참조 구절
30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오순절의 성령 강림		1, 2장
34	스테반의 순교 후 믿는 자들이 뿔뿔이 흩어짐. 바울이 회심하여 아라비아로 감		7장; 갈1:17
36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세례받음		10장
43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목회함.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겨남		11:26
44	헤롯 아그립바 1세에 의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당함		12:1, 2
45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어 49년에 끝남		13:4

48	예루살렘 종교 회의	15:6-29
50	바울의 2차 전도 여행(52년에 끝남)	15:30
51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임명됨	18:12
52	벨릭스가 유대 총독이 되다	24:24
53	바울의 3차 전도 여행(58년에 끝남)	18:23
58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되다	21:27
59	바울이 로마로 호송됨. 베스도가 유대 총독이 되다	25:1;27:1
61	바울이 로마에서 무옥되다	28:30, 31
63	바울이 로마에서 석방됨	
64	네로의 기독교 박해해.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당함	

(2) 단 위 도표의 연대는 학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

17. ㉠ 본서의 대지름 구분하라.

㉠ (1) 예루살렘에서 증거되는 복음 / 1:1-8:3

- ① 부활하신 예수 / 1:1-26
- ② 오순절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 / 2:1-47
- ③ 얇은빵이를 일으키는 베드로와 요한 / 3:1-26
- ④ 박해가 시작됨 / 4:1-37
- 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과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 / 5:1-42
- ⑥ 집사를 임명함 / 6:1-7
- ⑦ 첫 순교자 스테반 / 6:8-8:3
 - 가. 기적을 행하는 스테반 / 6:8-15
 - 나. 스테반의 설교 / 7:1-53
 - 다. 스테반의 순교 / 7:54-8:3

(2) 팔레스틴과 수리아에서 증거되는 복음 / 8:4-12:25

- ① 각지로 흩어지는 성도들 / 8:4-40
- ② 바울이 회심함 / 9:1-31
- ③ 이방인의 개종 / 9:32-11:30
 - 가. 베드로의 준비 / 9:32-10:22
 - 나. 베드로의 설교 / 10:23-48
 - 다. 베드로의 변론 / 11:1-18
 - 라. 안디옥 교회 / 11:19-30
- ④ 헤롯이 기독교를 박해함 / 12:1-25

(3) 땅 끝까지 전파되는 복음 / 13:1-28:31

- ① 제 1차 전도 여행 / 13:1-14:28
- ② 예루살렘 종교 회의 / 15:1-35
- ③ 제 2차 전도 여행 / 15:36-18:22
- ④ 제 3차 전도 여행 / 18:23-21:26
 - 가. 에베소 / 18:23-19:41
 - 나. 마게도냐 / 20:1-5
 - 다. 소아시아 / 20:6-38
 - 라. 밀레도에서 가이사라까지 / 21:1-14
 - 마. 예루살렘 교회와 바울 / 21:15-26
- ⑤ 로마 여행 / 21:27-28:31

- 7. 바울의 체포와 변론/21:27-22:29
- 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선 바울/22:30-23:10
- ㄷ. 가이사랴로 호송됨/23:11-35
- ㄹ. 벨릭스 총독 앞에 선 바울/24:1-27
- ㄹ. 베스도 총독 앞에 선 바울/25:1-27
- ㅂ. 아그립바 왕 앞에 선 바울/26:1-32
- ㅅ. 바울의 항해/27:1-44
- ㅇ. 멜리테에서 로마까지/28:1-16
- ㅈ. 바울의 로마 생활/28:17-31

18. ㉠ 본서의 요절은 무엇인가?

- ㉠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權能)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證人)이 되리라 하시니라’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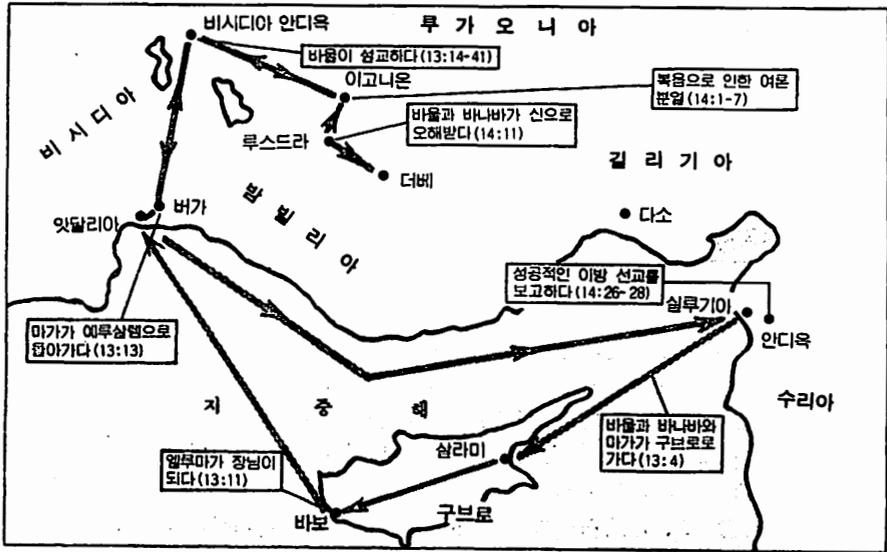
연구자료

기독교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기독교에 있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成肉身) 사건만큼이나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이 사건으로 인해 팔레스틴 땅에 떨어진 복음의 불씨가 소아시아, 마케도니아, 로마, 전세계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일찌기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승천한 후 그들에게 보혜사(保惠師)를 보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요15:26). 또한 그는 승천하시기에 앞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1:4),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1:8)고 말씀하셨다. 이 같은 말씀을 좇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한 곳에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던 제자들에게 마침내 보혜사 성령이 임하셨다(2:1-4). 이후 제자들은 핍박과 옥에 갇히는 것을 불사하고 각처에 돌아다니며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참조, 4:18-21). 이런 점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선지자 요엘의 예언(욥2:28-32)이 성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몽든 이처럼 강림하신 성령께서는 빌립(8:29, 30), 베드로(10:19; 11:12), 바울(13:2; 16:6) 등과 같은 못 사람들을 인도하시어 복음을 들고 세계 각처로 흩어지게 하셨다. 그 같은 역사의 한 결과로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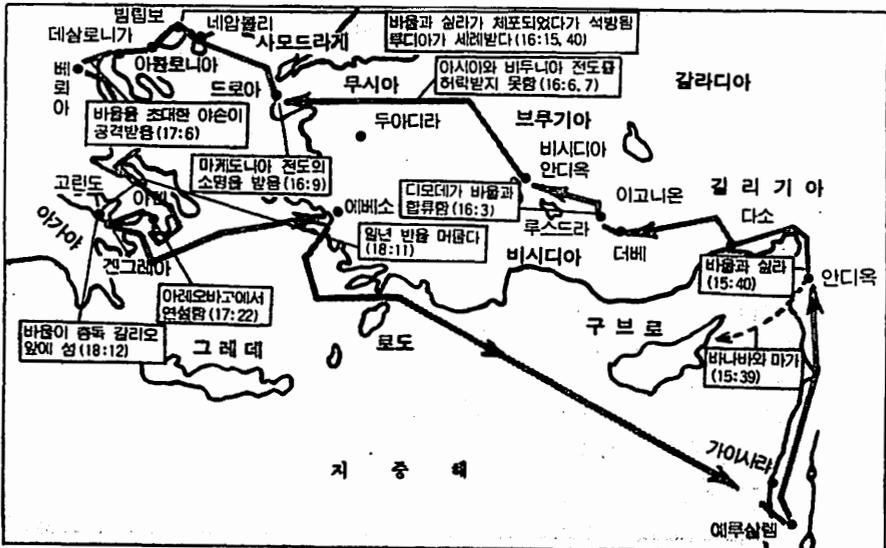
지도자료

바울의 전도 여행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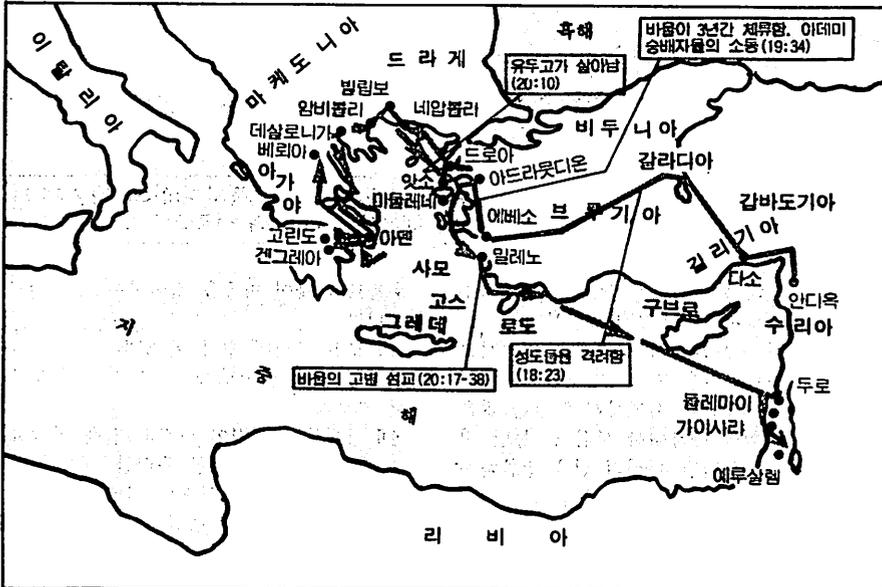
1. 1차 전도 여행 (A.D.46-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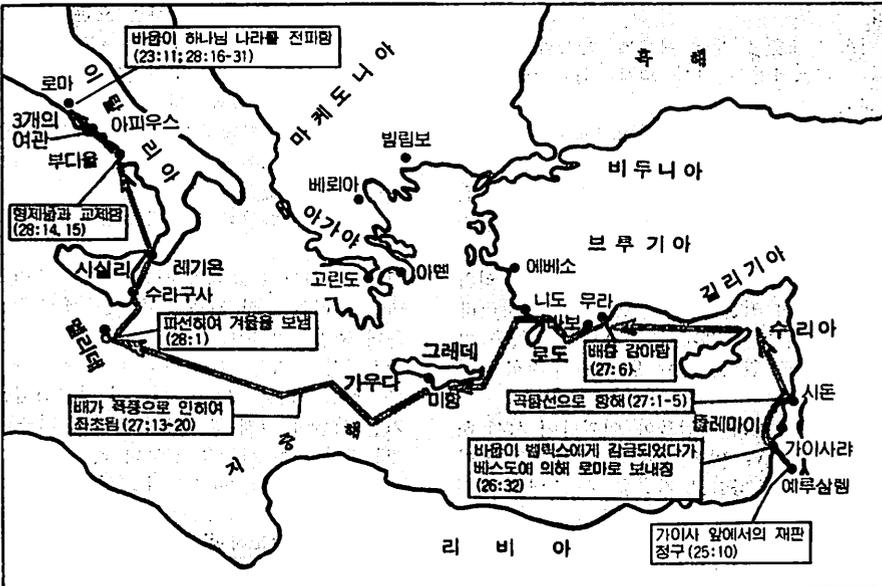
2. 2차 전도 여행 (A.D.50-52)



3. 3차 전도 여행 (A.D.53-57)



4. 로마 여행 (A.D.59-62)



바울의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 지역과 헬라 지역의 복음화를 이룩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복음은 이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하여 온 세계로 퍼져 나가야만 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하여 바울을 당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로 여행케 하셨다(참조, 28: 16-31).

제 1 장 제자들이 성령 강림을 기다리다

단락구분 1-5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행적을 회상하다 / 6-11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다 / 12-14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에 힘쓰다 / 15-26 거짓 유다를 대신하여 맞디아가 선택되다

1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2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3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사실 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6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7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9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희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10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11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12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13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매, 마태와 밋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켈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

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히 기도에 힘쓰니라
 15 모인 무리의 수가 한 일백 이십 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16 형제들이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17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18 이 사람이 불의의 값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몹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19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벨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20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21 이리하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22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23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맞디아라
 24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못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25 봉사와 밋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26 제비뽑아 맞디아를 얻으니 저가 열 한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1.  본장이 본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설명하라.

- Ⓐ (1) 본서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기록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먼저 쓴 글 곧 누가복음(눅 1:1-4)에 언급하였음을 밝히면서(1절) 그는 본장에서 증거의 사명이나 사도들, 성령 그리고 부활·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 핵심을 이루는 네 가지 중요한 요건들을 주의 깊게 나타내고 있다.
- (2) 이와 같은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는 본장에는 특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데 원동력이 된 성령의 강림이 약속되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을 체험하기 위해 기도예 전념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 (3) 더우기 본장에는 본서 전체의 요약이며 주제라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지상 명령(The Great Commandment) 곧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權能)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證人)이 되리라’는 말씀이 있다.
- (4) 이와 같이 본장에는 예수께서 승천하시지만 성령을 통해 역사(役事)를 계속하시겠다는 약속이 언급되어 있으며, 그 역사의 방법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요 14:16; 15:26)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골 1:18)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主)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부여하실 것이라는 내용이 예시되어 있다.
- (5) 결국 성령행전이라 불리우기도 하는 본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교회와 선교에 대한 이해가 선행(先行)되어야 하며 이 개념들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이 명시(明示)되어 있는 본장을 이해해야 하므로 본장이 본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큰 것이다.

2. ㉠ 본장에서 가장 중심되는 내용은 무엇인가?

- Ⓐ (1)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한 곳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기에 힘썼다(4, 12-14절)는 것이다.
- (2) 한편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는데(8절)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만 하고 있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진다.
- (3)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교훈이 있다. 즉 제자들은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먼저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이 우선되어야 했다.
- (4)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전에 먼저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간구했던 것이다.
- (5)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먼저 자신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4:8, 31).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3. ㉠ 본서의 수신인(受信人)으로 언급되어 있는 ‘데오빌로’는 어떤 인물인가? (1절)

- Ⓐ (1) 데오빌로(Theophilos)는 본서의 전면(前篇)이 되는 누가복음과 함께 본서의 수신인으로 누가복음 첫머리에 ‘각하’(눅 1:3)의 칭호를 가진 어떤 유명한 인물이다.
- (2) ‘데오빌로’란 이름에는 <데오스>+<필로스>(Theos + philos),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실제로 생존했던 역사적인 인물이라기 보다는 열렬한 신앙을 가진 기독교 지도자에게 보내는 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Bruce).
- (3) 그러나 ‘각하’라는 존칭은 아래와 같은 특정 인물에게만 해당된다.
- (4) 첫째, ‘각하’라고 부를 만한 관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로마 지역 내에서는 총독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이어야 하였다. 그런데 본서에서 그만한 지위에 있는 인물들은 유대 지방 총독들인 벨릭스(23:26; 24:3)와 베스도(25:1; 26:25)가 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데오빌로가 아닐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 (5) 둘째, 만일 그렇지 않으면 도미티안(Domitian) 황제의 조카인 디도 플라비우스 클레멘스(Titus Flavius Clemens)가 예수를 믿게 된 후에 기독교식 이름으로 고쳐 부른

24 사도행전 1장

이름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는 그의 아내 도미틸라(Domitila)와 함께 독실한 신앙인이었다가 도미티안에 의해 A. D. 96년에 순교하였던(Streeter) 사람이다.

- (6) 세째, 그는 아가야 지방 총독으로 누가의 전도를 받고 회심한 사람인데 그의 말년에 누가의 출생지인 안디옥(Antioch)에서 부유한 가정 생활을 하며 교회에 충성을 다하여 감옥까지 되었다고도 한다.
- (7) 그리고 어떤 사람은 A. D. 37-41년 사이에 유대인 제사장 가운데 이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고 하여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 아닐까 하는 추측도 한다(Eisler).
- (8) 그러면 데오빌로는 과연 누구일까? 어떤 사람일까? 우리는 ‘데오빌로’란 사람이 누구였는지 단정(斷定)짓기 어렵지만 단지 실재한 사람이었다는 것과 로마의 관리로서 기독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가 있는 사람이었으며 이렇게 기독교의 변증적 문서를 받으므로 선교에 많은 영향을 끼친 자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4. **㉠** 저자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본서를 보내기 전에 보냈던 글에는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1, 2절)

- ㉠** (1) 거기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이 기록되어 있다.
- (2) 이 내용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으로서 누가는 본서를 데오빌로에게 보내기 이전에 누가복음을 동일 인물인 데오빌로에게 보낸 적이 있다(A. D. 58).
- (3) 즉 누가가 이전에 데오빌로에게 보냈던 글에는 그리스도의 공생애 전반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 (4) 이와 같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소개한 것은 데오빌로가 이미 들은 복음 가운데 더욱 굳건히 서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눅 1:4).
- (5)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써 자신을 훈련시킬 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형제들을 더욱 격려하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참조, 벰전 1:1, 2; 요일 1:3, 4).

5. **㉠** ‘성령으로 명하시고’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2절)

- ㉠** (1)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성령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뜻이며 동시에 그의 사역이 성령에 의해 계속되어질 것을 예시(豫示) 한다.
- (2)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며(마 1:18) 세례를 받은 뒤 성령의 능력을 받았고(마 3:16) 성령에게 인도되어 40일간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도 하셨다(마 4:1, 2).
- (3)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의 능력을 받았으며 그는 성령에 의지해서 사역을 행하셨다.
- (4)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다(참조, 눅 24:49; 요 20:22).
- (5)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은 성령의 도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참조, 속 4:6).
- (6)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 힘써야 한다(2:38; 눅 11:3).

6. **㉠** ‘해 받으신’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3절)

- ㉠** (1) 이 말의 원어의 뜻은 불변의 고난을 말하며 완전한 의미의 고통으로서 죽음까지 내포하여 말한다.
- (2) 그러므로 ‘해 받으신’이란 예수께서 인간들의 질고(疾苦)를 대신 지시고 온갖 멸시와 수난을 당하시면서(사 53:1-9) 세상 죄를 자신이 몸소 담당하사 십자가 위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신 죽음을 의미한다.

- (3) 또한 이 치명적인 고난 후에 친히 사심을 나타내심은 그 죽음에서 부활까지의 사실을 포함한다.
- (4) 한편 고전 15:5-7에서의 바울과 같이 본서 저자인 누가는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살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다.
- (5) 성도들은 먹보다 더 검은 죄를 대신 사(赦)해 주사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 예수께 감사해야 할 것이며 그분의 부활 사실을 확신하고 증거해야 한다. 이것이 믿음이다.

7. **㉠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주로 하신 일은 무엇인가? (3절)**

- ㉠** (1) 당신께서는 40일 동안 친히 부활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 (2) 즉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 무덤에 찾아온 마리아와 여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셨으며(마 28:9; 막 16:9),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막 16:12; 눅 24:13-35)와 음식을 먹고 있던 11제자에게(막 16:14; 눅 24:36-43; 요 20:19-29) 그리고 고향인 갈릴리로 돌아가 고기를 잡고 있던 여러 제자들에게 오셔서(요 21:1-23) 부활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 주셨다.
- (3)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뒤 천국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지만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하시면서(막 16:16) 제자들에게도 이 천국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도록 명령하셨다(8절; 마 28:19, 20; 막 16:15).
- (4)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부활 후 40일간을 줄곧 자신의 부활 사실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다.
- (5) 이와 같이 성도들도 그리스도께서 만민에게 전하기 원하셨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참조, 2:23, 24, 32; 3:14, 15; 4:33; 10:39-41; 13:30; 17:2, 3; 롬 1:4).

8. **㉠ 그리스도는 모여 있는 제자들에게 무슨 당부를 하셨는가? (4절)**

- ㉠** (1) 당신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다.
- (2) 여기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지 말고 한 곳에 모여서 신앙의 훈련을 쌓으라는 의미이다. 더우기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신 말씀(사 2:3; 미 4:2)을 온전케 하시려는 뜻도 있다.
- (3) 또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란 성령의 강림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하나님에 의해 보내어지기로 되어 있었다(요 14:16; 15:26; 16:7).
- (4) 결국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여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에(14절)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다(2:1-4).
- (5) 그러므로 성도들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함께 모여 날마다 기도하기에 힘써야 한다(2:42; 10:2, 3; 16:25, 26). 만일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없다(8절).

9. **㉠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세례는 어떤 세례인가? (5절)**

- ㉠** (1) 당신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 (2) 한편 성령 세례는 요한의 물세례와 비교되는 것으로서 물세례가 죄를 씻는 외적인 의식이라면(마 3:10; 막 1:8; 눅 1:16) 성령 세례는 내적으로 회개시키고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이다(롬 6:4).
- (3) 그렇기 때문에 물세례는 개인의 의지에 따라 받을 수 있지만 성령 세례는 전적으로 하

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 (4) 뿐만 아니라 물세례는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외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외적인 표현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고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는 물세례를 받을 수도 없고 설사 받는다 하더라도 이 세례는 아무 의미가 없다.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에 이르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세례에 임해야 한다(참조, 롬6:4; 고전12:13; 갈3:27; 골2:12; 벧전3:21).

10. ㉠ 제자들은 예수에게 어떤 질문을 하였는가? (6절)

- ㉠ (1) 그들은 예수에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라고 질문하였다.
- (2) 이것은 제자들이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착각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날이 지금이 아닌가 하는 의도에서 던진 질문이다.
 - (3) 그러나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즉 하나님을 믿는 자가 차지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 (4)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사회나, 경제사적인 입장에서 눌린 자의 해방자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
 - (5)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목적을 넘어서서 죄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전인격의 해방자이다(마1:21).
 - (6) 그러므로 성도들은 올바른 메시아관을 확립하여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참조, 요18:36; 히1:8; 계11:15).

11. ㉠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그리스도는 어떻게 답변하셨는가? (7절)

- ㉠ (1) 그리스도께서는 ‘때와 기한(期限)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라고 말씀하셨다.
- (2) 여기서 ‘때’를 의미하는 헬라어 <크로노스>는 마지막 날에 임할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때까지의 일정한 기간을 가리키며, ‘기한’을 의미하는 헬라어 <카이로스>는 불분명하나 특정한 하나의 시간을 가리키는 말로서 마지막 때를 나타내고 있다.
 - (3) 결국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의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마지막 날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 (4) 그러므로 성도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런지 알지 못하지만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그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참조, 마24:36, 50; 25:13; 눅12:40; 살전5:2; 계3:3; 16:15).

12. ㉠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은 무엇인가? (8절)

- ㉠ (1)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 (2) 한편 그리스도는 때와 기한을 묻는 제자들에게 해야 될 한 가지 일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일이었다(참조, 마28:19, 20).
 - (3) 즉 주의 나라가 임할 때와 기한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알 수 없지만 그때와 기한은 언젠가 반드시 다가오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날을 위해서 복음 증거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 (4) 또한 여기서 땅 끝이란 구약 성경에서는 모든 국가를 가리켰는데(참조, 시2:8; 19:4; 사48:20; 스9:10) 혹자에 의하면 본서에 언급된 ‘땅 끝’이란 로마 내지는 사도 바울이 전도를 계획했던 서바나(롬15:23)라고 주장한다.

- (5) 여하튼 이 땅 끝은 오늘날까지도 복음이 알려지지 않은 전세계에 있는 모든 지역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 (6)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때와 기한은 우리 자신들도 알 수 없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 마지막 날을 위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참조, 마 24:14; 28:19; 막 13:10; 16:15; 눅 24:47; 골 1:23; 계 14:6).

13. **㉠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至上命令)인 ‘오직 성령이 …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교훈하는 바는 무엇인가? (8절)**

- ㉠** (1) 이 말씀은 예수 자신에게서 나온 직접적인 위임 명령으로써 사실상 주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실로 최종적이며 또한 절대적인 권위를 지닌 유언이기도 하다.
- (2) 한편 이 말씀은 문장 구조상 병렬식(並列式)이면서 점차 어의(語意)를 높여 강조하는 점층법(漸層法)으로 되어 있어 듣는 이로 하여금 깊은 인상을 받게 한다.
- (3) 그리고 ‘너희가’로부터 시작하여 ‘예루살렘’과 ‘은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그 선교 영역이 확산되어 가리라는 말씀을 통해 복음 전파는 우리가 소속해 있는 지역에서부터 출발하여 범 우주적으로 퍼져 나가야 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 (4)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본을 보인 사람은 바울이다. 그는 자신이 회심한 후 자신의 지역 사회인 안디옥에 복음을 전하고 그 이후 소아시아와 구라파로 그리고 당시 세계의 수도인 로마까지 진출했기 때문이다.
- (5)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이 모든 신실한 성도들 위에 내려진 하나의 사명이자 예수께서 재림(再臨)하실 때까지 지역과 이념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전파하라(참조, 마 24:14)는 명령으로 믿고 복음 전파의 대상과 우선 순위에 집착하기 보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邁進)해야 할 것이다(참조, 마 28:19; 막 13:10; 16:15; 눅 24:47; 계 14:6).
- (6) 결국 이 말씀은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을 간단하고도 신중하게 나타낸 것이며 예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데 교회는 선교의 초점을 예수께 두라는 일종의 선교적 사명이다. 또한 교회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고 능력을 부여하시는 분은 전에 예수의 공생애 사역을 인도하셨고 또 불러들여 주셨던 바로 그 성령이시라는 사실이다.

14. **㉠ ‘증인(證人)이 되리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8절)**

- ㉠** (1) 이 말은 이미 예수께서 눅 24:48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사건을 전파하는 자가 되리라는 뜻이다(참조, 5:32; 벰전 5:1).
- (2) 즉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의 약속을 기다리던 자들이 예수에 의해서, 예수를 위하여, 예수에 관해서 증거하는 자가 되리라는 말이다(참조, 계 1:5).
- (3) 한편 22:20과 계 17:6을 보면 증인은 순교자의 대명사로 사용되고 있으며, 요일 1:1의 증인은 예수에 대해 듣고, 보고, 만져 본 자를 의미하고 있다.

15. **㉠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의 모습을 묘사해 보라(9, 10절).**

- ㉠** (1)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리스도의 몸은 구름에 가리워졌고 그 주위에는 두 명의 흰옷 입은 사람이 호위하고 있었다.
- (2) 여기서 흰옷 입은 두 사람은 천사를 가리키는데 천사는 성경에서 대부분 사람의 모습으로 묘사되었다(10:30; 창 18:2; 19:1; 마 28:3; 눅 24:4; 계 21:17).
- (3) 그리고 구약에서 구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서 임재하실 때 주로 나타났다(출 13:21; 16:10; 왕상 8:10; 단 7:13).
- (4) 이와 같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지상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

고 영광 가운데에서 승천하셔서 당신이 제셨던 곳으로 돌아가셨다.

- (5)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 때 결국에는 영광 가운데에서 영원한 주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참조, 고전 9:25; 딤후 4:7, 8; 약 1:12; 벰전 5:4; 계 2:10).

16. **㉠** 그리스도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지켜 보는 제자들에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는가? (11절)

- ㉠** (1)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은 제자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고 하였다.
- (2)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호위하던 천사들은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 즉 천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구름 가운데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재림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 (3) 그리스도께서는 초림(初臨) 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과는 대조적으로(눅 2:7) 재림(再臨)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영광스런 모습으로 오신다(참조, 마 16:27; 25:31, 32; 골 3:4; 살전 3:13; 4:16; 딤텔 2:13).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마지막 날에 주의 재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생활을 경건하게 하여 주 앞에서 아무 흠없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참조, 눅 12:37; 요 14:3; 빌 3:20, 21; 골 3:4; 살전 3:13; 4:16; 벰전 5:4; 요일 3:2).

17. **㉠**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승천을 목격한 장소는 어디인가? (12절)

- ㉠** (1) 제자들은 감람원(橄欖園)이라 하는 산에서 그리스도의 승천을 목격하였다.
- (2) 여기서 ‘감람원이라 하는 산’은 감람산이라는 말로서(참조, 삼하 15:30; 슥 14:4; 마 21:1; 24:3; 26:30; 요 8:1) 감람나무, 즉 올리브나무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3) 이 지역은 예루살렘의 남동쪽에 위치해 있으며 또한 그 남쪽에는 죽었다가 4일 만에 살아난 나사로의 고향 베다니가 있는데(요 12:1, 2)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시기 전 하루를 이곳에서 쉬기도 하셨다(마 26:1-6).
- (4)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신 후 로마 병정에게 체포되었던 갓세 마네 동산이 있는 곳도 바로 이 감람산이었다(마 26:30, 36).
- (5) 이와 같이 감람산은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는 데 주요 활동 무대였다(참조, 눅 21:37).

18. **㉠** 예수께서 승천하신 감람산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되는가? (12절)

- ㉠** (1) 그 거리는 ‘안식일(安息日)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 (2) 그렇다면 약 2천 규빗, 즉 1km에 미치지 못하는 거리이다.
- (3) 랍비들은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걸을 수 있는 거리를 제한했는데, 이 같은 거리 계산은 민 35:5로 해석된 출 16:29에 근거를 두고 있다.

19. **㉠** 예수의 승천을 목격한 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은 누구인가? (13절)

- ㉠** (1) 그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태와 밋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이다.
- (2) 이들은 예수의 11제자로서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밀고한 뒤 자살했기 때문에 이 명단에서 빠져 있다(참조, 15-18절).
- (3) 한편 이 명단을 마 10:2-4, 막 3:16-18, 눅 6:14-16에 있는 제자들의 이름과 비교할 때 약간의 차이가 있다.
- (4) 즉 이 4개의 명단은 순서에 있어서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별로 문제 되지 않는다. 그러나 본절과 누가복음에서는 다대오라는 이름 대신에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다.

- (5)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유다가 예수의 형제라고 주장하나 그 다음 절(14 절)에서는 따로 예수의 형제들이 언급되어 있고 예수의 아우들도 처음에는 예수를 불신했기 때문에(요 7:5) 제자들의 명단에 끼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 (6) 결국 이 유다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나오는 대대오와 동일 인물로 추측된다.
- (7) 뿐만 아니라 본절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셀롯인 시몬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가나안인 시몬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셀롯’은 셈 계통의 언어에서, ‘가나안’은 아람어 <카나나>에서 온 말로서 둘 다 ‘열심당원’이란 시몬의 과거 신분을 가리키는 말이다.
- (8) 이것을 볼 때 본절에 있는 제자들의 명단은 공관 복음에 나오는 제자들의 이름과 순서만 다를 뿐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0. ㉠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기도한 자들은 누구인가? (14 절)

- ㉠ (1) 그들은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었다.
- (2) 여기서 여자들이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 사형장까지 쫓아간 여자들, 즉 일곱 귀신에 사로잡혔었던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인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세베대의 아내이며 사도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 헤롯의 아내 요안나와 또 수산나 등을 말한다(참조, 마 27:55; 막 15:40; 눅 8:3; 23:49; 24:10; 요 19:25).
- (3) 또한 예수의 아우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와 적어도 2명 이상의 누이를 가리키는데(참조, 마 13:55, 56) 이들은 예수의 생전에 예수를 믿지 않았으나 이들 중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 중 한 사람이요(참조, 15:13)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뒤 신실한 주의 종이 되었다(고전 15:7).
- (4) 한편 이들은 주께서 승천하신 뒤 모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에 힘썼다.
- (5) 그 결과 그리스도의 승천 후 10여 일이 못 되어 오순절에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마가의 다락방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
- (6) 결국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열심과 성령의 역사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 동인(動因)이 되었다.
- (7)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교회를 발전시키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써야 한다(2:1; 4:32; 5:12).

21. ㉠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며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의 생활 모습은 어떠했는가? (14 절)

- ㉠ (1) 그들은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祈禱)에 힘썼다’(참조, 2:42; 6:4).
- (2) 여기서 ‘여자들’이란 예수의 사역 기간 동안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지내실 때까지 계속 따라다닌 믿음과 지조있는 여인들을 가리킴이 분명하다(참조, 눅 8:2, 3; 23:49; 24:10).
- (3) 이와 같이 제자들은 자기들만의 신앙을 고집하지 않고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였던 것이다.
- (4) 오늘날 성도들은 자기의 신앙만이 정통이며 보수라는 아집과 편견에서 탈피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主)라 시인(是認)하며 고백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동역(同役)해야 한다(참조, 출 17:12; 사 20:11; 삼상 14:6, 7; 스 10:4; 마 18:19; 막 2:3; 빌 4:3).

22. ㉠ 다락방에 모인 무리의 수(數)는 몇 명이었는가? (15 절)

- ㉠ (1) 다락방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며 전혀 기도에 힘쓴 사람은 120 명이었다.
- (2)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과 예수의 친척들 그리고 예수를 따라다녔던 여자들과 기타 예

수에 대해 신앙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을 것이다.

- (3) 여기서 ‘다락’이란 낱말이 성전의 다락을 가리키기도 하나, 이 다락은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을 잡수신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Alford, Bruce, Vincent 등).
- (4) 한편 한 집의 다락방에 과연 120명이란 적지않은 사람을 수용(收容)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예수의 약속을 믿고 성령을 사모하고 갈망(渴望)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 (5)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은 그들은 성령을 간절히 소망하며 한 장소에 모여 합심 기도를 하였던 것이다.

23. **㉠** 베드로는 가롯 유다의 죽음을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는가? (15, 16 절)

- ㉠** (1) 그는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指路)한 유다의 행실을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의탁(依托)하여 말씀하신 성경을 용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2) 즉 베드로는 유다의 행동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한 것이라고 하였다.
- (3) 그렇다고 해서 유다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밀고한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이 결과적으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 되었다.
- (4) 한편 학자들은 유다에 관해서 예언된 구약의 내용이 시 69:25; 109:8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유다의 최후를 예언한 것으로서 베드로는 다윗이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유다의 최후를 예언한 것이라고 하였다.
- (5)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베드로 자신이 구약 성경을 성령의 영감에 의해 기록된 것으로 믿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진 모든 일들을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믿었다는 사실이다(참조, 행전 1:20, 21).
- (6)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도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저자들에게 의해 기록되었으며 구약의 예언은 신약을 향한 준비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참조, 출 4:12; 민 11:25; 삼하 23:2; 왕상 22:14; 대하 20:14; 24:20; 사 51:16; 렘 1:9, 10; 5:14; 20:9; 겔 3:17; 11:5; 미 3:8).

24. **㉠** 가롯 유다의 최후는 어떠하였는가? (18, 19 절)

- ㉠** (1) 은 삼십에 예수를 판 가롯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살하였으며 그가 죽기 전에 성전에 맡긴 은 삼십은 피발을 구입하는 데 사용되었다(참조, 마 27:3-10).
- (2) 한편 유다의 자살 장면을 묘사한 이 두 귀절은 괄호가 쳐져 있는데 이것은 베드로의 설교 부분이 아니라 누가가 삼입시킨 귀절이기 때문이다(Calvin).
- (3) 왜냐하면 그는 이방인인 테오빌로에게 당시 통용되던 아랍어 <아젤다마>의 뜻을 풀어서 설명해 주었는데 만약 이 부분이 베드로의 설교라면 베드로는 그곳에 모인 무리들에게 굳이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해 주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 (4) 아ולם 이 귀절은 유다의 최후가 비참했다는 사실을 알려 주고 있다.
- (5) 여기서 우리는 의로운 자를 멸시하며 악한 일을 도모하는 자의 비참한 최후를 볼 수 있다(참조, 말 4:1; 마 3:12; 눅 16:23; 요 3:36; 살전 5:3; 계 14:11; 16:10; 18:10; 20:10).

25. **㉠** 가롯 유다의 최후를 예언한 시편의 내용은 무엇인가? (20 절)

- ㉠** (1) 시편에는 ‘그의 거처(居處)로 황폐(荒廢)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라고 기록되어 있다.
- (2) 여기서 전자는 시 69:25을, 후자는 시 109:8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서 사실 이 내용들은 다윗이 의인을 핍박하는 악인의 최후를 가리켜 한 말인데 베드로는 이 귀절들을 가롯 유다에게 적용시켰다.
- (3) 또한 여기서 ‘그의 거처’란 유다가 죽은 장소를, ‘그 직분’이란 유다의 사도 직분을 가

리키는데 이 시편들은 유다가 죽은 뒤에 그의 사도 직분이 다른 사람에게 일임될 것을 예언한 시(詩)로 알려지고 있다.

- (4) 이처럼 가룟 유다는 사도로서의 직분을 망각한 채 자신의 의무를 감당치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선생인 그리스도를 배신했기 때문에 그 결과 죽음을 면치 못했다.
- (5)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의무, 즉 이웃 사랑과 봉사를 통하여 날마다 그리스도를 좇는 삶을 살아야 한다(참조, 마 16:24; 눅 14:26, 33; 요 8:31; 15:8).

26. ㉠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대신할 한 명의 사도를 택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세웠는가? (21, 22절)

- ㉠** (1) 그들은 요한의 세례로부터 그들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출입(出入) 하실 때에 항상 그들과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하기로 결의했다.
- (2) 다시 말하면 11명의 제자들은 결원된 한 명의 사도를 선택하기 위해 기준을 세웠는데 그것은 자신들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목격한 자라야 한다는 것이다.
- (3) 이와 같이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함께 동참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몸소 체험한 자라야 한다.
- (4)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참된 중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역을 목격하고 몸소 체험할 뿐 아니라 그분의 인격을 철저히 닮아 가는 자로서 굳건한 신앙과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참조, 눅 1:1-3; 벧후 1:16; 요일 1:1).

27. ㉠ 사도의 자격과 본분은 무엇인가? (22절)

- ㉠** (1)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로서 ‘보냄을 받은 자’를 뜻하며 넓은 의미로는 전도자를 의미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예수께서 친히 택하신 12제자만을 의미한다.
- (2)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한 후 죄책감을 느껴(마 27:3) 스스로 목매어 죽은 다음(마 27:5) 11명의 제자들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뽑기로 결정하였는데 그 자격과 본분은 다음과 같다.
- (3) 그는 예수께서 출입(出入) 하실 때에 항상 함께 다니던 자이며,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다.
- (4) 그렇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바울은 사도라고 칭할 수 없으나 넓은 의미에서 그를 사도라 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는 스스로 사도로 자처함으로써 말씀의 포로가 되기를 소망하였던 것이다(고전 9:1, 2; 15:9, 10).
- (5) 오늘날 성도들은 직접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못했고 그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으나 우리는 날마다 그분과 교제하며 그의 부활을 확신하고 증거하므로 광의(廣義)의 사도라고 말할 수 있다(참조, 롬 1:5).

28. ㉠ 11제자들이 한 명의 사도를 더 충원(充員)한 이유는 무엇인가? (22절)

- ㉠** (1) 그들은 예수의 부활(復活) 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사도를 더 뽑았다.
- (2) 결국 이것은 사도의 사명(使命)이 무엇인가를 말해 주는데 사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이다.
- (3) 그래서 본서에 나오는 베드로, 요한, 빌립, 스테반,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었다(참조, 2:14-36; 3:11-26; 7장; 8:35; 10:39-43; 13:16-41; 17:3).
- (4)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음의 전체 즐거리가 되며(Calvin)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신앙인 것이다(Augustine).
- (5)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우리들은 먼저 자신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서 그리스

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2:23, 24; 3:14, 15; 4:33; 10:39-41; 13:30; 17:2, 3; 롬 1:4).

29. ㉠ 사도들이 결원된 한 명을 선택하기 위해서 추천한 자들은 누구였는가? (23절)

- ㉠ (1)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別名)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맛디아였다.
- (2) 여기서 전자는 세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중 바사바와 요셉은 히브리식 이름으로 바사바는 사바(히브리어로 샤바트는 안식일을 의미함)의 아들, 즉 안식일의 아들이란 말이며 요셉은 유대인들에게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이름이다.
- (3) 또한 바사바의 별명 유스도(라, 유스투스)는 로마식 이름으로 '정의'를 뜻한다.
- (4) 뿐만 아니라 후자의 맛디아(헬, 맛다디아)는 '여호와와 선물'이란 뜻으로 이 이름 역시 유대에서 흔히 쓰이는 이름이다.
- (5) 한편 이들의 다른 신분적 특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알 수가 없지만 이들이 모두 사도의 후보자로 추천된 것을 볼 때(참조, 21, 22절) 이들은 그리스도의 공생애 시에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 즐픈 그리스도를 좇으면서 신앙의 수련을 쌓은 신실한 자들임을 알 수 있다.

30. ㉠ 사도들은 두 사람을 추천한 뒤 무슨 일을 하였는가? (24절)

- ㉠ (1)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 (2) 즉 이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마친 후 제비를 뽑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
- (3) 한편 예수께서도 12제자를 택하기 전에 밤을 새워 기도하시면서(눅 6:12, 13)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데 제자들 역시 이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았던 것이다.
- (4) 이와 같이 제자들은 앞으로 그리스도의 명을 받들어 복음 사역의 중대한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한 명의 동료 사도를 선택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이다.
- (5)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때 자기 개인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을 줄 아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참조, 6:6; 13:3; 마 26:42).

31. ㉠ 사도들이 유다를 대신할 새 사도를 뽑기 위해서 기도한 내용은 무엇인가? (24, 25절)

- ㉠ (1) 그들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주께서 택하신 사람이 누구인지 보여 주셔서 유다 대신 봉사와 사도의 직분을 맡게 하소서 그는 이것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갑니다' 라고 기도하였다(현대인의 성경).
- (2) 위의 기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참조, 대상 28:9; 시 7:9; 44:21; 렘 17:10; 23:24; 암 9:3; 습 1:12; 롬 8:27) 둘째, 모든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참조, 롬 9:22, 23) 셋째, 사도의 임무는 봉사와 전도라는 사실이다(참조, 마 10:1-16).
- (3) 한편 원래 사도의 임무는 봉사하는 일이었으나 이 임무는 얼마 지나지 않아 집사들에게 위임되고 사도들은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게 되었다(참조, 6:1-4).
- (4) 뿐만 아니라 봉사와 전도는 오늘날까지도 교회의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로 취급되고 있다.
- (5) 그러므로 오늘날 사도의 직무를 감당해야 할 모든 성도들은 복음 증거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며 봉사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32. ㉠ '제 곳'이란 의미는 무엇인가? (25절)

- ㉠ (1) '제 곳'이란 말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되고 있다.
- (2) 첫째, 이 말은 어떤 장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즉 예수

를 믿고 따르던 것을 버리고 과거 자기가 행하던 길로 돌아선 것을 의미한다는 해석이다(Knowling).

- (3) 둘째, 맹렬한 불에(히 10:26, 27) 그의 영혼이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 즉 지옥을 의미한다는 주장이다(Alexander, Meyer, Vincent).
- (4) 이 가운데 우리는 가롯 유다의 비참한 죽음(18절)과 문맥의 흐름으로 보아 ‘제 곳’이란 표현은 곧 ‘지옥’이란 말의 완곡(婉曲)한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참조, 시9:17; 마 25:41; 계 21:8).
- (5) 재물에 눈이 어두워진 가롯 유다는(마 26:15, 16) 자기의 스승이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삼십에 판 뒤 죄책감에 못 이겨 자살하였으며(마 27:5) 결국 ‘제 곳’, 즉 ‘지옥’으로 가고 말았다(참조, 잠 1:19; 전 5:10; 합 2:9, 10; 딤펢전 6:9; 약 5:3).

33. ㉠ 11사도들은 결원(缺員)된 한 명의 사도를 어떤 방법으로 선택했는가? (26절)

- ㉠ (1) 그들은 한 명의 사도를 선택하기 위해 제비를 뽑았다.
- (2) 한편 제비를 뽑는 방법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통해 당신의 뜻을 알려 주시는 것으로 믿었다(레 16:7-10).
- (3) 즉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하였으며(수 18:10) 또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풍랑의 범인으로 지목된 것도 이 방법에 의해서였다(은1:7).
- (4) 이와 같이 사도들도 당시까지 사용되던 제비뽑기의 방식에 의해서 결원된 한 명의 사도를 선출했는데 이 방식은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성경의 기록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 (5) 이것을 볼 때 사람들은 성령의 강림(2:1-4) 이전까지는 구약 시대에 사용되던 제비뽑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지만 그 이후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참조, 6:3; 잠 16:33).

연구자료

그리스도의 승천(昇天) 사건이 지니는 의미.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선지자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한 사실이 나온다(왕하2:11). 그런데 엘리야의 경우와는 달리 예수의 승천 사건은 그리스도 자신에게 뿐 아니라 그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제 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예수께서 승천하신 사실은 그가 다시금 자신의 영광을 회복하셨다는 의미가 있다. 사실 예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며 죽기까지 낮아지셨기에 그의 승천은 성육신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지닌다(빌2:9). 둘째, 그의 승천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성령 시대가 도래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보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장중(掌中)에 사로잡혀 살 수 있게 되었다(롬8:14). 그 뿐 아니라 승천하신 예수는 지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며(히7:25) 장차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맞아들이기 위하여 다시금 재림하실 것(11절; 요14:3)이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제 2 장 성령의 강림과 역사(役事)

단락구분 1-4 오순절의 성령 강림 / 5-13 제자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다 / 14-21 요엘의 예언에 관한 베드로의 설교 / 25-36 다윗의 예언에 대한 베드로의 설교 / 37-42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천 명이 회개하다 / 43-47 교회의 탄생과 성도들의 생활

1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4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5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6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7 다 놀라 기이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라

8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들게 되는 것이 어찌이뇨

9 우리는 바대인과 메대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10 브루기아와 발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11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12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떤 일이나 하며

13 또 어떤 이들은 조용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하더라

14 베드로가 열 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15 때가 제 삼 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16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읽혔으되

17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

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8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19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20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21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22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23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 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박아 죽였으나

24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25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제신 주를 뵈웠음이여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26 이렇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27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씌움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28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니

29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30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시자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

심을 알고

31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32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33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34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35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36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37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39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40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41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42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43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4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고

46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1. ㉠ 본장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내용은 무엇인가?

- ㉠ (1)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며(1:4, 5)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문도(門徒)는 오순절에 강림한 성령의 역사(役事)로 각기 다른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
- (2) 뿐만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담력을 얻은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모여 있던 다른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사실을 전파하며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다.
- (3) 그 결과 제자의 수 곧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자들의 수가 3천 명이나 늘어 나게 되었다.
- (4) 더우기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役事)를 목격한 초대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미하며 교제를 가졌다.
- (5) 한편 예수 그리스도를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두려워서 갈릴리로 돌아가 고기를 잡던 베드로가(요 21:1-7) 이와 같이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을 전파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이었다.
- (6)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 먼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의 인도에 따라 생활해야 한다(1:8; 요 20:22).

2. ㉡ 오순절은 어떤 날인가? (1절)

- ㉡ (1) 오순절은 유월절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50일째 되는 날로서 구약에서는 '맥추절'(출 23:16) '칠칠절'(출 34:22; 신 16:10), 또는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민 28:26)이라고 불렸는데 그 이유는 이때가 보리를 수확하는 때였기 때문이다. 즉 이날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첫 수확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종의 감사절이었다.
- (2) 특히 신약 시대의 오순절은 성령이 강림함으로써 초대 교회가 세워지고 이곳을 구심점

으로 하여 그리스도의 왕국이 확장되어 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새롭다.

(3) 한편 오순절은 유월절, 수장절과 더불어 이스라엘 3대 절기 중 하나로서(출 34:18-24) 이때가 되면 유대인 남자들은 모두 예루살렘에 모여 큰 잔치를 벌였다(참조, 출 34:23; 신 16:16).

(4) 그래서 성령이 강림한 이때에도 예루살렘은 오순절 행사에 참여한 많은 유대인들로 인해서 인산 인해(人山人海)를 이루었다.

3. **㉠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가? (2, 3절)**

㉠ (1)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나타났다.

(2) 여기서 ‘홀연히’ 라는 말은 ‘갑자기’ (KJV, NIV, suddenly)라는 뜻이다. 즉 우리가 성령 강림의 시기를 예측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받은 때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대답하라는 질문은 잘못된 것이다.

(3) 또한 ‘바람’은 성령을 상징하는데 성령을 바람에 비유한 것은 그 능력이 인간의 위력을 초월하며 그 역사가 인간으로서는 판단할 수 없을 만큼 기묘하기 때문이다. 성령이 바람으로 표현되는 일은 일반적인 일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자신도 사도들에게 성령을 주려고 하실 때에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셨으며(요 20:22) 에스겔의 환상 중에서도 폭풍과 바람이 불어왔기 때문이다(겔 1:4).

(4) 실상 성령이라는 말 자체가 바람을 의미하는 말에서 왔다(참조, 요 3:8). 이 성령이라고 호칭되는 신의 본질적인 위격(位格)은 그 자체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은 이 바람이라는 용어를 차용하고 있는 것이다(Calvin).

(5) 한편 성령은 ‘불’ (마 3:11, 12), ‘비둘기’ (마 3:16; 눅 3:22), ‘기름’ (눅 4:18), ‘생수’ (요 7:38, 39), ‘인’ (印, 엡 1:13) 등으로 상징되기도 하였다.

(6) 뿐만 아니라 ‘불’도 성령을 가리키는 말로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나 능력의 상징으로(신 4:36; 왕상 19:12; 시 50:3; 97:3; 사 66:15; 히 12:29), 심판의 도구로(창 19:24; 레 10:2; 민 11:1; 16:35; 왕하 1:10; 살후 1:8; 벰후 3:10) 그리고 정결의 수단으로(민 31:23; 겔 22:20; 숙 13:9; 말 3:2; 고전 3:13; 벰전 1:7) 사용되었다.

(7) 그런데 이 ‘바람’과 ‘불’이 성령의 상징으로 표현된 것은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 준다.

(8) 즉 성령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보증하여(참조, 엡 1:13)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결하게 살도록 그 양심을 정화시키며(참조, 벰전 1:7) 또한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을 내리는 것이다(참조, 벰후 3:10).

(9) 그러므로 이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이러한 사역을 바로 깨닫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참조, 빌 1:27; 살전 4:12; 딤펴전 3:7; 약 3:13; 벰후 3:11).

4. **㉠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란 의미는 무엇인가? (3절)**

㉠ (1) 이 말은 ‘혀 같은 것들이 나타나 불길처럼 갈라지며’라는 뜻이다(공동 번역).

(2) 그러므로 실제로 뜨거운 불이 위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다만 시각(視覺)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혀의 모양 같은 불꽃을 의미한다.

(3) 결국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전혀 기도에 힘쓰던 120명 모두가 청결(淸潔)과 정화(淨化)를 상징하는 혀 모양의 불꽃 곧 성령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4) 한편 이와 같은 현상을 기도에 전념(專念)하던 120명이 몽롱한 정신 상태에서 동시에 혀깨비를 보았던 것으로 풀이하는 것은 그릇된 해석이다.

5. **㉠ 합심하여 기도하던 120명 모두가 받은 ‘성령의 충만(充滿)’이란 무엇인가? (4절)**

- Ⓐ (1) 이것은 단회적(單回的)인 성령 세례(요 3:5; 딤후 3:5)와 구별되는 것으로 우리의 언행 심사(言行心思) 곧 전인격(全人格) 속에 성령이 내재하여 그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상태를 말한다.
- (2) 한편 여기에 나오는 ‘성령 충만’은 세례 요한이 예언하였으며(막 1:8) 예수께서도 친히 말씀하신 대로(1:5)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세례를 일시에 다 같이 받게 되었으며 동시에 성령 충만을 받게 된 사건이다.
- (3) 따라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그 전(前)시대와 달리 성령의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 계속하여 성령의 충만을 체험할 수 있었다(4:8, 31). 이런 의미에서 성령 세례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성령의 충만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야 함을 뜻한다.
- (4) 우리는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뛰어난 인물들이 성령께 완전히 사로잡혀 활동했음을 기억하면서(4:8; 7:55; 13:9; 출 31:3; 민 11:25; 사 3:10; 6:34; 14:6; 삼상 16:13) 말세를 고(告)하는 이때 성도들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엡 5:18)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할 것이다.

6. ⓐ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4절)

- Ⓐ (1)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 (2) 여기서 ‘방언’이라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전혀 배우지도 않고 또 통역자의 도움도 없이 듣는 자들이 자기 나라의 말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가리킨다(8절).
- (3)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부수적인 현상이지 전체적인 현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 (4) 다시 말하면 이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외적으로 나타난 방언의 역사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현상이었다(15:8, 9).
- (5)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그 마음이 변화되고 그래서 그의 외적인 삶 역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는 것이다.
- (6) 그러므로 오늘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소위 방언을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못한 자들은 회개하여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참조, 빌 2:15; 3:6; 골 1:22; 살전 3:13; 5:23; 딤후 3:2; 딤후 1:6; 벧후 3:14).

7. ⓐ 성령 강림의 목적은 무엇인가? (4절)

- Ⓐ (1)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강림하신 데에는 어떤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란 예수께서 그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며(마 28:20) 그들로 하여금 그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는 것(1:8)이다.
- (2) 즉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1:4)는 말씀의 성취로써 그의 자녀들을 보호·인도하시며 아울러 그들로 하여금 주(主)의 부활의 증인들로 삼으시고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이다.
- (3)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의 은혜 혹은 선물이라는 측면에서 성령 강림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 (4)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기쁨을 자기만 소유할 것이 아니요 이웃과 형제에게 나누어 주도록 수고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성도들에게 향하신 성령의 간구이심을 명심해야 한다(참조, 고전 10:33; 빌 2:4, 29).

8. ⓐ 오순절에 예루살렘으로 온 자들은 누구인가? (5절)

- Ⓐ (1) 그들은 천하 각국(天下各國)에 흩어져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이었다.
- (2) 일찌기 그들의 조상은 B. C. 586년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면서부터 근동 지역,

즉 바벨론, 메대 등지와 소아시아, 시리아, 알렉산드리아, 이탈리아, 그리이스, 이집트에 흩어져 살면서 종교적 관습과 규범을 지켜 왔다(참조, 요7:35; 약1:1; 벧전1:1).

(3) 또한 이들은 경건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오순절을 하나님 앞에서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왔던 것이다(참조, 출34:23; 신16:16).

9. **㉠** 방언 소리를 들은 주변에 있던 무리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6,7절)

- ㉡** (1) 그들은 크게 소동하고 다 놀라며 이 말하는 자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라고 했다.
 (2) 다시 말하면 외국에서 모여 온 자들은 방언하는 자들이 갈릴리 사람, 즉 문화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 무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사는 나라의 말을 하는 데 깜짝 놀란 것이다.
 (3) 이와 같이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문화적인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는데(요1:46) 하나님께서는 이런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복음 전도자로 삼으셨다(참조, 고전1:26-29).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식이나 명예, 재물 등 인간적인 배경으로 전도자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참조, 1:8; 4:33; 6:8; 19:11, 12; 고전2:4; 엡3:16; 살전1:5; 딤후1:7).

10. **㉢** 오순절에 예루살렘으로 왔던 유대인들은 그 당시 어디에서 살던 사람들인지 도표로 위치를 설명하라 (8-11절).

지 역	위 치	기타 사항
바 대	인도와 티그리스 강의 중류	제 1차 바벨론 포로 때에 잠혀간 유대인들의 자손이 살고 있던 지역(B.C. 597)
메 대	바대의 남쪽 지역	
엘 람	메대의 남쪽, 즉 현재의 이란, 이라크 지역	
메소포다미 아	티그리스와 유브라테 강 사이에 위치한 지역	왕하 17:6; 25:11
유 대	유브라테에서 애굽 강에 이르는 넓은 지역	F. F. Bruce의 학설
가바도기 아	소아시아의 동쪽 지역	벧전 1:1
본 도	소아시아의 북쪽 지역	
아 시 아	소아시아의 서쪽에 있는 에게 해 연안 지역	16:6
브루기아	소아시아의 중부 지역	
밤빌리아	소아시아의 남쪽 해안 지역	
애 굽	아프리카 북쪽 지역	대부분이 알렉산드리아에 거주했다
리 비 야	이집트 서쪽에 있는 아프리카 북부 해안에 위치한 나라	
로 마	이탈리아	
그 레 테	리비아의 북쪽에 있는 섬	
아라비아	홍해 동쪽에 있는 반도	

11. **㉣** 오순절에 다른 나라에서부터 온 자들은 누구인가? (10절)

- Ⓐ (1) 그들은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자들이었다.
- (2) 여기서 '유대교에 들어온 자들'이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을 가리키는데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방인을 유대교로 개종시키는 데 열심을 내었다(참조, 마 23:15).
- (3) 한편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하기 위해서는 할례와, 정결 의식인 세례와, 희생 제물을 드려야 했는데 때때로 이방인 남자들은 할례의 고통으로 인해서 개종하는 것을 꺼리기도 했다.
- (4) 아몽든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키면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주력하였다.
- (5) 그러므로 오늘날 참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지닌 우리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참조, 딤후 4:2).

12. ⓐ 유대인과 이방인 개종자들이 방언을 통해서 들은 내용은 무엇인가? (11절)

- Ⓐ (1) 그들은 자신들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에 관한 내용을 들었다.
- (2) 여기서 '하나님의 큰 일'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은 초대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심되는 신앙 문제였다.
- (3) 한편 오늘날 방언을 말하고 통역을 한다는 사람 가운데는 방언을 통하여서 개인의 앞날을 예측하고 개인의 신상을 예언하는 자들이 있다.
- (4) 그러나 방언은 개인의 운명을 점치는 미신적인 행위가 아니라 언어가 소통되지 않던 당시에 주의 복음을 손쉽게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은사를 함부로 남용하거나 그릇 해석하여 연약한 자들을 미혹에 빠뜨릴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선하게 사용해야 한다(참조, 고전 14:3, 4, 26; 고후 12:19).

13. ⓐ 방언이 나타난 시대를 구분하여 그 특징을 간략하게 비교·설명하라 (11절).

- Ⓐ (1) 헬라이어 <글로사>는 혀나 방언(tongues)을 의미하는 말로서 말하는 자가 무의식 중에 신(神)의 직접적인 역사에 의해 발설하는 말을 가리킨다.
- (2) 이 방언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시 대	특 징	참조 구절
구 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약 성경에는 직접 방언이라고 언급된 귀절은 없다. • 그러나 모세 당시에 70인 장로들이 예언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또 사무엘은 예언하는 무리들 사이에 있었다는 언급이 있는데 학자들은 이들이 예언을 방언으로 말하였다고 주장한다 • 한편 이 방언의 특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잘 알 수 없다 	민 11:24-29; 삼상 19:18-24
오순절 이전의 신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음서에서는 한 곳(막 16:17) 제외하고는 방언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 한편 세례 요한이나 그리스도, 사도들의 생애를 볼 때 이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을 받았지만 직접적인 방언의 체험 	마 3:16; 눅 1:15; 10:17

	<p>은 없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것을 볼 때 오순절 이전의 신약 시대에는 방언과 성령의 충만이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오 순 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령이 임한 결과 방언 현상이 나타났다 • 이 방언은 당시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서 통용되던 언어로서 외국인들은 통역 없이도 이 방언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2 장
오 순 절 이 후 의 초대 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순절 이후에도 초대 교회인 에베소나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 현상이 나타났다 • 한편 특이한 현상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방언으로 이것은 외국어가 아니라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한 말이었다 • 그 뿐만 아니라 오순절 이후로는 성령을 받는 개인에게도 방언 현상이 나타났다 • 또한 이러한 오순절 이후의 방언은 반드시 통역이 따라야 했다 	19:6; 고전 12-14장
사도 시대 이 후 (A.D. 80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도 이후 시대에는 방언에 관한 언급이 별로 없다 • 그리고 A.D. 4 세기에 이르러서 이 은사는 사실상 자취를 감추었다 • 그러나 방언의 은사는 영적인 것이 강조되는 시대에는 가끔씩 다시 나타나기도 했다 	

14. ㉠ 방언 소리를 듣고 물려든 자들은 각각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12, 13절)

- ㉡ (1) 그들은 다 놀라며 의혹(疑惑)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떤 일이나 하며 또 어떤이들은 조롱(嘲弄)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고 말했다.
- (2) 여기서 새 술에 해당하는 헬라어 <글류코스>는 원래 '단 포도주'를 가리키는 말로서 아직 발효되지 않은 술을 의미한다.
- (3) 그렇기 때문에 '새 술'은 별로 독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것을 먹고는 크게 취하지도 않는다.
- (4) 결국 주위에 물려든 자들은 방언하는 자들을 놀리기 위해서 이들이 새 술에 취했다고 말했다.
- (5) 이와 같이 참으로 신령한 하나님의 역사가 때때로 불신자들에게는 놀림거리가 될 때도 있다(참조, 삼상 1:12, 13; 렘 23:9; 마 11:19).
- (6)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러한 불신자들의 조롱을 염려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를 사모해야 한다(참조, 롬 1:11; 고전 14:1).

15. ㉠ 베드로와 열 한 사도들은 그들을 조롱하는 자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 (14절)

- ㉡ (1) 베드로는 열 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였다.

- (2) 즉 베드로는 그들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와 그 결과 외적으로 나타난 방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유대인들 앞에 섰던 것이다.
- (3) 한편 베드로의 이런 당당한 모습은 그리스도께서 체포될 당시 대제사장의 문 앞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할 때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참조, 마 27:69-75; 막 14:66-72; 눅 22:54-62; 요 18:15-18).
- (4) 이와 같이 베드로는 주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뒤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다.
- (5)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4:13, 31; 9:29; 14:3; 19:8; 28:32).

16. **㉠** 신약 시대 유대인의 시간 구분법을 설명하라 (15절).

㉠ 유대인은 오늘날 시간 계산법으로 새벽 6시를 0시로 하여 시간을 구분하였다.

	구분	시각		참조 귀절	
밤	저물 때	해 질 때 - 오후 10시		막 13:35	
	밤 중	오후 10시 - 오전 1시		막 13:35	
	닭 울 때	오전 1시 - 오전 4시		막 13:35; 눅 22:61	
	새벽	오전 4시 - 해 뜰 때		마 14:35; 막 13:35	
낮		로마식(요한복음)	유대식(공관 복음)	시간	참조 귀절
	아침	6시	0시	오전 6시	요 19:14
		9시	3시	오전 9시	마 20:3
	정오	12시	6시	오전 12시	마 20:5
		3시	9시	오후 3시	마 20:5
	저녁	5시	11시	오후 5시	마 20:6
		6시	12시	오후 6시	요 4:6
		7시	1시	오후 7시	요 4:52

17. **㉠** 선지자 요엘은 어떠한 인물인가? (16절)

- ㉠** (1) 요엘은 브두엘의 아들로써(을 1:1) 그의 이름은 '여호와와 하나님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 (2) 그 이외에 요엘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는 요엘서의 저자로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할 것을 예언하기도 하였다(을 2:28, 29).
- (3) 한편 베드로는 그들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즉 회개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한다고 하였다(38, 39절).

18. **㉠** 요엘 선지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 당신의 영(靈)을 모든 육체(肉體)에게 부어 주시는가? (17절)

- ㉠** (1) 하나님께서는 말세(末世)에 당신의 영을 부어 주신다.
- (2) 한편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오실 때를 가리켜 말세라고 표현했다(사 2:2; 미 4:1). 다시 말하면 말세란 메시아의 시대를 가리킨다.
- (3) 그렇기 때문에 이 말세는 단순히 오순절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초림(初臨)부터 재림에 이르는 모든 시간을 의미한다.
- (4) 따라서 성령의 역사는 단지 초대 교회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난다.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참조, 엡 5:18).

42 사도행전 2장

(6) 즉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도록 힘써야 하겠다(롬 6:13).

19. ㉠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녀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17, 18절)

- ㉠ (1) 그들은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 (2)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직접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의미이다.
- (3) 즉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자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것인데(참조, 37-42절)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 (4)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의 확신을 얻은 성도들은 억지로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 아니라 구원을 확신한 자기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참조, 벰전 3:9; 요일 2:25).

20. ㉠ 말세에는 자연계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19, 20 절)

- ㉠ (1)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奇事)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徵兆), 즉 피와 불과 연기가 일어나며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
- (2) 한편 기사와 징조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서 피와 불과 연기는 전쟁 상태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초자연적 현상인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마지막 날, 즉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참조, 마 24:29-31).
- (3) 또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구약에서 '여호와와 그의 날'(사 13:9; 욥 2:1, 31; 욥 1:15; 습 1:14-18)로, 신약에서 '주의 날'(살전 5:2; 벰후 3:10; 계 1:10), '예수의 날'(고전 5:5; 빌 1:6), '그리스도의 날'(빌 1:10), '그날'(고전 3:13; 살후 1:10)로 각각 표현되는데 이날은 최후의 심판 날이다.
- (4) 뿐만 아니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동시에 구원의 날이기도 한데 이날에 모든 성도들은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된다.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마지막에 나타날 주의 날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맞이할 그날이 하루빨리 임하기를 기원해야 한다(참조, 계 22:20).

21. ㉠ 마지막 날에는 어떤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가? (21 절)

- ㉠ (1)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 (2) 여기서 '부르다'를 의미하는 헬라어 (에피칼레오)는 막연히 주의 이름을 크게 외쳐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를, 즉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와 더불어 기도하는 가운데서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다는 뜻이다(롬 10:13, 14).
- (3)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는 마지막 날 심판의 위기 속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뿐더러 결국에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 (4)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구원받는 자들의 대열에 참여한 자들은 회개와 죄 사함을 통하여 먼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참조, 2:38; 삼상 7:3; 겔 18:21; 습 1:3).

22. ㉠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어떻게 설교하였는가? (22-24 절)

- ㉠ (1)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정(定)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 준 바 되었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그리스도를 못박아 죽였다(23 절).
- (2)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고통을 풀어 그리스도를 살리셨는데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24 절).
- (3)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첫째,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며 둘째,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유대인의 손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세째, 그리스도 자신은 죄가 없기 때문에(벧전 2:22) 사마가 그를 붙들지 못하고 그는 결국 부활하셨다는 것이다(고전 15:5).

- (4) 이러한 베드로의 설교는 초대 교회의 전형적인 메시지가 되었다(3:14, 15; 4:10; 5:29-32; 7:52; 8:35; 10:39-41; 13:28-33).
- (5) 이와 같은 메시지가 초대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설교가 된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치 않았으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했기 때문이다(참조, 마 28:11-15).
- (6) 한편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치 않으며 그분의 부활 사실을 하나의 설화로 무시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 (7) 그러므로 초대 교회 당시에 사도들에 의해 외쳐진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

23. **㉠** ‘법 없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23절)

- ㉠** (1) 그는 ‘율법이 없는 자’, 즉 이방인을 가리킨다.
- (2) 그러나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마 26:45)고 하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 볼 때 ‘법 없는 자’란 빌라도와 로마의 병사 뿐 아니라 그를 멸시한 모든 자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 (3) 더우기 예수께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헤치는 자니라’(마 12:30)고 말씀하심으로 두 마음을 품은 자 또는 우유부단한 신앙을 소유한 자들도 ‘법 없는 자’의 범주(範圍)에 포함시켰다(참조, 왕하 17:33; 눅 16:13; 고전 10:21; 약 1:8; 4:8).
- (4) 한편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까지는 ‘율법이 없는 자’ 곧 죄인이었던 것이다(참조, 롬 5:8).

24. **㉠** 다윗이 메시아에 대해 예언한 내용은 무엇인가? (25-28절)

- ㉠** (1) 그것은 주께서 생명의 길, 즉 부활의 소망을 다윗 자신에게 보여 주셨다는 것이다(28절).
- (2) 다시 말하면 다윗은 주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자기의 영혼이 음부에서 썩지 않고 주 앞에서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었던 것이다.
- (3) 이와 같이 주의 부활을 확신하는 자들은 장래에 있을 자신의 부활도 확신하게 되는 것이다(24:15; 시 49:15; 71:20; 호 13:14; 요 5:25; 6:40; 11:25; 고전 15:22; 고후 4:14; 살전 4:16).

25. **㉠** 자신의 우편에 메시아가 항상 계심을 확신한 다윗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였는가? (25, 26절)

- ㉠** (1) 다윗은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希望)에 거하리니’라고 하였다.
- (2) 여기서 ‘내 입술도 즐거워한다’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시 16:9)라는 말로서 히브리인들은 육체의 일부분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표현법을 즐겨 사용하였다.
- (3) 다시 말하면 이것은 다윗의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다.
- (4) 또한 ‘육체가 희망에 거한다’는 말은 시 16:9에서 ‘내 육체도 안전하게 거하리니’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썩을 수밖에 없는 육체가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서 썩지 않기 때문에 기쁨과 희망이 넘친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44 사도행전 2장

(5) 결국 다윗은 메시아가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현재에도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소망 가운데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였다.

(6) 그러므로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소망 가운데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해야 한다(24:15; 딤후 2:3; 벰전 1:3).

26. ㉠ 메시야 앞에 있는 다윗의 육체가 회망 가운데 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7절)

㉠ (1) 그것은 주께서 다윗의 영혼을 음부(陰府)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2) 여기서 '음부' (히, 스울)는 일반적인 '무덤'을 가리키는 말로서 선과 악에 상관없이 단순한 죽음의 상태를 나타낸다.

(3)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여 결국 그 육신이 썩게 되지만 주와 함께 하는 자들은 그 영혼이 죽음 상태에 머무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육신까지도 결국에는 부활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썩지 않게 된다(롬 2:7; 고전 15:53; 빌 3:21; 딤후 1:10).

27. ㉠ 다윗은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을 미리 내다보았는가? (30, 31절)

㉠ (1) 그는 하나님께서 미리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리라는 사실을 예견하였다.

(2) 여기서 '그 자손 중 한 사람이 그 위에 앉는다'는 말은 다윗의 후손 중에서 한 사람이 태어나 다윗보다 더 높은 왕좌를 차지하게 된다는 뜻이다.

(3) 즉 이 말은 메시야가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지만 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할 왕이 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모든 성도들을 다스리실 왕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이와 같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태어난 메시야가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5) 그러므로 성도들은 부활의 능력으로 왕이 되신 그리스도에게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한다(참조, 빌 2:9-11; 계 15:4).

28. ㉠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떤 일을 증거하였는가? (32, 33절)

㉠ (1) 그들은 죽임 당하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 일에 증인이 되었다.

(2) 한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오른손으로 그를 높여 주셨다.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순종하여 죄없는 그리스도(벰전 2:22)가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서 모든 영광을 차지하게 하셨다(빌 2:6-11).

(4)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때때로 이 세상에서 고난과 희생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희생을 굽어보시고 마침내는 그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참조, 벰전 1:5-7; 4:13, 14; 5:1).

29. ㉠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 구약에는 어떻게 언급되어 있는가? (34-36절)

㉠ (1) 다윗의 시편에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登床)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시 110:1)라고 기록되어 있다.

(2) 여기서 전자의 주는 하나님을, 후자의 주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재림 때에는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신다.

(3) 그러나 주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는 여전히 사단이 이 땅에서 세력을 잡고 있다(참조, 요 12:31; 엡 2:2; 6:12; 계 9:11).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께서 사단의 세력을 꺾고 완전히 승리하는 그날까지 사단의

세력으로 인해 당하는 모든 환난을 견디면서 주의 재림을 대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고전 1:7; 살전 1:10; 딤후 2:13; 벧후 3:12).

30. C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뒤 주변에 모인 무리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37절)

- A** (1) 그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탄식하였다.
- (2) 즉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범인이 바로 자기 자신들이라는 베드로의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던 것이다.
- (3) 한편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무리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형 선고를 받는 데 직접 가담한 자들도 있었겠지만(참조, 마 27:25)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자들이었다.
-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죽인 범인임을 시인하고 베드로의 설교에 감화되어 회개하였다.
- (5) 이와 같이 무리들이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했던 이유는 동족인 유대인들의 죄를 자기의 죄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 (6) 그러므로 성도들은 때때로 동료의 과실에 의해서 자신에게 그 피해가 미친다 하더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잘못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아량이 필요하다.

31. C 베드로는 무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 어떻게 행동하라고 말했는가? (38절)

- A** (1) 그는 무리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고 하였다.
- (2) 여기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은 기독교의 독특한 의식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유대교에서 행해졌던 의식인데 이 기독교 의식이 유대교의 의식과 다른 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결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이다.
- (3) 한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푸는 말이다.
- (4)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고백을 하는 자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해야 한다.
- (5) 이러한 일들은 모두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는 이미 성령을 받은 자이다.
- (6) 그러므로 이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자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참조, 5:3; 7:51; 사 63:10; 마 12:31; 엡 4:30; 살전 5:19; 히 10:29; 요일 5:16).

32. C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하신 것인가? (39절)

- A** (1) 그것은 유대인과 유대인의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 (2) 여기서 '먼 데 사람'은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먼 곳에 사는 유대인들을 가리킨다는 학설이 있지만(Meyer) 이보다는 이방인들을 가리킨다는 주장이(Alford) 더 타당하다.
- (3)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도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참조, 시 22:27; 86:9; 사 49:6; 55:5; 60:3; 단 7:14; 호 2:23; 말 1:11) 신약에서도 이방인의 구원이 가능하다는 사실(11:1; 13:48; 15:7; 18:6; 28:28; 롬 9:24; 15:9; 갈 3:14; 엡 3:6; 계 11:15; 15:4) 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부르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5)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아 구원을 얻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15:11; 롬 3:24; 5:15; 11:6; 엡 2:5; 딤후 2:11; 3:7).

33. **㉠** 베드로가 설교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결론적으로 권유한 말은 무엇인가? (40절)

- ㉠** (1) 베드로는 '너희가 이 패역(悖逆)한 세대(世代)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였다.
- (2) 즉 베드로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유대인의 범죄와 회개, 성령의 역사 등에 관해 설교한 이유는 우리들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 (3) 한편 '패역한 세대'란 악을 자행하고도 양심에 가책을 느끼지 않는 자들을 가리키는데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다(잠 11:3; 12:8; 15:4; 28:6; 겔 9:9; 마 17:17; 딤후 6:5).
- (4) 이와 같이 패역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당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우리들이 이런 자들과 함께 하지 말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으라고 외쳤다.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악한 세상에서 살 때에 패역한 우리들과 함께 어울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참조, 사 43:25; 44:22; 55:7; 엡 5:1; 31:34; 33:8; 겔 36:25; 히 8:12; 요일 1:9).

34. **㉠**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자들의 생활상을 간단하게 소개하라 (41, 42절).

- ㉠** (1)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
- (2) 여기서 가르치고,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의 4대 의무인데 떡을 떼는 것은 교제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둘을 묶어 하나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다.
- (3)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떡을 떼는 행위를 구제의 수단으로 보아 봉사의 의무로 취급하기도 한다.
- (4) 한편 사도들이 '가르침' 주된 내용은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그는 유대인의 손에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는 사실과 죄인들이 회개할 때 용서하며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다.
- (5) 이러한 사도들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권위가 있었다(참조, 고전 12:28; 14:37; 엡 2:20; 3:5).
- (6) 또한 '교제'(헬, 코이노니아)라는 용어는 신약에서 '교제'(fellowship, 고후 6:14; 갈 2:9; 요일 1:3, 6, 7), '참여'(participation, association, 고전 1:9; 10:16; 고후 8:4; 13:13, 14; 엡 3:9; 빌 2:1; 3:10; 몬 1:6), '헌금'(contribution, collection, 롬 15:26; 고후 8:4; 9:13; 히 13:16)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교제가 단순히 친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 정신적인 참여와 협력의 의미가 있다는 말이다.
- (7) 뿐만 아니라 '떡을 떼는 것'은 성찬과 애찬과 보통 식사를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말이며(Bruce) '기도'는 초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였다.
- (8) 초대 교회의 이러한 4가지 요소는 성도들로 하여금 공동체 의식 속에서 신앙을 증진하며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소지를 마련해 주었다.

35. **㉠** 사도들이 행하는 기사와 표적을 본 사람들의 태도는 어떠했는가? (43절)

- ㉠** (1)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였다.
- (2) 이 말은 원어에서 '모든 혼에게 두려움이 임했다'(헬, 에게네토 데 파세 푸스케 포보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공포심에 사로잡혀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것(KJV, NIV; fear, awe)을 가리킨다.
- (3) 이와 같이 사도들의 기사와 표적을 본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

있고 이것은 주(主)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에게 더없는 권위를 가져다 주었다.

36. ㉠ 초대 교회 성도들의 공동 생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라(44, 45절).

- ㉠ (1) 그들은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通用)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
- (2) 즉 당시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한 곳에 모여 살면서 자신이 가진 재산을 공동 소유로 하여 어려운 이웃을 도와 주었다.
- (3) 이와 같은 초대 교회 성도들의 생활은 초기에는 순수한 신앙에서 출발하여 성도 상호간에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신앙 공동체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많은 부작용을 야기시켰으므로(5:1-11) 얼마 지나지 않아 중단되었다.
- (4) 한편 공산주의자들은 이러한 공동체 생활을 공산주의의 전형으로 보고 여기서 공산주의의 모형을 찾기도 한다.
- (5) 그러나 초대 교회의 공동체적인 생활은 사랑을 기초로 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이념에 기초하여 강제적으로 복종을 요구하는 오늘날의 공산주의와는 전혀 다르다.
- (6)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뭉쳐진 사회와 인간 중심의 이념으로 모인 단체와의 차이점을 엿볼 수 있다.
- (7)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 내의 여러 단체들을 통하여 신앙 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은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으로 그 모임을 지속시키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장(場)으로서 그 단체를 유지시켜야 한다.

37. ㉠ 베드로와 11사도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자들의 삶은 어떠하였는가? (46, 47절)

- ㉠ (1)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純全)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 (2) 한편 이들의 신앙 생활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일관했으며 그들의 이러한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도 덕을 끼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을 받았다.
- (3) 이와 같이 초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다.
- (4) 더우기 당시 성도들의 이런 경건한 삶으로 인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났다.
- (5)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핑계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불편과 부덕을 끼치는 자들이 더러 있다.
- (6)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데도 오히려 방해가 된다.
- (7) 그러므로 성도들은 정상적이고 올바른 신앙관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또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도 덕을 끼쳐서 많은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참조, 마5:16; 빌2:15; 골1:10; 딤후6:18; 딤후2:7, 14; 3:8; 벧전2:12).

본장의 요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38절).

제 3 장 베드로가 앉은뱅이를 일으키다

단락구분 1-8 베드로가 앉은뱅이를 믿음 한: 마디로 고치다 / 9-11 그 이적에 놀란 자들이 모여들다 / 12-16 베드로가 이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 17-26 베드로가 담대히 설교하며 회개를 촉구하다

1 제 구 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2 나면서 앉은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3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4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5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6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7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9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10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히 여기며 놀라니라

11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12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13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중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 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안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14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15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로라

16 그 이름을 믿으므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17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18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시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19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20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21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

22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23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24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음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25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26 하나님이 그 중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1. ㉠ 본장에 나타난 성령의 활동은 무엇인가?

㉠ (1) 오순절 성령 강림(2:1-4) 이후 예수의 택한 제자들을 통한 성령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

작되었다.

- (2) 이것은 베드로의 사역(使役)에서 입증되었다. 즉 예수를 부인하기까지 했던 베드로가 오순절 이후 성전 미문에 있던 얇은뱀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치며 악한 세대를 향해 회개를 촉구한 그의 담대한 설교에서 드러났다.
- (3) 이와 같이 성령은 예수의 제자들을 말씀의 도구로 삼아 역사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다.
- (4) 지금도 성령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며 다시 오실 예수를 소망하는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계신다(참조, 8:29;13:4).

2. Q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간 때는 언제인가? (1절)

A (1) 그들은 '제 구 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갔다.

- (2) 여기서 제 9시는 오후 3시를 말한다.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세 번씩 곧 제 3시, 6시, 9시(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에 각각 기도를 드렸다(참조, 시 55:17).
- (3) 초대 교회는 이런 유대인의 종교 의식을 버리지 않고 그 의식을 지키면서 믿음울 돈독히 하였으며(참조, 10:3) 베드로와 요한도 시간을 지켜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예 전념하였다.
- (4) 비록 바쁜 일과 중에서도 성도들은 시간을 정해 놓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지속시켜 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참조, 단 6:10,13).

3. Q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이인가? (1절)

A (1) 첫째, 일찌기 이들은 함께 어업(漁業)에 종사한 동업자였다(참조, 마 4:18, 21; 눅 5:10).

- (2) 둘째, 이들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메시아를 고대하던 자들이었다(참조, 요 1:37, 42).
- (3) 세째, 개심한 후 이들은 함께 사도직을 받은 동료 사도였다(참조, 1:13; 마 10:2).
- (4) 네째, 이들은 예수께 인정을 받고 그의 사랑을 입은 제자였다(참조, 마 26:37; 눅 8:51; 9:28).
- (5) 다섯째, 이들은 예수께서 수난받으시던 때에 행동을 같이하던 친구였다(참조, 눅 22:8; 요 18:16).
- (6) 마지막으로 이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한 동역자였다(참조, 8:14).
- (7)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거나 주위에서 신실한 동역자를 만나는 것 또한 위로와 힘이 된다(참조, 고전 4:17; 벧전 5:12).

4. Q 베드로가 얇은뱀이를 일으킨 시간과 장소를 말하라(1절).

A (1) 때는 '기도 시간'이었다. 즉 유대인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지고 지켜지던 기도하는 시간이었다.

- (2) 장소는 '성전'이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와 영적 교제를 하는 성전에서 얇은뱀이를 고친 일이 일어났다.
- (3) 이와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役事)가 임하였다.
- (4) 이러한 면에서 성도 가운데 자신의 문제는 특별한 은혜 제단이나 산(山) 기도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교회 출석을 등한히 여긴다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라 할 수 없다(참조, 11:26; 14:27; 히 10:25).

5. Q '미문'(美門)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라(2절).

A (1) 얇은뱀이를 메고 와서 두었던 성전 문의 이름을 '미문'이라고 불렀다. 그 이유는 이 문이 외관상으로 장엄함과 화려함을 지녔기 때문이었다.

- (2) 그런데 '미문'이 어느 문이냐에 대해서 학자들간에 의견이 분분했다. 이방인의 뜰로 들어가는 성전 동편의 바깥 문인 슈산 문(Meyer, Alford), 또는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

- (3) 오순절 성령 강림 후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삼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役事)가 일어났다(참조, 2:38-41).
- (4) 결국 베드로가 앓은뱅이를 일으킨 이적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능력의 근원은 죽음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참조, 16:18; 눅 8:46).
- (5) 이처럼 우리의 신앙과 행동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가장 큰 힘ियो 후원은 그분의 이름이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그분의 전인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참조, 요 14:14).

10. **Q** 앓은뱅이에 대한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6절)

- A** (1) 첫째, 그의 병은 선천적인 것이었다. 즉 인간은 타고난 죄악인 원죄를 갖고 있다(참조, 시 51:5).
- (2) 둘째, 그는 병으로 말미암아 조금도 걸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이 타락한 인간은 육체적으로 불완전한 것처럼 도덕적으로도 무능력하다.
- (3) 셋째, 이 병은 가난을 동반하고 있었다. 죄인이란 바로 영적 거지인 것이다.
- (4) 이와 같이 이 병자의 경우는 타락한 인간의 영적 상태를 예증해 준다.
- (5)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창조되지 않은 자들은 모두 영적 불구자이다(참조, 고후 5:17; 골 3:10).

11. **Q** 앓은뱅이의 다섯 가지 체험은 무엇이었는가? (8-11절)

- A** (1) 그는 일어나라는 베드로의 명령에 복종하여 뛰어 일어났다. 그 결과 치유가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병이 기적으로 고쳐졌다.
- (2) 또한 그는 서서 걸었다. 그는 어디 기대거나 붙잡지 않고 혼자 걸었다.
- (3) 그리고 그는 베드로,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가 성전으로 들어간 것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기 위한 것 뿐 아니라 예수에 대해 사도들로부터 자세히 듣고 싶어서였다.
- (4) 아울러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이제 이 사람이 치유되어 새롭게 되자 그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넘쳤다(참조, 사 35:6).
- (5) 뿐만 아니라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 그는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시켜 줌으로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한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 너무 감사하여 굳게 잡았다.
- (6) 이와 같이 영원히 멸시와 천대 속에서 구걸할 수밖에 없던 앓은뱅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되었다(참조, 겔 11:19; 롬 6:4; 엡 4:24).

12. **Q** 이 이적의 목격자였던 사람들의 행동은 어떠했는가? (10, 11절)

- A** (1) 그들은 그 광경을 보고 심히 기이히 여기며 크게 놀랐다. 성령의 사역을 통해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이적에 대하여 적어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마 15:31; 21:14)에서 받은 충격 이상의 것을 받은 것처럼 보인다.
- (2) 그리고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주변에 몰려들었다. 어떤 이들은 호기심을 채우려 했고 또 다른 이들은 그들에게 설교를 들으려고 모였다.
- (3) 이 사실이야말로 이적은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방편임을 잘 보여 준다(참조, 출 4:2-9; 요 11:40-42; 롬 15:18, 19).
- (4)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곧 물질의 부요와 육신의 건강, 상상할 수 없는 축복 등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위한 일에 더욱 많은 수고와 투자를 하도록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성도들은 깨달아야 한다(참조, 눅 21:4; 롬 6:13; 고후 8:5).

13. **Q** 앓은뱅이를 일으킨 이적은 무엇에 대한 표적(表迹)인가? (10절)

- A** (1) 이 이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의 실재성에 대한 표적이다. 왜냐하면 죽은 그

리스도라면 어떠한 권능의 역사도 행할 수 없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 (2) 또한 이 이적은 성령께서 임재하신 것에 대한 표적이다.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성령을 체험한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이 행한 이적은 예수 그리스도 곧 성령을 부어 주시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의 이름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마28:19, 20).
- (3)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이적을 기대할 수 있음에 대한 표적이다. 더우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므로 전(全)인격이 변화되는 것도 초자연적 역사(役事)의 한 표적이라 할 수 있다.
- (4) 성도들은 앓은뱅이가 걸으며 소경이 세상을 보고 불치병자가 희생하는 것만을 목격하므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믿기 보다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새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오히려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는 차원 높은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참조, 눅11:28).

14. **㉠** '솔로몬의 행각(行閣)'이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11절)

- ㉠** (1) 성전 바깥 뜰 동편 끝에 있는 기다란 집채 곧 회랑(回廊)으로 종교 교사들이 자유롭게 강론하던 곳이다.
- (2) 이곳은 대중 집회를 할 만한 장소로서 초대 교인들이 이곳에서 자주 집회를 가졌음을 알 수 있다(참조, 5:12).
- (3) 그리고 예수께서도 이곳에서 대중에게 설교하신 일도 있었다(요 10:23).
- (4) 이렇듯 유서 깊은 곳에서 이제는 예수의 수(秀)제자 베드로도 당당한 교사로서 대중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 (5) 성도들은 가정에서 뿐 아니라 직장이나 어떤 모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기도와 말씀을 통해 배양해야 한다(참조, 4:29; 엡 3:12; 딤후 3:13).

15. **㉠** 베드로의 첫번째 이적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11절)

- ㉠** (1) 첫째, 성도들은 말씀과 기도로 영적 무장을 해야 하며 지도자들은 더욱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사역을 담당해야 한다(참조, 갈 6:11, 18).
- (2) 둘째, 교회는 소외되고 멸시받는 자들에게 따뜻한 구제를 아낌없이 베풀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참조, 마 10:42; 딤후 6:18).
- (3) 셋째, 교회의 진정한 사명은 교회 확장이나 구제 사업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땅 끝까지 전파하는 전도 및 구령(救靈) 운동에 있다(참조, 1:8; 마 28:19; 막 16:15; 눅 24:47; 골 1:23).
- (4) 넷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 자신은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봉사하며 충성할 것이요 영광은 주께 돌려야 한다.
- (5) 현대 교회와 성도들은 영적인 무장과 사회에 대한 관심을 조화시키면서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를 위한 신실한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참조, 사 43:10; 단 2:15).

16. **㉠** 베드로가 행한 설교의 내용은 무엇인가? (12-26절)

- ㉠** (1) 베드로의 첫번째 설교(2:14)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방언을 계기로 주어진 것처럼 그의 두번째 설교는 앓은뱅이를 고친 이적을 계기로 행해진 것이다.
- (2) 그러나 베드로의 첫번째 설교를 계기로 삼천 명이 회개한 사실에 대해 앓은뱅이를 일으킨 이적을 계기로 사도들에 대한 핍박과 반발이 시작되었다(참조, 4:2, 3).
- (3) 아물튼 베드로의 두번째 설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 (4) 먼저 이적은 어떤 개인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

는 믿음이 이 일을 가능케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예수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로써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였다.

- (5) 그러므로 예수를 죽인 무지의 죄를 회개하고 그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할 것을 권면하였다(참조, 사 1:18).
- (6) 이와 같이 베드로의 설교는 하나님의 아들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함과 동시에 회개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 (7) 현대 교회의 강단에서 외치는 말씀 가운데 성도들의 귀만 즐겁게 하거나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일명 교양 설교 내지 성경 말씀의 의미에서 빛나간 변질된 설교들이 강단을 채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자마다 순수한 말씀으로 돌아가는 영풍운동(靈風運動)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참조, 신 4:2; 12:32; 잠 30:6; 계 22:19).

17. **㉠ 베드로의 설교는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가? (12-26절)**

- ㉠** (1) 베드로의 설교는 모든 기독교 설교자들에게 하나의 모범이 되고 있다.
- (2) 첫째, 베드로는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요 1:23; 3:30) 자기 희생과 겸손의 정신으로 그의 청중들로 하여금 자신에게서는 주의를 들리게 했다.
- (3) 둘째,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찬양하며 그의 영광과 삶을 제시하고 있다(참조, 고전 2:2).
- (4) 셋째, 명백하고 확신에 찬 말투로 그리고 솔직하게 그러나 청중에 대한 애정과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였다(참조, 고후 3:12; 빌 3:18).
- (5) 넷째, 베드로는 자신의 덕이나 업적에 대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즉 병을 고치시며 구원을 주시는 그 이름의 뛰어난 영광과 능력에 대해서 설교하였다(참조, 고전 1:23; 고후 4:5).

18. **㉠ 두번째 설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베드로의 세 가지 증거는 무엇인가? (12-26절)**

- ㉠** (1) 먼저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적의 실체이심을 증거하였다(12-17절). 즉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승리하신 부활의 주(主)가 되시므로 그분 자체가 이적의 실체이심을 입증한다(참조, 요 11:25, 26).
- (2) 그 다음 베드로는 모든 영혼의 구속자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다(18-21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사 자신의 피를 흘리시므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代贖) 하셨다.
- (3)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다(22-26절).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다.
- (4) 이와 같이 베드로는 두번째 설교를 통해서 메시아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이요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다(참조, 9:22; 요 14:6; 롬 5:21; 딤후 1:10).
- (5) 성도들은 예수를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분을 단지 사회 개혁자나 도덕적인 선생으로 혹은 위대한 철학자의 한 사람으로 믿고 따르는 것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그릇된 판단에서 연유한 것이다(참조, 마 16:16).

19. **㉠ 베드로가 행한 이적과 설교 가운데 드러난 인간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12-26절)**

- ㉠** (1) '사람은 외모(外貌)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삼상 16:7), 눅 16:15; 20:17 그리고 본귀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인간의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 사이에 상당한

차이점을 발견하게 된다.

- (2) 본귀절은 이 차이점에 대해서 두 가지 인상적인 본보기를 보여 준다.
- (3) 첫째, 앓은뱅이를 고친 이적에 대해서 사람들의 관심과 사도들에 의해서 선포된 진리 사이에 차이점이 있다.
- (4) 즉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앓은뱅이를 고쳤다고 생각한 반면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장하였다.
- (5) 둘째, 인간의 판단은 악하고 그릇되며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 무오하다.
- (6) 즉 사람들은 예수를 신성 모독자로, 죄인들의 친구로서, 선동자로 정죄한 반면 살인자 바라바는 석방해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다(마 27:15,16,26). 이것이 인간의 판단이다.
- (7) 이와 같이 인간들의 육욕적인 판단은 자연적이고 물질적인 것만을 참작할 뿐만 아니라 악하며 간사하다.
- (8) 성도들은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신령한 은사를 사모해야 할 것이며, 오늘도 성령이 친히 인도하심으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간구하는 하루가 되어야 할 것이다(참조, 롬 8:9; 요일 2:27).

20. **㉠**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임명된(눅 24:48) 베드로는 예수를 어떻게 소개했는가? (13-15절)

- ㉠** (1) 먼저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친히 당신의 증인으로 임명받은 사도임을 고백하였다(비교, 고전 15:5).
- (2) 예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에 의해 보내어진 하나님의 종이라고(13절) 베드로는 예수를 소개했다(참조, 마 3:17).
- (3) 또한 베드로는 예수의 무죄성과,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음을 선포하였으며 동시에 이런 예수를 유대인들은 사악한 로마 병정에게 넘겨 주었다고 지적했다(13, 14절).
- (4)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를 구원과 생명의 창시자로 소개하면서 예수가 바로 메시아임을 강조하였다(참조, 히 2:10; 12:2).
- (5) 아울러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처한 예수의 말씀이 그의 부활을 통해서 입증되었다고 설명하였다(참조, 마 28:6; 막 16:6; 눅 24:39; 요 20:20; 롬 1:4).
- (6) 성도들은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의 부활하신 사실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참조, 막 8:38; 눅 9:26).

21. **㉠** 왜 베드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였는가? (13절)

- ㉠** (1) 하나님을 가리켜 말할 때 신앙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2대 손의 이름까지 들어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은 본래 출애굽기에서 최초로 사용된 것이다(출 3:16; 4:5).
- (2) 이 말은 유대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자들이라는 실감을 가지게 하는 표현이며 이 같은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도 많이 사용되었다(마 23:32; 막 12:26).
- (3) 역시 베드로도 유대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말을 사용하여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사용하였다.
- (4)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하거나 변질시켜서 전하는 일은 큰 과오이다(참조, 계 22:18, 19). 그러나 복음을 처음으로 접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쉽게 풀어 설명하는 일은 지혜로운 것이며 특히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22. **㉠** 예수를 ‘종’이라고 표현한 의미는 무엇인가? (13절)

- ㉠** (1) 여기서 예수를 ‘종’이라고 표현한 의미는 이사야서에 기록된 고난의 ‘종’을 말한다(참조, 사 42:1-9; 49:1-13; 53:2-11).

- (2) 즉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써의 예수 곧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구속자로 오신 예수의 직무를 암시하는 말이다.
- (3) 예수는 세상으로부터 배척과 수욕을 당하셨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고난과 고초를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디의 항변도 없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셨다.
- (4) 결국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종의 모양으로 그 사역(事役)을 수행하셨다(참조, 빌 2:7).
- (5) 성도들도 교회에서 봉사할 때에 대접받는 위치에서 봉사해서는 안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처럼 대접하고 베풀며 어려움을 수용하는 위치에서 수고하며 봉사해야 한다(참조, 마 6:2; 23:28; 눅 22:27; 요 13:4, 5).

23. **㉠** 베드로는 모인 무리를 향해 어떤 자들이라고 규정하였는가? (14, 15절)

- ㉠** (1) 너희는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과 장로들의 책략에 선동되어 아무런 이유 없이 예수를 정죄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베드로는 말하였다(참조, 마 27:1).
- (2) 또한 예수의 무죄하심을 선언한 빌라도의 판결(눅 23:22)에 불복하고 예수를 처형하도록 큰소리로 재촉한 자들임을 베드로는 밝혔다.
- (3) 그리고 죄수인 바라바를 석방하고 대신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외친(마 27:17, 25) 사악한 자들이라고 베드로는 말하였다.
- (4) 결국 베드로는 모인 무리를 향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라고 하였다. 곧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살인자라고 규정하였다.
- (5) 이와 같이 베드로는 명백하고도 단호하게 그들의 죄를 책망하는 담대한 설교를 했다.
- (6) 이처럼 성도들은 빛과 어둠 사이에서 우유 부단해서는 안 될 것이며 불의와 부정, 부조리에 대해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과감히 선포해야 할 것이다(참조, 신 16:20; 시 82:3; 잠 21:3; 사 56:1; 암 5:24).

24. **㉠** '거룩하고 의로운 자'는 누구에 대한 칭호인가? (14절)

- ㉠** (1) '거룩하고 의로운 자'는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의 칭호이다.
- (2) 여기서 '거룩한 자'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용어이다(참조, 막 1:24; 눅 1:35; 요일 2:20).
- (3) 그리고 '의로운 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불의에서 완전히 떠나서 절대로 의로우신 분이라는 뜻이다(참조, 7:52; 22:14; 요일 2:1).
- (4) 한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우리는 '성도'(聖徒), 즉 '거룩한 무리'라고 부르는데 성도들은 이 칭호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한다(참조, 롬 16:2; 엡 4:1; 빌 1:27; 골 1:10; 살전 2:12).

25. **㉠** '살인(殺人)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14절)

- ㉠** (1) 바라바를 가리킨다.
- (2) 그는 유월절 대사면(大赦免)의 관례에 따라 유대의 로마인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와 바라바 둘 중 하나를 석방해 주겠다고 유대인들에게 제의했을 때 유대인들의 선택에 의해 풀려 난 죄수였다(참조, 마 27:15-26).
- (3) 이 바라바가 마 27:16에는 유명한 죄수로, 막 15:7에는 민란 중에 살인하여 포박된 자들 중 하나로 그리고 요 18:40에는 강도로 각각 언급되어 있다.
- (4) 총독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 주려는 심산(心算)에서 살인자인 바라바와 예수 둘 중 어느 쪽을 석방하라 하고 유대인들에게 물었으나 대제사장들은 백성을 선동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고 그 대신 바라바를 놓아 달라고 했다(참조, 마 27:21-26).
- (5) 인간은 순간순간 선택하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성도들은 악에 빠지지 않고 현명한 선

택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한다(참조, 시 119:30; 눅 10:42; 히 11:25).

26. **㉠**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칭(稱)했는가? (15절)

- ㉠** (1) 베드로는 살인자인 바라바와 대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라 하였다.
- (2) 문자적으로 ‘생명의 주’란 생명을 주관하는 자, 즉 생명의 구원자 내지 창조자를 뜻한다(참조, 히 2:10; 12:2).
- (3)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신이 생명이시며(요 1:4; 14:6), 또한 성도들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시다(참조, 요 6:58; 7:38; 10:10).
- (4)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참조, 요 11:25, 26).

27. **㉠**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강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16절)

- ㉠** (1)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앓은뱅이를 일으킨 사실이 이교도들간에 흔히 행하여지는 이방 신의 이름을 의탁하여 점술을 하거나 또는 마술의 힘을 의지하여 병 고친 것과는 전혀 질이 다르다는 것을 밝히 말해 주기 위해서였다.
- (2) 즉 자신이 행한 이적은, 하나님의 종으로 수난을 당하셨으나 다시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한 자요 의로운 자요 생명의 주가 되신 절대 능력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케 되었으며,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임을 주장하였다.
- (3)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루어진 이적은 그리스도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며 베드로는 단지 그 효력이 발생하는 데 일종의 도구로 사용된 것임을 설명하였다.
- (4) 결국 이렇게 말함으로 베드로는 조금도 자신의 명예나 인기를 얻으려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내세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을 새롭게 하기에 전심 전력(全心全力)하였다.
- (5)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 일에 기금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보다 오히려 자신의 이름을 더 크게 내세워 존경과 영광을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는 자들은 본질의 말씀에 도전받아야 한다(참조, 갈 6:14; 딤후 2:4).

28. **㉠** 베드로는 모인 무리들에게 질책한 후 어떻게 권면하였는가? (17절)

- ㉠** (1) 베드로는 단호하고 엄격한 말씀으로 그들의 가슴속에 죄에 대한 두려움을 깨우친 후 그들이 낙심치 않도록 위로하였다.
- (2) 이제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아’라는 말 대신에 ‘형제들이’는 말로 전환하면서 그들의 범죄가 영적 무지의 탓이었음을 지적하였다(참조, 눅 23:34; 딤펢전 1:13).
- (3) 이어서 베드로는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으며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절망할 이유가 없음을 말함으로 그들을 권면하였다.
- (4) 이와 같이 베드로는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서 아울러 권면의 말씀을 통해 그들을 위로하였다.

29. **㉠** 베드로는 무리를 향해 무엇을 요청하였는가? (19절)

- ㉠** (1) 그는 무리들의 죄를 질책하고 권면한 후 사죄에 필요한 두 가지 행동을 요청하였다.
- (2) 그 첫째가 ‘회개하라’는 말씀이다. 즉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깨달았으니 너희는 완악한 마음을 고치고 주께 대한 범죄를 뉘우치며 그 사실을 고백하라고 하였다(참조, 2:38; 겔 18:31; 호 14:2; 율 2:12).
- (3) 둘째, ‘돌이키라’고 하였다. 즉 너희의 행위를 고치며 삶의 목표를 바꾸라는 것이다(참조, 신 30:10; 왕하 17:13; 겔 14:6; 호 12:6; 눅 22:32; 약 5:19, 20).
- (4) 결국 베드로는 무리를 향해 메시아이신 예수를 영접하라고 담대히 말하였다. 이와 같이 베드로는 무리들의 잘못을 지적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속(救

廢)과 함께 영생을 얻도록 권유하였다(참조, 8:4; 딤후 4:5; 계 14:6).

- (5) 죄의식에 대한 감각을 상실한 듯 윤리·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현 세대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인간 양심에 대한 자성(自省)이다(참조, 23:1; 롬 13:5; 고후 4:2; 딤후 전 1:5; 히 9:14; 벰전 3:16, 21). 이것은 참생명의 길을 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가장 현저한 특징으로 나타난다.

30. ㉠ **돌이킴에 대한 다섯 가지 보장은 무엇인가? (19절)**

- ㉠ (1) 첫째,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재산을 많게 하시고 너를 기뻐하리라'(신 30:8-10).
 (2) 둘째,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리라'(대하 7:14).
 (3) 셋째, '정녕 그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겔 18:28-32; 33:11).
 (4) 넷째,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인하여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렘 26:3).
 (5) 다섯째,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요일 1:9).
 (6)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야로 고백하며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물질적인 축복과 함께 구원과 영생 곧 영적 축복이 약속되어진다(참조, 레 26:4; 왕상 3:13).

31. ㉠ **진정으로 회개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날을 허락하신다고 베드로는 말하였는가? (19, 20절)**

- ㉠ (1) '유쾌(愉快)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하였다.
 (2) 여기서 '유쾌하게 된다'는 말은 '시원하다', '신선하다'는 뜻이 있다.
 (3) 여기서는 죄인이 속죄의 은총을 입게 되어 정신적인 고뇌에서 해방을 얻어 위로를 받고 마음에 경쾌함을 얻게 된다는 말이다.
 (4) 그러나 이보다는 죄를 속량받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날 기쁨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욱 좋다(참조, 고후 5:17).
 (5) 이처럼 형식적인 회개가 아닌 진정한 회개는 우리를 정신적인 고뇌와 번민으로부터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게 한다(참조, 롬 6:22; 8:2, 21; 계 1:5).

32. ㉠ **'만유(萬有)를 회복(回復)하실 때'는 어느 때를 가리키는가? (21절)**

- ㉠ (1)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선지자들의 입을 의탁하여 여인의 후손을 통해 타락한 이 세상을 회복하리라고 예언하셨다(참조, 창 3:15; 시 68:18; 사 42:1).
 (2) 여기서 '만유를 회복하실 때'는 곧 이 세상을 회복하실 때를 가리키는데 타락 이전처럼 만물을 함께 모으실 목적으로(참조, 엡 1:10), 땅에서 모든 반역을 제거하실 목적으로(참조, 고전 15:24-28),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목적으로(계 21:1), 즉 만물을 완전함과 무죄 상태로 회복시킬 목적으로, 주가 천 년 동안 다스리실 천 년 왕국 시대를 가리킨다(참조, 사 65:17; 66:22-24; 벰후 3:5-13).
 (3) 이러한 시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그때에 예언의 성취자, 완성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하실 것이다.
 (4) 그러므로 '만유를 회복하실 때'를 사모하며 소망하는 성도들은 현재의 고난을 기쁨으로 인내할 것이며, 그날을 위해 우리의 믿음과 성결한 삶을 예비해야 할 것이다(참조, 암 4:12; 엡 6:15).

33. ㉠ **모세는 그리스도의 예언적 표상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어느 면에서 그러한가? (22-24절)**

- ㉠ (1) 첫째, 모세가 구출한 사람들이 같은 동족이라는 점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예언적 표상이다. 모세와 같이 그리스도도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신다(참조, 마 1:21).
- (2) 둘째, 모세가 그의 형제들을 약속의 상태에서부터 구했다는 점, 즉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해방시켰다는 면에서 그러하다(참조, 롬 8:2).
- (3) 셋째, 모세가 그의 형제들과 여호와 사이의 중보자로서 행동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인간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신 그 역할에 대한 예언적 표상이라 할 수 있다(참조, 엡 2:16).
- (4) 넷째, 그의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체계를 널리 전파했다는 점에서 모세는 그리스도의 예언적 표상이다. 그리스도도 당신의 말씀 곧 복음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심에 최선을 다하셨기 때문이다(참조, 막 6:6).
- (5) 끝으로, 모세가 광야를 건너 가나안 땅을 향해 그의 백성들을 인도한 점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험난한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에 대한 예언적 표상이다.
- (6)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점만으로도 그리스도께서 모세보다 더 위대하심을 알 수 있다.

34. ㉠ ‘너의 씨’란 무슨 뜻인가? (25절)

- ㉠ (1) 이 말은 창 22:18에서 인용된 것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축복을 받아 번성하게 되고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참조, 창 12:3; 26:4; 28:14).
- (2) 여기에 ‘씨’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가리키는 말이다. 마치 갈 3:16에서와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 곧 ‘씨’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말하는 ‘씨’는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 (3) 즉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씨로서 모든 족속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주려고 왔다는 의미이다(참조, 롬 10:15; 딤펴전 1:11).
- (4) 결국 그리스도의 출현과 사역은 고대 아브라함 시대에서도 예언된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하여 성취되었다.

35. ㉠ 그리스도는 무슨 임무를 띠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는가? (26절)

- ㉠ (1) 먼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사명은 그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려고’하는 데 있다. 이것은 물질적인 부요함에 국한된 것이 아닌 영적인 풍성함도 내포하는 것으로 전(全)인격적인 축복이다.
- (2) 특히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을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축복하시고 송찬하셨던 것(눅 24:51), 즉 그가 성령을 보내신 것은 가장 큰 축복이요 축복 중의 축복이라 할 수 있다(참조, 1:4, 5; 2:4).
- (3)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또 다른 사명은 ‘그 악(惡)함을 버리게’하시는 데 있다. 즉 우리가 모든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교만과 불신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시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사(참조, 마 1:21)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데 있다.
- (4)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오신 근본 목적이요 아울러 복음 전파의 목표이다(참조, 요 3:16; 고전 1:21).
- (5)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영적·육적인 무지와 고통을 모두 해결해 주시며 영생에로의 초대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제 4 장 사도들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다

단락구분 1-4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히다 / 5-7 베드로와 요한이 심문을 받다 / 8-12 베드로가 공회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다 / 13-22 유대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한 후 풀어 주다 / 23-31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교회의 기도 / 32-37 초대 교회의 선한 연합의 생김

1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말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2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3 저희를 잡으매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4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오천이나 되었더라

5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6 대체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체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7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8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9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10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1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13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없이 말할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14 또 병 나온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15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16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17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

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18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19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21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러라

22 이 표적으로 병 나온 사람은 사십여 세나 되었더라

23 사도들이 놓이매 그 동류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24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재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요

25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26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27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쁨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28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29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30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31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을 전하나라

32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3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34 그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밧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줌이러라

36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37 그가 밧이 있을 때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1. ㉠ 본장에 나타난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모인 무리에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던 중 유대 지도자들에게 체포되어 투옥된 후 공회에서 심문과 협박을 받은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다.
- (2)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40년간 앓은병이로 구걸하며 신음한 자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다.
- (3) 그리고 그들은 모인 무리를 향해 이 이적의 근본적인 능력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임을 설명한 후 무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였다.
- (4) 즉 베드로는 설교를 통하여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였으며, 한편 그로 인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자들의 수가 약 2천 명이나 되었다.
- (5)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게 되었을 때 사도들에 대한 박해와 반대가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유대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여 심문하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하였다(참조, 막 13:9).
- (6) 그러나 베드로는 그들 앞에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했을 뿐만 아니라 석방되어 나온 후 더욱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동류(同類)들과 일심으로 기도하여 다시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 (7)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전파되는 곳에 사단의 세력은 방해 공작을 하기 위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남을 깨닫게 된다. 하지만 성령을 경험한 자들에게 사단의 방해는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을 더욱 뜨겁게 만드는 역할을 할 뿐이다(참조, 롬 8:35).
- (8)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전할 때, 특히 열심을 가지고 봉사할 때 핍박과 비난을 받게 될지라도 굴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함으로 믿음의 심지를 견고히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참조, 약 4:7; 행전 5:9).

2. ㉠ 유대 지도자들과 사도들의 특성은 각각 무엇인가? (1-22절)

- ㉠ (1) 유대 지도자들은 편협하며 이기적이었다. 즉 그들은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어 그를 믿는 자들의 수가 증가하는 데 대한 두려움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위치가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 (2) 또한 그들은 근시안적이며 육적인 것에 집착하였다. 유대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투옥시키면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깨닫지 못한 소치(所致)이다.
- (3)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은 무력(無力)하고 어리석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즉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몰랐으며 그들의 판단 기준도 없이 어리석은 말을 하였다.
- (4) 반면 사도들은 자기들의 임무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비록 사도들이 '학문(學問) 없는 범인(凡人)'이었지만 자신들이 부름 받은 그 일에 대해서는 현명하고 유능

했다.

- (5) 그리고 사도들은 담대했을 뿐만 아니라 아량이 있었다. 그들은 공회에 끌려가 심문을 받으면서도 그리스도를 전했으며 예수를 죽인 주동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관대한 사람들이었다.
- (6) 또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判斷)하라’는 말에서 드러난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순결한 충성을 간직하였다.
- (7)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인격과 삶은 유대 지도자들보다 고상하였다(참조, 빌3:8).
- (8)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성도들은 도덕적인 면에서도 불신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한다(참조, 마 23:3; 살전 1:7; 살후 3:9; 딤후 4:12; 딤후 2:7; 약 5:10).

3. ㉠ ‘성전(聖殿) 맡은 자’는 어떤 자를 가리키는가? (1절)

- ㉠ (1) 어떤 학자들은 안토니아 성의 로마 주둔 군대의 지휘관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다.
- (2)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의 행각(行閣)’이라 불리우는 성전 뜰에서 체포된 것으로 보아서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3)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성전(聖殿) 맡은 자’는 성전의 관리를 가리킨다고 하였다.
- (4) 그들의 직무는 혼란 시에 성전 뜰의 질서를 지키는 일 곧 성전 지역의 치안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 (5) 전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때 이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 줄 방책을 의논한 사실도 있다(눅 22:4, 52).

4. ㉠ 사두개인들은 어떤 자들인가? (1절)

- ㉠ (1) 사두개인들은 히브리어 <제택>에서 왔는데 정의(正義)의 일파라는 의미로서 사두개라고 하였다.
- (2) 또 한 설(說)은 B. C. 260년 이래 공회의 의장으로 있었던 안티고누스 소케우스(Antigonos Sochaeus)의 제자였던 ‘사독’이 주동이 되어 일어난 종파라고도 한다.
- (3) 그들은 비교적 귀족 계급에 속한 사람들로 생활도 부요하며 공회의 의원들로서 세력도 당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4)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세속적이어서 영의 존재와 내세, 부활, 천사를 부인하고 어디까지나 현실주의로서 만족하려는 사람들이었다(참조, 23:8; 마 22:23; 막 12:18; 눅 20:27).
- (5)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사두개인들의 마음에는 몹시 거슬리는 내용이었으므로 그들은 사도들에게 반감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5. ㉠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한 자들은 누구였는가? (1절)

- ㉠ (1) 그들은 ‘제사장들’이었다. 그들은 언제나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적대자 노릇을 하였다(참조, 마 26:3, 4). 그들은 임금이 군주 체제를 확립하려 하듯이 그들의 제사장직을 수호하려 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었던지 그들의 경쟁자가 된다고 여겨질 때는 참지 못하였다.
- (2) 그들과 함께 ‘성전 맡은 자’도 참여하였다. 그는 아마 제사장들의 지시를 받고 성전 안의 소란함을 정리하겠다는 명목으로 참여했을 것이다.
- (3) 또한 ‘사두개인’까지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는 일에 가담하였다. 영혼의 존재와 미래를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이 가담한 이유는 사도들이 전파하는 내용이 자기들과 배치(背馳)되기 때문이었다.
- (4) 이와 같이 세칭(世稱) 유대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확고히 하며 이

득을 확보하기 위해서 명약 관화(明若觀火) 한 사실과 진리를 배척하였다.

- (5) 성도들은 복음을 거부하는 무리들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릇된 신앙을 소유한 이단에 의해서도 현혹과 배척을 받는다(참조, 시 86:14; 겔 13:18; 눅 22:31; 엡 6:12; 벧전 5:8).

6. **㉠**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무슨 명목으로 체포하였는가? (2절)

- ㉠** (1) 첫째, 백성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유대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체포하였다.
 (2) 이것은 부당하다. 왜냐하면 성전 앞 뜰에서 사람을 가르치며 자신의 사상을 전하는 일은 전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풍속과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모임에는 열띤 토론으로 다소 소란스러울 수 있었다.
 (3) 그러므로 사도들을 ‘불법 집회’ 내지 ‘소요 음모’ 주동자란 명목으로 체포했다면 그것은 부당한 처사이다.
 (4) 둘째,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復活)하는 도(道) 전(傳) 함을 싫어하여’ 사도들을 체포하였다.
 (5)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이 자신들의 교리와 반대되기 때문에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 체포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계획하여 치욕적으로 죽인 예수를 예수의 제자들이 부활의 주(主)로 선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도들을 체포했다.
 (6) 결국 자신들의 권력에 위협을 느낀 유대 지도자들은 권력이라는 기득권을 이용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가난하고 힘 없는 사도들을 핍박하고 체포하였다(참조, 약 2:6).
 (7) 현실을 돌아볼 때 우리 주위에도 부(富)와 권세를 무기로 사용하여 없는 자를 억누르며 또한 착취하는 현장을 목격하게 되는데 성도들은 이러한 현실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도록 간구해야 할 것이다(참조, 시 103:6; 습 3:5; 요 5:30; 골 4:1).

7. **㉠** 유대 지도자들은 어느 정도까지 사도들을 박해하였는가? (3-21절)

- ㉠** (1) 이러한 박해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중에 당한 첫번째 것이었다.
 (2) 유대 지도자들은 날이 저문 고로 사도들을 심문하지 않고 그들을 감금한 채 다음날까지 심문을 연기하였다.
 (3) 또한 그들은 사도들을 공회 앞에 세워 사도들의 용기를 꺾으려고 하였다.
 (4) 그리고 그들은 사도들이 앉은뱅이를 고친 것이 사실이었으므로 사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줄 몰라 어리둥절하였다.
 (5)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단지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한 후 석방하였다.
 (6) 이와 같이 첫번째 박해는 사도들이 간히고 위협받는 정도에서 끝났으나 이후에는 복음 전파를 위해 성도들이 피를 흘리기까지 항거해야 했다(참조, 마 5:10-12; 요 15:20).
 (7) 오늘의 한국 교회가 있기까지 신앙 선배들의 눈물과 기도 뿐만 아니라 순교의 피가 있었음 성도들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참조, 마 10:17; 24:9; 눅 21:12; 계 2:10).

8. **㉠** 베드로가 앉은뱅이를 고친 후 행한 설교를 듣고 개심(改心)한 사람은 몇 명인가? (4절)

- ㉠** (1)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은 사람이 많았는데 ‘남자(男子)의 수(數)가 약 오천이나’ 되었다.
 (2)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즉 ① ‘남자’란 문자적으로 남자인지 아니면 여자를 포함한 ‘사람’의 뜻인지이다 ② ‘오천 명’은 베드로의 단 한번의 설교로 증가된 수만을 가리키는지, 지금까지의 총수인지이다.

- (3) 어떤 학자들은 문자적인 해석을 취하여 그때 개심한 사람의 수 가운데 남자만을 가리킨다고 하였다(Olshausen).
- (4) 그리고 '오천 명'이란 수에 대해 제롬(Jerome)은 베드로가 설교한 바로 그때 증가된 수(數)만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 (5) 반면 여자를 포함한 '사람'의 뜻으로 보는 학자도 있으며(De Wette, Knowling), 지금까지의 회개자들의 총수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Bengel).
- (6) 더우기 헨첸(Haenchen)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확성기도 없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또 그 당시의 예루살렘은 인구가 약 3만 명에 불과했다고 주장하면서 오천 명이라는 수자(數字)의 신빙성을 부인한다.
- (7)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2:41에 나타난 미완료 동사인 '더하더라'(헬, 프로세티데이)가 베드로의 설교 결과로써 일어나는 어떤 과정을 나타내 준다고 하는 사실이다.
- (8) 이는 곧 삼천 명이라는 군중의 무리가 반드시 한꺼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반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준다.
- (9) 그러므로 본절의 오천 명이라는 수자(數字)도 아마 3장에 기록된 이적과 설교에 의해 일어난 회개의 과정을 통하여 더해진 인원으로 보이는 이천 명의 개심자들, 그러니까 앞의 삼천 명과 합한 오천 명이라고 보는 견해가 보다 타당할 것이다(참조, 6:7; 16:5).
- (10)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며 어떤 외부적인 압력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는 성령의 활동은 중단되지 않는다(참조, 요 10:10; 엡 3:17-19).

9. **㉠ 베드로와 요한이 심문당한 산헤드린은 어떤 곳인가? (5, 6절)**

- ㉠** (1) 원로원(5:21), 장로회, 공회(눅 22:66)라고도 불리우는 산헤드린은 그 당시 유대의 최고 법원으로서 극형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지고 있었다.
- (2) 그러나 산헤드린에서는 극형인 경우에 로마의 식민지 통치자들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었다.
- (3) 가령 정해진 지역의 한계선을 넘어서 성전 안뜰로 들어오는 잘못을 범하는 이방인들에 대하여는 비록 그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산헤드린은 자체적으로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재판권이 있었다(참조, 21:28, 29).
- (4) 산헤드린은 그 직무상 의장을 맡는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의 문중(門中)에 속하는 칠십인의 다른 제사장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제사장은 형식상 유대교에 이념적으로 충실하거나 아니면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다.
- (5) 산헤드린은 그 당시에 사두개파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가 모였던 것도 이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을 것이다.

10. **㉠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심문한 첫번째 질문은 무엇인가? (7절)**

- ㉠** (1) 공회원들은 '너희가 무슨 권세(權勢)와 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고 질문했다.
- (2) 즉 앓은뱅이를 고친 이적에 대해서 먼저 무슨 권세와 이름으로 하였느냐고 심문하였다.
- (3) 그들이 이렇게 물은 것은, 사도들이 어떤 잡신이나 악령의 힘을 의탁하여 이적을 행하였으면 유대인으로서 용납 못 할 불신앙의 죄에 걸리기 때문이다(참조, 사 44:6).
- (4) 또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제명에 걸리는 것이다(참조, 출 20:7).
- (5) 결국 그들은 사도들이 어떻게 대답하든지 정죄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하였다(참조, 마 22:17-22).
- (6) 그러나 사도들은 이 심문에서 자기들의 행동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라는 공회의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안영을 위한 변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오히려 이 기회를 하나의 적극적인 복음 전도와 증거의 기회로 사용했다(참조, 딤후 4:2).

11. ㉠ 공회원들의 심문에 대해 베드로는 어떤 태도로 답변을 하였는가? (8-12절)

- ㉠ (1) 베드로는 성령을 경험하기 전에 가야바의 궁전에서 한 여종의 질문에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비겁한 사람이었다(참조, 마 26:69-75).
- (2)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후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담대히 전하며 그분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음을 명백히 증거하였다.
- (3) 다시 말해 베드로는 자신의 이적이 선한 일이며 범죄가 아니라는 점(9절)과 이것이야말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10절)임을 주지시켰다.
- (4) 아울러 예수께서 배척받으신 것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참조, 시 118:22)된 것(11절)이며 구원은 오직 그를 통해서만(12절)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참조, 요 14:6).
- (5)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세상 권세 앞에서 결코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므로 더 이상 공회원들이 변박(辯駁)치 못하게 했다(참조, 마 10:19, 20; 눅 21:15).
- (6) 완약하고 교만한 이 세대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성령 충만이다.

12. ㉠ 베드로가 ‘예수는 너희 건축자(建築者)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한 의미는 무엇인가? (11절)

- ㉠ (1) 여기에 언급된 귀절은 시 118:22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장래에 나타날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다.
- (2) 전에 예수께서도 자신을 가리켜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다(참조, 마 21:42; 막 12:10; 눅 20:17).
- (3) 곧 건축자들에게는 쓸데없다고 버림 받은 돌과 같은 예수를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사 자기 우편에 두셔서 권능과 영광을 홀로 차지하게 하셨으며 만민의 구원의 기초를 만들었으니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셈이다.
- (4) 결국 이 돌은 사 28:16의 말씀을 벨전 2:6에 인용한 것과 같은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이 되었다(참조, 롬 9:33; 엡 2:20).
- (5) 이와 같이 베드로는 공회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기초가 되는 것을 밝히 설명하였다.
- (6) 성도들은 이웃에게 예수를 역사적인 인물로 또 선한 선생으로만 소개하는 데 머물러서는 진정한 예수를 소개하였다고 말할 수 없다. 성도들은 베드로처럼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사건의 참의미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참조, 갈 6:14; 엡 2:16, 17).

13. ㉠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救主)임을 입증하는 현저한 성귀는 무엇인가?(12절)

- ㉠ (1)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救援)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天下人間)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고 증거함으로써 예수의 유일 구주성을 나타내었다.
- (2) 베드로의 이 말은 육적 구원을 넘어서 전(全)인류의 영적 구원에 대한 의미이며 또한 인간 구원에 있어서만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어떤 것과 타협적이거나 또는 화해적일 수 없다는 뜻이다.
- (3)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어떤 이름이나 권세 등 그 아무것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면에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배타적이라 할 수 있다(참조, 요 14:6; 롬 5:21; 딤후 1:10; 요일 5:12).
- (4) 그러므로 기독교를 포함한 기타 종교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세계 종교를 형성하자는 일부 지도자들의 생각은 극히 위험한 일일 뿐 아니라 용납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14. ㉠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공회원들의 자세는 어떠했는가? (13-16절)

- ㉠ (1) 첫째, 공회원들은 사도들의 담대한 태도에 당황하였다(13절).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사도들이 공회원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확신있게 증거하였으므로 공회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 (2) 둘째, 사도들의 능변에 당황하였다(13절). 베드로와 요한은 원래 어부였으며 공회원들처럼 학식있는 사람도 아닌 범인(凡人)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창하고 설득력 있게 말을 했으므로 더 이상 힐난(詰難)할 말을 찾지 못했다.
- (3) 셋째, 공회원들은 사도들의 증거를 부인할 수 없었다(14절). 왜냐하면 그 이적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증거 곧 병 고침 받은 사람이 공회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 (4) 또한 공회원들은 사도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고 어쩔 줄 몰라 했다(16절). 왜냐하면 나면서 앓은뱅이 된 자를 고친 그 사실이 성전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바 되었고 급기야 전(全)예루살렘 사람에게 전파되어 경솔하게 사도들을 다룰 수 없었기 때문이다.
- (5) 결국 성령의 능력을 입은 사도들 앞에서 세상 권세자들은 자신들의 마음대로 사도들을 처리할 수 없었으며 오히려 사도들의 담대함과 능력에 압도되었다.
- (6) 성도들이 항상 갖추어야 할 자세 가운데 하나는 사람을 두려워하기에 앞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사람의 말을 따르기 앞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이다(참조, 신 10:12; 수 24:14; 전 12:13; 마 10:28; 뱀전 2:17).

15. ㉠ ‘학문(學問) 없는 범인(凡人)’이란 의미는 무엇인가? (13절)

- ㉠ (1)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당신의 제자로 삼기 위해 불렀을 당시 그들은 어부였었다(마 4:18-22). 그들의 이 직업은 아마 가업(家業)이었을 것이며 그런고로 베드로와 요한은 랍비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 (2) 그러므로 그들은 전문적인 학자나 공식 자격을 갖춘 교사가 아니었다(참조, 요 7:15).
- (3) 그런 의미에서 ‘학문(學問) 없는 범인(凡人)’이란 전혀 무식하다는 뜻이 아니라 여호와에 대한 지식 외에 유대 사회와 문화에 관한 지식을 갖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 (4) 공회원들의 판단에 의하면 범인(凡人)에 불과한 사도들이 능숙하게 성경적인 논증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저 기이하기 이를 데 없었다.
- (5) 비록 정식 교육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한 베드로와 요한이었으나 성령이 충만한 그들은 학문적인 소양을 축적한 공회원들을 당황케 하였다.
- (6) 성도들은 세상의 문화나 지식을 도외시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며 또한 학식이 없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참조, 살후 1:11; 딤후 2:21).

16. ㉠ 공회원들이 서로 의논(議論)한 후 결정한 사항은 무엇인가? (17-22절)

- ㉠ (1) 첫째, 가능한 한 이 이적에 대한 이야기가 민간(民間)에 퍼지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이것은 이 이적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유대교를 떠나 그리스도에게로 개심함으로써 유대 지도자들이 메시아를 죽인 원흉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 (2) 둘째, 사도들로 하여금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判斷)하라’고 담대히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 (3) 결국 공회원들은 사도들의 이적과 증언에 대해 백성들의 지지가 있자 사도들을 어떻게 처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한 후 놓아 주었다.
- (4) 이와 같이 공회원들은 사도들이 설교하는 것을 금했으나 설교의 중심 내용이 되었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반박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결정 사항은 결국 모든 사람으로부터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를 낳았다(21절).

(5) 어떤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은 악인(惡人)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게 하시며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신다(참조, 잠13:22).

17. **㉠**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위협(威脅)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17, 18절)

- ㉠** (1) 공회원들은 사도들의 증언의 내용이 진리나 아니냐 하는 것은 문제삼지 않고 그들이 증거하는 행동을 금지시키기 위하여 위협하였다.
- (2) 위협이라는 말 자체가 벌써 공정한 것은 못 된다. 그들의 위협은 비(非)진리가 진리를 대항할 때, 불의가 의를 대항할 때 허세를 부리고 대항하는 가장 비겁한 행동이다.
- (3) 베드로의 증언과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엄연히 앞에서 있는 한 공회원들은 정당한 방법으로 사도들의 답변을 반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사도들을 부당하게 위협하였다.
- (4) 이와 같이 진리를 헐박과 공갈로 막아 보려는 생각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실패할 수밖에 없다(참조, 시85:11; 요3:21; 18:37; 롬2:2; 딤후3:8).

18. **㉠** 공회에서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지 말라고 경고하자 사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19, 20절)

- ㉠** (1) 공회가 지금 심문하고 있는 자들은 예사의 범인(凡人)이 아닌, 즉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과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자들이었다.
- (2) 더우기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속에는 타는 불길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만 있을 수 없었으며 아울러 그 말씀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참조, 렘20:9; 고전16:22).
- (3) 한편 그들은 예수의 지상 사역과 그의 부활에 대한 증인(10:39-41)이었으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당신의 이름을 땅 끝까지 전파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도들이었다(1:8; 10:42).
- (4) 이러한 사도들에게 공회에서 그것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는 경고를 하게 되자 사도들의 반응은 확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 (5) 즉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判斷)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반응을 나타냈던 것이다.
- (6) 이와 같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원들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담대히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며 도리어 불의한 자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제공한 것은 성령의 능력을 입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행동이었다(참조, 요16:13; 롬8:14, 26; 고전2:13; 갈5:25).

19. **㉠**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처벌하지 못하고 석방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21절)

- ㉠** (1) 백성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이적과 그들의 증언에 대해 지지하였으며 그들을 따르는 무리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 (2) 이러한 추세로 인해 공회원들은 백성들의 원망과 손가락질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것이다.
- (3) 그래서 공회원들은 사도들을 마음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석방하였다.
- (4) 이와 같이 그들은 진리보다 대중들을 더 무서워한 우매한 자들이었다(참조, 롬12:2; 고전7:31; 요일5:4). 즉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Coram Deo) 살아가고 있다는 분명한 신의식(神意識)이 없이 단지 겉치레의 신앙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20. **㉠** 본서의 기자인 누가가 고침 받은 앓은뱅이의 연령을 명시(明示)한 까닭은 무엇인가? (22절)

- ㉠** (1) 의사였던 누가는(골4:14) 성령의 능력으로 병 나은 자의 연령을 자주 밝히고 있다(참조, 눅8:42; 13:11).
- (2) 여기에 명시된 앓은뱅이의 나이는 40세로서 그는 나면서부터 불구였으며(3:2) 그가 나

이 먹을수록 그 병은 더욱 깊어졌고 따라서 더욱 고칠 수 없었다.

- (3) 그 당시 이러한 만성병을 인력(人力)으로 치료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였는데 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치유받았다.
- (4) 이 사건은 전혀 불가능한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케 한 이적이었으며, 누가가 병 나은 자의 연령을 밝힌 것은 이 사건의 확실성을 더욱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21. **㉠ 석방된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처신(處身)했는가? (23, 24절)**

- ㉠** (1) 먼저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에서 석방된 후에 즉시 동류(同類) 곧 믿음의 동료들에게 갔다. 그들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믿음의 형제를 찾아가서 위로받으며 새 힘을 공급받고자 했다.
- (2)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동류들에게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告)했다. 그들은 임박한 박해를 예견하면서 믿음의 형제들이 당황하지 아니하고 더욱 담대한 신앙으로 무장하여 피차 격려할 것을 당부하였다(참조, 빌 1:14).
- (3) 여기에 대해서 믿음의 형제들과 초대 교회는 석방되어 돌아온 베드로와 요한을 환영하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과 기도를 드렸다.
- (4) 결국 외부적인 박해는 성도간의 단결을 강화시키고 믿음에 대한 열의를 더할 뿐이었다.
- (5) 만일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을 경우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도간에 분열 없이 하나 되기를 힘쓰는 모습이 알곡 신앙(信仰)인 것이다(참조, 벰전 4:16; 5:10).

22. **㉠ 사도들과 초대 교회의 기도는 어떤 방법으로 드려졌는가? (24절)**

- ㉠** (1) 첫째, 그들은 일심으로(참조, 1:14) 기도하였다. 그들은 다가를 고난을 인식하고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인 하나님께 마음을 일치하여 간구하였다.
- (2) 이에 대해 성경 학자 델리취(Delitzsch)는 ‘일심이란 의지와 사상과 감정을 의식적으로 완전히 일치시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Biblical Psychology, p. 295).
- (3) 둘째, 그들은 소리를 높여 기도하였다. 본문에 나온 말만 가지고서는 모든 사람이 함께 통성(統聲)으로 기도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기도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 (4) 단지 확실한 것은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열심히 기도했다는 점이다.
- (5) 성도들은 성경에 나타난 신앙 선배들을 본받아 외부의 핍박과 내부의 갈등을 기도로 해결하는 성도다운 신앙의 모습을 지녀야 할 것이다(참조, 대상 16:11; 시 105:3; 빌 4:6; 골 4:2).

23. **㉠ 사도들과 초대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24-30절)**

- ㉠** (1)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들은 믿음의 형제들은 합심하여 기도하였는데 그 기도는 다 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2) 첫째, 사 37:16-20의 히스기야의 기도에서 인용한 하나님께 대한 찬미가 포함되어 있다(24절).
- (3) 둘째, 시 2:1, 2의 인용(25, 26절)과 여기서 인용된 시편 말씀의 견지에서 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다(27, 28절).
- (4) 마지막으로 자기들이 처한 현재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능력 주실 것을 비는 간구가 포함되어 있다(29, 30절).
- (5) 본귀절의 기도 가운데 나타난 의미 심장한 사실은 이들 초창기의 성도들이 압제와 핍박을 가하는 자들로부터 오는 환난이나 시련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구원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는 점이다.
- (6) 도리어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으며 또 하나님께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주실 것을 기도했다는 사실이다.

- (7) 성도들은 당면한 문제들을 회피하려고 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이기 보다는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간구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를 키워 나가야 한다(참조, 신31:6; 수 1:6; 대상 22:13; 대하 32:7; 딤후 2:1).

24. **㉠ 기록에 의하면 그리스도를 대적(對敵)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25, 26절)**

- ㉠** (1) 열방(列邦)과 족속(族屬)들과 군왕(君王)들 그리고 관원들이다.
 (2) 여기서 열방은 유대 민족 이외의 이방 국가들을, 족속은 택하여 세우신 유대 민족을, 군왕은 헤롯 임금 그리고 관원은 로마의 총독 빌라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3)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거나 그분에 대해 무관심한 모든 세력을 그리스도께 대항하는 세력으로 보아야 한다.
 (4) 더우기 예수께서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헤치는 자니라’(마 12:30; 눅 11:23)고 말씀하심으로써 대적의 범위를 외부적인 것과 내부적 곧 영적인 범위에까지 확대시키셨다.
 (5) 가일층(加一層) 야고보는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약 4:4)이라고 하였다.
 (6) 그러므로 성도들은 단지 하나님이 없다고 반박하는 자만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자 하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도 그와 같은 자임을 인식해야 한다(참조, 왕하 17:33; 습 1:4, 5; 눅 16:13; 고전 10:21; 약 1:8; 4:8). 이러한 자들이 교회에 있으면 항상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

25. **㉠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27절)**

- ㉠** (1)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合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았다.
 (2) 여기에 기록된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Herod Antipas)로서 갈릴리와 베뢰아 지역을 약 삼십 년 동안 다스린 분봉왕이다(참조, 마 14:1, 3; 막 6:14; 눅 1:3).
 (3) 본디오 빌라도(Pontius Pilate, A. D. 26-36)는 디벨리우스 황제 때 유대 지경의 로마 총독으로 있었던 자이며, 이방인은 로마 군인들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는 일에 가담했던 자들을 말한다.
 (4)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을 포함한 예수의 동족 곧 유대인을 가리킨다.
 (5) 그러므로 문자적인 해석을 따를 경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유대인과 이방인 양자(兩者) 모두에게 있다.
 (6)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못박은 자는 완악하고 무지한 전(全)인류인 것이다.
 (7) 그런데 그리스도를 죽인 인류를 향해 하나님은 책임을 추궁하지 않으시고 다만 인류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사 회개를 바라실 뿐이다(참조, 삼상 7:3; 대하 7:14; 느 1:9; 사 55:7; 겔 18:21; 습 1:3).

26. **㉠ 기도의 응답은 어떤 방법으로 주어졌는가? (31절)**

- ㉠** (1) 일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던 믿음의 형제들이 기도를 끝마쳤을 때 그들은 세 가지 방법으로 응답받았다.
 (2) 먼저 모인 곳이 진동(震動)하였다. 외적 현상으로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증거요, 기도가 응답된 증거였다(참조, 왕상 19:11, 12; 사 29:6; 마 27:54; 28:2).
 (3) 또한 오순절 성령 강림 때(2:1-4)와 같이 또다시 내적인 성령 충만을 체험하였다(참조, 요 1:16; 고후 1:22; 엡 3:19; 빌 1:19; 요일 4:13).

- (4) 그리고 그 결과로 오순절 성령 강림 때와 같은 방언을 말한(2:4) 사실은 없었으나 더욱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담력을 얻게 되었다(참조, 엠 3:12; 딤후전 3:13; 히 4:16; 10:19; 요일 4:17).
- (5) 선교 2세기를 맞이한 한국의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위하여 보다 많은 기도를 해야 할 것이며, 영적 기근으로 굶주린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참조, 눅 4:18; 9:6; 고전 1:17).

27. **㉠** 본서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무엇인가? (31절)

- ㉠** (1) 본서는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했다기 보다는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역사하신 성령의 사역을 다룬 책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래서 본서를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2) 이와 같이 본서인 사도행전에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많은 기록이 있다.
- (3) 첫째, 성령은 믿는 자를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으로 이끄시며 세례를 받게 하신다(1:5; 11:15, 16).
- (4) 둘째, 성령은 믿는 자에게 임하셔서 중생의 증거가 되신다(2:38; 5:32; 10:44; 15:8).
- (5) 셋째, 성령은 믿는 자로 하여금 증거하게 하시며(8절), 지도자로 활약하게 하시며(6:3)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며(7:55, 56), 특별한 분별력을 주신다(13:9).
- (6) 넷째, 성령께서 믿는 자를 친히 인도하신다(13:4; 16:7).
- (7) 위의 사실을 통해 볼 때 성도들은 이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이라 할 수 있다. 단지 우리가 성령을 얼마나 사모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 어느 정도의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지가 문제이다(참조, 고전 12:31; 14:12).

28. **㉠** 초대 교회 성도들의 생활 면모는 어떠했는가? (32-37절)

- ㉠** (1) 박해를 선동한 사람들의 기대와는 반대로, 나사렛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에게로 향한 적대감은 그들을 좀더 밀접하게 결속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즉 박해는 오히려 초대 교회 성도들을 신앙적 및 물질적으로 서로 연합하게 하였다.
- (2) 초대 교회 성도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그들은 비록 나이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며 자란 환경이 달랐지만 그리스도 신앙으로 이해하며 사랑함으로써 서로 연합하였다(참조, 롬 12:5; 고전 10:17; 갈 3:28; 엠 4:13).
- (3) 또한 그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財物)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자가 없었다.
- (4) 즉 그들은 신실한 마음으로 피차 사랑하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삶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참조, 2:44; 속 7:9; 골 3:13; 벧전 1:22).
- (5) 그리고 사도들은 큰 권능을 입어 계속해서 그들의 사명 곧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으며 아울러 믿음의 형제들도 큰 은혜를 얻었다(참조, 11:23).
- (6) 더우기 밭과 집이 있는 자들이 그것을 팔아 구제 기금으로 내놓았기 때문에 그 중에 궁핍한 사람이 없었다. 특히 사도들은 그 구제 기금을 사람들의 원망 없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분배하였다(참조, 9:36; 눅 11:41; 12:33).
- (7) 이와 같이 성령 충만을 경험한 초대 교회 성도들은 연합과 증거와 구제의 삶을 통해 피차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증(確證)해 보았다(참조, 롬 5:8; 고후 13:5).
- (8) 한편 성도들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一萬)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迷惑)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었도다'(딤후전 6:10)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물질에 대한 청지기적 사명을 확고히 하여 물질로 인해 자신이 멸망에 이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참조, 히 13:5; 약 1:15).

29. ㉠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36, 37절)

- ㉠ (1) 바나바, 즉 권위자란 뜻의 별명을 가지고 있는 요셉은 초대 교회 성도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할 때 자신의 밭을 팔아 헌납한 사람이다.
- (2) 그는 이방 구브로에 살던 흠어진 유대인으로서 레위족이었다.
- (3) 레위족은 원래 재산을 사유할 수 없었으나(참조, 민 18:20; 신 10:9), 포로기 이후에는 이 제도가 엄격히 지켜지지 않아 재산을 사유할 수 있었다(참조, 렘 32:7).
- (4) 한편 바나바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동행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다(13:2).
- (5) 이와 같이 그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팔아 헌납함으로써 초대 교회 성도들의 유 무 상통(有無相通)이 어떤 것인지 몸소 보여 준 실천적이며 모범적인 신앙인이었다.
- (6) 이웃의 어려움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형제애와 착한 일로써 몸소 남의 모범이 되고자 하는 숭선 수범(率先垂範)이야말로 이기적인 현실 속에서 성도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이다(참조, 20:35; 롬 15:1; 고전 9:22; 살전 5:14).

연구자료

교회의 기능. 본장에는 초대 교인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32절)는 기록이 나온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기관일 뿐 아니라(엡3:10; 벰전2:9) 인간들에게 기여하는 몇 가지 기능을 가진 공동체임을 알 수 있다. 즉 다음과 같은 기능이 교회 내에서 발휘되어야 한다.

첫째, 교회는 그 구성원들에게 교제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예수께서 열 두 제자를 불러 주심으로써 그들간에 대화와 친교의 장(場)이 형성되었던 것처럼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서로 교제하며 나아가 상부 상조할 수 있는 공동의 장을 갖게 된 것이다(2:42-47). 둘째,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야 한다. 사실 교회는 이 같은 목적에 입각하여 설립된 성도들의 연합체이다(참조, 1:8). 그러므로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은 세상을 복음화시킬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이라 하겠다(마28:19, 20). 그러니 우리들은 사도 베드로나 바울처럼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지는 못하더라도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힘써야 할 것이다. 셋째, 교회가 갖고 있는 또 다른 기능 중의 하나는 지역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다. 성도들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듯이 우리도 사람들에게 아낌없는 긍휼을 베푸는 것이 기독교적 사랑의 원리이다. 그러므로 주의 몸된 교회의 일원인 우리는 자교회(自教會)의 부흥 발전에만 관심을 보여서는 안 되며 지역 사회와 어려운 형제를 위해 봉사하는 데도 일익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제 5 장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급사(急死)하다

단락구분 1-11 하나님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급사하다 / 12-16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奇事)를 행하다 / 17-28 사도들이 투옥되어 공회 앞에 서다 / 29-32 공회 앞에서 베드로가 담대히 증언하다 / 33-39 공회원들이 가말리엘의 입장을 받아들이다 / 40-42 사도들이 채찍질을 당한 후 풀려나다

1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2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3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가 없더니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5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6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7 세 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8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9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대
10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11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12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슬로몬 행각에 모이고
13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14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15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우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누게 덮일까 바라고
16 예루살렘 근교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17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18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19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20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21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이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22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23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니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라 하니
24 성전 말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25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라 하니
26 성전 말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 함은 백성들이 들로 칠까 두려워함이라
27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28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29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30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31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 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32 우리는 이 일에 증인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33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새

34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35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36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사백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할 때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37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쫓아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38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39 만일 하나님께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40 저희가 옮겨 여져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41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42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1. **㉠** 본장에 기록되어 있는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성령이 충만하던 초대 교회 내에서 성령을 기만(欺瞞)한 죄로 인하여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급사한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 (2) 이 비극적인 사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와 같은 존경과 관심을 받으려는(4:36, 37) 허영심 때문에 소유를 팔았다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온전한 헌금을 드리지 않고 성령을 속인 죄에서 비롯된 것이다.
- (3) 이와 같이 동기가 그릇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신과 봉사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으며 성령이 충만하여 기꺼이 물건을 통용하던 초대 교회 성도들의 삶에 큰 충격을 던져 주었다.
- (4) 한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급사는 초대 교회의 순수성과 엄격성을 극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 되었다.
- (5) 오늘날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자세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진실된 모습이다.
- (6) 또한 사회 정의와 개인의 양심이 흐려지고 있는 이때 교회는 좀더 순결하고 엄격하게 정의와 진리 그리고 양심을 회복해야 한다(참조, 고후 13:11; 엡 4:3).

2. **㉠**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무엇이었는가? (1-11절)

- ㉠ (1) 첫째,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믿음의 형제들을 돕겠다는 순수한 동기에서 구제금을 낸 것이 아니요 세속적인 허영심과 자만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소유를 팔았다.
- (2) 둘째, 그들은 세상의 부(富)를 탐하였고 하나님의 섭리는 불신하였다. 즉 그들은 돈이 수중에 들어오게 되자 돈에 대한 애착과 생활에 대한 염려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땅값의 일부를 착복하였다(참조, 호 10:2; 마 6:24; 눅 9:62).
- (3) 셋째, 그들은 공모(共謀)하여 사도들을 속여 땅값 전부를 가져왔다고 말하였는데 이것은 사도 뿐 아니라 성령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기만한 죄였다(참조, 수 7:16-26).
- (4) 이와 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인간적인 욕심으로 일을 하다가 성령을 기만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급사하는 결과를 초래했다(참조, 롬 6:23; 약 1:15).
- (5) 오늘날 성도들의 봉사와 헌신이 진실에 근거하지 않은 위선적인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 모든 행위를 가증히 여기실 것이며, 또한 물질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 규정하실 것이다(참조, 잠12:19; 스후8:16; 말2:6; 엡4:25).

3. **㉠**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1, 2절)

- ㉠** (1)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유대인들간에는 흔히 있는 이름으로(9:10; 23:2) 이 말은 '여호와와의 은총'이라는 뜻이 있다.
- (2) 그리고 삽비라는 여기서만 나타나는 이름으로 히브리어 <사피르> 곧 '청옥'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이며 '아름답다'는 뜻이 된다.
- (3) 그들은 부부였으며 둘 다 초대 교회의 일원이었고 교회에 구제금을 기부하기로 동의하였다.
- (4) 그런데 아나니아 부처(夫妻)는 그만 사단의 유혹을 받아 부부가 공모하여 사도들과 성령을 속이는 죄를 범하고 말았다.
- (5) 한편 그들은 상대방의 그릇된 생각을 책망하고 바로잡아 주기 보다는 서로 동조하여 죄의 길로 향했던 어리석은 부부였다.
- (6) 결국 이 부부의 이름은 아름답고 거룩했지만 물질에 눈이 어두워진 그들은 사단의 유혹에 빠져 그들의 귀한 이름과 정반대되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 (7) 따라서 성도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교훈삼아 부부간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위배된 행위에 대해서 충고를 아껴서는 안 될 것이며, 물질로 인해 시험에 들지 않기를 간구해야 할 것이다(참조, 잠30:8, 9).

4. **㉠** 아나니아 부처(夫妻)가 범한 행위는 누구의 사주(使職)를 받아 일어난 일인가? (3절)

- ㉠** (1) 아나니아 부처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모두 바치기로 작정하였다.
- (2) 그러나 돈이 들어오게 되자 그들은 물질에 대한 애착으로 마음이 흔들리게 되었고 이때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더욱 충동질하여 땅값의 일부를 감추게 하였다.
- (3) 이와 같이 아나니아 부처의 물질에 대한 사랑은 사단의 유혹을 수용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사단의 지시를 받아 성령을 기만하기까지 하였다(참조, 딤후전6:10).
- (4)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이 시대의 성도들은 돈을 사랑하다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 그만 예수 그리스도를 은 삼십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마27:3)를 기억해야 한다(참조, 창31:15; 왕하15:20; 시15:5).

5. **㉠** 베드로가 땅값 일부를 감춘 아나니아의 행위를 성령을 속인 죄라고 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3, 4절)

- ㉠** (1) 땅값의 일부를 숨기고서도 땅값의 전부를 바치는 것처럼 위장하여 사도들과 교회를 우롱하였기 때문이다.
- (2) 또한 아나니아의 행위는 하나님보다는 인간의 존경과 인정을 받으려고 가장(假裝)한 인간 중심적이며 위선적인 소행이었기 때문이다.
- (3) 더우기 그는 성령의 역사를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소욕대로 행했기 때문이다(참조, 갈5:17).
- (4) 이와 같이 아나니아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 사도의 눈을 속인 후 성도들의 존경과 교회의 칭찬을 받음으로 자신의 허영심을 만족케 하려던 알팍한 생각 때문에 그는 사도 베드로로부터 책망을 받게 된 것이다.
- (5) 결국 보이지 않는 성령을 망각한 채 보이는 사람들만 의식하여 방자히 행한 아나니아는 성령을 속인 죄 곧 결코 사함 받지 못할 죄를 범하고 말았다(참조, 사63:10; 마12:31; 막3:29; 엡4:30; 살전5:19).
- (6) 그러므로 성도들은 정직과 진실로써 이웃을 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행동의 기준을

말씀에 두어 자신의 양심과 성령을 거스리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참조, 24:16; 롬 9:1, 2; 고후 1:12; 딤펢전 1:5, 19; 벧전 3:16).

6. **㉠**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이 말씀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4절)

- ㉠** (1) 첫째, 아나니아 부처는 땅값을 자신의 뜻대로 처분할 권한이 있었다. 그러므로 땅값의 전체에서 일부만 가져오는 것도 할 수 있는 일이었다.
- (2) 그러므로 돈의 일부를 감출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 아나니아 부처는 공모하여 돈의 일부를 감추고 사도들을 속이는 어리석음을 범하였다.
- (3) 둘째, 아나니아 부처는 자신의 땅을 팔아 그 돈을 가져오지 않아도 무관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구제를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참조, 고후 9:7).
- (4)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허영을 충족시키기 위해 인색함으로 자신의 소유를 그것도 전부인양 가장하여 드렸던 것이다(참조, 몬 1:14).
- (5) 이와 같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은 자신들의 소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하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허영에 끌려 그 만 물질의 종 노릇을 하고 말았다(참조, 시 119:36; 엡 5:3; 벧후 2:14).
- (6) 그러므로 성도들은 물질을 가지고 주인 행세를 하기 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았다는 자세로써 주신 물질을 선용(善用)해야 한다(참조, 벧전 4:10).

7. **㉡** 사도 베드로에게 거짓말하던 아나니아는 어떻게 되었는가? (5, 6절)

- ㉡** (1) 인색하게 헌납했을 뿐만 아니라 그 소유의 일부를 감춘 사실을 거짓으로 고(告)한 아나니아는 베드로의 책망을 듣고 엎드러져 혼(魂)이 떠나 버렸다.
- (2) 여기서 아나니아의 급작스런 죽음에 대한 심리학적인 설명에 의하면 그가 것처럼 치명적으로 죽은 것은 자기의 거짓이 발각되어 버린 데 대하여 받은 충격과 수치 때문이라고 한다.
- (3) 그러나 아나니아의 죽음에 대하여 본질에 사용되어 있는 동사 <엑세프쉬크세>는 ‘마지막 숨을 내뿜다’, ‘죽는다’라는 뜻의 헬라어인데 이 말은 70인역(LXX)의 사 4:21에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죽음에 사용된 말이기도 하다.
- (4) 더우기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인하여 죽은 자에 관한 문맥에서만 나타날 뿐이다(12:23).
- (5) 그러므로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었으며 심리학적 제반 요소들은 부수적인 것들이라 해야 할 것이다.
- (6) 결국 사도 베드로만 속이면 성도들의 존경과 관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급사(急死)하였다.
- (7)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一舉手一投足)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한 채 인간의 눈만 속이면 자신의 욕심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는 아나니아와 같은 종국을 맞이할 것이다(참조, 대상 28:9; 뎀 17:10; 23:24; 암 9:3).

8. **㉢** 남편과 공모(共謀)한 삽비라는 어떻게 되었는가? (7-10절)

- ㉢** (1) 삽비라는 남편 아나니아가 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로부터 대단한 칭찬을 받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아마 사도들이 모인 장소로 갔을 것이다.
- (2)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분위기는 엄숙했고 사도 베드로는 삽비라를 향해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라고 질문하였다. 이 질문은 삽비라를 추궁하기 보다는 회개시키기 위한 일이었다.
- (3) 그러나 삽비라는 최후 순간까지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방자히 성령을 거스려 ‘예 이뿐이로라’고 대답하였다.

- (4) 결국 삼비라는 아나니아와 그 모의(謀議)에 있어서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심판에 있어서도 남편과 동일한 급사(急死)를 당하게 되었다.
- (5) 불의와 부정을 목격하고서도 그것을 개혁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 편승하며 그것을 도모한다면 무소 부재(無所不在)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행위대로 보응하실 것이다(참조, 애 3:64; 호 12:2; 롬 2:6).

9. **㉠** 아나니아와 삼비라의 죽음이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은 어떠했는가? (5, 11절)

- ㉠** (1) 베드로가 말한 것을 듣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본 사람들 또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
- (2) 여기서 '두려워하였다'고 하는 말은 절망적으로 혹은 공포에 싸여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는 의미이다.
- (3) 이와 같이 아나니아와 삼비라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자신들의 신앙 생활을 재 점검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 (4) 오늘날 성도들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 제 현상 뿐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교훈을 발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성화시켜 나가야 한다(참조, 레 10:10; 마 16:3; 롬 2:18).

10. **㉠** 아나니아와 삼비라의 사건 이후 초대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라(12-16절).

- ㉠** (1)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석방된 사도들은 이에 굴복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으며 이때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전(前)과 같이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공개적인 장소에 모이게 되었다(12절).
- (2) 둘째, 아나니아와 삼비라의 두려운 종말에 의해 야기된 경외의 두려움이 모든 사람 가운데 임하여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도들의 전도를 받아들이고 성도들의 경건한 생활을 칭송하게 되었다(13절).
- (3) 더우기 사도들의 담대한 증거와 성도들의 진실된 생활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무리의 수를 더하게 하였다(14절).
- (4) 세째, 사도들은 병 고치는 능력을 받아 병든 사람과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자들을 고쳐 주었다(15, 16절).
- (5) 이와 같이 성령을 속인 죄로 인하여 초대 교회 내에서 충격적인 비극이 발생했으나 자신들의 신앙을 참되고 경건하게 재무장한 초대 교회는 말씀 전파에 대한 행진을 더욱 뜨겁게 계속하였다.
- (6)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악한 세대(참조, 눅 7:31, 32)를 본받지 말고 진실과 경건으로 전신 감주를 삼아 사단의 유혹을 이기며 아울러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한다(참조, 엡 6:11, 14).

11. **㉠** 사도들이 행한 표적과 기사에 따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12절)

- ㉠** (1) 사도들은 전(前)에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곳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3:11) 유대 지도자들에게 체포되어 복음 전파에 대한 금지 명령을 받고 석방된 적이 있다.
- (2) 그런데 사도들이 행한 표적과 기사를 목격한 성도들이 바로 그곳에 모여들었다. 즉 외 부적인 핍박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는 관습은 폐지되지 않고 그곳에서 성도간의 교제가 지속되었다.
- (3) 또한 그들은 아나니아와 삼비라의 죽음에 대해 의구심이나 불만을 품지 않고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더욱 단합하며 복음 전파에 힘을 다하였다.
- (4) 이와 같이 사도들이 행한 기적의 결과 교회는 긴밀히 연합되어 성도들은 사도들을 따르며 성도 상호간에는 신뢰하는 풍토가 정착되어 갔다(참조, 속 7:9; 엡 5:21; 골 3:13;

살전 5:11; 벧전 1:22).

12. ㉠ '백성이 칭송하더라'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13절)

- ㉠ (1) 비록 사도들이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온갖 중상을 당했지만 그들의 언행은 의롭고 진실하여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만했다(참조, 고후 8:18).
- (2) 또한 사도들의 말씀을 받아들인 성도들의 생활도 경건하고 진실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
- (3) 그런데 사도들과 마음을 같이하지 않는 반대자들, 즉 유대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한 공회원들과 복음에 반기를 드는 그 외 지도자들은 이들과 상종하지 않고 멸시하였다(참조, 고전 1:18).
- (4) 하지만 일반 평민들은 사도들의 언행과 성도들의 삶을 존경하였고 한걸음 더 나아가 그들의 전도를 받아들였다.
- (5) 결국 스스로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사도들을 천대하였지만 겸손한 자들은 교회를 높이고 자랑하며 복음에 거하기를 기뻐하였다.
- (6) 여기서 오늘날 성도들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우리의 행실이 불신자들로부터 칭송받을 만한가 하는 점이다.
- (7) 다시 말해 현대 교회의 행정과 성도들의 생활을 보고 판단하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 과연 우리 스스로 부끄러울 것이 없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참조, 딤후 2:15).

13. ㉠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길 바랐던 이유는 무엇인가? (15, 16절)

- ㉠ (1)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가 기적을 일으킨 것은 사실이지만(19:12), 베드로의 그림자가 치유 효과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은 성경에 확인되어 있지 않다.
- (2) 만일 베드로의 그림자가 기적을 일으켰다면 그것은 단지 도구적인 역할을 했을 뿐일 것이다.
- (3)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겹옷 가(마 9:21; 막 6:56; 눅 8:44)나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의 경우에서처럼 어떠한 도구도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될 때에는 기적을 일으키게 되기 때문이다.
- (4) 이런 맥락에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길 원한 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그림자까지라도 치료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병으로 신음하며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아 지친 자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소망하였기 때문이다.
- (5) 이와 같이 당시 사람들은 사도들의 영적 능력을 인정하고 경의를 표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원이 진실하며 간절했다(참조, 신 4:29; 렘 29:13).
- (6) 한편 앓은병이가 치유되므로 사도들에 대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적개심이 야기되었던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그와 같은 이적을 무수히 반복해서 행하였으며 그리하여 예루살렘 근처에서 허다한 무리들이 사도들에게로 모여들었다.
- (7) 여기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심화되어 가는 질시와 적대감은 사도들에 대한 가증된 박해로 드러나게 되었다.

14. ㉠ 사도들에 의해 이적이 행해지고 성도의 수(數)가 급증하는 등 성령의 역사가 활발히 전개되었을 때 받은 두번째 박해를 설명하라 (17-32절).

- ㉠ (1)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 체포된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핍박을 당한 후 석방되었다.
- (2) 이 첫번째 박해에 좌절하지 않은 사도들과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또다시 경험하게 되었다.
- (3) 그로 인해 성도들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뭉치게 되었고 사도들은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며 더욱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다.

- (4) 더우기 성도들의 진실하고 경건한 신앙 생활과 사도들의 능력을 칭송하던 사람들이 사도들의 전도를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등 주께로 나오는 자의 수(數)가 증가하게 되었다.
- (5)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가 활발히 전개되자 이를 시기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도들에 대한 박해를 가중시켰다.
- (6)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체포하여 옥에 가두고 공회 앞에서 사도들을 심문하며 채찍질하는 등 그 핍박의 정도를 점차 높여 나갔다.
- (7) 하지만 사도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생명의 말씀을 가르쳤으며 또한 공회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자신들이 바로 그 예수의 증인임을 선언하였다.
- (8)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임을 확신하는 사도들에게 외부적인 핍박은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 뿐이었다.
- (9)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은 이 말씀으로 위로와 용기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을 믿음의 연단이라는 차원으로 승화시켜 가야 한다(참조, 롬 8:17; 고후 1:7; 빌 3:10; 딤후 1:8; 2:12; 히 11:25; 약 5:10; 행전 2:20; 5:10).

15. ㉠ 유대 지도자들은 어떤 마음에서 사도들을 옥(獄)에 가두었는가? (17, 18절)

- ㉠ (1) 유대 지도자들 특히 대제사장 및 그와 합세한 사두개인의 당파(黨派)는 그리스도의 도리를 전하고 병자를 고치는 사도들과 이를 듣고 병 고침을 받기 위하여 사도들에게 환자를 데려오는 백성들에 대하여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
- (2)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적인 말씀이 백성들 가운데서 득세하게 된다면 그들이 누리던 부와 위엄과 권력과 독재적인 행사가 위태롭게 되고 불가피하게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예감하였기 때문이다.
- (3) 그래서 그들은 ‘다 마음에 시기(猜忌)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체포하여 옥에 가두었다.
- (4) 이와 같이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어 핍박한 것은 진정으로 나라의 혼란과 불안을 막기 위해서 취한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사리 사욕에 대한 장애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이기심에서 취한 행동이었다.
- (5) 한편 성도들은 자신의 욕정을 만족시키기 위해 우리를 전장(戰場)에 보내어 죽게 한 다윗의 범죄와 그에 따른 형벌을 기억하면서(삼하 11:2, 4; 12:10, 11),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무고(無故)한 자들을 곤경에 빠지도록 유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참조, 시 25:3; 119:78; 렘 17:18; 호 4:19).

16. ㉠ ‘주의 사자(使者)’는 누구인가? (19절)

- ㉠ (1) ‘주의 사자’는 헬라어로 (앙겔로스 퀴리우), 즉 ‘주의 천사’라는 말이다.
- (2) 그러므로 ‘주의 사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임무를 부여받은 사신으로서의 천사이다.
- (3) 한편 신·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천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아 자주 나타나고 있다(왕하 19:35; 단 6:22; 속 3:1; 마 1:20; 눅 1:19).
- (4) 본서에는 천사의 출현이 다섯 번 기록되어 있는데(19절; 1:10; 8:26; 12:7, 23) 본절에 기록되어 있는 천사는 마치 인간의 모습을 가진 듯한 인상을 갖게 한다.
- (5) 결국 사도들은 천사의 도움으로 초자연적인 현상에 의해 옥에서 벗어나 천사의 지시대로 성전에 들어가 다시 가르치게 되었다.

17. ㉠ 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獄門)을 열고 사도들을 구출시켰는가? (19절)

- ㉠ (1) 주의 사자는 사도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증명해 보임으로 그들이 용기를

언어 압박한 고난에 담대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 (2) 또한 사도들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구출시킴으로써 (23절) 유대 지도자들과 관원들이 하나님의 종들을 박해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다.
- (3)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그들 자신이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방해하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해서였다.
- (4) 결국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구출시킨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 주기 위해서였으며 아울러 유대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행위를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다.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기억하면서 각박한 현실을 극복해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 불신자들이 머리를 숙이도록 처신해야 한다 (참조, 출 13:21, 22; 시 23:2; 25:5; 27:11; 139:24; 사 48:17).

18. **㉠** 주의 사자로부터 사도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무엇이었는가? (20, 21a절)

- ㉠** (1) 첫째, 가서 성전에 서서 말하라는 것이었다. 즉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전하며 담대하고 결단력 있게 외치라는 말이다.
- (2) 둘째,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지시하였다. 즉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요 3:16)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이다(참조, 말 1:11; 마 28:19; 막 16:15).
- (3) 셋째, 백성에게 말하라는 것이었다. 당시 군왕이나 관원들이 복음을 경멸한 반면 백성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뻐하며 사모하였기 때문에 주의 사자는 사도들을 향해 백성에게 증거하라고 지시하였다.
- (4) 이와 같이 주어진 명령을 사도들은 기꺼이 순종하여 출옥 후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복음을 가르쳤다(참조, 22:14, 15; 사 43:10; 요 15:27).
- (5) 성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감사하므로 감당해야 할 것이며 그것으로 인해 주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참조, 딤후 4:15; 빌 1:25).

19. **㉠** 사도들을 옥에 가둔 후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는가? (21b-26절)

- ㉠** (1) 그들은 사도들에 대한 심문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前)보다 더 큰 규모의 공회를 소집하였다.
- (2) 그리고 관속(官屬)들에게 명하여 옥에서 사도들을 잡아 오라고 하였다.
- (3) 그러나 관속들이 옥에서 돌아와 말하기를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라고 보고하였다.
- (4) 그 후에 사도들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성전 말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사도들을 다시 잡아 왔다.
- (5) 한편 그들은 사도들이 어떻게 옥에서 탈출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을 의아스럽게 생각했을 뿐 그 사건이 주는 의미 곧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사도들을 구출시킨 것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한번 더 주기 위해서였다는 점을 깨닫지 못하였다(참조, 신 28:29; 시 107:27; 요 12:35).
- (6) 결국 영적으로 무지(無知)한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어떤 것인지도 깨닫지 못한 채 죄를 범하기에 급급해 하였다(참조, 잠 1:16; 4:16; 사 59:7; 롬 3:15).
- (7) 이와 같은 죄는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도 범하기 쉬운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적, 영적 교만이나 권위주의에 빠지기 쉬운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 (8) 그러므로 하나님의 양 무리를 맡은 자는 모든 일의 행사에 있어서 양 무리의 본이 되어 (벧전 5:3) 영성(spirituality) 회복에 항상 힘써야 하겠다.

20. **㉠** 성전 말은 자와 관속들이 출옥한 사도들을 다시 체포했을 때 강제로 못 한 이유는

무엇인가? (26b절)

- Ⓐ (1) 그들은 사도들에게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데려왔는데 그곳이 거룩한 장소 곧 성전이었기 때문이다.
- (2) 그러나 무엇보다 그들이 폭력을 쓰지 않은 이유는 ‘백성들이 들로 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 (3) 즉 그들은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병든 자를 고쳐 준 사도들을 강압적인 방법으로 체포할 경우 사도들을 존경하는 많은 무리들로부터 심한 반발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4) 이와 같이 성전 말은 자와 관속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경외하기 보다는 눈에 보이는 대중의 여론을 두려워했다(참조, 대하 19:9; 전 12:13; 사 8:13; 벧전 2:17).
- (5) 오늘날 성도들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마 10:28)해야 한다(참조, 잠 29:25; 사 51:12; 눅 12:4).

21. ㉠ 공회 앞에 선 사도들에게 대제사장이 심문(審問)한 내용은 무엇이었는가?(27, 28절)

- Ⓐ (1) 먼저 대제사장은 사도들을 다시 체포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 즉 공회에서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嚴禁)하였으되’ 사도들이 주어진 명령과 금지 조항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한다.
- (2) 그리고 대제사장은 ‘너희가 너희 교(敎)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여’ 백성들의 안녕과 사회 질서를 혼란시킨다고 심문하였다.
- (3) 더우기 대제사장은 예수를 죽이는 데 열광적이었으며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마 27:25) 대담하게 외쳤으면서도 사도들이 예수를 죽인 책임을 우리에게 돌려 정죄함으로써 백성들을 선동하고 반란을 획책하려 한다며 심문하였다.
- (4) 이와 같이 대제사장은 자신의 이권(利權)을 옹호하기 위해 그럴 듯한 명분을 내세워 사도들을 심문하였다.
- (5) 결국 대제사장은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조사하고 사도들이 전하는 내용을 상세히 살펴 보며 또한 그들의 주장을 들어주기 보다는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확고히 하기 위해 사도들을 일방적으로 정죄하여 처단하려 했다(참조, 시 36:4; 잠 6:14; 사 32:7; 렘 18:12).
- (6) 우리들도 대제사장과 같이 자신이 지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기 보다는 도리어 그 죄를 지적해 주는 자들에 대하여 증오하며 충고하는 자를 모함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 보아야 하겠다. 만일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있을 때 임할 진노를 쌓고 있는 것이 된다(참조, 롬 2:4, 5).

22. ㉠ 대제사장의 문책에 대하여 사도들은 어떻게 답변하였는가? (29-32절)

- Ⓐ (1) 대제사장의 문책에 대한 사도들의 답변은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다.
- (2) 첫째, 그들은 자신들이 산헤드린 공회가 아무리 권위 있고 존엄하다 하여도 공회의 명령에 불복종한 타당한 이유가 있음을 밝혔다. 즉 그 이유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順從)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 (3) 둘째, 그들은 대제사장의 문책에 상관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였다. 즉 예수는 유대인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救主)로 삼으셨음을 증거하였다.
- (4) 셋째, 그들은 이 일 곧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에 대한 증인임을 선언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임을 선언하였다(참조, 요 15:26, 27).

- (5) 이와 같이 대제사장의 문책에 대하여 사도들은 첫번째 심문에서와 같이 자신들의 입장을 재확인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변론의 초점을 두고 있다(참조, 갈6:14).
- (6)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모든 생활 가운데서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도록 해야 하며(빌 1:20) 그를 본받도록 하며(빌 2:5-8) 그러한 생활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

23. **㉠** 사도들의 답변을 듣고 산헤드린 공회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33절)

- ㉠** (1) 그들은 사도 자신들의 확고한 입장과 회개를 명하는 사도들의 논리 정연한 발언에 대해 분개하였다.
- (2) 즉 완악하고 교만한 그들은 자신들의 소행을 돌아보기는커녕 오히려 사도들의 담대함에 대해 격분하였다.
- (3)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죽이는 방법 외에 다른 것으로는 그들의 입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모의를 하였으며 그것으로써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 (4) 아마 교법사인 가말리엘의 충고가 없었다면 그들은 마치 예수께 행하였던 것처럼 사도들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일 만한 어떤 핑계거리를 찾으려고 하였을 것이 분명하다.
- (5) 한편 그들은 이번 심문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자들에 대해 앙심을 품기 시작했고 초대 교회의 성도들을 박멸(撲滅)할 발판을 모색하게 되었다(참조, 대하 16:10; 18:26; 예 3:6; 막 6:19).
- (6) 오늘날 성도들은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롬 8:17) 고한 바울의 권면을 기억하면서 우리 앞에 당면한 어려움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면 감사하므로 감당해야 할 것이다(참조, 41절; 빌 1:29; 히 11:25; 벧전 4:16).

24. **㉠** 격분한 유대 지도자에게 가말리엘은 무슨 말로 충고하였는가? (34-39절)

- ㉠** (1)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敎法師), 즉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자로서 예수보다 조금 전 시대에 살았던 랍비 힐렐(Hillel, B. C.60-A. D.20년경)의 전통을 이어받은 학자였다.
- (2) 또한 그는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으며(22:3) 모든 백성으로부터 존경받는 자였다.
- (3) 먼저 그는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는 말을 통해 격분한 유대 지도자들에게 자제를 촉구하였다(참조, 막 4:24; 벧후 1:19).
- (4)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당을 지어 선동하던 '드다'와 '갈릴리 유다'의 사건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서 만약 사도들이 그와 같은 무리라면 제풀에 꺾이고 말 것이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을 혼미케 하여 패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 (5) 그러나 만일 그 사도들의 사상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우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對敵)하는 자가 될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 (6) 그래서 가말리엘은 살기가 등등한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 사람들을 상관(相關) 말고 버려 두라'고 충고하였다.
- (7) 이러한 그의 말은 매우 지혜로운 것이다. 왜냐하면 영적인 사실에 대하여 확실하게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이 함부로 영적인 사실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 (8)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교리적인 지식이나 신앙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매사에 주의함으로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

25. **㉠** '드다'와 '갈릴리 유다'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라(36, 37절).

- ㉠** (1) A. D. 1세기와 그 이후에도 메시아임을 표방하는 자들이 스스로 일어나 잠시 흥왕하다

가 사라진 적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한 거짓 메시야의 출현에 대해서 경고하셨다(참조, 마24:24).

- (2) '드다'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으나 아마 위에 언급한 자들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 (3) 그리고 교회사가(敎會史家) 요세푸스(Josephus)의 기록과 본질을 살펴볼 때 '갈릴리 유다'는 A. D. 6, 7년경 전국적으로 호적할 때 로마 정부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로마군에 의해 처형당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 (4) 한편 가말리엘의 설명에 의하면 '드다'와 '갈릴리 유다'의 소행(所行)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부터 출발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참조, 시9:5;37:10, 20).

26. ㉠ 가말리엘의 충고를 듣고 유대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어떻게 하였는가? (40절)

- ㉠ (1) 가말리엘의 지혜로운 권면이 산헤드린 공회원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찬성을 얻어서 사두개인들의 사악한 의도는 철회되었으나 그것이 완전히 그들의 분노를 전환시킨 것은 아니었다.
- (2) 그리하여 사도들은 채찍질을 당하고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풀려 났다.
- (3) 이때 사도들은 단지 공회의 지시에 불복종했다는 이유로 유대인의 처벌법대로 40대 이내의 채찍질을 당하고(신 25:2, 3) 석방되었을 것이다.
- (4) 전에 예수께서 예언하신 대로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마 10:17) 하심이 여기에서 실제로 구현되었다.
- (5) 성도들은 시험을 받아 진리를 떠난 자들을 방임할 것이 아니요 그 길에서 돌아서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야 한다. 야고보서 기자(記者)는 말하기를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迷惑)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許多)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약 5:20)고 하였다.

27. ㉠ 석방된 후 사도들의 생활은 어떠했는가? (41, 42절)

- ㉠ (1) 사도들은 이전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들을 행하고(3:6) 또 그 이름을 백성들과 공회 앞에서 전파하였던 것(4:10, 12)처럼 이제는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凌辱)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참조, 마5:11, 12).
- (2) 더 나아가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다(참조, 마 26:55; 눅 19:47).
- (3) 이와 같이 사도들은 채찍질당하고 풀려 났으나 도리어 핍박과 고난을 기뻐하면서 복음의 사역을 계속하였다.
- (4) 결국 성령에 불잡힌 바 된 사도들에게 외부적인 환난은 그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으며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을 더욱 뜨겁게 하였다(참조, 18:5).
- (5)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과연 나는 그 고난에 어떻게 대처(對處)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니라'(벧전 2:20)는 말씀을 유념(留念)해야 할 것이다(참조, 마 5:11; 10:22; 고후 4:11; 빌 1:29).

28. ㉠ 사도들이 가르치고 전도한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42절)

- ㉠ (1) 사도들은 산헤드린 공회로부터 복음 전파에 대한 두 차례의 금지 명령을 받았고 또한 채찍질을 당하는 등 난처한 형편에 놓여 있었지만 그들은 동요하지 않았다.
- (2) 즉 이러한 수난에도 사도들은 전하던 말씀을 중단하거나 변형시키지 않고 순수한 진리 그대로 날마다 쉬지 아니하고 증거하였다.
- (3) 한편 그들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날마다 가르치고 전도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에 관한 것이었다.

- (4) 이와 같이 사도들이 가르치고 전도한 내용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원만히 살아가는 수단과 방법 곧 처세술(處世術)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었다(참조, 고전 1:23).
- (5) 오늘날의 목회자들은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고후 4:5)는 바울의 말을 목회 사역의 현장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참조, 램 3:15; 벤전 5:2).

화보자료

삼비라의 죽음. 니콜라 푸생의 작품이다. 남편 아나니아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가 베드로의 징계를 받고 죽어 가는 삼비라의 모습을(7-10절)을 묘사한 것이다.



아나니아와 삼비라가 죽임을 당한 궁극적 원인은 성령을 속이려 든 데 있지만 그 동기는 허영심이었다. 즉 자신의 이웃이 받을 판 돈으로 헌금하는 것을 본 그들은 자신들도 받을 팔아 헌금함으로써 사람들로 부터 칭찬받기를 원하였던 것이다(36, 37절). 그러나 정작 받을 팔고 나니 그 돈 전액을 바치기에 가까운 마음이 들었다. 그리하여 그 돈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를 전액인 양 속여 바쳤으니 이는 사람의 눈을 속이기 이전에 성령을 속인 행위였다(3, 4절). 이처럼 동기가 순수하지 못하면 그 열매도 아름다울 수 없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는 이와 같은 자들이 없는가? 일시적인 흥분에 사로잡혀 힘에 겨운 헌금을 걱정하고선 실행하지 못하는 자들도 이와 다를 바 없는 자들이라 하겠다.

제 6 장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곱 집사를 세우다

단락구분 1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 사업에 대해 불평하다 / 2-6 사도들이 구제 사업을 전담할 일곱 집사를 선택하다 / 7 성도의 수(數)가 급증하다 / 8-15 기사와 표적을 행하던 스테반이 무고히 붙잡히다

1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지므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다

2 열 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3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4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5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콜라를 택하여

6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8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

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9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테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새

10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11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밋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12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13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치 아니하는도다

14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15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1. ㉠ 본장의 개요와 그 흐름을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먼저 가난한 형제들(주로 과부들)에게 구제품을 분배하는 데 있어 불균등하다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怨望)이 나타나 있다.
- (2) 이어서 이러한 교회의 내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도들이 구제와 봉사를 담당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곱 집사를 선택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 (3) 그리고 복음이 더욱 확산되어 초대 교회가 급성장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4) 한편 처음에는 사도들의 전도를 금하다가 그 다음에는 사도들을 채찍질하던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는 초대 교회 전반에 대해 극렬한 핍박을 가하리라는 것을 예상케 하는 사건이 언급되어 있다.
- (5) 그러나 성령은 두 차례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을 통해 계속적으로 역사하시면서 초대 교회를 조직화시키셨고 교세를 확장시키셨다.
- (6) 결국 하나님은 사단의 어떤 방해가 있을지라도 당신의 몸된 교회와 그 구성원들을 견고하게 하시며 궁극적으로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키신다(참조, 시 72:16; 사 9:7; 55:5; 막 4:31, 32).

(7) 지금도 성령은 생명의 말씀이 땅 끝까지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 주의 택한 백성들을 말씀의 정병(精兵)으로 부르시어 역사(役事)하고 계신다(참조, 8:29;13:2, 4).

2. **㉠** 사도들이 두번째 석방 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은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1절)

- ㉠** (1) 사도들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며 날마다 복음을 전한 결과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 (2) 여기서 ‘제자’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를 의미하지 않고 사도들의 전도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일반 성도들을 말한다.
- (3) 이와 같이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채찍질을 당한 후 석방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육과 전도에 심혈(心血)을 기울인 결과 성도의 수(數)가 급증하였다.
- (4) 진정한 교회 성장은 목회자의 쇼우맨십(showmanship)이나 성도들의 다양한 모임 등 인간적인 방법에 있지 않고 말씀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순수한 전도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의 교회는 깊이 인식해야 한다(참조, 5:42; 고전 2:13).

3. **㉠** ‘헬라파 유대인’이란 어떤 자들을 가리키는가? (1절)

- ㉠** (1) ‘헬라파 유대인’이란 본래는 유대인이었으나 그들이 각처에 흩어져 살게 된 이후(참조, 왕하 25:8, 26; 단 11:11-16) 이방 세계에서 출생한 2세(二世)들을 말한다.
- (2) 그들은 대개 헬라어를 사용하며 헬라 문화의 영향 아래 살았던 사람들이다.
- (3) 한편 ‘히브리파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들과는 달리 팔레스타인에서 출생하여 히브리어(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다.
- (4) 이와 같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사람’들은 둘 다 한 핏줄임에도 불구하고 언어로 말미암아 나누어졌으며, 그 결과 사상과 사회적 관습까지도 달라지게 되었다.
- (5) 즉 보수적인 히브리인들은 모세의 율법과 전통을 엄격하고 고집스럽게 고수하였으며, 자유적인 헬라파 유대인들은 보편적으로 보다 넓은 문화와 접촉하였고 로마 제국에 대해 보다 유연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 (6) 교회 안에는 취미와 학벌과 재능이 다른 각양 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가 된 고로 이 모든 것을 서로 용납하며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참조, 고후 11:1, 19; 엡 4:2; 골 3:13; 히 5:2).

4. **㉠** 왜 사도들이 일곱 집사를 세우게 되었는가? (1-4절)

- ㉠** (1) 딤후 5:9에 의하면 초대 교회에서는 가난하고 불쌍한 자 특히 과부들의 명부를 작성하여 구제의 대상으로 선정한 후 그들에게 구제품을 분배했었음을 알 수 있다.
- (2)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성도들의 수(數)가 급격히 증가하므로 인하여 헬라어를 사용하던 헬라파 유대인들에 속한 과부들이 구제에서 누락되거나 그날그날의 식량을 배급받을 때마다 푸대접을 받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다.
- (3) 그리하여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던 본토 유대인 곧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터뜨리게 되었다.
- (4) 그래서 열 두 사도는 이와 같은 교회 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불러 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복(共飢)을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이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稱讚)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고 제안하였다.
- (5) 이와 같이 열 두 사도는 교회 안의 잡음을 제거하고 성도간의 신뢰와 화목을 도모하며 교회의 진정한 사명 곧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담당키 위해 구제와 봉사를 담당할 집사라고 하는 직분자를 선택하자고 제안하였던 것이다(참조, 빌 1:1; 딤후 3:8).
- (6) 양적(量的)으로 급속히 비대(肥大)해진 현대 한국 교회 내부에는 성도간의 알력, 차

별 대우, 교육 부재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쌓여 있는데 교회 지도자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독단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성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가운데 풀어 나가는 현명함을 보여야 할 것이다(참조, 약2:1-4).

5. ㉠ ‘공궤’(供饋)란 무엇인가? (2절)

- ㉠ (1) ‘공궤’의 사전적(辭典的) 의미는 음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2) 그런데 여기에서는 교회의 구제품을 나누어 주는 일과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 곧 구제 사업을 가리킨다.

6. ㉠ 집사의 자격은 무엇이었는가? (3절)

- ㉠ (1) 첫째,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했다. 즉 부정함이 없으며 이웃으로부터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모든 일에 덕스럽고 찬양할 만하다고 여겨지는 신앙(信望)있는 사람이어야 했다(참조, 딤후 3:8-13).
 (2) 둘째, 그들은 성령이 충만해야만 했다. 즉 주어진 일을 바르게 처리하는 데 필요한 성령의 은사가 충만해야만 했다. 그들은 재능과 용기를 겸한 사람들로서 진실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어야 했다(참조, 출 18:21).
 (3) 셋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했다. 정직하고 용기있는 사람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그들은 일을 순서 있게 처리할 수 있는 재능을 소유한 자이어야 했다(참조, 고전 12:8-11).
 (4) 한편 이러한 자격을 갖춘 일곱 명의 집사들을 선택함에 있어 ‘너희 가운데서... 사람 일곱을 택하라’는 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사도들은 민주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5) 이와 같이 초대 교회는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 신앙 있고 지혜 있으며 성령이 충만한 일곱 명의 집사를 선택하였다.
 (6) 오늘날 교회 가운데 장로나 집사 등 직분자를 선택함에 있어 그 사람의 신앙이나 인품을 고려하기 보다는 경제력이나 사회적인 위치를 더 중히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교회 지도자들은 직분자를 임명함에 있어 본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맡을 자들을 천거해야 할 것이다(참조, 요 7:24; 롬 2:11; 고후 10:7; 갈 2:6; 약 2:9).

7. ㉠ 그들 중에 일곱을 택하라고 한 까닭은 무엇인가? (3절)

- ㉠ (1) 유대인들은 일곱이라는 수를 성수(聖數) 또는 완전수라고 생각하여 어떤 경우에든지 원만하게 수를 택할 때에는 일곱을 택하였다.
 (2) 그리고 그때 형편으로 일곱 사람이면 구제 사업을 담당하기에 적당하였기 때문에 일곱을 택한 것이다.
 (3) 이와 같이 초대 교회의 사도들은 가장 중요한 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며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 구제 사업에만 골몰하는 것이 옳지 않음을 깨닫고 구제 사업을 담당하기 알맞으면서 동시에 거룩한 수(數)인 일곱을 생각하여 신앙이 두텁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선택하라고 했다.
 (4) 한편 여기서 우리는 초대 교회 사도들의 계획성을 엿볼 수 있다. 그들은 아무런 목적이나 계획 없이 집사들을 선택하지 않고 사전(事前)에 뚜렷한 목적과 그에 알맞은 인원을 생각하였던 것이다(5절).
 (5) 극히 소수이기는 하지만 오늘날 교회 가운데 ‘믿음으로’라는 명목 아래 아무런 계획이나 준비 없이 교회를 증축하거나 신축하여 성도들의 원망과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경우가 있다.

8. ㉠ 선택된 일곱 집사는 누구 누구이며 그 과정은 어떠했는가? (5, 6절)

- ㉠ (1) 집사로 선택된 일곱 사람은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콜라’이다.

- (2) 그 선택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온 무리가 사도들의 제안에 불평 없이 기뻐하며 민주적으로 집사들을 선택하였다.
- (3) 그리고 성도들은 사도들의 말과 같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집사로서 합당하다고 인정된 자들을 선출하였다.
- (4) 또한 온 교회가 일곱 집사를 선출하여 사도들 앞에 세운 후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按手)' 함으로써 일곱 명은 집사로 임명되었다.
- (5) 이와 같이 초대 교회에서 실시된 집사 선거는 그 목적과 자격이 뚜렷했을 뿐 아니라 그 선택 과정도 민주적이며 또한 경건하였다.

9. ㉠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안수'(按手)에 대하여 설명하라(6절).

- ㉠ (1) 일반적으로 안수는 축복과 신유, 은총과 새 능력을 받는 행위로 이해되었으며 상대방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음으로 행해졌다.
- (2)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안수는 회생 제사 절차와의 관계(출 29:10; 레 1:4; 4:4, 24, 29; 민 8:10, 12)에서, 신성 모독자를 처벌하는 경우(레 24:14)에서 또한 야곱이 요셉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과정(창 48:14)에서 그리고 모세가 그의 후계자로서 여호수아를 임명하던 의식(민 27:18, 23; 신 34:9)에서 발견된다.
- (3) 한편 신약 성경에서는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인 치유를 베푸는 데 있어서(막 5:23; 16:18; 눅 4:40; 13:13), 성령의 은사를 전달해 주는 경우(8:18; 19:6)에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위임에(13:3) 적용되었다.
- (4) 이와 같이 안수는 여러 가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고, 다양한 성경 문맥에 나타난 사건에 의존하고 있는 의식이다.
- (5) 한편 디모데에게 향한 바울의 권면 가운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딤후 5:22)는 말씀은 교회 직분자의 안수식을 너무 성급하고 무절제하게 행하려는 자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내용이다.

10. ㉠ 일곱 집사를 세우도록 제안한 사도들의 자세와 초대 교회 반응을 설명하라(1-6절).

- ㉠ (1) 사도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불평을 대충 무마(撫摩)시키거나 임시 변통(臨時變通)으로 처리하지 않고 '모든 제자' 곧 모든 성도를 불러 놓고 해결하려는 관심과 적극성을 보였다.
- (2) 또한 사도들은 구제 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의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키거나 비난하기 보다는 불공평한 것들을 바로잡고 또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에 성도들의 정력을 쏟도록 하였다.
- (3) 그리고 사도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의 불만을 해소시키며 교회의 안녕과 신뢰를 보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힘있게 전파하기 위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고 제안하였다.
- (4) 한편 초대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진실함과 적극적인 자세에 토를 달지 않고 기뻐하며 순종하였다.
- (5) 이와 같이 초대 교회 사도들은 성도간의 분위기를 잘 파악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문제 곧 교회의 문제를 인내와 사랑을 가지고 풀어 가려고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임무의 우선 순위에 있어 복음 사역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였다.
- (6)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 안의 문제를 무시하거나 독단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모든 성도를 불러 함께 의논한 사도들의 지혜와 성실함을 발견하게 되며 또한 사도들의 제안에 대해 알가 알부(耳聞目否)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인 성도들의 순종을 배우게 된다(참조, 잠 11:14; 12:15; 13:10; 15:22; 눅 14:31).

11. ㉠ 일곱 집사가 임명된 후 복음의 진보와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7절)

- Ⓐ (1) 첫째, 교회 외부로부터의 핍박과 내부의 갈등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왕성(旺盛)하여 갔다.
- (2) 둘째,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 곧 성도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 (3) 세째,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 즉 복음을 반대하였거나 혹은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제사장들이 복음의 가르침과 교훈을 받아들이게 되었다(참조, 롬 16:26).
- (4) 이와 같이 외부로부터의 핍박을 믿음으로 견디며(약1:12) 내부의 갈등을 사랑과 이해로 해결한 초대 교회는 교세가 확장되고 보다 조직화되는 등 장족(長足)의 진보를 보게 되었다.
- (5) 결국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傳播)되는'(눅 24:47) 등 그리스도의 왕국이 확장되어 갔다(참조, 사 9:7; 60:22; 막 4:31, 32; 계 14:6).

12. Ⓒ 스테반에 대해 설명하라(8-15절).

- Ⓐ (1) '스테반'(헬, 스테파노스)이라는 이름은 '면류관', '왕관', '화관'이라는 뜻이다.
- (2) 그의 이름이 일곱 집사의 명단 중 맨 처음에 나오는 것으로 보아 아마 그는 일곱 집사를 대표하였을 것이다.
- (3) 더우기 그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3절),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5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8절) 등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믿음과 인격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되었음이 확실하다.
- (4) 뿐만 아니라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한 사람'(8절),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10절) 그리고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사람'(15절)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미루어 볼 때 그는 집사의 직무에 충성하면서 사도들과 같이 말씀을 전하며 이적을 행한 열의(熱意)와 의욕에 찬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다.
- (5) 특히 그의 순교 장면을 살펴보면 그가 성령에 붙잡힌 바 된 인물이었음을 확신하게 된다(7:59, 60).
- (6) 한편 그는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의 순교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신앙과 순교는 물질 문명과 많은 사상의 범람 속에서 믿음의 주체성을 상실해 가고 있는 현 세대를 경각시키기에 충분하다(참조, 롬 12:2; 고전 7:31; 갈 6:14).

13. Ⓒ 스테반과 변론하여 능(能)히 당치 못하자 그를 모함한 자들은 누구인가? (9절)

- Ⓐ (1) '리버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다.
- (2) 여기서 '리버디노'는 본래 유대인이었으나 B. C. 53년 폼페이(Pompeii)의 유대 토벌 후 로마에 노예로 팔려 갔다가 자유인이 된 사람들의 후손이다.
- (3) 또한 '구레네인'은 고린도에서 지중해 건너편 리비아 지방 북편 해안에 살았던 사람을 말한다(참조, 막 15:21; 눅 23:26).
- (4)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인'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살았던 유대인을 가리키며, '길리기아'는 소아시아의 동쪽 일부 지방으로 '다소'가 수도인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출생했다(22:3).
- (5) 아울러 '아시아'는 에베소를 수도로 한 서양 문명이 가장 발달한 곳으로 주민들의 대부분이 헬라 사람들이었다.
- (6) 이같이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民間)에게 행하자 이를 시기하고 질투하던 헬라파 유대인 곧 흠어진 유대인들이 스테반을 모함하기로 합세했던 것이다.

(7) 상대방이 잘되는 것을 보고 배 아파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성도들은(고후5:17) 이웃의 아픔을 함께 느끼며 이웃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 주는 도량(度量)을 소유해야 한다(참조, 렘31:34; 눅10:29-37; 롬13:9, 10; 엡4:25).

14. **㉠** 스테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고 많은 사람들과 변론(辯論)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9절)

- ㉠** (1) 스테반은 열 두 사도들의 제안으로 성도들에 의해 선택되어 사도들 앞에 세워진 후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按手)함으로써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거나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을 푸대접했던 것을 시정하도록 임명된 집사였다.
- (2) 즉 스테반이 임명된 것은 말씀 전파의 사도적인 기능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구제를 감독하게 하고자 함에 있었다.
- (3) 이 때문에 어떤이들은(Brandon 등) 이것 곧 스테반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사람들과 변론한 것을 본서 저자인 누가의 모순으로 보기도 한다.
- (4) 그리고 다른 이들은 스테반이 실제로 말씀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다만 자기의 신적(神的)인 이적(異蹟)의 행위에 대한 복음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또 예수의 이름만을 언급해서 나타낼 뿐이었던 것으로 해석한다(Zahn 등).
- (5) 그러나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일곱 집사 중의 하나인 빌립이 나중에 복음을 전파하였던 것(8:5)과 같이 스테반의 복음 전파를 기꺼이 사실로 받아들인다(Haenchen).
- (6) 한편 이와 같은 사실은 스테반이 교회의 조직에 반항하거나 자신의 임무에 태만하고 다른 일에 관여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 (7) 오히려 스테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고 많은 사람들과 변론했다는 것은 그가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를 위한 봉사를 더 폭 넓게 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 (8) 특히 스테반의 복음 전파 사역은 지금까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들만이 복음 전파의 임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재해석, 즉 복음 전도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자에게 부여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 (9)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은 목사나 전도사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여 말씀에 대한 교육과 전도에 무관심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1:8)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참조, 마28:19, 20; 막16:15; 엡4:11, 12).

15. **㉠** 스테반과 변론한 자들이 행한 네 가지 일들은 무엇인가? (11-15절)

- ㉠** (1) 첫째, 그들은 은밀히 사람들을 가르쳐 스테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말하게 하였다.
- (2) 둘째, 그들은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총동시켜 스테반을 공회로 잡아가게 하였다.
- (3) 셋째, 그들은 스테반을 공회로 끌고 가 공회원들 앞에서 힐문(詰問)하였다.
- (4) 넷째, 그들은 스테반을 심문할 때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
- (5) 이와 같이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여 저희가 능히 그를 당치 못하자 이에 스스로 분개한 무리들이 스테반을 무고히 모함하여 공회에 넘겼다.
- (6) 성도들이 세상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경건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려 할 때 사단의 다양한 유혹을 받게 되는데 이때 성도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인내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참조, 약4:7; 벧전5:9).

16. **㉠** 스테반은 무슨 죄목으로 공회에 끌려갔는가? (11-15절)

- ㉠** (1) 스테반은 자신의 기사와 표적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행해진 것이라고 설명했을 것이며 아울러 변론하는 무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부활 사건을 증거했

을 것이다.

- (2) 이때 스테반은 예수께서 하신 예언 곧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마24:2; 막13:1; 눅21:5)을 말하고 아울러 율법의 행위보다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역설(力說)했을 것이다.
- (3) 스테반을 시기하던 무리들은 이것을 트집잡아 거짓 증인을 세워 스테반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율법을 거역하는 말을 했다고 증언케 하였다.
- (4) 결국 스테반은 자신을 모함한 무리들에 의해 신성 모독과 율법을 거역한 죄목으로 공회에 끌려가게 되었다.
- (5) 예수께서도 유대 지도자들의 계략(計略)에 의해 이 같은 죄명을 쓰시고 온갖 고초를 당하신 후 유대 지도자들의 음모와 로마 병정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셨다(마26:59, 61).
- (6) 지금도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성도들을 시험하여 넘어뜨리고 결코 구속받을 수 없는 영원한 죄인으로 정죄하려 한다(참조, 롬8:33, 34; 요일3:21).

17. ㉠ 공회원들이 스테반을 주목(注目)했을 때 그의 얼굴은 어떠했는가? (15절)

- ㉠ (1) 거짓 증인들이 스테반을 신성 모독과 율법을 거역한 죄로 고소(告訴)하였으므로 이제 스테반이 그 사실에 대해 변호할 차례이다.
- (2) 그래서 공회에 모인 무리들이 스테반을 주목하였다.
- (3) 그런데 두려움에 떨고 거짓 고소로 인해 심신이 지쳐 초췌한 몸골을 하고 있어야 할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天使)의 얼굴과 같았다.
- (4) 여기서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말은 스테반의 얼굴이 그 안에 거하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인하여 평온하고 밝게 빛나고 있었다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한다(Holtzmann).
- (5) 적어도 이 표현은 시내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이 밝게 빛났던 것과 같은 그러한 광채를 가리킨다(참조, 출34:29-35; 마17:2).
- (6) 이처럼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죽음 앞에서도 초연(超然)해질 뿐 아니라 외부적인 용모도 천사의 얼굴과 같이 밝게 빛나게 됨을 기억해야 하겠다.

본장의 요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7절).

제 7 장 공회원들 앞에서 증언하던 스데반이 순교당하다

단락구분 1 대제사장이 사실 여부를 질문하다 / 2- 8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하시다 / 9- 16 그 언약이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지다 / 17- 29 애굽에 종 노릇하는 이스라엘과 모세의 일생 / 30- 38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다 / 39- 43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다 / 44- 50 스테반이 성전의 의미를 설명하다 / 51- 53 스테반이 완고한 유대인을 책망하다 / 54- 56 유대인들이 스테반의 설교에 격분하다 / 57- 60 스테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다

1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나
2 스테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3 가라사대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4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버가 죽으매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5 그러나 여기서 밭 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적와 적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6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 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사백 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7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8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열 두 조상을 낳으니
9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어
10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 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11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 들어 큰 환난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 지라
12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13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14 요셉이 보내어 그 부친 야곱과 온 친족 일흔 다섯 사람을 청하였더니
15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16 세겜으로 옮기워 아브라함이 세겜 하물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 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17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18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19 그가 우리 족속에게 궤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어 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새
20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러우더니
21 버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22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23 나이 사십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24 한 사람의 원통한 일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암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죽이니라
25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26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 하니
27 그 동무를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뜨려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28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

를 죽이려느냐 하니

29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들을 낳으니라

30 사십 년이 차매 천사가 시내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31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히 여겨 알아 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있어

32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33 주께서 가라사대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34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정녕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35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위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36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사십 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37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38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39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 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40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41 그때에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42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사십 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회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43 물룩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음이여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44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45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46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47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48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49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50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51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52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언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53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54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55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57 저희가 큰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58 성밖에서 돌로 칠새 중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59 저희가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1. ㉠ 본장의 개요와 그 가치를 설명하라.

㉡ (1) 본장에서 우리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인 스테반 집사의 설교와 죽음을 목격하게 된다.

- (2) 여기서 우리는 그의 설교가 본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의 설교가 그 성격상 무죄 방면(放免)이 되기 위해 행하였던 자기 변명이나 또는 어떤 의미를 해설하는 변호가 아님을 알 수 있다.
- (3) 그보다 그의 설교는 그 당시 유대교의 형식주의에 대한 기독교의 메시지를 전파한 것이고 또 백성을 지도하는 자들이 나사렛 예수를 이스라엘의 메시야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 안에 예비된 구원을 깨닫지 못한 데 대한 일종의 탄핵적(彈劾的)인 변호였다.
- (4) 이와 같은 스테반의 설교를 듣고 심령에 가책을 느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완악함과 무지함을 회개하기 보다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인해 스테반을 돌로 쳐죽였다.
- (5) 한편 신약 성경에 나타난 설교 중에서 가장 긴 스테반 집사의 설교는 신약 시대에 구약 역사를 재음미하면서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계시의 점진성을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할 수 있다(참조, 고전 13:12).
- (6) 결국 스테반은 살기(殺氣)에 가득 찬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 죽었지만 죽음의 자리에서도 원수들의 죄를 용서하며 평온하고 경건하게 순교하였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심어 주었고 또한 그의 설교는 초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터를 더욱 견고하게 하였다(참조, 엡 3:17).

2. **㉠ 스테반이 공회원들 앞에서 행한 설교의 내용은 무엇인가? (1-53절)**

- ㉠** (1) 본서의 저자인 누가는 본장의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스테반이 순교하기 전에 공회원들 앞에서 행한 설교를 기록하였다.
- (2) 그 이유는 스테반의 설교가 언약과 성취 곧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측면에서 구약의 역사를 재조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변증하는 첫번째 설교였기 때문이다.
- (3) 그러면 스테반이 공회원들 앞에서 행한 설교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 (4) 첫째, 스테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그 언약을 성취하셨다고 설명하였다(2-16절).
- (5) 둘째,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사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의 소굴에서 벗어나게 하셨으며, 그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시어 온전한 충성을 다짐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고 스테반은 강조하였다(17-45절).
- (6) 셋째, 하나님은 다윗이 야곱의 하나님을 위한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는 간구(삼하 7:1-13)를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응답(왕상 8:20)하여 이루게 하셨다고 스테반은 설명하였다.
- (7) 한편 스테반은 하나님께서 성전에만 임재하신 것이 아니라 성전이 있기 전 장막을 사용하던 시대에도 인간과 함께 계셨음을 상기시키면서 예루살렘 성전만을 고집하는 유대인의 전승을 반박하였다.
- (8) 아울러 메시야 출현을 예고한 선지자들의 예언을 무시한 채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전 모독죄와 율법을 거스린 죄목을 씌워 죽인 완고한 유대인 조상들의 소행을 스테반은 책망하였다.
- (9) 결국 스테반이 행한 설교를 요약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곧 구속(救贖)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거기서 메시야를 입증하며 율법의 예언을 멸시하고 그리스도를 죽인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한 것이다.

3. **㉠ 스테반의 설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예시(豫示) 한 것은 무엇인가?(1-53절)**

- ㉠** (1) 그의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 노예로 팔렸지만(9절) 여호와 하나님이 구해 내어 그들의 보호자가 되게 한 요셉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도 그의 형제들에게 배척을 당하고(마 13:57) 적들의 손에 팔려 죽임을 당하기에 이르렀다.

- (2)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에서 일으켜 세워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사람의 주(主)로 삼아 그들의 구세주로 보내어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고 죄를 사면케 하셨다.
- (3) 한편 동포들에게 오해와 저항을 받았지만 (27, 28절) 후에 그들을 자유의 길로 이끌고 나갔던 모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다가 그들로부터 배척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막 6:3; 요 1:11) 그들을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죽임을 당하셨고 부활하셨으며 또한 다시 오실 것이다.
- (4) 이와 같이 우리는 스테반의 설교 가운데 나타난 요셉과 모세의 생애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시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 (5) 성도들이 신·구약 성경의 메시지를 제시의 점진성(漸進性) 곧 구약 시대에 예언된 말씀들이 신약 시대에 성취되었다는 관점을 가지고 접하게 되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 사역(救贖使役)을 보다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다 (참조, 마 5:18; 눅 21:33).

4. **㉠** 공회원들의 심문에 스테반은 어떻게 대처(對處)했는가? (1절)

- ㉠** (1) 6:1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헤드린 앞에 선 스테반은 두려움에 떨거나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한 영광이 그의 얼굴에 가득하였다.
- (2) 이때 스테반을 고소한 거짓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 있던 대제사장은 증인들의 증언이 사실과 동일한 것이냐고 스테반에게 질문하였다.
- (3) 이 질문은 스테반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증언이 사실과 같다고 인정할 경우 스테반은 온갖 모욕과 멸시를 받으며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 (4) 이러한 생사의 기로(岐路)에 선 스테반은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거나 목숨을 구하기 위한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진의를 밝히는 데만 열중하였다 (참조, 마 10:39).
- (5) 이와 같이 스테반은 자신에게 닥쳐 올 고난을 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귀한 생명을 주를 위해 바치기로 결심하였던 것이다 (참조, 왕하 23:3; 대하 15:15; 빌 3:8).
- (6) 오늘날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어느 곳에서 누구를 대하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지키는 지조있는 신앙인의 자세이다 (참조, 신 2:27; 마 5:13, 14).

5. **㉠** 스테반은 어떠한 인사말로 설교를 시작했는가? (2절)

- ㉠** (1) 스테반은 '여러분 부형(父兄)들이여 들으소서'라는 주의를 환기시키는 인사말을 통해 율법의 진의를 밝히는 설교를 하기 시작했다.
- (2) 공회원들과 스테반을 고소한 자들은 스테반을 유대인에 대한 배교자 또는 그들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 (3) 그러나 스테반은 이들의 그러한 선입견에 불만을 표시하지 않고 부드럽고 예의바른 인사말을 통해 자신의 설교에 귀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 (4) 이와 같이 스테반은 자기를 시기하고 멸시하는 자들에 맞서 욕설을 하거나 분을 내지 않고 정중히 예의를 갖추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나타내었다.
- (5) 오늘날 성도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인격을 고양(高提)해야 할 것이며 죄는 단호히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태도를 몸에 익혀야 한다 (참조, 잠 15:1; 16:24; 전 10:12; 골 4:6; 딤후 1:13; 딤후 2:8).

6. **㉠** 스테반이 아브라함의 소명(召命)으로 자신의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8절)

- A** (1) 유대인들은 모세와 모세의 율법을 거의 절대적으로 믿었으며 그래서 율법을 거역하면 사정없이 법대로 처단하였다.
- (2) 그런데 여기서 스테반이 아브라함의 소명으로 설교를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 계시가 모세의 율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전 아브라함의 소명과 언약(言約)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히므로 그들의 교만한 생각을 깨우치기 위해서이다.
- (3) 다시 말해 그들이 거의 신격화했던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여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사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구원의 계시를 점차 구체적이고 풍성하게 보여 주기 위해 허락된 것임을 자각케 하기 위해 먼저 설명하고 있다.
- (4) 즉 계시의 점진성(The Progressiveness of Revelation)이라는 측면에서 율법보다 앞선 구원의 약속을 유대인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아브라함의 소명으로 자신의 설교를 시작한 것이다(참조, 창 17:2-8; 갈 3:17).

7. Q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言約)을 맺으시기 위하여 맨 처음 어디에서 그를 부르셨는가? (2절)**

- A** (1)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그를 부르셨다.
- (2) 여기서 ‘메소보다미아’는 티그리스(Tigris)와 유프라테스(Euphrates) 두 강으로 둘러싸인 고대의 도시로서 구약 성경에서는 ‘갈대아 우르’로 기록되어 있다.
- (3) 그런데 창 12:1-3의 기록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곳이 하란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소가 ‘갈대아 우르’라는 것과 차이가 난다.
- (4) 그러나 본절의 내용이 전반적인 구약 성경의 기록과 일치하며(창 15:7; 수 24:2,3; 느 9:7) 또한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Josephus)의 의견에도 부합한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맨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그곳을 떠난 후 하란에 도착하여 거기서 거주하다가 데라가 죽은 후에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8. Q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기 위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명칭은 무엇인가? (2절)**

- A** (1) ‘영광(榮光)의 하나님’ 이시다.
- (2) 이 하나님은 곧 자신을 영광으로 드러내신 하나님이시다(참조, 출 16:7, 10; 24:16; 레 9:6, 23; 민 14:10; 16:19; 요 12:41).
- (3) 즉 빛나는 모습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피조물로부터 마땅히 영광받으실 분이라는 뜻이다.
- (4) 사도 바울은 이와 비슷한 귀절인 ‘영광의 주’를 사용했다(고전 2:8).

9. Q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명한 말씀은 무엇인가? (3, 4절)**

- A** (1)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최초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네 고향(故鄉)과 친척을 떠나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다.
- (2) 이 말씀에는 목적지나 떠나야 할 시기 등 그 어떤 구체적인 계시가 없이 단지 떠나라고 하는 막연한 말씀뿐이다.
- (3) 그러나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여(창 11:31) 자기의 정든 고향과 친척을 떠나 출발하였고, 하나님은 이 같은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을 보시고 그를 하란으로 인도하셨고 가나안까지 동행하셨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대해 아무런 계시도 하지 않고 그냥 떠나라고 명하셨으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창 12:2, 3).

- (5) 이러한 아브라함의 결단과 순종의 자세는 합리적, 객관 타당성이라는 명목 아래 성경 말씀을 재편집하여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말씀을 취사 선택(取捨選擇) 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요구한다(참조, 창 6:22; 수 11:15; 왕하 18:6; 눅 2:39; 히 5:8).

10. ㉠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어떤 내용인가? (5-8절)

- ㉠ (1)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주지 않으시고 다만 그와 그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참조, 창 15:1-11).
- (2)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외국 땅에서 400년 동안 나그네로 있으면서 종살이를 하며 학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다(참조, 창 15:13).
- (3)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종으로 부리는 나라를 친히 심판하겠다고 그 뒤에 그들을 돌아오게 하여 가나안 땅에서 당신을 예배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참조, 창 15:14; 출 3:12).
- (4) 한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증표로서 할례의 언약을 주셨다(참조, 창 17:1-14; 롬 4:13).
- (5)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약속이라고 하기 보다는 일방적인 명령이었으며 그 약속의 내용은 인간인 아브라함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다.
- (6)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堅固)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 하였다(롬 4:20, 21).

11. ㉠ 스테반은 아브라함을 어떤 인물로 설명하였는가? (3-8절)

- ㉠ (1) 첫째,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다. 그는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이유와 방법 그리고 증거도 요구하지 않고 순종했다(참조, 롬 4:2).
- (2) 둘째, 아브라함은 신앙의 사람이었다. 그가 비록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히 11:8) 하나님의 지도를 따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롬 8:28)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비록 그가 나이 많고 자녀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후손이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을 믿었다(참조, 롬 4:19).
- (3) 셋째, 아브라함은 희망의 사람이었다. 즉 그는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됨을 보지 못했으나 그 약속의 성취를 의심치 않고 소망하였다.
- (4) 이와 같이 스테반은 아브라함을 믿는 모든 자의 모범적인 조상(롬 4:11)으로 설명하였다. 한편 스테반은 구원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유대 지도자들에게 인식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 (5) 오늘날 성도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순종과 신앙을 이야기로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으로 연결시켜야 한다(참조, 약 1:22).

12. ㉠ ‘할례(割禮)의 언약(言約)’에 대해 설명하라(8절).

- ㉠ (1) 할례(Circumcision)란 음경(陰莖)의 맨 끝 표피를 수술하여 제거시키는 것을 말한다. 초기에는 할례 의식에 부싯들로 만든 칼을 사용하다가 그 후에는 쇠칼을 썼다고 한다.
- (2) 한편 언약(Covenant)은 히브리어로 <베리트>인데 ‘자른다’라는 어근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언약을 위해 짐승을 잡아 그 몸을 자른 것(창 15:10; 렘 34:18) 등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는데 언약을 파기할 경우 파기한 쪽이 이와 같은 죽음을 당해야 한다는 엄숙함이 내포되어 있다.
- (3) 그러므로 ‘할례의 언약’이란 언약의 백성이 생식기의 표피를 거룩하게 제거함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지는 엄숙한 약속이다.
- (4)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할례를 언약의 증표로 명하셨으며 이 같은 언

약 안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아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기에 언약의 줄은 이삭에서 야곱으로 계속되어 야곱의 후대까지 연결되었다.

- (5) 또한 이 언약에는 언약 안에 있는 자가 영적으로 새로와지는 사상이 이 가운데 내포되어 있다.
- (6)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통하여 의롭게 된 것이 아니요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에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점이다.
- (7) 이 점에 대해 사도 바울도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印) 친 것이니'(롬 4:11)라고 동일한 사실을 논하였다.
- (8) 결국 '할례의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이미 의롭다 칭하신 후 그와 언약을 맺으시되 그 증표로 할례를 명한 하나님과 인간의 새로운 약속을 뜻한다.

13. **㉠**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2-8절)

- ㉠** (1)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이미 계획되어진 것이라는 점이다. 아브라함이 어떤 유산도 없었고 후사(後嗣)도 없었을 때이지만 그는 이 두 가지를 가지게 될 것이라 약속받았다. 전자는 약속의 땅이요 후자는 약속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믿음에 의해서 이 두 가지를 이미 소유했던 것이다.
- (2)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 때로 더디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 약속들은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적절한 시기에 성취된다.
- (3)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일시적으로는 곤경 속에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출하시고 그들을 압제하던 자들을 다스리신다는 것이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예정 가운데 자녀들을 택하시고 당신의 섭리 가운데 뜻을 이루실 뿐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궁극적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참조, 시 23:2, 3).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오늘의 삶이 비록 힘들고 벅찰지라도 원망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참조, 시 119:71; 함 3:17, 18; 고후 6:10; 히 10:34; 뱀전 4:12, 13).

14. **㉠** 스테반은 요셉을 어떤 관점에서 언급하였는가? (9-16절)

- ㉠** (1)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창 37-41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 (2) 그런데 스테반이 공회 앞에서 요셉의 생애를 다시 거론하였는데 그는 두 가지 관점에서 요셉의 삶을 언급하였다.
- (3) 첫째, 아브라함의 언약이 요셉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곧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갈게 하리니'(창 13:16)라는 말씀이 요셉의 때에 성취되었다는 사실이다.
- (4) 둘째, 요셉은 구약의 인물 중에서도 가장 근접한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는 점이다.
- (5) 결국 스테반은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 그리고 그리스도의 한 예표로서의 요셉을 설명하였다.

15. **㉠** 요셉의 생애 가운데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은 무엇인가? (9-16절)

- ㉠** (1) 첫째, 요셉은 은 20개에 애굽으로 팔려 갔다(창 37:28).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은 삼십에 팔려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졌다(마 26:15).
- (2) 둘째, 요셉은 바로 자기의 형제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 고난을 당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에 대한 배반 역시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동족(同族)인 유대 민족에 의한 것이었으며(요 1:11) 특히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의한 것이었다(마 26:14).
- (3) 셋째,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을 받는 것과 요셉의 꿈이 예

시한 위대성을 시기했다(창 37:4, 5). 이와 같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의 반감 또한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진실함, 위대함 때문이었다.

- (4) 네째, 가혹한 증상, 고발, 투옥과 같은 형태의 이 고통들은 모두 당해야 할 정당한 이유 없이 애굽에서 요셉이 겪은 것(창 39장)이었다. 이와 동일하게 그리스도도 까닭없이 수난을 받으셨다(마 26, 27장).
- (5) 다섯째,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 내사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지사 당신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
- (6) 여섯째, 구원의 대상자는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그의 형제들 뿐만 아니라 그의 전가족이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구원 역시 그를 죽음에 팔았던 사람들 뿐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모든 사람을 목표로 하고 있다.
- (7) 일곱째, 요셉은 그의 형제들이나 아버지에게 자기의 호의를 받아들이고 그가 주는 보조금으로 생활해야 한다는 것 이외에 아무런 요구 조건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리스도 역시 죄인들에게 회개하고 당신을 영접하라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요구도 하시지 않는다.
- (8) 이와 같이 요셉의 생애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애를 가장 많이 예표하고 있다.

16. **㉠** 스테반이 요셉의 생애를 요약하여 전한 취지는 무엇인가? (9-16절)

- ㉠** (1) 스테반은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시삭이 초라하고 미미(微微)하였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 그들의 그릇된 교만을 지적하려 했다.
- (2) 즉 원래 유대는 보잘것없이 아주 작은 민족(출 1:5)이었으나 하나님의 축복으로 애굽에서 번성하여 큰 민족을 형성(출 12:37, 38)하게 되었고, 또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되어져 나왔음을 상기시키려 하였다.
- (3) 또한 스테반은 요셉의 형제들 곧 12지파의 족장들이 그들의 형제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아 버린 죄악을 언급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사도들을 핍박하는 행위가 그와 동일한 죄악임을 강조하였다.
- (4) 그리고 스테반은 그들의 조상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소유하기까지 400년이란 긴 세월이 걸렸고, 또 그 땅에 기근과 큰 고난(창 41:54; 42:5)이 있었던 사실을 상기시켰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비록 하나님의 축복인 언약을 받은 상속자이더라도 그들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악을 범한다면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교훈하기 위함이다.
- (5) 아울러 스테반은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간절히 소망(창 50:5)했던 야곱의 믿음이 단지 조국애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늘나라를 바랐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고자 요셉의 생애를 언급하였다(참조, 히 4:8-10).
- (6) 더우기 스테반은 요셉의 생애가 아브라함의 언약과 별개의 삶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언약과 축복이(창 12:2)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요셉으로 이어져 점진적으로 성취(출 1:7)되어 가는 과정임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에 이어 요셉의 생애를 언급했던 것이다.
- (7) 이러한 스테반의 관점으로부터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열쇠가 성경 전체의 역사 곧 구속사(Heilsgeschichte)를 바르게 아는 것과 직결되어 있음을 배울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유대인들은 구약의 역사를 자기 민족의 구속에만 국한시켰을 뿐 아니라 그 역사 가운데 나타난 메시아에 대해 그릇된 이해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7. **㉠** 요셉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열거(列舉)하라(9, 10절).

- ㉠** (1) 첫째,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셨다'. 비록 그의 형제들은 요셉을 외면하며 시기, 질투하였으나 하나님은 그를 당신의 뜻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창 39:2, 21, 23; 시 91:15; 요 3:2).

- (2) 둘째, ‘그 모든 환난(患難)에서 건져 내셨다’. 하나님은 요셉을 그의 형제들의 손에서 건져 내셨고, 억울한 누명과 오랜 세월 동안의 투옥 생활로부터 구출해 내셨다(창 41:14, 15; 48:16; 시 33:19; 54:7; 살후 3:2).
- (3) 셋째,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恩寵)과 지혜(智慧)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부어 주시므로 그는 꿈으로 인해 고심하는 바로 왕의 번민을 해결시켜 줄 수 있었다(창 41:39; 약 1:5).
- (4) 넷째,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또한 그를 바로의 집을 다스릴 치리자(治理者)로 높이셨다(창 41:40, 41; 신 28:13).
- (5) 이와 같이 요셉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者)로서 성실과 믿음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인정(認定)을 받아 그의 형제와 민족을 구원하고 이방 나라를 통치하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
- (6)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 새 삶을 얻게 되었으므로 성도들은 썩어져 갈 구습을 벗어버리고(엡 4:22, 23)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어야겠다(엡 1:3).

18. **㉠** 하나님이 요셉에게 부여한 은총과 지혜란 어떤 것인가? (10절)

- ㉠** (1) 은총의 사전적 의미는 높은 사람에게서 받는 특별한 사랑을 말하는데 헬라어 본래의 뜻은 육체미를 가리켰으며 거기서 누구나 사랑하는 인격미 곧 좋은 의미의 ‘매력’이란 뜻으로 변했다.
- (2) 이러한 의미에서 요셉은 은총을 받은 인물이었다. 요셉은 불평과 앙심 그리고 실망의 사람이 될 가능성이 컸던 인물이었으나 그는 종살이에서도 그랬고 총리직 때에도 그랬듯이 책임에 충성하며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였다.
- (3) 한편 여기서 의미하는 지혜(wisdom)란 영리함, 예민함, 혹은 진리에 대한 지적(知的) 이해에 그치지 않는다.
- (4) 즉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사물의 면 앞을 내다보는 능력 곧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사물을 보고 이해하는 힘이다. 요셉의 일생이 이 지혜를 잘 해명해 주고 있다.
- (5) 결국 요셉에게 부여된 은총과 지혜란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인격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을 의미한다.
- (6) 오늘 이 시간 성도들은 이웃으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신앙 인격을 소유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고 아울러 하나님을 따라 생활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참조, 고전 1:30; 딤후 2:21; 벰전 1:2).

19. **㉠**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자손이 본절에는 75명으로 기록되어 있고 출 1:5에는 70명으로 되어 있다. 그 차이점을 설명하라(14절).

- ㉠** (1) 야곱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간 가족의 수자는 66명이며(창 46:26) 여기에 야곱 자신과 요셉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합하면 모두 70명이 된다.
- (2) 창 46:27과 출 1:5 그리고 신 10:22 등에는 애굽으로 내려간 자손이 70명이라고 언급되어 있으나 본절에는 75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 (3) 이와 같이 차이가 나는 것은 수자를 십 단위로 표시하는 히브리 사고 방식과 정확한 것을 좋아하는 헬라인의 사고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4) 즉 헬라어 70인역(LXX)에는 75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본서인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70인역의 표기를 인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 (5) 결국 75명이란 수자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70명의 수자에 므낫세의 아들과 에브라임의 아들, 즉 요셉의 손자 5명을 더 포함시킨 수자일 것이다.

20. ㉠ '세겜으로 옮기워 아브라함이... 값 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에서 발견되는 문제는 무엇인가? (16절)

- ㉠ (1) 첫째, 야곱과 조상들이 가나안에서의 아브라함의 최초의 정착지였던 세겜(창 12:6, 7)에 모두 장사되었다고 스테반은 말했으나, 야곱은 헤브론에 매장되었고(창 50:13) 요셉의 뼈만이 세겜에 묻혔으며(수 24:32) 그밖의 조상들의 뼈가 어디에 묻혔는지에 대해 선 성경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 (2) 둘째, 아브라함이 하물의 자손에게서 세겜의 한 무덤을 은으로 값 주고 또는 일정액의 돈을 주고 샀다고 스테반은 말했는데 아브라함이 산 무덤은 헤브론에 있었고 그것을 판 사람은 헷 족속의 에브론이었으며(창 23:16) 야곱이 산 땅은 세겜의 한 밭이었고(창 33:19) 후에 이 밭에 요셉의 뼈가 묻혔다(수 24:32).
- (3)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신학자(神學者) 칼빈(Calvin)과 메이어(Meyer)는 스테반이 그 당시의 긴장된 상황 속에서 잠시 착오를 일으켰다고 설명했으며, 제롬(Jerome)과 노우링(Knowling)은 모든 조상들이 사마리아의 세겜에 묻혔다는 사마리아 전설을 따른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 (4) 한편 벵겔(Bengel)은 스테반이 그때 죽음 직전의 급박한 압력을 은연중에 받았으므로 아마 야곱이 세겜 땅을 산 것과 요셉이 그 땅에 장사되어진 비슷한 두 사건을 요약 단축해서 말한 것으로 보았다.
- (5) 이상(以上) 학자들의 의견이 우리의 궁금증을 만족하리 만큼 해결해 주지는 못했다고 할지라도 이 미해결의 문제를 구실로 스테반이나 본서 저자인 누가가 받은 성령의 인도를 의문시하는 것은 경솔한 판단이다(참조, 딤후 3:16; 벵후 1:21).

21. ㉠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번창하여진 때는 언제인가? (17절)

- ㉠ (1) 흉년을 피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방 나라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자손은 겨우 70명에 불과했었다(창 46:27).
- (2) 그러나 그 이후 그 자손은 생육이 중다(衆多)하고 강대하여 은 땅에 가득하게 되었고(출 1:7) 출애굽 당시에 보행하는 장정의 수만 60만에 달했다(출 12:37, 38).
- (3)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蕃盛)한 때는 타국에서 정치·경제적으로 학대와 박해를 받으며 고생할 때였다.
- (4) 그리고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한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창 12:2) 때가 가까운 시기였다.
- (5)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변개(變改)치 않으시고 당신의 예정하신 뜻 안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셨다(참조, 시 33:11; 잠 19:21; 사 14:27; 46:10; 렘 4:28; 단 4:35; 엠 1:11; 히 6:17).

22. ㉠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18절)

- ㉠ (1) 이 왕은 애굽에서 왕조 변화로 요셉의 공로에 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란 것을 말해 준다.
- (2) 전(前) 왕조는 히소스(Hyksos) 왕조였다(Knobel). 이 말은 이 왕의 통치 기간 동안은 이스라엘인들의 번성함에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아니했다는 것을 뜻한다.
- (3)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 고통이 시작되었다. 이때까지는 요셉에 대한 기억과 그가 애굽을 위해서 행한 모든 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 (4) 그런데 이 왕은 요셉을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으므로 이스라엘인들이 계속적으로 번성하고 그들의 힘이 그 왕국에 위협적인 것으로 형성되어 가자 정치적인 눈으로 냉담하게 바라보았다.

(5) 이는 애굽의 제 18왕조의 첫 군주인 아아메스 1세 (Aahmes I, B. C. 1567)로 믿어진 다.

23. **㉠** 스테반은 유대인을 더욱 압제하는 애굽인들의 행위를 언급함으로써 어떤 교훈을 하고자 했는가? (18, 19절)

- ㉠** (1) 첫째, 애굽인들의 배은 망덕(背恩忘德)이다. 유대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에게 압제를 받았다. 이 왕은 요셉이 애굽을 7년 기근에서 구원해 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다(출1:14).
- (2) 둘째, 애굽인들의 가혹한 정책과 수단이다. 그들은 고된 노역(勞役)을 통하여 조직적인 유대 민족을 말살하려는 정책을 실시했다.
- (3) 셋째, 애굽인들의 잔인하고 비인도적(非人道的)인 잔학성이다. 즉 그들은 유대인들을 효과적으로 근절시키려는 목적으로 유아(幼兒)를 살해하도록 하였다(출1:16).
- (4) 한편 스테반은 유대인을 애굽인들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며 또한 지난 시절의 고통을 돌이켜봄으로써 교만한 자들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애굽인들의 지난날 처사를 언급하였다.
- (5) 결국 스테반은 완악한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망각한 채 스스로 높다고 자랑하는 교만에 대해 과거 하나님의 역사를 인용함으로써 충고하려 했던 것이다(참조, 느9:26; 고전 14:3; 골 3:16; 히 12:5; 13:22).

24. **㉠** 모세의 생애를 언급하는 스테반이 기본적으로 강조하는 바는 무엇인가? (20-36절)

- ㉠** (1)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모세를 시대적 암흑기에 선택하시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다.
- (2)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역한 모세를 미디안 땅에서 친히 연단시키고 준비시켰다.
- (3)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시내(Sinai) 산 가까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내는 데 주역을 담당할 사명을 주셨다(출3:9, 10).
- (4)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과 홍해 그리고 광야에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능력을 허락하셨다.
- (5) 결국 스테반이 기본적으로 강조하는 바는 하나님이 팔레스틴 지역 밖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섭리하시며 구원하셨다는 사실이다.
- (6)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자녀들이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 봉착했는지 알고 계시며 그들을 당신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시며 보호하신다(참조, 신 8:2; 32:11, 12; 시 77:20).

25. **㉠** 모세에게 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해서 고발당한 스테반이 모세에 대해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가? (20-23절)

- ㉠** (1) 첫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애굽인의 박해가 가장 가혹했을 때 특히 그 출생한 아이를 죽이는 잔학한 시기 곧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겪으셨던 것처럼(마2:16) 피의 법령에 희생될 위협에 직면했을 당시에 출생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갈 길이 암담하고 그들의 곤혹(困惑)이 극심하였을 때 그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 준비하신 일이다.
- (2) 둘째,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즉 그는 태 속에서부터 성별(聖別)되었고 이 사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여겨졌다.
- (3) 셋째, 모세는 젖먹이였을 때 석 달 동안 그의 양친에 의하여 양육받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바로(Pharaoh) 공주의 아들처럼 자라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과 섭리가 그에게 함께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 (4) 넷째, 궁중에서 교육을 받은 모세는 최고의 교사들과 서적을 통하여 다방면의 예술과

학문에서 자신을 연마할 기회를 얻었고 또한 학문에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였다.

- (5) 다섯째, 모세는 ‘말과 행사가 능하였다.’ 곧 그의 말은 설득력이 있고 논리가 정연했을 뿐만 아니라 용기와 품행과 그 능란함이 그와 비교될 자가 없었다.
- (6) 이렇게 하여 스테반은 그를 박해하는 자들의 악의에 찬 고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들 만큼 모세에 대하여 고귀하고 고매(高邁)한 사상과 존경심을 가지고 있음을 명백히 하였다.

26. Q 모세의 삶에 대해 언급하는 스테반의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20-23절)

- A** (1) 먼저 스테반은 모세의 삶을 조리 있게 설명함으로 자신이 모세를 모독하는 언사를 했다고 하여 고소한 자들에게 모세에 대한 스테반 자신의 분명한 입장을 보여 주기 위해서였다.
- (2) 또한 모세를 모독했다고 스테반 자신을 고소한 유대인들을 향해 모세의 계획을 거절하며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고 모세를 배척하고 불의를 행한 유대인의 조상들이야말로 모세와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었음을 폭로하기 위함이다.
- (3) 더우기 모세의 삶에 대해 언급하는 스테반의 근본적인 목적은 성지(聖地)를 신성시하는 당시의 일반적인 신앙과는 반대로 땅 위의 어떠한 곳, 비록 그곳이 하나님이 친히 기업으로 주신 곳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하여 행하신 일보다 중요시되거나 또는 신성함을 지니지 못한다는 분명한 요점을 밝히기 위해서였다.
- (4) 이 같은 방법에 의해 스테반은 예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예배와 생활 그리고 사상의 중심점이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자 했던 것이다.

27. Q 스테반은 모세가 40세에 이르러 어떤 활동을 하였다고 소개하는가? (23-28절)

- A** (1) 모세는 ‘나이 사십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 곧 믿음에서 출발한 (참조, 히 11:24-26) 사명감을 갖고 공적(公的)인 인물로 활동하려 했다.
- (2)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속자, 구원자로서 활동하였다. 그는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인을 학대하는 애굽인을 쳐죽였다 (24절).
- (3) 또한 모세는 이스라엘의 재판관으로서 활동하였다. 이 사실을 그는 다음날 다투고 있는 두 명의 이스라엘인의 문제를 중재(仲裁) 함으로 그 본을 보였다.
- (4) 즉 그들이 다툰 때에 그가 나타나서 위엄과 권위를 지니고 그들을 즉시 화해시키려 하였다. 마치 이스라엘인의 왕자가 그의 백성들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듯이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 라고 책망하였다.
- (5) 이와 같이 모세의 활동은 이스라엘인에게는 사랑의 행위요 구원의 행위였으며 결국 그는 자신의 행할 바와 나아가야 할 바를 바로 깨닫고 실천한 인물이었다.

28. Q 스테반이 모세가 동족(同族)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의해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된 사실을 말한 목적은 무엇인가? (28, 29절)

- A** (1) 동족을 구출하려던 모세의 심정과 계획을 배척했던 당시 유대인 조상들의 행위를 기억하여 겸손하고 자숙(自肅)해야 할 자들이 이제 와서 마치 모세를 숭앙하는 자들처럼 행세하며 사람들을 판단하는 모습을 충고하기 위해서이다 (참조, 마 7:3; 23:3, 4; 눅 6:46; 요 7:23).
- (2) 또한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모세와 율법을 파괴한다고 구실삼아 성도들을 꾀박하는 유대인들의 완악함과 교만함을 그들의 역사를 통해 지적하고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이다 (참조, 사 44:18; 렘 5:15; 호 5:1; 마 13:13; 롬 3:11, 12).
- (3) 결국 스테반은 유대인들이 율법 앞에서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부끄러운 자들임을 상기시키기 위해 동족에 의해 쫓겨 난 모세의 모습을 언급하였다.

(4) 성도들은 우리의 구원을 자랑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구원이 우리의 노력과 공로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구원의 은총을 겸손과 감사함으로 받아야만 한다(참조, 요 15:16).

29. **㉠** 스테반이 모세의 마지막 40년 곧 80세에서 120세까지의 삶을 설명한 내용은 무엇인가? (30-44절)

- ㉠** (1) 애굽 왕자의 영광을 버리고 그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 헌신하고자 노력했던 모세는 동족들의 오해와 배척으로 인해 미디안으로 도주(逃走)해야 하는 불운을 경험하였다(출 2:11-15).
- (2) 그러던 중 80세가 된 모세는 시내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출 3:2) 하게 되면서 그는 언약의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는 막중한 사명을 위임받게 되었다.
- (3) 그리하여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게 되었고 광야에서 40년간 기사(奇事)와 이적을 행했으며 또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 주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고 예언함으로 언약의 계속성과 점진성을 예고하였다.
- (4) 비록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느보 산상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신 32:49, 50) 120세의 나이로 임종(臨終)했으나 그는 '관원과 속량(贖良)하는 자'로 보냄을 받은 인물이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암암리에 언급한 표현이다.
- (5) 결국 스테반은 모세가 동족으로부터 오히려 멸시와 거절을 받았으나 마지막 40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한 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민족을 위한 해방자로 또한 선지자로 그리고 입법자로 모세가 활동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참조, 학 2:23; 요 15:16; 고전 1:27-29).

30. **㉠** '시내 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라 (30절).

- ㉠** (1) 출 3:1에는 하나님의 현현의 장소로 '호렙'이라는 산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 '호렙'은 그 산맥의 이름이고 '시내'는 특정한 산꼭대기의 명칭이었을 것이다.
- (2) 그러나 '시내'를 산맥으로 그리고 '호렙'을 산꼭대기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 (3) 한편 시내 산이 예벨 세르발(Jebel Serbal)이든, 라스 에스 수프사페(Ras-es-Sufsa-feh)이든, 또는 예벨 무사(Jebel Musa)이든 우리는 아직 단정을 내리지 못한다.
- (4) 왜냐하면 A. D. 4세기 이후로부터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스러운 산이 시나이 반도의 꼭대기에 있는 높은 산맥 중에 있다고 전승되어 왔기 때문이다.
- (5) 또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Josephus)와 사도 바울은(갈 4:25) 시내 산이 아라비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6) 결국 현재로서 '시내 산'의 정확한 위치를 단정지을 수는 없으나 그곳이 출 3:1에 명기(明記)된 '호렙'과 동일한 장소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신 곳이라는 점이다.

31. **㉠** '가시나무 떨기 불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30절)

- ㉠** (1) 그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이었다. 왜냐하면 나무 떨기가 불이 붙었으면서도 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가운데서 주(主)의 소리가 들려 왔기 때문이다.
- (2) 또한 그 모습은 감동적인 광경이었다. 즉 하나님이 인간인 모세 앞에 나타나셔서 그와 대화하셨다는 사실이다.
- (3) 그리고 그 같은 사실이 두 가지를 암시적으로 상징한다. 첫째, 모든 죄의 흔적을 태워 없애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한다(참조, 민 31:23; 겔 22:20; 숙 13:9; 말 3:2; 히 12:29). 둘째, 불 가운데 던져질 수는 있으나 파괴될 수 없는 교회의 불멸성을 상징한다(참

조, 사43:2).

- (4) 한편 이 사실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 곧 이스라엘의 역사적 시련이 불꽃 가운데서 지났지만 결코 소멸하지 않은 것을 상징한다.
- (5) 반면 이 불꽃을 아름다운 열매로 해석하는 자들이 있으나 이러한 해석은 극히 인간 중심적인 생각의 표출로서 마땅히 배제(排除)되어야 한다(참조, 벧후 1:20, 21).

32. **㉠** 가시나무 떨기 불꽃을 목격한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31, 32절)

- ㉠** (1) 모세는 그 광경(光景)을 보고 기이히 여겼다. 그것은 그가 애굽에서 배운 모든 학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경이(驚異)로운 것이었기 때문이다(참조, 욥 5:9; 9:10; 시 145:3; 전 3:11).
- (2) 또한 모세는 무서워 떨며 감히 알아보지 못하였다. 여기서 ‘무서워 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敬畏心)을 의미하며 ‘알아보지 못하였다’는 것은 인간 능력의 한계성(限界性)을 말한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현현을 목격한 모세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위엄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注目)하였다(참조, 시 4:4; 33:8; 89:7; 합 2:20).
- (4)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하여 모세도 인간이요 우리와 같은 성정(性情)을 가진 사람이며 특히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앞에서 떨 수밖에 없는 존재였음을 깨닫게 된다.
- (5) 그러므로 모세를 신격화(神格化)하여 섬기며 모든 생활의 척도를 그의 율법에 맞추어 결정하고 사람들을 정죄한 유대인들의 독선과 아집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앞에서 수치스러운 행위였다(참조, 요 15:10; 히 10:9).

33. **㉠**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32절)

- ㉠** (1) 첫째, 하나님 자신은 과거와 같이 현재에도 변함없는 분이라는 사실이다. 즉 전에 아브라함과 언약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취소하거나 잊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 오셨으며 지금도 그 약속을 이행하고 계신다는 뜻이다(참조, 시 102:27; 말 3:6).
- (2) 둘째, 하나님은 영원토록 불변(不變)하시리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을 폐기치 않으신 것처럼 비록 모세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신실성은 변함없으리라는 뜻이다(참조, 히 1:12; 13:8; 약 1:17).
- (3) 결국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에 변치 않으시고 동일한 사랑과 신실함을 당신의 백성에게 나타내 보이신다는 뜻이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수고 그리고 믿음 또한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다(참조, 요 14:15, 16; 엡 6:24; 딤후 1:13; 벧전 1:8).

34. **㉠** ‘네 발의 신을 벗으라’는 뜻은 무엇인가? (33절)

- ㉠** (1) 근동 지방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샌들(sandal) 곧 일종의 슬리퍼 모양의 신을 신고 다녔는데, 그것은 그 지역이 고온 건조(高温乾燥)하며 먼지가 많은 곳이었기 때문이었다(참조, 눅 10:11; 요 12:3).
- (2) 그래서 그 지방 사람들의 신과 발은 먼지로 덮여 있었고 그로 인해 그들은 생각하기를 신은 더럽다고 여겼다. 또한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신을 벗었다.
- (3) 한편 이슬람교도들에게는 그들 회당에서 신을 벗는 풍습이 있었다.
- (4) 더우기 고대 사회에서는 지위가 보장된 자유인들은 신을 신고 다녔지만 자유가 박탈된 노예들은 그 신분의 미미함 때문에 주로 맨발로 지냈다고 한다. 한편 본절에서 ‘신을 벗으라’는 뜻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에 인간은 내·외적인 더러움을 제거하여 정결

해야 한다는 것과 (참조, 창 35:2; 레 14:49; 잠 22:11; 빌 4:8; 히 9:22; 뱀전 3:2)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하나님과는 엄청난 신분의 차이가 있음을 동시에 보여 주는 말이다.

- (5) 오늘에 와서 하나님은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임재를 보이시며 또한 희미한 형태로가 아닌 명확한 진리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므로 성도들은 자신의 발에서 신을 벗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가증하고 추한 옷까지도 벗어야 하는 것이다 (참조, 골 2:11; 3:9; 히 12:1; 뱀전 2:11).
- (6)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의 노예로서 날마다 그분이 뜻하시는 바를 추종하며 그분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5. ㉠ 하나님께서 모세의 쉰 곳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신 까닭은 무엇인가? (33절)

- ㉠ (1)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시내 산 광야가 특별하여 그곳을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
- (2) 하나님께서 그곳을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그 장소는 하나님이 자신의 속성(屬性)을 드러내시고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이다.
- (3)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리시고 당신의 백성과 교제하시며 아울러 섬김을 받는 곳이기 때문이다.
- (4)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고집하던 성전 곧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예배만을 주장하고 인정 한 것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5) 한편 오늘날 목회자들 가운데 자기의 교회와 교단만을 인정하여 성도들이 다른 교회로 이전(移轉)하는 것을 마치 큰 죄로 여기는데, 그들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 18:20)는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참조, 눅 24:15; 고전 1:9; 계 3:20).

36. ㉠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신 사명은 무엇인가? (34-36절)

- ㉠ (1) 우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고통과 탄식(嘆息)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긍휼히 여기심에서 구원을 마련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의 교회가 당하는 핍박과 그의 고난받는 백성들의 간구를 기억하신다.
- (2)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오사’ 모세의 손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救贖)하시려고 작정하신 것이다.
-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신 사명은 애굽 땅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내라는 것이었다.
- (4) 한편 여기서 우리들이 기억할 점은 스테반이 이스라엘의 구속자(救贖者)로서의 모세를 그리스도의 참된 모형으로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 (5) 하나님께서 오늘날 성도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사명이 있는데 ‘어떤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이에게는 영을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이에게는 방언을 통역(通譯) 함을’ 선물로 주사 그 주어진 사명에 따라 충성하기를 성도들에게 바라신다(참조, 마 25:15; 롬 12:6; 엡 4:11).

37. ㉠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받고 활약하는 모세의 모습이 예표하는 것은 무엇인가? (35, 36절)

- ㉠ (1)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동족(同族)으로부터 배척받은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명을 부여하사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셨는가 하는 문제이다.
- (2) 첫째,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모세를 영예롭게 하셨다. 즉 하나님은 그들이 거절했던 모세 앞에 현현하사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서 이스라엘의 구속자로 삼으셨다.
- (3) 둘째,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들이 모세를 거부하였지만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보호, 인

도하시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공하셨다.

- (4) 이러한 점에서 모세는 메시아를 예표하였으며 ‘관원과 속량(贖良)하는 자’라는 표현 속에서 드러난 것처럼 모세의 사명은 결국 그리스도 사역(使役)의 전조(前兆)였음을 깨닫게 된다.
- (5) 한편 스테반은 유대인들이 아직도 완악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령의 문을 열지 않았지만 모세의 생애에 대해 계속 언급하면서 그들의 심령이 감화되기를 소망했을 것이다.
- (6) 성도들은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지 못한 형제의 영혼을 위한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할 것이며 더우기 이같이 귀(貴)하고 선(善)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아야 한다(참조, 살후 3:13).

38. C 모세를 모독하고(6:11) 율법을 거스려 말하였다(6:13)고 하여 고소당한 스테반이 모세의 마지막 40년의 삶을 언급하면서 주장한 바는 무엇인가? (37-43절)

- A** (1) 유대인들은 율법을 전하여 준 모세에 대한 숭배와 광야 생활을 이상화(理想化)하려는 경향이 농후하였다. 그러므로 모세보다도 더 큰 권위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스테반을 모세와 율법에 대한 모독자로 규정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당연한 일이었다.
- (2) 이에 대해 스테반은 세 가지 사실을 주장하였다. 첫째, 모세는 하나님 이후에 그 백성 가운데서 그들을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고 친히 말하였는데(신 18:15) 이것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의 계시와 구속 사업은 모세의 율법적 계율로만은 안 된다는 것이다.
- (3) 둘째, 모세는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자였는데도 자신이 속한 동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이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으로부터 배척당하시던 식으로 수난당했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거절했던 이유를 설명해 준다.
- (4) 셋째,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제사 제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란하게도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사실상 하나님께 반역하였다(출 32:1-4)는 주장이다.
- (5) 따라서 스테반은 모인 유대인들을 향해 우리 조상들은 모세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들이며 그 후손 또한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으므로 유대인들은 지난 과거의 역사를 이상화하려는 교만을 버리고 우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회개의 운동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참조, 겔 18:30; 마 3:2; 막 1:15; 눅 13:3; 롬 2:5; 계 2:5).
- (6) 오늘날 성도들은 진실한 신앙 선배들의 믿음과 삶을 자기의 것인 양 이상화하려 하기 보다는 먼저 그분들의 아름다운 인격을 기리며 아울러 그분들의 믿음을 자신들의 삶에 접목시키려는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참조, 마 23:3; 롬 6:17; 고전 4:16; 었 5:1; 빌 3:17; 히 13:7).

39. C ‘광야 교회’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38절)

- A** (1) 문자적으로는 ‘광야에 모인 회중’, 즉 ‘율법을 받기 위해 모인 사람들’을 말한다.
- (2) 그런데 ‘교회’라고 번역된 말이 신약 성경에서는 다음의 네 가지 경우를 지칭하는 데 쓰였다.
- (3) ① 국가를 형성한 이스라엘 자손 ② 마을 단위의 회집(참조, 19:32, 39, 41) ③ 그리스도의 한 몸 속에 있는 많은 지체인 성도들, 즉 보편적인 교회(참조, 골 1:18) ④ 가장 흔한 예로서는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지역적 집단, 예를 들면 안디옥 교회와 같은 지교회(支教會)이다.
- (4) 한편 이것이 본절에서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의 총회를 말하며 신약 시대 교회를 예표한다.

40. **㉠** 스테반이 유대인들의 모세에 대한 배역(背逆)을 책망하기에 앞서 모세의 영예를 밀도 있게 언급한 표현이 무엇인가? (38 절)

- ㉠** (1) 첫째,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다. 즉 모세는 시내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천사의 음성을 들었으며 또한 2 회에 걸쳐 사십 일 동안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였다(출 19:9;24:12).
- (2) 둘째, 그는 '광야 교회에 거하는' 영예를 받았다. 모세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그리고 주권이 임재하였던 곳에 거하였다(참조, 14:22; 요 15:4, 5, 7; 요일 2:28).
- (3) 셋째, 모세는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여기서 '생명의 도'란 십계명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교훈들을 말한다. 이처럼 모세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였다.
- (4) 결국 스테반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진 신실한 종이었음을 언급함과 동시에 이러한 점에서 모세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음을 재삼 강조하였다.

41. **㉠** 스테반이 지적한 유대인 조상들의 죄악은 어떤 것인가? (39-41 절)

- ㉠** (1)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였다.' 즉 유대인의 조상들은 구원자 모세의 뜻을 거역하고 원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외쳤다.
- (2) 이것은 마치 생명의 길을 뻗히 알면서도 세속에 연연(戀戀)하여 두 천사의 명(命)을 저버리고 소똥을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 버린 롯의 아내와 같은(창 19:26) 불순종이다(참조, 창 3:11; 레 10:1; 삼상 13:13; 은 1:3; 습 3:2).
- (3) 또한 그들은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함(출 20:3-5)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偶像) 앞에 제사(祭祀)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였다'.
- (4) 이것은 모세를 격분하게 만든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다(참조, 민 25:2; 사 3:7; 왕상 12:32; 왕하 17:12; 갈 4:8).
- (5) 이와 같이 스테반은 모세를 경멸하며 하나님을 모독한 유대인 조상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지적하면서 조상들의 전철(前轍)을 밟고 있는 자들의 죄악을 충고하였던 것이다.
- (6) 우리는 주위를 돌아볼 때 안목의 정욕과 이익에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의 뜻을 고의적으로 저버리며 불신앙의 길을 선택하는 자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되는데 이런 자들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잠 4:23)는 말씀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참조, 15:29; 막 10:21, 22).

42. **㉠** 이스라엘 백성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게 된 상황을 설명하라 (40, 41 절).

- ㉠** (1) 모세는 하나님의 명(命)을 따라 시내 산 위에서 하나님의 증거판 곧 하나님이 친히 쓰신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 그곳에 40일간 머물러 있었다(출 24:18).
- (2) 이같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기 시작하자 백성들은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神)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출 32:1)고 말하였다.
- (3) 그래서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그것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신(神)으로 숭배하였다(출 32:3, 4).
- (4)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가 잠시 보이지 않자 그들은 마음이 흔들려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우상을 만들어 거기에 절하였다.
- (5) 결국 그들은 불가시적인(不可視的)인 하나님을 의지하기 보다는 가시적인 인간을 신뢰하는 나약하고 어리석은 자들이었다(참조, 히 11:1).

(6) 눈에 보이는 지도자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할 때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뢰가 줄어들기 쉽다는 사실을 목회자들은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참조, 막 1:7; 고전 15:9).

43. **㉠** 스테반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셨다고 했는가? (42 절)

- ㉠** (1)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軍隊)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다' 고 했다.
 (2) 여기서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이란 일월 성신(日月星辰), 즉 천체 숭배를 의미한다.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의 행위를 증오하시 더 깊은 죄 가운데로 빠지게 내버려두셨다.
 (4) 이것은 하나님이 죄인을 벌하시는 방법 중 한 가지이다(참조, 롬 1:24-28).
 (5) 결국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삶의 현장에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다른 신(神)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와 관심으로부터 제외되는 비참한 징계를 받게 되었다(참조, 사 16:20; 삼상 16:14; 28:6).
 (6)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과 축복을 저버리고 인간의 뜻대로 자행 자지(自行自止)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자(者)들의 삶에 대해 방임(放任)하여 '저희를 마음의 정육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욱되게 하신다'(롬 1:24)는 사실을 성도는 잊지 말아야 한다(참조, 시 81:12; 잠 1:28; 마 23:38).

44. **㉠** 스테반은 예언자 아모스도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행위를 책망하였다고 인용했는가? (42, 43절)

- ㉠** (1) 첫째, 그들이 광야에서 그들의 하나님께 제사드리지 않은 것을 책망하였음을 인용했다(암 5:25).
 (2) 둘째, 그들이 다른 신들 곧 '몰록의 장막(帳幕)과 신(神) 레판의 별'에게 제사드린 사실을 선지자 아모스가 책망하였다고 스테반은 지적했다.
 (3) 한편 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바벨론 너머 앗수르와 메대로 포로되어 가는 참혹함을 경험하게 되었다(참조, 왕하 17:6).
 (4) 이와 같이 스테반은 예언자 아모스의 예언을 인용하여 끝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교만하며 완악하게 행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으로부터 영원히 추방당하는 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주지(注知)시켰다(참조, 롬 2:8; 살후 1:9).

45. **㉠** '몰록'에 대해 설명하라 (43절).

- ㉠** (1) '몰록'이라고도 불리어진 '몰록'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자녀를 불에 태워 제사한 암몬족의 태양 신이다(레 18:21; 20:2; 신 18:10; 왕하 16:3; 23:10; 렘 32:35).
 (2) 그 모양은 속이 비고 놋쇠로 만든 것으로 머리는 황소, 쪽 뿔친 팔은 인간의 팔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3) 제사의 방법은 내부에서 불로 우상을 벌겍게 달군 후 어린아이들을 그 팔 위에 얹어 서서히 타 죽게 하는 것이다.
 (4) 한편 죽어 가며 울부짖는 어린아이들의 소리를 그 부모들이 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제사를 주관(主管)하는 자들이 복을 요란하게 두들겼다.
 (5) 이와 같이 '몰록'을 섬기는 자들은 비윤리적(非倫理的)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잔혹한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인간의 순수한 이성(理性)까지 혼란케 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치졸(稚拙)함을 보였다.

46. **㉠** '레판'이란 무엇인가? (43절)

- ㉠** (1) '레판'(렐, 라이판)은 토성(土星)과 관련이 있는 성신(星神)의 이름으로 본다.
 (2) 그런데 '레판'은 암 5:26의 70인역(LXX)에서 인용한 명칭으로 원래 이 명칭이 맞소

22; 뵤전 2:5).

- (7) 결국 성전에 대한 스테반의 변호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보다는 예루살렘 성전을 신봉하는 어리석은 유대인들에 대한 책망과 진정한 의미의 성전을 설명하는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 (8) 요즘 성도들 가운데 자신의 교양이나 학벌, 재력(財力) 그리고 사회적 위치를 고려하여 교회를 선택하거나 또는 교회의 외형을 보고 교회를 평가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자들은 당시 유대인들과 동류(同類)라 할 수 있다(참조, 요 4:20, 21).

49. **㉠** ‘증거의 장막’이란 무슨 의미인가? (44절)

- ㉠** (1) ‘증거의 장막’이란 장막에 언약의 증거인 십계명을 새긴 두 개의 돌판을 넣어 둔 향아리가 있었기 때문에 불리어진 명칭이다(민 9:15; 17:13).
- (2) 또한 이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친히 당신의 택한 백성들과 교제하시기 때문에 ‘회막’(會幕)이라 불리운다(출 27:21; 신 31:14).
- (3) 이 장막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대로 지은 것으로 솔로몬의 성전보다 웅장함이나 화려함은 덜하였지만 더 순수한 것이었다(출 25-27장).
- (4) 이와 같이 당시 ‘장막’은 하나님이 주인으로 추앙(推仰)과 영광을 받으셨던 곳이며 동시에 그분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장소였다.
- (5) 한편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窟穴)을 만드느도다’(마 21:13)라고 책망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전(殿)이 거룩해야 함을 가르치신 정화 작업의 한 방법이였다(참조, 대하 29:15; 느 13:9; 요 2:15).
- (6)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교회를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장소로 또는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장소로 생각하여 행동하는 무리들이 있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보다는 추악한 인간의 냄새를 피우고 있는데 이들은 말씀의 채찍으로 정화되어야만 한다.

50. **㉠** 스테반은 유대인을 향해 외친 자신의 설교를 어떻게 마무리했는가? (51-53절)

- ㉠** (1) 스테반은 앞에서 길게 진술한 이스라엘 역사를 예로 들면서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였다.
- (2) 첫째, 스테반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라고 책망하였다(참조, 출 32:9; 대하 24:19; 속 7:11).
- (3) 즉 스테반은 유대인들에게 명칭과 외관상으로는 너희가 할례를 받았으나 심령으로는 아직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과 같다고 말하면서 성령을 거스려 회개치 않는 그들의 완악함을 지적하였다(렘 9:26).
- (4) 둘째, 스테반은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라고 폭로하였다.
- (5) 즉 메시아의 도래(到來)를 예언하였던 선지자들을 살해한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는 그 예언에 응하여 오신 메시아마저 죽였으므로 너희는 살인자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스테반은 율법을 자랑하는 그들의 위선적이고 가증된 점을 지적하였다.
- (6) 셋째, 스테반은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즉 유대인들이 천사의 증보를 통하여 부여된 율법(참조, 갈 3:19; 히 2:2) 자신들의 행동 규범을 삼으려고는 했으나 율법의 진정한 정신 곧 죄를 깨닫게 하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려는 정신은 살리지 못한 반율법주의자(反律法主義者) 들임을 책망한 후 자신의 설교를 마무리했다(참조, 대하 36:16; 사 30:9; 호 4:6; 암 2:4; 막 7:9).

- (7) 이와 같이 스테반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지속적인 진술을 통해 죄와 반역을 거듭하는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열거하였다.
- (8) 한편 스테반의 설교에 대하여 처음에는 상당한 관심을 가졌던 공회원들이 스테반의 설교가 그들의 죄악에 대한 지적과 책망으로 바뀌자 마침내 그들은 살기와 분노로 가득 차게 되었다(참조, 시 35:16; 애 2:16).
- (9) 결국 스테반의 메시지가 담고 있는 목적은 율법과 성전에 대해 지나간 세월로부터 누적되어져 온 형식적이고 현세적인 심리를 탄핵(彈劾)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 곧 회개의 길을 제공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
- (10) 설교자들의 중심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벗어나서는 안 될 것이며 더우기 청중들의 반응과 기호(嗜好)에 맞추려는 태도를 지양(止揚)하고 어떤 여건과 환경에 처하든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해야 할 것이다(참조, 갈 6:14).

51. **㉠** 스테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을 설명하라 (54-60절).

- ㉠** (1) 첫째, 그들은 스테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찢렸다. 여기서 ‘마음이 찢렸다’는 뜻은 ‘크게 노하여 감정이 격해졌다’는 말이다.
- (2) 둘째, 그들은 스테반을 향하여 이를 길었다. 이 말의 의미는 분노와 살기가 등등(騰騰)하였다는 것이다.
- (3) 셋째, 그들은 큰소리를 질렀다. 이는 스테반이 충고하는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기 위해서였다. 이와 같이 비진리의 타성(惰性)에 젖은 자들은 진리의 음성을 거부한다.
- (4) 넷째, 그들은 귀를 막았다. 이렇게 합은 자신들의 소요가 시끄러워서 귀한 행동이 아니라 스테반의 설교가 그들의 양심을 찢렸기 때문이다.
- (5) 다섯째, 그들은 일심(一心)으로 스테반에게 달려들었다. 잠언 기자(記者)의 기록처럼 악한 자들의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르다’(잠 1:16).
- (6) 여섯째, 그들은 스테반을 성밖에 내치고 돌로 쳤다. 끝내 그들은 분노를 자제하지 못하고 격분하여 천하보다 귀한 생명에 손을 대어 죽였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는’(잠 4:16) 자(者)들이었다.
- (7) 이와 같이 영적으로 무지할 뿐 아니라 그 심령이 완악한 자들은 진리의 말씀이 주어지더라도 회개치 아니할 뿐 아니라 더우기 그 무지를 숨기기 위해 악을 자행한다.
- (8) 십자가 앞에 나와 자신이 죄인임을 솔직히 고백하고 자신의 지난 생활을 회개하는 겸손한 심령만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받을 것이며 영생(永生)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참조, 눅 13:3; 롬 2:5; 고후 7:10; 벧후 3:9; 계 2:16).

52. **㉠**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으로 묘사되어진 의미는 무엇인가? (55절)

- ㉠** (1) 죄를 위해 희생 제물을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사역은 십자가상에서 완수되었다.
- (2) 그러므로 그는 때때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으로 묘사되어진다(참조, 히 1:3).
- (3) 그러나 그의 백성을 돌보시는 그리스도의 사역 곧 스테반을 돌보시는 것처럼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사역은 계속되어진다.
- (4) 이런 의미에서 그는 그의 교회를 다스리기 위하여 ‘서 계신 것’으로 묘사되어졌다(참조, 계 2:1).
- (5) 여기서 성도들은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失足)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되지 아니하시리로다’(시 121:3)는 말씀을 기억하게 되며 그런고로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감사하게 된다(참조, 시 28:7; 40:17; 사 41:10; 히 13:6).

53. **㉠** 스테반을 성밖에 내치고 돌로 친 까닭은 무엇인가? (58절)

- Ⓐ (1) 당시 유대 지역에서 사람을 죽일 때에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서 사형하는 법이 있었다(레 24:14).
- (2) 그래서 예수께서도 나사렛에서 동리(洞里) 밖으로 쫓기신 일이 있었고(눅 4:29), 예루살렘 성밖으로 나가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막 15:22; 히 13:12).
- (3) 이러한 법은 유대인의 사형법 가운데 하나인데 여호와와 이름을 체방하고 저주한 자를 성밖으로 끌어내어 첫째, 증인이 먼저 돌을 던져 범죄자에게 치명적인 부상을 입히며 둘째, 증인에 이어 그곳에 모인 자들이 다같이 형식적으로나마 돌을 던져 돌 무덤을 만들어 처단하는 방법이였다(레 24:11, 14).
- (4) 한편 본절에는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사울이 그들의 행위를 변호해 줄 만한 인물임을 암시한다.
- (5) 스테반도 이와 같은 신성 모독이란 죄명 아래 성밖으로 끌려 나가 참혹한 방법에 의해 처형되었다.

54. ㉠ 입회인(立會人)으로 등장하여 스테반의 순교를 목격한 사울의 초기 생애에 대해 설명하라(58절).

- Ⓐ (1) 사울은 길리加的 다소(9:11; 21:39)에서 태어났으며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소유(16:37; 22:28) 하였고 가말리엘의 문하(門下)에서 자랐다(22:3; 26:4).
- (2) 또한 그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으로서(고후 11:22; 빌 3:5) 베냐민 지파에 속한(빌 3:5) 바리새인이었다(23:6; 26:5; 갈 1:14).
- (3) 이와 같이 청년 사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빌 3:5)였으며 학식과 사회적 특권을 확보한 자였으나 율법의 근본 정신과 메시아이신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깨달음이 없는 자였다.
- (4) 그래서 사울은 교회를 잔멸(殘滅)하는 데 앞장섰으며(8:3)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동등하여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의 성도들을 추적해서 잡을 공문(公文)을 청해서 받아(9:1) 교회를 핍박하였던 것이다.
- (5) 결국 기독교인들을 잔멸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를 만나 사울(히브리식 이름, ‘구했다’)에서 바울(로마식 이름, ‘작은’)로 개명(改名)하고(9:11; 13:9), 십자가의 전도자로 변화되기 전까지 청년 사울은 유대 사회에서는 인정받을 만한 인물이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이었다.

55. ㉠ 스테반이 순교하는 모습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훈의 말씀을 정리해보자(54-60절).

- Ⓐ (1) 거짓 증인들과 공회원들 앞에서 긴 메시지를 전달한 스테반은 격분한 유대인들과는 대조적으로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 위로와 평안을 얻었다.
- (2) 또한 스테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눅 23:46)라고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간구를 하였으며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눅 23:34)라는 기도를 통해 가해자(加害者)들의 사유(赦宥)를 빌었다(참조, 마 6:14; 눅 11:4; 고후 2:10).
- (3) 그리고 스테반은 이 말을 끝맺고 평온히 순교하였는데 본문에서는 ‘자니라’라고 표현되어 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육체적 죽음이 엄습하였다’는 뜻이다. 성도들에게 죽음은 잠에 불과하다. 그것은 일생 동안의 슬픔과 수고로부터의 휴식이다. 아울러 성도에게 있어 죽음은 부활을 전제하므로 그것은 파멸이 아니라 오히려 영생의 시작이다(참조, 요 11:11; 고전 15:18; 살전 4:13, 15).
- (4) 이와 같이 스테반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주(主)의 영광과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

- (마 6:33) 죽기까지 충성하였으며(계 2:10) 그러므로 그는 죽음의 자리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靈)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벧전 4:14)는 위로의 말씀을 경험하였다.
- (5) 결국 이러한 스테반의 순교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赤身)이나 위험이나 칼이라'(롬 8:35)라는 말씀을 확증한 것이다.
- (6)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할 것이다(참조, 20:24; 요 17:4).

화보자료

순교당하는 스테반과 목격자 사울. 스테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 돌로 쳐죽임을 당하고 있는 장면이다. 구석에 앉아 이 장면을 지켜 보고 있는 자가 사울이다(58절). 바티칸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그림으로서 11세기경의 것이다.



스테반이 순교당할 때만 하여도 사울은 그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 극렬한 유대주의자였다(참조, 22:20).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사울도 자신의 도구로 들어 쓰셨으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 바울은 오히려 못 사람들에게 예수를 위하여 순교당한 스테반에 대하여 증거하기에 이르렀다(22장). 그러기에 스테반의 순교는 간접적이거나 사울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사울은 스테반의 순교를 더욱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만든 인물이라 할 수 있겠다. 이 같은 상호 관련성에 있어서조차 우리는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주관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다.

제 8 장 유대의 경계를 넘어 이방으로 복음 전파가 시작되다

단락구분 1-3 사울의 예루살렘 교회 핍박 / 4-13 사마리아 지방에서 전도하는 빌립 / 14-25 빌립의 전도를 돕는 베드로와 요한 / 26-40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개종하여 세례를 받다

1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2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3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4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5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6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좃더라

7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앉은뱅이가 나오니

8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9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차창 큰 자라 하니

10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칭송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대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11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칭송하더니

12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13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14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15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받기를 기도하니

16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17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18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19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20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21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 될 것도 없느니라

22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23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24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25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26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27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교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28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29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30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노

31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32 읽는 성경 귀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33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34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물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킵이뇨 자기를 가리킵이뇨 타인을 가리킵이뇨

35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36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37 (없음)

38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39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40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1. **㉠ 본장의 개요를 간략히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2) 성도(聖都)인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어 그리스도인들은 사방 각처에 흩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 사역을 중단하지 않으시고 그 구속의 영역을 더욱 넓혀 나가셨다.
 (3) 그리하여 동족에게 버림을 받은 사마리아와 남방의 에티오피아에까지 복음은 전파될 수 있었다.
 (4)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당신의 목적을 위해 끊임없이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을 통하여 어떤 역경과 시련에 처해 있더라도 성도들이 견지(堅持)해야 할 신앙의 태도가 어떤 것인가 깨닫게 된다.
 (5) 결국 우리는 본장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환난과 역경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여 안락한 삶을 누릴 때 복음의 참뜻을 이해하기는커녕 오히려 복음에 대하여 적대적 태도를 갖게 됨을 교회를 통하여 알 수 있기 때문이다.

2. **㉠ 스테반의 순교는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1절)**

- ㉠** (1)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초대 교회 7 집사 중의 한 명인 스테반의 순교는 예루살렘 교회에 더 극심한 핍박의 불을 점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2) 그래서 이 사건은 사도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물론 이 사건이 있기 전에 핍박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 초대 교회가 성장하려는 시점에서 핵심적 인물인 스테반의 순교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실망과 좌절을, 핍박자들에게는 용기를 주는 결정적인 사건이 된 것이었다.
 (4)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려는 단계에 도달하면 사단은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에 시련을 주어 그 성장을 막으려고 발버둥을 친다(참조, 살전3:5; 벰전5:8, 9).
 (5)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험이 닥치게 되면 그것을 괴로워하거나 그 시련에 굴복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그것을 통하여 영적으로 더 성장하려는 진취적 신앙을 가져야 한다(참조, 약1:2-4).

3. **㉠ 스테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울의 태도는 어떻게 변하였는가? (3절)**

- ㉠** (1) 사울은 스테반을 죽이고 더욱 의기 양양(意氣揚揚)하여 각 집에 들어가 남녀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내어 옥에 넘겨 주었다.
 (2) 이때까지도 사울은 율법에 엄매어 있었으므로 그의 행위가 하나님을 위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여겼다(벰2:5, 6).

- (3) 사울의 이런 박해는 비록 그리스도에게 대적하는 행위였으나 자신이 갖고 있는 신념에 대하여 굴복치 않고 추진해 나가는 태도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것이다.
- (4) 결국 사울의 이런 삶의 태도가 복음에 대하여 자신감을 갖고 이방을 위해 투신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였다(롬 1:14-16).
- (5) 사도 바울의 이런 면에 반하여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의 신앙에 대하여 너무나 자신이 없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받은 사실을 부끄러워하는 어리석음과 연약한 모습을 너무 많이 나타내고 있다.

4. **㉠** 핍박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흠어진 성도들은 어떤 일을 하였는가? (4절)

- ㉠** (1) 비록 핍박을 피하여 흠어진 자들이었으나 그 성도들은 자신들이 처한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였다.
- (2)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핍박을 피해 흠어졌으나 결코 두려움이 없었다.
- (3) 왜냐하면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강권하므로(고후 5:14) 언제 어디서나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참조, 딤후 4:2).
- (4) 오늘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우리들은 과연 초대 교회의 성도들같이 구속의 기쁨과 복음에 대한 불타는 열정을 갖고 있는가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5. **㉠** 빌립의 전도와 그 결과 나타난 현상은 어떤 것이었는가? (5-8절)

- ㉠** (1)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파하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였는데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으며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
- (2) 본절에 등장하는 빌립은 예수의 제자가 아닌 초대 교회 7 집사 중의 한 명인 빌립 집사이다(6:4).
- (3) 사마리아인들은 이미 메시아의 오심을 갈망하고 있었고(요 4:25), 그들 중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있었다(요 4:39, 41).
- (4) 이런 때에 빌립은 그들에게 예수는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였고 그 내용을 확신시키기 위하여 여러 이적을 행하였던 것이다.
- (5) 이 결과 복음을 받아들인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는데 그 기쁨은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르는 영원 불변의 기쁨이었다(6:8; 사 61:10; 롬 5:11; 고후 7:4).
- (6) 영원한 생명에 관계된 복음은 전하는 자나 받는 자에게 참기쁨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

6. **㉠** 사마리아에 있는 마술사 시몬에 대하여 설명하라 (9-13절).

- ㉠** (1) 그는 사마리아의 깃돈(Gitton) 출신이지만 애굽의 철학과 마술을 배워 큰 자라는 뜻의 마구스(Magus)라는 칭호를 부여받았다고 순교자 저스틴(Justin Martyr)이 기록하고 있다.
- (2) 특히 본장에는 그에 대한 사마리아인의 숭배심, 즉 시몬의 명성이 강조되어 기록되었다.
- (3) 그는 자신의 마술로 사마리아 지방에서 많은 추종자들을 얻어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the power of God which is called great)이란 칭호를 얻게 되었다.
- (4) 또한 시몬은 사마리아에서 최고의 신으로 존경받았는데 이레니우스(Irenaeus, A. D. 140-200)는 그를 가리켜 영지주의(Gnosticism, 靈知主義)의 아버지라고 하여 시몬파가 그에게서 나왔다고 하였다.
- (5) 그러나 본장에 그가 등장하는 것은 이런 배교적 내용보다 복음의 영향으로 일어난 그의 극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기 위함이었다(13절).
- (6) 그의 개종은 그를 추종하던 무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음은 물론이거니와 그들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

7. **㉠** 빌립의 전도 내용은 어떤 것이었는가? (12절)

- ㉠** (1) 본서의 저자인 누가는 본절에서 빌립의 복음적 전도의 중요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이름에 관한 내용이다.
- (2) 예수로 불리어진 이름은 죄악 세상을 구원키 위한 하나님의 통치 역사와 관련된 것으로서 특별히 그분의 인성(人性)을 강조한 것이며, 그리스도(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그분의 직분으로서 자비와 용서와 구원에 관한 명칭이다. 결국 그 전도 내용은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임을 증거한 것이다(참조, 2:12; 요14:6).
- (3) 그러므로 빌립의 전도로 인하여 남녀가 세례를 받았는데 이런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놀라운 변화와 비전되는 것이다(참조, 2:41).
- (4) 여기서 우리는 진실은 거짓을 정복하고 참복음은 아무리 강한 사단의 힘이라도 꺾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왜냐하면 복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롬 1:16).

8. **㉠** 빌립의 사마리아 지방 전도가 큰 성과를 거두자 예루살렘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가? (14절)

- ㉠** (1)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였다.
- (2) 예루살렘 교회의 이와 같은 조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고 모두가 하나라는 의미를 강하게 표출(表出)한 것이다.
- (3) 사마리아와 유대의 심각한 대립의 뿌리는 유대 왕국이 바벨론에 멸망되면서부터(B.C. 586) 시작하여 약 700년을 흐르는 동안 더욱 심화(深化)되었다.
- (4)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런 불편한 관계를 허용하지 않았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예루살렘 모교회(母教會)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하여 빌립의 전도를 돕게 하였다.
- (5) 이 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는 고별료를 위해 베드로를 보내셨던 것이다(10:1-11:18).
- (6)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이웃 사랑(참조, 마22:39)을 실천해야 한다.

9. **㉠** 사마리아에 파송된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일을 하였는가? (15, 16절)

- ㉠** (1)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으나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었으므로 베드로와 요한은 저희를 위해 성령받기를 기도하였다.
- (2) 그러나 이 말씀은 성령을 받기 전에 구원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다. 이미 그들이 입으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했을 때 구원을 받은 것이었다(참조, 롬10:10).
- (3) 그러면 본절에서 말하는 '성령받음'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것은 다양한 성령의 은사(참조, 고전12장)를 체험하지 못했음을 가리킨다.
- (4) 이런 자들의 약점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성령의 체형적 신앙이 없으므로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할 때 그 일에 대한 자신감과 추진력이 없고 특히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때 위축된다는 것이다.
- (5) 마찬가지로 현대의 그리스도인 역시 성령의 체형적 신앙을 갖지 못하면 매사에 자신감이 없고 특히 신앙적인 측면에서 발전보다는 퇴보를 하게 된다.
- (6) 따라서 신앙 생활을 영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성령의 체험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강조되어 미신적인 방향으로 흐르면 안 된다.

10. **㉠**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7절)

- ㉠** (1) 그들이 안수하자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
- (2) 두 사도를 통해 성령이 임하게 된 사건은 사마리아인들이 형식적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행하는 안수의 형식을 통해 교회가 사마

리아인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나타내는 데 있었다.

- (3) 그러나 안수라고 하는 외적 행위가 성령을 받는 데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안수는 입직이나 병 고침(마6:4,9:12,17;13:3) 등의 일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 (4) 반면에 성령을 받는 것은 개인적인 기도 중이나(2:1-4) 말씀을 들을 때(10:44)도 있었다.
- (5) 그러므로 성령을 받기 위해 아무에게나 안수를 받는 것은 큰 잘못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마6:4,6,18)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때에 성령을 주시기 때문이다.
- (6) 안수에 관하여 6 장의 ㉑ 9를 참조하라.

11. ㉑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전형(典型)인 마술사 시몬의 잘못은 무엇인가? (18, 19절)

- ㉑ (1) 그는 하나님의 종인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함으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돈으로 그 능력을 사려고 하였다.
- (2) 시몬은 마술사로서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았으나 참신이신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께서 주관하시는 영적인 세계에 대하여 무지하였다.
- (3)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의 역사(役事)도 자신과 같은 마술적 차원에서 이해할 뿐 아니라 그것을 돈으로 사려는 어리석음을 범하였다.
- (4)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이 없으므로 오늘날도 시몬과 같은 잘못을 범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 (5) 교회의 거룩한 성직(목사, 장로, 집사, 권사 등)을 수여하는 데 신앙적인 면보다 물질적 부의 척도에 의해 결정되는 현대 교회의 모습은 참된 신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 (6)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의 이와 같은 잘못을 꼬집고 시몬의 잘못된 행위를 비꼬아 교회의 직분을 돈으로 사려는 것을 시모니(simony, 성직 매매)라고 한다.

12. ㉑ 시몬의 잘못된 행위가 오늘날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것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19절)

- ㉑ (1)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려는 사람은 그 직분이 섬기는 위치이기 때문에 자신은 죽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 (2) 그러나 시몬과 같은 자들은 직분이 명예직이며 통치자로 군림하는 위치인 줄로 착각하여 신앙적인 태도를 버리고 그 위치를 차지하려고 갖은 수단을 다 쓰고 있다.
- (3) 그 뿐 아니라 일부 성직자들은 교회를 짓는대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재원 마련을 위해 장로나 집사의 장립, 권사 취임 등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 (4) 그렇지만 이런 방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 안에서 살려고 하는 신실한 성도들은 잘못을 범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충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는 일이다.

13. ㉑ 시몬의 잘못된 태도에 대한 베드로의 책망은 어떤 것이었는가? (20, 21절)

- ㉑ (1) 하나님의 선물을 물질과 비교한 시몬이 그것과 함께 망할 것이라고 하였다(20절).
- (2) 그 이유는 시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므로 생명의 도에 전혀 관계가 없고 분깃이 될 것도 없기 때문이다(21절).
- (3) 시몬에 대한 베드로의 책망은 저주적 소원(詛呪의所願)으로 성령을 돈으로 사려는 독신죄(濟神罪)로 인한 완전한 심판을 소원한 것이다(참조, 5:9; 마21:31).
- (4)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물질에 최대의 관심을 보였던 시몬은(참조, 시78:37) 영계(靈界)에 관한 상급을 받을 자격이 주어질 수 없었다.

(5) 이와 같은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섬기는 자가 아닌 군림하는 자로 성직을 원하는 자들이나 잘못된 목적으로 성직을 주는 자들(참조, Q 12)도 시몬과 같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14. Q 잘못된 생각을 책망한 베드로가 시몬에게 무엇을 권유했는가? (22, 23절)

- A (1) 그는 시몬에게 악한 것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고 하였다. 그리하면 주께서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실 것이라고 권면하였다.
- (2) 베드로는 긴박감을 가지고 주께 용서를 구하라고 말한다. 즉 주께서 용서하실 마음이 생기도록 철저히 자신의 죄를 고백하라는 말이다.
- (3) 하나님은 우리의 멸망보다 구원을 원하시기에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참조, 겔 33:11; 벰후 3:9).
- (4) 한편 베드로는 시몬이 무엇을 회개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었는데 그것은 그의 속에 들어 있는 악독과 불의를 회개하라는 것이었다.
- (5)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베드로의 책망이 결코 시몬을 파경으로 몰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에게 사로잡혀 무너진 양심에 깨우침을 주기 위한 목적이 더 강하였다는 것이다.
- (6) 오늘날도 우리는 여러 측면에서 많은 충고를 받는다. 그렇지만 우리의 양심도 시몬 이상으로 무너져 있기 때문에 충고를 깨닫지 못하거나 강력히 거부하는 모습을 자주 발견하게 된다.
- (7) 그러나 그 충고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을 수 있다(참조, 삼상 7:3; 사 55:7; 겔 18:31; 마 5:4; 눅 15:7, 10).

15. Q 베드로의 책망을 받은 마술사 시몬의 태도는 어떻게 변화였는가? (24절)

- A (1) 그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면서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라고 하였다.
- (2) 즉 이 귀절은 베드로가 그에게 회개할 것을 깨우쳐 주었으나 시몬은 자신이 회개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증재를 요청했음을 보여 준다(참조, 출 8:8, 28; 9:27, 28; 10:16, 17).
- (3) 시몬은 회개보다는 베드로의 저주로부터만 피하려는 데 최대의 관심을 보였던 것이다.
- (4) 그는 주를 믿었다(참조, Q 6). 그러나 아직도 마술을 행하던 요소들이 남아 요술적 심리 요법으로 마음의 안정을 얻고자 하였다.
- (5) 아직 그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리지 못하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기도만 의지하려 한 것이다.
- (6) 이제 우리는 주의 말씀과 같이 물과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서(요 3:5)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롬 8:15) 그분께 우리의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이다.

16. Q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베드로와 요한의 귀환 과정은 어떠했는가? (25절)

- A (1) 그들은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과 함께 복음 전도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 지방의 여러 촌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다.
- (2) 그들의 최초 목표는 사마리아 성이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그분의 강권하심에 따라(고후 5:14) 사마리아 성 인근에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 (3)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산골짜기에 사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의 한 영혼 모두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 (4) 따라서 복음 전도자는 아골 골짜기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곳일지라도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찾아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참조, 롬 1:15; 고전 9:16).

17. Q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어떤 명령을 하였는가? (26절)

- A (1) 주의 사자는 그에게 일어나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고 하였는데 그 길은 광야였다.

- (2) 이 귀절 속에서 우리는 빌립이 어느 곳에서 주의 사자로부터 명령을 받았는지 알 수 없다.
- (3) 그 이유는 누가가 본장을 기록하면서 지형적 위치보다는 그 뒤에 있을 사건(내시의 개종)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 (4) 한편 광야는 구약 성경의 헬라어 역인 70인역(LXX)에서 본절과 같이 <에레모스>로 번역되었는데 이는 주로 '유대 광야'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본절에서 말하는 광야는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 곳으로 주의 사자가 그에게 명한 목적지이다.

18. ㉠ 빌립이 명령을 수행하는 도중에 누구를 만났는가? (27절)

- ㉠ (1) 도상(道上)에서 빌립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에디오피아인을 만났다.
- (2)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였다.
- (3) 성경에서 말하는 에디오피아는 현대의 에디오피아가 아닌 북 수단과 애굽의 최남단인 누비아(Nubia)를 가리킨다. 더 명확히 말하면 애굽의 남쪽(삿1:10)이며, 또한 수에네(Syene)의 남쪽에 위치해 있다(겔29:10).
- (4) 한편 빌립이 만난 내시는 먼 지역까지 자유롭게 여행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무역이나 재정을 담당한 관리로 추측된다.
- (5) 한편 율법에서는 내시와 같이 신체적으로 신랑이 상한 자나 신(腎)을 베인 자는 여호와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것이 금지되었으나(참조, 신23:1) 사56:3-5에 보면 그런 율법이 폐기되고 용납하신다고 기록되어 있다.
- (6) 그러나 에디오피아 내시는 신명기에 언급된 것과 같은 상태는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내시(헬, 유누코스)는 70인역(LXX)에 자주 나타나는데 '군사적, 정치적 고관'을 가리킬 때는 거세(去勢)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19. ㉠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는 어떤 사람인가? (27절)

- ㉠ (1) 간다게(Candace)는 특정 인물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애굽 왕을 일컬어 바로(Pharaoh)라 칭하는 것과 같이 에디오피아의 여왕을 가리키는 공용어이다.
- (2) 에디오피아의 수도는 메로에(Meroe)인데 고전 학자들은 B. C.1세기 및 A. D.1세기에 메로에에서 간다게라는 칭호를 갖고 통치한 몇몇 여왕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 (3) 한편 본절에 언급된 간다게는 A. D. 25-41년경에 통치했던 아만티테레(Amantitere)로 추측된다.

20. ㉠ 내시가 예루살렘에서의 예배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읽었던 말씀은 어느 부분이었는가? (28, 32, 33절)

- ㉠ (1) 그는 병거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 (2) 그런데 이사야의 글 중에도 특히 메시아 예언에 관한 사53:7,8의 부분이였다.
- (3)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었기에 그 당시 유대인이 아니면 좀처럼 구하기 힘든 이사야 예언서 사본을 구해 읽었다.
- (4) 그의 이런 열심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결국 그는 이방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다.
- (5) 하나님께서는 물론 당신의 섭리 가운데 백성을 택하시지만 택함 받은 자들 중에 에디오피아의 내시와 같이 열심을 갖고 신앙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자들을 특별히 사랑하심을 알 수 있다.

21. ㉠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내시를 위해 성령께서는 빌립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29, 30절)

- ㉠ (1) 성령께서는 빌립에게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하셨다.

- (2) 그래서 빌립은 병거로 달려가서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내시에게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느냐고 물어 보았다.
- (3)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한 영혼도 소홀히 취급하지 않으신다는 것이고 둘째는, 명령을 받은 빌립의 적극적인 순종의 모습이다.
- (4) 따라서 우리는 먼저 믿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그 사랑을 실천할 때 빌립과 같은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 (5) 이와 같은 일은 사도 바울에게서도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삼으셨을 때(9:15) 그는 즉시 복음을 들고 나가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 (6)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당신의 일을 위해 헌신하기를 원하신다.

22. **㉠**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시의 태도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31절)

- ㉠** (1) 복음에 대한 열심은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와 위치를 초월한다는 점이다.
- (2) 간다게의 내시는 국가의 경제를 거머쥔 큰 세력을 가진 자였고 빌립은 외형도 볼품 없는 일개 전도자에 지나지 않았다.
- (3) 그러나 내시는 그런 외적인 면에 개의치 않고 빌립을 병거에 올려 말씀의 진의를 배우고자 하였다.
- (4)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겸손하고 진지한 태도를 갖고 열심히 말씀을 배우려는 자에게 말씀의 진리를 깨닫도록 기회를 열어 주신다.
- (5)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해주고 옳은 길로 인도하지만(시119:9, 105)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신다는 데 있다(벧전1:23).
- (6) 현대에는 다양한 형태의 성경 공부 모임이 있는데 어떤 형태, 장소이든 내시와 같은 열심과 갈급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23. **㉠** 내시가 읽고 있던 성경 구절은 어떤 말씀이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 (32-35절)

- ㉠** (1) 당시의 관습대로 내시가 큰소리로 읽던 성경은 이사야 53:7, 8 부분이었다.
- (2) 이 부분의 말씀에 대하여 한때는 이사야 자신에 관한 기록이라는 논쟁도 있었으나 고난 당하는 양이 메시아를 가리킨다는 것이 옳은 해석으로 인정되고 있다.
- (3)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은 신약의 여러 부분에 인용되고 있다(마8:17; 요12:38; 히9:28; 벧전2:22; 계13:8; 14:5).
- (4) 빌립은 내시에게 그 말씀이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된 말씀임을 가르쳐 주었으며 그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는 생명의 길에 들어설 수 없음도 가르쳐 주었다.
- (5) 예수는 무죄한 자였으나 공정한 재판을 받지도 못하였고 뿐만 아니라 그를 죽이기 위한 각종 모략에도 일언반구(一言半句) 변명을 하지 않고 십자가 형틀을 지셨다.
- (6) 그 결과 오늘날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고 영원한 기쁨 가운데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 (7) 빌립은 바로 이 사실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르쳤고 이 길만이 영생으로 통하는 유일한 관문임을 설명하였다.

24. **㉠** 내시가 빌립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뒤 무엇을 원했는가? (36-38절)

- ㉠** (1) 빌립의 가르침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된 내시는 빌립에게 세례받기를 원하였다.
- (2) 세례(洗禮, baptism)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써 몸을 씻는 행위이며 새 언약의 은혜와 구원을 상징하고 이를 보증하는 것이다.
- (3) 그러나 세례의 중요성은 단순히 물로 몸을 씻는다는 형식적인 측면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영적인 측면에서 더 강조되어야 한다(참조, 롬6:3-6; 고전12:13; 갈3:27, 28; 골2:11, 12)

- (4) 따라서 세례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표시하는 의식인 동시에 삼삼위 하나님과 인간과의 연합과 친교를 보증하는 예식이다(참조, 요14:16, 17, 23; 17:21-23).
- (5) 세례의 효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다. 따라서 세례를 경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은총을 해치는 것임은 물론 그분의 신실성을 인정하지 않는 모독과 같은 것이다.
- (6) 내시는 세례의 이 같은 특징과 의미를 깨달았기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세례 의식에 참여하기를 원했다.
- (7) 그렇기 때문에 개역 성경에는 빠졌으나 KJV에서 발견되듯이 37절에 '빌립이 가로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可)하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의 말씀이 첨가되어 있다.
- (8) 이 내용은 일단 신앙 고백만 하면 세례를 집행하던 초대 교회의 기독교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현대에도 세례 의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25. **㉠** 내시에게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빌립은 그와 함께 어떻게 헤어졌는가? (39절)

- ㉠** (1) 세례 의식을 마치고 두 사람이 물에서 올라오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고 내시는 혼연(欣然)히 길을 가므로 다시는 서로 만나지 못하였다.
- (2)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가사로 보내신(26절) 목적을 달성하셨기 때문에 그를 다른 선교지로 옮기셨다.
- (3) 빌립은 엘리야가 회리바람 가운데 승천한 것과 같이(왕하2:11)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내시의 앞에서 사라졌다.
- (4) 그러나 내시는 인간 빌립에게 연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한 기쁨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 (5) 내시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뒤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기쁨(갈5:22)을 소유한 것을 볼 때 성령 세례도 받았음이 분명하다.
- (6) 그리고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레니우스(Irenaeus)는 그가 고국에서 동족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전하고 있다. 결국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하여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가 진일보(進一步)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26. **㉠**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새로이 주신 전도 지역은 어디였는가? (40절)

- ㉠** (1) 그곳은 아소도에서 시작하여 가이사라까지에 이르는 지역이었다.
- (2) 아소도(Azotus)는 고대 블레셋 지역에 위치했던 아스돗의 신·구약 중간 시대 및 신약 시대의 명칭이다. 그런데 이 아스돗에 대한 신약 성경상의 언급은 유일하게 본절에만 나온다.
- (3) 그리고 아스돗은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옛 블레셋 성읍(참조, 삼상6:17)으로서 지중해 연안에서 내륙 쪽으로 약 4.8km 지점, 아스글론에서부터 북쪽으로 약 16km 지점에 위치한 성읍이다.
- (4) 한편 가이사라(Caesarea)는 예루살렘에서 104 km 떨어진 팔레스틴 해안의 도시로 로마 지배하의 로마군 주둔지이며 헤롯 1세(Herod Agrippa I, A. D. 37-44)의 근거지였다.
- (5) 신약 시대에 있어서 이 도시는 12년이라는 세월이 걸쳐 새롭게 건설되었는데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건설되었으며 그밖에도 각종 회의장, 원형 경기장 등이 세워졌다. 그리하여 네로(Nero, A. D. 54-68)의 주화에는 이 도시를 기념하는 '아우구스투스의 항구 가이사라'라는 명문(銘文)도 새겨져 있었다.
- (6) 한편 누가는 본장을 끝맺으면서 빌립의 개인적인 일이나 환경에 대하여 빈약한 설명만 하고 있는데 이는 누가의 최대 관심은 복음 전파와 그 발전에 있었기 때문이다.

제 9 장 이방 선교를 위한

새로운 일군의 선택

단락구분 1-9 다메섹 도상(道)에 나타나신 예수 / 10-16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시다 / 17-18 사울이 세례를 받다 / 19-22 사울의 전도 / 23-25 핍박받는 사울 / 26-31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다 / 32-35 베드로가 뿔다에서 중풍병자를 고치다 / 36-43 음바에서 베드로가 디비다를 살리다

1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2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무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3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연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4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5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6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7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 하고 섰더라

8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9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10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11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며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12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13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14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15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

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16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17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18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19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20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을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21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라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22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 곧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23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24 그 제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25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 내리니라

26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27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28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29 또 주 예수와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30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

서 다소로 보내니라

31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32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33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상 위에 누운 지 팔 년이라

34 베드로가 가로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대 곧 일어나니

35 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가니라

36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37 그 때에 병들어 죽으매 시체를 씻어 다락

에 누우니라

38 못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39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걸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40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41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42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43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피장의 집에서 유하니라

1. ㉠ 본장의 사건과 그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하라.

㉠ (1) 본장에는 두 명의 인물과 그들에게 관계된 사건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다.

(2) 그러나 본장에서는 사울이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개종(改宗)한 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

(3) 율법을 지키려는 열심으로 인하여 당시에 사교(邪敎)로 여겨졌던 기독교를 따르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예수를 만난 사울의 변화는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는 엄청난 사건이었다.

(4) 그것은 이미 주께서 그를 당신의 사역자로 삼기 위해 택하신 자였기 때문이다(15절).

(5) 예수의 계획은 즉시 효력을 나타내어 기진 맥진했던 사울은 기력을 회복하자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하였다.

(6) 마침내 사울은 유대인과 로마와 충돌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이방인들을 위해 일하는 사울이 계속해서 부딪히는 난관의 시작에 불과했다.

(7) 한편 본장의 후반부에서는 베드로의 사역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병든 자와 죽은 자를 살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에 도움을 주었다.

(8) 본장을 통해 우리는 유대인을 위해서는 베드로를, 이방인을 위해서는 사울을 택하신 하나님의 놀랍고 치밀한 계획을 발견하게 된다.

2. ㉡ 사울의 본격적인 박해 운동에 관하여 설명하라(1,2절).

㉡ (1)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에까지 내려가 체포하기 위해 대제사장에게 공문(公文)을 청하였다.

(2) ‘살기가 등등(騰騰)하여’는 헬라어(엠프네오)가 쓰였는데 이는 ‘호흡하다’란 의미로 ‘오직 그런 생각으로만 꺾찬 것’을 가리킨다.

(3) 우리는 이와 같은 사울의 태도에 대하여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를 통하여 배울 점을 찾아야 한다(참조, 8장 ㉢).

(4) 그는 기독교의 선교에 대하여 무지(無知)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신앙을 계승하는 것에 매우 만족하고 있었다.

(5) 사울은 메시아의 오심에 관한 이스라엘의 소망이 완전히 실현되기를 고대했으나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에만 만족하였고 그 계시된 형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

기는 일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다.

- (6) 따라서 가장 흉악한 죄인들에게만 주어지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고 그것이 초기에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며 그가 예수께 나아가는 데 방해하는 거침돌이 되었던 것이다 (참조, 고전 1:23; 갈 5:11).
- (7) 그렇지만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울의 그런 마음이 후일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후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투신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 (8) 이런 점은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으므로 밧모 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소아시아 7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는 책망을 하셨다 (계 3:14-16).

3. **㉠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 있어서 먼저 대제사장을 찾아간 이유는 무엇인가? (1, 2절)**

- ㉠** (1) 그것은 다메섹의 여러 회당으로 보낼 공문을 청(請)하기 위함이었다.
- (2) 공문(헬, 에피스토라스)은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의 명의로 작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을 뿐 아니라 법적 효력도 갖춘 서류였다.
- (3) 이는 대제사장은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이면서 로마 정부의 지지를 받았고 그래서 그가 작성한 명령서는 곧 로마 정부의 동의를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 (4) 그리고 대제사장이나 산헤드린의 명령은 팔레스틴에 거주하는 유대인과 기약 지역의 유대인에게도 동등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사울은 대제사장의 공문이 필요했던 것이다.
- (5) 한편 시대적으로 추정해 본다면 이때의 대제사장은 안나스의 아들 테오빌로(Theophilus)일 것이며 시기는 A. D. 37년경으로 볼 수 있다(Alford, Levin).

4. **㉠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기 위해 어느 도시를 택하였는가? (2절)**

- ㉠** (1) 그는 다메섹(Damascus)을 목적지로 택하였다.
- (2) 그러나 사울이 왜 다메섹을 택하였는지 특별한 이유는 알 수 없다. 단지 10, 13절을 통해 볼 때 그곳에는 매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된다.
- (3) 다메섹은 헤르몬 산 북동쪽에 삼면이 산악으로 둘러싸여 있는 해발 671m의 높은 평지에 위치해 있다.
- (4) 이 다메섹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 존속되는 도시로 아브라함 때부터 (창 14:15; 15:2) 다윗(삼하 8:6)을 거쳐 솔로몬 시대에 독립을 하였다(왕상 11:24, 25). 그 후 한때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유다에게서 조공을 받았으나(왕하 10:32; 12:17, 18; 13:3, 22, 25; 암 1:3, 4) 여로보암 2세(B. C. 793-782-754)에 의하여 점령당하였다(왕하 14:28).
- (5) 그 후로는 앗수르와 바벨론, 바사에 의하여 점령되었고 폼페이우스(Pompeius, Magnus Gnaeus B. C. 106-48) 시대부터 로마에 귀속될 때까지 수리아의 영토였다.
- (6) 다메섹에는 약 30-40개의 회당이 있었고 4만 정도의 유대인이 정착했으며 그들 가운데 많은 여자들이 개종하였다.

5. **㉠ 사울이 다메섹으로 향하던 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3-9절)**

- ㉠** (1) 대제사장의 공문을 갖고 다메섹으로 향하던 사울은 빛과 음성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마음이 뿌리 채 흔들리고 말았다.
- (2) 이제까지 사울은 예수라는 사람을 단순히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교(邪教)의 교주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진실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가 되심을 발견했던 것이다.
- (3) 사울의 이 체험은 매우 극적인 것이었으며 그것은 곧 세계 역사의 엄청난 변화를 몰고

왔다.

- (4) 이와 같은 상황을 볼 때 우리는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 (5) 아무리 흉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사울과 같은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 (6)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겉으로 판단하지 말고(삼상 16:7) 복음을 전해야 한다(롬 1:14, 15).

6. **㉠ 사울에게 나타난 빛에 대하여 설명하라 (3절).**

- ㉠** (1)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홀연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었다.
 (2) 이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었다.
 (3) 따라서 22:6에는 '큰 빛'으로 표현하고 26:13에는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본절에서 단순히 '빛'으로 설명한 것보다 더 명확히 표현하고 있다.
 (4) 그리고 이 빛은 26:13에 의하면 사울 뿐 아니라 그와 동행하던 사람들에게도 비추었다.
 (5) 찬란한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는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는 일을 했듯이 죄의 어둠에서 해매는 우리들을 밝은 생명으로 이끌어 주었다(참조, 고후 3:7-11).

7. **㉠ 예수 그리스도와 사울의 대화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4-6절)**

- ㉠** (1) 그 대화에는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이 잘 나타나 있다. 즉 그 안에서 우리는 죄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다.
 (2)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부르시는 예수의 음성은 자신을 핍박하는 자에 대하여 분노하므로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너무 사랑하시므로 그 영혼을 위해 부르시는 간절한 외침이다.
 (3) 이와 비슷한 하나님의 모습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창 22:11)와 사무엘을 부르실 때(삼상 3:10) 그리고 예루살렘과 시몬에 대하여 부르실 때(마 23:37; 눅 22:31) 발견할 수 있다.
 (4) 이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주께서는 사울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위한 계획을 준비하셨던 것이다(6절).

8. **㉠ 하늘로부터 온 빛으로 인하여 사울은 어떻게 되었는가? (8, 9절)**

- ㉠** (1)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간 후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였다.
 (2) 이 사건은 사울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게 하였다.
 (3) 개선 장군과 같이 다메섹으로 들어가려던 오만 방자한 한 인간이 완전히 부서지고 낮아져서 겸손을 알게 되었다.
 (4) 사울은 사흘 동안 소경의 상태로 지내면서 식음을 전폐하였는데, 이때를 그는 요나(마 12:40)와 같이 자발적인 자기 비하(自己卑下)의 기간으로 삼았고 죄 사함의 은혜를 받기 위한 준비의 기간으로 삼았던 것이다(참조, 딤후 1:12-16).
 (5) 이 기간에 사울은 그리스도를 만났고(고전 15:8) 그 결과 영적 소경이었던 그의 영의 눈이 열렸고, 영적 병어리었던 입이 열리게 되어 자신과 같이 무지한 자들에게 힘있는 전도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6) 그러므로 사울과 같은 신앙 체험이 있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그러나 전적으로 그런 체험만 원하는 자들은 오히려 사단의 노리개감으로 전락하거나 사단의 영(참조, 요일 2:26; 3:7; 4:6)에게 미혹되어 그의 종이 될 수도 있으니 매우 조심해야 한다.

9. **㉠ 다메섹에 있는 주의 제자는 누구인가? (10절)**

- ㉠** (1) 그의 이름은 아나니아이다.

- (2) 아나니아는 히브리어 <하나냐>의 헬라이어 음역으로 ‘여호와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었다.
- (3)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때 특별히 아나니아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그는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자’ 라고 하였다(참조, 22:12).
- (4) 그렇지만 그는 고넬료를 위한 베드로(10장)나 내시를 위한 빌립(8장) 과 같이 사울의 사역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었다.
- (5) 그는 주의 명령을 들었을 때 사울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으므로 두려움이 앞섰으나 그 명령에 순종하였다.
- (6)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먼저 어려움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참조, 롬 8:35-39).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적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자신을 극복하지 못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10. ㉠ 주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가? (11,12절)

- ㉠ (1) 주께서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을 찾아가 기도하는 사울을 만나라고 하셨다. 그리고 이미 그에게 환상 중에 아나니아가 찾아갈 것이라고 지시하셨음을 알려 주셨다.
- (2) 예수는 사울을 쓰시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한다. 그리하여 사울과 아나니아에게 모두 환상을 보여 주심으로 두 사람의 만남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주셨다.
- (3) 두 사람에게에는 유사한 두려움이 있었다. 사울에게는 그리스도를 만난 뒤 신체적 결합 때문에 생긴 제삼자들에 대한 두려움이고, 아나니아는 소문으로 들은 사울의 강포함 때문에 생긴 두려움이었다.
- (4) 그래서 예수는 친히 그들 사이에 환상을 통하여 연결점을 만드시는 치밀함을 가지고 계셨다.
- (5) 한편 직가(直街, Straight Street)는 다메섹의 거리 이름으로 현재는 다르발 무스타킴(Darbal Mustaqim)이라는 이름이다.

11. ㉠ 사울의 고향(故郷)은 어디인가? (11절)

- ㉠ (1) 그의 고향은 다소(Tarsus)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지도를 참조하라.



- (2) 그 성읍은 소아시아의 동남쪽 지중해 동부 해안에 위치한 길리기아(Gilicia) 도에 속해 있다(11:25;21:39;22:3).
- (3) 이 성읍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6,000년 동안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 동안 많은 역경이 있었으나 특히 바사인들의 횡포가 극심했던 B. C. 33년의 헬레니즘 시대에는 알렉산더에 의해 구원을 받기도 했다.
- (4) 또한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에는 길리기아 지방의 중심지가 되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 (5) 따라서 사울은 자연스럽게 로마와 헬라의 영향을 받아 유대교의 사상적 기초 위에 최고의 학문을 쌓을 수가 있었다.

12. ㉠ 아나니아의 선입견과 그리스도의 계획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13-15절)

- ㉠ (1) 아나니아는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실과 다메섹으로 내려오려던 이 유로 인하여 두려움이 있었다.
- (2) 그러나 그리스도는 먼 후일을 생각하여 이미 사울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할 당신의 그릇으로 택하셨던 것이다.
- (3)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짧은 생각과 하나님의 깊은 뜻 간의 엄청난 격차를 발견하게 된다.
- (4) 이런 현상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든 일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또한 선입견을 갖고 사람이나 사물을 보므로 인하여 진실이 왜곡(歪曲)되는 경우들이 많다.
- (5) 그러므로 우리들도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아집과 편견은 버려야 한다. 그 래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의 삶을 살 수 있고 또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 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13. ㉠ 예수께서는 사울의 생애가 어떠하리라고 하셨는가? (16절)

- ㉠ (1) 예수께서는 사울이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해를 받아야 되리라고 하셨다.
- (2) 과연 사울은 예수의 말씀과 같이 술한 고난 속에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였다 (참조, 고후 11:23-27). 그러나 그리스도를 메시야로 영접한 사울은 그 고난이 도리어 즐거움의 요소로 변했다.
- (3)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그를 위해 준비된 생명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이다(참조, 딤후 4:8). 그 면류관은 과거의 신앙인 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을 위해서도 예비되어 있다.

14. ㉠ 예수의 그릇으로 택함 받은 사울은 어떻게 해서 일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되었는가? (17-19절)

- ㉠ (1) 아나니아를 통하여 안수를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다. 그 래서 그는 세례를 받고 음식을 섭취하여 강건해졌다.
- (2) 사울에게 안수하는 아나니아는 죄 사함으로 인한 성령 충만에 대하여 언급하는 일을 먼저 하였다.
- (3) 안수는 특별한 은사를 전달하는 방편으로 사용되었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완 전히 개종한 사울에게도 세례를 베풀기 전까지 성령 충만은 없었다.
- (4) 한편 그의 눈에는 비늘(헬, 레피데스) 같은 것이 벗어지고 다시 보게 된 것은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었다는 것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를 위한 일에 헌신할 수 있었다.

15. ㉠ 변화된 사울의 모습은 어떠한가? (19-22절)

- ㉠ (1) 사울은 눈이 떠지고 건강을 회복한 즉시 각 회당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 파하였다.
- (2) 그리스도를 영접한 뒤 사울의 태도는 완전히 변하여 자신이 이제까지 핍박하던 예수를

유대인들에게 전하면서 그들을 굴복시켰다.

- (3)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울은 세례를 받고 아라비아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었다(참조, 갈 1:16, 17).
- (4) 그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의 강한 책임 의식을 가졌다(참조, 롬 1:14).
- (5) 이런 일에 있어서 사울의 성격적인 면도 크게 작용을 했겠지만 진리에 대한 그의 명확한 태도가 많이 작용하였다. 마찬가지로 현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의 개안(開眼)과 진리를 위해서라면 정치, 경제, 사회적 어떤 압박도 초월하여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한다.

16. ㉠ 진리의 편에서 일하게 된 사울에게 부딪힌 어려움은 무엇인가? (23, 24 절)

- ㉠ (1) 다메섹에서 여러 날이 지나자 유대인들은 서로 공모(共謀)하여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다.
- (2) 여기서 '여러 날'이란 사울이 개종하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기까지의 기간(갈 1:17)을 가리킨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기간을 3년으로 본다(Alford, Meyer).
- (3) 사울의 변화가 주위 사람들에게 잠시 당혹감을 주었으나 그것이 유대교에 대한 정면 도전이 되었기에 유대인들의 압박이 구체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 (4) 이 모의는 고후 11:32에 근거하여 볼 때 유대인들이 다메섹의 왕과 힘을 합하였음을 알 수 있다.
- (5) 한 가정에서도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있을 때 초기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그의 신앙이 점점 깊어지다 보면 먼 사람으로부터 가까이 있는 자들까지 그를 핍박하게 된다.
- (6) 그러나 성도들에게 이런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온실 속에서 자란 식물은 환경 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쉽게 죽듯이 신앙적으로도 이와 같은 훈련의 과정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도 온실 속에서 자란 식물과 같이 나약해지기 때문이다.
- (7) 사울이 당한 바와 같은 고난은 후일에 그가 들에, 태장에, 바다의 위험에 그리고 옥에 갇히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도(참조, 고후 11:23 - 27) 의연히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17. ㉠ 사울의 초기 사역에 있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무엇인가? (26절)

- ㉠ (1)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피신한 후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사귀려고 했으나 그들이 개종한 사울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여 가까이 사귀려고 하지 않았다.
- (2) 사울이 의기 양양하게 다메섹으로 내려간 것이 3년 전이었으나 예루살렘의 제자들은 다메섹으로 내려가기 전에 있었던 그의 행동을 기억하고 그의 개종을 믿지 못했다.
- (3) 사울은 예루살렘의 제자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앞으로 자신이 이루어 나가야 할 사역의 동역자들을 얻고자 했다.
- (4) 그러나 그것은 실패하였고 오히려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흉악한 일을 행하였는지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 긴 시간 동안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참조, 갈 2:1) 그것이 하나님의 큰 그릇으로 쓰임 받는 계기가 되었다.
- (5) 세상에서 악한 일을 행하다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의 고충이 얼마나 큰지 사울의 개종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 먼저 믿는 자들은 선입견을 버리고 그런 자들을 포용할 수 있는 참사랑이 필요하다.

18. ㉠ 누가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에게 사울을 변론해 주었는가? (27절)

- ㉠ (1) 그는 바나바(Barnabas)였다.
- (2) 그는 본래 구브로(Cyprus) 섬 출신의 레위인으로 '요셉'이라는 본명이 있었으나 그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능력이 있었으므로 이름을 바나바로 불렀다.

- (3) 그 이름은 권위자(勸慰子, 안위의 아들)라는 뜻을 갖고 있다.
- (4)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 요한은 그의 조카였는데(골 4:10) 바나바는 관대하고 남을 용서하는 성격이 있어서 그의 잘못을 용서하고 전도 여행에 다시 동참시키자고 하였는데 바울과 의견이 일치되지 못하여 헤어지고 말았다(15:36-41).
- (5) 그러나 초기에 그는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였고 사울과의 협동 목회는 교회의 성장을 가져와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하였다(11:26).
- (6) 바나바는 초대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분명 위대한 사람들 중의 한 명이었다. 그는 관대함과 타인의 영적 능력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고 정중한 인격을 갖춘 자였다.

19. ㉠ 예루살렘에서 사울은 어떤 대우를 받았는가? (28-30절)

- ㉠ (1) 사울이 예루살렘에서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하므로 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힘썼다. 그래서 사울은 가이사랴를 거쳐 고향인 다소로 내려갔다.
- (2) 즉 바나바가 사울을 변론한 것이 효과가 있어 15일간 예루살렘에 출입하였으나(갈1:18)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변론을 하다가 위협에 처하여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다.
- (3) 그러나 그가 예루살렘을 떠난 것은 그의 생명만을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 즉 예수께서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택한 자였기 때문에(15절) 사울에게 그들을 떠나라고 하셨다(22:17-21).
- (4) 한편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 변론을 좋아하는 자들이었으며 여러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었다(6:1, 9).
- (5) 그러나 헬라 문화의 중심지에서 자란 사울의 학문과 변론은 그들이 이길 수 없어서 그를 죽이려고 계획하였다.
- (6) 결국 신변의 위협을 느낀 사울은 예수의 인도를 받아 가이사랴를 거쳐 다소로 갔다.

20. ㉠ 본장에 나타난 사울의 여행에 대해 설명하라 (1-30절).

- ㉠ (1) 본장에 나타난 사울의 이동 상황을 지도로 보면 아래와 같다.



- (2) 다소 사람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 다메섹으로 향하던 중 그리스도를 만나 다메섹에서 세례를 받았다.
- (3) 그 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나 그곳에서 핍박이 있었고 주의 지시도 있었기에 가이사라를 거쳐 다소로 옮겨 갔다.

21. ㉠ 팔레스틴 지역의 교회는 어떻게 되었는가? (31절)

- ㉠ (1)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 (2) 바벨론 포로 이후 전통적으로 분리되었던 팔레스틴의 세 지역의 교회가 모두 평안하고 부흥하였다.
- (3) 누가는 본절에서 ‘교회’라는 단어를 <에클레시아>란 단수형으로 사용했는데 이는 세 지역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흠어진 것뿐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 (4) 이때에 로마의 황제 칼리굴라(Caligula, A. D. 37-41)는 자신을 신성시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의 동상을 세우도록 하였는데 이에 대해 유대인들이 극렬히 반대하였다.
- (5) 이 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심한 핍박을 받았으나 칼리굴라가 41년 1월 24일에 살해되므로 그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유대인에 대한 핍박도 감소되었다.
- (6) 따라서 본절에 언급한 바와 같이 초대 교회는 오랫동안 평안을 맞보고 이상적인 상태에서 성장을 할 수 있었다.
- (7) 이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의 외적, 내적인 힘의 증가가 있었다.
- (8) 초대 교회의 이런 모습은 현대 교회에 많은 교훈을 준다. 오늘날 교회는 외형적 성장에만 치중하여 영적인 면은 소홀히 다루고 물질적인 면에 관심을 보이므로 교회로서의 사명을 차츰 잃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22. ㉠ 베드로는 사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곳에 도착했는가? (32절)

- ㉠ (1) 그는 사방으로 두루 행하다가 룻다에 도착하였다.
- (2) 룻다(Lydda)는 룻에 대한 헬라식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읍바로 가는 방향으로 하룻길인 지중해 연안의 마을이다.
- (3) ‘사방으로 두루 행하였다’는 것은 헬라어로 <디에르코메네 디아 판톤>인데 이는 성도들을 돌아보기 위해 여러 곳을 방문했다는 의미이다.
- (4) 한편 본절에서 언급한 사건은 사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전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전반부에 나타난 누가의 기록 방법은 몇 가지 역사를 함께 취급하고 각각의 일을 고찰하기 때문이다.
- (5) 그리고 베드로가 교회를 방문한 여행은 박해로 인해 3년간 연기된 것이기 때문이다.

23. ㉠ 룻다에서 행한 베드로의 이적은 무엇인가? (33-35절)

- ㉠ (1) 그는 중풍병으로 8년간 병상에서 신음하는 애니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해주었는데 그 일로 인하여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 (2) 8:25 이후 베드로의 행적을 알 수 없었는데 본절에서 그는 흠어진 교회를 돌아본 뒤 다시 룻다에 나타났다.
- (3) 이곳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쳐 주었는데 이 사건을 통하여 인간을 괴롭히는 모든 세력은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 주었다.
- (4) 이와 같은 사건 속에서 우리는 육신의 질병 뿐 아니라 영혼의 질병까지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을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된다.
- (5) 이런 일은 영혼의 의사되신 예수께 우리의 죄를 먼저 고백함으로 일어나며 그 결과 우리는 어떤 징벌도 받지 않고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된다(참조, 롬8:1).

24. ㉠ 베드로가 룻다를 떠나 옮겨 간 곳은 어디인가?(36-39절)

- ㉠ (1) 그는 룻다를 떠나 읍바로 옮겨 갔다.
 (2) 읍바는 '아름답다'는 뜻을 가진 지중해 연안의 도시로 예루살렘 서북쪽 약 55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3) 이곳은 바위로 된 갑(岬)이 바다로 돌출하여 약 43m의 높이로 형성되었으므로 군사적으로 유리한 지역이었으며 또한 이곳은 상업적인 요충지이기도 했다.
 (4) 읍바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B. C. 1472년 투트모스 3세(Thutmose III)의 팔레스틴 정복지 중에 포함된 것이었다.
 (5) 한편 읍바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면서 도피하던 장소(은 1:3)로 유명하다.
 (6) 신약 시대에 와서 읍바는 그리스도인들이 거주한 최초의 도시들 중 하나였는데 그 도시에서는 다비다가 가장 유명한 인물이었다.
 (7) 베드로는 이곳에서 다비다를 살려 주었고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10:1-48).

25. ㉠ 베드로가 읍바로 가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는가? (36-39절)

- ㉠ (1) 읍바에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다가 병들어 죽으므로 다른 사람들이 룻다에 두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초청하였던 것이다.
 (2) 다비다는 '작은 양'이라는 뜻으로 헬라식 이름은 도르가였다.
 (3) 룻다에서 애니아의 병을 고친 사건이 읍바에도 전달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읍바에서는 두 사람을 파송하여 그를 초청하였다(참조, 13:2; 15:22).
 (4)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주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다. 믿음을 갖고 행동할 때에 주께서 큰 역사를 이루신다(약 5:13-16). 주께서는 도움을 호소하는 자에게 당신의 사람을 통하여 응답하기도 하신다.
 (5) 그러므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신앙의 동지가 있다는 것은 매우 행복한 조건이 된다.

26. ㉠ 다비다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36, 39절)

- ㉠ (1) 그녀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아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자였다. 그녀의 숨은 선행은 그가 곤경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애도(哀悼)를 통해 증명되었다.
 (2)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구제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외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능력이 닿는 한도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참조, 마 6:1; 눅 11:41).
 (3) 그 외에도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부터 구제를 하되(눅 11:41) 반드시 사랑이 수반되어야 하며(고전 13:3) 은밀하게 양심에 거리낌없이 행해야 한다(24:16, 17; 마 6:3, 4).
 (4) 이런 구제의 대표적인 예가 본문에 나타난 도르가와 초대 교회의 성도들(2:44, 45; 4:32-37; 11:29; 롬 15:26)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10:1-6) 등이다.

27. ㉠ 베드로가 다비다를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40절)

- ㉠ (1) 그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외치자 즉시 눈을 떠 일어나 앉았다.
 (2) 베드로는 겸손하게, 주 앞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기도하면서 주의 능력을 간구하였다.
 (3) 그리고 그의 말은 단 한 마디 '다비다야 일어나라'는 것뿐이었다. 이 말은 예수께서 아이로의 딸을 일으키실 때 사용하신 말씀과 한 자(字)만 틀릴 뿐이었다.
 (4) 예수께서는 달리다굼(소녀야 일어나라, 막 5:41)이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다비다굼>이라고 말하였다.
 (5) 이 순간 베드로는 다급한 부름에 응했으나 그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었다. 그때 그

에게는 아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의 모습이 기억되어(막 5:21-24, 35-43)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었다.

- (6) 우리들도 언제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살면 위험한 경우나 곤란한 때에 그분의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

28. **㉠** 베드로가 다비다를 회생(回生) 시킨 결과 어떤 일이 있었는가? (41, 42절)

- ㉠** (1) 그가 다비다를 살림으로 욥바 사람이 많이 주를 믿었다.
- (2)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린 것은 매우 극적인 사건이었다. 그가 병자를 고친 일은 몇 번 있었으며(3:1-10; 5:12-16)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적도 있었다(5:1-11).
- (3) 그러나 이와 같이 베드로의 놀라운 사역에도 불구하고 본서의 저자인 누가는 그 이적 보다는 자신의 주된 관심사에 집중을 한다.
- (4) 즉 베드로의 이런 사역은 교회 발전을 위하여 욥바의 사람들을 당신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주의 뜻이었기 때문이다.
- (5) 따라서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말과 행동을 할 때에 그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하고 행동을 해야 한다(고전 10:31).

29. **㉠** 베드로가 욥바에서 머무르던 곳은 어디인가? (43절)

- ㉠** (1) 그는 다비다를 죽음에서 살려 낸 후 욥바의 피장(皮匠) 시몬의 집에 몇 일 더 있었다.
- (2) 피장은 죽은 짐승의 가죽을 가공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유대인들은 죽은 것을 부정하게 여겼으므로 피장은 일반 서민으로 취급받지 못했다.
- (3) 그러나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중생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시몬을 계급적 차이로 인하여 낮추어 보지 않고 자신과 동등한 위치로 보았다.
- (4) 이는 마치 예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강조하시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마 9:9-13; 눅 15:2).
- (5) 이와 같이 우리들도 사람을 외모로 보아 차별 대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하겠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그러한 자가 있다면 바울이 베드로에게 엄중하게 책망했던 것처럼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자에게 충고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참조, 갈 2:11-14).

본장의 요절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4절).

제10장 고넬료와 그 가족(家屬)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다

단락구분 1-8 고넬료가 환상을 보다 / 9-16 베드로가 환상을 보다 / 17-23a 고넬료의 사자가 옴바에 도착하다 / 23b-33 베드로를 영접하는 고넬료 / 34-43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다 / 44-48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다

1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달리아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2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3 하루는 제 구 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4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가로되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5 네가 지금 사람들을 옴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6 저는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7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8 이 일을 다 고하고 옴바로 보내니라

9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 육 시더라

10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 사몽간에

11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맏인 땅에 드리웠더라

12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13 또 소리가 있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14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삽나이까 한대

15 또 두번째 소리 있되 하나님께서 깨끗케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16 이런 일이 세 번 있을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17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

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의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18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19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20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21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22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23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옴바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24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25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어 절하니

26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27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28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29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30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 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 시 기도를 하는데 홀연히 한 사람이 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31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32 사람을 옴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

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우거 하느니라 하시기로

33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 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 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 에 있나이다

34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 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35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 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36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 내신 말씀

37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 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38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 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 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39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에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 에 달아 죽였으나

40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41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 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42 우리를 명하시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 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43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44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45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 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46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 러라

47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 을 금하리요 하고

48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할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 기를 청하니라

1. ㉠ 본장의 중요성을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초대 교회 사도들의 사역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기(轉機)가 된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 (2) 8장에 기록된 에디오피아 내시의 개종이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의 출발이라고 볼 때, 본장에 기록된 고넬료와 그가 속의 회개는 이방인을 위한 전도의 완성으로 이방 전도의 튼튼한 기반이 된 중요한 사건이다.
- (3)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동시에 환상을 보여 주심으로써 그들이 서로 만나게 되는 역사적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필연적 결과임을 깨닫게 하셨다.
- (4) 한편 베드로가 가이사라에서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어 그들을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한 본장의 사건은 바울로 하여금 이방인을 위한 사역을 시작케 하는 예비적 역할이었다.
- (5) 따라서 본장은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달되기 시작하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하며 무게 있는 장(章)임을 알 수 있다.
- (6)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본장을 통해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마 28:19)라고 분부하셨던 말씀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1:8)는 예언이 성취되어 가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2. ㉠ 고넬료의 직책과 그의 성품은 어떠한가? (1, 2절)

- ㉠ (1) 그는 이달리아 대(隊)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었고,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하는 자였다.
- (2) 이달리아 대는 가이사라에 주둔하던 다섯 군대 중 하나로 특히 이달리아 출신의 지원병으로 구성된 로마의 군대였다.
- (3) 이때의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중추(中樞)를 형성했으나 대부분 권위와 인격은 형편없

었다.

- (4) 그러나 고넬료는 예외적으로 예의가 바르고 비굴하지 않으며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신앙적 모범이 되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정복자의 태도를 버리고 그들의 가련한 처지를 동정하였다.
- (5) 한편 성경에는 그의 출신이나 성장, 환경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러나 여러 학자들은 그가 B. C. 1세기초 노예들이 많이 해방될 때 자기 주인의 이름을 가지고 로마 사회에 정착한 해방 노예의 후손으로 본다(F. Bruce).

3. **㉠** 고넬료는 언제 환상을 보았는가? (3절)

- ㉡** (1) 그는 제 9시쯤 되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말씀하시는 환상을 보았다.
- (2) 시간적으로 9시는 유대인들이 6시, 3시와 더불어 규칙적으로 기도하던 때인데 이방인인 고넬료가 그들의 관습을 따라 기도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의 마음 상태를 알게 해준다.
- (3) 한편 고넬료가 기도하던 제 9시는 현대적 시간 개념으로 오후 3시에 해당되는데 이처럼 밝은 대낮에 환상이 보여진 것은 그 현상의 진실성을 명확히 보여 주기 위함이다.
- (4)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 개념과 현대의 시간 개념을 비교하여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시대	구 분		시 간		관 련 성 귀	
구약	밤	초 경	해질 때 - 오후 10시		애 2:19	
		이 경	오후 10시 - 오전 2시		삿 7:19	
삼경(새벽)		오전 2시 - 해 뜰 때		출 14:24		
약	낮	아 침	해 뜰 때 - 오전 10시			
		오 정	오전 10시 - 오후 3시		창 18:1	
		서늘할 때	오후 3시 - 오후 6시		창 3:8	
		저물 때	오후 6시		잠 7:9	
신약	밤	저물 때	해질 때 - 오후 10시		막 13:35	
		밤 중	오후 10시 - 오전 1시		막 13:35	
		닭 울 때	오전 1시 - 오전 4시		막 13:35; 눅 22:61	
		새벽	오전 4시 - 해 뜰 때		마 14:35; 막 13:35	
	24 시 간 제					
		밤중기점 - 로마식 (요한복음)	새벽기점 - 유대식 (공관 복음)	시 간	관 련 성 귀	
약	낮	아 침 (마 16:3)	제 6시	제 0시	오전 6시	요 19:14
			제 9시	제 3시	오전 9시	마 20:3
		정 오 (22:6)	제 10시	제 4시	오전 10시	요 1:39
			제 12시	제 6시	오전 12시	마 20:5
		저 녁 (마 16:2)	제 3시	제 9시	오후 3시	마 20:5
			제 5시	제 11시	오후 5시	마 20:6
			제 6시	제 12시	오후 6시	요 4:6
	제 7시	제 1시	오후 7시	요 4:52		

4. **㉠** 왜 하나님의 사자는 고넬료에게 특별히 나타나셨는가? (4절)

- ㉡** (1)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당신께 상달(上達)되었기 때문에 당신의 사자를 그에게 보내셨다.

- (2) 고넬료는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는 가장 순수한 마음의 구제와 오직 하나님의 은총만 간구하는 기도를 하였기에 하나님께 기억되었던 것이다.
- (3) 이러한 고넬료의 진실한 기도 생활과 사심(私心) 없는 구제는 마치 고운 가루와 완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과 같아서 그분의 보좌에 상달되었던 것이다(참조, 레 2:2; 빌 4:18; 히 13:15, 16).
- (4) 따라서 성도들은 어떤 상급이 목표가 된 생활이 아니라 고넬료와 같이 가장 순수하고 순박한 어린이와 같은 신앙을 영위해야 하며(마 18:3),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때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고(갈 5:22, 23) 상급도 받을 수 있다.

5. **㉠** 하나님의 사자는 고넬료에게 무엇을 지시하였는가? (5-8절)

- ㉡** (1) 하나님의 사자는 고넬료에게 읍바의 피장(皮匠) 시몬의 집에 거하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지시하였다.
- (2) 이 지시에 따라 고넬료는 즉시 집안 하인 둘과 종졸(從卒)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읍바로 파송하였다.
- (3)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고넬료의 즉각적인 순종이다. 이것은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쌓은 그에게 당연한 것이었으며 그리스도에게서도 역시 이와 같은 모습과 가르침을 찾아 볼 수 있다(마 7:7).
- (4) 둘째는 고넬료의 종들이다. 경건한 자와 함께 동거하는 자들 역시 좋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의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마 27:32; 막 15:21; 눅 23:26)과 같이 구원 역사의 중개자(仲介者)가 되었다.
- (5) 따라서 우리도 주어진 시간과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쓰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이다.

6. **㉠**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 지붕으로 올라간 시간은 언제인가? (9절)

- ㉡** (1) 그때는 제 6시였다.
- (2) 제 6시는 현대의 시간으로 정오에 해당된다(참조 ㉠3).
- (3) 한편 가이사라에서 읍바는 약 하룻길의 거리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고넬료가 환상을 본 즉시 종들을 파송한 것과 연관지어 볼 때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 (4)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 지붕으로 올라간 것은 팔레스틴의 가옥의 형태에 있어서 그곳이 제일 조용하여 묵상과 기도하기에 적당한 장소였기 때문이다.
- (5) 즉 그들의 집은 직사각형의 모양을 하였는데 그 지붕은 저녁에 시원한 바람을 즐길 수 있는 평평한 자리로 만들었다(참조, 삼상 9:25, 26; 삼하 11:2). 그래서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 올라간 지붕은 다락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 (6) 여기서 우리 성도들은 수시(隨時)로 기도해야 하지만 특히 시간을 정해 놓고 기도하는 것도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기 쉬운 우리에게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참조, 단 6:10).

7. **㉠** 베드로가 본 환상의 의의(意義)는 무엇인가? (10-16절)

- ㉡** (1) 베드로는 비몽 사몽간에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를 보았는데 그 속에 각종 부정한 짐승과 곤충이 있었고 또 소리가 들리기를 그것을 잡아먹으라고 하였다.
- (2) 그때 베드로는 부정한 것은 먹지 못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은 다 정(淨)하다고 하는 음성을 들었다.
- (3) 에스겔도 가증한 고기를 먹으라는 일로 하나님께 항의한 적이 있다(겔 4:14).
- (4)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환상을 보이신 것은 당시 유대인들을 폐쇄적으로 만드는 의식(儀式)의 장벽을 폐지하시기 위함이었다.

- (5) 예수께서는 지나치게 의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사람의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꾸짖으셨다(막 7:14-23).
- (6)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의식에 너무 집착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참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므로 오히려 주를 욕되게 하거나 그분의 사역을 훼방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 (7)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외형적인 면보다 내적인 면에 더 치중하여 진정으로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하고 신앙 생활을 영위해야 할 때이다.

8. **㉠ 베드로가 보자기에 든 짐승들을 부정하다고 말한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14절)**

- ㉠** (1)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정해 주신 레위기 11장의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 (2)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새길질하고 굽이 갈라진 짐승과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생선을 식물로 허락하셨다.
- (3) 그리고 이중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짐승은 가증한 것으로 여겨 먹지 못하도록 규정하셨다(참조, 레 11: 20, 21).
- (4)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규정을 만드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죄의 오염으로부터 정신의 백성을 정결케 하시기 위함이었고 그 정결의 증거로 외적인 의식을 강조하신 것이었다(참조, 레 11장 **㉠** 1).
- (5) 그런데 이 규정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 의미가 변질되어 처음 하나님께서 규정을 세우실 때의 목적에서 벗어나 외적인 의식에만 치우치게 되었고 또한 이 의식의 준수가 신앙인의 척도인 것처럼 여겨지기까지 하였다.
- (6)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신앙 생활을 평범하고 쉽게 영위하면 유대인들처럼 의식에 빠지기 쉬우므로 매일 새로운 도전을 받아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분의 가르침에 귀기울일 때 의식과 위선을 극복할 수 있다.

9. **㉠ 베드로에게 동일한 환상이 몇 번이나 보였는가? (16절)**

- ㉠** (1) 동일한 환상이 세 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보여진 후 하늘로 올라갔다.
- (2) 여기서 우리는 완고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된다. 아마 그는 세 번의 환상을 보면서도 주의 요구를 모두 거절했던 것 같다.
- (3) 그러나 주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요 13:1) 베드로에 대해서도 인내 하시며 세 번을 보이셨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를 진리로 이끌기 위한 사랑의 모습이다.
- (4) 한편 세 번이라는 수자와 관련된 사건은 겐세마네 동산에서 주의 기도(마 26:36-46)와 베드로에 대한 예수의 질문(요 21:15-17) 그리고 육체의 가시를 위한 바울의 기도(고후 12:8)에서 찾아 보게 된다.

10. **㉠ 베드로가 환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알려 주셨는가? (17-20절)**

- ㉠** (1) 성령께서는 고넬료가 파송한 종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다.
- (2) 베드로가 환상의 의미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을 때 그에게 허락된 최초의 용답은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라는 말이었다.
- (3) 성령께서는 순간적으로 그들의 방문과 베드로의 환상을 연결시켜 주신 것이었다.
- (4)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가 저를 보내었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움 없이, 주저하지 말고 즉시 가라고 하셨다.
- (5) 이것은 성령의 인격(人格)을 나타내는 귀절 중 하나이며(8:29; 13:2; 20:28)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역사를 발견할 수 있다.

11. **㉠ 환상에 대한 성령의 가르침은 베드로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21-23절)**

- ㉠** (1) 자신을 찾아온 고넬료의 종들을 영접하여 하루를 묵게 한 뒤 함께 가이사랴로 떠났다.
- (2) 환상 중에는 불결한 음식으로 인하여 율법적인 태도를 강하게 보여 주던 베드로가 성

령의 가르침이 있는 뒤 이방인의 종을 손님과 같이 대접을 하였다.

- (3) 이것은 할례받지 않은 자와 사귀고 식사를 나누는 베드로의 첫번째 일이다(참조, 11:3).
- (4) 이처럼 성령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킨다. 이제 성도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외적인 의식(儀式)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

12. **㉠** 베드로를 기다리는 고넬료의 태도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24, 25절)

- ㉠** (1) 고넬료는 베드로가 도착하기까지 일가(一家)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 그리고 베드로가 도착하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고 그를 맞아들였다.
- (2) 그는 베드로가 전해 줄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있었다. 그 뿐 아니라 자기가 다스리는 가족(家屬)들과 친구들까지 초청하여 그 복음을 접하도록 주선하였다.
- (3) 우리는 고넬료와 같이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져야 함은 물론이고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서 자기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
- (4) 만일 복음을 받은 사람이 전하지 않는다면 주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것이 전파되도록 만드신다. 그러나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자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보용이 있을 것이다(참조, 예 4:14).

13. **㉠** 베드로는 자신을 영접하는 고넬료에게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25, 26절)

- ㉠** (1) 베드로는 자신을 영접하면서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고넬료에게 자신도 같은 사람이니 일어나라고 하였다.
- (2) 베드로에 대한 고넬료의 이와 같은 태도는 지극한 존경과 경배를 받아야 할 대상에게 대한 것이다. 예수께서도 이와 같은 경배를 받은 경우가 있었다(참조, 막 5:22).
- (3) 여기서 고넬료는 베드로를 하나님이 보내신 초월적 사자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베드로를 신적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평범한 인간들보다 존경의 표시를 더한 것뿐이었다(참조, 계 19:10; 22:8, 9). 그런데 이런 존경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놀라운 것이었다.
- (4) 지나친 환대를 받은 베드로는 단호한 말로 '일어서라'고 하였다. 베드로는 자신이 받는 환대의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므로 자신이 그런 위치에 설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았다.
- (5) 베드로의 이런 태도는 오늘날 교회나 국가, 기타 모든 단체에서 조그만 지위를 얻어도 지나치게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권위를 내세우게 되는 지도적 위치에 있는 자들이 모두 본받아야 할 점이다.
- (6) 겸손한 자는 진정 높은 지위에 오르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된다(참조, 마 23:12; 눅 14:11; 18:14; 약 1:10)는 진리를 기억하자.

14. **㉠** 베드로가 고넬료의 부름에 응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28, 29절)

- ㉠** (1)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제는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위법이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은 속(俗)되다 말할 수 없기에 부름에 응하였다고 이유를 밝혔다.
- (2) 율법적인 면에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 해결되었다. 이는 예수의 사랑이 국가나 계급, 인종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였기 때문이다(롬 8:14-16).
- (3) 즉 하나님 편에 있어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동등하다(참조, 롬 2:23-29; 3:29). 단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제사장 나라로 삼았을 뿐이다(출 19:6).
- (4)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교만하며 외식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의 표로서

하나님께서서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도록 하셨던 것이다(참조, 롬 11:11, 25).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믿지 않는 부모나 형제, 친척, 친구들에 대하여 자신이 제사장과 같은 위치에 있으므로 그들에게 자기가 받은 구원의 은총과 사랑을 전해야 한다(참조, 벰전 2:9).

15. **㉠**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한 동기는 무엇인가? (30-33절)

- ㉠** (1) 본장의 **㉠**4를 참조하라.

16. **㉠**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 그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발견하였는가? (34, 35절)

- ㉠** (1) 베드로는 고넬료의 말과 자신이 본 환상이 서로 연관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았고 그 뿐 아니라 의식에 얽매어 있던 자신의 편협함도 깨닫게 되었다.
 (2)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당신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모두 받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참조, 미 6:8).
 (3)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며 흔들릴 수 없는 원리이고 초자연적인 특색이다. 베드로의 의한 마디 고백은 여러 세기에 걸쳐 유대인들이 가졌던 민족적 편견을 일소(一掃)해 버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4)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보실 때 외면적 조건을 따지지 않으시는데(엡 6:8) 하물며 미천한 인간끼리 그런 것을 구분할 수 있겠는가?
 (5) 스스로 그리스도인임을 자처하는 우리가 지나치게 외적인 것을 따진다면 진리대로 살아갈 수 없을 뿐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믿었으나 나중 믿은 자보다 못한 처지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마 19:30, 31).

17. **㉠**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전한 말씀의 요지(要旨)는 무엇인가? (36-43절)

- ㉠** (1)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장황(張皇)하게 설명하지 않고 핵심만 간략하게 전하였다.
 (2) 그 첫째는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예수께서 오셨고, 둘째는 예수께서 인간들의 병을 고치셨다는 것이다. 세째는 무죄한 예수를 원수들이 십자가에 못박은 사건과 함께 죽음에서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이다.
 (3) 네째는 선지자와 전도인과 모든 교사들이 예수의 증인이며, 다섯째로 이와 같은 사실들의 결과는 죄인들을 용서함이라는 내용이었다.
 (4) 그는 이 설교에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복음의 진수를 간략하게, 그러나 중요한 사항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전한 것이었다.
 (5) 복음 전도자들은 말씀을 전할 때 자신이 갖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을 가미(加味)하려는 경향이 많은데 이는 오히려 복음의 참뜻을 흐리게 한다(참조, 계 22:18, 19).
 (6) 그러므로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의 진수를 왜곡하는 오류를 범하기 보다 말씀을 그대로 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는 태도가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참조, 고전 2:10-16; 벰후 1:20, 21).

18. **㉠**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설교의 제목(title)은 무엇인가? (36절)

- ㉠** (1) 그것은 본질의 말씀과 같이 '만유의 주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다.
 (2) 이 귀절에는 계속 이어지는 베드로 설교의 내용의 성격을 결정하는 세 가지 내용의 강조점이 포함되어 있다.
 (3) 첫째는, 계시(啓示)에 대한 강조이다. 즉 '이것은 ...이다' 라는 헬라이어 <투토 에스틴>

이 생략되었으나 설교 형식과 내용은 초기 사도 시대에 있었던 계시적 이해의 해석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 (4) 들제는, 복음을 직접적으로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라는 말로 나타난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향한 전도의 강조이다.
- (5) 세제는, 복음을 이방 세계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전하는 일과 관련된다. 이는 ‘만유의 주’ 라는 표현으로 특징지어진 강조이다.
- (6) 한편 ‘만유의 주’ 는 신(神)에 대한 이교도들의 호칭이었으나 초기 그리스도인들에 의하여 정통 기독교적 호칭으로 바뀌었다(참조, 골 1:15-20).

19. ㉠ ‘화평’의 개념을 설명하라 (36절).

- ㉠ (1) 화평은 히브리어 <shalom>, 헬라어 <에이레네>로 쓰여졌는데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증보자로서 그의 직위(職位)와 관계가 있다.
- (2)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인한 열매로서 이 땅에 ‘화평’을 이루셨고 또한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그것을 나타내었다.
- (3) 본래 화평이라는 말의 개념은 전쟁의 종식(終息)이나 개인, 교회, 사회 등이 어지럽지 않고 번영하는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다.
- (4)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런 인간적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하에 놓여 있는 인간의 모든 활동 영역과 연관지어 설명하고 또한 그렇게 이해되고 있다.
- (5) 특히 이 말의 개념은 신약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인간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평강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인격적인 구원을 체험할 때 이해될 수 있다(참조, 골 3:15).
- (6)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 화평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을 용납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구원하시는 ‘복음’과 밀접하게 연관시키고 있다.

20. ㉠ 베드로가 그리스도와 관계된 복음을 전하면서 요한을 언급한 이유는 무엇인가? (37절)

- ㉠ (1) 세례 요한과 그의 사역은 신약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 (2) 그는 출생할 때부터 그리스도와 불가분의 관계가 형성되었고 그의 투옥과 죽음은 예수께 큰 영향을 주었다(참조, 막 1:14, 15).
- (3) 그 뿐 아니라 그는 구약에 속한 옛 언약하의 마지막 선지자로서(마 11:11) 예수는 그가 구약의 예언을 따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제 2의 엘리야라고 하셨다(참조, 말 4:5; 막 9:13).
- (4) 그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했고, 구약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오심에 대하여 증거한 최초의 인물이었다(마 3:11; 막 1:7; 요 1:26, 27, 36).
- (5) 세례 요한이 해야 할 일들은 성경 기록상 명백하게 나타나 있고(눅 1:5-25, 57-88) 그는 자신의 공생애 초기부터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에 관한 성취의 말씀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느니라’(마 3:2; 4:17)는 메시지를 외쳤다.
- (6) 세례 요한의 이와 같은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베드로는 그의 설교 중에 요한에 대하여 언급할 수밖에 없었다.

21. ㉠ 베드로가 설교 중에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신 것을 언급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인가? (38절)

- ㉠ (1) 베드로가 예수께 대하여 ‘기름 부음’을 언급한 것은 그를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나타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 (2) 이런 표현은 이미 구약에 언급되어 있고(사 61:1) 신약에서도 이를 인용하고 있는데(눅

4:18, 19) 이는 그분의 사역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 (3) 따라서 본질은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세 직분(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모두 감당하시는 분으로서 일을 하셔야만 하는 예수를 설명하는 것이다.
- (4) 한편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그분의 인성(人性)을 표현하는 말로 인간의 형체를 가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의 제국을 실천하시는 사역자이심을 잘 나타내고 있다.

22. ㉠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사실성(事實性)에 대하여 베드로는 어떻게 설명하였는가? (39-41절)

- ㉠ (1) 먼저 그는 자신과 함께 여러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일을 목격한 증인이며 다음에는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했으나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그를 살리사 미리 택하신 당신의 증인들에게 나타나게 하셨다고 설명했다.
- (2) 베드로는 이 설명을 통하여 인간들이 그리스도를 대우하는 것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대우하는 것과의 차이를 비교하고 있다.
- (3) 예수의 행적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했던 자들이 이번에는 그들의 손으로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이는 일을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삼 일 만에 살리셨다.
- (4) 그러나 특히 중요한 것은 예수의 부활이 영(靈)의 부활 뿐 아니라 육체의 부활도 있었으며 그 증거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다(참조, 눅 24:42, 43).
- (5) 고벨료에게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전한 것은 나름대로 큰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 (6) 즉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부활 사상이 결핍되어 있다면 그것은 뿌리 없는 나무와 같아서 올바른 신앙으로 성장해 나갈 수 없다.
- (7)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성도의 부활이며 그분의 부활이 성도들에게 어떤 역경도 이기며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소망을 준다(참조, 24:15; 요 11:25; 고전 15:22; 고후 4:14).

23. ㉠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42절)

- ㉠ (1)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세우셨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다.
- (2) 본질은 베드로 설교의 결론 부분으로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자로서의 사명이 있음을 가르쳐 준다.
- (3) 예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친히 명령을 하셨으며(마 28:18-20; 막 16:15, 16),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언급은(요 5:21-29; 계 20:11, 12) 신앙 고백(Apostles' Creed)의 기초가 되었다(고전 15:3, 4).
- (4) 따라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일은 최우선의 과제일 수밖에 없다.

24. ㉠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선지자들은 초점을 어디에 맞추었는가? (43절)

- ㉠ (1) 선지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 받는다는 데 그 초점을 맞추었다.
- (2) 선민 사상(選民思想)으로 경직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별로 달가운 것이 되지 못하였다.
- (3) 왜냐하면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이 말씀은 그 의식을 깨뜨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전통적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 (4)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 하박국도 전통적인 히브리 사상이 아닌 오로지 믿음으로서만 살 수 있다고 하였고(합 2:4) 바울도 혈통적 유대인보다 이면적 유대인이 더 중요하다

고 설파(說破) 하였다(롬 2:28, 29).

- (5) 따라서 오늘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요점을 떠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말씀 전하는 자들이 지나치게 기복 신앙적(祈福信仰的) 설교를 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신앙의正道(正道)에서 벗어나게 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음은 매우 가슴 아픈 일이다.

25. **㉠**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도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44, 45절)

- ㉠** (1)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이 일로 인하여 할례받은 선지자들이 모두 놀랐다.
- (2) 이 모든 일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감독하고 계셨던 것이다. 11:15에 의하면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할 때부터 성령은 이미 내리셨다.
- (3) 이 일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 충만의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2:1-4).
- (4) 오순절 사건이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성령의 역사로 본다면 고넬료의 가정에서 있었던 이 사건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한 기폭제로서 ‘이방 세계 오순절’이라고 말할 수 있다.
- (5) 한편 이 사건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는 읍바에서 베드로와 함께 동행한 자들이 증인이 되어 이방인의 회심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려 줌으로써 이제까지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편견이 바뀌어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지위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26. **㉠**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이방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였는가? (47, 48절)

- ㉠** (1) 베드로는 그들이 성령을 받았으므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가(可)하다고 생각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
- (2) 세례에 관하여 8장의 **㉠**24를 참조하라.
- (3) 베드로는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를 분명히 알았다.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인격을 거듭나게 하셨는데 그에 대한 공식적인 확증의 표시로서 인간이 주는 성례전을(요 3:5) 베풀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 (4) 그런데 여기서 베풀 세례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베드로가 설교한 뒤 회개한 자들에게 베풀 세례와 절차상 차이가 있다.
- (5) 2:37이하의 먼저 죄를 깨닫고 회개한 뒤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죄 사함의 표시로 세례를 베풀었고 그와 동시에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 (6) 그러나 본절에서는 먼저 성령을 받고 그 후 세례를 받았다.
- (7) 한편 이러한 절차상의 차이로 인해서 두 사건에 언급된 각각의 세례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는 없다. 두 세례는 모두 성령을 통해 증생한 인격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되었다는 공적인 표시로 간주할 수 있다.

본장의 요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33절).

제 11 장 이방인에 대한 전도 사역의 정당성과 안디옥 교회의 등장

단락구분 1-3 베드로를 책임하는 유대인 / 4-10 베드로가 환상을 말하다 / 11-18 환상의 실제적 의미 / 19-26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가 파송되다 / 27-30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안디옥 교회가 헌금하다

1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더니

2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3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4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5 가로되 내가 욥바 성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네 귀를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워 내 앞까지 드리우거늘

6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7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8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9 또 하늘로부터 두번째 소리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10 이런 일이 세 번 있을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11 마침내 사람이 내 우거한 집 앞에 섰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12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13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14 그가 너와 네 온 집의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15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 지라

16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주었

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17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관대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18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19 때에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데

20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22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23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24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를 주께 더하더라

25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27 그 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28 그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29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30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두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두 가지 모두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 (2) 첫째는 가이사랴에서 복음을 전한 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힐문(詰問)하는 유대인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었음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 (3) 둘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여 그들의 신앙을 돕도록 하여 그곳에서 큰 열매를 거두었는데 모(母)교회인 예루살렘에 어려움이 있자 그들이 스스로 헌금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 준 내용이다.
- (4) 할례받은 유대인들은 외적인 증거로 인하여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방인들이 신앙을 갖는 것에 대하여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섭리에 의한 것임을 깨닫자 다시 질문하지 못하였다.
- (5) 그것에 반하여 안디옥 교회는 초대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인정을 받아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았고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위치까지 성장을 하였다.
- (6) 이 두 가지 내용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롭게 갖추어야 할 신앙인의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다.
- (7)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믿었던 것이나 앞으로 믿을 가능성보다 현재의 상태를 그리고 어떤 외적인 조건보다 내적인 마음의 상태를 더 중요시하신다는 것이다.

2. **㉡ 고넬료의 회개한 사건의 의미는 무엇인가? (1-18절)**

- ㉠** (1) 고넬료가 회개하며 성령을 받은 사건은 복음이 로마 제국으로 침투하는 진보적 역사의 이정표(里程碑)가 되었다.
- (2) 그 뿐 아니라 이 사건은 유대인 신자들에게 주권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에게까지 자신의 영역을 확장시키셨음을 보여 줌으로써 이방인에 대한 전도를 정당화하고 있다.
- (3) 한편 고넬료의 회개 사건은 네 가지의 일이 특별히 강조되는데 첫째는, 이방인들이 유대교와 관계 없이 직접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의 친교를 받아들이는 데 유대인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반감을 샀다(2, 3, 8절; 10:14, 28).
- (4) 둘째는, 이방인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고 또 기적을 통하여 그의 기뻐하심을 보여 주신 것이 하나님 자신이다(5-10, 13절; 10:3, 11-16, 19, 20).
- (5) 세째는,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여는 데 쓰임 받은 도구는 바울이 아닌 베드로였다(15-17절; 10:23, 34-43).
- (6) 네째는,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교에 충성한 것과 관계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인정하셨으므로 이방인이 메시아에게로 돌아온 것은 용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18절).
- (7) 그러므로 본서의 저자인 누가는 복음의 확장과 발전, 전진이라는 주제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의 개종을 받아들였다는 데 본장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3. **㉢ 율법적인 태도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이방인을 용납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가이사랴의 사건을 어떻게 이해시켰는가? (4-15절)**

- ㉠** (1) 베드로는 자신도 처음에 율법적 태도에 얽매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다고 하였다.
- (2) 즉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사람이 부정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이 하나님께서 가이사랴의 고넬료와 그 가족들을 정결케 하셨으므로 베드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식탁을 같이하였다고 했다.
- (3) 또한 그 결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것과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 (4) 따라서 베드로는 은연중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우월감이 결코 올바른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한 최상의 조건도 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 (5)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한 자들은 그들이 과거에 우상 숭배자였든, 흉악한 범죄자였든 관계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현재의 상태를 인정받은 것이다(겔 18:21-23).
- (6) 오늘날 교회들도 유대인들의 태도를 닮아 가는 경향이 있다. 한 예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곳인데 외모가 화려한 자들을 존대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을 업신여기는 자들이 많이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 (7) 우리는 진심으로 이들을 그리스도 안의 한 형제로 영접해야 한다.

4. **㉠** 편협한 태도를 가진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외친 결론은 무엇이었는가? (17절)

- ㉠** (1) 베드로 자신과 유대의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은 성령이 저들에게도 임했는데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막을 수 있었겠는가 라는 결론을 내렸다.
- (2) 베드로는 믿음이 자신들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이방인들 역시 동일한 선물을 받았으니 그들과 자신의 믿음 또한 동일하다고 하였다.
- (3)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배척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결코 막을 수 없다고 하였다.
- (4) 이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노력해야겠다(갈 1:10).

5. **㉠**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어떻게 태도를 바꾸었는가? (18절)

- ㉠** (1) 그들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음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 (2) 본질에 유대인이 '잠잠하였으며' 라고 하였는데 이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헤쉬카산>을 NIV는 '더 이의가 없었으며' 라고 번역하였다.
- (3) 이것은 비판자들이 더 이상 베드로를 힐문(詰問)하지 못하였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도 베드로가 옳았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와 찬양을 돌리게 되었음을 가리킨다.
- (4)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신앙을 고백한 자들은 모두 한 형제요, 자매로서 동등한 자격과 동등한 위치를 획득한 사람들이다.
- (5) 그러므로 나와 우리만을 포함하는 미시적(微視的)이고 국수적인 태도를 버리고 모든 사람을 동일한 신앙으로 인도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6. **㉠** 스테반이 순교할 때 핍박을 받아 흩어진 자들은 어떤 일을 하였는가? (19절)

- ㉠** (1)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였다.
- (2) 누가는 이미 9:31에서 끝났던 스테반의 죽음을 다시 회상하면서 고통스러웠던 사건이 하나님에게는 도리어 선한 결과로 나타났다고 기록하였다.
- (3) 이때의 예루살렘 성도는 약 2만 5천 명으로 추산되는데 핍박으로 흩어진 이들은 각자가 처한 위치에서 복음 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다.
- (4)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한 베니게(Phoenicia)는 신약 시대에 기독교가 최초로 전파된 곳이다(15:3;21:2). 베니게는 지중해의 동쪽에 자리잡은 좁고 긴 지역이며 갈멜산에서 북으로 약 190km나 떨어져 있다.
- (5) 구브로는 지중해의 동북부에 위치한 섬이며 구약에서는 갓딤(민 24:24)이라고 하였다. 현재의 키프로스(Cyprus) 섬이다. 바나바는 이 섬 출신이며(4:36) 바울은 바나바와 함

께 이곳에서 설교도 하였다(13:4-12).

(6) 안디옥(Antioch)은 성경에서 두 곳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비시디아, 또 하나는 수리아 안디옥이다. 그런데 본문은 현 터키 동남부, 수리아 국경의 소도시인 수리아 안디옥을 말한다.

(7) 이 세 지역을 지도로 보면 다음과 같다.



7. ㉠ 복음 전도자의 두 가지 모습은 어떠한가? (19,20절)

- ㉠ (1)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자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도하는데 반하여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은 안디옥까지 가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였다.
- (2)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고 율법을 준수하려는 자들도 많았으므로 유대인의 고국(故國)의 일부로 인정되었다.
- (3) 아직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율법의 장벽이 무너지지 못했을 때 몇몇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장벽을 넘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였다.
- (4) 그 결과 다른 지역의 초대 그리스도인들과는 달리 회당 안이지만 교회가 성립되었고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유대인과 할례 없는 이방인들이 섞여 예배와 친교의 모임을 가졌다(참조, 갈2:12).

8. ㉠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에 대하여 설명하라(19절).

- ㉠ (1)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셀류쿠스 니카토 1세(Seleucus Nicator I)에 의해 B. C. 300년경에 설립되었다.
- (2)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북으로 약 480km, 지중해 연안에서 동으로 약 32km 되는 지점에 위치해 있다.
- (3) 한편 기독교 역사에서 예루살렘을 제외하고 수리아의 안디옥만큼 교회의 성장을 가져오고 초기 생활 부문에 큰 역할을 한 도시는 없었다.
- (4) 이곳은 인구 50만으로 로마 제국의 제 3의 도시였는데 외국 선교(13:1)의 발상지였고 로마로 향한 바울의 선교 진출의 근거지였다.
- (5) 그리스도의 도를 좇는 자들(9:2)이 '그리스도인'(26절)이라고 처음 불리웠고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할례 의식을 따르게 하는 논란이 처음으로 있던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이다(15:1,2;갈2:11-21).
- (6) 교회사적인 면에서 1세기에는 바나바와 바울, 베드로가 교사로 있었고, 2세기에는 이그

나티우스(Ignatius)와 데오빌로, 3, 4세기에는 루시안, 데오도르, 크리스소스톰 등의 뛰어난 인물이 안디옥 교회의 교사로 있었다.

9. ㉠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돕기 위해 무슨 일을 하였는가? (22절)

- ㉠ (1)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의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소문을 듣자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였다.
- (2)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신앙적으로 지도해야 할 책임을 느끼고 그들을 위해 적임자로 바나바를 택하여 파송한 것이다.
- (3) 현대의 교회가 양적 팽창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예루살렘 교회는 좋은 모범을 보여 준다.
- (4)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성장의 한계에 도달한 교회는 성도들의 구심점을 교회의 건축이나 내장(內粧) 등이 아닌 해외 선교, 지역 사회 선교, 구제와 봉사가 되도록 지도해야 한다.
- (5) 현대 교회가 정체 상태와 침체의 늪에 빠지는 이유는 교회가 너무 비대하여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는 것과 목회자들의 생각이 편협하여 더 넓은 곳을 보지 못하는 데 있다.
- (6) 교회가 부유해지고 평안하면 내부로 부패하는 것을 역사에서 보게 된다. 그러므로 오늘날 모든 교회는(크든, 작든 관계 없이) 미자립 교회와 지역 사회를 위해 활동을 해야 한다.

10. ㉠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어떤 말로 이방인들을 권(勸)했는가? (23절)

- ㉠ (1) 그는 안디옥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고 권하였다.
- (2) 바나바가 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이방인들도 회개하고 구원에 동참한 사실을 가리킨다.
- (3) 이런 사실에 대하여 바나바는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후에 있을 어려운 시련에 대하여 이길 수 있도록 '주께 붙어 있으라'고 하였다(참조, 13:43; 딤후전 5:5).
- (4) 바나바는 어려운 시련이 부딪히면 믿음을 잃어버릴 위험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현재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기뻐하였으나 권면의 말도 잊지 않았다.
- (5) 한편 본절에서 누기는 이방인들이 받은 복음은 순수한 것이었다는 점과 바나바가 그리스도의 영광 이외의 것은 추구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다.
- (6) 신앙의 순수함은 무엇에 비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귀중함을 갖고 있다. 바나바의 순수한 신앙은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영원히 기억되고 본받아야 할 신앙의 귀감(龜鑑)이 된다.

11. ㉠ 바나바의 인물상(相)에 대하여 말하라 (24절).

- ㉠ (1)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였다.
- (2) '착한'은 헬라어 <아가도스>인데 이 뜻은 도덕적인 품성이 '선함'을 나타낸다(참조, 마 19:16). 그러므로 바나바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부터 본성적으로 착한 자였음을 알 수 있다.
- (3) 이처럼 본성이 착한 데에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였으니 그가 얼마나 큰 은혜를 소유한 자인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참조, 6:5).
- (4)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본성에 관계 없이 당신의 일군을 택하신다. 그래서 사울도 택함을 받았고 베드로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택함을 받았던 것이다.
- (5) 바나바에 관한 설명은 9장의 ㉠ 18을 참조하라.

12. ㉠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일한 결과는 어떠했는가? (24절)

- ㉠ (1) 바나바의 성격과 충만한 은혜로 인하여 큰 무리가 주께 나오게 되었다.

- (2)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가 도착하기 전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으나 그가 오므로 또한 그를 통한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로 인하여 믿는 자의 수가 많아졌다.
- (3) 이것을 통해 볼 때 바나바의 훌륭한 사역을 칭찬할 수 있으나 그와 함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숨은 노력도 인정해야 한다.
- (4) 서로 믿고 인정하는 가운데 도움을 줄 수 있고, 그와 같은 모습이 불신자들에게 감동을 주어 그들 스스로 그리스도의 품을 찾아오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 (5) 그러므로 우리들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여’ (요일 3:18)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전도하기도 쉬워진다는 사실을 주지해야겠다.

13. **㉠** 바나바가 사울을 다소에서 데려온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25, 26절)

- ㉡** (1) 이 사실은 바나바의 소박하고 순수한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 (2) 다소는 안디옥에서 약 12.9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있다.
- (3)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지위를 얻거나 타인의 존경을 받으면 그 자리를 고수(固守)하기 위해 경쟁 의식을 가지며 경쟁자들을 매장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 (4) 그러나 바나바는 그런 의식을 전혀 갖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한 일념(一念) 때문에 다소에서 바울을 데려왔던 것이다.
- (5) 세상의 명예는 생명이 끝나면서 함께 사라지지만 주의 상급은 생명이 끝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실현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모든 사람들이 바나바와 같이 순수하게 주의 영광을 위한 일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을 것이다.

14. **㉠**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에 대하여 설명하라 (26절).

- ㉡** (1) 이 명칭은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일했던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 (2) 이 명칭의 헬라어 <크리스티아노스>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라는 의미이다.
- (3)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런 호칭이 결코 성도들이나 유대인들 사이에서 시작되지 않았고 그 당시 안디옥의 불신자들 사이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 (4)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제자들’(2:41;6:1), ‘형제들’(15:32;고전 15:6), ‘성도들’(고전 1:2;살전 3:13;계 13:10)이란 호칭을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 (5)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들을 ‘도를 쫓는 자’(9:2), ‘나사렛 이단’(24:5)이라고 불렀다.
- (6) 따라서 이 호칭은 이방인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말로 불렀음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경멸의 의미가 포함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오히려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에게는 영광된 것이었다.
- (7) 이 호칭이 안디옥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나 신자들이 공식적으로 그 호칭을 받아들인 것은 약 2세기경이었다.

15. **㉠** 본절에서 말하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가? (27절)

- ㉡** (1) ‘선지자들’(헬, 프로페타이)은 본서와 바울 서신들에서 언급된 초대 기독교 교회에서의 영감된 교사들을 뜻한다(참조, 19:6;21:9;롬 12:6;고전 12:10;13:2, 8;14:6;살전 5:20).
- (2) 이들 교사는 사도 다음으로 인정된 중요한 직(職)이었으며(고전 12:28;엡 2:20;4:11) 성경의 교훈을 가르쳤다.
- (3) 또한 이들은 예언의 은사도 받아 때때로 미래의 일들을 말하기도 하였다(참조, 롬 12:6;고전 12:10).

16. **㉠** 흉년을 예언한 아가보는 어떤 사람인가? (28절)

- ㉡** (1) 그는 유대(예루살렘) 출신이며 성경에서 보면 선지자로서 두 가지 예언을 하였다.
- (2) 첫째는, 본절의 흉년에 관한 예언이고 둘째는, 바울의 투옥에 관한 예언이었다.
- (3) 첫번째 예언은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때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두번째 예언은 바울의

세번째 선교 여행 시 가이사라에서 만나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강렬한 상징적인 행동으로 예언하였다.

- (4) 즉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유대인들의 손에 결박되어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게 되리라고 하였다(21:10, 11).
- (5) 한편 후기 구전(口傳)에 의하면 아가보가 70인역(LXX) 성경의 번역자 중 한 사람이며 기독교 순교자 중의 한 사람이라고 한다.

17. ㉠ 아가보의 예언이 성취된 때와 그 정치적 상황을 약술하라(28절).

- ㉠ (1) 그 예언은 클라우디오(Claudius, A. D. 41-54) 때에 이루어졌다.
- (2)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흉년은 클라우디오 4년(A. D. 44)에 시작하여 48년까지 계속되었고 유대 지방 전체에 걸쳐 흉년이 있었다.
- (3) 이때의 흉년이 매우 심하여서 아디아베네의 여왕 헬레나는 애굽에서 곡식을, 구브로에서 무화과를 모아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공급했다고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다.
- (4) 한편 이 당시 로마 황제였던 클라우디오는 드루수스(Drusus)와 안토니아(Antonia)의 아들이며 티베리우스(Tiberius) 황제의 조카이었다.
- (5) 그는 신체적 불구에도 지능도 약간 박약했기에 젊은 시절에는 티베리우스 황제 밑에서 격리된 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갈리굴라(Caligula)에 의해 A. D. 37년에 집정관이 되어 그 후 중요한 직책들을 맡았다.
- (6) 그는 신체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초기 통치 기간에 영토를 확장하여 44개의 지방을 소유하였다. 그 뿐 아니라 다수의 영주와 시민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었다.
- (7) 그에 반하여 후기 통치 기간은 음모와 의심으로 얼룩진 것이었는데 마침내 네번째 자신과 결혼한 조카딸안-아그리피나(Agrippina)의 손에 독살되고 말았다.
- (8) 성경에 그에 관한 기록은 두 번 있는데 첫째는, 본절의 흉년에 관한 예언과 관계되어 있고, 둘째는, 18:2에서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날 때 언급되어 있다.

18. ㉠ 유대에 흉년이 있을 때 안다옥 교회에서는 어떤 일을 추진하였는가? (29, 30절)

- ㉠ (1) 그들은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扶助)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실행하여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장로들에게 보내었다.
- (2) 이 내용은 이방인 교회들이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헌금한 최초의 본보기이다(참조, 롬 15:25-27; 고전 16:1; 고후 9장; 갈 2:10).
- (3) 성도들간에 서로 도우면서 사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이방 교회들도 예루살렘의 형제들을 위해 '각각 그 힘대로' 도움을 주었다.
- (4) 이 귀절 속에서 우리는 헌금의 기본적 원리를 깨닫게 된다. 즉 능력에 닿지 않는 무리한 헌금이 아니라 자신의 현 수준에 맞는 헌금을 하는 것이다.
- (5) 오늘날 어떤 목회자들은 지나치게 헌금을 강요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는데 예수께서는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최선을 바치도록 교훈하셨다(참조, 눅 21:1-4).

19. ㉠ 장로(長老)에 대하여 설명하라(30절).

- ㉠ (1) 본절에 장로가 등장하는 것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조직되었던 직제의 최초 언급이다.
- (2) 사도 시대에 장로(헬, 프레스뷰테로스)의 직은 때때로 감독의 직과 동일한 의미로 불리어지기도 했다(20:17; 빌 1:1; 딤후 1:5, 7; 벧전 5:1).
- (3) 구약에서 장로는 연장자(年長者)의 의미로 쓰였고(창 10:21; 레 4:15; 욥 32:4), 신약에서도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었다(눅 15:15; 딤후전 5:1, 2).
- (4) 특히 신약에서는 그들이 교회를 다스리고(딤후전 5:17) 감독의 직(職)을 수행하기도 하였다(20:17; 딤후 1:5-7). 그러나 이것은 어떤 계급적인 것보다 나이가 많은 지도자로 봄이 타당하다.

- (5)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서 구제 헌금을 장로들에게 보낸 이유는 그들의 일이 구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 (6) 본래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고 7집사를 통해 구제를 하도록 하였는데(6: 2-4) 스테반의 순교와 빌립의 전도 여행 등으로 그들의 힘이 약화되므로 장로(감독)가 이를 대행한 것으로 여겨진다.

화보자료

환상을 보는 베드로. 프랑스 왕 앙리 2세(Henri II, 1519-1559)의 기도서에 수록되어 있는 삽화이다. 베드로가 욕바 성에서 기도하던 중 비몽 사몽간에 부정한 짐승의 환상을 보는 장면이다(5-10절; 10: 9-16).



성경에 나오는 각종 환상이 지니고 있는 주된 의의 중의 하나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속하시려 한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하나님의 계시 수단이라는 것이다(참조. 16: 9; 창15: 1; 계1: 9-20). 베드로가 욕바 성에서 보았던 환상도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편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모세의 율법이 금하고 있는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 명하신 것은 이스라엘인들이 부정한 자로 여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진리가 증거되어야 할 것을 의미한다.

제 12 장 헤롯의 교회 핍박과

하나님의 개입

단락구분 1-5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 / 6-10 베드로가 천사에 의하여 옥에서 구출되다 / 11-17 베드로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다 / 18-19 베드로의 탈출로 인한 소동 / 20-23 헤롯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죽다 / 24 말씀의 흥왕 / 25 바나바와 사울의 귀환

1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2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3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일이라
 4 잠오매 옥에 가두어 군사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5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6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있는데 파수군들이 문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7 홀연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8 천사가 가로되 떠를 띠고 신을 들메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걸 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9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10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뚫힌 석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11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12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13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대 로데라 하는 제

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14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15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16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17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18 날이 새매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않게 소동하니
 19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군들을 심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20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고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말은 신하 블라스도스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21 헤롯이 날을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대
 22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23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24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25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1. ㉠ 본장에 나타난 사건을 설명하고 그 의미를 말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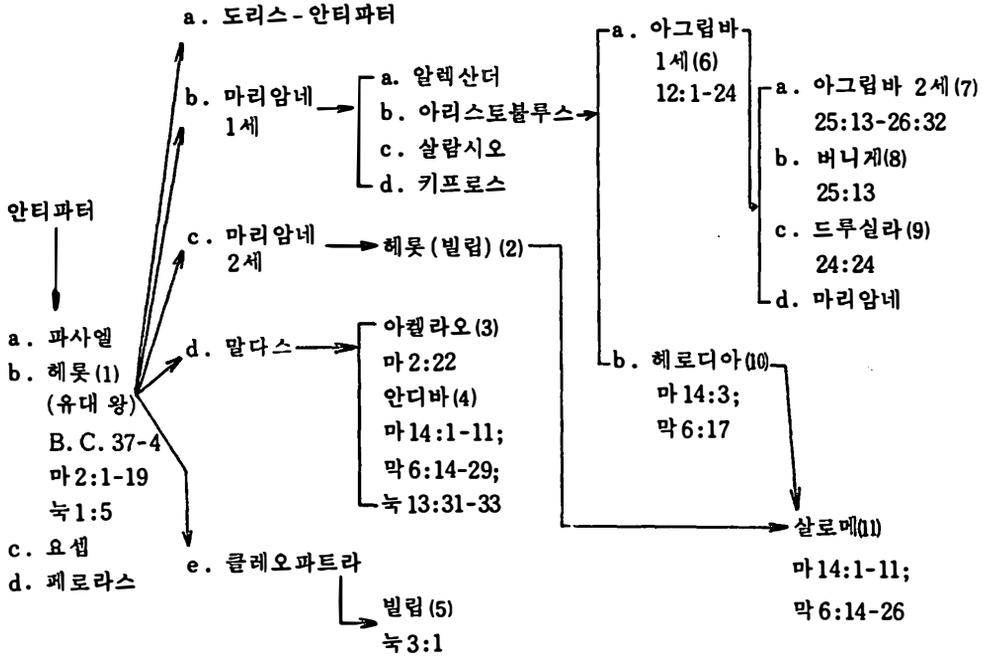
- ㉠ (1) 먼저 본장이 기록된 시대적 배경은 헤롯 아그립바가 죽은 A. D. 44년임을 알 수 있다 (23절).
 (2) 헤롯이 유대 왕으로 있으면서 초대 교회를 핍박하였는데 야고보는 죽이고 베드로는 옥

에 가두었다.

- (3) 이런 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사 옥에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
- (4) 헤롯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주의 사자가 그를 처충(蟲)이 먹게 함으로 죽고 말았다.
- (5) 본장에 기록된 사건은 헤롯의 꺾박에 관한 것이지만 교회 전반적인 면의 꺾박이 아니라 지도자들에게만 한정된 것이었다.
- (6)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묵과하지 않고 적절한 때에 개입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존재를 뚜렷이 부각시켜 그들로 하여금 당신을 신뢰하게 하셨던 것이다.

2. **㉠ 헤롯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라(1절).**

- ㉠** (1) 본절에 나타난 헤롯은 아그립바 1세(Agrrippa I, A. D. 37-44) 로 아리스토틀루스(Aristobulus) 와 베레니스(Berenice) 사이에서 출생했다.
- (2) 먼저 헤롯가(家)의 계보를 보면 다음과 같다.



헤롯 가(家)의 보충 설명

- (1) 헤롯은 10명의 아내가 있었다. 위에 언급된 이름 외에 2명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고 나머지 3명은 팔라스, 페드라, 엘피스이다.
- (2) 헤로디아의 첫 남편이자 살로메의 아버지.
- (3), (6), (7) 유대 왕 (4) 갈릴리의 분봉왕 (5) 이두래의 분봉왕 (8) 디도의 아내 (9) 베스도의 아내 (10) 헤롯(빌립)의 첫 아내, 안디바의 두번째 아내 (11) 헤롯(빌립)의 딸, 그의 삼촌 빌립 (5)과 결혼했다.

- (3) 아그립바 1세는 로마에서 갈리굴라(Caligula)와 교제하다가 함부로 말을 하여 티베리우스 황제에 의하여 투옥되기도 하였으나 갈리굴라가 즉위하면서 석방되었다.
- (4) 그는 A. D. 39년 안디바가 로마로 왕의 칭호를 얻으러 왔을 때 로마 황제에게 안디바를 고발하여 그의 영토와 재산을 받았다.
- (5) 그 후 A. D. 41년 갈리굴라가 암살당했을 때 그는 글라우디오의 황제 즉위에 도움을 주어 황제로부터 통치권을 인정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의 통치권을 부여받았다.
- (6) 본장에서 헤롯 아그립바 1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초대 교회를 핍박하여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투옥하였다.
- (7)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인해 벌레가 먹어 죽었다(20-23절).

3. ㉠ '그때'란 언제를 가리키는가? (1절)

- ㉠ (1) 본장에 언급된 헤롯은 아그립바 1세로 B. C. 7년 사형당한 아리스토틀블루스의 아들이었는데, 글라우디오(Claudius)가 가이우스(Gaius)를 암살한 후 황제가 되었을 때(A. D. 41) 아그립바에게 사마리아와 유대 지방을 덧붙여 확장시켜 주었다.
- (2) 한편 그는 다른 왕들에 비해 유대인들에게 많은 인기를 모았는데(참조, 21, 22절) 그 이유는 마카비 혁명 이후에 성립된 유대의 하스몬 왕가의 후손일 뿐 아니라 유대인들의 호의를 얻고자 하는 정책을 베풀었기 때문이다.
- (3) 그가 이런 호의를 얻고자 실시한 정책 중에 바로 본장에 기술되고 있는 기독교인의 박해가 포함되어 있었다.
- (4) 그런데 흉년이 A. D. 44에 시작되어 A. D. 48년까지 계속되었는데 이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가지고 보냄을 받았다.
- (5) 바울과 바나바가 구제 헌금을 모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 때에 이미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는 중이었다.
- (6) 그 이유는 흉년은 A. D. 44년말부터 시작되었지만 베드로가 체포되던 때가 바로 A. D. 44년 무교절(8월)이었기 때문이다(3절).
- (7) 따라서 본서의 저자 누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가 매우 살벌한 박해 기간이었음을 강조하기 위해 '그때'란 말로 시작하여 헤롯의 예루살렘 교회 핍박에 대한 기사를 기술했던 것이다.

4. ㉠ 헤롯의 핍박으로 인해 순교(殉教)한 사람은 누구인가? (2절)

- ㉠ (1) 요한의 형제 야고보로서 그는 이 일로 인해 예수의 12제자 중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다.
- (2) 그는 세베대의 아들로 사도 요한의 형이었는데 이는 복음서에 요한보다 이름이 먼저 등장하였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마10:2; 17:1; 막3:17; 5:37).
- (3) 그의 성장 환경은 비교적 좋은 것으로 평가되는데 그의 아버지는 어부이면서 선주(船主)였고(막1:20; 눅5:11)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도 친분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요18:15).
- (4) 한편 그는 예수의 부름에 즉시 따랐는데 제자들 중에서도 중요한 위치에 올라 베드로, 요한과 함께 특별한 수제자 중의 한 사람이 되었다.
- (5)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께서 살리시는 현장(막5:37; 눅8:51)과 변화산의 사건 현장에 이들 세 사람만 초대되었던 것이다(마17:1; 막9:2; 눅9:28).
- (6)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은 성격이 매우 급하였고(눅9:53, 54) 이기적이기도 하였다(막10:37). 예수께서는 그 성격을 비유하여 보아너게(우리의 아들들이라는 뜻)라는 별명을 지어 주셨다(막3:17).
- (7) 성경의 많은 기록들 중에 본절만 사도들 중 첫 순교자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을 통해 볼 때 야고보가 초대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그의 죽음은 예수의 예언대로 성취된 사건이었다(막10:39).

5. **㉠** 야고보의 죽음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3절)

- ㉠** (1) 초대 교회의 큰 지도자인 야고보의 죽음은 유대인들에게 용기를 주어 베드로의 생명도 빼앗으려는 시도를 하게 하였다.
- (2) 야고보의 죽음이 유대인들에게 기쁨을 주게 된 이유는 선민 의식과 함께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그들의 자존심을 세워 주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 (3) 즉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복음은 수천 년을 내려온 유대인의 율법적 전통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복음의 참뜻을 파악하지 못한 자들로 하여금 이런 태도를 취하도록 만들었다.
- (4) 아그립바는 유대인들의 이런 면을 이용하여 그들의 환심을 사므로 개인적 이득을 얻으려고 꾀하였고, 그리하여 베드로도 잡아들이려고 하였다.
- (5)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싶어하는 의식이 있다. 사단은 인간의 이런 면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데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어린이와 같은 겸손한 태도를 가짐으로 사단의 도구가 되지 말아야 한다.

6. **㉠** 베드로를 체포한 때는 언제인가? (3, 4절)

- ㉠** (1) 그때는 무교절일(無酵節日)이었다.
- (2) 무교절은 유월절인 니산 월 14일 다음날인 15일부터 1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절기이다.
- (3)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유월절을 제정하실 때 규례에 있어서 누룩을 제하라고 하셨기에(출12:3-14) 무교절을 특별히 구분하지는 않는다.
- (4) 한편 유대인들이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 출애굽 당시의 고난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존하기 위해서였다(시143:5, 6).

7. **㉠** 헤롯은 베드로를 언제 처형하려고 계획했는가? (4절)

- ㉠** (1) 그는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군사를 4인 4조로 편성하여 지키게 한 뒤 유월절 후에 백성 앞으로 끌어내어 처형하려고 하였다.
- (2) 이때는 니산 월 14일 저녁 유월절 음식을 먹은 후이다. 따라서 니산 월 15일에 해당한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이날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
- (3) 그런데 헤롯이 베드로의 처형 일을 이날로 택한 것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원근 각처(遠近各處)에서 몰려온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2절).
- (4) 헤롯은 정의보다는 대중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민중들에게 아첨하려 하였고 그 수단으로 불신 유대인들이 기뻐할 베드로의 처형을 생각한 것이다.
- (5) 그러나 이런 일은 2,000년 전 뿐 아니라 현대에도 망상(妄想)에 사로잡혀 있는 어리석은 정치가들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자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6) 세계 역사나 교회사를 통해 볼 때 정의를 등진 자들의 종말이 비참하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로 나타나 있다.
- (7) 그러므로 우리들의 행위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갈 1:10). 이것이 참 그리스도의 제자 된 행위이다.

8. **㉠** 신앙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취했던 태도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5절)

- ㉠** (1) 그들은 초대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 (2) 베드로를 위시한 초대 교회의 사도들의 위치는 매우 중요하였고 그들을 중심으로 전도 활동이 진행되었다.

- (3) 그런 베드로가 체포, 투옥되었으니 야고보의 죽음과 함께 초대 교회에 큰 충격이었음이 분명하다.
- (4) 그러나 이처럼 어려운 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기도를 통하여 영적 투쟁을 전개하고 있었다. 정치는 폭력을 통하여 교회에 압력을 주었으나 성도들은 그것에 굴복치 않았다.
- (5) 한편 그들의 기도는 단순히 베드로의 구원이라는 차원을 넘었다. 즉 사건이 교회에 대하여 유익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이다.
- (6) 이와 같은 간절함은 기도의 생명이며(눅11:5-8) 또한 합심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약5:16).
- (7) 그러므로 어떤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적 태도를 우리는 본받아야만 할 것이다.

9. **㉠ 예루살렘 성도들이 기도하는 동안 베드로는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6절)**

- ㉠** (1) 베드로는 헤롯이 처형하기 전날 밤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고 있었다.
- (2) 이때는 유월절 밤인데 로마식 투옥 방법으로 잠잘 때 손에 착고를 채운 뒤 옥에 가뒀다. 그 뿐 아니라 베드로 옆에 두 군사를 두어 전혀 도망할 수 없게 하였다.
- (3) 그러나 이때 베드로는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고 편하게 잠을 자고 있었다.
- (4)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의탁한 성도는 두려움이나 걱정에 휩매여 있기 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받게 될 영광의 상급에 대한 소망(딤후4:7,8)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한다.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모든 일을 할 때 우선 순위를 가려야 하고, 어떤 상황에 처할 때 그것의 경중(輕重)을 따져 하나님을 위한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10. **㉠ 옥에 갇혔던 베드로는 어떻게 풀려 나게 되었는가? (7-11절)**

- ㉠** (1) 베드로가 옥에서 자고 있을 때 천사가 그를 깨워 데리고 옥을 빠져 나왔다.
- (2) 천사는 베드로의 손에 묶은 쇠고랑을 풀고, 옥을 지키는 군사들이 그 옆과 다른 문에 지키고 있었으나 아무 일도 감지(感知)하지 못하게 하였다.
- (3)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합심하여 드린 것에 대해 응답하신 결과였다.
- (4) 이런 사건은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처럼 초자연적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기도 한다.
- (5) 또한 이 경우는 진실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구원받는 데 그분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음을 강하게 시사(示唆)해 주고 있다.
- (6) 이런 사실은 초대 교회 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나타나 기독교 역사의 맥을 이어오며 그분의 능력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11. **㉠ 천사가 옥에 나타났을 때 그 안은 어떻게 되었는가? (7절)**

- ㉠** (1) 주의 사자가 옥중에 나타나매 그 안에 광채가 조요(照耀)하였다.
- (2) 이 빛은 천사의 나타남으로 인한 초자연적인 광채, 즉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었다(마28:8; 눅2:9; 24:4).
- (3) 이 영광의 빛은 사람이 인공적으로 창출(創出)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빛이다(계21:23).

12. **㉠ 천사는 베드로를 깨운 뒤 무엇을 명령했는가? (8절)**

- ㉠** (1) 천사는 베드로를 급히 깨운 뒤 띠를 띠고 신을 들메고 겹옷을 입고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였다.
- (2) 천사는 죽음의 구덩이를 급히 떠나라고 베드로를 재촉했는데 우리도 죽음의 길로 빠져들게 유혹하는 죄의 요소들을 끊어 버리고 생명의 길을 걷도록 해야 한다.

- (3) 한편 베드로가 몸에 착용한 것은 띠와 신발과 겂옷이다.
- (4) 띠는 가죽(왕하1:8)과 베(렘13:1) 등으로 만들어졌는데 군인이 칼을 허리에 차기 위한 목적과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의복을 묶는 데 사용하였다.
- (5) 신발은 일반적으로 샌들(sandal)인데 발바닥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했다. 그것은 바닥이 나무나 가죽으로 되어 있었다. 또한 겂옷은 길고 험거운 형태의 옷으로 각종 채색을 하여 사람들의 신분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 (6) 본절에 나타나는 급박한 상황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던 전날밤에 유월절 의식을 지키던 일을 기억하게 한다(참조, 출12:11).

13. **㉠** 베드로가 천사의 인도를 받아 감옥을 나오는 과정은 어떠했는가? (9, 10절)

- ㉠** (1) 천사의 인도를 받아 감옥을 나오는데 마치 환상인 듯한 상태에서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하는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려 어느 거리에까지 가게 되었다. 거기서 천사는 떠나갔다.
- (2) 이와 같은 본질의 상황을 볼 때 베드로가 갇혀 있던 감옥이 어떤 곳인지는 알 수 없어도 그를 지키기 위한 경계가 매우 삼엄했음을 느낄 수 있다.
- (3)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구원하시는 데 옥졸들의 눈을 가리워 보지 못하게 하시고 옥문도 열어 그로 하여금 쉽게 나오게 하셨다.
- (4) 당신의 백성을 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은 홍해를 가르실 때(출14:21, 22), 사사들을 도우실 때(삿7:22; 15:14-17), 사도들의 복음 전도를 도우실 때(행16:25, 26)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 (5) 우리들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이제는 더 담대해질 필요가 있다. 비록 죽음이 눈앞에 닥쳤다고 해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다.

14. **㉠**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깨달았을 때 무슨 고백을 하였는가? (11절)

- ㉠** (1) 환상으로 착각했던 것이 천사가 떠난 뒤 서늘한 밤 공기에 정신이 들어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
- (2) 그러자 베드로는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고 고백하였다.
- (3) 이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가 옥졸을 매수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써서 그곳을 빠져 나왔을 것이라고 주장한다(Williams, F. C. Burkitt).
- (4) 물론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인간들을 대리로 사용하심으로 당신의 백성을 위한 일을 추진하시기도 한다.
- (5) 그러나 베드로의 고백은 철학적인 회의주의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기적적으로 구출되었음을 분명히 밝혀 준다.

15. **㉠** 베드로는 그 밤에 어디로 찾아갔는가? (12절)

- ㉠** (1) 그는 자신을 위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찾아갔다.
- (2) 일반적으로 이 집은 그리스도의 마지막 만찬이 있었던 곳으로 알려져 있고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 된 곳이었다.

16. **㉠** 마가 요한(Mark John)에 대하여 설명하라(12절).

- ㉠** (1) 그는 바나바의 생질로 바울과 바나바의 보조자이고 마가복음의 저자로 알려져 있다.
- (2) 요한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요한나>에서 유래하였고 마가의 헬라이어 <말코스>는 라틴어의 마르쿠스(Marcus)의 음역이다.

- (3) 이처럼 히브리어 이름에 헬라어가 덧붙여진 것은 로마의 시민이거나 아니면 로마인 가정에서 노예로 생활을 했었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 (4) 4:36, 37에 의하면 그는 레위 족속이고 구브로가 고향이었다.
- (5) 한편 성경에 그의 초기 생활에 관한 기록은 없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의 모친 마리아의 집에서 환영을 받았다는 것을 볼 때 초기부터 베드로와 가까운 관계를 형성했음을 알 수 있다.
- (6) 그에 대한 신약의 특징적 사건은 A. D. 46년 바울과 바나바가 구호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그와 함께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잠시 후 전도 여행을 떠나는 바울과 바나바의 협조자가 되었다(13:5).
- (7) 그러나 그는 버가에서 두 사람과 이별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는데(13:13) 바울은 그를 다시 데리고 전도 여행을 가야 한다는 바나바의 주장을 강력히 거절하였다(15:37, 38). 그 결과 바울과 바나바도 헤어지고 말았다.
- (8) 이후부터 마가는 사도행전의 기록에서 누락되었지만 골4:10에 마가를 언급하고 몬1:24에서는 동역자로 언급했을 뿐 아니라 딤후4:11에서 '나의 일에 유익한 자'라는 바울의 언급을 볼 때 그들의 관계가 호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 (9) 2세기의 초대 교회 기록은 마가가 로마에서 베드로의 통역자로 일했고 제 2복음서를 기록했다고 한다. 또 역사가 유세비우스(Eusebius)는 알렉산드리아에 세워진 교회를 마가에 의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17. ㉠ 베드로가 돌아온 것을 안 계집아이와 기도하던 자들의 차이는 무엇인가? (13-15절)

- ㉠ (1) '장미'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로데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뛰어들어가 기도하던 자들에게 그의 생환(生還)을 알렸으나 그들은 믿지 못하고 오히려 계집아이를 미쳤다고 하였다.
- (2) 여기서 사실적인 믿음과 추상적인 믿음의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 로데는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기도 응답으로 인한 그의 생환을 알았으나, 기도하던 자들은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는 것이 소원이었으나 한편 의심도 갖게 되었다.
- (3)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신앙 생활도 이와 유사한 면이 많다. 즉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의심을 갖게 된다.
- (4) 주께서는 믿고 구하면 다 응답된다고 가르치셨고(눅11:24), 그와 함께 의심이 많은 자들에게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고 하셨다(요20:27-29).
- (5)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은 보아야만 믿는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 더 성숙하여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며 주의 일군으로 쓰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18. ㉠ 로데의 주장에 대하여 기도하던 자들은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15절)

- ㉠ (1) 그들은 로데가 본 것이 진짜 베드로가 아닌 그의 천사라고 하였다.
- (2) 그때의 많은 사람들은 각 사람들을 지키는 수호 천사가 있다고 믿었다(참조, 창48:15, 16; 단3:28; 6:22; 마18:10; 히1:14).
- (3)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가 그 밤에 감옥에서 죽고 그의 목소리로 말하는 천사가 이를 교회에 알리기 위해 나타났다고 생각한 것이다.
- (4) 이것은 조로아스터교의 프라바쉬(fravashi, 인간의 수호자) 개념과 비슷하다. 그리고 외경 토비트 5:4 이하에 나오는 천사 라파엘의 역할도 이와 비슷하다.
- (5) 여기서 우리는 경건하다고 인정하는 초대 교회 성도들조차 얼마나 더디 믿는가를 분명히 알게 된다.

19. ㉠ 베드로는 대문을 열고 자신을 맞이한 성도들에게 무엇을 알려 주었는가? (17절)

- (A) (1) 그는 먼저 그들을 조용하게 한 뒤 주께서 자신을 감옥으로부터 나오게 한 일을 말하고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도 전하라고 부탁하며 다른 곳으로 떠나 갔다.
- (2) 그는 모든 일을 간략하게 설명하고서 예루살렘을 떠났는데 그의 행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수리아의 안디옥이라는 의견이 가장 유력하다.
- (3)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의 구원은 기도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응답되어 확신을 주었던 것이다.

20. **㉠** 베드로가 감옥에서 구출된 사실을 특히 누구에게 전하라고 하였는가? (17절)

- (A) (1) 그는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그 사실을 전하라고 하였다.
- (2) 야고보는 2절에 등장한 순교자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던 예수의 형제 야고보이다(15:13; 21:18; 고전15:7; 갈1:19; 2:9, 12).
- (3) 이 야고보는 예수의 동생들 중에 나이가 가장 많은데(마13:55; 막6:3) 신약에서는 단 순히 야고보라고만 불리어졌다(약1:1; 유1:1).
- (4) 그는 처음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는 않았고(요7:5) 때때로 예수를 비난하기 까지 하였다(요7:2-4).
- (5) 그러나 그의 개종은 놀라운 변화였다. 어떤 과정을 거쳐 변화가 있었는지 성경상 기록은 없으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의 사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고전15:7).
- (6) 이 일로 인하여 야고보는 예수 부활의 생생한 증인으로 선택되었고, 충실한 신앙인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탁월한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갔다(1:2; 고전9:1).
- (7) 그는 예리한 통찰력과 깊은 사고력이 있었고 그의 말은 큰 영향력을 끼쳤다(15:12-21).
- (8) 이처럼 활동하던 야고보는 A. D. 62년경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다고 전해진다.

21. **㉠** 베드로의 탈출로 인하여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18, 19절)

- (A) (1) 옥을 지키던 군사들은 베드로의 탈출로 인해 소동(騷動)하였고 헤롯은 파수군들을 심문하고 죽이라고 명령한 뒤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갔다.
- (2) 헤롯은 베드로의 탈출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인 줄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 (3) 그래서 파수군의 잘못으로 죄수가 탈출하면 그 대신 파수군을 처형하는 로마의 법(참조, 16:17)을 집행하도록 명령했다.
- (4) 한편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갔는데 이는 가이사랴가 로마의 유대 도(道)에 속해 있었고 총독 정치 아래서 유대의 수도(首都)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21:10).

22. **㉠** 헤롯은 베니게 지방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으며 그들은 어떻게 처신을 하였는가? (20절)

- (A) (1) 헤롯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매우 미워하였다. 그러나 베니게 사람들은 헤롯의 왕국에서 나는 양식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왕의 신하인 블라스도와 사귀고 그를 통하여 헤롯과의 우호 관계를 이루려고 하였다.
- (2) 두로와 시돈은 베니게 해안의 성들이고 이곳은 수리아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헤롯의 관할 구역이 아니었다.
- (3) 그러나 솔로몬 시대와 마찬가지로(참조, 왕상5:9-11) 두로와 시돈은 갈릴리 지방의 양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 (4) 그런데 가이사랴는 북쪽에 위치한 두로와 시돈 사이에 치열한 무역 경쟁이 있었고 그것을 헤롯이 싫어하게 되었다.
- (5) 다급해진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헤롯과 화친하기 위해 그의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이용하게 되었다.
- (6) 블라스도(Blastus)는 성경에서 본절에만 언급되어 있는데 본절을 통해 유추해 볼 때 헤롯과 상당한 친분이 있었고, 매우 큰 영향력을 끼쳤던 것 같다.

23. ㉠ **헤롯의 최후는 어떠한가? (21-23절)**

- ㉠ (1) 어느 날 헤롯이 왕복(王服)을 입고 백성들에게 말할 때 백성들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외쳤다. 그런데 그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매 충(蟲)이 먹어 죽었다.
- (2) 이 사실에 대하여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Josephus)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 (3) 헤롯은 유대 통치 3년이 지난 후 가이사라에 왔는데 거기서 가이사들 위한 경축 행사를 벌였다. 그때 그는 행사 둘째 날이 되어 은으로 짠 옷을 입고 행사장에 들어갔는데 햇빛에 비친 그의 모습으로 인해 백성들은 그를 신으로 추앙하는 말을 했다.
- (4) 그런 말을 들은 헤롯은 불경건한 아침에 대하여 질책하지 않았는데, 그는 위의 줄에 얽은 올빼미를 보고 재앙의 사자임을 깨달았다.
- (5) 동시에 그는 배의 통증을 느끼고 궁궐 안으로 옮겨졌으나 5일 동안 통증으로 고생하다가 왕위에 오른 지 7년 만인 54세에 죽었다.
- (6) 피조물인 인간이 조물주의 위치에 서도록 유혹하는 것은 사단이다(참조, 창 3:5). 그러나 그런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을 맞이하게 된다(참조, 창 3:16-19).

24. ㉠ **교회의 어려움과 말씀의 확장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24절)**

- ㉠ (1)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어려움이 교회에 있었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 많이 전파되었다.
- (2) 교회를 핍박하던 헤롯 아그립바 1세의 죽음과 말씀의 흥왕은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 (3) 사단의 계획과 인간의 잔꾀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교회가 핍박을 받고 사도가 순교하고 투옥되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 많은 곳에 전파되었던 것이다.
- (4)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조그만 고난은 반드시 필요하다. 교회가 너무 평안한 것만 찾으면 외형적인 면은 좋게 보일 수 있으나 내적으로는 편의주의와 쾌락주의가 일어나 부패하므로 오히려 진리가 왜곡되는 경우들이 너무 흔하기 때문이다.

25. ㉠ **유대에 있었던 흉년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갔던 사울과 바나바는 임무를 마치고 어디로 돌아갔는가? (25절)**

- ㉠ (1)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방 교회의 부조에 관한 일을 마치고 마가 요한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 (2) 11:27-30에는 헤롯의 박해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대표를 파견했는데 헤롯의 죽음 뒤에 이 귀절이 나오는 것은 일을 마치고 그가 죽은 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기 때문이다.
- (3) 한편 그들이 임무를 끝내고 안디옥으로 귀환할 때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간 것은 이방 전도를 위한 활동의 준비를 한 것이었다.

본장의 요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23절).

제 13 장 세계를 향한 복음의 확장 - 바울의 제 1 차 전도 여행 (1)

단락구분 1-3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자로 세움을 받다 / 4-12 첫번째 전도지인 구브로에 도착하다 / 13-14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다 / 15-41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행한 바울의 설교 / 42-43 설교 후에 나타난 반응 / 44-52 이방인의 회심과 유대인의 시기

1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라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2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4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5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6 온 섬 가운테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 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7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8 이 박수 엘루마는(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9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10 가로되 모든 계제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11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12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히 여기니라

13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14 저희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15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

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16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들으라

17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18 광야에서 약 사십 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시고

19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라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약 사백 오십 년간)

20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들 주셨더니

21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사십 년간 주셨다가

22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23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썩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24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25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밭의 신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26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27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옹하게 하였도다

28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 달라 하였으니

29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

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30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31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저희가 이제 백성 앞에 그의 증인이라

32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33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34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35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36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좇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씩음을 당하였으되

37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38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39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40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41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이 너희는 놀라고 망하

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42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43 폐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좇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이라 권하니라

44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45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46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47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48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49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50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꾀박케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51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 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52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1. ㉠ 본서에서 본장이 차지하는 위치의 중요성을 설명하라.

㉠ (1) 본장은 본서를 이분(二分)할 때 그 기준이 되고 있다.

(2) 앞부분(1-12장)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한 내용이고, 뒷부분(13-28장)은 수리아 안디옥을 기점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이 이방 세계로 전파된 내용이다.

(3) 따라서 본장부터는 교회사(教會史) 뿐 아니라 세계사에 큰 변화를 가져온 놀라운 사건이 전개되어진다.

(4)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초대 교회의 원시적인 형태가 사도 바울의 4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 소아시아에 교회가 설립되면서 전세계를 향한 복음의 문이 열린 것이다.

(5) 그러므로 그 시발점이 된 본장은 14장과 연결되어 바울의 제 1차 전도 여행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6) 본장에는 바울이 바나바와 그의 생질인 마가 요한과 전도 여행을 떠나 구브로 섬과 비시디아 안디옥까지의 여정과 전도 활동이 기록되어 있다.

(7) 그러나 구브로 섬의 바보에서 마가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불상사가 생기기도 하였다.

(8) 한편 바울의 사상은 유대교와 관계 없이 이방인들에게 전도하여 회심자들을 얻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래서 회심한 사람들이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지 않는 것도 무관하게 여겼는데 이는 유대적 뿌리를 가진 초대 교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15장에 나타난 예루살렘 총회의 회집 계기가 되었다.

2. **㉠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로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1절)**

- ㉡** (1)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바나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젓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다.
(2)

이 름	내 용
바 나 바	9 장의 ㉠ 18을 참조하라
시 므 온	니게르는 그의 별명으로 '검다'는 뜻인데 아프리카 출신의 그리스도인이다. 혹자는 그가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시몬이라고 한다(눅 23:26)
루 기 오	'빛'이라는 뜻의 이름이며 구레네 사람이다(속사도 시대에는 그가 누가복음과 본서의 저자로 여겨지기도 하였다)
마 나 엔	헤롯의 젓동생인 그는 헤롯 안티파스의 양형제 또는 가까운 벗으로 키워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왕족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을 볼 때 그의 믿음이 매우 독실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이름은 '위로자'라는 뜻으로 히브리어로는 므나헴이다
사 울	7 장의 ㉠ 54를 참조하라

3. **㉠ 안디옥 교회에 있던 두 직분은 무엇인가? (1절)**

- ㉡** (1) 선지자와 교사적이다.
(2) 선지자는 당시 교회의 선교 사역의 정규 요원이었다(11:27;21:9, 10; 롬 12:6, 7; 고전 12:10, 28; 13:2; 엡 4:11, 26).
(3) 그리고 교사는 선지자들보다는 성령의 영감을 덜 받은 것 같다. 그러나 말씀을 가르친다는 측면에서 성령의 계속적인 지도를 받아야만 했을 것이다.
(4) 교사는 가르치는 일(헬, 디다스칼리아)을 하였는데 그것은 성령의 은사로 간주되었고, 여자는 여기서 제외되었다(딤후 2:21).

4. **㉠ 안디옥 교회의 직분자들은 어떤 일을 하였는가? (2절)**

- ㉡** (1) 그들은 주를 섬겨 금식하였다.
(2) '섬기다'라는 말은 헬라어(레이투르제오)로서 유대인들 사이에 제사장의 봉사에 널리 사용되던 말로 기독교 교회에서는 선지자들(헬, 프로페타이)과 교사들(헬, 디다스칼로이)의 봉사를 나타내는 말로 받아들여졌다.
(3) 그러므로 본절이 의미하는 것은 직분자들이 성스러운 공적인 예배를 진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 한편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유대의 종교적 관습에 따라 금식을 하였는데 율법에는 단 하루, 대속죄일(the Day of Atonement)에 금식하도록 되어 있다.
(5) 금식은 생명을 내걸고 하는 것이기에 기도의 응답을 속히 받을 수 있고 영혼을 단련하며(시 69:10), 하나님의 인도와 능력을 얻어(삿 20:26, 27; 마 7:21) 시험을 이기게 해준다(마 4:1-11).

5. **㉠**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하신 명령과 그에 대한 그들의 순종은 어떠했는가? (2, 3절)
- ㉡** (1)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셨고, 그들은 금식 하며 기도한 뒤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었다.
- (2)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군으로 택한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헬, 아포리사테)고 하셨는데 이는 ‘구별’, ‘성별’의 의미를 내포한다(참조, 롬 1:1; 갈 1:15).
- (3) 또한 그들은 두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한 뒤 안수식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 세계에 전할 선교(宣敎)의 사명을 받는 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 것이다(9:9; 14:23; 눅 2:37; 5:3).
- (4) 이와 같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선교사들을 위해 얼마나 많이,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지 깨닫게 된다.
6. **㉠**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도착한 첫번째 목적지는 어디인가? (4절)
- ㉡** (1) 그들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갔다.
- (2) 실루기아(Seleucia)는 지중해 동북쪽 모퉁이 수리아 연안에 위치해 있는데 오론텐스(Orontes) 강 입구 북쪽으로 약 8km 지점에 있었다. 안디옥은 여기서 내륙으로 4.8km 떨어져 있다.
- (3) 구브로(Cyprus)는 길이가 224km, 폭이 69km에 이르는 섬으로 길리기아 남쪽 지중해의 북동쪽에 위치해 있고 수리아 방향으로 떨어진 큰 갑(岬)이 있다.
- (4) 구브로 섬의 이름은 그 섬의 주산물인 청동을 의미하는 말에서 파생되었다.
7. **㉠** 바나바와 사울이 도착한 곳은 어디이며 어떤 일을 하였는가? (5절)
- ㉡** (1) 그들은 구브로 섬의 살라미에 도착하여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때 바나바의 생질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다.
- (2) 살라미(Salamis)는 구브로 섬 동쪽의 중요한 성읍으로 B.C. 58년 이후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상업 도시로 번성했다. 그러나 A.D. 116년 트라야누스(Trajanus, A.D. 98-117) 황제는 유대인의 반란을 계기로 이 성읍을 파괴하였다.
- (3) 바나바와 사울은 첫 기착지인 이곳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이방을 위한 사도의 직을 시작하였다.
- (4) 요한에 관하여는 12장 ㉠16을 참조하라.
- (5) 한편 그들은 말씀을 전할 때 흩어진 유대인(Diaspora)의 회당에서 시작하였는데, 이는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었으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이다(롬 1:16).
- (6)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나는데(요 4:22) 메시야는 다윗의 자손이요, 구속은 이스라엘 안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구원의 복음은 당연히 유대인부터 시작되어야 했다.
- (7) 이것은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므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구브로 섬 전체를 복음화시키려는 포석(布石)이었다.
8. **㉠** 살라미에서 말씀을 전한 두 사람은 어디로 장소를 옮겼는가? (6절)
- ㉡** (1) 그들은 섬 가운데를 지나 바보에 이르러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다.
- (2) 바보(Paphos)는 구브로 섬의 남서부 연안 평야에 있는 성읍으로 베니게인들에 의하여 개설(開設)되었다. 이곳에는 비너스(Venus)의 주 신전(主神殿)이 있었다.
9. **㉠** 바나바와 사울이 바보에서 만난 자는 누구인가? (6-11절)
- ㉡** (1) 그는 거짓 선지자인 박수 바예수였다.
- (2)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이란 뜻인데 그에게는 ‘박수’라는 뜻의 엘루마라는 이명(異名)이 있다.
- (3) 그는 서기오 바올이 구브로 총독으로 있을 때 수행원이었고 총독에 대한 사울의 전도

를 방해하던 자였다. 그러나 사울의 저주로 소경이 되었다.

10. **㉠** 총독(總督)의 직위에 관하여 설명하라 (7절).

- ㉠** (1) 총독(governor)은 왕이 특정한 지역이나 지방을 다스리기 위해 임명하는 통치자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그의 통치권은 자신이 아닌 최고 군주의 권위와 동등하다.
- (2) 이 명칭에 대하여 구약에서는 총리(창 42:6), 통치자(렘 30:21), 박사(단 2:48) 등으로 표현되었다.
- (3) 총독에 해당하는 가장 일반적인 히브리어는 <페하>인데 아카드어의 <벨 파하티>에서 온 말이다. 이것은 왕상 20:24에서 볼 수 있듯이 왕보다는 계급이 낮지만 통수권(統帥權)을 보유하고 있었다.
- (4) 신약에서 이 명칭은 헬라어 <헤게몬>으로 쓰여졌는데 이는 로마 황제의 특사나 행정 장관, 지방 총독 등으로 표현되었다.
- (5) 특히 이들은 로마 제국을 대신하여 다스렸는데(벧전 2:14) 어떤 자들은 한 장군에 의지하여 군대의 지원을 받았으나 어떤 자들은 로마의 군단(軍團)을 거느리기도 하였다.
- (6) 이 총독은 임기가 1년이지만 대부분 재임명되었고 법률을 관장했으며 사형권도 가지고 있었다(마 10:18; 막 13:9; 눅 21:12).

11. **㉠** 구브로의 총독은 누구인가? (7절)

- ㉠** (1) 그는 서기오 바울(Seogius Paulus)이었다.
- (2) 서기오는 로마 원로원 의원의 이름으로 B.C. 53년에 악명 높았던 배교자(背敎者) 루시우스 서기오 카스틸라와 동일 가문의 귀족이었다.
- (3) 본질의 서기오 바울은 사도 바울과 접촉하여 기독교로 개종하였다.
- (4) 여기서 서기오가 구브로의 총독이었다는 것은 그 당시 구브로가 원로원 지방으로 원로의 지배를 받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12. **㉠**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을 부른 이유는 무엇인가? (7절)

- ㉠** (1) 그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므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였다.
- (2) 그는 '지혜 있는'(헬, 쉬네토스) 사람이라고 기록되었는데 '이해력이 있는', '현명한' 등의 뜻이 있다.
- (3) 따라서 이 말은 그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의미이다.
- (4)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자에게 적절한 기회와 사람을 통하여 길을 열어 주셔서 믿음을 갖고 구원을 얻게 하신다(참조, 8:26-39).

13. **㉠** 신앙을 갖고자 하는 자에 대한 사단의 방해는 어떠한가? (8절)

- ㉠** (1) 총독의 수행원이었던 거짓 선지자 박수 엘루마는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힘을 썼다.
- (2) 엘루마는 총독이 신앙에 관심을 갖게 되면 자신이 거짓 선지자로서 '궁중 마술사'라는 직책이 흔들리기 때문에 극렬히 반대하였다.
- (3) 박수(헬, 마고스)는 본래 미디어의 승려 계급을 지칭하는 용어이었으나 그리스도 시대에는 각종 마술과 주술적 치료를 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뜻을 갖게 되었다.
- (4) 한편 누가는 엘루마를 거짓 선지자라고 불렀는데 이는 그가 신의 계시의 전달자인 양 허세를 부렸기 때문이다.
- (5) 그러나 여기서는 엘루마의 방해보다는 그 이면에 복음의 전파를 싫어하는 사단의 간계가 숨어 있음을 간파해서는 안 된다.
- (6) 사단의 방해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뱀으로(창 3:1-5), 여러 고난으로(욥 1:13-22; 2:7-9; 고후 11:22-27) 나타나 성도들의 약한 곳을 집중적으로 공략한다.
- (7) 그러나 성도들은 언제나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을 때 모든 어려움

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14. ㉠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엘루마에 대한 사울의 책망은 무엇인가? (9-11절)

- ㉠ (1) 바울은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책망할 때 '모든 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 라고 지적한 뒤 그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였다.
- (2) '악행'이라는 헬라어 <라디우르기아>는 신약에서 이곳에만 나오는데 무절제한 행위 등을 가리킨다.
- (3) 그리고 사울은 복음의 진리에 대항하려고 힘쓴 엘루마를 '마귀의 자식' (참조, 요 8:34, 44; 요일 3:10) 이라고 하였다.
- (4) 그러나 그에게 소경이 되도록 저주했으면서도 '얼마 동안' 이라고 기간을 제한한 것은 아직도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다.
- (5) 사울은 여기서 엘루마의 눈을 멀게 했는데 이것은 그들이 별과 구름을 보고 미래를 점치는 일을 하였기에 서기오로 하여금 마술사가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다.

15. ㉠ 사울의 다른 이름은 무엇인가? (9절)

- ㉠ (1) 그의 다른 이름은 바울(Paul)이다(참조, 롬 서론㉠ 2).
- (2) 사울을 바울로 부르게 된 최초의 기록이 바로 본절이지만 언제부터 그의 이름을 바울로 바꾸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본절 이후로 그는 바울이란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
- (3) 한편 누가는 지금까지 바나바와 사울로 기록하였는데 이는 바나바가 모든 일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 (4) 그러나 이제부터는 성령께서 그를 이방의 전도자로 쓰시려는 때이므로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그가 로마식 이름인 바울로 바꾸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 (5) 그는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에 두 가지 이름이 자연스럽게 불리웠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개심(改心)을 하면서 이름을 바꾸었다는 말은 타당치 않다.

16. ㉠ 바울이 제 1 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얻은 첫번째 수확은 무엇인가? (12절)

- ㉠ (1) 그것은 구브로 총독 서기오 바울이 개종한 일이었다.
- (2) 그의 개종에는 박수 엘루마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다가 저주를 받아 소경이 되는 사건이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 (3) 물론 그 섬에서 서기오만 개종한 것은 아닐 것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큰 교회를 형성했을 것이다.
- (4) 그러나 그의 개종은 바울의 전체 사역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된 사건이었다.
- (5) 즉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새 장(場)이 열린 것으로 바울은 유대인의 자세를 버리고 직접 그들과 부딪히고 그들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방법을 터득하였다.
- (6) 이것이 누가가 내세우는 바울의 제 1 차 전도 여행의 중요한 사건이다. 그리고 바울도 총독 서기오의 개종을 이방인 전도에 대한 새로운 국면으로 이해하였고 아울러 그의 전도 사역의 선례(先例)로 받아들였다.

17. ㉠ 바울의 두번째 전도지는 어디인가? (13절)

- ㉠ (1) 그는 구브로 섬의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다.
- (2) 밤빌리아(Pamphylia)는 소아시아 남쪽 해안의 중간쯤에 위치하였는데 산맥이 바다 쪽으로 완만하게 뻗어 있는 해안 저지대 지방이다.
- (3) 해안 길이는 약 120km이며, 폭은 약 48km이고 동편 길리기아, 서남편 루기아, 북편의 비시디아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다.

- (4) 이곳은 루디아, 페르시아, 알렉산더, 셀류쿠스 왕조와 버가모, 로마의 침공을 받았고, A. D. 43년경에 갈라디아로부터 분리되었다. 그리고 A. D. 69년에 갈라디아와 함께 한 총독의 지배를 받았으며 A. D. 76년에는 내륙인 비시디아까지 영토가 확장되었다.
- (5) 버가(Perga)는 밤빌리아의 주요 도시로 해안에서 내륙으로 약 13km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바울은 소아시아 전도 여행 시 이곳을 두 번이나 지나갔다(13, 14절; 14:24, 25).
- (6) 이곳의 기후는 사람에게 매우 나쁘기 때문에 그가 앓은 증병에 관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추론해 보면 아마 풍토병인 말라리아에 걸렸던 것 같다.
- (7) 이곳에서 바울은 그의 전도 사역에 동참했던 마가 요한과 의견 불일치로 헤어져야만 하는 아픔을 겪기도 하였다.

18. ㉠ 구브로를 떠나 밤빌리아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13절)

- ㉠ (1) 거기서 전도 여행에 동참했던 마가 요한이 일행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일이 있었다.
- (2) 성경에는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건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다.
- (3) 그러나 이것을 설명하는 자들은 바울이 말라리아에 걸려 방향을 바꾸어 북상하게 되었는데 마가는 고향 생각도 났으며 그의 삼촌인 바나바를 제쳐놓고 바울이 주동적 역할을 하는 데 불만이 있었다고 한다.
- (4) 그리고 15:37-39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인간적인 감정 외에도 전도를 하는 데 신앙적 갈등이 내재되어 그들이 헤어졌음을 알 수 있다.
- (5) 하여튼 마가 요한이 일행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은 바울에게 적지않은 실망을 안겨 준 것은 사실이다.
- (6) 성도들도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는 명목 아래 서로 의견이 충돌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일들은 매우 조심해야 한다. 특히 신앙인들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주장이 잘못된 것을 인정치 않으므로 해서 교회나 교단이 분열되는 상황을 인식해야 한다.

19. ㉠ 바울과 동행자들이 밤빌리아의 버가를 지나 도착한 곳은 어디인가? (14절)

- ㉠ (1) 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였다.
- (2) 이곳은 오늘날 터키 중남부 지방의 알바크(Yalvac) 근처에 있는 로마의 식민지였다.
- (3) 그런데 이곳을 특별히 소아시아 내륙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밝힌 이유는 11:19에 언급된 수리아 안디옥과 구별하기 위해서였다.
- (4) 이처럼 바울이 소아시아의 내륙 깊숙이까지 중단 없는 여행을 하게 된 것은(그 당시 소아시아 내륙 지방에는 약탈과 살인을 일삼던 무리들이 들끓었다고 함) 오직 복음 전 파라는 한 가지 사실 때문이었다(참조, 고후11:26)
- (5) 이와 같이 복음에 사로잡혀 생활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난관도 문제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격 안에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다(참조, 빌4:13).

20. ㉠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서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인가? (14, 15절)

- ㉠ (1) 바울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을 때 회당장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 사 람을 보내어 백성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 (2) 회당에서의 예배는 먼저 회당장이 기도문을 읽고, 낭독자는 모세 오경과 그것에 관련된 예언서를 낭독하고, 해석자는 율법을 해석하게 되어 있다.
- (3) 그런데 회중 가운데서 교훈을 베풀 사람을 지명하는 일은 회당장의 의무였는데 그때 바울을 지명한 것이다(참조, 눅 4:16, 17, 20).

21. ㉠ 회당에서 행한 바울의 설교 요지(要旨)는 무엇인가? (16-41절)

- Ⓐ (1) 그의 설교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성취에 관한 것이었다.
- (2)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 가운데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 주시리라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예수를 통하여 성취되었다는 것이다.
- (3) 그 예수는 무죄하지만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를 믿는 자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다.
- (4) 바울은 짧은 귀절 속에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독교 교리의 전체 내용을 이스라엘 역사를 바탕으로 잘 설명하고 있다.

22. ⓐ 본장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설교와 7장에 나타난 스테반의 설교를 비교하라.

Ⓐ

	바울	스테반
성 경	16-41절	7:1-53
설교장소	비시디아 안디옥	예루살렘
대 상	흩어진 유대인 (Diaspora) 과 이방인 (16절)	유대인
설교에 포함된 역사 기간	출애굽 - 그리스도의 부활 (B.C. 1446 - A. D. 30)	아브라함의 소명 - 그리스도의 죽음 (B. C. 2091 - A. D. 30)
내 용 개 정	출애굽 → 광야 생활 → 가나안 점령 → 사사 시대 → 왕정 시대 → 다윗을 택함 (언약을 주심) → 세례 요한 → 예수의 출생 → 예수의 죽음과 부활 → 그의 부활을 믿음으로 인한 구원	아브라함의 소명 → 이삭과 야곱 → 애굽으로 팔린 요셉 →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심 → 흉년으로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감 → 모세의 출생과 성장 → 모세의 소명 → 출애굽 → 다윗과 솔로몬 → 의인을 죽임
설교의 중심 주제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그분의 사랑과 죄인의 구원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조상들의 패역한 모습을 통하여 현재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
중 심 귀 절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39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53절)
청 중 의 반 응	설교를 다시 청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많이 좇았다	마음이 찢렸으나 회개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를 돌로 쳐죽이고 더 심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다

23. ⓐ 바울이 안디옥의 회당에서 설교를 할 때 대상이 누구였는가? (16절)

Ⓐ

- (1)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다.
- (2)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진 유대 기독교도들 (Diaspora)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회당 예배에 참석한 경건한 이방인들을 가리킨다 (15:21; 16:14; 17:4, 17; 18:7).
- (3) 바울은 말씀을 전할 때 어느 누구를 가리지 않고 말씀을 전하였다.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별 없이 구원을 주기 때문이다 (롬 1:16).

24.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 인내하신 내용은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17-19절)

Ⓐ

-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인도해 주셨으나 광야에서 패역을

행하여 40년간 고생을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 (2) 이 귀절은 4개 항목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이스라엘이 선민(選民)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 (3)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다. 둘째,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택하셨다. 셋째,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광야를 지나게 하셨다. 넷째,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셨다.
- (4) 그러나 바울은 이 말씀 중에 그들의 패역을 참고, 용서하시며,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
- (5)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자들을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다(참조, 요 13:1).

25. **㉠**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시는 데 약 450년간 걸렸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19절)

- ㉠** (1) 이것은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의 일가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간 때부터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가 지파별로 땅의 배분이 끝난 때까지를 가리킨다.
- (2) 애굽에 머물렀던 기간은 약 400년(7:6)이며, 광야 생활 40년과 가나안 족속을 멸하고 토지를 배분하는 데 10년이 걸렸다는 의미이다(Bruce, Knowling, Weiss).

26. **㉠**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는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20, 21절)

- ㉠** (1) 가나안을 정복할 때까지는 여호수아가 백성의 인도자였으나 그 후 사무엘까지는 사사가 다스렸고 사무엘 이후로는 인간들의 요구로 인간의 왕이 나와 그들을 다스렸다.
- (2) 사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신다는 상징적 의미가 내포된 지도자이다.
- (3) 사사 시대는 첫 사사 오탁니엘(삿 3:8)부터 시작하여 사무엘(삼상 7:2, 15)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까지 총 14명이 통치한 360년간의 기간을 가리킨다.
- (4)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혔다(삼상 8:6-9).
- (5) 결국 인간이 요구한 왕은 실패하여(삼상 13:8-15; 15:4-23) 전장에서 자살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다(삼상 31:1-6).
- (6) 바울이 이런 내용을 설교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통치자이심을 깨닫게 하려는 데 있었다.

27. **㉠** 인간의 요구로 세워진 왕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세워진 왕의 차이는 무엇인가? (22절)

- ㉠** (1) 인간의 요구로 세워진 왕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여 40년 만에 폐위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당신의 뜻에 합당한 자였기에 그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였다.
- (2) 그 뜻에 합당한 자는 곧 다윗이었다. 그에 관하여 본절에 나타난 것은 삼상 13:14과 시 89:21의 복합적 의미를 설명한 것이다.
- (3) 그러므로 바울은 여기서 다윗을 언급하지만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말하고 있으며(삼하 7:14) 또한 메시아적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참조, 삼하 7:6-16).
- (4) 인간들의 계획은 그들을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것으로 착각하고 있으나 사울의 실패와 같이 더 비참한 실망의 구렁텅이로 몰고 갈 뿐이다.

28. **㉠**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던가? (22, 23절)

- ㉠** (1)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셨는데 이는 1천 년 후 이스라엘을 위한 구주이신 예수를 보내심으로 성취되었다.
- (2) 바울의 이런 선언은 그의 설교 과정에서도 드러나듯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메시아적 구세주를 세우셨다는 기본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 (3) 바울이 선언하는 약속의 암시는 선지자 이사야가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참조, 사 11: 1-16)- 과 그의 의로운 통치 및 그의 승리 그리고 그의 나라를 세우심을 말하고 있다.
- (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기 위한 상징적 예표로 다윗을 세웠고 그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음을 알리셨다.

29. **㉠**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하셨는가? (24, 25절)

- ㉠** (1)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앞에 세례 요한을 보내사 회개의 세례를 베풀게 함으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였다.
- (2) 세례 요한에 관하여는 요 1장의 **㉠**7을 참조하라.
- (3)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로 인정하였으나 그의 외침과 같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 (4) 그 뿐 아니라 바울이 설교하는 그때에도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세례를 베푸는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 (5) 그러므로 바울은 세례 요한이 예수를 위한 사역자일 뿐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 (6)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무지와 불신은 오늘날에도 자주 반복되고 있는데 바울과 같은 진리의 전파자가 필요하며 또한 진리를 왜곡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순수한 마음이 필요하다.

30. **㉠** 바울이 설교하는 중에 내용이 전환되는 부분의 의의(意義)는 무엇인가? (26절)

- ㉠** (1) 본절부터 바울은 설교의 내용을 전환시키면서 구원의 말씀(福音)으로 청중들을 유도하고 있다.
- (2) 지금까지는(16-25절)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히 소개하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 주시겠다는 언약이 내포되어 있음을 가르쳐 주었다.
- (3) 이제 바울은 그 언약의 구체적 성취에 관하여 37절까지의 부분에서 전하고 있다.
- (4) 바울은 내용 전환에 있어서 청중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쉽게 이끌기 위하여 ‘형제들 이어’(헬, 안드레스 아텔포이)라고 부르면서 말을 시작하였다.
- (5)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사명이지만 그것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좋은 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31. **㉠** 전환된 바울의 설교는 어떤 내용인가? (26-37절)

- ㉠** (1) 이 부분의 설교는 두 가지 역사적 사건을 포함하고 있다.
- (2)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부활이다.
- (3) 바울은 이 사실을 전하면서 예수의 죽음이 유대인의 무지(無知)로 인하여 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일로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셨다고 하였다.
- (4) 따라서 예수의 부활은 하나님의 독자적인 행위에 의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예수의 메시아직(職)이 보증(保證)되었다고 했다. 바울은 그 증거로 구약의 예언을 인용하였다(29, 34 절; 시 34:20; 사 55:3).

32. **㉠** 바울이 설교한 메시아 예언의 성취에 관한 구약의 근거를 밝히라.

㉠

예 언 내 용	성 취	예언된 부분
예수의 수욕	27 절	사 50:6; 52:13-15
예수의 죽음	29 절	창 3:15; 시 109:4; 사 50:6; 53:7, 9, 12; 단 9:26; 미 5:1; 숙 11:12; 13:7
예수의 부활	30 절	시 16:10; 사 53:10, 12

33. ㉠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누구이며 그들의 사명은 무엇인가? (31, 32절)
- ㉡ (1)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은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백성들 앞에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야 할 사명을 갖게 되었다.
- (2) 바울은 1:3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데 그 사실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고전 15:5-7에 기록하고 있다.
- (3) 그러나 4복음서에는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는 그 부활 사건을 갈릴리에 한정시켰고(마 28:7, 10, 16) 마가도 동일하다(막 16:7). 그러나 막 16:9-20에 막달라 마리아와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에게 나타난 사건을 기록하면서 열 한 제자에게 나타나신 장소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 (4) 누가는 유대 지방에만 나타나셨다고 생각했고,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처음에 세 번 나타나셨다고 말한다(요 20장). 그러나 요 21장에서는 세번째 갈릴리에 나타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2, 14절).
- (5) 한편 바울은 단번에 오백여 형제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하는데(고전 15:6) 이 일도 갈릴리에서 일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6) 오늘날 우리는 예수의 부활에 관한 것을 육신적으로 체험하지는 못했으나 그분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체험을 하게 된다.
- (7) 그러므로 산 소망을 가진 우리들은 그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명령을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참조, 마 28:18-20).
34. ㉠ 바울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증거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는가?(32-37절)
- ㉡ (1) 그것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의 성취에 관한 내용이다.
- (2)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어 다시 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는 것이다.
- (3) 바울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메시아적 의미가 담긴 구약의 귀절을 인용하고 있다.
- (4) 첫째 시 2:7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는 말씀을 두번째 귀절인 삼하 7:6-16과 병행(並行) 시키면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신앙 고백을 하나로 묶고 있다.
- (5) 그리고 위의 두 귀절과 함께 사 55:3의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고 한 말씀과 시 16:10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라는 말씀을 서로 연관시켜 구약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실히 성취되었음을 보여 준다.
- (6) 그러므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상상이나 신화적(神話的)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주는 사건임을 알 수 있다.
35. ㉠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은 어떤 것인가? (38, 39절)
- ㉡ (1) 그것은 모세의 율법으로도 얻을 수 없었던 칭의(稱義, justification)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다는 사실이다.
- (2) 이 내용은 구약에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이미 설파(說破)되었고(합 1:5), 바울도 이 사상을 바탕으로 기독교 교리를 세웠다(참조, 롬 1:17; 갈 3:11; 히 10:38).
- (3) 이 칭의 교리는 죄의 전가(轉嫁)에 그 근거를 둔다. 즉 우리의 죄를 부활하신 예수께 모두 이양하는 것이다(고후 5:21).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선포하심으로(롬 8:33) 이 교리가 완성된다.
- (4) 그런데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 전가(imputation)한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이루어는 것이 아니라 단지 믿음으로만 된다(以信得義)는 사실이다(참조, 롬 8:1; 갈 2:16

;골 1:21, 22).

- (5) 그러므로 믿음과 행위의 관계는 의롭다 함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지만(갈 2:16), 의롭다 인정을 받은 자들은 그 결과가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약 2:26)는 것이다.
- (6)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자들은 적극적인 신앙 생활을 통하여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알려야만 한다.

36. ㉠ 바울이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어떤 경고를 주었는가? (40, 41절)

- ㉠ (1) 그는 함 1:5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어떤 결과에 처할지 알려 주고 있다.
- (2) 그것은 복음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죄이므로(히 2:3)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루게 하시는데(전 3:1-11) 어리석은 자들은 형벌을 받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줄 깨닫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 (3) 우매한 자들은 당연히 이런 자리에 빠지고 만다.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도 이런 우매함에 떨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일면서 인간적인 감정으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37. ㉠ 설교를 마치고 회당을 나갈 때 바울이 권면한 마지막 말은 무엇인가? (42, 43절)

- ㉠ (1) 바울이 설교를 마치고 나갈 때 다시 한번 설교해 줄 것을 요청하며 유대인과 경건한 자들이 그와 바나바를 쫓을 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하였다.
- (2) 본질은 바울의 설교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인데 그의 설교에 깊은 감명을 받은 성도들이 흥분한 상태에서 그와 바나바를 따르려 할 때 자제시키는 모습이다.
- (3) 이런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두 사도의 진실한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 (4) 즉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인간을 발견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내려고 노력하였고, 그 결과 초신자들이 무절제하게 추종하려는 것을 절제시켰다(참조, 갈 5:4).
- (5)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돌아보며 신앙적인 경리를 하도록 함으로 영적인 성숙을 돕는 모습은 오늘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본받아야 한다.
- (6) 오늘날 교회가 물질주의에 휘말려 교회 본연의 자세를 잃고 다른 교회의 성도들이라도 자기의 교회로 끌어들이려는 것과 많은 교통 수단을 통하여 먼 지역의 성도들을 흡수하려는 교회 행정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 (7) 교회는 자기가 속한 지역의 복음화에 최선을 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넓은 눈을 가지고 해외 선교나 문서 선교, 교육 선교에 투자를 해야 한다.
- (8) 다른 교회의 성도들을 유치하려는 치졸한 싸움을 버리고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자기들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아는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있다면 한국 교회의 장래는 매우 밝다고 본다.

38. ㉠ 진리를 전파하는 자들에게 닥치는 어려움은 어떤 것인가? (44, 45절)

- ㉠ (1) 다음 안식일에 온 성이 거의 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자 모였을 때 유대인들은 그것을 시기하여 바울의 설교를 변박(辨駁)하고 비방하였다.
- (2) 특히 '시기'는 헬라이어(제로스)를 썼는데 이것은 분노나 적개심이라는 뜻에 더 가깝다.
- (3) 이것은 유대인들의 흥미가 바뀐 것으로 교회 안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던 그들이 이방인들로 인하여 뒷전으로 밀리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 (4) 본질의 이런 상황은 불신자들의 반대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생기는 문제이다. 먼저 믿었다는 것이나, 자기가 자란 모교회 또는 자신이 건축한 교회라는 의식이 앞서서 외부인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자들의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일들을 가리킨다.

(5) 그러나 이런 일들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외적인 것들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자들은 진정으로 신앙적 성숙을 다져 오는 자들에게 위치를 빼앗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참조, 마 19:30).

39. **㉠** 바울과 바나바는 신앙적 교만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깨닫게 하였는가? (46절)

- ㉠** (1)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해야 하는데 그들이 말씀을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에 이방인에게로 향했다고 하였다.
- (2) 바울과 바나바의 이 논지(論旨)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기득권(既得權)을 갖고 있으나(3:26; 롬 1:16; 2:9; 15:8) 그들 스스로 포기하였기 때문에 특권이 이방인에게로 이양되었다는 것이다.
- (3) 신앙적 교만이나 외식이 갖는 폐해(弊害)가 얼마나 큰지 바울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었다.
- (4) 따라서 먼저 믿은 자들은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 정진하여 신앙적 단계를 높이고 뒤따르는 자들을 잘 이끌 수 있는 자리에까지 성장해야만 한다(참조, 딤후 4:7; 6:3, 11; 딤후 2:12; 히 12:28; 벧후 1:6; 3:11, 12).

40. **㉠** 유대인 대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어느 말씀에 근거한 것이었는가? (47절)

- ㉠** (1) 그것은 이사야 49:6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는 말씀에 근거하였다.
- (2) 이 귀절은 마시아를 통한 죄인들의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배타적인 유대인들 외에 온 세상의 인류를 구원하실 원대한 뜻이 포함되어 있다.
- (3) 이 예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되었고(마 9:13)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명을 부여받은 제자들이나 바울도 이방인들을 위해 일하도록 택함을 받았던 것이다(9:15).
- (4)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며 그들의 메시야는 또한 이방인의 메시야도 되시므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할 뿐 아니라 버릴 수 없는 의무이기도 하다.

41. **㉠** 바울의 가르침을 통하여 어떤 자들이 믿게 되었는가? (48절)

- ㉠** (1)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作定)된 자는 다 믿었다.
- (2) 본질은 이방인들이 믿음의 갖게 된 원인이 자신들의 소원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에 의한 것임을 보여 준다(참조, 엡 1:4, 5, 11, 12; 빌 1:6; 딤후 2:9; 벧전 1:2).
- (3) 그러므로 이 말씀은 기독교 예정 교리와 관계가 있다.
- (4) 즉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므로 그분의 계획대로 세상이 움직이게 되어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한다(엡 3:9-11).
- (5) 특히 예정은 도덕적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인데 그 예정에는 모든 인류와 천사와 마귀 나아가 증보자 그리스도까지 포함된다.
- (6) 예정에는 선택과 유기(버리심)가 있는데 선택에는 ①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신 4:37; 7:6-8; 10:15; 호 13:5) ② 특별한 일을 위한 인물의 선택(신 18:5; 삼상 10:24; 시 78:70) ③ 구원받을 개개인의 선택(마 22:14; 롬 11:5; 엡 1:4) 세 가지가 있는데 본질과 관계된 것은 ③이다.
- (7) 그러므로 이 내용은 전인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부의 인류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42. **㉠** 이방인들이 믿음을 갖게 되자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어려움에 빠졌는가? (49, 50절)

- Ⓐ (1) 이방인들이 믿음을 갖고 주의 말씀이 사방에 두루 퍼지자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그 지경에서 쫓아내었다.
- (2) 유대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방해로 하였는데(14:2, 9; 17:5; 18:6) 이곳에서도 교활한 방법을 사용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였다.
- (3) 그러나 스테반이 순교하고 핍박이 더 심해지므로 복음이 각처에 전파된 것과 같이 바울이 받은 핍박은 오히려 비시디아 지방의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다.
- (4) 이를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든지 반드시 당신께서 계획하신 것은 차질 없이 진행하시고 인간적 관점에서 볼 때 실패한 것 같은 일도 하나님께서는 성공으로 이끄시는 분임을 알 수 있다.
43. ⓐ 쫓겨 나는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떠나 어디로 향하였는가? (51절)
- Ⓐ (1) 그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 버리고 이고니온으로 떠났다.
- (2) ‘발에서 먼지를 떼다’는 것은 율법적인 측면에서 성지에 들어가기 전에 깨끗하게 하는 규례를 의미한다.
- (3) 그러므로 주께서도 이 상징적 의미를 도입하여 복음을 수용하지 않는 자들에게 발의 먼지를 떨어라고 하셨는데(눅 9:5) 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낸 것이다.
- (4) 한편 바울과 바나바가 찾아간 이고니온은 소아시아 중부 고원의 남쪽에 있으며 브루기아와 루가오니아의 경계 지방에 위치하고 있다.
- (5) 이고니온(Iconium)에 대한 성경상 언급은 본장과 14, 16장 등 본서에 세 번, 딤후 3:11에 한 번이 있다.
- (6) 이곳은 기독교가 처음 전파되었을 당시 극심한 반대가 있었고 바울도 여기서 심한 핍박을 받았었다(딤후 3:11). 그러나 이곳의 교회는 A. D. 3세기까지 활동이 지속되었다고 전해진다.
44. ⓐ 바울과 바나바의 추방에도 불구하고 비시디아 안디옥 성도들은 어떻게 했는가? (52절)
- Ⓐ (1) 두 사람의 추방이 큰 충격이기는 했으나 안디옥의 성도들은 오히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다.
- (2) 이 말씀은 말씀을 받는 안디옥 성도들의 신앙적 태도를 칭찬하는 동시에 그들과 같은 태도를 갖도록 우리에게 은연중에 교훈하고 있다.
- (3) 안디옥의 성도들은 죽음의 위협과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다는 것은 복음의 참뜻을 알았기 때문이다(참조, 살전 1:6; 히 10:34).
- (4) 또 이런 결과는 이방인들을 위해 전도하는 바울에게 큰 힘을 주고 그 일에 더 매진할 수 있게 하였다.
- (5) 신앙이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고, 사람들은 단지 그 하나님을 알도록 옆에서 보조할 뿐이다.
- (6)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위의 어떤 상황이나 인간적인 일들로 인하여 실망하여 믿음을 버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엡 5:5; 빌 4:4; 살전 5:16-18).

본장의 요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47절).

제 14 장 세계를 향한 복음의 확장 - 바울의 제 1 차 전도 여행(2)

단락구분 1-7 이고니온에서 전도하다 / 8-18 루스드라에서 앓은뱅이를 일으키다 / 19-20a 루스드라에서 박해를 받다 / 20b-28 디베를 방문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다

1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2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3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름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4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5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들로 치려고 달려드니

6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7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8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앓은뱅이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 자라

9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10 큰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11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12 바나바는 쓰스라 하고 바울은 그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허메라 하더라

13 성밖 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판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14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들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15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

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16 하나님이 지니간 세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목인하셨으나

17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케 하셨느니라 하고

18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 하게 하니라

19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들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밖으로 끌어 내치니라

20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디베로 가서

21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22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23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은 바 주께 부탁하고

24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25 도를 버가에서 전하고 앓달리아로 내려가서

26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27 이르러 회교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운을 여신 것을 고하고

28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1. ㉠ 본장의 내용을 설명하라.

㉠ (1) 본장에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후반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2)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핍박을 받아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같은 길을 거쳐 수리아 안디옥까지 돌아오는 과정이 기록되었다.
- (3) 이런 과정 속에서 바울은 복음의 참된 의미를 전달하고 초신자들을 격려하는 데 게으르지 않았다(22절).
- (4) 결국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그 후에 있을 2,3차 여행과 로마까지 여행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은 기회가 되었다.
2. **㉠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난 두 사람은 어디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였는가? (1절)**
- ㉠** (1) 그들은 이고니온에 도착하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였다.
- (2) 회당(synagogue)은 헬라이어 <수나고게>에서 유래한 것으로 종교적, 세속적 목적으로 사람들이 모인 것을 지칭하였다.
- (3) 이 회당의 기원은 팔레스틴이 아닌 디아스포라(Diaspora)의 유대인 소집단들과 마카비 시대의 유대인들에 의하여 탈취된 지역에서 자라기 시작하였다.
- (4) 그렇기 때문에 회당은 고대 바벨론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정신적인 면에서는 어느 정도 헬라의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
- (5) 한편 회당의 조직은 주요 업무를 집행하는 회당장(헬, 알키수나고고스), 회당의 일꾼인 하잔(hazzan), 쉘리아 집불(기도문을 주도하는 자) 등이 있었다.
- (6) 회당에서의 예배는 셰마(shema)의 낭송과 히브리어로 된 토라(Torah)의 봉독이 회중 예배의 실제적인 핵심 행위였다. 그러나 이것은 신약 시대에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
- (7) 바울과 바나바는 이곳에서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처럼 복음을 전하였는데(13:14-43) 역시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3. **㉠ 이고니온에서 있었던 방해 공작은 어떠했는가? (2절)**
- ㉠** (1)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동남쪽으로 약 140km 떨어진 이고니온에서도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다.
- (2)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으로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믿는 형제들에게 악감(惡感)을 품게 하였다.
- (3)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은 반드시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교회 안팎에서 동시에 일어나 사역자들을 괴롭힌다.
- (4) 그러나 바울은 심한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매우 부드럽게 표현하여(살전 2:14-16)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잘 보여 주었다.
- (5) 반대자와 바울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반대자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비굴한 태도를 가졌으나 바울은 담대하였다.
- (6) 그러므로 궁극적인 승리는 진리의 편에 있을 수밖에 없다.
4. **㉠ 반대자들의 노력에 반하여 두 사도는 어떠했는가? (3절)**
- ㉠** (1) 그들은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였는데 주께서는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시므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셨다.
- (2) 본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두 사도는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지만 결코 악과 타협하여 생명의 안전만 피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 (3)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설교가 그리스도 중심의 성격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 (4) 바울은 복음 전도의 변치 않는 사명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禍)가 미치리로다'라는 고백(고전9:16)으로 표현하였고 실천하였다.
- (5) 말씀을 받은 자들(성직자, 평신도 포함)의 오늘날 모습은 어떠한가. 예수의 이름을 팔아 자신의 배만 채우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6) 예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의미를 분명히 이해한다면(마21:12,13; 막11:15-17; 눅 19:45,46; 요2:13-16) 오늘날의 교회는 조금 더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5. **㉠** 두 사도의 전도 사역이 계속되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가? (4,5절)

- ㉠** (1) 성안의 무리가 둘로 나뉘어 유대인을 좇는 자들과 두 사도를 좇는 자들로 양분(兩分)되었고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둘로 치려고 하였다.
- (2) 복음으로 인해 두 종교가 분리될 것은 이미 예언된 것이었다(참조, 미 7:6; 마 10:35). 이런 상황은 어떤 곳에서든지 필연적으로 있게 마련이다(참조, 17:4,5).
- (3) 그러나 분열될 때 반드시 신자와 불신자의 관계에서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 가운데서도 분리가 된다.
- (4)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셨듯이 알곡과 쭉정이 나뉘고(마3:12; 눅3:17) 주께서 먼저 부르실 자가 이런 때에 결정되는 것이다(마20:16).

6. **㉠** 바울과 바나바는 반대자들을 피하여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는가? (6,7절)

- ㉠** (1) 그들은 루가오니아의 성인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다.
- (2) 두 사도는 무리하지 않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 전도의 터전을 옮겼다(참조, 마 10:33).
- (3) 그러나 두 사도는 이고니온에 큰 영향력을 남겼다. A. D. 2세기의 기록은 이고니온 지방의 구전을 잘 묘사하고 있다(Acts of Paul).
- (4) 한편 두 사도가 옮겨 간 루가오니아(Lycaonia)는 소아시아 남부에 있었던 분봉왕 통치령이다. 그러나 이 지역의 명확한 경계는 알 수 없다.
- (5) 루스드라(Lystra)는 소아시아 남부의 중앙 지역에 있는 성읍으로 브루기아의 이고니온 남쪽 약 38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 (6) 이곳은 소수의 로마인이 지배 계급을 형성하였고 다음으로 헬라인들, 끝으로 교육받지 못한 라오디게아인들이 있었다.
- (7) 디모테는 이곳 출신이었고 바울은 이곳을 세 번 방문하였다(16:1-5; 18:23).
- (8) 더베(Derbe)는 로마령 갈라디아 땅 루가오니아 지역의 동남쪽에 위치해 있었다.
- (9) 이곳은 1차 전도 여행 시 들렀던 곳으로 바울은 이곳에 남 갈라디아의 교회들을 세우고 로마 선교를 위해 더 이상 동쪽으로 향하지 않았다.
- (10) 이곳을 지나 동쪽으로 간다면 로마의 국경을 넘어 속국으로 가는 것이 되므로 삼가했다. 그러므로 다음 전도 여행 시에도 이곳을 통과할 때는 소아시아를 지나 서쪽으로 갔다(15:40-16:1).
- (11) 이 지역의 위치는 13장 **㉠** 17의 지도를 참조하라.

7. **㉠**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만난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8절)

- ㉠** (1) 그는 발을 쓰지 못하는 자로 날 때부터 앓은뱅이기에 걸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 (2) 이것은 3:1-10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만난 앓은뱅이의 사건과 유사한 면과 함께 큰 차이점도 발견할 수 있다.
- (3) 그 유사점과 차이점은 **㉠** 8을 참조하라.

8. **㉠** 앓은뱅이의 내적 상태는 어떠한가? (9절)

- ㉠** (1) 그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마음에 믿음이 생겼고 바울도 그것을 알았다.
- (2) 여기서 우리는 3장의 앓은뱅이와 본장의 앓은뱅이의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
- (3) 먼저 3장의 사람은 유대인이지만 본장의 사람은 이방인이고, 전자는 믿음이 없었지만 후자는 믿음이 있었다.
- (4) 그러나 둘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았다. 그리고 모두 구원의 대열에 동참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다.

(5)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당신의 존재를 분명히 드러내시고 자신이 계획하신 목적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성취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다.

9. **㉠ 루스드라의 앓은뱅이가 믿음을 가지고 있던 결과는 어떠한가? (10절)**

- ㉠** (1) 바울이 큰소리로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고 외칠 때 일어나 뛰고 걷게 되었다.
 (2)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사도 바울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성령의 능력과 앓은뱅이의 신앙이 하나가 되어 즉시 그 앓은뱅이는 고침을 받고 일어나 뛰고 걷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3) 따라서 우리는 거저씨만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산이 바다로 옮겨질 것을 명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마 17:20; 눅 17:6)이 그대로 적용되어 나타났음을 깨달을 수 있다.

10. **㉠ 바울과 바나바가 접하게 된 이방 종교의 신들은 어떤 것이었는가? (11-13절)**

- ㉠** (1) 바울과 바나바가 앓은뱅이를 일으킨 놀라운 광경은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두 사도가 회랍의 신인데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내려왔다는 오해를 갖게 하였다.
 (2) 그래서 바나바는 쏘스(Zeus), 바울은 허메(Hermes)라고 하였다.
 (3) 헤르메스는 회랍 신화에서 신들의 전령자요 제우스의 대변인으로 말에 능했을 뿐 아니라 말의 창시자이었다.
 (4) 그런데 바울이 구변(口辯)이 있어 말을 잘했기에 그를 헤르메스로 보았으므로 바나바는 당연히 제우스로 보았던 것이다.
 (5)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관계로 그들은 자기들의 의식 속에 있던 신 관념에 의하여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였다.
 (6) 따라서 우리는 먼저 믿은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알게 된다. 아무리 세상의 지식이 많다고 할지라도 참신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면 그들의 지식은 헛된 것이기 때문이다(참조, 잠1:7).

11. **㉠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신격화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호소하였는가? (14, 15a절)**

- ㉠** (1) 두 사도는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옷을 찢으며 자신들은 루스드라 사람들과 성정(性情)이 같은 사람이므로 신이 아니라고 호소하였다.
 (2) 옷을 찢는 행위는 참람하고 신성 모독적인 일을 보거나 들을 때, 극한 슬픔이나 고통을 표현할 때 나타난다(마 26:25; 막 14:63).
 (3) 루스드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 취한 그들의 행동은 모두가 하나님을 모독한 행위였다.
 (4) 두 사도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일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도 인식하고 있었다.
 (5) 그리스도 안에서 건전한 사고와 삶의 모습을 갖추고 있을 때 우리는 결코 스스로 멸망하는 어리석은 위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

12. **㉠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15b절)**

- ㉠** (1) 그것은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다.
 (2) 두 사도는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살아 계신 유일신 하나님을 알려 주고 그분께 돌아오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3) 이 짧은 구절 속에 바울은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 문제를 다루고 있다. 즉 온 인류와 기타 피조물들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마16:16; 고후 3:3; 딤후 3:15; 히 3:12)과 그

안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

- (4)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 바울은 루스드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 개념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그들이 지혜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야만 된다는 것을 가르쳤다(참조, 시 14:1;53:1; 롬 1:19, 20).
- (5) 이런 관념은 현대에도 매우 유효하다. 오늘날 잘못된 사상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 체계를 마구 뒤흔들어 놓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더욱 철저히 신앙적 무장을 해야 할 것이다.

13. **㉠** 바울과 바나바는 우상을 섬기던 족속들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 하였는가? (16절)

- ㉠** (1) 두 사도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살던 모든 족속들에게 자기들이 원하는 길을 다니도록 묵인하셨다고 하였다.
- (2) 바울은 이 귀절에서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역(背逆)하는 자리에 있을 지라도 그것을 허용하셨다고 말한다.
- (3)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런 방침은 그들의 죄에 대한 결과였다(참조, 롬 1:24, 32).

14. **㉠** 이방인들이 죄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 대하여 어떠하셨는가? (17절)

- ㉠** (1)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의 길을 가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증거하셨는데 곧 자연을 통하여 당신의 존재를 밝히셨다.
- (2)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셔서 식물을 통해 마음에 만족을 얻게 하셨다.
-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연계의 변화와 그로 인한 결실들을 통하여 당신의 메시지를 인간에게 전달하셨다(참조, 시 19:1-6). 즉 자연이라는 매개체를 사용하시어 인간의 마음에 절대자를 인식하게 만드셨다. 인간은 자연의 표정을 바라보며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 (4) 루스드라인들은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추앙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다.
- (5)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람들 속에 당신을 알 만한 것을 주셨고, 자연 속에도 당신의 능력과 신성이 보이게 하셨는데(참조, 롬 1:19, 20) 우매한 자들은 그것도 발견치 못한다.

15. **㉠**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당한 핍박은 어떤 것인가? (19, 20절)

- ㉠** (1)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무리들을 불러 바울을 돌로 쳐죽이게 한 뒤 성밖으로 끌어 내쳤다. 그러나 바울은 죽지 않고 회생하여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 (2) 본질은 앞에서 벌어졌던 상황을 생각할 때 잘 이해가 안 된다. 앞에서는 두 사도를 신으로 추앙하더니 이제는 돌로 쳐죽이려 했기 때문이다.
- (3) 이런 두 가지 사건은 서로 상반된 상황이면서 극적이기 때문에 누가는 이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있어서 도전하는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 (4) 이런 상황을 겪은 바울은 얼마 후 갈라디아의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에 ‘예수의 혼적’을 언급하였다(갈 6:17). 핍박은 성도들에게 더 큰 상급을 주는 밑거름이 된다(참조, 욥 42:10; 고후 4:17; 히 12:11).

16. **㉠**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핍박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19, 20절)

- ㉠** (1) 루스드라는 안디옥에서 70km 정도의 거리이다. 그러나 핍박자들은 먼 거리를 마다 않고 찾아와 핍박하는 일에 동참하였다.
- (2) 오늘날도 사단의 세력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실족시키기 위해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실천한다.
- (3)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항상 경계해야 하는 것은 사단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려 시도하기 때문이다(참조, 고후 2:11; 살전 3:5).

17. **㉠** 루스드라를 벗어난 바울과 바나바의 신앙적 열심은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21절)

- Ⓐ (1) 두 사도는 루스드라를 떠나 더베로 갔는데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다.
- (2) 루스드라에서 약 96km 정도 떨어진 더베로 전도지(傳道地)를 옮긴 바나바와 바울은 루스드라에서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다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개종시켰다.
- (3) 루스드라와 더베는 안디옥이나 이고니온보다 작은 성읍이었으므로 큰 도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도 있었으나 두 사도는 사소하게 여기는 부분에도 관심을 쏟았다.
- (4) 그 결과 그들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16:1-3;20:4), 더베에서는 가이오를 (20:4) 얻을 수 있었다.
- (5) 이처럼 두 사도는 복음의 놀라운 위력을 알고 친히 체험을 했기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롬1:16;고전9:16).
- (6) 이런 결과를 볼 때 조그만 어려움에도 굴복해 버리는 나약한 믿음이나 또는 인간적 영예와 안락을 위해 평안한 곳 대도시 등에서만 목회를 하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지 알 수 있다.

18. Ⓞ 1차 여행을 마치고 귀환하는 길에 바나바와 바울이 각 교회에 권면한 말씀은 무엇인가? (22절)

- Ⓐ (1) 두 사도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고 권하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권면하였다.
- (2)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어려움을 겪어 보지 못한다면 그는 성장하여 스스로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할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 (3) 마찬가지로 신앙인들에게도 시련은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성경에서도 시련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할 몫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한다(참조, 롬8:17;살후1:4;딤후2:12).
- (4) 그러므로 바나바와 바울은 아직 유년기의 신앙 상태에 있는 여러 지역 성도들을 격려한 것이다.
- (5)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직접 본을 보이신 삶이었으므로(막8:31-10:52;빌3:10,11;골1:24)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게 된다(롬5:2-4).
- (6) 두 사도의 권면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적용된다. 신앙은 결코 오락이나 철학적 관념에 의하여 유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런 권면은 마음 깊이 새겨야 한다.

19. Ⓞ 바나바와 바울은 약한 성도들을 누구에게 부탁하였는가? (23절)

- Ⓐ (1) 두 사도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약한 성도들을 장로들에게 부탁하였다.
- (2) 본절은 교회 제도 안에서 최초로 장로가 세워진 기록이다. 어떤 과정을 통하여 장로가 세워졌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본절은 기독교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 (3) 여기서 '택하다'는 말은 헬라어 <케이론토네산테스>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거수로 선출하거나 지명하다'라는 뜻이다.
- (4) 장로는 본절을 통해 볼 때 신앙적으로 약한 성도들을 올바르게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또한 교회도 잘 다스려야 한다(참조, 딤후5:17;약5:14).

20. Ⓞ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귀환하는 과정을 말하라(24-26절).

- Ⓐ (1) 그들은 비시디아 가운데를 지나 밤빌리아에 이르러 버가에서 도를 전하고, 앗달리아로 내려가서 배를 이용하여 수리아 안디옥으로 귀환하였다.
- (2) 밤빌리아와 버가는 13장의 Ⓞ17을 참조하라.

- (3) 앳달리아(Attalia)는 밤빌리아 지역의 소아시아 남서 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로서 프리기아(Phrygia) 지역과의 교역을 위해 개발되었다.
- (4) 이곳은 에베소와 서머나로 향한 교역로 뿐 아니라 시리아와 이집트로 가는 길로도 이용되었다.
- (5) 한편 바나바와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하여 다시 돌아올 때까지의 1차 전도 여행의 여정에 대해서는 본서 서론, 지도 자료를 참조하라.

21. **㉠ 안디옥으로 돌아온 두 사도의 보고 내용을 설명하라 (27절).**

- ㉠** (1) 두 사도는 전도 여행의 결과를 두 가지 내용으로 분류하여 보고하였다.
- (2) 첫째는, 그들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일을 하셨다는 것이다.
- (3) 출발에서부터 돌아오기까지와 그 동안 있었던 모든 일, 즉 그들이 설교한 것과 앉은뱅이를 일으킨 사건 등 하나하나가 모두 그분의 도우심에 의한 것이었음을 알렸다.
- (4)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문을 여셨다는 내용이었다.
- (5) 구브로 섬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과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의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 신앙을 갖게 된 놀라운 사건을 보고하였다.
- (6) 두 사도의 보고는 그 기본 사상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려는 데 있었다(참조, 고전 10:31). 그들은 단지 주어진 사명에만 충실히 감당한 청치기에 불과하였다는 자세를 가졌다(참조, 마 25:20; 눅 19:16; 고전 4:2).
- (7)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시작은 순수해도 나중에는 자신들이 모든 영광을 독차지하려는 욕심을 갖는 자들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22. **㉠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두 사도는 얼마 동안 안디옥에 머물러 있었는가? (28절)**

- ㉠** (1) 본절에는 단지 제자들과 오래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 (2) 그런데 일반적으로 안디옥에 머문 기간을 1년 정도로 본다(Levin, Alford).
- (3) 안디옥은 바울의 전도 여행의 기점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다음 전도를 위한 준비를 하려고 머물렀을 것이다.

본장의 요절

‘성밖 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花冠)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13절).



제15장 예루살렘 총회

단락구분 1-2 문제의 발단과 그에 대한 변론 / 3-5 예루살렘으로 가다 / 6-29 문제에 대하여 회의(會議)하는 예루살렘 총회 / 30-35 예루살렘의 회의의 결과를 안디옥에서 보고하다 / 36-39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진다 / 40-41 바울이 실라와 함께 동행하다

1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2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3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들어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4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함대

5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6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7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8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9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라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10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멩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11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12 은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들더니

13 말을 마치매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14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15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16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17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18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합과 같으니라

19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20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21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22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23 그 편에 편지함을 부쳐 이르되 사도와 장로 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24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25·26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27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28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29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30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 31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 32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 33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 34 (없음)
- 35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 36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 가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

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 37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니
- 38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 39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 40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 41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1. **㉠ 본장의 역사적 의미를 설명하라.**

- ㉠ (1) 초대 교회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들을 해결하고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결론을 얻기 위해 의견을 수렴한 최초의 회의가 바로 예루살렘에서 있었다.
- (2) 이 회의의 주요 안건은 구원에 있어서 종교적 의식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관한 것이다.
- (3) 즉 선민 의식이 무척한 유대인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고 하였다.
- (4) 유대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의 결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 (5) 본래 이방인의 구원은 구약에 이미 약속되어 있었다(참조, 창 22:18; 26:4; 28:14; 사 49:6; 55:5-7; 습 3:9, 10; 습 8:22). 그것은 유대인의 손으로 개종시키게 될 것이 전제되었다(마 23:15).
- (6)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 이스라엘만 택하셨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유대인보다 많아지고 그로 인하여 기독교 도덕 기준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였다.
- (7) 그렇지만 중요한 점은 유대인들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 득의(以信得義) 사상이 매우 약했다는 데 있었다.

2. **㉠ 예루살렘 총회에 대하여 설명하라.**

- ㉠ (1) 이것은 A. D. 49년 이방인들을 교회로 받아들이는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모였던 회의에 붙여진 명칭이다.
- (2) 이 회의에 관한 성경의 근거는 본장의 내용(1-29절)과 갈라디아서에 있다(갈 2:1-10).
- (3) 이런 회의가 있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바나바와 바울의 전도 활동의 결과를 시기한 유대인들 때문이었다.
- (4) 그리고 더 깊은 의미에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모든 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있어야만 할 필연의 결과였다.
- (5) 그러나 이 회의의 결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데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다는 바나바와 바울의 주장이 인정을 받았다.

3. **㉠ 예루살렘 총회에 관한 두 성경 귀절(1-29절; 갈 2:1-10)을 분석하라.**

- ㉠ (1) 이 두 귀절은 바울이 전도한 것에 관하여 심의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인 회의가 있었음을 보여 준다.
- (2)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귀절 사이에 서로 조그만 차이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 (3) 먼저 발견하는 차이점은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과 관계가 있다. 갈라디아서에는 바울이 개종한 뒤 두번째 방문할 때 이 회의가 있었다고 한 반면, 본서에는 세번째 방문한 것

으로 되어 있다(첫째, 9:26; 둘째, 11:30; 12:25).

- (4) 그리고 두번째 차이는, 갈라디아서에는 하나님의 지시에 의하여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본서에는 안디옥 교회가 그를 파송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 (5) 그러나 갈라디아서가 본서와 같이 예루살렘 회의에 관하여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갈라디아서는 회의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기록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6) 그래서 이것은 바나바와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시 남부 갈라디아 지방에 설립한 교회들에게 기록한 편지이며,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이기 직전에 안디옥에서 기록되었다는(K. Lake, V. Weber, W. M. Ramsay, C. W. Emmet, F. C. Burkitt 등) 주장이다.
- (7) 그러므로 갈라디아서와 본장은 예루살렘 총회 개최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동일한 내용은 아니라고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다.

4. ㉠ 유대인들의 의식 깊숙이 뿌리 내린 사상은 무엇인가? (1절)

- (A) (1)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사상에 젖어 있었다.
- (2) 할례(Circumcision)의 기원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표징으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사건으로 볼 수 있다(창 17:10-14).
- (3) 그러므로 이 의식은 언약 공동체의 일원임을 뜻하는 표징으로 사용되었을 뿐이다.
- (4)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면서 사람들은 이 의식의 중심 사상을 상실하고 형식에 얽매이게 되었다.
- (5)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자들은 할례의 참의미를 알려 주려고 큰 노력을 하였다(참조, 렘 4:4).
- (6) 바울도 할례의 사상을 지적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할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을 믿는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믿음 때문이었다고 하였다(참조, 롬 4:9-13).
- (7) 결국 유대인들은 이 사상을 이해하지 못했기에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그리하여 심지어 할례당도 조직되었던 것이다.
- (8) 종교란 본래 내적으로 충실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많은 사상적 혼란과 교회의 부패가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다.
- (9) 이런 현상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다. 교회에서 지나치게 외적인 것을 중요시하므로 주께서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문제들을 간과하게 되는 수가 많다.
- (10) 간단한 예로 강대상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일이나 교회 건물만 많은 돈을 들여 거대하게 세우는 일 등에 정신을 집중하므로 교회 주변에서 추위와 배고픔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다.
- (11) 주께서는 이런 자들에 대하여 회 칠한 무덤이라 책망하시면서(참조, 23:3; 마 23:27) 그들이 받아야 할 심판을 예고하셨다.

5. ㉠ 유대인들의 주장을 듣게 된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2a절)

- (A) (1) 두 사도는 율법과 복음의 깊은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과 극심한 변론(辯論)을 갖게 되었다.
- (2) 이런 문제의 제기(提起)는 예루살렘에서만 있었음이 분명하다.
- (3) 그 증거로 고벨료와 그의 가족들이 베드로의 가르침을 듣고 세례를 받았을 때에도(10:47, 48)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고, 안디옥과 갈라디아의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지 않고 교회에 들어왔다.
- (4) 성도들은 진리의 수호를 위해 싸울 의무가 있다(유 1:3).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도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였던 것이다.

- (5) 한편 이와 같은 문제에 있어서 베드로는 유대주의자들 앞에서 우유 부단한 태도를 보였다(갈 2:12).
- (6) 이것은 곧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들의 가르침을 스스로 부인하는 모순이 된다.
- (7) 이렇게 중요한 문제 때문에 바울은 베드로를 면책하고 그의 행동을 외식이라고 묘사하였다(갈 2:11, 12).

6. **㉠ 이방인의 교회 영입(迎入) 문제로 논란이 있자 어떻게 처리하기로 하였는가? (2b절)**

- ㉠** (1)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 해결하기로 하였다.
- (2)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개교회에서 처리할 수 없었다. 물론 안디옥 교회에 유능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은 아니다.
- (3) 이것은 온 교회가 결정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당시 교회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으로 상정(上程)된 것뿐이다.
- (4) 예루살렘은 열 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중심지가 된 곳이었다. 그곳을 기점으로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 (5) 현대의 교회도 이처럼 각 교회와 영적인 교류가 있어야 한다. 자신 외에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 독선은 오히려 진리를 왜곡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7. **㉠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어떤 일을 하였는가? (3절)**

- ㉠** (1)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지날 때 그곳 교인들에게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사실을 전하였고 그들은 그 보고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였다.
- (2)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역 교회들은 스테반의 죽음의 결과 헬라 지역 선교로 나타난 열매였다(8:4-25; 11:19).
- (3) 따라서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헌신하지 않아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신자가 될 수 있었다.
- (4) 두 사도의 이런 행동은 변론 때문에 초신자의 신앙이 약화된 것을 걱정하여 그들의 믿음이 올바른 것임을 알려 주려는 의도에서 행한 것이었다.
- (5)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라도 진리를 사수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려는 두 사도의 태도는 오늘날 목회 전선에서 활동하는 자들에게 귀감이 된다.

8. **㉠ 예루살렘에서 바나바와 바울의 보고에 대하여 공격한 자들은 누구인가? (4.5절)**

- ㉠** (1) 그들은 한때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으나 지금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었다.
- (2) 그들의 주장은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었다.
- (3) 이들의 주장은 바울과 함께 있던 헬라인 디도를 마음에 두고 한 말이었다(갈 2:1, 3).
- (4) 그렇지만 바울이 그와 동행한 것은 논쟁의 대상이 된 율법적 의식의 편협성을 알려 주기 위한 실례(實例)로 보여 주기 위함이었다.
- (5)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옛 사람을 버려야 함(엡 4:24)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것에 너무 연연하므로 복음을 받은 참뜻을 망각하는 수가 많다. 이것을 항상 조심해야 한다.

9. **㉠ 예루살렘에서 변론이 있을 때 결정적인 발언을 한 사람은 누구인가? (7절)**

- ㉠** (1) 그는 베드로였다.
- (2) 베드로가 말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주장을 토론했을 것이다. 그러나 누가는 그들의 말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
- (3) 그것은 누가가 공식적인 발언자들, 즉 사도나 장로들의 견해를 존중했고 특히 베드로의 견해를 중요시했기 때문이다.

- (4) 사실 이때 이미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주요 인물이 아니었다. 이때는 야고보가 감독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참조, 12:17).
- (5) 그렇지만 베드로는 유대인 전도의 주동 인물로 예루살렘 교회에 영향력이 있었고 또한 책임도 있었다. 따라서 베드로는 감독자가 아닌 전도자의 입장에서 발언을 하였다.

10. **㉠** 베드로의 발언 요지는 무엇인가? (7-11절)

- ㉠** (1) 그는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한 것이 결코 자신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는 하나님께 원인이 있다고 하였다.
- (2) 따라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원리에 대하여 반론을 펴는 행위는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가 된다고 하였다.
- (3) 결국 이와 같은 발언은 이방인들에게 접근하여 복음을 전한 바울의 일이 결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것이 아니라는 긍정 발언이었다.
- (4) 안디옥에서 유대인들 때문에 이방인과 함께 앉았던 자리를 피하는 실수를 범한 베드로가 이제는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고 또한 진리를 바로 볼 수 있는 분별력도 갖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
- (5)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인정하는 데 있다. 베드로도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이제는 어떤 지적도 두려워하지 않고 완전히 변한 자신을 드러내었다.

11. **㉠**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과 같은 의식(儀式)을 강요하는 것은 무엇과 같다 하였는가? (10절)

- ㉠** (1) 그것은 첫째,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둘째, 조상들도 메지 못한 명예를 이방인에게 지우려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 (2) 전자는 메시아를 통한 인류의 구원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이며, 후자는 자신도 감당하지 못한 것을 남에게 강요하는 부도덕한 소치이다.
- (3) 이런 말을 베드로가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희생의 결과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참조, 마 11:29).
- (4) 현대의 교회는 특히 외적인 표현에 큰 비중을 두기 때문에 숨은 기도와 구제, 봉사보다는 많은 헌금이나 눈에 띄는 행위에 큰 관심을 나타내는 일이 종종 있다.
- (5) 물론 그런 행위가 반드시 비성경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지나쳐 과거의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런 형태의 신앙 태도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으로 오해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다.
- (6) 이런 자들에 대하여 ‘남의 눈의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속의 들보는 보지 못한다’는 주의 교훈(마 7:3-5)이 적절하다.

12. **㉠** 베드로가 주장한 말의 결론은 무엇인가? (11절)

- ㉠** (1) 베드로의 결론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이다.
- (2) 인간의 유일한 구원 수단은 ‘주 예수의 은혜’ 인데 그 은혜는 율법의 준수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 (3) 구약의 옛 언약에 있어서도 구원의 수단은 율법이 아닌 복음 곧 메시아 약속이었다. 이 약속은 우리에게 가벼운 명예를 주었는데(마 11:30) 그 명예는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었다.

13. **㉠** 베드로의 증언이 끝난 후 청중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12절)

- ㉠** (1) 청중들은 베드로의 말에 반대할 수 없었고 단지 그의 뒤를 이어 전도 여행의 결과를 증

언하는 바나바와 바울의 말을 들었다.

- (2) 베드로의 변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내용이 하나도 없었기에 그 말에 대하여 반박할 수 없었고 침묵만이 계속되었다.
- (3) 베드로의 변론을 통해 힘을 얻은 바나바와 바울은 다시 하나님의 놀라우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것을 증거하며 그들의 사역이 결코 인간의 힘으로 이룩된 것이 아님을 다시 역설하였다.
- (4) 이 부분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있었던 변론의 전환점이 되었다. 왜냐하면 이방 전도의 성공은 바나바나 바울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뒤에서 역사해 주셨으므로 예루살렘의 청중들도 그 사실을 시인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 (5) 진리의 힘이 무한하다는 것은 이 귀절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 사방에서 엄습하는 사단의 세력들을 물리쳐야 한다(참조, 엡 6:10-20).

14. ㉠ 베드로와 바나바 그리고 바울의 주장에 대하여 야고보는 무엇을 근거한 보조 설명을 하였는가? (13, 14절)

- ㉠ (1)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 당신의 백성을 택하신 사실이 그 당시에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 이미 예언자들에 의하여 기록된 것의 성취였다고 말하였다.
- (2) 베드로와 두 사도의 변론을 긍정하며 야고보는 ‘이방인 중에 부를 당신의 백성’을 언급할 때 <라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 (3) 이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특별한 명칭으로 히브리어 <암>에 해당된다(참조, 창 11:6; 민 21:29; 사 2:3; 왕상 8:43).
- (4) 그리스도인들이 점차 증가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일이다. 그런데 흑자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기주의가 팽배하여 그런 일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다.
- (5) 그러나 각 개인은 다른 것보다 먼저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발견할 때 야고보의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게 된다.

15. ㉠ 야고보가 증거로 인용한 말씀은 무엇인가? (15-18절)

- ㉠ (1) 그가 인용한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으로(암 9:11, 12) 이 말씀을 인용함으로 이방인의 회심에 대한 논쟁을 종말론적인 측면에서 이해시키고자 했다.
- (2) 특히 이사야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도 본래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민족성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참조, 사 2:4; 25:6, 7).
- (3) 결국 이 예언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통치하실 때 그분이 모든 인류 가운데서 택하신 당신의 자녀를 불러 세우실 것을 가리킨다(참조, 계 5:9, 10).
- (4) 야고보의 이런 보완 설명은 편협한 생각에 사로잡혔던 유대인들에게 일침(一針)을 가한 발언이었고 하나님의 사상을 잘 표현한 내용이었다.
- (5)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 건성으로 보지 않고 자세히 살핀다면 서로 연관을 맺는 말씀들을 통하여(참조, 사 34:16) 진리를 바로 알게 될 것이다.

16. ㉠ 보조 설명을 마친 야고보가 결론적으로 제안한 말은 어떤 내용인가? (19, 20절)

- ㉠ (1) 야고보는 이방인들 중에 개종하는 자들을 율법적인 내용을 통하여 괴롭히지 말고, 이교도들의 저급한 태도를 버리고 유대인들의 높은 도덕률에 따르도록 격려하는 편지를 쓰라고 하였다.
- (2) 야고보가 주장하는 것은 구원의 도(道)와 교제의 조건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동일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기 때문이다(롬 3:22; 10:12).

- (3) 그러나 야고보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도 자신들의 옛 모습을 버리지 않는 실수(참조, 엡 4:22)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편지를 쓰자고 제안하였다.
- (4) 야고보는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파악하고 있었다. 어떤 일을 무를 썩우기 보다 그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하여 스스로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가르쳐 주었다(참조, 2:42-47; 시 133:1-3; 고전 12:25; 벧전 3:8).

17. **㉠** 야고보가 각 성에 편지하기를 요청한 이유는 무엇인가? (21절)

- ㉠** (1) 이전부터 각 성의 회당에서는 안식일마다 모세의 글을 전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 (2) 이미 앞절(20절)에서 야고보가 언급한 내용들은 이방인들이 모세 율법의 일부를 지킴으로써 유대인들과의 교제를 나누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 (3) 그러나 예루살렘 공의회는 이방인들도 그와 같은 것들을 잘 알고 있다고 믿고 더 이상의 낯선 것을 명령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 (4) 그렇게 함으로써 논쟁의 불씨가 된 이방인의 교회 영입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유대인과의 화합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5) 결국 이 문제는 구원을 위해 할례가 필요한가 하는 문제와 교회 내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친교를 위해 이방인들의 관습을 일부 제재하는 것이 두 가지였다.
- (6) 그중 전자는 부결되었고 후자는 이방인의 자유를 옹호하는 것에 관해 남의 양심과 자유를 어떻게 간섭하느냐는 결론으로써 그 제의가 가결되었다.
- (7) 이때의 중심 문제는 신학적 대립이라기 보다 교회 내의 화합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 (8) 오늘날에도 교회의 불일치가 발생하는데 그 이유로 표면적으로는 어떤 교리적인 이유가 등장하지만 실제로는 인간적인 관계에서 서로 용서하고 양보하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18. **㉠** 예루살렘 총회의 가결(可決) 사항을 전하기 위해 안디옥으로 파송받은 자들은 누구인가? (22절)

- ㉠** (1)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동행할 자로 유다와 실라를 택하였다.
- (2) 유다는 바사바라고도 하는데 예루살렘 공의회 결의 사항을 안디옥에 전해 주는 일에 동참한 자였다.
- (3) 그의 인물에 관한 기록은 별로 없으나 가룟 유다 대신 사도의 직을 위해 추천받은 바사바라고 하는 요셉(1:25)의 형제인 것 같다.
- (4) 실라(Silas)는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 인물이었다고 예루살렘 총회의 결의 사항을 전해 주기 위한 동행자였다.
- (5) 그는 로마식 이름인 '실루아노'(살전 1:1)라는 이명(異名)을 가진 것으로 보아 로마의 시민이었을 것이다.
- (6) 한편 그는 마가의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선 뒤 바울의 두번째 전도 여행의 동반자가 되었다(36-40절).
- (7) 그는 베뢰아에서 잠시 뒤에 남았으나(17:14) 고린도에서 다시 바울과 합류하여 디모데와 함께 전도를 하였다(18:5; 고후 1:19; 살전 1:1; 살후 1:1).
- (8) 또한 그는 베드로전서를 소아시아의 교회에 전해 준 실바누스(벧전 5:11)인 것 같은데 베드로는 그를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였다(벧전 5:12).

19. **㉠** 예루살렘 총회의 결의 사항을 전달받는 대상은 누구인가? (23절)

- ㉠** (1)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이었다.
- (2) 이 내용은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이 안디옥과 다소와 나머지 길리기아, 수리아 지방을 복

음 사역 확장을 위한 지역으로 간주했음을 보여 준다.

- (3) 한편 그들에 대한 문안 인사는 세속적인 표현 용어 <카이레인>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매우 특이한 표현이다.
- (4) 신약에서는 본절과 약 1:1의 두 군데만 사용되었다. 이런 표현은 일반인들이 평상시에 쓰는 말이고 기독교인들은 그들 나름의 독특한 표현 방식이 있었다.

20. **㉠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파송한 자들의 위치는 어떠한가? (24-27절)**

- ㉠** (1)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만장 일치로 가결하여 파송한 자들로서 변론의 결과를 전해 주는 자들이었다.
- (2) 전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을 방문한 자들이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참조, 1절; 갈 2:4; 5:12), 이번에 파송한 자들은 완전히 인정된 자들임을 명백히 하였다.
- (3) 그래서 그들은 이전에 방문했던 자들이 일으킨 문제를 바로잡는 특별한 임무를 맡았다.
- (4)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은 매우 어려운데 특히 진리를 가르치는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어렵다. 그러므로 교회는 진리를 바로 가르치고 준수해야 할 큰 책임이 있다 (참조, 마 28:18-20; 딤후 2:1, 2).

21. **㉠ 예루살렘의 결의 사항을 어떤 내용인가? (28, 29절)**

- ㉠** (1) 예루살렘 총회는 중요한 사항 이외에 특별한 것으로 이방인들에게 짐을 지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결의하였다.
- (2) 즉 이것은 교회가 성령의 도구로서 담당하는 역할을 매우 강조한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서두를 연 것이다.
- (3) 결의 사항은 20절의 반복이므로 **㉠** 16을 참조하라.
- (4) 본절의 내용은 교회의 일이나 사람들의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며 그분의 역할을 통하여 진리를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음을 가르쳐 준다 (참조, 5:32; 요 16:13; 고전 7:40).

22. **㉠ 성령의 인도를 따라 결정된 사항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30-35절)**

- ㉠** (1) 그 소식을 전해 받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기쁨을 얻었다.
- (2) 그 소식 뿐 아니라 동행한 자들의 사역은 성도들에게 큰 위안을 주었다.
- (3) 인간의 이성이나 전통에 따르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결정된 사항은 이처럼 심령을 부드럽게 하며 은혜로운 결과를 만든다.

23. **㉠ 바울은 바나바에게 무엇을 제안하였는가? (36절)**

- ㉠** (1) 수일 후에 바울은 바나바에게 1차 여행 시 복음을 전했던 각 성을 방문하여 그들을 돌아보자고 제안하였다.
- (2) '수일 후'란 막연한 시간의 경과를 가리키는 말이므로 여기서는 큰 의미가 없다.
- (3) 이미 안디옥에는 교사와 전도자들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바울은 이방 세계에 설립한 교회를 걱정하게 된 것이다.
- (4) 이 말에는 처음 신앙을 갖기 시작한 자들에 대한 바울의 관심이 잘 나타나 있는데 (참조, 고후 1:14; 살전 2:7, 8; 3:5-8) 바울의 이런 모습은 사랑이 없다고 표현되는 오늘날 교회가 본 받아야 할 대표적 모습이다.

24. **㉠ 바나바와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의견 차이를 보이게 되었는가? (37-39a절)**

- ㉠** (1)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지역의 교회를 다시 돌아보는 데는 의견이 일치되었으나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 요한과 다시 동행하는 문제로 인하여 의견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 (2) 바나바는 마가와 다시 동행하기를 원했으나 1차 여행 시 밤빌리아에서 스스로 돌아간 (13:13) 행위 때문에 바울이 허락하지 않았다.

- (3)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귀환한 마가의 행동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 (4) 그러나 바나바는 그의 유순한 성격 탓도 있었으나 그의 사촌의 자질을 키워 주기 위한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이다.
- (5) 모두가 협력하여 일을 추진하였다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졌을 것이다. 그러나 훗날 마가의 좋은 면은 충분히 개발되었고(참조, 골 4:10; 딤후 4:11; 몬 1:23)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선한 결과를 만드셨다.
- (6) 즉 바울을 통한 하나의 전도단이 두 개의 전도단으로 나뉘어 바울은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 전도 활동을 했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고향인 구브로에서 전도 사업을 계속하였다.
- (7)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관계들이 생기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선한 결과들이 맺혀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이 깨어지는 결과가 생기도록 방치하지는 않는다.

25. ㉠ 두 사도의 의견 차이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39b-41절)

- ㉠ (1) 그 의견 차이는 함께 일하던 동역자의 사이를 갈라 놓는 결과를 가져왔다.
- (2)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떠났고 바울은 새 동역자로 실라를 택하여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각 교회를 권면하며 굳센 믿음을 갖도록 격려했다.
- (3) 바울이 동역자로 실라를 택한 것은 그의 능력과 자질을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고 본다.
- (4) 먼저 실라가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이라는 점과 또한 로마의 시민이었다는 점이 큰 동기가 되었다.
- (5) 그 유익은 실라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을 권위 있게 전할 수 있었다는 점이 그 하나이고, 두번째는 빌립보 감옥에서 로마의 시민이었기에 난국을 극복할 수 있었음을 볼 때 알 수 있다(참조, 16:37-40).
- (6) 그 뿐 아니라 실라는 선지자였고(32절) 헬라어를 잘했으며(22, 32절) 서기관으로서도 매우 유능한 사람이었던 듯하다(참조, 살전 1:1; 살후 1:1; 벧전 5:12).
- (7)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통하여 선한 목적을 이루셨는데 나누어진 사람들 각자를 통하여 당신의 모든 목적을 성취하셨다(참조, 롬 8:28).

본장의 요절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30, 31절).

제16장 소아시아와 유럽을 향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1)

단락구분 1-4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다 / 5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들 / 6-10 성령의 섭리에 의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 전파지가 변경되다 / 11-15 빌립보에서 믿음의 첫 열매 루디아를 얻다 / 16-18 점장이 여인을 고쳐 준다 / 19-24 바울과 실라가 투옥되다 / 25-26 감옥에서의 기도과 찬송이 가져다 준 기적 / 27-34 간수와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 / 35-40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를 떠나다

1 바울이 데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2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3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 줄 다 알아러라

4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5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6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울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8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9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나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나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11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압볼리로 가고

12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나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

13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14 두아디라 성의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

신지라

15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16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접하는 귀신 들린 여중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하게 하는 자라

17 바울과 우리를 좇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18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와하여 들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19 중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 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

20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21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22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때로 치라 하여

23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24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25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매 죄수들이 들더라

26 이에 홀연히 큰 지진이 나서 옥 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27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28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29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30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31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32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33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34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 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35 날이 새매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

람들을 놓으라 하니
 36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37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38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39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40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실라와 함께 떠났던 바울의 제 2차 전도 여행의 초창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15:36부터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2) 18:22까지 계속되는 바울의 제 2차 전도 여행은 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가장 긴 원정(遠征)이었으며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의 포문을 전환했던 특별한 여행이었다.
 (3) 이 여행 중 본장은 제 1차 전도 여행 시 바울 자신이 뿌렸던 복음의 열매들을 확인하는 작업과 교회의 놀라우리 만큼 급성장하는 모습 및 빌립보에서의 전도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4) 더욱이 이 여행 중 그가 훗날 가장 사랑하게 된 제자 디모테를 만났고 빌립보 감옥에서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간수를 개종시키는 놀라운 결실을 맺기도 했다.
 (5) 이러한 모든 복음 사역의 배후에는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까지 모두 책임지고 계시는 성령의 사역이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2. ㉠ 바울이 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 과정에서 누구를 만났는가? (1, 2절)

- ㉠ (1) 바울은 더베를 거쳐 루스드라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디모테를 만났다.
 (2) 디모테(Timothy)는 '하나님을 공경함', '하나님의 영예'라는 뜻의 이름으로 그의 부친은 헬라인이고 모친은 유대인이었다.
 (3) 그의 부친의 이름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으나 모친은 유니게, 외조모(外祖母)는 로이스로 언급되어 있다. 그는 두 사람의 신앙적 영향을 크게 받았다(20:4; 딤후 1:5).
 (4) 그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까이했으며(딤후 3:15)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칭찬을 받을 만큼 성숙한 신앙 인격자였다(2절).
 (5) 바울은 제 2차 전도 여행 시 그를 택하여 동행하도록 하였는데 그때 디모테는 헬라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생각하여 그에게 할례를 받도록 하였다(3절).
 (6) 한편 디모테는 에베소 교회의 책임을 맡아(딤후 4:12) 거짓 교사들과 싸우고, 교회의 직분자들을 선택하며 교회의 규칙을 제정하는 등 교회 전반에 걸쳐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했다.
 (7) 그가 사도 대리와 같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의 직무에 관한 편지를 쓰기도 하였다. 그리고 바울은 전도자로서의 디모테를 매우 신임하고 있었다(빌 2:19-24).
 (8) 그러나 그의 만년(晩年)에 관한 기록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없다. 전설에 의하면 그

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있을 때 로마 황제인 도미티안(Domitian, 81-96)에 의하여 순교당하였다고 한다.

3. **㉠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할례를 행한 이유는? (3절)**

- ㉠** (1) 디모데의 부친이 헬라인이라는 사실을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기 때문에 할례를 행할 수 밖에 없었다.
- (2) 물론 할례가 15장에서 언급되었듯이 구원의 역사와 직접 관련된 사항은 아니었다.
- (3) 그러나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은 헬라인의 아들이라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무관한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는 좋지 않은 인상을 주었던 것 같다.
-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인인 모친과 외조모를 통하여 유대식 교육을 받았을 뿐 아니라 기독교로 개종 후에는 기독교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 중에서 개종한 기독교인이었다.
- (5) 따라서 바울은 그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유대인들에게 거치는 장애 요소를 제거하였던 것이다.
- (6) 이런 행위는 바울의 견해에 있어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곧 나쁜 유대인이 된다는 내용이 아님을 보여 준다. 오히려 유대인의 뜻을 성취하므로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일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 (7) 그렇지만 바울은 회심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이 행하는 할례와 유대의 율법은 강요하지 않고 그들이 물려받은 문화적 전통을 잘 활용하여 기독교 신앙이 더 아름답게 결실을 맺게 하라고 권면하였다(참조, 고전 7:17-24).
- (8) 이와 같은 바울의 가르침은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무엇을 먼저 생각하며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성장시켜 나갈지에 대한 좋은 지침이 된다.

4. **㉠ 바울이 여러 성읍을 다니면서 무엇을 전했으며 그 반응은 어떠한가? (4, 5절)**

- ㉠** (1) 그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사도와 장로들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을 전하여 지키게 하였는데 그 결과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어지고 성도들의 수자도 증가하였다.
- (2) 즉 바울은 그의 동역자 실라와 또한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그가 방문하는 곳마다 예루살렘에서 결의된 규례를 가르치고 지키게 하였다.
- (3) 여기서 ‘규례’(헬, 도그마)란 흔히 권력자가 발표한 훈령(참조, 17:7; 눅 2:1)이나 생활 규범(참조, 엡 2:15; 골 2:14)을 의미했으나 본절에서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마련한 기독교인들의 신앙 기준과 삶의 원칙을 뜻한다. 이 ‘규례’는 훗날 기독교의 교리(dogma)로 정착된다.
- (4) 이 ‘규례’는 그 당시 개종한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히 올바른 신앙 기준을 마련해 주었으며 그 결과 그들이 예수는 믿지만 무엇이 참된 것이며 어떤 것이 참된 삶인지 몰랐던 답답함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게 해주었다(참조, 골 2:5).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올바른 삶의 기준을 알게 된 그들은 적극적으로 살아 있는 신앙 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교회는 부흥의 시기를 맞게 되었다.
- (5) 무엇이 진리이며 어떤 삶이 바른 것인지 그 기준이 모호한 오늘날에도 교회는 성경에 기준하여 올바른 방향 제시를 해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살아 있는 교회야말로 진정한 부흥을 이룰 수 있다.

5. **㉠ 바울은 아시아를 향한 전도의 꿈을 갖고 어디까지 이르렀는가? (6-8절)**

- ㉠** (1) 바울은 브루기아와 갈라디아를 거쳐 무시아에 이른 뒤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였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까지 내려갔다.
- (2) 브루기아(Phrygia)는 해발 900-1000m의 고원에 위치해 있으며 서남쪽은 비옥하고 북쪽과 동쪽은 고지 초원이 발달하여 목축에 적당한 곳이다.

- (3) 브루기아 서쪽에는 일찍부터 복음이 전파되었던 히에라볼리, 골로새, 라오디게아 등의 여러 성읍이 있어서 브루기아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참조, 골 4:13, 16; 계 3:14).
- (4) 갈라디아(Galatia)는 소아시아의 중앙부를 차지하는 넓은 지역인데 이곳도 해발 700-1000m의 고원 지대이다. 이곳 주민들은 주로 B. C. 3세기경 아시아를 침공하였던 고을 족속의 후손들인데 이러한 영향으로 이곳 지명은 '골사람'(Gauls)을 헬라어로 (갈라타이)라고 부른 것에서 유래하였다.
- (5) 이곳 최후의 왕 아민다스(Aminthas, B. C. 36-25)가 죽은 후 갈라디아는 로마 제국의 영(領)이 되어 로마의 행정 구역으로 갈라디아 지방이 되었다.
- (6) 바울은 이곳을 두 번 방문하였다(6절; 18:23). 즉 자신의 2,3차 전도 여행 시에 방문한 것이다.
- (7) 무시아(Mysia)는 소아시아 서북부의 지방으로 프로폰트(Propontis) 해와 헬레스폰트(Hellespont) 해협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의 지명도 아시아에 침입한 트라키아 부족 무시(Mysi)에서 파생하였다.
- (8)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바울은 이곳에서 활동하지 않았는데 전설에 의하면 오네시보로(Onesiphorus)에 의하여 이곳이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 (9) 비두니아(Bithynia)는 소아시아의 북서부, 흑해와 마르마라 해(Marmara)의 남쪽에 위치해 있으며 서쪽으로는 무시아와 접경하고 있다. 바울과 실라가 이곳에 전도하려고 했으나 성령의 저지로 무산되었다.
- (10) 드로아(Troas)는 무시아의 서북안(岸)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중요한 도시이다. 바울과 누가가 이곳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생각된다.
- (11) 이곳은 로마 시대에 아시아와 마게도냐를 잇는 중요한 항구로서 번영하였고 신전, 극장, 목욕장 그리고 트라야누스(Trajanus, A. D. 98-117) 황제가 만든 도수교(導水橋) 등의 유물로 유명하다.

6. **㉠ 성령께서는 전도의 일군인 바울의 걸음을 어디로 인도하셨는가? (6,7절)**

- ㉡** (1)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으나 성령께서는 그것을 막고 그를 유럽쪽으로 인도하셨다.
- (2) 이것은 바울의 전도 여행이 그 자신의 일방적인 계획에 의하여 진행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그는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 사역을 수행하였다.
- (3) 한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아시아로의 여행을 막으신 것은 아시아에 더 이상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곳보다 우선적으로 유럽쪽의 복음화가 시급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로서 복음 사역의 주도권은 항상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시사해 준다.
- (4) 7절에서 '예수의 영'이 바울의 생각을 저지하였는데 그 영은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이라는 사실이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나타난다(참조, 롬 8:9; 빌 1:19; 벧전 1:11).
- (5) 여기서부터 19:20까지는 로마 제국의 동부 지방에서 바울이 전도한 사실을 통해 기독교가 확대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 (6) 이와 같이 복음의 점진적 확산을 통하여 초대 교회는 새로운 장(場)을 맞게 되는데 누가는 이 부분에서 다음 세 가지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
- (7) 첫째, 복음 전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과 감독 들째, 기독교가 합법적 종교로 인정되어야 할 권리 세째, 선포와 설득으로 엮어진 바울의 상황적인 전도 대책 등이다.

7. **㉠ 바울은 드로아에서 어떤 경험을 하였는가? (9, 10절)**

- ㉡** (1) 바울은 드로아에서 한 환상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그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호소를 하게 된다. 이것은 단순히 꿈이나 허상이 아니라 황홀경 속에서 바라본 실재였다(참조, 9:12;10:5;18:9).

- (2) 하나님께서는 7절의 부정적인 지시 후에 곧바로 바울과 누가를 포함한 그 일행(드로아에서부터 바울의 동역자로 본서의 기자인 누가가 활동하게 된다)의 발걸음을 유럽쪽으로 이끄셨다. 이런 사실에 바울은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인정하고 곧 그 지시를 따르게 된다.
- (3) 이처럼 자신의 계획과 교회 지도자들의 관심사인 아시아 복음화보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유럽에의 복음 전과 사명이 더 크고 귀한 것인 줄 알았던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지와 계획을 묻어 버릴 수 있을 만큼 순종의 사람이었다.
- (4)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순종의 사람을 당신의 동역자로 삼으셔서 인간이 보기에는 비록 불가능하고 조건이 맞지 않는 것 같은 일이라 하더라도 당신이 원하시는 훌륭한 계획을 성취해 가신다. 사실 이러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유럽과 전세계의 복음화를 피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지녀야 할 태도는 ‘순종’이다(참조, 삼상 15:22;히 5:9;11:8;13:17).

8. **㉠** 드로아에서 네압볼리에 이르는 바울의 전도 여행 일정을 설명하라 (11절).

- ㉠** (1) 바울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갔다.
- (2) 섬 자체가 산인 사모드라게는 드로아와 빌립보 사이 에게 해 북동쪽에 위치해 있었고 포세이돈 섬이라고 불리며 북 에게 해를 향해하는 선박들의 기항지였다.
- (3) 여기서 하루를 지낸 바울은 이튿날 에게 해 북부 연안의 네압볼리로 갔다.
- (4) 네압볼리는 빌립보의 외항으로서 아드리 해와 에게 해를 연결하는 로마의 도로 ‘이그나티우스 대로’(the great Egnatian way)의 동부 지역 종착 지점이었다.
- (5) 한편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돌아올 때 5일이 소요되었던 것(20:6)과 비교해 볼 때 네압볼리까지 250km를 향해하는 데 2일밖에 걸리지 않은 것은 바울이 탄 배가 순풍을 만났음을 의미한다.

9. **㉠** 바울이 도착한 빌립보는 어떤 성읍인가? (12절)

- ㉠** (1) 네압볼리에서 16km 서북에 위치한 빌립보는 양쪽으로 스트루몬 강과 네스토스 강이 흐르고 있고 북쪽과 동북쪽으로는 관계우스 산이 가로막힌 평야가 있었던 성읍이다.
- (2) B. C. 356년 마게도냐의 필립 2세는 평야와 금으로 유명했던 이 성읍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민과 지역을 크게 늘렸으며 자신의 이름을 따 ‘크레니테스’라는 그 성읍의 이름을 빌립보로 바꾸었다.
- (3) B. C. 167년 마게도냐가 로마에게 정복당하자 빌립보도 로마 제국의 일부가 되었고, B. C. 146년에 데살로니가를 수도로 하는 개편된 마게도냐 주(州)로 편입되었다.
- (4) 그 후 ‘이그나티우스 대로’가 개통되므로 인해 빌립보는 로마의 다른 중요한 도시들과 연결되었다.
- (5) 로마 시대에 빌립보는 B. C. 42년에 일어난 제 2차 내란의 결전장이 됨으로써 유명해졌고 그 전쟁 후에 많은 로마의 직업 군인들이 이주해 왔으며 로마의 식민지로 지정되었다.
- (6) 이처럼 신약 시대의 빌립보는 농업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바다가 가까이 있는 관계로 무역의 중심지였으며 또한 아시아와 서방을 연결하는 통로 겸 전략적인 요충지였다.

10. **㉠** 빌립보에서 머무르고 있던 바울의 일행은 안식일에 어디로 나갔는가? (13절)

- ㉠** (1) 바울의 일행은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문밖 강가로 나갔다.
- (2) 그들에게는 새로 방문한 도시에서 안식일을 맞을 경우 회당에 참석해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상례였다(참조, 13:5;14:1).

- (3) 그런데도 그들이 기도처를 찾기 위해 강가로 나간 것은 빌립보에 유대인 회당이 없었음을 의미한다.
- (4) 당시 유대인의 법에는 회당을 구성하려면 남자 세대주 10명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회당이 없다는 것은 빌립보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
- (5) 회당의 구성 정족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야외나 강가 또는 바다 근처에 기도하는 장소를 마련하였다.
- (6) 바울의 일행은 멀지 않은 강가에서 쉼마(shema)를 외우고 율법서와 예언서 귀절들을 읽으며 기도하며 가능하면 여행 중인 랍비에게서 강론을 듣고 권면과 축복을 받기 위해 모인 여자들을 발견하였다.
- (7) 한편 바울의 일행이 찾아간 강은 빌립보 서쪽 약 2.4km 지점에 있는, 스트루몬 강의 지류인 강기테스(Gangites) 강이었을 것이다.

11. ㉠ 강가에 모인 여인들 중 바울의 말을 청종(聽從)한 사람은 누구인가? (14절)

- ㉠ (1) 그 여인은 소아시아의 도시 두아디라 성에서 온 자주 장사 루디아였다. 그녀의 이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대부분의 신학자들(F. F. Bruce 등)은 그녀의 '루디아'라는 이름이 본명이 아니라 단지 고대 루디아 왕국의 영토였던 지방에 살던 사람이라는 뜻으로 부른, 다시 말하면 '루디아 출신의 여인'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본다.
- (2) 당시 두아디라는 직조와 자색 염료 사용 기술로 유명했는데 루디아가 빌립보에 온 목적도 자색 염료 사용의 기술자로서 그 사업을 계속 확장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 (3) 누가는 루디아를 가리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녀가 빌립보에 오기 전에 고향인 두아디라의 회당에서 이미 유대교의 가르침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 (4) 그런데 그녀가 바울의 말을 들을 때에 그녀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 (5) 이처럼 복음은 여러 사람에게 선포되었지만 그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한 소수의 인원뿐이다.
- (6) 그러므로 바울은 고전 3:6, 7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나라'고 고백하였다.
- (7) 우리는 여기서 복음 전도자들의 사명이란 다만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시기 때문이다(참조, 28: 23, 24).

12. ㉠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청종한 결과는 무엇인가? (15절)

- ㉠ (1) 루디아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기독교로 개종하였다.
- (2) 이것은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하여 그녀의 온 집안이 구원을 얻었음을 의미한다.
- (3) 또한 그녀는 바울의 일행을 강권(強勸)하여 그녀의 집에서 머무르게 하였는데 이것은 섬김의 본을 보여 준 것으로 전도 여행으로 지친 바울의 일행에게 큰 힘이 되었다.
- (4) 뿐만 아니라 그녀의 집은 빌립보 지방의 기독교 전파와 예배의 중심지가 되었다(참조, 40절).
- (5) 빌립보 교회는 이런 작은 모임들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여러 차례에 걸친 재정적인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훗날 바울이 로마에 감금되어 있을 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헌금을 보내 주기도 하였다(빌 4:16).

- (6) 이와 같이 한 사람의 진실한 변화는 그 자신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도 구원을 받게 하는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다.
- (7)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의 구원받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비교, 은 3:4-10).

13. **㉠** 바울의 일행이 기도처로 가다가 만난 사람은 누구인가? (16절)

- ㉠** (1) 바울의 일행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占)하는 귀신들린 한 여종을 만났다.
- (2) 그 여종에게 들린 '귀신'에 해당되는 헬라어 <프뉴마 푸도노스>는 '피돈의 영'(a spirit of python)이라는 말이다.
- (3) 여기서 '피돈'은 고린도만 북쪽 파르나소스 산 기슭에 위치한 아폴로 신전과 신탁을 지키는 신화상의 뱀 또는 용을 가리킨다.
- (4) 뒤에 '피돈'이란 말은 귀신들린 사람, 특히 점치는 사람이나 복화술(腹話術)로 사람의 운명을 점치는 사람들을 의미하게 되었다.
- (5) 그런데 그 여종은 점을 쳐 사람들의 앞날을 알아맞히고 많은 돈을 벌었지만 대부분의 수입금을 주인들에게 바쳐서 그들을 크게 이롭게 하였다.
- (6) 그런 까닭에 그 주인들은 여종의 병을 고쳐 주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의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 그녀의 병을 악용하고 있었다(19절).
- (7) 이와 같은 그 주인들의 태도는 오늘날 자신들의 사리 사욕(私利私慾)을 위해 힘없는 사람을 희생시키는 불의한 정치인들, 악덕 기업주들 그리고 적게는 이기주의에 젖어 있는 우리들의 태도와 다를 바 없다.

14. **㉠** 귀신들린 그 여종은 바울의 일행을 향해 무엇이라고 외쳤는가? (17절)

- ㉠** (1) 그 여종은 바울의 일행을 쫓아와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큰소리로 외쳤다.
- (2) 이런 장면은 귀신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지른 일을 상기시켜 준다(막 1:24; 3:11; 5:7; 눅 4:34, 41; 8:28).
- (3) 그런데 그 여종의 외치는 내용은 유대인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표현되었다.
- (4) 즉 '지극히 높은 하나님'(헬, 호 데오스 호 휩시스토스)이란 칭호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베니게 사람들의 신(엘 헬루은)과 헬라인들의 제우스(쓰스) 신을 가리킬 때도 사용된다.
- (5) 또한 '구원'(헬, 소테리아)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사람과 물질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권세로부터 해방된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 (6) 이 같은 귀신들린 여종의 외침은 바울과 실라의 사역을 가장 명쾌하게 잘 나타낸 것으로 오늘날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된다(참조, 사 43:10; 딤후 2:15).

15. **㉠**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면서 귀신을 내어 쫓았는가? (18절)

- ㉠** (1) 바울은 여러 날 동안 귀신들린 그 여종이 그들을 볼 때마다 쫓아와서 17절의 내용을 외치자 심히 괴로와하여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고 명하였다.
- (2) 그러자 그 여종에게 들어가 있던 귀신이 즉시 나오게 되었고 그 여종은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게 되었다.
- (3) 이와 같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그리스도께서 복음 전도자들에게 주신 능력들 가운데 하나로 그리스도께서 귀신들의 정복자임을 나타내는 표적이었다(마 4:28; 8:16; 막 3

:22; 눅 4:41).

- (4) 그 실례로 그리스도께서 파송한 12제자와 70인의 전도대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권세를 받은 사실을 언급할 수 있다(마 10:1; 막 6:7; 16:17; 눅 9:1; 10:17).
- (5) 그런데 이 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기도가 있어야만 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병어리 귀신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믿음이 없는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한 사건에서 증명된다(마 17:15, 16; 참조, 막 9:18, 28, 29).
- (6) 또한 이 능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가능했다. 이것은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믿음과 기도 없이 시험적으로 악귀들린 자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할 때 오히려 그 악귀에게 해를 입었던 사실을 예로 들 수 있다(19:13-16).
- (7)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그를 대신해서 오신 보혜사 성령께서 이 일을 수행하시게 되었다(요 14:16; 15:26; 16:7). 따라서 오늘날에도 보혜사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의 능력을 힘입어 능히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참조, 고전 12:4-11).

16. **㉠** 귀신들렸던 여종의 주인들은 어떤 죄목으로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는가? (19-21절)

- ㉠** (1) 그들은 로마 사람인 자신들이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風俗)을 전한다는 죄목으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였다.
- (2) 즉 표면적으로는 기독교라는 불법 종교를 포교한다는 죄목으로 고소하였다. 그것은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이방 종교의 포교를 금하는 로마법에 위배되기 때문이었다.
- (3) 그러면서 그들은 고의적으로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이라는 사실을 언급해 관리들의 민족적인 자부심을 자극시켰다.
- (4) 또한 빌립보 성의 주민들을 심히 미혹케 하는 자들이라는 말을 덧붙임으로써 바울과 실라를 로마에 반기를 드는 불순한 자들로 몰아붙였다.
- (5) 그러나 실상은 이 모든 일이 자신들에게 이익과 소망을 주었던 귀신들린 여종을 바울이 고쳐 준 데 대한 불만에서 나온 것이다(18, 19절).
- (6) 한편 그들이 바울과 실라와 동행했던 누가와 디모데를 고소하지 않은 이유는 누가와 디모데가 헬라인이기 때문이었다(참조, 1-3절).
- (7) 이와 같이 자신의 불의한 행동을 깨우쳐 주는 의로운 사람들의 행동을 감사하기 보다는 오히려 미워하고 파멸시키려고 애쓰는 것이 악한 인간들의 진면목(眞面目)이다(참조, 잠 9:7, 8).
- (8) 우리는 이처럼 거짓되고 망령되며(시 58:3; 단 2:9) 상대방을 모욕하고(삿 12:4) 꾀사(시 144:8, 11)와 패역(잠 2:12)을 일삼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태도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엡 4:31; 딤후 3:1, 2; 약 3:6; 4:11; 벧전 2:1). 성도는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여 이웃에게 덕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

17. **㉠** 무리의 고소를 듣고 상관(上官)들은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 (22-24절)

- ㉠** (1) 상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심하게 매질을 하게 한 다음 옥에 가두도록 명령하였다.
- (2) 여기에서 '상관들'(헬, 스트라테고스)이란 로마 식민지인 빌립보에 파견된 2명의 집정관을 가리키는 말이다.
- (3) 그들은 이미 로마인이라는 민족적인 자부심과 로마의 평화를 자극하는 무리들의 말을 듣고 이미 재판관으로서의 냉철한 판단력과 이성을 잃어버렸다.
- (4) 왜냐하면 그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로마 시민이라고 밝힌 바울과 실라의 말을 들었을 것이고, 로마 시민을 그런 식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참조, 22:24-29) 바울과 실라의 항의를 묵살한 채 그대로 형을 집행했기 때문이다(참조, 37, 38절).

- (5) 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 경험을 그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입은 환난의 하나로 회상하면서, 복음 증거를 자랑하는 자들에게 그는 복음을 위하여 그들보다도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세 번 태장(笞杖)으로 맞았다'라고 하였다(고후 11:23, 25).
- (6)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때론 엄청난 불이익과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초대 교회가 그러했고 일제 치하와 공산군의 침략하에서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그러했다.
- (7)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그러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사실을 잊어버린 채 너무 편안하고 안일하게 신앙 생활하는 우리의 현실이 안타깝다.

18. **㉠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25절)**

- ㉠** (1)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
- (2)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로마 시민인데도 불구하고 매질과 옥에 갇혀 착고(着網)에 채인 것을 원통해 하고 또한 매질로 인한 상처로 고통 중에 있을 것이라는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다.
- (3) 이처럼 성도는 의를 위하여 환난과 핍박을 당할 경우 지금 받는 환난의 경(輕)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重)한 것을 이루는 한 과정임을 기억하면서(고후 4:17; 엡 3:13) 낙심치 말아야 한다(고후 4:1).
- (4)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는 성도는 오히려 환난과 핍박을 즐거워할 수 있고(마 5:12), 인내하며(고전 4:12) 주께 영광을 돌리고(벧전 4:16)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7:59; 마 5:44).

19. **㉠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26절)**

- ㉠** (1)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며 모든 사람의 쇠사슬이 다 벗겨졌다.
- (2) 이 사건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다. 바울과 실라를 구출키 위한 것 뿐 아니라 간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 (3) 이처럼 지진의 주관자는 하나님으로서, 지진을 포함한 자연의 모든 현상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재와 능력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고(시 68:7, 8; 히 12:26),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들이다(참조, 민 16:31, 32; 사 29:6; 겔 38:19-23).

20. **㉠ 잠에서 깨어난 간수는 열린 옥문을 보고 어떻게 행동하였는가? (27, 28절)**

- ㉠** (1) 간수는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했다고 생각하며 짐을 빼자결(自決)하려고 했다.
- (2) 당시 로마법에는 죄수가 도망을 가면 그를 지키던 간수가 그 죄수의 형량만큼 형을 살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 (3) 따라서 간수가 자결하려고 했던 이유는 자신이 대신할 형량과 더불어서 죄수를 놓친 간수라는 수모가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 (4) 이것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전에 로마 군인의 의무와 책임 등에 관해 엄격한 육체적, 정신적 교육을 받았던 퇴역 군인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타당하다.
- (5)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은 채 그대로 감옥에 남아 있음을 알렸다(28절).
- (6) 이와 같이 모든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하나님의 계속적인 간섭의 결과였다. 이 모든 일은 곧 간수의 생명을 구함과 동시에 바울과 실라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7)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때로는 자연과 사람들을 함께 사용하기도 하신다.

21. **㉠ 바울의 말을 듣고 간수는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29, 30절)**

- ㉠** (1)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였다.
 (2) 그가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은 조금 전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이 직접, 간접적으로 그가 들었던 귀신들린 여종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는 말을 확증해 주는 일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3) 그래서 그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에게 내적인 자유와 안정을 얻는 길을 보여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간주하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라고 질문하였다.
 (4) 그가 사용한 호칭 '선생들아'(헬, 퀴리오이)는 매우 예의바르며 존경의 어조를 띠고 있다.

22. **㉠ 구원의 방법을 묻는 간수에게 바울은 무엇이라고 대답했는가? (31-34절)**

- ㉠** (1)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대답했다.
 (2) 이 대답은 바울과 실라가 오순절 이후 전해 왔던 동일한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이었다(참조, 2:38, 39; 3:19-26; 4:12; 8:12, 35; 10:43; 13:38, 39).
 (3) 이어서 바울은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안에 속죄의 기쁨이 있다는 '주의 말씀'을 전하였다.
 (4) 그러자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감옥 안뜰에 있는 우물에서 세례를 받았다. 곧 이어 바울과 실라를 그들의 집으로 데려가 음식을 대접하고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다.
 (5) 이 영적인 교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으로 그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기쁨이 있다(참조, 사 12:3; 35:10; 요 16:24; 롬 14:17).
 (6) 그러므로 영적인 기쁨이 없이 다만 세상 흘러가는 이야기와 세속적인 쾌락으로 얼룩진 교제는 성도간의 교제라고 말할 수 없다(참조, 전 7:6; 약 4:9).
 (7) 한편 우리는 바울을 통해 자신이 예수 없는 복음을 혹시라도 증거하지 않았는가 반성해 보자. 또한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이전의 모습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지 않는가 살펴보자(비교, 33, 34절).

23. **㉠ 날이 새자 상관들은 누구를 바울과 실라에게 보냈는가? (35, 36절)**

- ㉠** (1) 상관들은 아전(衙前)을 보냈다.
 (2) 그들은 집정관을 따라다니면서 집정관의 명령을 따라 죄인을 잡으며, 벌하며, 사형을 집행하는 로마의 하급 관리로 포승과 도끼를 몸에 지니고 다녔다.
 (3) 그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온 목적은 석방시키라는 상관들의 명령을 집행하기 위해서였다.
 (4) 이렇게 신속히 석방 조치가 취해진 것은 상관들이 공적인 태형과 하룻밤의 투옥만으로도 바울과 실라에게 로마의 식민지에서 평화를 깨뜨리고 어지럽히는 일이 지극히 위험한 행위임을 충분히 일깨워 주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4. **㉠ 상관들은 아전들의 어떤 보고를 듣고 두려워하였는가? (37, 38절)**

- ㉠** (1) 상관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사람이라는 아전들의 보고를 받고 두려워하였다.
 (2) 당시 아우구스도 칙령(Edicts of Augustus)에 의해 확정되고 발전된 발레리안과 포르시안 법(Valerian and Porcian laws)에는 로마 시민은 로마의 보호 아래 로마 행정 지역의 어느 곳이나 여행하며,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지방 법률에 따라 재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3) 또한 곤란한 문제일 경우에는 지방 당국자가 아닌 황제 자신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참조, 25:11).

- (4) 따라서 상관들이 로마 시민인 바울과 실라에게 태형을 가하고 투옥시킨 일은 발레리안과 포르시아 법을 어긴 상당히 심각한 위법 행위였고 충분한 문책 사유가 되었다.
- (5) 아전들의 보고를 받고서야 그들은 어제 자신들의 저지른 일들이 성급한 조치였고 또한 감정에 치우쳐 사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행위였음을 깨닫게 되었다.
- (6) 이처럼 우리가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일들을 냉철한 이성으로 판단하지 않고 감정에 얽매어 처신할 경우 큰 낭패를 당하게 된다(참조, 잠 16:32).

25. **㉠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상관들은 그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가? (39절)**

- ㉠** (1) 그들은 바울의 요구와 같이(37절) 직접 와서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였다.
- (2) 그들은 혹시라도 바울과 실라가 로마 당국에 자신들을 제소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거만한 태도를 버리고 겸손히 자신들의 행위를 사과하였다.
- (3) 또한 로마 시민은 유죄 선고를 받지 않는 한 로마의 어떤 도시에서도 추방될 수 없지만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분노한 대중들로부터 보호할 책임을 감당할 능력이 자신들에게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빌립보를 떠나도록 요청한 것이다.
- (4) 이와 같이 우리가 실수를 범해 제삼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히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며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참조, 스 10:11; 엡 4:32).
- (5) 오늘날 우리가 속한 교회나 사회에서 불협 화음(不協和音)이 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런 자신의 잘못에 대한 솔직한 시인과 용서가 없기 때문이다(참조, 삼하 12:3; 잠 28:13; 막 1:5; 눅 5:8; 15:8).

26. **㉠ 감옥에서 나온 바울과 실라는 누구의 집으로 갔는가? (40절)**

- ㉠** (1) 바울과 실라는 두아디라 성의 자주(紫紬) 장사로서 얼마 전 세례를 받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갔다(14, 15절).
- (2) 거기서 그들은 형제들, 즉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 귀신들렸던 여종으로 구성된 성도들의 작은 무리를 만나 보고 그들의 처음 믿는 신앙을 격려해 주었다.
- (3) 이렇게 작은 무리로 은밀하게 시작된 빌립보 교회는 유럽 교회의 발상지가 되었고 영적으로나 수적으로 점점 성장하였다.
- (4)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서 구금 생활하고 있을 당시인 A. D. 62년경 빌립보 교회를 향해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는 편지를 쓰게 되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옥중 서신의 하나인 '빌립보서'이다(참조, 빌 1:1).
- (5) 우리는 여기에서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 나중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을 향해 따뜻한 격려와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이 신앙의 앞선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배울 수 있다(빌 3:17).

본장의 요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31절).

제 17장 소아시아와 유럽을 향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2)

단락구분 1-9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다 / 10-15 베뢰아 전도와 유대인들의 훼방 / 16-21 바울이 아덴 사람들과 변론하다 / 22-31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연설하다 / 32-34 바울의 연설에 대한 아덴 사람들의 반응

1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지라

2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세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3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4 그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좇으니

5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6 발견치 못하매 야손과 밋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7 야손이 들었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8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9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를 받고 놓으니라

10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뢰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11 베뢰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12 그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13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뢰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14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15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16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17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18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토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새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지 하느뇨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이냐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라

19 불들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새 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20 네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21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라

22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23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24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25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26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 하셨으니

27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받

견케 하려 하심으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다

28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여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29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30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시 회개하라 하셨으니

31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32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33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매

34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1. **㉠ 본장에 기록된 바울의 전도 여행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전장(16장)에 이어 소아시아와 유럽을 향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다.
- (2) 즉 빌립보를 떠난 바울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가와 베뢰아 그리고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 (3)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가는 곳마다 복음 증거를 훼방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 (4) 빌립보에서 태형과 투옥을 경험한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그를 시기했던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였고 베뢰아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 쫓아온 유대인들에 의해 괴로움을 당했다(5, 13절).
- (5) 뿐만 아니라 아덴에서는 죽은 자의 부활을 증거한다고 기롱(譏弄)을 받았다(32절).
- (6)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소개하고 믿음의 자손들을 출생시켰다. 데살로니가에서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않은 귀부인이, 베뢰아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아덴에서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 (7) 이처럼 복음이 선포될 때에는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환영과 반대라는 상반된 모습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 (8) 그러므로 복음에는 사람들을 두 가지 부류로 나누는 능력, 즉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과 복음을 대적인 결과 정죄받을 육에 속한 사람들로 분리하는 힘이 있다(참조, 30절; 막 16:16; 요 3:18-20; 롬 1:16, 17).

2. **㉠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는 바울의 전도 여행지를 설명하라(1절).**

- ㉠ (1) 바울은 먼저 빌립보에서 남서쪽으로 약 53km 떨어진 암비볼리로 갔다.
- (2) B. C. 167-146년에 마케도냐 북부 지방의 수도이기도 했던 암비볼리는 빌립보 지방보다 큰 정치와 교통의 요충지였다.
- (3)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그곳을 거쳐 계속 남서쪽으로 진행하여 암비볼리에서 약 43km 지점에 있던 아볼로니아를 지나 마케도냐 지방의 수도로서 가장 크고 번성한 도시였던 데살로니가로 갔다.
- (4) 데살로니가는 B. C. 167년 마케도냐를 정복한 로마에 의해 마케도냐 제 2구역의 수도가 되었으며, B. C. 142년 마케도냐가 재조직되자 주의 수도가 되었으며 B. C. 42년 로마의 2차 내란 시 빌립보 부근의 싸움에서 옥타비아누스(후에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편을 들었기 때문에 자유 도시의 특권을 부여받았다.
- (5) 당시 데살로니가는 인구 약 20만의 큰 도시로 마케도냐의 정치, 경제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바울은 그곳을 발칸 반도 전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보았던 것

같다(참조, 살전 1:7, 8).

- (6)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160여 km나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로 결사적으로 들어간 것이고 이로 인해 데살로니가는 유럽에서 빌립보에 이어 두번째로 교회가 세워진 지역이 되었다.

3. **㉠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인가? (2절)**

- ㉠** (1) 바울은 자신의 규례대로 세 안식일 동안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증거하였다.
 (2) 여기에서 '규례'에 해당되는 헬라이어 <에도스>는 '습관', '익숙한 일'이라는 뜻이다.
 (3) 즉 바울은 새로 방문한 도시에서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가 복음을 강론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하나의 습관으로 삼았다는 말이다.
 (4) 바울은 살라미(13:5)와 비시디아 안디옥(13:14), 이고니온(14:1)에서도 그의 습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강론했었고 또한 회당이 없는 도시에서는 기도처를 찾아 강가로 나가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었다(16:13).
 (5) 이처럼 바울이 새로 방문한 도시마다 그곳의 회당을 찾아간 것은 회당이 유대인들의 생활의 중심점(求心點)이었고 유대인 공동체들에 의해 공중 예배, 교육 또는 집회를 위해서 사용된 집회 장소인 까닭에, 안식일에 그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그곳에 모였고, 그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기에는 그보다 좋은 장소가 없었기 때문이다.

4. **㉠ 바울은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무엇을 강론(講論)하였는가? (2, 3절)**

- ㉠** (1) 바울은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였다.
 (2) 그러면서 자신이 증거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였다.
 (3) 이처럼 비시디아 안디옥(13:14-41)과 아덴(13:18), 아레오바고(13:31)에서 뿐만 아니라 이곳, 즉 데살로니가에서도 바울의 설교 요지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증거와 그 그리스도가 예수이심을 알리는 선포였다.
 (4) 이와 같은 바울의 설교 내용은 소아시아와 유럽에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으며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서 유대인 지도자들에 의해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죄목 등으로 고소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참조, 24:5).
 (5) 바울 자신도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애쓰는 이유를 선지자들과 모세가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과 부활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는 것을 전한 것 때문이라고 밝혔다(26:21-23).
 (6) 한편 바울은 훗날(A. D. 55)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자신의 말과 전도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의 없어질 관원(官員)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고 또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제시하였다(고전 2:4-8).
 (7) 이와 같이 바울의 삶은 그리스도의 택한 그릇이요(9:15), 사환과 증인으로서의(26:16) 철저한 삶이었다.
 (8) 우리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1:8).

5. **㉠ 바울의 강론을 듣고 어떤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쫓았는가? (4절)**

- ㉠** (1) 일부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않은 귀부인도 바울과 실라를 쫓았다.
 (2) 여기에서 '경건한 헬라인'이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방인'을 가리킨다.

이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으나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다(참조, 10:2).

- (3) 또한 ‘귀부인’은 데살로니가의 높은 지위에 있는 귀족들의 아내를 가리킨다.
- (4) 이처럼 바울과 실라를 쫓았던 무리들 가운데는 그 두 사람을 숨겨 준 야손(5-7절)과 아시아까지 함께 간 선교의 동역자 아리스다고와 세군도(20:4)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 (5) 결국 이것은 혈통적 이스라엘인이라 자랑하던 유대인들의 교만함을 물리치고 당신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와 더불어 일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이라 아니할 수 없다(참조, 갈3:29). 하나님께서는 항상 인간적인 조건을 따지기 보다는 당신의 주권에 따라 사람을 선택하시고 또한 사용하신다.

6. **㉠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그와 실라를 쫓자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5-9절)**

- ㉠** (1)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바울의 설교에 감화를 받자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怪惡)한 사람들을 데리고 소동을 일으켰다.
- (2) 여기에서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이란 데살로니가에 있는 시장 가에서 항시 빈둥거리며 사악하고 타락한 행위를 일삼는 건달들을 가리킨다.
- (3) 이와 같이 복음에 대한 유대인들의 태도는 4절에 등장하는 헬라인들의 태도와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다.
- (4) 이런 그들의 태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완고한 태도(마8:10-12; 요9:39-41; 12:37-40)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다음과 같은 특권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 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심(신7:6, 7).
 - ② 메시아가 이스라엘에서 나심(미5:2; 눅2:4-7; 롬9:5).
 - ③ 복음을 먼저 들었음(롬1:16).
 - ④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롬3:1, 2).
 - ⑤ 하나님의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을 가졌음(롬9:4).
 - ⑥ 아브라함과 같은 조상울 가졌음(롬9:5).
- (5) 우리는 본질의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건달’이라는 결코 양립될 수 없는 두 가지 개념이 타협되었음을 보았다.
- (6) 이처럼 성도가 영적으로 무지해지고 타락할 때에 때로는 불신자들보다도 더욱 강박해지고 복음을 대적하는 경우가 허다하다(참조, 7:54, 57; 28:25-27; 겔5:6; 히6:6).

7. **㉠ 유대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어떤 죄목으로 고소하려 했는가? (5-7절)**

- ㉠** (1) 유대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① 로마 제국 안에서 국가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종교를 가르치므로 천하를 어지럽게 했고 ② 가이사(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다른 왕을 선포했다는 죄목으로 고소하려고 계획했다.
- (2) 이 죄목 중 ①은 빌립보에서 귀신들린 여종의 주인들과(16:20, 21) 가이사(가이사)에서 변사(辯士) 더들로가 바울에 대해서 고소했던 내용과 일맥 상통한다(25:5).
- (3) 또한 ②의 ‘임금’에 해당되는 헬라어 <바실레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로마 황제를 지칭할 때 사용되는 말이기도 하다(비교, 마16:28; 눅23:42; 벤전2:13, 17).
- (4) 따라서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씌운 죄명은 로마의 평화를 깨뜨리고 로마 황제에게 대항한다는 국가 반역죄로서 이것이 접수될 경우 한치의 용서도 바랄 수 없는 형편

이었다.

- (5) 이처럼 악인들은 길에 울무와 줄과 그물과 함정을 놓고 성도가 빠져 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뱀같이 혀를 날카롭게 하며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을 숨기고 있다. 이런 절대 절명의 순간에서 성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겸손히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것이다(시 140:1-5).

8. **Q** 유대인들은 누구를 읍장(邑長)들 앞에 끌고 왔는가? (5-8절)

- A** (1) 유대인들은 야손과 형제, 즉 신자 몇 사람을 읍장들 앞에 끌고 왔다.
 (2) 그들은 야손의 집에 있던 바울과 실라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려 했으나 미리 그 두 사람이 피신하는 바람에 집주인인 야손과 거기에 있던 몇몇 신자들을 로마의 평화를 깨뜨린 반역자들의 은닉죄(隱匿罪)로 끌고 온 것이다.
 (3) 그들의 고소를 받은 읍장들(헬, 폴리타르카스)은 5명으로 구성된 데살로니가의 자치 단체에 속한 행정 장관들이었다.
 (4) 그들은 바울과 실라, 야손에 대한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몹시 놀랐다. 그 이유는 A.D. 49년 로마에서 발생한 기독교인과 유대인들 간의 반목(反目)과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떠나도록 조처한 글라우디오(Claudius, 41-54) 황제의 칙령을 알고 있는 관계로 이 같은 소동이 데살로니가에서 흑시라도 재발된 것이 아닌가 생각했기 때문이다.

9. **Q** 읍장들은 끌려온 야손과 몇 명의 신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9절)

- A** (1) 읍장들은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保)를 받고 놓아 주었다.
 (2) 분명히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은 경계의 대상이 되었지만 증거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읍장들은 달리 특별한 방도를 취할 수 없었다.
 (3) 그러나 만일에 발생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보, 즉 야손의 일행에게 보증 또는 담보를 받았다.
 (4) 이 보증이란 지금과 같은 소동을 다시는 일으키지 않으며 바울과 실라를 데살로니가에서 떠나도록 하겠다는 등의 다짐으로 이를 어길 시는 육체적, 재산상의 피해 감수하겠다는 내용이었을 것이다.
 (5) 이 다짐대로 그들은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를 베뢰아로 보냈다(10절). 그렇다고 해서 복음 전파가 중단되었거나 유대인들의 대적 행위가 그친 것은 아니었다.
 (6) 왜냐하면 바울은 서신으로 계속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였고, 그곳의 성도들도 온갖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더욱 꽃 피웠으며 이에 대해 유대인들은 베뢰아와 예루살렘에까지 쫓아와 바울을 괴롭혔다(13절; 21:27, 28).
 (7) 한편 바울은 훗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여러 차례 그들을 방문하고자 했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라고 했다(살전 2:18).
 (8) 이 말은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이 읍장들에게 한 '보', 즉 바울과 실라가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아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과 깊은 관계가 있다.
 (9) 그 이후로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방문하지 않으므로 해서 야손 일행이 읍장들에게 한 약속을 충실히 지켰다.
 (10) 이처럼 인간과의 약속을 성실히 지키는 줄 아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자세이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인간과의 약속을 못 지키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다.

10. **Q** 데살로니가를 떠난 바울과 실라는 어디에 이르렀는가? (10-12절)

- A** (1) 바울과 실라는 베뢰아에 도착했다.
 (2) 베뢰아는 마게도나 평원 남쪽 올림푸스 산맥 기슭의 조그마한 언덕에 있는 도시로 데살로니가 남서쪽 약 80km 지점에 위치해 있었다.

- (3) 그곳에 회당이 있다는 사실은 빌립보 보다 훨씬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음을 의미한다(참조, 16장 ④ 10).
- (4) 한편 누가는 복음에 대한 베뢰아 유대인들의 태도가 데살로니가 유대인들 보다 더 신사적(紳士的)이라 했다. 즉 그들은 마음이 승고하고 고결하였다.
- (5) 왜냐하면 베뢰아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진가(眞假)를 정치적, 문화적인 사고로 판단하지 않고 성경을 표준으로 알아내려고 했기 때문이다.
- (6)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바울이 전하는 말이 진리임을 스스로 깨닫고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많았다.
- (7)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만 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푸는 자세를 배워야 한다(참조, 벧후 3:16).
- (8) 이 원리를 잘 응용할 경우 우리의 믿음의 확신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도 더욱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지혜로 기록되었기 때문이다(참조, 고전 2:6-16).

11. ㉠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베뢰아에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였는가? (13절)

- ㉠ (1)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뢰아에서도 전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곧 그곳으로 대표단을 파견하여 데살로니가에서와 똑같은 소동을 일으켰다.
- (2) 이것은 마치 1차 전도 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약 70km를 쫓아와서 무리를 선동해 바울을 들로 쳐 거의 죽게 하였던 사건을 재현(再現)한 듯하다(14:19).
- (3) 데살로니가에서 베뢰아까지의 거리는 약 80km로서 이 거리는 결코 가깝지 않았지만 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즉 나사렛 이단을 증거한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자신들의 생계 활동을 내버려두고 달려왔던 것이다.
- (4) 이러한 모습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기독교인을 박해하기 위해 여러 성읍들을 쫓아다녔던 과거의 바울의 모습(9:1, 2)과 바울을 죽이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약 120km나 떨어진 가이사랴까지 쫓아간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모습(24:1)과 별반 다를게 없다.
- (5) 복음에 대한 훼방자요 꺾박자, 폭행자(暴行者)로서 그들의 이 같은 그릇된 열정은 바울이 지적했듯이 그리스도께 대한 무지에서 출발한 불신앙에 그 원인이 있다(참조, 딤후 1:13-16).
- (6)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 생활에 있어서 가장 경계하고 먼저 척결(剔抉)해야 될 요소가 '영적 무지'임을 인식해야 한다(참조, 롬 10:3; 엡 4:18).

12. ㉠ 베뢰아에서 아덴까지 바울의 행적은 어떠한가? (14, 15절)

- ㉠ (1)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자마자 베뢰아의 신자들은 바울을 바다에까지 인도했다.
- (2) 여기에서 아덴까지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는 해변로를 따라 아덴까지 갔다는 견해이고, 둘째는 배를 타고 아덴으로 갔다는 견해이다. 정확한 행로는 알 수 없지만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다.
- (3) 그런데 첫 견해에 따르면 베뢰아의 신자들이 바울을 바다에까지 데려온 목적은 마치 그를 배에 태워 다른 나라로 보내는 것처럼 위장함으로써 만일에 있을 유대인들의 추격을 따돌리자는 의도가 있었다는 이 견해를 학자들은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 (4) 한편 바울 혼자만이 베뢰아를 떠났으며 그와 동행했던 실라와 디모데는 여전히 베뢰아에 남아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였다. 그 이유는 바울 한 사람만이 유대인들의 공격 목

표인 까닭에 실라와 디모데는 별 위험이 없었기 때문이다.

13. ㉠ 아덴은 어떤 도시인가? (16절)

- ㉠ (1) 아덴은 피라에우스 항구에서 8km 떨어진 내륙 도시로 에게 해의 지류인 사른 만에 위치하고 있었다.
- (2) 이곳의 지형은 북쪽으로 파르네스 산, 동쪽으로 펜텔리쿠스 산, 남동쪽으로 히멧투스 산으로 둘러싸인 좁은 평지였다.
- (3) 아덴은 미노타우르를 죽이고 아마존을 정복한 아티카의 영웅 데시우스(Decius)에 의해 건설되었으며 그 이름은 아테나 여신을 기념하여 붙여졌다고 전해진다.
- (4) 아덴은 페리클레스(B. C. 495-429) 시대에 이르러 그 황금기를 맞이했고 파르테논 신전과 수많은 사원들 및 여러 웅대한 건물들이 속속 건축되었다.
- (5) 뿐만 아니라 문학, 철학, 과학 및 수사학이 꽃을 피웠으며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렸다.
- (6) 그러나 펠로폰네수스 전쟁(B. C. 431-404)으로 인해 아덴은 몰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으나 문화적인 면에서나 지적인 면에 있어서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르스, 제논 등의 등장으로 그 명성이 수세기 동안 계속되었다.
- (7) B. C. 338년 아덴은 마케도냐의 필립 2세에 의해 정복당하였지만 그 정복은 단지 아덴의 문화와 학문을 그의 아들인 알렉산더를 통해 전세계에 퍼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뿐이다.
- (8) B. C. 146년에는 로마가 아덴을 정복하였지만 로마인들은 그리이스의 모든 문물을 애호하였기 때문에 아덴은 그들의 지배하에서도 계속해서 세계의 모든 문화적, 지적인 중심지로 군림할 수 있었다.
- (9) 로마도 아덴을 정치적으로 자유롭게 해주었기 때문에 아덴은 로마 제국 내에서 하나의 자유시(市)로서 그 나름대로의 제도를 수행해 나갈 수 있었다.

14. ㉠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 전도 사역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라(16절).

- ㉠ (1) 바울이 아덴에 온 것은 마케도냐 지방, 즉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뢰아 지역 등지에서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하기 위함이었다.
- (2) 그는 원래 2차 전도 여행의 일정을 무시아에서 비두니아 쪽으로 잡았지만 드로아에서 마케도냐 사람의 환상을 본 이후로 마케도냐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아드리아 해를 건너 이탈리아와 로마에까지 가려고 작정하였던 것이다(16:6-10).
- (3) 그래서 비잔티움에서 이그나티아까지 연결된 이그나티우스 대로(Via Egnatia)를 따라 가면서 그 노상에 있는 네압볼리,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뢰아에서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이다.
- (4) 그러나 마케도냐 지방에서 유대인들의 소송으로 인해 더 이상 그곳에서 전도를 계속할 수 없었고 때마침 모든 유대인은 로마를 떠나라고 명령한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바울은 그가 계획했던 바와는 전혀 다른 곳인 아덴으로 오게 되었다(참조, 롬 1:13; 15:22, 23).
- (5) 그리하여 바울은 아덴에서도 복음의 씨를 뿌렸고 아레오바고 관원인 디오누시오를 위시한 소수의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성과를 올렸다(34절).

15. ㉠ 바울은 아덴에서 무엇을 보고 격분했는가? (16절)

- ㉠ (1) 바울은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그 도시가 온통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고 마음에 분(忿)해 하였다.
- (2) 당시 아덴은 신들의 도시로 그곳에 세워진 신상만 해도 헬라 전국의 신상 수를 능가했다. 그래서 아덴에서는 사람보다 신을 만나기가 더 쉽다는 말이 생겨날 정도였다.

- (3) 바울은 이와 같은 아텐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재정하신 십계명 중 우상 숭배를 금지한 제1 계명과 제2 계명을 어긴 것임을 알게 되었다(출 20:3-6).
- (4) 그의 눈에는 우상 숭배가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귀신에게 절하고 제사하는 아텐 사람들이 한없이 불쌍하게 비쳐졌다(참조, 롬 1:18-23).
- (5) 그와 함께 우상들과 거기에 절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의 행동에 대해 의분(義憤)이 일어났다. 이것은 마치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 장사치들을 향해 일으키셨던 그 분노와 동일한 것이다(요 2:13-16).
- (6)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照明)해서 어긋나는 생활의 우상적인 요소들, 특히나 범국가적으로 진행 중인 단군 신전 건립에 관한 문제들이나 교회 내에 흡입된 사마니즘적인 요소들에 관해 ‘의로운 분’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 기독교인인 우리 자신이 분을 품고 그런 요소들을 척결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것을 막겠는가! (참조, 고전 10:19-22)

16. ㉠ 바울은 아텐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였는가? (17절)

- ㉠ (1) 바울은 ①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②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였다.
- (2) 다시 말하면 그의 규례대로 안식일에는 회당에 나가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아텐 사람들에게 성경을 풀어 그리스도께 적용시키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관해 말하며 그 그리스도가 예수이심을 증거했다(참조, 2, 3절).
- (3) 또한 평일에는 저자, 즉 아크로폴리스 서쪽에 위치해 있고 아텐의 법원이자 시장으로서 아텐 사람들의 생활과 활동의 중심지인 아고라(Agora)에 나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섬기는 신이 거짓 신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증거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변론했다.
- (4) 이처럼 바울은 우상 숭배에 완전히 빠져서 그것이 범죄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채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아텐 사람들에게 예레미야처럼(참조, 렘 20:9)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건딜 수 없었다.
- (5) 이런 바울의 태도는 그리스도의 사환이요 증인으로서, 스스로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복음의 빛진 자라는 생각과(롬 1:14, 15)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미친다는 생각(고전 9:16)에 그 뿌리를 박고 있다.
- (6)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복음의 빛진 자라는 것과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화가 미친다는 생각을 가지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17. ㉠ 바울과 변론했던 아텐의 대표적인 철학파들의 명칭은 무엇인가? (18절)

- ㉠ (1) 누가는 바울과 쟁론(爭論)한 철학자들이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교 철학자들’이라고 하였다.
- (2) 우리에게 ‘에비구레오 학파’는 에피쿠로스 학파(Epicureans)로, ‘스토이교 학파’는 스토아 학파(Stoics)로 알려져 있다.
- (3) 자세한 내용은 다음 도표를 참조하라.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주창자	에피쿠로스(Epicurean, B.C. 341-270)	제논(Zenon, B. C. 340-265)
이름의 유래	주창자인 에피쿠로스의 이름을 본따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함	제논이 아텐의 아고라 광장에서 늘 가르치던 장소가 장식 회랑(Painted stoa)이었기 때문에 스토아 학파라고

		합
주 장	패락이 인생의 주된 목표라고 주장. 이 패락은 육욕적인 것이 아니라 고통, 욕정, 공포, 죽음 등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난 마음의 평정, 즉 아타락시아(ataraxia)를 뜻한다	최고의 선을 '덕'에 두었으며 행복은 삶의 부수물로 보았다. 엄격한 금욕주의와 만물을 통할한다는 로고스론, 최선을 다하는 자는 지위 계급을 막론하고 칭송을 받을 것이라는 만인 동등주의, 만인 형제 사상을 주장
종교관	신들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았으나 그 신들이 인간의 삶과는 전혀 이해 관계가 없다고 하는 자연신교의 입장을 취했다	범신론적인 입장을 취했으며 하나님을 세계 정신이라고 생각하였다

18. ㉠ 아텐의 철학자들은 바울에게 어떤 명칭을 사용했는가? (18절)

- ㉠ (1) 아텐의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교 철학자들은 바울을 말장이라고 불렀다.
 (2) 여기에서 '말장'에 해당되는 헬라어 <스페르물로그스>는 원래 곡식을 따먹는 새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3) 그 후 그 말은 쓰레기를 주워 모으는 수집가를 가리켰고, 다른 사람들의 사상을 가로채서 그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그것이 자기의 것인 양 도용하는 사람들을 일컫었다. 그 이후에 그 말은 변변치 못한 사람들까지 일컫게 되었다.
 (4) 따라서 바울을 향한 '말장'이라는 말 속에는 경멸과 무시, 조롱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
 (5) 이것은 오늘날 복음을 조롱하는 자들이 성도를 가리켜서 '예수장'이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참조, 히 10:33, 34).
 (6)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일을 당할 때에 기뻐하고 더욱 담대하며 인내하라고 우리들에게 권고하였다(히 10:34-36). 왜냐하면 이런 조롱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를 올바르게 믿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19. ㉠ 아텐의 철학자들은 바울을 어디로 데리고 갔는가? (19-21절)

- ㉠ (1)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데리고 갔다.
 (2) 아레오바고는 아텐의 법정 또는 평의회로서 종교·도덕상의 문제와, 바울과 같은 방문자들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하였다.
 (3) 당시 이 법정은 아고라 북서쪽 모퉁이에 있던 바실레이오스 회랑(回廊)에서 열렸다.
 (4)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교 철학자들이 바울을 이 법정에 세운 것은 평의원들, 즉 그 도시의 지도자들 앞에서 그가 전하려는 내용에 관해 설명을 듣기 위함이었다.
 (5) 이제 바울은 앞으로 그 도시에서 전도할 수 있는 자유를 얻느냐 그렇지 않으면 감찰에 걸려 전도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어야 하느냐 라는 중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20. ㉠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한 설교의 서론은 무엇인가? (22, 23절)

- ㉠ (1) 바울은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먼저 '아텐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宗敎性)이 많다' 라고 말하였다.
 (2) 여기서 '종교성이 많다'(헬, 데이시다이모네스테스) 라는 말은 칭찬의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미신적이라는 의미이다.
 (3) 이것은 바울이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모습을 보고 아텐 사람들을 심한 우상 숭배자로 단정하고 그러한 비정상적인 정신을 공박하기로 작정하였음을 의미한다.
 (4) 그 첫 예로 그는 아텐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목격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壇)을 언급하면서 그 '알지 못하는 신'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겠다고 했다.

- (5)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에 관해서 설명해 나갔다. 따라서 그가 가르쳐 주겠다는 신은 이방 신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이었다.
- (6) 이처럼 바울은 방문한 도시의 관습과 환경에 따라 거기에 적당한 서론을 구사하였고 결국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고난, 부활로 연결시켰다(참조, 31절; 13:16-41; 14:15-17).
- (7) 이 같은 바울의 전도법은 오늘날에도 적용된다. 즉 복음을 받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나 잘 아는 것 등으로 대화의 실마리를 풀어 나가는 것도 훌륭한 전도법이다. 하지만 대화의 주제는 언제나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또한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21. ㉠ 바울이 아텐에서 행한 설교의 요지와 특징은 무엇인가? (24-28절)

- ㉠ (1) 바울의 설교 요지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의무에 대한 것이었다.
- (2) 설교의 특징은 첫째,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다신론이나 스토아 철학의 범신론과 반대되는 견해이다.
- (3) 둘째, 하나님께서 이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밝혔다.
- (4) 셋째,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셨기 때문에 인류는 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같은 조상을 가진 후손이라고 주장하였다.
- (5) 이것은 자신들이 아티카(Attica) 본토의 흙에서 생겨나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자랑하는 아텐 사람의 생각과 반대된다.
- (6) 네째,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인간들에게 가까이 계셔서 인간들의 기동(起動)과 생활 등 모든 면을 섭리하고 계신다고 하였다.
- (7) 이 견해는 신이 우주를 창조하신 후 물러서서 인간의 일에 절대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에쿠피로스 철학의 자연신론(deism)과 반대된다.
- (8) 다섯째,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으며 어떤 피조물의 도움도 전혀 필요 없는 천지의 주재(主宰)시라고 밝혔다.
- (9) 이 주장도 때로는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사람의 손으로 새겨서 만질 수 있는 헬라의 신들과는 큰 차이가 있다.
- (10) 이와 같은 바울의 신관은 아텐의 철학자들과 대적하기 위해 준비한 궤변(詭辯)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신 모습이며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가슴속에 가지고 있는 그 신관과 동일한 것이다.

22. ㉠ 바울은 그의 설교 가운데 헬라 시인의 글을 인용하였다. 그것은 무엇인가? (28절)

- ㉠ (1) 첫째는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는 귀절로 크레타의 시인 에피메니데스(Epimenides, B. C. 6C)의 4행시 「크레티카」(Cretica)에서 인용하였다.
- (2) 둘째는 ‘그의 소생(所生)이라’는 귀절로 길리기아의 시인 아라투스(Aratus, B. C. 315-240)의 「패노메나」(Phainomena) 가운데 5행을 인용한 것이다.
- (3) 이와 유사한 표현이 클레안테스(Cleanthes)의 시 「제우스에게 드리는 찬송」(Hymn to Zeus)에도 나타나 있다.
- (4) 이처럼 바울이 헬라 시인들의 글을 인용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헬라 다신론의 제우스나 스토아 철학의 범신론의 견지에서 생각했다고 성급히 판단해서는 안 된다.
- (5) 그것은 설교의 서두에서 아텐 거리에 있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을 인용했듯이(23절), 복음 전파를 위해 청중과 공동 기반을 얻을 목적으로 인용한 것이다.
- (6) 그 결과 바울의 설교 내용이 강력하게 부각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이러한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 바울의 설교는 철저하게 성경적이며 기독교적이었다.

23. ㉠ 바울이 말하는 ‘신의 소생’이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29절)

- ㉠ (1) 바울은 이 말을 스토이교 철학(Stoics)의 범신론적인 의미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그의 형상을 따라 그의 모양대로 지음 받은 존재라는 성경적인 인간론의 의미

에서 한 것이다(창1:26, 27).

- (2)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께 지음 받은 인간이 자신을 창조해 준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 등으로 만든 조형적인 신상으로 여길 수 없다고 말하였다.
- (3) 왜냐하면 그 신은 인간이 고안해 내서 거기다가 자신의 기술을 사용해 금이나 은, 돌 등에 새긴 것으로,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기 때문이다.
- (4) 이 같은 바울의 우상 숭배 반대론은 이사야가 우상을 만드는 자들에게 경고했던 사 44:9-20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 (5) 한 편에서는 그 신상들을 불가시적(不可視的)인 신성에 대한 단지 상징에 불과한 것이라고 합리화시키기도 한다.
- (6) 그러나 실상 그들은 그 신상들에게 하나님만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과 충성을 바치고 있다.
- (7) 그러므로 우리는 신상을 섬기는 것이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명백히 위반되며, 하나님이 그러한 조각품으로 제한해서 섬기기에는 너무나도 광대(廣大)하시고 지존(至尊)하신 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레 7:25; 신 11:16; 사 42:8).

24. ㉠ 바울은 지금이 어떤 때라고 선포하였는가? (30, 31절)

- ㉠ (1) 바울은 지금이 회개할 때라고 아덴 사람들에게 선포하였다.
- (2) 그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허물치 아니하셨지만 이제는 어디에 있는 사람에게 다 회개할 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이라고 소개하였다.
- (3)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作定)하셨고, 또 그 사람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선포하였다.
- (4)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참조, 롬 1:3, 4).
- (5)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재림, 즉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며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실 심판의 날이 가까웠음을 의미한다(마 16:27; 딤후 4:1).
- (6)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도 이 시대를 ‘자다가 썰 때’라고 정의 내리면서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역설하였다(롬 13:11, 12).
- (7) 우리는 현재가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을 때와 로마 교회에 서신을 보낼 때보다도 더욱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인식하면서 육신의 일을 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할 것이다(롬 13:13, 14).

25. ㉠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란 말에 대해서 설명하라 (30절).

- ㉠ (1) ‘알지 못하던 시대’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즉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가 전해지기 이전을 뜻한다(참조, 마 5:17). 바울은 이 말을 루스드라에서는 ‘지나간 세대(世代)’라고 표현하였다.
- (2) 그리고 ‘허물치 아니하셨다’는 말은 ‘눈을 감으시고 보지 않은 채 하시다’라는 뜻으로 루스드라에서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다’라고 표현하였다(14:16).
- (3)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자들의 허물을 묵인하셨다는 것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라 오래 참으심을 의미한다.
- (4) 이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창세로부터 만물 속에 그리고 사람 속에 있게 하셨다(롬 1:19, 20).
- (5)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의 길, 즉 어두움의 일과 육신의 일(롬 13:12-14)을 도

모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지의 소산이었다(롬 1:25).

(6)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운 욕심과 그 상실(喪失)한 마음을 그대로 내어 버려 두셨는데 이런 방치는 결국 그들의 죄에 대한 형벌이요 심판이었다(롬 1:24-32).

26. ㉠ 복음에 대한 아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32-34절)

- ㉠ (1) 아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심판에 관해서 나타낸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2) 첫째, 복음에 대해 기롱(譏弄)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부활이나 종말론적 심판이 어리석은 이야기로만 들렸다.
- (3)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이 일단 죽으면 티끌이 인간의 피를 빨아들이며 결코 부활은 없으리라'고 노래한 시인 에스킬루스(Aeschylus, B. C. 525-456)의 말을 그대로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4) 둘째, 다음 기회에 복음을 들겠다는 자들이 있었다. 이런 그들의 제안은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단지 체면과 나약한 결단력, 의지력 때문에 나온 것이다.
- (5) 그들은 가족에 대한 염려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꺼려 했던 어떤 사람(마 8:21; 눅 9:61)이나 개인적인 편의 때문에 바울의 강론을 중지시켰던 헬릭스 총독과 별반 다를 게 없다(24:25).
- (6) 셋째,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인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이야말로 풍성한 결실이 약속된 좋은 땅과 같은 자들로(참조, 마 13:23)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특권(엡 2:6)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참조, 고전 6:9-11).
- (7) 우리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과연 어디에 속하는가 살펴보면서 신앙에는 결코 회색 지대가 없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될 것이다(참조, 계 3:16, 17).

27. ㉠ 바울이 아덴에서 거둔 성과의 정도는 어떠한가? (34절)

- ㉠ (1) 바울은 아덴에서 몇 명의 개종자만을 얻었다.
- (2) 그래서 혹자는 아덴에서의 바울의 전도 여행은 실패했다고 주장하면서 설교 내용의 변화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한다(비교, 13:16-41; 14:15-17).
- (3) 그러나 아덴이 원래 계획된 바울의 전도 여행지가 아니며 그곳에서 오래 머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아 그리고 전도의 열매는 양도 중요하겠지만 질이 더 중요하다는 점으로 보아 바울의 아덴 전도 여행은 실패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 (4) 오히려 복음을 거부한 아덴 사람들의 길가와 바위와 같은 마음이(참조, 눅 8:5, 6) 바울이 전하는 생명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데 실패하였다.
- (5) 하지만 욕도와 같은 소수 사람의 마음 밭에 떨어진 복음의 씨앗들은 풍성한 결실을 거두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했을 것이다(참조, 마 5:13-16).
- (6) 한편 어떤 학자는 아덴 다음의 전도 여행지인 고린도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못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것은 철학적인 설교로 좋은 전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참조, 고전 2:2).
- (7) 이 견해는 반론의 여지가 많지만 어쨌든 위에 언급한 여러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아덴에서의 바울의 전도는 나름대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제 18 장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끝마치다

단락구분 1-4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다 / 5-11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 12-17 유대인들의 고소로 아가야 총독 갈리오 앞에 선 바울 / 18-22 바울이 안디옥에 귀환함으로 그의 2차 전도 여행이 끝나다 / 23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다 / 24-28 아폴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1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2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3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4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5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나라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6 저희가 대적하여 훼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기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7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8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9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10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1 일 년 육 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12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 자리로 데리고 와서
 13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14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나와
 15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16 저희를 재판 자리에서 쫓아내니
 17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재판 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18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켄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19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20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21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22 가이사랴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람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23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루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24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25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니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26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27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그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28 이는 성경으로써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일러라

1. **㉠** 본장에 기록된 중요 사건은 무엇인가?

- ㉠** (1) 본장에는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이 겐그리아 - 에베소 - 가이사라 - 예루살렘을 거쳐 안디옥에 돌아옴으로 2차 전도 여행을 끝내는 장면과 갈라디아, 브루기아 등지에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 (2) 그는 고린도에서 믿음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된 것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나에서 돌아와 합류하며 주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심으로 인해 더욱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2, 5, 9, 10절).
- (3)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전도 여행의 발걸음을 담대하게 옮겼다. 이런 확고한 태도는 에베소의 사람들이 그에게 오래 거하기를 요청했을 때에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고 대답한 데서도 잘 나타나 있다(21절).
- (4) 그러므로 우리는 본장에 기록된 바울의 모습을 우리 자신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인도를 받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배울 수 있다(참조, 롬8:12-14).
- (5) 한편 본장에는 바울과 실라, 디모데 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태생의 유대인 아블로 등의 복음 전도자가 등장하고 있다.

2. **㉡** 바울이 아덴을 떠나 처음으로 방문한 도시는 어디인가? (1절)

- ㉠** (1) 바울은 아덴을 떠나, 북쪽으로 중부 그리이스와 남쪽으로 펠로폰네소스를 연결시켜 주며 지협곡을 내려다보는 고원 위에 자리잡은 고린도를 방문하였다.
- (2) 고린도는 전략상 중요한 지역인 동시에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B.C. 8세기에는 큰 번영을 누리는 도시 국가가 되었고, B. C. 6, 7세기경에는 그 영화와 세력이 최절정에 달했다.
- (3) 그러나 고린도는 국세가 B. C. 5세기부터 아덴의 영토 확장주의에 영향을 받아 기울어지기 시작하였는데 B. C. 338년에 마게도나의 필립 2세에게 정복되었다.
- (4) B. C. 196년에 로마에게 정복된 후 로마의 자유 시(市)가 되었지만 B. C. 146년 고린도는 로마에 대항해 일어난 아가야 동맹의 반란에서 지도적 역할을 맡은 이유로 로마에 의해 완전히 패망당했고 주민들은 노예로 팔려 갔다.
- (5) 그 후 B. C. 46년경 로마의 황제 시이저(Caesar)에 의해 재건된 고린도는 B. C. 44년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고 B. C. 27년에 로마의 아가야 행정 구역의 수도가 되었다.
- (6) 고린도의 주민들은 헬라인과 이탈리아 출신의 자유민, 로마 군대의 퇴역 군인, 장사하는 사람, 정부의 관리들과 레반트 출신의 동양인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었다.
- (7) 한편 고린도는 육상 및 해상 무역로가 집중되어 상업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크게 번성하였다.
- (8) 그러나 이러한 부의 축적은 호화스런 생활과 더불어 온갖 부도덕한 타락 행위들을 낳게 되었다. 그래서 B. C. 5세기초에 이르러선 ‘고린도 사람이 되다’라는 말은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고 바울 당시에도 이런 좋지 못한 평판은 계속되고 있었다.
- (9) 뿐만 아니라 고린도는 아프로디테, 멜리세르테스, 아폴로, 아스클레피우스 등을 섬기는 신전이 많은 우상의 도시였다.

3. **㉢** 바울은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었는가? (2, 3절)

- ㉠** (1) 바울은 본도(Pontus) 출신인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를 만났다.
- (2) 바울이 그들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과 그들의 업(業)이 같았기 때문이다.
- (3) 즉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도 생활비를 벌기 위해 천막 만드는 일이나 가죽 제조 일을 하였기 때문에(참조, 20:34; 고전 9:1-18; 고후 11:7-12; 살전 2:9; 살후 3:7-10), 역시 고

린도에서도 그 일을 하다가 같은 장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그들을 만나게 된 것이다.

- (4) 원래 로마에 거하던 그들이 고린도로 오게 된 것은 유대인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폭동을 저지하기 위해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에게 로마에서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이었다(A. D. 49, 50).
- (5) 이렇게 시작된 바울과 그들의 교제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바울의 진실한 친구가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가 되었다.
- (6)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 대해서도 희생적인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아니하였다(롬 16:3, 4).
- (7) 이와 같이 성도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데에는 둔감(鈍感)해야 되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는 예민(銳敏)해야 한다.

4. **㉠** 고린도에서 바울과 합류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5절)

㉠ (1) 고린도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바울과 합류하였다.

- (2) 과거 베뢰아에서 전도 활동을 할 때 바울은 쫓아온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일으킨 소송 때문에 실라와 디모데를 베뢰아에 남겨 둔 채 아텐으로 피신해야만 했었다(17:13-15).
- (3) 바울은 아텐에 도착하자마자 그를 안내한 사람을 통해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전갈을 보냈고(17:15) 그래서 그들은 아텐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다.
- (4) 그 후 바울은 고린도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알기 위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참조, 살전 3:2), 헌금 모금을 위해 실라를 빌립보로(참조, 빌 4:15) 각각 파송했었다.
- (5) 그러므로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실라는 빌립보 교회에서 모금한 헌금을 가지고 바울과 고린도에서 재회하게 된 것이다.

5. **㉠** 실라와 디모데가 돌아오자 바울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5절)

㉠ (1)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거하였다.

- (2)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에 해당되는 헬라어 <토 프뉴마티>는 '성령에 의해'라는 뜻이다.
- (3) 그리고 '붙잡혀'라고 번역된 헬라어 <쉬네이케토>는 '결합하다', '열중하다', '강권하다'라는 뜻도 지닌 <쉬네코>의 계속을 의미하는 미완료 수동태이다.
- (4)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는 말은 바울이 성령에게 강권함을 받아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는 뜻이다.
- (5) 이처럼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새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디모데가 전해 준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에 큰 위로와 격려를 받고(참조, 살전 3:7-10), 빌립보 교회가 실라를 통해 보내 준 헌금으로 말미암아 선교 활동에 매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참조, 고후 11:9; 빌 4:14, 15).
- (6) 오늘날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 지키게 하라'(마 28:19, 20)는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올바른 교회들은 많은 사역사들을 해외로, 국내의 산간 오지로 파송하고 있다.
- (7) 모교회가 적당한 선교비와 교회의 밝은 소식을 전해 주는 것은 멀리 떨어져 고군 분투하고 있는 그들에게 엄청난 힘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모교회 뿐만 아니라 뜻 있는 성도들의 많은 경제적인 도움이 절실히 요구된다.

6. **㉠** 유대인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에게 어떻게 대하였는가? (6절)

- Ⓐ (1) 그들은 바울을 대적하며 훼방하였다.
- (2) 여기에서 ‘훼방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클라스페메오>는 ‘증상하다’ 또는 ‘모독하다’란 뜻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친 바울의 말을 신성 모독이라고 하면서 증상 모략하였다는 의미이다.
- (3) 바울에 대한 이 같은 그들의 태도는 곧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영접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다(참조, 마10:40-42).
- (4) 이것은 결국 그들이 여전히 율법의 걸은 보고 있지만 ‘수건’에 가리워 그 알맹이, 즉 본체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 상태에 있음을 의미한다(고후 3:14;4:4).
- (5) 그러므로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복음을 거부하고 바울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守護)하고 이단을 정죄하는 최선의 정의로운 행동인 것이다(참조, 24:5).
- (6) 그러나 실상 그와 같은 행동은 무지와 강박한 마음을 그대로 표출한 것이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증거였다(참조, 엡 4:18).
- (7)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참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보지 못할 때에는 잘못된 열심에 이끌려 자신도 모르게 예수를 멀리하게 되고 급기야는 예수를 비방하고 대적하는 자리에 들어가기 쉽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행위임을 알지 못하게 된다.

7. ⓐ 바울은 대적하며 훼방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어떤 행동을 보여 주었는가? (6절)

- Ⓐ (1) 바울은 옷을 떨었다.
- (2) 옷을 떠는 행위는 예로부터 엄숙한 맹세를 할 때에 사용되던 방식이었다(느 5:3).
- (3) 바울은 이 행동을 통해 복음을 거절한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생명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심을 나타냈다.
- (4) 이와 유사한 행위로는 밭에서 먼지를 떨어 버리는 것으로, 일전에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추방될 때 취했던 행동이다(13:51).
- (5) 이 행동은 예수께서 12제자와 70인의 전도대를 파송하면서 그들을 영접치 않는 자들을 향해 취하라고 명령하셨던 행동이었다(참조, 눅 9:5;10:11).

8. ⓐ 바울은 옷을 떨면서 무엇이라고 외쳤는가? (6절)

- Ⓐ (1) 바울은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고 말하였다.
- (2) 이 말은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의 멸망을 선포한 것으로 그 멸망의 책임은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않는 그들에게 있다는 뜻이다.
- (3) 이 같은 바울의 선포는 악인들이 죄에서 떠나라는 경고를 듣고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가 멸망을 당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구원을 거절한 그들에게 있고 말씀을 선포한 에스겔은 무죄하다고 밝히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겔 33:4, 5, 9).
- (4) 한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듣고 당신을 대신해서 악인들에게 경고할 책임이 있는 영적 지도자가 의무를 불성실하게 행하거나 말씀을 잘못 전할 경우 그에게서 악인들의 멸망의 책임을 찾겠다고 선포하셨다(겔 33:6-8).
- (5) 그러므로 바울의 말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맡겨 주신 사명대로 성실히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했다는 자신감이 함축되어 있다.
- (6)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모든 영적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자신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복음 증거에 올바르게 성실한 태도로 임해야 한다.

9. ⓐ 바울은 회당에서 나와 누구의 집으로 들어갔는가? (7절)

- Ⓐ (1) 바울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다.
- (2) 디도 유스도(Titus Justus)는 로마식 이름으로 그가 로마 시민임을 나타내 준다.

- (3) 아마도 그는 B. C. 44년 로마의 황제 시이저가 고린도를 재건할 때 그곳에 정착했던 로마인 가정에서 태어난 듯하다(참조, ㉔ 2).
- (4) 한편 혹자는 디도 유스도의 다른 이름(the first name)이 가이오(Gaius)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 (5) 그럴 경우 그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식주인(食主人)인 가이오와 동일인이 되며(롬 16:23), 고린도 전도 초기에 바울에게 직접 세례를 받은 극소수 개심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된다(고전 1:14).
- (6) 어쨌든 디도 유스도는 회당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자신의 집을 고린도 전도 사업의 본부로 제공하는 호의를 베풀었다.
- (7) 그로 인해 그의 집은 고린도 교회의 최초 집회 장소가 되었다.
- (8) 이와 같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복음을 위해서 희생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보다 자신이 소유한 것, 특히 그중에서도 시간과 물질에 더 깊은 애정을 쏟고 있는 현대의 기독교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참조, 4:34, 35; 출 36:5; 스 1:6).

10. ㉔ 누가는 고린도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대표적인 인물로 누구를 소개하였는가? (8절)

- ㉔ (1) 누가는 조금 전에 바울이 나왔던 회당의 회당장(會堂長) 그리스보(Crispus)를 소개하였다.
- (2) 그는 고린도의 최초의 신자(스테바나와 그의 가족, 고전 16:15)는 아니었지만 그의 회심은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데 기폭제(起爆劑)가 되었고 활력소가 되었다.
- (3) 바울은 고전 1:14-16에서 그가 개인적으로 세례를 준 몇몇 사람을 언급하는 중에 그리스보를 첫번째로 소개하였다.
- (4) 이것은 그리스보가 고린도에선 개종한 사람들 가운데 뛰어난 신자였음을 의미한다.

11. ㉔ 밤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주께서는 바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9, 10절)

- ㉔ (1)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주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바울을 격려해 주셨다.
- (2) 그와 동시에 고린도에는 당신의 백성이 많기 때문에 그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다(참조, 12-16절).
- (3) 물론 디모데와 실라가 합류함으로써 큰 힘을 얻기는 했지만(5절) 이 환상을 경험하기 전까지 고린도의 바울은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리는' 상태에 있었다(고전 2:3).
- (4) 그 이유는 이제껏 방문했던 마게도나의 대부분 지역에서 복음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의 방해로 복음 증거를 중도에서 그치고 피신해야 했듯이(16:19-39; 17:10, 13, 14) 고린도에서도 이 같은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5) 그는 이 환상을 통해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고 1년 6개월이라는, 2차 전도 여행(A. D. 50-52)의 반 이상 되는 오랜 기간 동안 우상 숭배와 향락으로 찌든 이 할 일 많은 이방 성읍 고린도에서 복음 사역에 전념할 수 있었다(11절).
- (6) 그 외에도 주께서는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때나(23:11), 계속되는 풍랑으로 배 위에서 불안에 떨 때(27:23)와 같이 바울이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항상 나타나셔서 그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다.
- (7) 오늘날에도 주께서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를 통해 영과 육적으로 낙망(落望)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 그 가운데 울려 퍼지는 주의 세미(細微)한 음성을 듣도록 노력해야 한다(참조, 딤후 3:15).

12. ㉠ 유대인들은 바울을 누구에게 고소하였는가? (12, 13절)

- ㉠ (1) 그들은 바울을 아가야 총독 갈리오에게 고소하였다.
 (2) 갈리오의 본명은 마르쿠스 안네우스 노바투스(Marcus Annaeus Novatus)로 코르도바 출신이고, 스페인의 뛰어난 웅변가 마르쿠스 안네우스 세네카(B. C. 50-A. D. 40)의 아들이며 스토아 철학자, 정치가, 희곡 작가인 루키우스 안네우스 세네카(B. C. 4-A. D. 65)의 동생이었다.
 (3) 그는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의 통치 기간(A. D. 41-54) 중에 로마로 가서 로마의 웅변가 루키우스 유니우스 갈리오(Lucius Junius Gallio)의 양자가 되었으며 A. D. 51년 7월 1일에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에게 끌고 온 것도 그 즈음으로 보인다.
 (4) 한편 갈리오는 A. D. 65년에 네로를 제거하기 위한 음모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죽임을 당하였다고 전해진다.
 (5)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은 그가 로마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불법 종교를 전한다는 것이었다(참조, 24:5-9). 그러므로 더 이상 바울이 기독교라는 불법 종교를 전하지 못하도록 처벌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6)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종교들도 기독교의 발전과 사회 참여 혹은 개혁에 대해 매우 못마땅한 태도를 취하며 때로는 권력을 이용해 적극적인 방해 공작을 전개하기도 한다.
 (7) 그러나 올바른 성도라면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赤身)이나 위험한 칼이 앞길을 막고 있다 할지라도 거짓 진리에 현혹되어 그 영혼이 죽어 가고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지 못할 것이다(참조, 롬 8:35-39).

13. ㉠ 유대인들의 고소에 대해 갈리오는 어떤 판결을 내렸는가? (14-16절)

- ㉠ (1) 갈리오는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고소가 순전히 종교적인 문제라고 판단을 내렸다.
 (2) 즉 그는 이 논쟁이 '언어' 곧 말씀(헬, 로고스)과 메시아에 관련된 '명칭'(헬, 오노마) 그리고 유대 율법(헬, 노모스)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였으며 바울이 전하고 있는 내용도 유대교 분파의 하나라고 판단했다.
 (3) 그럴 경우에 이 문제는 갈리오가 재판할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갈리오의 책임은 로마의 안정과 관계 있는 민사 혹은 형사상의 문제를 재판하는 것이지 유대의 종교 문제를 중재해 주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4) 그래서 그는 바울에게 변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바울과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내쫓았다.
 (5) 이런 갈리오의 결정은 기독교를 로마의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바울의 2차 전도 활동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다.
 (6) 그 이유는 이 판결이 로마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기독교가 문제시된 다른 지역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고 기독교 운동을 박해하려는 자들의 생각을 일시적이거나 억누를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14. ㉠ 갈리오가 유대인들을 재판 자리에서 쫓아내자마자 어떤 사건이 발생하였는가? (17절)

- ㉠ (1) 헬라인 군중들이 갈리오가 보는 앞에서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때린 사건이 발생했다.
 (2) 이것은 총독이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에게 배푼 냉대를 목격한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헬라인들의 반유대주의 감정을 표출한 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3) 한편 헬라인들이 구타한 회당장 소스테네는 기독교로 개종한 회당장 그리스보(8절)와 함께 일을 했거나 그의 뒤를 이어서 고린도 회당의 회당장이 되었던 인물일 것이다.
 (4) 그가 고전 1:1에 언급된 '소스테네'와 동일인이라면 그도 그리스보의 뒤를 따라 역시

기독교인이 되었음이 틀림없다.

- (5)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소스데네을 때린 이 군중들이 유대인들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이 입장을 따른다면 그들의 견해를 갈리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성난 유대인 군중들이 그를 때렸다고 볼 수 있다.

15. ㉠ 바울은 수리아로 가는 도중 겐그레아에서 어떤 일을 행하였는가? (18절)

- ㉠ (1) 바울은 갈리오의 재판으로 인정받은 자유를 최대한 이용해 수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한 후 수리아 노상(路上)에 있는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2)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선교 사업과 관련된 어떤 목적을 위하여 일정 기간 나실인의 서원을 했으며 이제 그 기간이 다 지나갔다는 것을 보여 준다(참조, 민 6:2-21).
 (3) 아마도 바울이 한 나실인의 서원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서원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4) 한편 겐그레아는 고린도에서 가까운 성읍이며, 고린도의 외항(外港)으로서 지중해 연안의 여러 도시를 이어 주는 교통의 요지였다.
 (5) 겐그레아에는 바울이 오랫동안 고린도에 머무르면서 거둔 전도의 열매인 여집사 뵈뵈가 일군으로 봉사하는 교회가 있었다(롬 16:1, 2).
 (6) 우리도 거칠고 험한 이 세상을 살아나가노라면 삶의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나약해질 때가 있다. 이럴 경우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서원을 함으로써 새로운 힘을 얻고 삶의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한 가지 명심할 것은 그 서원이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지켜야 한다는 사실이다(참조, 삼상 1:21-28).

16. ㉠ 바울이 겐그레아를 떠나 도착한 도시는 어디인가? (19절)

- ㉠ (1) 바울은 겐그레아에서 배를 타고 아시아의 로마 관할 지역 가운데 수도이며 중요한 상업 중심지인 에베소에 도착하였다.
 (2) 에베소는 원로원과 시의회를 갖춘 자유 헬라 도시이며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도시였다.
 (3) 이곳에는 에베소 시 당국과 로마 황제에게 인정받은 커다란 유대인 거주지가 형성되어 있었다.
 (4) 바울은 이곳까지의 여행에 고린도에서 사귄 믿음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2, 3절) 동행하였다.
 (5) 그들이 동행한 이유는 첫째, 에베소에서 복음 전도 사업을 하며 둘째, 에베소에다 천막 제조와 가죽 수공을 위한 새로운 상사(商社)를 개설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6) 그들은 그 후 4, 5년간 에베소에 머물면서 자신의 집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대접하였고 바울의 서신을 통해(참조, 고전 16:19) 고린도의 친구들에게 안부를 전하기도 했다.
 (7) 이같이 성도 개개인의 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성도간의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작은 선교 센터라고 할 수 있다. 이 일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계속 수행되어야 할 부분이다(참조, 마 28:19, 20).

17. ㉠ 바울은 더 오래 머물기를 요청한 에베소 회당 사람들의 부탁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였는가? (19-21절)

- ㉠ (1) 바울은 복음에 대한 자신의 변론에 흥미를 느낀 유대인들이 더 오래 에베소에 머물기를 청하였지만 허락하지 않았다.
 (2) 그러면서 바울은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는 대답을 남긴 채 에베소를 떠났다.
 (3) 한편 어떤 사본에는 이 대답에 ‘나는 예루살렘에서 곧 다가올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말이 첨가되어 있다.

- (4) 따라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이유는 아빔 월 4월 14일에 거행될 유월절 행사를 예루살렘에서 맞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 (5) 또한 이처럼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한 이면(裏面)에는 항해 일정을 무시할 수 없다. 보통 지중해에서의 겨울 항해는 날씨 관계로 3월까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4월 14일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서둘러야만 했다(참조, 27:12).
- (6) 어쨌든 장래의 모든 일을 자신의 생각대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맡긴 바울의 태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겸허한 것으로,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도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며 장래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려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참조, 시 40:8; 143:10; 약 4:15).

18. ㉠ 에베소에서 안디옥에 이르는 바울의 행로는 어떠한가? (22절)

- ㉠ (1)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헤롯 대왕 시대 이후로 예루살렘의 항구 역할을 하고 있는 가이사라에 도착하였다.
- (2) 계속해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모교회(母教會)를 방문하고 유월절 행사에 참여한 후에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 (3) 이로써 약 3년간에 걸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끝을 맺게 되었다.
- (4) 그 기간 동안 바울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는 등 온갖 수난과 박해를 당하기도 했지만(16:22, 23) 주의 도우심을 통해 어려운 순간을 잘 극복할 수 있었다(9, 10절; 16:26).
- (5)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였는데 그들 중 상당수가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은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잘 나타내 준다(참조, 26:16-23).

19. ㉠ 2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은 얼마 후에 어디로 여행을 떠났는가? (23절)

- ㉠ (1) 바울은 안디옥에서 얼마 동안 머무른 후 갈라디아와 브루기아 땅을 여행하였다.
- (2) 그가 안디옥에서 머문 기간은 아마도 A. D. 52년 여름부터 53년 봄까지였을 것이다.
- (3) 그가 여행한 갈라디아와 브루기아 땅은 2차 전도 여행 기간에 들렀던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주변의 지역으로(16:1-6) 이미 복음의 씨앗이 뿌리를 내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어 있었다.
- (4) 이와 같은 사실은 누가가 그 지역의 기독교인들을 가리켜 예수의 12제자를 부를 때 사용되는 '제자'(헬, 마테이스)라는 명칭을 사용한 데서도 잘 나타나 있다(참조, 마 10:1; 눅 8:9).
- (5) 바울은 이번 여행을 통해서 그 지역의 모든 제자들을 굳게 하였다. 여기에서 '굳게 하였다'(헬, 에피스테리조)는 말은 유대인들의 방해 공작과 이방의 거짓 교훈으로부터 그들의 신앙을 '견고케 하다', '힘있게 만들다', '튼튼하게 하다'라는 뜻이다.
- (6) 이와 같이 우리도 새신자를 교회로 한번 인도한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의 신앙을 저해하는 여러 요소들을 같이 고민해 주고 지도해 줌으로써 그리스도의 성숙한 지체로 성장시킬 의무가 있다(26절; 롬 15:1, 2).

20. ㉠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기 이전의 아볼로의 신앙관과 그 이후의 신앙관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24-28절)

- ㉠ (1)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으로 학문이 많은(헬, 아네르 로기오스), 즉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웅변가의 기질도 풍부했고 구약 성경에 정통한 자였다.
- (2) 그는 일찍부터 어디에선가 예수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복음을 어느 정도 자세히 아는 수준에까지 이르렀으며 열심으로 예수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쳤다.

- (3) 하지만 그의 가르침은 성령에 이끌린 것이 아니라 단지 그의 지식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예수를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단지 들은 것을 전달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 (4) 또한 예수께서 주셨을 뿐만 아니라(요 1:33)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세례(2:1-4)를 알지 못한 채 요한의 세례만을 최고로 여기고 있었다.
- (5) 그러나 그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하나님의 도에 자세히 듣게 되었을 때 그는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체험하게 되었다.
- (6) 그때부터 그는 많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많은 유익을 끼쳤고 바울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증거하는 능력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다(비교, 5절).
- (7) 이런 아블로의 나중 모습은 '나는 심었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으니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는 바울의 말 속에 잘 나타나 있다(고전 6:5).
- (8)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체험하기 전까지의 열심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단지 인간적인 열정에서 나온 반쪽짜리 열심임을 알 수 있다.
- (9) 그와 동시에 입으로는 그리스도께 향했다고 하는 우리의 열심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반문(反問)해 볼 필요가 있다(참조, 6:5; 잠 3:5).

21. ㉠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회당에서 아블로의 설교를 듣고 난 후 그에게 어떤 조언을 하였는가? (26절)

- ㉠ (1) 그들은 자신들의 집으로 아블로를 초대해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었다.
- (2) 여기에서 '하나님의 도'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설명하는 하나님의 도 속에는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의 오심, 고난, 부활 그리고 성령 세례에 관한 교리가 중심이었을 것이다(참조, 17:3).
- (3) 이와 같은 그들의 설명에 대해 아블로는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敬聽)하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으며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는 그들의 태도에 깊이 감사하였음이 틀림없다.
- (4) 이런 아블로의 변화된 모습은 그들과의 만남 이후부터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그 사실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변론을 성경을 통해 꺾은 데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28절).
- (5) 위에 언급된 사실들을 보면서 권위주의에 사로잡혀 남의 충고를 능멸했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충고할 때에도 충심(衷心)이 아닌 그저 시기와 질투에서 했던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반성해 본다(참조, 왕상 12:6-19).

22. ㉠ 변화된 아블로는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였는가? (28절)

- ㉠ (1) 아블로는 성경으로써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였으며 공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 (2) 여기에서 '성경으로써'에 해당되는 헬라어 <디아 톤 그라폰>은 '성경을 통해서'라는 뜻이다.
- (3) 즉 그는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조목조목 예로 들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였고 이를 반박하는 유대인들에게도 그들의 입장이 잘못되었음을 성경을 통해 증명해 보였다.
- (4) 이런 그의 태도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데 일익(一翼)을 담당하였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와 유대인들 간의 논쟁(論爭)을 보고 들으면서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받아들여지게 되었기 때문이다(참조, 롬 10:17).
- (5) 이와 같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뿌리는 세상의 단편적인 지식이나 궤변(詭辯)이 아니라 언제나 성경이 되어야 한다(참조, 17:2, 3). 다만 인간의 지혜나 지식, 언변 등은 그것을 전하는 도구일 뿐이다(참조, 고전 1:17).

제 19 장 에베소에서 행한 바울의 사역

단락구분 1-7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난 열 두 사람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풀다 / 8-10 바울이 회당과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 11-12 바울의 이적 / 13-16 예수를 빙자(憑藉)한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악귀에게 해를 당하다 / 17-20 에베소 사람들의 종교적 각성 / 21-22 바울의 전도 계획 / 23-34 은장색들이 바울을 대항해 소동을 일으키다 / 35-41 서기장이 우리를 해산시키다

1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뿔치 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2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3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라

4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5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6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므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7 모두 열 두 사람쯤 되니라

8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9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10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11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회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12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13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14 율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15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16 악귀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

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17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18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19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즉 은 오만이나 되더라

20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21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22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테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간 더 있으리라

23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24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25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이 있는데

26 이 바울이 에베소 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27 우리의 이 영업만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전각도 경흉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업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28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29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환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 가는지라

30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31 또 아시아 관원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32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되었는지 알지 못하더라

33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발명하려 하나

34 저희는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두 시 동안이나 하더니

35 서기장이 무리를 안돈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와 밋 스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전각지기가 된 줄을 누

가 알지 못하겠느냐

36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37 전각의 물건을 도적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해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으니

38 만일 데메드리오와 밋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송사할 것이 있거든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39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거든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단할지라

40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의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재료가 없다 하고

41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1. ㉠ 본장의 사건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열정적으로 일을 했던 에베소 활동기가 기록되어 있다.
- (2) 그곳에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론하며 권면하였다(1-10절).
- (3)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바울에게 많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전도자의 신임장(참조, 눅9:1; 10:17)을 주심으로 인해 마술과 우상이 가득한 에베소에서 마술사들을 회개시키는 등 그는 어느 때보다도 왕성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11, 12, 18, 19절).
- (4) 그러나 언제나 은혜가 충만한 곳에 사단의 시험에 있기 마련이듯이 역시 바울과 그 동역자들에게도 복음을 비방하는 자들과 우상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데메드리오 같은 자들의 방해가 계속되었다(9, 23-27절).
- (5)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에베소의 서기장(書記長)을 통해 무사히 해결해 주셨다(35-41절).
- (6) 이와 같은 모든 사건으로 인해 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믿음의 동참자가 되었고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더욱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었다.
- (7) 우리는 본장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에 언제나 더욱 교묘한 사단의 시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은혜와 함께 사단의 시험을 이길 힘을 준비해 두셨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참조, 롬6:13; 엡6:13).

2. ㉠ 바울이 안디옥에서 에베소로 온 여행 경로는 어떠한가? (1절)

- ㉠ (1) 바울의 여행 경로는 안디옥-윗지방-에베소이다.
- (2) 여기에서 '윗지방'이란 갈라디아와 브루기아 땅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이다(참조, 23절).
- (3) 바울이 에베소에 온 것은 과거 2차 전도 여행 중에 그곳 회당의 유대인들에게 했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다(18:21).
- (4) 따라서 바울의 에베소 여행은 이전에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던 때(16:6)와는 달리 성령께서 허락하셨음을 의미한다.

- (5) 한편 당시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르침을 받은 후 영적으로 변화되어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다가 당시 로마의 한 도(道)였던 아가야(헬라) 지방의 수도인 고린도로 건너가 그곳에서 복음 사역에 전념하고 있었다(참조, 18:26, 27).
- (6) 그러므로 바울과 아볼로는 직접 대면할 기회는 없었다. 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동일한 복음이 유대와 헬라에 증거되었다.
- (7) 그것은 그들이 전하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中保者) 되신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롬3:30; 10:12; 고전 8:4, 6; 딤후전 2:5).
- (8) 비록 시간과 공간은 다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증거된 이 진리도 아볼로와 바울이 전한 진리와 동일한 것이므로 우리 또한 다른 시공(時空)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거할 책임이 있다.

3. **㉠**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처음으로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1-7절)

- ㉠** (1) 바울은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어떤 열 두 명의 제자들을 만나게 되었다.
- (2) 그들은 믿음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는 바울의 질문에 성령이 있음을 들은 적이 없으며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대답하였다.
- (3) 이 같은 대답으로 미루어 볼 때 그들의 신앙관은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가르침을 받기 이전에 가졌던 신앙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18:25).
- (4) 아마도 그들은 아볼로와 유사한 방식으로 지식을 습득했거나 또는 아볼로부터 직접 배웠을 것이다.
- (5) 그런데 누가가 기독교인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제자’(헬, 마테테스)라는 말을 그들에게 사용한 것은 그들이 기독교인임을 의미한다.
- (6) 기독교인에도 믿음과 신앙 지식의 분량에 따라 여러 단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은 아직 기독교인의 초보적인 수준도 되지 못하는 매우 유약(幼弱)한 기독교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참조, 히5:12; 6:1).
- (7) 이제 그들은 바울을 만남으로 인해 영적으로 성숙한 기독교인들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처럼 성도의 영적 성장에는 올바른 교사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일을 우리 자신들이 감당해 보지 않았는가?(딤후전 4:6)

4. **㉠** 열 두 사람이 받았던 세례는 어떤 것인가? (3절)

- ㉠** (1) 그들은 바울의 질문에 대답하면서 자신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음을 밝혔다.
- (2) 요한의 세례란 세례 요한이 요단 강에서 주던 물세례로(마3:6, 13, 16; 요3:23)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한 예비적 단계, 즉 마음의 변화나 전환을 위한 회개의 세례였다(눅3:3).
- (3) 이것은 메시아의 길을 평탄케 하고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증거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시키기 위해 온 세례 요한의 사역과 관계가 있다(말4:6; 눅1:17, 76).
- (4) 이와 같이 그의 세례는 성령 세례를 예비하기 위한 것으로(11:16; 마3:11, 12) 구원을 이루기에는 부족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18:25).
- (5) 하지만 세례 요한파들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계시의 절정으로 보며 심지어는 메시아와 동일시하기도 했다(참조, 눅 13:15).
- (6) 아마 바울이 만난 열 두 사람도 그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 (7)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 외에는 어느 누구도 메시아가 될 수 없으며 메시아로 섬겨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참조, 딤후전 3:16; 히 7:24-28; 요일 4:2).

5. **㉠** 바울은 그들에게 무엇을 전하였는가? (4절)

- ㉠** (1) 바울은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선포했던 바로 그분이 예수임을 설명하였다.

- (2) 그는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의 사역의 특징을 정확히 정의하면서(막 1:7, 8)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예수를 부각(浮刻)시켰다.
- (3)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쇠하여야 하지만(마 3:3) 예수 그리스도는 그 소리의 실체인 '의미'(意味)로 흥하여야 하기 때문이다(요 3:30).
- (4) 이와 같은 설명을 듣던 열 두 사람은 그제서야 자신들이 추구했던 모든 것과 자신들의 믿음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고 바울로부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다.
- (5) 이처럼 우리는 세례 요한이나 아브라함, 모세 등 모든 믿음의 선각자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사람들로서(히 11:17) 믿음의 본은 될지언정 승배의 대상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참조, 14:11-15).

6. **㉠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6절)**

- ㉠** (1) 바울이 안수하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므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
- (2) 이런 현상은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과(2:4, 6, 8) 고넬료의 집에 모인 유대인과 이방인들(10:44-46)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나타났던 현상과 동일하다.
- (3) 특별히 방언은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라고 말씀하셨던 것으로(막 16:17)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였다(고전 12:3, 4, 10).
- (4) 성령의 세례를 경험한 이 사람들은 아블로와 마찬가지로 복음의 증거자로 변신하게 되었고, 이전의 그들과 같이 요한의 세례만을 믿었던 자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담대하게 증거했을 것이다.
- (5) 뿐만 아니라 그들은 수리아 안디옥 이후로 새로운 이방 선교의 중심지가 된 에베소 교회의 핵심 인물들이 되었을 것이다.
- (6) 한편 흑자는 본질의 사건을 가리켜서 '에베소의 오순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7. **㉠ 바울이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져 복음을 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8, 9절)**

- ㉠** (1) 그 이유는 회당의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으며 무리 앞에서 공공연하게 바울이 전하는 기독교를 비방(誹謗)하였기 때문이다.
- (2) 여기에서 '마음이 굳어'(헬, 스클레루오)라는 말은 '완고함과 강박에 내버려두다'라는 뜻이다.
- (3) 또한 '순종치 않다'(헬, 아페이데오)라는 말은 '설득되지 않다', '따르지 않다', '믿음을 거절하다', '믿지 않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 (4) 이처럼 먼저 스스로 마음을 강박하게 가지고 말씀을 들을 귀를 막아서 복음을 거절하는 소극적인 단계로부터 공적으로 복음을 비방하는 적극적인 단계로 발전하는 것이 복음의 대적자들이 갖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 (5) 바울은 약 3개월 동안 회당에서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다가 결국 그들의 방해로 인해 두란노 서원으로 복음 증거의 장소를 옮기게 되었다.
- (6) 우리는 본질을 통해서 흑시라도 말씀을 꺼리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이 신앙의 위험 신호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이다(롬 10:17).

8. **㉠ 두란노 서원에 대해서 설명하라 (9절).**

- ㉠** (1) 두란노 서원은 두란노라는 이름의 철학자가 철학을 강론하는 강의장이었거나 그 이름을 가진 지주가 여행하는 철학자들에게 빌려 주는 장소였을 것이다.
- (2) 그런데 '두란노'라는 이름은 '폭군'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본명이라기 보다는 학생이나 소작인이 붙인 별명(別名)일 가능성이 높다.
- (3) 바울은 이곳을 빌어서 2년 동안 날마다 복음을 강론하였는데 그가 복음을 강론하는 시

간은 어떤 사본에 따르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였다고 한다.

- (4) 그 이유는 바로 그 시간이 보통 한낮의 쉬는 시간인 관계로 두란노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다른 계획된 수업 시간과 겹치지 않는 유일한 시간대였기 때문이다.
- (5) 그곳의 임대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공동으로 부담했거나 회중들이 그 비용을 맡았을 것이다.

9. **㉠**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증거한 결과는 무엇인가? (10절)

- ㉠** (1)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주의 말씀을 듣는 결과를 받게 되었다.
- (2) 그것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증거받은 사람들이 아시아 전역을 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기 때문이다.
- (3) 그로 인해 약 2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루커스 계곡(the Lycus Valley)에 골로새,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소아시아에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교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게 되었다(참조, 골 2:1;4:13).
- (4) 이와 같이 복음은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히 4:12) 그 마음의 문을 열고 겸손히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를 변화시키며 복음의 증인으로 탈바꿈시킨다.
- (5) 이런 증인들이 연연(連延)히 계속되어 오늘날 한국의 무수한 증인들과 교회도 세우게 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 교회는 복음을 받기는 했지만 이웃에게 전해 줄 줄 모르는, 즉 증인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다. 다시 순수한 복음의 증인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적 자원이 풍부한 한국 교회의 시대적 사명이다.

10. **㉠**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능력은 무엇인가? (11, 12절)

- ㉠** (1)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으로 회한한 능을 행하게 하셨다.
- (2) 여기에서 ‘회한한 능’이란 ‘우연히 발생하지 않는 기적이나 능력’을 가리키는데 주로 병 고치는 능력과 악귀(惡鬼)를 쫓아내는 능력이었다.
- (3) 누가는 바울의 능력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낫고 악귀가 나갈 정도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 (4) 이런 바울의 이적 기사는 혈루증 환자가 예수의 옷 가에 손을 대었을 때 병이 나았던 것(눅 8:44)이나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자들이 회복된 사건(5:15)을 생각나게 한다.
- (5) 우리는 이러한 이적이 바울이 착용한 물건 자체의 어떤 신비한 효험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그 능력을 받아들이는 병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발생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참조, 마 9:2, 22).
- (6) 하나님께서 이 같은 능력을 바울을 통해 나타내신 것은 마술과 미신의 본거지인 에베소의 사람들에게 오직 당신만이 참신임을 나타내시기 위함으로 보인다.
- (7)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병 고치고 능력 행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능력과 살아 계심을 증거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은사를 받은 자는 하나님을 증거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이를 태만히할 시는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거두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참조, 마 25:24-30).

11. **㉠** 바울이 이적을 행하자 유대인 마술사들간에는 어떤 일이 유행했는가? (13, 14절)

- ㉠** (1)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악귀를 쫓아내자 유랑하는 유대인 마술사들간에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憑藉)’해서 악귀들린 자에게 시험적으로 말하는 것이 유행했다.
- (2) 이런 현상은 보통 마술사들이 악령을 내쫓기 위해 주문을 외울 때 주술적인 이름들을 사용한 고대 관습에 따른 것으로, 마술과 미신의 도시 에베소에서 두드러졌다.
- (3) 당시 유대인 마술사들은 에베소 등지에서 상당한 인정을 받고 있었다. 그들 중에도 유

대 제사장직과 관계된 자들은 일반적으로 큰 명성을 누렸는데 그들 가운데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 (4) 유대인 마술사들의 이 같은 행위는 성령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던 마술사 시몬의 행위와 별반 다를게 없는 것으로(8:18, 19) 종내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참조, 계 21:8; 22:15).
- (5) 오늘날도 우리 주위에는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 장사하는 무리들 - 거짓 목회자, 거짓 기도원, 거짓 선교 사업체 등 - 이 무수히 많다. 이런 거짓된 무리들에게 속지 않도록 우리는 각자의 눈과 귀와 입과 발걸음을 말씀으로 단속해야만 한다(시 119:105; 벧후 3:17, 18; 요일 4:6).

12. **㉠**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자 악귀는 무엇이래 대답하였는가? (15, 16절)

- ㉠** (1) 악귀는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고 대답하였다.
- (2) 즉 이 말은 예수와 바울은 두렵지만 스게와의 일곱 아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뜻이다.
- (3) 그 이유는 악귀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그들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는 것(막 1:24, 34; 5:7; 눅 4:41; 히 2:14; 요일 3:8)과 바울이 예수의 사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 (4) 또한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예수에 대한 아무런 믿음도 없으면서 단지 바울의 흉내를 내어 예수의 이름을 주문(呪文)처럼 내세웠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 (5) 따라서 악귀의 대답은 그들에 대한 조롱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악귀는 조롱과 함께 악귀들린 사람을 통해 그들을 공격하여 상하게 하고 벗은 몸으로 도망치게 만들었다.
- (6) 이와 같은 현상은 오늘날 병을 고치겠다는 일념만으로 기도원을 찾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병이 악화되고, 소위 안찰을 받아 죽기도 하는 일들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 (7) 이처럼 믿음 없이 자신의 이익과 흥미를 위해 예수의 이름을 파는 자들은 그 일로 인해 오히려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참조, 계 19:20).

13. **㉠**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악귀에게 낭패를 당한 사실은 에베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17-20절)

- ㉠** (1)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예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악귀에게 봉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는 자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 (2) 여기서 '두려움'에 해당되는 헬라어 <포보스>는 놀람, 경악이라는 뜻과 함께 하나님께 대한 존경, 공경의 의미도 지니고 있다.
- (3) 그 이후 에베소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다. 먼저 그들은 소극적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오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 (4) 적극적으로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비밀리에 행하던 마술적 행위들을 버렸고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
- (5) 그들은 자신들의 변화된 모습을 공개적으로 증거하기 위해 은 오만에 해당되는, 마술에 관한 두루마리 책들을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 태워 버렸다.
- (6) 한편 마술사들이 자신들의 생명과도 같은 책들을 태운 것이나 이미 사회적으로 기독교 인이라고 인정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체면이 손상됨에도 불구하고 은밀한 행위를 고한 것은 보통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일이었다.
- (7) 이처럼 과감하게 자신의 과거 모습을 내버리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성경적 개혁'이다. 이 성경적 개혁은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요구된다(참조, 왕하 23:1-25).

14. **㉠** 그 무렵 바울은 어떤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가? (21, 22절)

- ㉠** (1) 마술사들이 회개하고 그들의 모든 책들을 불사르는 사건이 발생한 후 바울은 마게도나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계속해서 로마로 갈 계획을 세웠다.
- (2) 바울이 로마로 갈 결심을 한 것은 서바나로 전도 여행을 떠나기 앞서 로마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자 했기 때문이었다(롬 15:23, 24).
- (3) 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에는 다른 복음 전도자들이 세운 교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복음을 접할 기회가 없었던 유럽 전도의 거점으로 로마를 삼기 위함이었다.
- (4) 이와 같은 생각은 이미 다른 전도자가 복음을 전파한 곳에 가서는 전도하지 않겠다는 그의 목회관과 일치한다(롬 15:20).
- (5) 결국 바울이 계획했던 서바나 전도 여행은 실현되지 못했지만 훗날 그는 마게도나와 아가야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하였고(롬 15:26) 죄인된 신분으로 로마 여행을 실현하게 되었다(28:16).
- (6) 한편 바울은 이 계획을 실행하기 앞서 그의 동역자들 가운데 디모테와 에라스도를 먼저 마게도나로 파송하고 자신은 아시아에 얼마간 더 머물러 있었다.
- (7) 우리는 이런 바울의 목회관과 한 건물에 여러 교회가 난립해 있는 현상황, 일신상의 평안과 호구지책(糊口之策)을 위해 시골 목회를 마다하는 일부 도시 전도자들의 자세를 비교해 볼 때 현대 전도자들의 의식 구조가 상당히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다.

15. **㉠** 데메드리오와 그 동조자들이 일으킨 소동은 어떤 배경을 지녔는가? (23-28절)

- ㉠** (1) 당시 에베소는 아데미(Artemis) 여신을 섬기는 우상의 도시였다.
- (2) 거리에서는 쉽게 아데미 신상을 볼 수 있었고 에베소의 북동쪽 약 2.4km 지점에는 한 면의 길이가 각각 120m, 60m나 되는 엄청난 아데미 신전이 세워져 있었다.
- (3) 해마다 수많은 순례자와 여행자들이 이 신전을 방문하려고 인근 각처에서 에베소로 몰려들었다.
- (4) 그래서 이 신전의 주변에는 그들을 상대로 음식을 팔고 숙소를 제공하며 제물을 팔거나 혹은 기념품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장사군과 행상인들이 득실거렸다.
- (5) 특히 이중에서도 가장 수입이 좋은 장사는 아데미 여신의 은감실, 즉 모조 은신상을 파는 업이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모조 은신상을 기념품과 서원의 헌물과 호신물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 (6) 에베소가 로마의 속국이 된 후 엄청난 벌목과 목탄 연료 사용과 방목(放牧)의 결과 에베소 항구가 침적토(沈積土)로 막히면서 그 주민들은 그들의 부와 계속적인 번영을 위해 더욱 아데미 신전을 의존하게 되었다.
- (7)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아데미 신전의 우상 숭배를 공박하므로 인해 그들의 경제적 수입에 영향을 미치자 은장색(銀匠色) 조합의 우두머리인 데메드리오가 주동이 되어 은장색(은 세공사)들이 소동을 일으켰다.
- (8) 그들이 이런 소동을 일으킨 목적은 두 가지 효과를 거두기 위함이었다. 첫째,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 일행의 전도를 대적하며 둘째, 아데미 여신에 대해 보다 큰 열심을 불러일으키자는 것이었다. 그것은 결국 그들에게 보다 많은 수입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었다.
- (9) 우리는 육체적 평안과 제물을 위해 영적인 특권을 포기해 버린 은장색들의 사악한 모습을 보면서 육신의 안녕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성도로서의 기본 자세를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거나 심지어는 복음을 등지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참조, 딤후 4:10).

16. **㉠** 에베소 사람들이 섬긴 아데미 여신에 대해 설명하라 (24, 28절).

- Ⓐ (1) 에베소의 아테미 여신은 야생적(野生的)인 본성을 지닌, 사냥군과 어부의 신인 그리이스의 아테미 여신과는 달리 다산(多産)의 모신(母神), 즉 인간과 짐승과 식물의 다산을 보증하는 여신이었다.
- (2) 아테미 여신상은 원래 운석(隕石)이었는데 그 모양이 유방이 많은 여자의 모습을 닮고 있어서 경배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이같이 운석을 종교적 숭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경우는 트로이(Troy), 페시누스(Pessinus), 엔나(Enna), 에메사(Emesa) 등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 (3) 그 후 아테미 여신상은 점차 변화되어 보통 여자 모양으로 표현되었다. 보통 조각에서도 아테미 여신은 많은 수의 유방을 가지고 있고 사자, 황소, 수양들이 그 어깨와 다리 위에 양각되었으며 발 위에는 한 마리의 꿀벌이 새겨진 모양으로 표현되었다.
- (4) 또한 그 머리 위에는 작은 탑처럼 생긴 관이 얹혀 있었다. 하지만 여신의 하반신은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 (5) 한편 아테미 여신의 대체사장은 페르시아의 명칭인 메가비조스(Megabyzos)로 불리우는 환관이었다. 이 대체사장 밑에 다른 환관 제사장들이 있었으며 세 계급의 여제사장들이 봉사하였다.

17. Ⓢ 데메드리오의 말을 들은 은장색들은 어떤 반응을 나타냈는가? (28, 29절)

- Ⓐ (1) 은장색들은 데메드리오의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외치면서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 (2) 이 같은 지방색과 종교색이 짙은 감정적 선동에 우매한 군중들도 합세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나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스를 잡아 가지고 일제히 연극장(演劇場)으로 달려 들어갔다.
- (3) 그들이 몰려간 연극장은 에베소의 동맥 구실을 하는 아카디안 대로(Arcadian Way)의 동쪽에 있던 커다란 노천 극장(露天劇場)이었다.
- (4)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예수의 이름을 시험하므로 인해 악귀에게 혼이 난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던 그들이, 또한 마술사들이 자기들의 책들을 태우며 기독교인이 되었던 사실을 목격한 그들이 은장색들의 선동에 이처럼 난폭해질 수 있었다는 것은 매우 아이로니컬한 일이다(14-19절).
- (5) 이와 같이 말씀에 뿌리 박은 변화된 삶과 단지 하나님의 권능에 두려워하며 입으로만 영광을 돌리는 삶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 (6) 우리는 말씀에 기초한 정순(貞順)한 신앙, 사단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성경이라는 거울 앞에 비추어 다듬어 나가며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게을리 말아야 한다(참조, 시 11:16; 엡 4:14; 약 1:22-25; 요일 2:26, 27).

18. Ⓢ 바울에게 통지(通知)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도록 권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31절)

- Ⓐ (1) 그들은 바울과 친구가 된 일부 아시아 관원들이었다.
- (2) 아시아 관원은 아시아에서 가장 고귀한 신분이며 가장 부요한 가문의 일원으로서 로마 황제의 신전이 있는 각 성을 위하여 해마다 아시아에서 선임되었다.
- (3) 그들의 동맹은 정치적 권세는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로마 황제와 로마에 대한 숭배를 조장하며 로마에 유익을 도모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하는 정치적 기능을 지닌 반종교적 단체였다.
- (4) 이런 관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었고 위급한 상황에서 조언을 했다는 사실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정책이 반(反)기독교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시사해 준다.

19. ㉠ 에베소의 군중들이 연극장에 모인 이유는 무엇인가? (32-34절)

- ㉠ (1) 군중들의 대부분은 극장에 모인 사람들이 저마다 이러니 저러니 하고 떠드는 바람에 장내는 온통 뒤범벅이 되어 무엇 때문에 모였는지조차 알지 못하였다.
- (2) 단지 그들을 하나로 묶었던 것은 아데미 여신에게 불경건스럽게 행동한 자들을 향한 분노였다.
- (3) 이 분노의 감정은 반기독교적일 뿐만 아니라 반유대적이었다. 이런 감정은 알렉산더가 유대인들은 현재의 소란과 무관하다는 변명을 하려고 앞으로 나왔을 때 그가 유대인이며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지 않는 자라는 이유만으로 대중들이 그를 물리쳤던 사건에서 잘 나타나 있다.
- (4) 오늘날도 우매한 대중들은 불의한 권력자들에 의해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그저 휩쓸려 가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어떤 일이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도 단체나 권력자들의 이익을 위해, 또는 그런 사실조차도 모른 채 불법을 합리화하는 오류를 범하고 만다.
- (5) 우리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에 기초한 분명한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참조, 시 119:59, 109, 133).

20. ㉠ 유대인들은 어떤 이유로 알렉산더를 대중들 앞에 세우려고 했는가? (33절)

- ㉠ (1) 유대인들은 분노한 에베소 사람들에게 발명(發明)하기 위해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냈다.
- (2) 여기에서 ‘발명하다’에 해당되는 헬라어 <아폴로게오마이>는 ‘자신을 방어하다’, ‘스스로를 변호하다’라는 뜻이다.
- (3) 당시 에베소의 유대인 공동체는 그 규모가 상당히 컸을 뿐만 아니라 이전의 지방 총독들이 허락한 여러 가지 면세의 혜택을 누리고 있었다.
- (4) 따라서 그들이 알렉산더를 앞으로 내세운 이유는 자신들이 아데미 여신의 경배와 관련된 현재의 소란과 전혀 무관하다고 발뺌함으로써 그들 자신을 기독교인들로부터 떼어 놓고자 함이었다.
- (5) 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무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 유대인들도 못마땅한 자들이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도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기며 모든 우상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21. ㉠ 무리를 안돈(安頓)시켜서 해산시킨 사람은 누구인가? (35절)

- ㉠ (1) 그 사람은 에베소의 서기장(書記長)이었다.
- (2) 서기장이라는 직책은 에베소 출신의 사람들만이 획득할 수 있었으며 로마 당국에서 임명한 직위는 아니었다.
- (3) 서기장은 시의회(시)의 포고문을 발표하는 집행 관리로서 시 자치 기구와 마찬가지로 에베소에 본부를 두고 로마의 주 행정 당국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중요한 일을 맡고 있었다.
- (4) 그러면서도 그는 에베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소요 사태나 불법 시위에 책임을 지고 있었다.

22. ㉠ 서기장은 무리에게 무엇을 상기시켰는가? (35, 36절)

- ㉠ (1) 서기장은 에베소가 큰 아데미와 및 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전각지기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상기시켰다(참조, 14:12).
- (2) 전각지기(헬, 네오코로스)라는 명칭은 ‘신전과 특별한 신을 섬기는 의식을 담당할 수호자’라는 뜻으로 당시에는 매우 명예로운 지위를 확보해 주는 단어였다.
- (3) 그 명칭은 네로 치하의 에베소에서 발행된 동전에 처음 등장하였으며 점차로 로마의 전식민 도시로 퍼져서 도시들은 저마다 로마 황제에게 신전을 봉헌하고 그 대가로 ‘전각지기’라는 명예로운 명칭을 얻는 것이 관례처럼 되었다.
- (4) 한편 서기장의 말 가운데 ‘쓰스에게서 내려온’에 해당되는 헬라어 <디오페투스>는 ‘하

늘에서 떨어진' 또는 '제우스(Zeus)로부터 떨어진'이란 뜻이다(제우스는 우주의 최고 통치자며 신들과 인간을 다스리는 신으로 하늘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함).

- (5) 따라서 서기장의 말은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을 아데미 여신상으로 섬기는 에베소 사람들의 신관을 사실 그대로 설명한 것이면서도 또한 에베소 사람들의 자부심을 부추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36절).

23. ㉠ 서기장은 그 소요 사건에 대해 어떤 견해를 피력했는가? (37-41절)

- ㉠ (1) 서기장은 먼저 무리들이 잡아온 마게도나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풀어 주라고 명령했다(29절).
- (2) 그는 그 이유로 그 두 사람이 전각의 물건을 도적질했거나 아데미 여신을 훼손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들었다. 당시에는 그런 죄목으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고소하는 경우가 있었다.
-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메드리오와 및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고소를 하겠다면 적법(適法)한 절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라고 덧붙였다.
- (4) 이 적법한 절차란 총독의 주재하에 실시되는 정규적인 순회 재판 일에 소송을 심리(審理)하는 것을 의미한다.
- (5) 그러나 이것으로도 만족을 못 한다면 매달 3회씩 개최되는 에베소 시민 의회에 그 문제를 제기하라고 권고하였다. 당시 로마 지배하의 헬라 도성들은 민회를 소집할 자유와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
- (6) 그러면서 서기장은 결론적으로 그의 제안에 따르지 않는다면 이 소요 사건 때문에 로마 당국으로부터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또한 아무 까닭도 없는 이 불법 집회 때문에 로마의 호감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연극장에 모인 군중들을 흩어지게 했다.

24. ㉠ 서기장의 말 가운데 '총독들'이라고 복수가 사용된 이유를 설명하라 (38절).

- ㉠ (1) 그 이유에 대해서 혹자는 당시 총독이 주재하는 순회 재판이 중단되지 않고 정기적으로 개최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 (2) 이와는 달리 어떤 학자들은 당시 아시아에 실제로 두 사람의 총독이 있었기 때문에 서기장이 '총독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 (3)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A. D. 54년말은 아시아의 '총독 마르쿠스 유니우스 실라누스(Marcus Junius Silanus)가 로마 황제 네로의 모친 아그리피나 2세(Agrippina II)의 사주(使嫫)를 받은 자들에 의해 독살당한 후 그의 후임자가 도착할 때까지 두 집정관 켈라(Celer)와 헬리우스(Helios)가 아시아를 다스렸기 때문이라고 한다.
- (4) 그 두 집정관이 다스리기 시작한 A. D. 54년말-55년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지 2,3년째 되는 해로서 그가 에베소에 머물던 두 해가 거의 끝날 무렵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이 주장은 매우 신빙성이 있다.

25. ㉠ 데메드리오와 그 추종자들이 일으킨 소동은 바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23-41절)

- ㉠ (1) 바울은 A. D. 55년경에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 에베소 폭동에 대해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으면'(고전 15:32), '아시아에서...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고후 1:8)라고 언급하였다.
- (2) 그러면서 그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동역자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며(롬 16:4)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였다(고후 1:9-11).
- (3) 한편 그 소동을 법적인 절차와 로마 당국과의 관계를 예로 들어 무마(撫摩)시킨 에베소 서기장의 판결은 2차 전도 여행 때 유대인들에 의해 발생한 고린도 소동에 대해 아

가야 총독 갈리오가 취했던 조치처럼(18:12-16) 다른 지방에 기독교에 대한 판례(判例)를 제공했다.

(4) 어쨌든 이 사건으로 인해 바울의 아시아 복음 전도는 일단 끝맺게 되었다.

연구자료

사도행전에 나오는 각종 신(神)

본서에서는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신인 몰록, 즉 몰렉(참조, 레18:21; 왕하23:20) 외에도 쓰스와 허메, 아데미, 레판과 같은 이방 신이 언급되어 있다. 그러므로 본고(本稿)는 이들이 어떠한 신인지에 관해 간략히 살펴보려 한다.

1. 쓰스(Zeus)

‘쓰스’는 우리가 흔히 ‘제우스’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는 그리스의 최고 신이다. 그런데 로마인들은 이 신을 ‘쥬피터’(Jupiter)라는 이름으로 불렀다. 이 신은 세계의 평화와 질서를 주관하는 신인 동시에 날씨를 주관하는 신이었다. 그러므로 호머(Homer)는 그의 서사시에서 제우스를 ‘정의의 수호자’이자 인간과 각양 신들의 아버지로 묘사하였다. 한편 본서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본 루스드라인들이 바나바를 가리켜 ‘쓰스’라고 칭한 사건이 언급되어 있다(14:12).

2. 허메(Hermes)

‘허메’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르메스’로서 로마인들의 ‘머큐리’(Mercury)와 동일한 신이다.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이 신은 ‘제우스’의 아들로서 웅변에 능한 신이며 여행자들을 지켜 주는 수호신이라 한다. 따라서 루스드라인들이 바울을 가리켜 ‘허메’라고 했던 것은 바울이 훌륭한 설교가였기 때문인 듯하다(14:8-12).

3. 아데미(Artemis)

보통 ‘아르테미스’로 불리우는 이 여신은 ‘제우스’의 딸이다. 이 여신은 처녀의 수호신이자 출산과 풍요를 주관하는 신으로서 특히 에베소인들에 의해 열렬히 숭배되었다(참조, 34절). 한편 오늘날까지도 에베소에 남아 있는 아데미 신전은 세계 7대 신전 중의 하나로 꼽힌다.

4. 레판(Rephan)

분명치는 않으나 고대 애굽인들이 섬기던 목성 신(木星神) ‘레파’(Repa)이거나 근동인들이 섬기던 토성 신(土星神) ‘렘판’(Remphan)인 것 같다. 그런데 본서에 나오는 바울의 언급(7:42, 43)에 의하면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인들도 이 신을 숭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 20 장 바울의 고별 설교

단락구분 1-6 마게도나와 아가아 지방의 교회들 방문하다 / 7-12 유두고를 살리다 / 13-16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의 여행 / 17-35 에베소 장로들에게 행한 바울의 고별 설교 / 36-38 밀레도를 떠나다

1 소요가 그치매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나로 가니라

2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3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므로 마게도나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 하니

4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뢰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모라

5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6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7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회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8 우리의 모인 횃다락에 등불을 많이 켜는데

9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10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고

11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래 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12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않게 받았더라

13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앓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행선하니 이는 자기가 도보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14 바울이 앓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올리고 미둘레네에 가서

15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16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

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러라

17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18 오매 저회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19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20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21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22 보라 이제 나는 심령에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23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24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5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26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27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28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 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29 내가 떠난 후에 용약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 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30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리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31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삼 년이나 밤

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2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케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33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34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35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36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37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38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1. ㉠ 본장의 사건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 ㉠ (1) 본장에는 소요가 그치자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와 빌립보, 드로아, 앓소, 미들레, 기오, 사모, 밀레도에 이르는 바울의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다.
- (2) 이 여행에서 바울은 아가야 지방의 교회를 방문해 성도들을 위로하고 드로아에서는 말씀을 강론하던 중 창에서 떨어진 유두고를 살리기도 했다.
- (3) 이 여행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장면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행한 바울의 고별 설교이다.
- (4) 이 고별 설교를 통해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앞으로 겪게 될 일을 염려하였고 교회 지도자들이 행해야 될 모본(模本)을 이야기했다.
- (5) 또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복음 증거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단호한 자기 부정(自己否定)의 신앙을 보여 주었다.
- (6)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의 헌신적인 삶이 잘 나타나 있는 본장을 통해 성도가 추구해야 될 삶의 자세,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그리스도를 쫓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배울 수 있다(마 16:24; 눅 9:23).

2. ㉠ 에베소의 소요가 그치자 바울은 어디로 떠났는가? (1절)

- ㉠ (1) 바울은 소요가 그치자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로 향했다.
- (2) 고후 2:12, 13에 의하면 그는 마게도냐로 가기 전에 드로아를 경유했음이 분명하다.
- (3) 그것은 드로아에서 이전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조정하고 그 형편을 알고자 파견했던 디도를 만나려고 했기 때문이다.
- (4) 그러나 그곳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하자 비록 복음을 증거할 문이 열렸지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염려로 바울은 드로아를 떠나 마게도냐로 향했던 것이다.
- (5) 그 후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부터 돌아온 디도를 만나 그가 에베소에서 쓴 준엄한 편지를 고린도 교회가 받아들이고 바른길로 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게 되었다(고후 7:5-7).
- (6) 이때 바울이 기뻐하면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며 복음의 진리를 기록한 편지를 다시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되는데 이것이 고린도후서이다. 한편 에베소에서 디도를 통해 보낸 준엄한 편지는 고린도전서이다.

3. ㉠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주로 한 일은 무엇인가? (2절)

- ㉠ (1) 바울은 마게도냐 지경(地境)을 다니면서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였다.
- (2) 그가 여행한 마게도냐 지경은 이그나티우스 대로를 따라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뢰아를 경유하여 일루리곤의 남쪽 지역에 이르는 지역이었다.

- (3) 아마도 이 여행에는 A. D. 56년 여름부터 57년 하반기까지 약 1년 남짓한 시간이 소요 되었을 것이다.
- (4) 바울이 이 기간 동안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실행했던 일은 예루살렘의 곤궁한 신자들을 돕기 위하여 연보를 거두는 일이었다(참조, 롬15:25-32; 고전16:1-4; 고후8,9장).
- (5) 일찌기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연보를 한 적이 있었다(11:27-30). 이 연보는 한 몸을 이룬 교회에 대한 사랑의 행위였다.
- (6) 이 연보를 함으로써 이방인 신자들은 예루살렘의 모교회(母教會)에 대한 영적인 빛을 깨닫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이방인 교회들의 생동하는 신앙을 확실하게 보여 줄 수 있었다.
- (7) 이런 맥락에서 수해나 화재, 질병 등으로 고생하는 우리 동포들이나 기근으로 허덕이는 아프리카 지역, 지진, 화산 폭발 등으로 곤경에 처해 있는 이웃 국가들을 위해 교회가 앞장서서 연보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4. ㉠ 바울이 마게도냐를 거쳐 도착한 곳은 어디인가? (2,3절)

- ㉠ (1) 그곳은 헬라, 즉 아가야 지방이었지만 실제로 바울이 머물렀던 곳은 아가야의 수도 고린도였다.
- (2) 그가 그곳에서 체류한 시간은 약 3개월로 A. D. 56-57년에 걸친 겨울이었다.
- (3) 바울은 고린도에서 가이오의 따뜻한 접대를 받으면서(참조, 롬16:23) 복음을 증거하였고 마게도냐에서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을 위해 연보를 모았다(롬15:25).
- (4) 한 편으로는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그의 방문에 대해 준비도 시키고 또한 체계적이면서도 포괄적으로 복음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서신을 보냈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로마서이다.
- (5) 바울이 이처럼 로마에 깊은 관심을 기울인 것은 장차 로마를 라틴 세계와 서바나의 복음 전도를 위한 기지로 사용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참조, 롬15:17-23).
- (6) 바울이 고린도에서 행한 복음 전도, 구제를 위한 모금 운동, 교리 해설과 앞으로의 전도를 목적으로 한 서신 보내기(문서 선교) 등은 작게는 성도 개개인, 크게는 교회가 맡아서 수행해야 될 부분들이다(참조, 마28:19; 살후1:1; 약1:27).

5. ㉠ 바울이 마게도냐로 돌아가려고 계획한 이유는 무엇인가? (3절)

- ㉠ (1) 원래 바울은 수리아까지 배를 타고 갈 생각이었지만 유대인들이 바다에서 그를 암살할 계획을 세웠다는 소식을 듣고 부득불 마게도냐까지 육로로 가서 그곳에서 배를 타기로 결심하였다.
- (2) 본래의 계획대로라면 그는 니산 월(종교력으로는 1월, 민간력으로는 7월) 14일부터 시작되는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낼 수 있었을 것이다.
- (3) 하지만 유대인들의 암살 음모로 인해 해상보다 훨씬 늦은 육로를 택한 이상 바울은 유월절 행사에 참여할 생각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
- (4) 뿐만 아니라 첫 이삭 드리는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실행되는 오순절 행사(민간력으로 9월, 칠칠절이라고도 함)를 참석하는 데도 서둘지 않으면 힘들게 되었다(참조, 16절).
- (5) 이와 같이 성도는 사단의 무리들 때문에 원치 않는 고통과 손해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더욱 지혜롭고 순결하게 처신해야 한다(참조, 잠3:21; 마10:16; 고전14:20).

6. ㉠ 아시아까지 바울과 동행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4절)

- ㉠ (1)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이름	출신 및 특징	대표 교회	참조 귀절
소바더	베뢰아 출신, 소바의 아들	마게도냐 교회	
아리스다고	테살로니가 출신	마게도냐 교회	19:29;27:2;골 4:10;몬1:24
세군도	테살로니가 출신	마게도냐 교회	
가이오	더베 출신	갈라디아 교회	
디모데	루스드라 출신, 외조모 루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음	갈라디아 교회	16:1-3;17:14;18:1-5;19:22;고전 4:17;고후 1:19;빌 1:1;2:19, 23;살전 3:1, 2, 6;딤펴 4:14;히 13:23
두기고	아시아 출신, 플로새와 에베소 교회에 바울의 서신을 전함. 후에 순교했다고 알려짐	아시아 교회	엡 6:21, 22;골 4:7-9;딤후 4:12;딤펴 3:12
드로비모	에베소 출신, 훗날 바울이 그를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가 유대인들로부터 성전 모독죄의 누명을 씌움	아시아 교회	21:19;딤펴 4:20

- (2) 이들은 모두 예루살렘 교인들을 구제하기 위해 연보를 모금했던 각 교회들의 대표였다.
- (3) 그런데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은 아가야 지방, 즉 고린도 교회의 연보는 바울 자신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대표해 가져간 듯하다.
- (4) 이것은 곧 고린도 교회 내에 긴장과 내분(內紛)이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7. **㉠** 바울의 일행이 빌립보를 떠나 도착한 곳은 어디인가? (5, 6절)

- ㉠** (1) 바울의 일행은 빌립보를 떠나 5일 만에 소아시아의 서부 무시아에 있는 중요한 항구 도시 드로아에 도착하였다.
- (2) 드로아는 바울이 마게도냐의 환상을 본 곳이며(16:8, 9) 복음의 문이 열렸지만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인해 복음 증거를 중단한 곳이기도 했다(고후 2:12).
- (3) 바울의 일행, 즉 바울과 누가는 드로아에서 이미 그곳에 먼저 도착해 있던 이방 교회의 대표들(4절)과 합류하게 되었다.
- (4) 한편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드로아에서 빌립보의 외항(外港) 네압볼리까지 항해하는데 2일이 소요되었던데 반해 빌립보에서 드로아까지 오는 데 5일이나 걸린 것은 그가 탄 배가 역풍(逆風)을 만났기 때문이다(참조, 16장 ㉠ 11).

8. **㉠** 바울이 드로아의 신자들과 떡을 떤 날은 언제인가? (7절)

- ㉠** (1) 그날은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主日)이었다.
- (2) 초대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여 이날을 예배를 위한 특별한 날로 구별하였는데(고전 16:2) 본절의 사건은 그러한 행사에 대한 확실한 또한 최초의 증거이다(참조, 요 20:19, 26; 계 1:10).
- (3) 드로아의 신자들은 주일에 ‘떡을 떤다 하여’ 모였는데 이것은 주의 만찬(the Lord's Supper)을 기념하는 모임이었다(참조, 고전 10:16, 17; 11:17-34).
- (4) 바울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증거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드로아에 신자들이 많았다는 사실은 복음이 갈라디아와 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 등지에서 로마 제국의 동부에 속한 이방 세계로 널리 퍼져 나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 (5) 여기에서 안식일과 주일의 관계나 주일의 의미를 자세히 알고자 하는 독자는 본시리즈 5권 pp 170, 171의 연구 자료 ‘안식일과 주일’을 참조하라.

9. **㉠ 바울이 복음을 강론하는 도중 어떤 사건이 발생하였는가? (7-9절)**

- ㉠** (1) 바울의 강론을 듣던 무리들 가운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앉아서 바울의 강론을 듣던 중 졸다가 삼 층 누(三層樓)에서 떨어져 죽은 사건이 발생했다.
- (2) 이 사건의 원인에 관해서 혹자는 말씀을 신중히 대하지 않고 졸면서 경솔히 대한 유두고의 태도에 그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 (3) 하지만 당시 바울의 강론은 저녁부터 밤중까지 계속되었고 그 집안에 모인 많은 사람들 때문에 유두고는 창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으며 낮 시간의 일로 피곤에 지친 그는 졸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 (4) 그 이유야 어쨌든 간에 이 사건으로 인해 그 모임은 잠시 중단되었고 유두고의 죽음 소식은 사람들에게 적지않은 충격을 주었다.
- (5)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 내에서도 종종 의외의 불상사들이 일어나 세상 사람들의 구설수(口舌數)에 오르며 교인들이 시험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다. 그런 때일수록 전 교인이 더욱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며 그 사건을 통해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노력해야 한다(참조, 23:9-11).

10. **㉠ 바울은 죽은 유두고를 살리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하였는가? (10-12절)**

- ㉠** (1) 바울은 내려가서 유두고의 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았다.
- (2) 이런 행동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 자기 품에 그 아들을 안고 그의 거처인 다락으로 올라가 침상에 눕혔던 것(왕상 17:21)이나 엘리사가 수넵 여인의 죽은 아들 위에 올라 엎드려 그의 입과 눈, 손, 몸에 자신의 입, 눈, 손, 몸을 대었던 것(왕하4:34, 35)과 유사하다.
- (3) 바울의 행동은 사랑의 표현임과 동시에 자신의 몸 전체를 유두고에게 내어 주어 그를 살리고 자기가 죽겠다는 대속의 상징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다.
- (4) 그와 함께 바울은 사람들에게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라고 말하였다.
- (5) 이것은 유두고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의사인 누가가 이미 죽었다고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바울의 말은 그가 겨우는 순간에 유두고의 생명이 돌아왔음을 나타낸다.

11. **㉠ 유두고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드로아 교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12절)**

- ㉠** (1) 드로아 교인들은 살아난 유두고를 보면서 위로를 적지않게 받았다.
- (2) 왜냐하면 그들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난 극적인 표적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 (3)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누구의 죄로 인함이냐고 묻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고 대답하셨듯이(요 9:2, 3)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유두고를 통해 당신의 능력과 사역과 임재를 나타내시는 사건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 (4)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교회나 성도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 당신의 임재와 능력을 나타내신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신앙 간증으로 증명된다.
- (5) 그러므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 기쁨을 자신만이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함으로써 함께 그 기쁨과 위로를 나누도록 해야 한다(참조, 21:19, 20).

12. **㉠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바울의 전도 여행 노정을 설명하라(13-15절).**

- ㉠** (1) 바울의 일행 중 바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먼저 맞소로

간 반면 바울은 도보(徒步)로 앓소를 향했다.

- (2) 그것은 배로 갈 경우 렉툼 갑(岬)을 돌아가야 하지만 직선 거리인 육로로 갈 경우 시간이 단축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3) 이처럼 바울이 육로를 택해 시간을 단축하려고 한 이유는 드로아에서 개인적인 일을 처리할 것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마도 그 개인적인 일이란 성도들을 방문한다거나 하나님께 기도할 은밀한 시간을 갖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 (4) 앓소에서 합류한 그들은 배를 타고 레스보스 섬의 남동쪽 해안에 있는 항구 미들레네를 거쳐 자유항이었던 기오 섬의 중요한 성읍 기오로 갔다.
- (5) 계속해서 그들은 기오 섬과 소아시아 본토를 나누는 해협을 가로질러 가 에베소 서쪽에 있던 사모 섬에 도착하여 잠시 머무른 후 다시 항해를 계속해 다음날 밀레도에 도착하였다.
- (6) 밀레도는 미엔더 강 어귀에 위치한 고대의 항구로 에베소에서 남쪽으로 약 48km 지점에 위치해 있었다.

13. ㉠ 바울이 밀레도까지의 항해에서 에베소에 들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16절)

- ㉠ (1) 그 이유는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에 들러서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바울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 (2) 이미 바울은 유대인들의 음모 때문에 가장 중요한 순례 절기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도착할 계획을 포기한 적이 있었다(참조, ㉠ 5).
- (3) 그러나 이번에는 가능하다면 유대의 두번째로 큰 순례 절기인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인들을 돕기 위해 모금한 연보를 전해 주고 싶었을 것이다(참조, ㉠ 3, 4).
- (4)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들르지 않고 에베소 만의 입구를 가로질러 기오에서 사모로 항해하는 직선 항로를 택한 것이다.
- (5) 대신에 바울은 밀레도에 도착하자마자 에베소 교회에 전갈을 보내 장로들을 그곳으로 불러서 그의 진심과 열정이 담긴 고별 설교와 권면의 말을 전했다(17-35절).
- (6) 이것은 평상시에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얼마나 깊은 애정과 기도의 열을 쏟고 있었는가를 암시적으로 나타내 주는 장면이다.
- (7) 이와 같이 성도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서로 만나지 못할 경우라도 기도와 서신을 통해 영적인 교제를 나누어야 하며, 할 수만 있다면 직접 만나서 서로의 신앙 체험을 나누며 조언해야 한다(참조, 2:42; 요일 1:7).

14. ㉠ 바울이 사람을 보내 에베소에서 청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17절)

- ㉠ (1) 그들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었다.
- (2) ‘장로들’을 지칭하는 헬라이어 <프레스부테로스>가 ‘늙은’, ‘나이가 많은’이란 뜻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들은 나이가 지긋히 들었으며 에베소 교회를 대표할 만한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 (3) 한편 바울이 밝힌 장로의 자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하나님의 청지기로써 책망할 것이 없고 ② 한 아내의 남편이며 ③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두고 ④ 제 고집대로 아니하며 ⑤ 급히 분내지 않으며 ⑥ 술을 즐기지 않으며 ⑦ 구타(毆打)하지 아니하며 ⑧ 더러운 이(利)를 탐하지 아니하며 ⑨ 나그네를 대접하며 ⑩ 선을 좋아하며 ⑪ 근신하며 ⑫ 의로우며 ⑬ 거룩하며 ⑭ 절제하며 ⑮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딤후 1:5-9).

- (4) 또한 장로들의 임무는 ① 구제에 대한 일을 관리하고 (11:29, 30) ② 교회를 잘 다스리고 (딤후 5:17) ③ 바른 가르침으로 교훈하며 책망하고 (딤후 1:5, 9) ④ 병자를 돌아보아야 한다 (약 5:14, 15).
- (5) 그러므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인 장로들에게 자신의 고별 설교와 권면을 한 것은 매우 적절한 일이었으며 모든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한 것과 같다.
- (6) 오늘날 바울이 밝힌 장로의 자격이나 임무와는 관계 없이 '헌금의 양'에 의해 장로들이 피택(被擇) 되는 현실은 한심스럽다. 이런 잘못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영적 지도자들 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바로 깨달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참조, 사 17:7-13).

15. **㉠**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한 고별 설교의 특징은 무엇인가? (18-35절)

- ㉠** (1)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한 설교(13:16-41)가 회당의 청중들에게, 아덴에서 한 설교(17:22-31)가 이방인에게 한 대표적인 설교라면 이 밀레도의 설교는 모든 기독교인을 향한 설교의 전형(典型)이라고 할 수 있다.
- (2) 이 설교의 중심 내용은 ①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사역(18-21절) ②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바울의 현재 계획(22-24절) ③ 바울 자신과 에베소 교회의 장래(25-31절)이다.
- (3) 그래서 혹자는 이 밀레도 설교를 가리켜서 권면의 성격과 어느 정도 바울 자신의 변증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 (4) 뿐만 아니라 이 설교는 바울 서신의 구성과 유사해서 바울 서신의 축소판 같은 느낌을 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매우 의미 심장하다.
- (5) 왜냐하면 본서 전체를 통틀어 그 어느 곳에서도 바울 서신에 대해 자세하게 증거해 주는 기록이 없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런 특징들은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기 때문이다.

16. **㉠** 바울은 장로들에게 자신이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주를 섬겼다고 하였는가?(18, 19절)

- ㉠** (1) 그는 유대인들의 간계(奸計)로 인해 발생한 시험을 참으며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다고 했다.
- (2) 유대인들의 간계로 인한 시험은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던 약 3년간의 생활을 기록한 19장에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비방한 것(19:7)을 제외하고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
- (3) 하지만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서 괴악한 사람들을 동원해 소동을 일으킨 사건이나(17:5-7) 베뢰아까지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쫓아와 무리를 선동한 일(17:13) 그리고 고린도에서 갈리오가 아가야의 신임 총독이 된 것을 이용해 바울을 고소한 일(18:12, 13) 등 다른 지방에서의 경우를 살펴보면 에베소에서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간계로 인하여 핍박을 받았으리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참조, 살전2:2).
- (4) 그러나 바울은 간계와 무력을 앞세운 유대인들에게 그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대적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눈물을 흘리며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구했다(참조, 시142:1-7).
- (5) 복음의 대적자들의 간계와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것을 참아내기 위한 바울의 눈물의 양과 겸손의 정도도 더욱 많아졌다.
- (6) 이러한 바울의 삶은 오늘날 적은 손해만 입어도 그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으려 하고,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겸손히 아뢰이며 눈물로 도움을 간구하기 보다는 자신의 힘만으로 해결하려고 발버둥치는 우리들에게 신앙의 귀감(龜鑑)이 된다(참조, 7:60).

17. **㉠**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에서 무엇을 전하고 가르쳤다고 간증했는가? (20절)

- ㉠** (1) 바울은 먼저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하나도 빼놓지 않고 공중 앞에서나 그들의 가정에서 전하며 가르쳤다고 했다.
- (2) 여기에서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이란 영혼에 평안을 주는(엡6:15) 생명의 말씀인 복음(5:20; 빌2:16)과 성도로서의 올바른 삶에 대한 권면을 의미한다.
- (3) 바울의 이 ‘권면’은 복음의 대적자들이 꾸민 간계와는 달리 간사(奸詐)와 부정, 계계(詭計)가 없으며 아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은 진실된 것이었다(살전2:3, 5).
- (4) 이처럼 그의 복음 증거나 권면하는 자세가 진실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오직 인간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그의 신앙 자세 때문이다(갈1:10; 살전2:4).
- (5) 한편 그의 간증 가운데 ‘공중 앞’이란 회당(18:19; 19:8)과 두란노 서원(19:9)을 뜻하며, ‘가정에서’란 바울이 심방한 에베소 교인의 집이나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을 의미한다(참조, 18:26; 18장 ㉡22).
- (6) 우리가 세상을 살아 나가면서 남을 속이고 여러 가지 일로 인해 고민과 갈등에 빠지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아니하고 사람과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매일 연습하여서 그 분량이 점점 많아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생 과제이다(참조, 고전13:11; 14:20; 히 5:13, 14).

18. **㉠** 바울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증거한 것은 무엇인가? (21절)

- ㉠** (1)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
- (2) 여기에서 ‘회개’(헬, 메타노이아)란 죄의 결과를 뉘우치고 죄 자체를 미워하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한다.
- (3) 또한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은 하나님과 화평하며(롬5:1), 죄 사함(10:43)과 의롭다 함을 얻게 하며(13:39) 구원에 이르게 하는 힘이 있다(요11:25, 26; 롬10:9, 10; 히10:39).
- (4) 그러므로 마치 순결하고 고귀한 어떤 물체를 담기 위해서는 먼저 그릇에 담겨 있던 더러운 물건들에 대한 청소가 선행되어야 하듯이 회개는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준비 단계요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참조, 막1:15).
- (5) 이와 같은 바울의 메시지 내용은 에베소의 마술사들이 자신들의 생명과도 같았던 마술 책들을 불사르고, 형식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위선적인 삶을 자복(自服)하였던 사건을 통해 입증된다(19:18, 19).

19. **㉠** 바울이 밝힌 그의 당면 과제는 무엇인가? (22절)

- ㉠** (1) 바울의 당면 과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이었다.
- (2) 그런데 이 일은 바울이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단독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절대적인 간섭에 따른 계획이었다.
- (3) 이것은 ‘심령(心靈)에 매임을 받아’(헬, 테데메노스 토 프뉴마티)라는 말이 ‘성령의 해 묶여(재촉을 받아, 강요를 받아)’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데서 잘 나타난다.
- (4)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하고자 한 일은 갈라디아와 마게도냐, 아가야, 아시아의 이방 교회 성도들이 연보한 돈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해 주는 것이었다.
- (5) 이 일은 이방 교회에 미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이방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명백하게 보여 주는 증거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것을 나타내 주는 상징이었다(참조, ㉡3).
- (6) 우리는 여기에서 성도들이 세우는 모든 계획들은 성령의 계획을 따라오게 한다든가 추월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계획을 따라가야 함을 배울 수 있다(참조, 잠 19:21).

20. **㉠**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경험할 것인지 알고 있었는가? (22, 23절)

- ㉠** (1) 바울은 먼저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고 대답했다.
- (2) 이처럼 자신의 미래에 닥칠 일을 알지 못한 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基業)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아브라함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히 11:8).
- (3) 또한 바울은 이전부터 성령께서는 바울이 방문하는 각 성마다 그가 받을 결박(結縛)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주지시켰다고 말했다.
- (4) 이 말씀은 아마도 두로(21:4)와 가이사라(21:10-12)에서처럼 예언하는 자를 통해 그에게 전달되었거나 그에게 성령이 감동하심으로 깨닫게 해주셨을 것이다.
- (5)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성전 모독죄로 고소되어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였고(21:27-30) 로마군에 의해 쇠사슬로 결박당하는(21:32, 33) 수모를 겪게 되었다.
- (6)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미래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다. 이처럼 불확실하고 가변적(可變的)인 미래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나아가는 성도는 결코 실망하거나 불안해 하지 않는다(참조, 27:21-26).

21. **㉠** 자신이 가는 곳마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바울의 각오는 어떠했는가? (22절)

- ㉠** (1) 비록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그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각오가 되어 있었다.
- (2) 오히려 그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복음의 대적자들에 의해 환난과 핍박을 당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같이 된 것(고전4:13)을 기뻐하였다(고후 12:9; 골 1:24).
- (3) 왜냐하면 그 자신의 육체는 고통과 역경을 당하게 되지만 복음은 묶이지 않고 증거되어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기 때문이다(참조, 빌 2:17).
- (4) 이와 같이 언제나 바울의 주된 관심사는 자신의 육체의 평안함이 아니라 복음의 확산과 진보(進歩)였으며 ‘살든지 죽든지 그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었다(빌 1:12-30).
- (5) 그는 자신에게 비록 유익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다 해(害)로 여겼고 배설물로 간주하였다(빌 3:7, 8).
- (6) 이처럼 성도들의 관심사도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면 그 일이 아무리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라 할지라도 과감히 던져 버리는 결단이 필요하다(참조, 막 10:28; 눅 5:27, 28).

22. **㉠** 바울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고 선포한 이유는 무엇인가? (26, 27절)

- ㉠** (1) 그 이유는 그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였기 때문이다.
- (2) 따라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는 말은 결코 복음 전도에 태만히 한 적이 없었으며 말씀을 잘못 전한 적이 없었다는, 최선을 다한 복음 전도자의 말이라고 할 수 있다.
- (3) 한편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대적하며 훼방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웃을 떨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18:6)고 선포한 적이 있다.
- (4) 그러므로 본질의 의미와 유래에 대해서는 18장 **㉠** 8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그것을 참조하라.
- (5) 오늘날 복음 증거자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비복음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이 들어 있다.

(6) 이래서야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할 수도 없을 것이며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는 말을 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제라도 복음으로 돌아가자(참조, 겔 33:4-9).

23. **㉠**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한 바울의 첫번째 권면의 말씀은 무엇인가? (28절)

- ㉠** (1) 바울의 첫번째 권면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 떼를 위하여 삼가라’는 말이었다.
- (2) 여기에서 ‘삼가라’(헬, 프로세코)는 말은 ‘주의를 집중하라’, ‘전력하라’, ‘관심을 가져라’는 뜻이다.
- (3) 이처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경각심을 불러넣어 주는 것은 그가 떠나게 되면 에베소 교회가 외적으로 복음의 대적자들의 박해에 시달리게 되고(29절) 내적으로 배교(背敎)의 세력으로 어려움에 빠질 것을(30절) 예견했기 때문이다.
- (4) 에베소 교회는 그의 권면을 잘 따라 주었다. 이것은 A. D. 81-96년경에 쓴 사도 요한의 계시록 2:1-3에서 잘 나타난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책망도 듣게 된다(계 2:4, 5).
- (5) 현대 교회도 에베소 교회가 당면한 문제에 못지않게 많은 이단 사설(異端邪說)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의 권면은 바로 우리 자신들을 향한 것이며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부분이다(참조, 계 22: 18, 19).

24. **㉠**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그들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일깨웠는가? (28절)

- ㉠** (1) 바울은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監督者)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고 하였다.
- (2) 먼저 ‘감독자’(헬, 에피스코포스)란 ‘조사자’, ‘감시자’, ‘수호자’란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로서 당시에는 ‘장로’나 ‘목자(목사)’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 (3) 이들의 사명은 교회를 감독하고 하나님의 양 무리인 교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며 가르치는 일이었다(살전 5:14; 딤후전 5:17; 벧전 5:2).
- (4) 따라서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의 사명은 교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느냐 아니면 사망으로 인도하느냐 라는 중차대(重且大)한 문제와 직접 연관되어 있다고 정의 내릴 수 있다.
- (5)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에베소 교회의 장로로 세우신 분이 성령이라고 했다. 바울은 이 말을 통해 그들이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들을 세우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할 것을 암시해 주었다.
- (6) 그러므로 주의 백성을 가르치는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령을 인식하고 겸허하게 성령의 인도와 도움을 요청하는 것과 내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친다는 청지기 정신이다(참조, 딤후 1:7; 벧전 4:8).

25. **㉠**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란 무슨 뜻인가? (28절)

- ㉠** (1)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속물(代贖物), 즉 인간들이 지은 죄의 속전(ransom)으로 지불하고 사신 교회라는 뜻이다(참조, 마 20:28).
- (2) 여기에서 ‘교회’(헬, 에클레시아)란 외형적인 건물이나 조직을 가리키지 않고 ‘회중’, 즉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백성들’을 의미한다(고전 12:28).
- (3)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형성은 곧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교회가 교회다와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하고(엡 5:24)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만 한다(엡 2:19, 20).
- (4) 따라서 그리스도의 신성(神性)과 인성(人性)을 부인하거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

(5) 뿐만 아니라 주된 관심사가 복음이 아닌 사회 구제나 사회 사업인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망각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참조, 고전 6:15).

26. **㉠** 바울은 자신이 떠나게 되면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권고하였는가? (29-31절)

- ㉠** (1) 바울은 두 가지 일이 발생하리라고 예견했다. 첫째는 흉악한 이리가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그 양 떼를 해칠 것이라는 권고이다.
- (2) 이 권고는 흉악한 이리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마 7:15)이 에베소 교회 내에 들어와 성도를 해치고 복음을 대적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참조, 눅 10:3; 요 10:12).
- (3) 둘째는 교회 내에서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헬, 디아스트레포), 즉 복음을 곡해하고 성도를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란 권고이다.
- (4) 이와 같은 바울의 권고대로 에베소 교회에는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이 들어왔고 니콜라당이라는 이단이 생겨 분열을 획책하기도 했는데 이런 상황들이 목회 서신들(참조, 딤후 1:19, 20; 4:1-5; 딤후 1:15; 2:17; 3:1)과 요한계시록(계 2:1-7)에 나타나 있다.
- (5) 그런 까닭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내가 '삼 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권면했다.

27. **㉠**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누구에게 부탁하였는가? (32절)

- ㉠** (1) 바울은 그들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였다.
- (2) 여기에서 '부탁하였다'에 해당되는 헬라어 <파라티데미>는 '위탁하다', '넘겨 주다', '소개하다'라는 뜻이다.
- (3) 바울은 비록 떠나지만 하나님과 그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즉 그들을 구속하고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 주는 말씀은 항상 그들의 곁에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 것이다.
- (4) 이 말씀은 성도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케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는 능력이 있다.
- (5) 그런 까닭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써 다른 성도들과 함께 신앙과 사랑 안에서 세움을 입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그들의 기업(참조, 16:18; 골 1:12)을 누릴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을 것이다.
- (6)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즉 성령이 아닌 명상(冥想)이나 선행 등과 같은 다른 모든 방법들은 우리를 확고하게 세워 줄 수도 없고 성도의 기업을 받게 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참조, 롬 4:2-6; 9:31; 11:6).

28. **㉠**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한 바울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은 무엇인가? (33-35절)

- ㉠** (1)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인 장로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자는 먼저 은이나 금이나 의복과 같은 물질적인 보답을 바라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권면하였다.
- (2) 계속해서 그는 사무엘이 사사로서의 직무를 끝마치려 할 때 온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불러 세웠듯이(삼상 12:1-6)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과 동료들의 쓸 것을 벌었으며 약한 사람들을 도와 주었다고 증거하였다.
- (3) 이 말대로 바울은 그가 방문한 도시에서 귀신들린 여종(16:18)이나 병자들을 낫게 하였으며(19:12) 필요하다면 자신의 천막 치는 기술을 이용해 자신과 동료들의 의식주를 해결했었다(참조, 18:2, 3; 고전 4:12; 9:3; 고후 4:5; 10:1; 11:7; 살전 2:3; 살후 3:7).
- (4) 그러면서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이와 같은 그의 모본(模本)을 따르라고 요구하였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예수의 말씀을 상기시켰다.

- (5) 이 말씀은 매우 적절한 인용으로 바울은 종종 그의 윤리적 권면을 예수의 말씀과 연관시켰고(참조, 롬 12-14장; 살전 4:1-12) 예수께서 보여 주신 모본에 관련시켰다(참조, 빌 2:5-11).
- (6) 한편 바울이 인용한 예수의 말씀은 복음서에서 찾아 볼 수 없지만 구전(口傳)된 예수의 말씀임에 틀림없으며 또한 그 정신은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의 사상과 행동 속에서 스며나온 것이다.
- (7) 우리는 이 같은 바울의 권면을 통해 돈과 명예와 의식주 문제를 복음 증거의 사명보다 먼저 생각하고 손익(損益)을 계산하는 일부 한국 교회 지도자들의 풍조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참조, 요 12:3-5).
- (8)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자신의 삶을 드러내 놓고 말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의외로 적음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비교, 고전 4:16; 엡 5:1; 빌 3:17; 살전 1:6, 7).
- (9) 우리는 자신 있게 '나를 본받으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과연 우리는 이웃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 보면서 반성(反省)해 볼 필요가 있다.

29. ㉠ 바울의 설교가 끝났을 때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36-38절)

- ㉠ (1) 바울이 설교를 끝낸 후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자 그들은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 (2) 여기에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행동은 유대의 인사법으로(창31:28, 55)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나타낸다(롬 16:16; 고전 16:20).
- (3) 특히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고 한 바울의 말은(25, 38절)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더욱 슬프게 했고 근심에 빠지게 했다.
- (4) 이 고별 설교 직후에 바울은 사람들의 전송을 받으면서 밀레도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된다.

본장의 요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4절).

제 21 장 3차 전도 여행을 끝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바울

단락구분 1-3 두로에 도착한 바울 / 4-6 제자들이 바울의 예루살렘 입성을 반대하다 / 7-9 빌립의 집에 도착한 바울 / 10-11 선지자 아가보가 바울이 잡힐 것을 예언하다 / 12 우리들이 바울의 예루살렘 입성을 반대하다 / 13-14 바울의 대답 / 15-16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울 / 17-21 바울의 예루살렘 도착과 선교 보고 / 22-26 바울이 결례(深禮)를 행하다 / 27-30 바울이 백성들에게 잡혀다 / 31-36 로마군에게 넘어간 바울 / 37-40 바울의 변호

1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행선하여 바로 스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니

2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3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행선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가 짐을 풀려 함이러라

4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쯤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5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새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6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7 두로로부터 수로튼 다 행하여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8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일곱 짐사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9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10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11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때 입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주리라 하거늘

12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13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14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15 이 여러 날 후에 행장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16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유하려 함이라

17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18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19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알이 고하니

20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있는 자라

21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22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의 온 것을 들으리니

23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24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25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26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드릴 때까지의 결례의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

27 그 이레가 거의 차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돌하여 그를 붙들고
 28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훼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29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일러라
 30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닫히더라
 31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의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며
 32 저가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33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누구며 무슨 일을 하

였느냐 물으니
 34 무리 가운데서 어떤이는 이 말로, 어떤이는 저 말로 부르짖거늘 천부장이 소동을 인하여 그 실상을 알 수 없으며 그를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35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포행을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 가니
 36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감이라
 37 바울을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가려 할 그 때에 바울이 천부장더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뇨 가로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38 그러면 네가 이전에 난을 일으켜 사천의 자객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39 바울이 가로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음이 아닌 길리기야 다소 성의 시민이니 천군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40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크게 중용히 한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여 가로되

1. **㉠ 본장에 나타난 예루살렘으로 가기까지의 바울의 여행 경로를 살펴보라.**

- ㉠** (1) 전장(前章)에서 밀레도에 도착한 바울은 본장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여행을 계속한다.
 (2) 본장에 나타난 그 여정을 살펴보면 밀레도 - 고스 - 로도 - 바다라 - 두로 - 들레마이 - 가이사라 - 예루살렘 순이다.
 (3) 그런데 본장에는 특별히 바울의 예루살렘에서 당할 고난을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을 반대하고 있다.
 (4) 즉 두로에서 그의 제자들이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을 반대하였고(4절), 가이사라의 빌립의 집에서 유대 선지자 아가보의 예언을 들은 사람들이 재차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을 반대하였다(12절).
 (5)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는 결박과 더 나아가 순교마저도 불사(不辭)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闡明)하였다(13절).
 (6) 그 이후 실제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성전 모독의 누명을 쓰고 사람들에게 붙잡혀 매를 맞는 수모를 겪었다(27-30절).
 (7) 그러나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예루살렘에서의 순교가 아닌 이방 세계의 복음 전도를 위한 로마에서의 순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8)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로마 군대의 천부장을 통해 바울을 예루살렘의 성난 군중들로부터 건져 내셨다.
 (9) 그러므로 우리는 본장을 통해서 삶의 최우선 순위를 복음 전파에 둔 바울의 담대한 신앙을 본받아야 할 것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역시 세상의 조롱거리나 죄에 패배하는 나약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원대한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2. **㉠ 밀레도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의 바울의 전도 여행을 도표로 작성하라(1-17절).**

- ㉠** (1) 바울은
 ①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고스, 로도, 바다라로 가서

- ② 그곳에서 베니게 행 배로 수리아의 두로에 잠시 상륙한다.
- ③ 그 후 다시 배를 타고 돌레마이로 가서 그곳의 형제들에게 안부를 물으며 그곳에서 하루를 유숙한다.
- ④ 이튿날 육로로 가이사라에 이르러 빌립의 집에 여러 날 머무른 후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3. **㉠** 누가는 장로들과 바울 일행의 헤어짐을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1절)

- ㉠** (1) 누가는 '우리가 저희를 작별하고' 라고 묘사하였다.
- (2) 물론 여기서 '우리' 는 누가가 포함된 바울의 일행이며 '저희'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20:17) 가리킨다.
- (3) 그런데 누가는 작별 곧 이별의 격한 감정을 나타내는 헬라이어 <아포스파스텐타스>를 사용하여 그들이 얼마나 헤어지기를 싫어했는지를 나타냈다.
- (4) 이런 그들의 감정은 <아포스파스텐타스>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본 학자들의 태도에서 잘 나타난다. 그 말은 찢어 놓는다는 의미로 이별의 잔인함을 나타내고(Chrysostom). 억지로 친구와 갈라서야 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며(Sohleusner, Kuinoel). 필연적인 이유 때문에 고통스럽게 갈라서야 하는 경우를 나타낸다(Meyer).
- (5) 이런 끈끈한 감정의 교차(交叉)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일행은 복음 전도 사역의 확산이라는 대의(大義)를 위해서 장로들과 헤어져야만 했다.
- (6)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일이며 그것을 위해서는 인간적인 모든 요소들도 때로는 포기하는 결단이 요구됨을 보여 준다(참조, 마6:33).

4. **㉠** 바울의 일행은 두로에서 누구를 찾아갔는가? (4절)

- ㉠** (1) 그들은 두로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 거기서 이레를 머물렀다.
- (2) 이 제자들은 두로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이미 두로에 교회가 세워졌음을 암시한다.
- (3) 이들은 주로 스테반의 순교로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그리스도인(참조, 11:19)과 바울과 실라의 2차 전도 여행 시 전한 말씀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었을 것이다.

5. **㉠** 두로의 제자들은 바울에게 무엇을 권고하였는가? (4절)

- ㉠** (1)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感動)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고하였다.
- (2) 바울은 이와 같은 권고를 가이사라의 빌립의 집에서 사람들로부터 받은 적이 있다(12절).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의 수난 길을 만류한 것과 상통한다(마16:22).
- (3) 그때 바울은 자신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고 더 나아가 죽음의 자리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반드시 올라가겠다는 단호한 주장을 표명(表明)했다(13절).
- (4) 본질의 의미는 성령의 감동, 즉 유대로부터 온 선지자 아가보의 예언(11절)과 같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고통을 겪게 되리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이 인간적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유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5) 즉 제자들은 바울의 안위를 걱정하는 뜨거운 사랑의 마음에서 바울의 전도의 길을 만류한 것이다.

6. **㉠** 바울의 일행이 두로를 떠날 때 제자들의 전송 모습은 어떠했는가? (5, 6절)

- ㉠** (1)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처자(妻子)를 데리고 나와 바울의 일행을 성문 밖까지 전송하고 바닷가에서 서로 무릎을 꿇고 기도한 후 바울의 일행과 작별하였다.
- (2) 사실 그들은 바울의 오랜 친구가 아니었지만 불과 이레를 함께 있는 동안 서로간의 동질성을 깨달았던 것이다.
- (3) 이 동질성이란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서로가 굳게 연결되어 있는 한 형제 의식을 의

미한다.

- (4) 한편 그들이 보여 준 차별을 위한 마지막 단계가 기도였다는 사실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이별할 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시사한다.
- (5) 왜냐하면 기도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으로서 형제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도는 역시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신다(참조, 마 18:19).

7. **㉠ 바울의 일행은 가이사랴에 도착한 후 누구의 집에서 유숙하였는가? (8절)**

- ㉠** (1) 그들이 가이사랴에서 유숙한 집은 초대 교회 일곱 집사 중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의 집이었다(참조, 8장 ㉠ 5).
- (2) 빌립은 본래 예루살렘에서 거하였으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최초 박해 사건인 스테반의 순교 사건으로(7:57-60) 인해 예루살렘을 떠나 사마리아로 도피하였다.
- (3) 그때부터 그는 복음 전도자로 변신해 사마리아 성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고(8:5) 그 이후에도 아소도와 여러 해안 지방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의 거주지인 가이사랴에 정착하였던 것이다(8:40).
- (4) 그때까지 그가 행한 대표적인 전도 사역을 예로 들면 마술사 시몬(8:1, 5-13)과 에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일(8:26-40) 등이 있다.
- (5) 바울의 일행이 도착할 당시에 빌립은 네 딸을 거느린 가장(家長)이었을 뿐 아니라 바울의 일행을 여러 날 대접할 만한 능력을 지닌 유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9절).
- (6) 한편 그의 딸들은 처녀였지만 예언하는 능(能)을 지닌 예언자들이었다. 그러나 9절의 기록으로 볼 때 그 딸들이 어떤 예언의 능력을 지녔는지는 알 수 없다.

8. **㉠ 바울의 일행이 빌립의 집에 머무름 때 그들을 찾아온 자는 누구인가? (10절)**

- ㉠** (1) 선지자 아가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빌립의 집에 머무르고 있는 바울 일행을 찾아왔다.
- (2)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예언자로서(10절; 11:27) ‘천하가 크게 흉년들리라’(11:28)고 예언한 바 있다.
- (3) 아가보와 이 예언에 관해서는 11장 ㉠ 16, 17을 참조하라.

9. **㉠ 아가보는 바울에 대해 어떤 예언을 하였는가? (11절)**

- ㉠** (1) 그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 의해 결박당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을 예언하였다.
- (2) 아가보는 이 예언을 더욱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과 발을 묶은 후 이 띠의 임자 곧 바울이 자기와 같이 될 것임을 예언하였다.
- (3) 이처럼 예언자들은 종종 행동으로 자신들의 예언을 대신하곤 한다. 이런 예를 솔로몬 왕국이 분열될 것을 나타내기 위해 선지자 아히야가 자신이 입은 새 옷을 찢은 일(왕상 11:30)이나 이사야가 애굽과 구스의 포로 생활을 예언하기 위해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녔던 일(사 20:2, 3)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 (4) 아가보의 예언대로 바울은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의 충동질로 인하여 성전 모독죄의 누명을 쓰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붙잡혀 매를 맞은 후 로마군에게 넘겨진다(27-33절).

10. **㉠ 누가는 아가보의 예언을 들은 사람들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12절)**

- ㉠** (1) 누가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라고 묘사하였다.
- (2) ‘우리’, 즉 누가를 포함한 빌립의 모든 식구들과 그곳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은 아가보의 예언을 통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뻔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 것을 눈물로써 간절하게 호소하였다(4절; 참조, ㉠ 5).

- (3) 이런 그들의 간곡한 호소는 바울의 응답인 13절에서 잘 나타난다. ‘너희가 어찌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 (4) 때때로 우리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빌립의 집에 모인 사람들처럼 이런 형제들에게 찾아가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올바른 성도간의 교제요 이웃을 위한 삶이라고 생각된다(마 22:39; 요 15:12; 살전 3:12).

11. **㉠**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권고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바울의 대답은 무엇인가? (13절)

- ㉠** (1) 바울은 먼저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라고 대답하였다.
- (2) 이 말의 의미를 J. A. Findlay는 ‘너희가 세탁부가 빨래를 두들기듯이 나의 의지를 두들겨 약하게 하느냐’ 라고 해석하였다.
- (3)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현 상황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주로 인해 죽게 될 처지에 놓이더라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다고 결심하였음을 나타내 주는 말이다. 즉 믿는 형제들의 눈물어린 호소도 그 결심을 돌이키는 데는 전혀 효과가 없다는 말이다.
- (4) 이 같은 바울의 결심은 예루살렘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을 위해 마게도나와 아가야 사람들이 모금한 성금을 전해야겠다는 일념(롬 15:25, 26)과 복음 전파를 열망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 (5) 바울은 덧붙이기를 이 일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며 더 나아가 죽음까지도 각오하였고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 (6)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대답을 보면서 과연 우리 자신도 복음을 전하거나 형제에 대한 사랑을 실행하다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고난을 당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자문 자답(自問自答)해 보자(참조 20:24; 고전 8:13).

12. **㉠** 사람들은 권함을 받지 않는 바울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하면서 권유를 그쳤는가? (14절)

- ㉠** (1) 그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는 권유를 받지 않자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면서 권유를 그만두었다.
- (2) 이 말은 주기도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마 6:10)라는 귀절을 인용한 것으로서 ‘내 원대로 마음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눅 22:42)는 예수의 기도를 생각나게 한다.
- (3) 그들은 바울의 결심이 단순히 인간적인 결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에서 나온 것임을 알게 되었고 결코 그들의 설득으로 흔들리지 않으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 (4) 그리하여 오히려 계속 권유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더 나아가 성령의 인도를 방해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맡겨 버렸다.
- (5) 이같이 우리도 형제를 향한 우리의 조언이나 권유가 하나님의 계획과 배치(背馳)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그것을 그만두고 그 형제를 위해 기도하며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한다.

13. **㉠** 바울의 일행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가이사라의 몇 제자와 함께 누구를 데리고 갔는가? (16절)

- ㉠** (1) 그들은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갔다.
- (2) ‘나손’이란 이름은 성경 가운데 본절에만 유일하게 언급된 이름으로 그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 (3) 다만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스테반의 순교 이전에 이미 기

독교인이 되었던 구브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며 (11:20) 예루살렘 교회의 설립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4) 어쨌든 그의 집에 바울의 일행이 유숙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그의 생활 형편이 괜찮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14. **㉠** 바울의 일행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튿날 누구에게로 들어갔는가? (18절)

㉠ (1) 바울의 일행은 야고보에게로 들어갔다.

(2) 이 ‘야고보’는 예수의 형제로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다(참조, 15:13).

(3) 바울의 일행이 찾아갔을 때는 야고보와 함께 장로들이 있었다. 이들은 바울과 함께 교회의 운영 관리에 참여했던 자들로 바울과 그의 동료들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있었다.

(4) 한편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때는 오순절 기간이었다(20:16). 따라서 야고보와 장로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였고 그래서 바울도 이 기간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애썼던 것이다.

15. **㉠** 바울은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무엇을 보고하였는가? (19절)

㉠ (1) 바울은 그들에게 문안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異邦) 가운데 행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였다.

(2) 물론 이때의 전도 보고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끝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를 문안한 이후부터(18:22) 시작된 3차 전도 여행 시 일어난 일에 관한 것이다.

(3)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자신이 행한 일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이라고 보고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4) 그는 여기에서 어디까지나 자신은 하나님의 충성된 청지기에 불과하며 그 모든 일을 실질적으로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다.

(5) 이와 같은 그의 태도는 철저한 청지기 의식에 그 뿌리를 박고 있다. 그러므로 그가 행하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6)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자신의 힘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려 하며 조그마한 일에도 자신의 공력(功力)을 내세우는 우리들에게 귀한 경책(警責)이 된다.

16. **㉠**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에 대해 어떤 소문이 떠돌고 있다고 하였는가? (21절)

㉠ (1) 그들은 수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 개종자들간에는 바울이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칠 때 ① 모세를 배반하고 ②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규모를 지키지 말라 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다고 하였다.

(2) 사실 이러한 소문은 잘못된 것이요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이 만들어 낸 것에 불과했다.

(3) 왜냐하면 바울은 모세의 율법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정신을 망각하고 단지 그 형식적인 면만을 추구하는 유대인들의 삶을 반대하였으며(참조, 롬 2:17-27), 할례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게 된 본질적인 의미를 잊어버리고 단지 표피만을 자르는 외형적인 할례를 반대하였기 때문이다(참조, 롬 2:28, 29).

(4) 그런데 이와 같은 잘못된 소문이 떠돌았던 근본 이유는 개종한 유대인들이 아직 믿음이 공고하지 못한 관계로 믿음보다는 선민 의식에 사로잡혀 율법에 더욱 열심을 내었기 때문이다(20절).

(5) 그런 까닭에 바울의 비방자들이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친숙한 모세의 율법과 할례에 대한 문제를 오도(誤導)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은 바울을 궁지로 몰아넣기에 충분했다.

(6)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신실한 성도들을 비방하는 자들도 성도들의 행동 거지(行動學

止)를 왜곡하고 그릇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 일반적 특성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러한 헛소문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참조, 시 5:9).

17. **㉠** 야고보와 장로들은 유대인 개종자들의 오해를 풀기 위한 방법으로 무엇을 제안하였는가? (22-24절)

- ㉠** (1) 그들은 바울에게 서원(誓願)한 네 사람과 함께 결례(潔禮)를 행하고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할 것을 제안하였다.
- (2) 이 제안 가운데 등장하는 '서원한 네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으로서 일시적인 흥분에 의해 나실인의 서원을 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다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결례의 기간이 지나고 머리털을 밀며 예물을 드려야 했다.
- (3) 따라서 이들은 30일 동안 결례의 기간을 보내면서 독주를 금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며 시체를 가까이해서는 안 되었고 도덕적으로 깨끗하며 거룩해야 했다(민 6:3-8).
- (4)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는 30일의 기간이 7일로 단축되었다. 그래서 결례가 끝나는 제 7일째 되는 날 그 머리털을 밀고 제 8일째 되는 날에 예물을 드려야 했다(민 6:18-20).
- (5) 그런데 이때 드리는 예물은 어린 양 한 마리, 어린 암양 한 마리, 수양 한 마리 및 그에 따르는 소제물과 전제물로 구성되어 있어서 가난한 자들에게는 이것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었기 때문에 때론 부자들 가운데 이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다.
- (6) 지금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에게 제안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결례에 참석하며 서원한 네 사람의 예물 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이었다.
- (7) 그 결과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바울이 모세의 율법과 조상들의 관습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해 자신들이 들었던 바울에 대한 소문이 그릇된 것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었다.

18. **㉠** 바울은 야고보와 장로들의 해결책에 어떻게 대처하였는가? (26절)

- ㉠** (1) 바울은 그들이 제시한 해결책에 동의하였다.
- (2) 그래서 그는 바로 그 이튿날 서원한 네 사람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자들을 위하여 제사드릴 때까지의 결례의 만기(滿期)된 것을 고하였다.
- (3) 그런데 이 같은 바울의 태도는 믿음을 강조하며 형식적인 율법의 준수를 반대한 그의 주장과 배치되는 듯이 보인다(참조, 갈 2:11-16).
- (4) 그러나 이에 대해 Hendriksen과 같은 학자는 바울이 자신의 행동 원리, 즉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는 유대인과 같이 되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되었다는 그의 주장(고전 9:20)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행동했다고 하였다.
- (5)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형식적인 율법주의에 동화되고 타협하였다는 말은 아니다. 오히려 그는 형식적인 율법주의를 뛰어넘은 참믿음의 사람이었다.
- (6) 우리들에게도 때로는 주일의 예배 같은 것이 형식적으로 보일 때가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봉착했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예배의 참된 의미를 파악하고 그러한 타성에 젖은 형식주의를 뛰어넘어야만 한다(참조, 눅 12:1).

19. **㉠** 성전에서 바울을 목격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였는가? (27-29절)

- ㉠** (1) 그들은 결례의 제 7일째 되던 날 바울을 목격하고 그를 붙잡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긋을 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라고 외쳤다(참조, ㉠ 16).
- (2) 이것은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城內)에 있었던 사실을 목격하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했기 때문이다(참조, 20:4).

- (3) 당시 유대법으로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성전, 즉 이스라엘의 뜰(Court of Israel)에 들어가는 것은 사형에 해당되는 죄였다(참조, ㉑ 20).
- (4) 따라서 아시아에서 전도 사역을 행할 때 완악하게 바울을 비방하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들이(19:9;20:19) 이때를 바울을 죽일 좋은 기회로 삼았음이 틀림없다.
- (5) 그러나 사실 그들의 주장은 사실 무근(事實無根)한 것이요 허위로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사악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며 믿음의 연조(年條)가 적은 까닭에 율법에 더 열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우매한 대중들을 선동하기에 충분했다(30절).
- (6) 이와 같이 사단의 무리들은 하나님만을 신실히 섬기는 성도들을 무척이나 싫어하기 때문에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를 파멸시키려고 애쓴다. 이런 중에서 우리는 그러한 자들의 유혹에 넘어가 신실한 성도를 핍박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귀와 눈과 입을 잘 단속하여야 한다(참조, 잠 21:23; 마 15:17-20).

20. ㉑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씌웠던 누명은 무엇인가? (28절)

- ㉑ (1) 그들은 바울에게 성전 모독의 누명을 씌웠다.
- (2) 즉 바울이 할례받지 못한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이다.
- (3) 당시 예루살렘 성전 내부는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의 뜰과 이방인의 뜰로 나누어져 있었다.
- (4) 이방인들은 성전의 이방인의 뜰까지는 들어갈 수 있어도 이스라엘의 뜰에는 들어갈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 (5) 만일 이 규정을 어긴다면 그 사람은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었고 이 규정에는 로마인들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로마 당국에서도 이러한 유대의 종교적 금기(禁忌)를 인정하고 있었다.
- (6) 그런 까닭에 성전의 안쪽 경내에 이르는 계단 밑에는 ‘어떤 이방인들도 성소 주위의 난간이나 담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누구든지 범하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는 헬라어와 라틴어로 쓰여진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Josephus).
- (7) 그러므로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에게 성전 모독의 누명을 씌운 것은 결국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했음을 의미한다.

21. ㉑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의 부추김을 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행하였는가? (30절)

- ㉑ (1)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들이 달려와 바울을 붙잡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다.
- (2)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죽이는 일에 동참하였던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이제 자신들의 패역을 깨닫지 못한 채 다시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을 죽이는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 (3) 이런 불의한 행위에 대부분의 예루살렘 백성들이 참여하였다는 사실은 ‘온 성이 소동하여’라는 말과 문들이 곧 닫혔던 데서도 찾아 볼 수 있다.
- (4) 여기서 ‘문’이란 이스라엘의 뜰과 이방인의 뜰 사이에 있는 문을 가리킨다. 백성들이 바울을 죽일 생각으로 그를 이스라엘의 뜰에서 몰아내고 문을 닫은 것은 성전 경내가 불순한 자, 즉 바울의 피로 더럽혀질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 (5) 한편 이 같은 상황은 항간에서 떠도는 소문이 진실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서 기울인 바울의 노력(23, 24, 26절)이 수포로 돌아갔음을 의미한다.
- (6) 우리도 바울에게 고통을 가하는 유대인들처럼 진실을 보지 못하고 거짓된 주장에 넘어갈 경우 오히려 의인을 핍박하는 위치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항상 거짓 증거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참조, 딤후 4:1, 2; 벧후 3:17).

22. ㉑ 백성들이 바울을 죽이려 할 때 일어난 소동은 누구의 귀에 들어갔는가? (31절)

- ㉑ (1)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예루살렘 전체가 요란하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 (2) 여기에서 '천부장' (헬, 킬리아르코스)은 대개 760명의 보병과 240명의 기병을 거느린 로마 군대의 지휘관의 직위이다.
- (3)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 북서쪽에는 헤롯 대왕이 세운 안토니아 요새 (Antonia fortress)가 있었는데 이 요새의 출구는 이방인의 뜰과 예루살렘 중심에 연결되어 있었다.
- (4) 안토니아 요새에는 천부장의 지휘를 받는 로마의 보병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임무는 로마의 편익을 도모하고 예루살렘의 평화를 지키는 일이었다.
- (5) 그런 까닭에 천부장이 예루살렘의 소동 소식을 듣고 백부장들과 군사들을 데리고 출동하여 그 소동의 주범인 바울을 체포하였던 것이다(32절).

23. **㉠** 천부장이 바울을 체포하는 과정은 어떠했는가? (33-36절)

- ㉠** (1) 천부장은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結縛)하라 명하고 사람들에게 그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고 물었다.
- (2) 이와 같은 천부장의 태도는 그가 바울을 범죄자로 여기고 법에 따라 그를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였음을 보여 준다.
- (3) 그런데 군중들이 그에게 퍼붓는 비난의 말들은 서로 엇갈리고 종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바울에게 직접 묻고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그를 요새로 데려갈 것을 명했다.
- (4) 그러나 거짓된 주장에 의해 이성을 잃어버린 군중들은 그대로 있지 않고 군병들의 뒤를 따르면서 바울을 죽일 것을 강력히 종용하였고 성난 군중들의 폭행(暴行)을 피해 병사들은 바울을 들고 가야만 했다.

24. **㉠** 천부장은 '내가... 있느냐' 라고 질문하는 바울을 누구로 보았는가? (37, 38절)

- ㉠** (1) 그는 헬라어로 질문하는 바울을 '이전에 난(亂)을 일으켜 4천의 자객(刺客)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으로 오인하였다.
- (2) 요세푸스에 의하면 A. D. 54년경 한 애굽인 거짓 선지자가 그의 추종자 3만 명을 이끌고 감람산으로 간 적이 있었다. 그는 거기서 그의 추종자들에게 그의 명령에 의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 로마 수비대를 무찌르자고 말했으며 그 후 예루살렘을 통치하려 했던 자였다.
- (3) 그러나 벨릭스(Felix, A. D. 52-58) 총독이 보낸 군대에 의하여 400여 명이 죽고 200여 명이 사로잡히자 그의 추종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고 그 애굽인 거짓 선지자도 사라져 버렸다.
- (4) 그런 이유로 해서 천부장은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있는 바울이 그 사라진 애굽인 거짓 선지자로서, 이제 붙잡혀서 매를 맞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였던 것이다.
- (5) 한편 그의 추종자를 요세푸스(Josephus)는 3만 명으로 적고 있는 반면, 누가는 4천의 자객이라고 기술하였다. 이 차이는 요세푸스가 실제의 인원보다 과장했다는 데에서 발생했다.
- (6) 즉 요세푸스는 그의 책 'Bell, Jud.' ii. xiii. 5에서는 벨릭스가 '그의 추종자 대부분'을 공격했거나 사로잡았다고 기술한 반면, 'Ant. Jud.', xx. viii. 6에는 살육된 자를 400명, 포로를 200명으로 적고 있는 데서도 그가 제시한 3만 명의 수자는 과장된 것이며 오히려 누가의 4천 명의 수치가 훨씬 신비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7) 이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백성을 소란케 했다는 근거로 인하여 당시 사회를 반대하는 혁명가로 오해받은 것이다.

25. **㉠** 바울은 그를 애굽인 거짓 선지자로 보는 천부장에게 자신의 신분을 어떻게 밝혔는가? (39절)

- ㉠** (1)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며 소읍(小邑)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성의 시민이라고 밝혔다(참조, 22:3).

- (2) 여기서 ‘소음이 아닌’ (헬, 우크 아세무 플레우스) 이란 말은 도시의 위대성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지만 바울이 자신의 출생지를 자랑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 (3) 오히려 자신이 천부장이 오했던 애굽인 거짓 선지자가 아님을 밝힘과 동시에 자신의 신분이 떳떳함을 보여 주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얻고자 함이었다.
- (4) 이 기회를 통해서 그는 자신이 예수의 사도가 된 배경을 유대인들에게 간증하고 그로 인해 복음을 증거하고자 했다(참조, 22:1-21).
- (5) 이런 바울의 태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할 것을 외친 그의 주장과 일치한다(참조, 딤후 4:2).
- (6) 우리는 이 같은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 전도자는 어떤 환경에서도 변함이 없어야 하며 오히려 그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것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선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다(참조, 빌 1:12-18).

26. **㉠** 천부장이 바울에게 말할 것을 허용했을 때 바울은 어떻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는가? (40절)
- ㉠** (1) 바울은 충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크게 중용(從容)히 한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백성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 (2) 이와 같은 바울의 모습은 누가 봐도 범죄자의 모습이 아니라 능력있는 복음 전도자의 모습일 것이다.
 - (3) 그를 죽이려 했던 수많은 대중들과 로마 군병들 앞에서 이처럼 바울이 담대히 복음의 변증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을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 (4) 한편 그가 백성들에게 변론할 때 사용한 언어는 히브리 방언으로, 바벨론 포로기 이후(B. C. 586) 부터 유대인들이 사용한 아람어이다.
 - (5) 당시 아람어는 유대인 뿐만 아니라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 서아시아 모든 주민들의 공통어였다. 또한 계 9:11; 16:16을 제외한 신약의 ‘히브리어’는 이 아람어를 의미한다(참조, 22:2; 26:14).
 - (6)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복음의 증거를 위해 온 예루살렘 백성들이 참석한 무대와 시간을 준비하셨다.

본장의 요절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33절).



제 22 장 바울의 변론 (辯論)

단락구분 1-2 변론의 시작 / 3 바울의 출생 및 성장 / 4 회심(回心)하기 이전의 바울의 삶 / 5-16 바울의 회심 / 17-21 바울이 이방 전도의 사명을 받다 / 22-23 풍부한 군중들 / 24-29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는 바울 / 30 제사장들과 온 공회 앞에 선 바울

1 부형들이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2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3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하는 자라

4 내가 이 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5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6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취매

7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8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이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9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10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11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12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13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14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

을 듣게 하셨으니

15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16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17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 사몽간에

18 보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네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19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로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20 또 주의 증인 스테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니이다

21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22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하자 살려 둘 자가 아니라 하여

23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24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고 저희가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드나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25 가족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섰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26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가로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사람이라 하니

27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가로되 그러하다

28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 부터로라 하니

29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는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니라

30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숭사하는지 실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플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 ! 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저희 앞에 세우니라

1. **㉠** 본장의 사건을 간략히 요약하라.

- ㉠** (1) 본장에서 바울은 온 예루살렘 백성들 앞에 자신의 출생 및 성장의 배경과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일에 대해 변론하고 있다.
- (2) 이런 변론을 통해서 그는 과거에 자신이 정통 유대주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는지를 밝히고 있다.
- (3) 이것은 결국 바울 자신의 신앙 간증이며 더 나아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 (4) 그런데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방 선교의 사명자로 자신이 세워졌음을 이야기하자 흥분하여 바울을 죽이라고 외쳤으며 이런 소동의 원인을 알기 위해 천부장도 바울을 묶고 채찍질하며 신문하는 체비를 갖추었다.
- (5) 바로 이때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혔고 이로 인해 아이로니칼하게도 그는 로마 군병들에게 계속적인 보호를 받게 되었다(23:19-35).
- (6) 한편 본장에 나온 바울의 변론은 아그립바 왕 앞에서 행한 그의 연설(26:2-29)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내용은 서로 같지만 문체면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여 주며 청중들에 맞도록 제시되었다.

2. **㉠** 바울은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호칭을 사용하였는가? (1절)

- ㉠** (1) 바울은 '부형' (父兄)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였다.
- (2) 이 '부형' (헬, 안드레스 아텔포이 카이 파테레스)이라는 호칭은 '남자', '어른'을 뜻하는 <아네르>와 '형제'를 뜻하는 <아텔포스>, '아버지', '조상', '선조'를 뜻하는 <파테르>의 합성어이다.
- (3) 이 호칭은 스테반이 산헤드린에서 연설 중에 사용했던 호칭과 동일한 것으로서(7:2) 매우 공손하며 예의를 갖춘 말이다.
- (4) 이처럼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한 무리들 앞에서도 자신이 지켜야 할 최선의 예절을 지키는 여유를 보였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를 대적하며 괴로움을 끼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도 끝까지 예절을 지켜야 될 것을 본으로 보여 준 것이다.

3. **㉠** 바울은 대중들에게 자신의 출생 신분을 어떻게 밝혔는가? (3절)

- ㉠** (1) 바울은 자신을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라고 소개하였다.
- (2) 사실 바울의 집안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제롬(Jerome)이 전해 주는 한 전승에 보면, 바울의 부모는 본래 갈릴리의 한 마을 기살라에서 왔으며 B. C. 1세기 로마가 팔레스틴을 폐허로 만들 즈음에 다소(Tarsus)로 피신했다고 한다.
- (3) 그런데 바울이 날 때부터 로마 시민으로 태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은(25-29절; 16:37, 38) 그의 집안이 상당한 재물과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여 준다(참조, **㉠** 18).
- (4) 그가 태어난 다소는 소아시아 남동쪽 해안가에 자리잡고 있는 길리기아 지방의 한 도시로 당시에는 정치, 경제, 사회, 학문상의 탁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 (5) 뿐만 아니라 아마포 직물과 천막 제조로 유명했는데 바울의 직업이 천막 제조업이라는 사실은 이와 관련이 있다(18:3).

4. **㉠** 바울은 자신이 누구의 문하(門下)에서 공부했다고 했는가? (3절)

- ㉠** (1)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하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라고 말하였다.
- (2) 그의 스승 가말리엘은 바리새인들의 자유파를 대표하는 힐렐(Hillel) 학파의 대표자 힐

렐의 손자로 유명한 교법사였다(5:34).

- (3) 또한 그는 탁월한 교사들(히, 탄나임)로 이루어진 대집단의 최고 지도자로 ‘람비’(나의 선생)보다 더 높은 칭호는 ‘라반’(우리의 선생)이라는 칭호를 받을 만큼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덕망 높은 율법학자였다.
- (4) 그의 교훈들은 랍비들에 의해 구전된 율법 해설서 미쉬나(Mishnah)에 인용되어 있다.
- (5)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부인할 수 없는 유대인임을 주장하면서 그런 배경으로 인해 그 앞에 있던 무리 중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열심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5. **㉠ 바울은 회심하기 이전의 자신의 생활을 어떻게 백성들에게 말하였는가? (4절)**

- ㉠** (1) 바울은 자신이 이 도, 즉 예수를 쫓는 기독교를 핍박하여 사람들을 죽이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었다고 하였다.
- (2) 이와 같은 바울의 생활은 스테반을 죽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잔멸(殘滅)할 때 각 집에 들어가 예수를 믿는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던 그의 이전의 행동에 잘 나타나 있다(7:58-8:3).
- (3) 바울은 이처럼 기독교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자신의 이전 행동에 대해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증인이라고 주장하였다(참조, 9장 ㉡2).

6. **㉡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으로 내려갔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밝혔는가? (5절)**

- ㉠** (1)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기 위해서 공문(公文)을 받아 다메섹으로 내려갔다고 하였다.
- (2) 여기에서 ‘공문’이란 기독교인들을 색출해서 예루살렘으로 호송할 권리를 바울, 즉 이전의 사울에게 위임한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의 위임장이었다. 이처럼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그에게 기독교 박해의 공적인 권리를 부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는 9장 ㉢3을 참조하라.
- (3) 그런데 그가 공문을 받은 배경에 대해서 9:1,2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 (4) 이처럼 바울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데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열성적이었던 인물이었다. 이런 그가 다메섹 사건을 통해 누구보다도 예수를 사랑하는 인물로 변모케 되었고 지금 수많은 유대인들과 로마 군병들 앞에서 예수를 변호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섭리는 얼마나 놀라운가!

7. **㉢ 사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인 6-11절과 9:3-9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 (1)

6-11절	9:3-9
오정(午正)	
큰 빛	빛
나사렛 예수	예수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사울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못 들었다	사람들이 바울의 말 소리만 듣고 그리스도를 보거나 그분의 음성을 듣지는 못했다
그 빛의 광채로 사울은 볼 수 없게 되었다	사울은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사울은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사울은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울간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했다

(2) 사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에 대해서는 9장 ㉒6-8을 참조하라.

8. ㉒ 바울은 자신이 누구에 의해 다시 보게 되었다고 하였는가? (12, 13절)

- ㉒ (1) 바울은 아나니아가 그의 곁에 서서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고 말했을 때 즉시 다시 보게 되었다고 하였다.
- (2) 그의 눈을 뜨게 도와 준 아나니아는 율법에 비추어 볼 때 경건한 사람이었고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자였다.
- (3) 또한 그는 예수를 믿는 신실한 자였다. 이것은 아나니아가 환상 중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울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고 지금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에 왔다고 그리스도께 대답하면서 처음에는 사울에게 가기를 꺼려 했던 사실에 잘 나타나 있다(9:13, 14).
- (4) 그러나 아나니아는 그리스도로부터 사울이 이방인들을 위해 택함 받은 당신의 그릇이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자신의 그릇된 선입관을 버리고 사울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며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말하였다.
- (5) 그러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고 사울은 일어나 아나니아로부터 세례를 받게 되었다(9:15-18). 이런 모든 사실들을 요약하고 있는 것이 13, 16절이다(참조, 9장 ㉒12, 13, 14).
- (6)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또는 인간을 사용해 간접적으로 당신의 뜻을 성취하기도 하신다.

9. ㉒ 아나니아는 바울의 눈을 뜨게 한 후 그에게 무슨 말을 하였는가? (14-16절)

- ㉒ (1) 아나니아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고 바울에게 말하였다.
- (2) 여기에서 ‘저 의인’이란 표현은 메시아에 대한 칭호로서 메시아의 의로움을 강조하는 말이다(3:14; 7:52; 시72:2; 사53:11).
- (3) 아나니아의 말 속에는 ①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심 ② 바울이 경험한 다메섹 도상의 체험은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만난 일이었음 ③ 다메섹 도상의 체험은 결국 바울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운 일이라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
- (4) 이와 같은 아나니아의 말과 같이 바울은 그의 전생애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활동하였고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 (5) 더 나아가 다메섹 도상의 사건은 바울을 사도로서 세우신 사건이었고 바울로 하여금 자신의 사도직을 옹호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참조, 고전9:1; 15:8).
- (6) 한편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찾아왔을 당시 바울이 머물렀던 곳은 직가 유다의 집이었다(참조, 9장 ㉒10).

10. ㉒ 바울은 회심한 후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하였는가? (17, 18절)

- ㉒ (1)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 비몽 사몽간(非夢似夢間)에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하였다.
- (2) ‘모든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다메섹에서의 바울의 사명(15절)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본 환상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었고 구체화되었다.
- (3) 본절에 나오는 성전 방문과 환상은 바울이 개종한 지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일어났던 사건이다(참조, 9:26-29; 갈1:18, 19).

- (4) 당시 예루살렘의 헬라파 유대인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바울을 반역자, 변절자로 여기며 죽이려고 하였다.
- (5)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머물기를 원했지만(19, 20절)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증거가 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므로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명하셨다.
- (6)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들에게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머무르기를 원하는 것에서 떠나라고 명하실 때가 있다. 이럴 때에 우리는 과감히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오하고 완전하기 때문이다.

11. **㉠**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그리스도의 처음 명령에 대해 바울은 어떻게 대답하였는가? (19, 20절)

- ㉠** (1) 바울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①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②그들을 회당에서 때리고 ③스테반을 죽일 때 곁에 서서 찬성(贊成)하고 ④스테반을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켰던 자신의 행동을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 (2) 이와 같은 그의 대답에는 예루살렘을 떠나기 싫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 (3) 그러나 이런 행동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기 전에 행했던 것으로 회심한 후 약 3년이나 지난 그 시점에서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그의 회심 사실과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 철저한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
- (4)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출입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 그의 행동을 기분 좋게 여겼을 리가 만무하다.
- (5) 그러기에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였고(9:29) 이 와중에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바울을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제신 주께서 다시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명령과 그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다.
- (6) 그 명령 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에 의해 가이사랴로 내려가게 되었고 다시 다소로 보내지게 되었다(9:30).
- (7) 이와 같이 바울을 이방을 향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시겠다는 주의 뜻은 바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현되었으며 그로 인해 바울은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그의 정열을 불사르게 되었다.
- (8)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결코 인간의 의지나 고집 또는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다.

12. **㉠** 무리들은 이방 선교에 관한 바울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였는가? (22, 23절)

- ㉠** (1) 그들은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고 외치면서 소란을 일으켰다.
- (2) 이런 소란의 근본적 이유는 이방인 선교에 관한 바울의 말이 유대교 신봉자들인 그들에게는 완전히 배교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 (3) 즉 바울의 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하다는 뜻으로서 바울이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동일한 차원에서 다루었기 때문이다.
- (4) 그들은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면서 바울에 대한 그들의 격렬한 분노를 표현하였다.
- (5) 혹자는 이런 유대인들의 행동을 신성 모독에 대한 혐오감을 표현한 것으로 보며, '티끌을 공중에 날린 것'은 바울을 향해 던질 돌이 부근에 없었기 때문에 그 대신에 티끌을

바울이 있는 쪽으로 던진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 (6) 이처럼 그릇된 편견에 빠져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진리를 외치는 자를 마치 진리를 왜곡하는 자로 간주하는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또한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범하는 오류를 진리를 지키는 최선의 행위로 오인하기도 한다 (참조, 7:51-60).

13. **㉠** 천부장은 군중들이 소란을 일으키는 이유를 알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가? (24, 25절)

- ㉠** (1) 천부장은 어떤 이유로 군중이 바울에 대해 소란을 일으키는지 알기 위하여 병사들에게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 채찍질하며 신문(訊問)하라고 명했다.
- (2)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범죄자의 신분에 따라 매의 형태도 차이가 있었다.
 - ① 자유인이 범죄했을 경우 - 느릅나무 또는 자작나무 막대기로 매를 맞았다(참조, 16:35, 38).
 - ② 노예들과 비로마인이 범죄했을 경우 - 채찍질당하며 신문당하였다.
- (3) 따라서 천부장이 바울을 채찍질하며 신문하라고 명령을 내린 것은 25-29절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아직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음을 보여 준다.
- (4) 당시 태형 판정을 받은 사람은 옷이 벗겨지고(참조, 16:22) 두 손은 가죽 끈으로 기둥에 묶여졌다. 그 가운데서도 노예나 비로마인들은 매듭진 끈으로 만들어진 채찍 또는 고통을 크게 하기 위해서 쇠조각이나 뼈조각을 매달은 가죽 채찍으로 매를 맞았다.
- (5) 이와 같은 혹독한 태형은 플라겔툼(flagellum)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서 마 27:26과 막 15:15의 ‘채찍질하고’에 해당되는 헬라어 <프라겔로오>와 요 2:15의 ‘채찍’에 해당되는 <프라겔리온>이 유래되었다.

14. **㉠** 병사들이 바울을 가죽 줄로 땀 때 그는 백부장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였는가? (25절)

- ㉠** (1) 바울은 곁에 섰는 백부장에게 ‘너희가 로마 사람인 자를 죄도 정(定)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였다.
- (2) 당시 로마 시민은 고문에 의한 신문을 면제받았다. 아우구스도 칙령(Edicts of Augustus)에 의해 확정되고 발전된 발레리안과 포르시안 법(Valerian and Porcian laws)에는 로마 시민의 소송에 있어서는 고소가 우선 상정되어야 하고 그 후에 형벌을 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 (3) 또한 일단 정식으로 고소가 상정되면 로마 행정관과 그의 고문단 앞에서 공청회를 갖도록 되어 있었다.
- (4) 그러므로 병사들이 채찍질하려고 바울을 가죽 끈으로 땀 때 그는 그들을 통솔하는 백부장에게 로마 시민이 정당한 재판도 받기 전에 이렇게 대우받는 것이 합법적인가를 물었던 것이다.

15. **㉠** 천부장은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바울에게 어떻게 밝혔는가? (27, 28절)

- ㉠** (1) 그는 백부장에게서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말은 들은 후 바울에게 나아가서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市民權)을 얻었노라’고 밝혔다.
- (2) 이와 같은 천부장의 태도는 군중들에게 잡혀 성전 바깥 들로 끌려 나와 형편없는 취급을 받았던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서 좀더 확실하게 알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 (3) 한편 천부장의 이름은 클라우디오 루시아(Claudius Lysias)인데(23:26) 그의 씨족 명이 ‘클라우디오’인 것으로 보아 클라우디오 황제(A. D. 41-54) 당시 로마의 시민권이 현금으로 거래되기 시작했던 때에 로마 시민권을 샀음이 틀림없다.
- (4) 또한 그의 이름이 헬라 이름인 루시아라는 사실은 그가 헬라 태생임을 보여 준다.

16. **㉠** 타국인이 로마의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경우인가? (28절)

- ㉠** (1) 로마를 위해서 특별히 공헌을 했던 사람들이나 로마 제국 또는 지방의 행정관에게 뇌물을 주고 그들의 이름을 시민권 획득 후보자 명단에 올릴 수 있었던 경우이다.
- (2) 그 예로 로마에 거주하는 모든 의사들이나 인문 과목 교사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 받았고, 원주민 원군(援軍) 병사들도 퇴역하는 즉시로 그것을 얻을 수 있었다.
- (3)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통치하면서 이 같은 기회가 더욱 확산되었다.
- (4) 그 이유는 글라우디오 황제의 황후 메살리나(Messalina)와 황제의 장관들이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시민권을 고가(高價)로 팔았기 때문이다.
- (5)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상당한 금액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산 것도 바로 이런 상황하에서였다.

17. **㉠** 로마의 시민권이 주는 영향력은 무엇인가? (28절)

- ㉠** (1) 로마의 시민권이 그 소유자에게 주는 가장 큰 영향력은 그가 범죄했는지라도 재판을 하지 않고서는 함부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었다.
- (2) 또한 로마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는 '가이사에게 청원하여' 로마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소유하였다(25:10-12).
- (3) 물론 일단 이러한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 그 청원은 청원자에 의해 취소될 수가 없었다(참조, 26:32).
- (4) 그런 까닭에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두려워하였던 것이다. 즉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포박한 것은 자유의 박탈을 뜻하는데 그 같은 행위는 로마의 국법을 어긴 것이었기 때문이다(29절).

18. **㉠** 천부장의 심문에 바울은 자신이 언제부터 로마 시민권을 소유했다고 했는가? (28절)

- ㉠** (1) 바울은 자신이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소유했다고 말하였다(참조, **㉠** 3).
- (2) 즉 이 말은 바울의 아버지가 로마 시민임을 나타낸다. 람세이(Ramsay)의 주장에 따르면 다소가 헬라의 시(市)로서 로마의 행정에 편입되고 다소와 길리기아의 사회 엘리트들 중 다수가 로마 시민으로 인정되었던 B.C. 171년에 바울의 가족도 로마 시민권을 획득했으리라고 본다(Cities of St. Paul).
- (3) 그러나 바울의 조상 중 한 명이 로마의 행정관이나 장군으로부터 북부 팔레스틴의 기스가라(Gischala) 지역이나 다소에서 귀중한 공헌을 함으로써 그 대가로 로마 시민권을 수여받았으리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견해이다.

19. **㉠** 바울이 로마의 시민임을 알게 된 천부장은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가? (30절)

- ㉠** (1)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이튿날 그의 결박을 풀고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소집해 그들 앞에 그를 세웠다.
- (2) 본절에서 '제사장들과 온 공회'란 산헤드린 공회를 가리킨다.
- (3) 사실 일개 로마군의 천부장으로서 그는 산헤드린의 심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한 이유는 첫째, 로마의 관원으로서 예루살렘의 평화 유지에 책임을 지고 있었기 때문이며 둘째, 이 사건은 종교적인 문제로 이 사건의 진상을 유대교의 최고 사법 기관 앞에서 밝혀져야 할 문제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 (4) 그런데 천부장이 바울의 결박을 그 이튿날까지 풀어 주지 않은 것은 흥분한 군중들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즉 그들이 보는 앞에 바울을 풀어 주면 성난 군중들이 어떤 일을 저지를지 두려웠기 때문이다.
- (5) 한편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내려간 곳은 안토니아 요새에서 떨어진 회의소였다. 이 회의소는 성전이 서 있는 언덕 서쪽에 위치해 있었다.

제 23 장 공회 앞에 선 바울과 그를 죽이려는 음모

단락구분 1-5 바울의 변론 / 6-10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분쟁 / 11 주께서 바울에게 용기를 주시다 / 12-15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 / 16-22 드러난 유대인들의 음모 / 23-24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로 보내기 위한 전부장의 준비 / 25-30 전부장의 편지 / 31-35 벨릭스 총독 앞에 선 바울

1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법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2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3 바울이 가로되 회 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도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4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5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뻐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6 바울이 그 한 부분은 모두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심문을 받노라

7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우리가 나누이니

8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9 크게 원화가 일어날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보더러 말하였으면 어찌 하였겠느냐 하여

10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쫓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11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12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하고

13 이같이 동맹한 자가 사십여 명이더라

14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15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알아볼 양으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16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고한지라

17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가로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18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가로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19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20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저희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21 당신은 저희 청함을 좇지 마옵소서 저희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사십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매

22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고하였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23 백부장 들을 불러 이르되 밤 제 삼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이백 명과 마병 칠십 명과 창군 이백 명을 준비하라 하고

24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25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26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노이다

27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28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송사하는지 알고자 하여 저회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29 송사하는 것이 저회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30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게 하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송사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를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31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32 이튿날 마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문으로 돌아가니라
 33 저회가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34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가야 사람인 줄 알고
 35 가로되 너를 송사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중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1. ㉠ 본장의 사건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본장의 전반부에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바울의 변론과 그 변론으로 인해 야기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간의 논쟁이 등장한다(1-11절).
- (2) 후반부에는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40여 명의 유대인들의 음모와 그러한 음모를 알아챈 천부장이 로마 병사들로 하여금 바울을 보호하게 하여 벨릭스 총독에게로 그를 데려가는 사건이 나온다(12-35절).
- (3)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와 섭리의 손길이 언제나 바울을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 (4) 즉 간접적으로는 천부장으로 하여금 격노한 유대인들에게서 바울을 지키게 하였고,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40여 명의 유대인들의 음모를 바울의 생질(甥姪)을 통해 알려 주셨다.
- (5) 또한 직접적으로는 바울이 심리적으로 가장 불안한 시기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에게 나타나 위로해 주셨다.
- (6) 그러므로 우리는 본장을 통해 오늘날도 여전히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담대하라는 위로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확신하게 된다.

2. ㉠ 공회 앞에 선 바울의 첫마디는 무엇인가? (1절)

- ㉠ (1) 바울은 공회를 주목하면서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良心)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말하였다.
- (2) 여기서 ‘여러분 형제들아’라는 말은 유대인 회중들 사이에 사용되었던 통상적인 정식 호칭으로서 동등한 입장에서 바울이 자신의 변론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 (3) 또한 ‘오늘날까지 내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는 말은 하나님을 그의 모든 행위의 목적으로 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해 왔다는 뜻으로 다른 상황 속에서 표현한 바울의 주장들과 일치한다(참조, 20:18-21; 롬15:19; 빌3:6-9; 딤후4:7).
- (4) 그 한 예로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24:16)고 자신 만만하게 밝힌 바울의 말을 들 수 있다.
- (5) 이와 같이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살기를 노력하였으며 그러한 신전사상(神前思想)에서 역시 눈에 보이는 사람들 앞에 정직히 행한 인물이다.
- (6) 이러한 바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불의를 행하거나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서 정직하게 행하는 척하면서도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뒷전으로 팽개치는 그릇된 성도들에게 바른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 준다.

3. ㉠ 바울의 말을 듣고 ‘그 입을 치라’고 외친 사람은 누구인가?(2절)

- ㉠ (1) 그는 바울을 심문하기 위하여 소집된 산헤드린 회의를 주재하고 있던 대제사장 아나니

아였다.

- (2) 그는 네베데우스(Nebedeus)의 아들로 A. D. 48년에 헤롯 아그립바 2세에 의해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후 A. D. 58년까지 그 직위에 머물러 있었다.
- (3) A. D. 52년경에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의 싸움에 관련되어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압송되었으나 헤롯 아그립바 2세의 노력으로 글라우디오 황제에 의해 사면(赦免)을 받기도 했다.
- (4) 그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암살자들과도 손을 잡는 등 부유하며 거만하고 사악한 전형적인 사두개인이었다.
- (5) 산헤드린에서 그의 곁에 섰던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한 것도 이 같은 그의 잔인하면서도 가혹한 성품을 잘 나타내 주는 한 단면이다.
- (6) 그는 로마인들과 협조적이었기 때문에 민족주의적인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았으며 그 결과 유대 전쟁(A. D. 66-70) 초기인 A. D. 66년에 유대 군중들에게 붙잡혀 살해당했다.

4. **㉠** 바울은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해 어떤 명칭을 사용하였는가? (3절)

- ㉠** (1) 바울은 ‘그 입을 치라’는 아나니아의 말을 듣고 그를 향해 ‘회(灰) 칠한 담이여’라고 조롱하였다.
- (2) 당시 팔레스틴에서는 보통 가옥의 담을 자갈로 된 기초 위에 흙벽돌을 쌓아 만들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곳에 회를 바르기도 했다.
- (3) 그런데 회를 바르는 경우는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세워진 때나 낡은 담을 마치 새 것인 양 가장하거나 튼튼한 것처럼 보일 필요가 있을 때였다.
- (4) 그러므로 회 칠한 담은 겉으로 볼 때 깨끗하고 튼튼해 보이지만 결국은 오래지 않아 무너지고 만다.
- (5) 바울은 이와 같은 경우가 바로 아나니아가 당할 결과라는 것이다. 즉 형제들에 대해 잔인한 폭력을 행사하며 교만히 행하는 아나니아도 회 칠한 담이 곧 붕괴(崩壞)되는 것처럼 패망하게 된다는 것이다.
- (6) 결국 바울의 예언과 조롱대로 아나니아는 동족(同族)인 유대인들에 의하여 A. D. 66년 살해당하고 말았다(참조, ㉠3).
- (7) 이런 역사적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형제에 대해 불의를 행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인간적인 모든 수단을 불사(不辭)했던 교만한 인생이 가는 최종 목적지가 패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시101:5; 잠15:25; 16:18; 눅1:51; 약4:6).

5. **㉠** 바울은 아나니아를 회 칠한 담이라고 부르면서 무엇이라고 꾸짖었는가? (3절)

- ㉠** (1) 바울은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라고 네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라고 꾸짖었다.
- (2) 율법에 의하면 죄가 판명될 때까지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해 주고 그의 무죄성을 인정해 주도록 되어 있었다(참조, 신25:1, 2; 요7:51).
- (3) 바울은 지금까지 심리(審理)를 거치지도 않았고 죄가 발견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다는 명목으로 고소되지도 않았다.
- (4) 그러므로 아나니아에 대한 바울의 힐책은 정당한 것이었고 오히려 불의에 대한 준엄한 꾸짖음이요 공격이었다.
- (5) 이러한 바울의 태도는 오늘날 명예, 부, 학식, 지위 등 세상적인 권위를 앞세운 자들의 불의한 요구 앞에 갈팡질팡하는 우리들에게 바른 삶의 좌표(座標)를 제시해 준다(참조, 롬2:8).

6. **㉠**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한다고 비난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였는

가? (5절)

- Ⓐ (1) 바울은 ‘형제들이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고 대답하였다.
- (2) 이런 바울의 대답에 관해서 혹자는 그가 역설적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 주장한다(Zahn).
- (3) 그러나 실제로 바울이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줄을 몰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 (4) 첫째, 바울은 지난 20여 년 동안 예루살렘을 자주 방문하지 못하였고 또한 머물러도 잠시 동안이었기 때문에 아나니아를 알아볼 수 없었다. 둘째, 이번에 모인 산헤드린 공회는 정식 회의가 아니고 로마 관리에 의해, 소집된 회의이기 때문에 로마 의회처럼 운영되었을 것이다.
- (5) 따라서 바울은 한쪽에 서고 대제사장을 포함한 공회원들은 다른 편에 섰으며 천부장이 그 회의를 주관했을 것이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의 관복을 입지 않은 관제로 바울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을 것이다.
- (6) 이 두 가지 이유 가운데 후자가 더욱 지지를 받고 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바울이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으며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 (7) 이것은 바울이 위정자들에 대한 백성의 도리를 적은 출 22:28을 인용해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誹謗)치 말라’고 대답한 데서도 잘 나타난다.
- (8) 그런데 출 22:28에는 관원 대신 재판장, 유사(有司)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재판장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 사용되었다.
- (9) 이것은 곧 재판장이나 유사가 하나님을 가리킴을 의미한다. 따라서 바울이 인용한 부분도 아나니아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비방치 말라는 말로 이해해야 한다.
- (10) 그러므로 우리들이 불의하고 패역한 지도자들에 관해서 의로운 분노를 품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그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은 옳지 못하다(참조, 레 24:15, 16).

7. ⓐ 바울은 이야기의 초점을 아나니아에게서 누구에게로 향했는가? (6절)

- Ⓐ (1) 바울은 산헤드린의 공회원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들을 향해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심문(審問)을 받노라’고 외쳤다.
- (2) 이러한 외침은 부활에 대한 모든 교리를 설명하는 것으로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실증되고 구현되었다(고전 15:20).
- (3) 이와 같이 바울이 말했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고 무리가 둘로 갈라지게 되었다(7절).
- (4) 그 이유는 부활에 대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간의 견해가 달랐기 때문이다(참조, 8절, ⓐ 8).

8. ⓐ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부활에 관해 각각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가? (8절)

- Ⓐ (1) 바리새인은 사후(死後)의 심판과 보상 및 영혼의 불멸 그리고 영혼이 또 다른 몸과 합일(合一)하게 된다고 믿었던 반면 사두개인은 음부(히, 스울)에 대한 고대의 견해를 고집하면서 이러한 바리새인의 내세에 대한 교리를 완전히 부인하였다.
- (2) 이외에도 두 파간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견해의 차이가 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역사의 지배 원리	역사는 신적 목적을 가지며 하나님에 의해 다스려진다고 믿었다	바리새인의 견해를 완전히 부정하며 자신의 삶을 영위할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였으며 역사 자체도 그렇다고 주장했다

천사론	천사와 마귀의 계층이 있다고 믿었다	천사도 없고 마귀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자유 의지와 결정론	자유 의지나 또는 하나님의 주권만으로는 다른 일(사람)의 운명을 취소할 수 없다는 중간적인 입장을 취했다	자유 의지란 궁극적으로 역사 과정의 한 결정 요인이라고 주장하는 극단적인 입장을 취했다
사회적 활동	인간 평등을 주장하면서 다방면에 걸쳐 순수한 민족적 운동을 전개하였다	자신들의 이해 득실(利害得失)에 민감하여 현상 유지에만 급급하였다

(3) 이와 같은 모든 차이점은 그들의 출신 성분에 기인한다. 즉 사두개인이 귀족 출신인 반면 바리새인은 평민 출신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입장은 사두개인에 대한 반감 내지는 증오를 담고 있었고 평등을 갈구하였다.

9. **㉠** 바울의 말로 인해 초래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분쟁은 어디까지 발전하였는가? (9, 10절)

- ㉠** (1) 그들 가운데 크게 환화(喧嘩)가 일어나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라고 하였다.
- (2) 바울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그들은 바울의 말로 인해 자신들의 교리적인 문제를 놓고 분쟁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참조, ㉠8).
- (3) 천부장은 회의장에서 일어난 두 파간의 분쟁으로 인해 더 이상 바울에 대한 차분한 심리나 그에 대한 고소 내용을 밝혀 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 (4) 뿐만 아니라 두 파 사이에 놓인 바울의 생명이 위협에 처하게 됐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병사들에게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바울을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고 명했다.

10. **㉠**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간의 큰 분쟁이 있었던 그날 밤 바울은 어떠한 일을 경험했는가? (11절)

- ㉠** (1) 그날 밤 바울은 주를 만나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 (2) 그에게 나타나신 주께서는 바울의 전도 사역 중 중대한 순간마다 나타나셨듯이(참조, 18:9, 10; 22:17-21) 그날 밤도 그의 곁에 서서 '담대하라'는 위로의 말씀을 하셨다.
- (3) 또한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셨다(19:21; 롬 1:13).
- (4) 당시 바울은 몹시 지치고 사람들에게 의해 심한 피로움을 당하는 상태에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를 미워하는 자들에 의해 언제 목숨을 잃을지 알 수 없는 긴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 (5)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에서 주께서는 친히 나타나셔서 그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다.
- (6) 이와 같은 주의 위로는 그가 다음 2년 동안 로마에서 겪었던 온갖 고통과 염려를 극복하고 인내하며 복음을 증거하게 한 큰 힘이 되었다.
- (7)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의 일군을 어려움 속에 그냥 방치해 두시지 않고 늘 따뜻한 음성으로 위로해 주시는 주를 깨닫고 더욱 담대하며 주께 우리의 모든 미래를 전폭적으로 맡겨야 한다. 그럴 때에 주께서도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신다(시 37:5, 6; 잠 16:3).

11. **㉠** 유대의 열성 당원 40여 명은 날이 샐 때 어떤 맹세를 하였는가? (12-14절)

- A** (1) 그들은 당을 지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는 맹세(盟誓)를 하였다.
- (2) 그러나 이것은 만일 그들의 계획이 실패할 경우 굶어 죽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만일 그들이 그 맹세를 어겼다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피할 길은 있었다.
- (3) 당시 랍비들이 허용했던 4가지의 지키지 않아도 될 맹세를 살펴보면 선동에 의한 맹세, 과장된 맹세, 잘못된 맹세, 억압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는 맹세 등이다.
- (4) 라이트푸트(Lightfoot)는 이 맹세에 관해서 탈무드로부터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다.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은 그가 먹어도 자기에게 화가 있으며 그가 먹지 않아도 자기에게 화가 있다. 만일 그가 먹으면 그는 자신의 맹세를 어긴 죄를 범한 것이며, 만일 그가 먹지 않으면 그는 자기의 생명을 거스리는 죄를 범한 것이다.'
- (5) 어쨌든 이들의 맹세는 전에 성전 내에서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에 실패했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를 제거해야 되겠다는 그들의 비장한 태도를 잘 나타낸다.

12. C 40여 명의 음모자들은 어떤 음모를 꾸몄는가? (12-15절)

- A** (1)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하였다.
- (2)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그들은 먼저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는 안토니아 요새 밖으로 바울을 유인해 낼 수 있는 구실이 필요했다.
- (3) 그래서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가 바울에 대해 더 알아볼 것이 있다는 구실로 바울을 산헤드린 공회에 다시 데려오도록 요청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 (4) 그들은 바울이 성전의 북쪽에 있는 안토니아 요새에서 성전의 남서쪽에 있는 산헤드린 공회당으로 갈 동안 예루살렘의 좁은 길거리에서 잠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여 없애기로 결정하였다.
- (5) 이와 같은 음모자들의 계획은 산헤드린에 속하여 있는 유대의 율법을 위반한 것이며 그들의 지도자인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포악한 성품과 일치한다(참조, C 3).
- (6) 이처럼 악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성도들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기 위해 갖은 계략을 다 사용한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오직 믿고 의지할 분이 그리스도임을 더욱 절감(切感)하게 된다(11절).

13. C 바울에게 찾아와 그의 암살 계획을 알려 준 사람은 누구인가? (16절)

- A** (1) 그는 바울의 생질(甥姪)로서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 매복(埋伏)하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와서 영문에 들어가 바울에게 그 모든 것을 전하였다.
- (2)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조차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그의 가족 상황에 대해 처음으로 대면하게 되었다.
- (3) 즉 그 청년이 바울의 생질이라면 바울은 그 청년의 외삼촌이 된다. 이는 바울에게 누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4)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라고 말하고 있는 빌3:8의 기록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 때문에 부친으로부터 아무런 유산을 상속받지 못했음을 암시한다.
- (5) 그러나 가족 관계는 쉽게 깨지지 않는다. 그래서 삼촌이 죽을 위험에 처하자 생질은 이 사실을 삼촌에게 알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 (6) 한편 생질인 그 청년이 암살단의 극비 상황인 바울의 암살 계획을 사전에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은 그가 공회에서 신임을 받고 있는 상당한 지위의 소유자임을 의미한다.
- (7) 이와 같이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를 비참하게 죽이심으로 인해 당신의 계획을 포기하시거나 대적들을 기쁘게 하지 않으신다.
- (8) 예상도 못한 그의 생질을 통해서 바울을 구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여전히 당신의

태한 백성들을 뜻밖의 사건과 상황을 준비하셔서 평안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참조, 16:25, 26).

14. **㉠** 천부장은 바울의 생질에 대해 어떤 태도를 나타냈는가? (19-22절)

- ㉠** (1) 천부장은 바울과 백부장을 통해 그에게 온 바울의 생질의 손을 잡고 물러가 그가 용무를 종용히 물었다.
- (2) 그러자 바울의 생질은 자신의 용무, 즉 40여 명의 유대인 열성 당원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꾸민 계락을 소상히 아뢰면서 그들의 계락에 넘어가지 말 것을 권고했다.
- (3) 이 권고에 천부장은 그를 보내면서 '이 일을 내게 고하였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경계(警戒)하며 말하였다.
- (4) 이런 모든 상황을 살펴볼 때 천부장은 바울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의 생질의 말을 신뢰하였음이 틀림없다. 이것은 그날 밤에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로 호송한 사건에서 더욱 잘 나타난다(23-33절).

15. **㉠** 유대인들의 음모를 알아차린 천부장이 취한 최초의 행동은 무엇인가? (23절)

- ㉠** (1) 천부장은 백부장 들을 불러서 먼저 밤 제 삼 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歩兵) 이백 명과 마병(馬兵) 칠십 명과 창군(槍軍) 이백 명을 준비하라고 명하였다.
- (2) 이러한 조치는 바울의 목숨이 예루살렘에서는 안전치 못하며 당시 유대 지방의 총독인 벨릭스(A. D. 52 -60)에게로 그를 보내는 것이 보다 안전하리라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 (3) 그런 이유로 해서 천부장은 유대인 음모자들이 눈치를 채지 못하게 밤 제 삼 시, 즉 현대의 시간법으로 오후 9시에 해당되는 밤중에 은밀히 바울을 가이사라로 보낼 완전한 준비를 진행시킨 것이다.
- (4) 한편 천부장이 동원한 병사들은 그의 지휘 아래 있는 병사들의 약 반에 해당되는 수자로 안토니아 요새 수비대의 거의 절반이었다.
- (5) 이것은 곧 천부장이 바울의 안전과 그를 가이사라로 호송하는 속도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가를 잘 반영해 준다.

16. **㉠** 천부장이 내린 두번째 명령은 무엇인가? (24절)

- ㉠** (1) 천부장은 두번째 명령으로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고 명하였다.
- (2) 여기에서 '짐승'에 해당되는 헬라어(크테네)는 '탈 수 있는 짐승'과 '운반하는 짐승'을 동시에 의미한다.
- (3) 따라서 '짐승'은 바울이 탈 말 뿐만 아니라 그의 짐을 싣거나 끌어야 할 또 다른 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4) 그와 함께 천부장은 직접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변호하는 편지를 보냈다(25-30절).

17. **㉠** 천부장이 바울을 호송한 가이사라는 당시 어떤 곳이었는가? (23, 24절)

- ㉠** (1) 가이사라는 해안 도시로 갈멜 산에서 남쪽으로 약 37km, 예루살렘 북서쪽으로 약 104 km 지점에 위치해 있었다.
- (2) 원래의 지명은 '페니키아인의 성' 또는 '요새', '스트라톤' 또는 '스트라토의 탑'이라고 불리었고 헤롯 때에 와서 '가이사라'라고 일컬어지기 시작했다.
- (3) 그 지명은 헤롯이 그 성읍을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도(Gaius Augustus, B. C. 27- A. D. 14)로부터 넘겨받은 후 그것을 기념하여 '가이사라'라고 명명한 데서 유래되었다.
- (4) 그 후 총독들의 통치하에서 가이사라는 총독청 주둔지와 팔레스틴의 수도가 되었다. 이런 까닭에 당시 유대 총독 벨릭스가 가이사라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다.
- (5) 뿐만 아니라 그 성의 주민들은 소수의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이교도들이었다.

(6) 따라서 바울에게는 예루살렘보다 가이사라가 보다 안전한 장소였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천부장은 바울을 가이사라로 호송하려고 했던 것이다.

18. **㉠** 천부장이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는 편지의 형식은 어떠한가? (26-30절)

- ㉠** (1) 천부장의 편지의 형식은 ① 보내는 사람 ② 받는 사람 ③ 문안 인사 ④ 편지의 내용순으로 되어 있다.
- (2) 이러한 편지의 형식은 고대 편지의 표준 형식으로 히브리서와 요한1서를 제외한 신약 성경의 모든 서신의 공통적인 형식이다.
- (3) 천부장이 쓴 이 편지의 특징은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그의 이름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나타나 있다(참조, 22장 **㉠** 15-17).
- (4) 둘째, 로마 정부의 고위층 관리로 부르는 존칭이며 정중한 인사말인 '각하'라는 칭호의 사용이다. 이 칭호에 해당되는 헬라이어(크라티스토)는 본래 로마의 기수단(騎手團)의 단원에게 사용되는 말이지만 당시에는 고위 관리에게도 사용되었다(벨릭스는 기수단의 단원이 아니다).
- (5) 세째,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로마 시민인 그를 유대인들의 손에서 건져 낸 것이 자신임을 은근히 나타내고 있다(27절).
- (6) 그러나 실상은 그가 바울이 로마 시민임을 알게 된 것은 바울을 매질하려는 때였으며(22:25-29) 그를 유대인들의 손에서 건져 낸 것은 후환을 두려워함(22:29)과 동시에 로마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 그의 당연한 임무였기 때문이다.
- (7) 네째, 천부장은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송사(訟事)가 로마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율법 문제에 관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29절). 이런 그의 명확한 판단은 바울의 운명과 누가의 변명 의도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었다.

19. **㉠** 벨릭스 총독의 출생 및 활동상을 설명하라(26, 33, 34절).

- ㉠** (1) 안토니우스 벨릭스(Antonius Felix)는 노예의 신분으로 태어났으나 글라우디오 황제의 모친이었던 안토니아(Antonia)에 의해 자유인이 되었다.
- (2) 그는 안토니아에 의해서 자유인이 된 후 황실의 어린 왕자와 좋은 친구가 되었던 팔라스(Pallas)의 형제였다.
- (3) 팔라스의 영향으로 벨릭스는 A. D. 48년에 벤티디우스 쿠마누스(Ventidius Cumanus) 총독하에 있던 사마리아의 하급 관직에 임명되었다.
- (4) 쿠마누스가 관직을 물러나자 A. D. 52년에 글라우디오 황제는 그를 유대의 총독에 임명하였다.
- (5) 그가 총독으로 재직할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는 폭동과 무질서가 팽배했으므로 이런 소란을 진정시키고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그는 잔인한 방법을 동원하였다.
- (6) 이런 그를 가리켜서 타기투스(Tacitus)는 '노예와 같은 비천한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력을 휘둘렀던 잔인성과 탐욕의 대가(大家)'라고 하였다.
- (7) 그는 출생이 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 명의 아내를 잇달아 얻었는데 그녀들은 모두가 왕족의 후손들이었다. 즉 첫째 여자는 안토니아 클레오파트라의 손녀였고, 둘째 여자는 아그립바 1세의 막내 딸인 드루실라였으며, 세째 여자에 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 (8) 글라우디오의 뒤를 이어 로마의 황제가 된 네로(A. D. 54-68)는 A. D. 58년에 그를 로마로 다시 불러들였는데 그 이후로부터 그의 신상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20. **㉠** 바울의 호송을 맡은 병사들은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어떻게 대오(隊伍)를 나누었는가? (31, 32절)

- ㉠** (1) 바울을 호송했던 병사들 중 보병은 다시 예루살렘의 안토니아 요새로 돌아갔고 마병은 가이사라까지 바울을 호송했다.

- (2) 이처럼 군사들이 대오를 나눈 까닭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 구릉의 끝에 위치한 안디바드리카까지의 거리는 약 64km이며 안디바드리에서 가이사라까지의 거리는 약 40km로서 더 이상 유대인들에 의한 위협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3) 한편 그 성읍이 '안디바드리'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된 이유는 B.C. 8년경 헤롯 대왕이 그 성읍을 건축하면서 그의 부친 안티파터(Antipater)를 기념하여 그 이름을 붙였기 때문이다.

21. ㉠ 병사들이 바울을 총독 앞에 세우고 천부장의 편지를 건내 주었을 때 총독은 바울에게 어떤 질문을 하였는가? (33-35절)

- ㉠ (1) 총독은 천부장의 편지를 읽고 난 후 바울에게 '어느 영지(領地) 사람이냐'라고 질문하였다.
- (2) 이 같은 질문은 죄인들을 심문하는 재판관이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실시하는 절차이다.
- (3) 그 후 그 죄인의 소속 영지에 따라 그 관할 지역으로 송환하여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다. 이런 모습은 빌라도가 예수께서 헤롯의 관할지인 갈릴리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헤롯에게로 예수를 돌려보냈던 사건에서도 잘 나타난다(눅23:6,7).
- (4) 이 질문에 바울은 자신이 길리기아 사람이라고 대답하였으며 벨릭스 총독은 자신이 유대 총독이면서도 수리아와 길리기아의 대리 대사를 겸임하고 있는 관계로 그에게 송사하는 자들이 오는 대로 재판할 것을 약속하며 그를 헤롯 궁에 감금하였다.

22. ㉠ 바울이 감금당한 헤롯 궁에 대해 설명하라 (35절).

- ㉠ (1) 헤롯 궁은 본래 헤롯 대왕이 자기를 위해서 가이사라에 세웠던 궁전이었다.
- (2) 그러나 후에 로마 총독이 이 궁전을 접수하여 총독의 관저 및 본영(本營)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 (3) 한편 바울이 감금당한 방은 헤롯 궁에 있는 수많은 방들 중에 하나이거나 궁에 딸린 전용 감방일 것이다. 그러나 어느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전자(前者)의 견해가 지배적이다.

백부장 이백 명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 삼 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이백 명과
 마병 질십 명과
 장군 이백 명을
 준비하라 하고'
 (23절).



제 24 장 벨릭스 앞에서의 바울의 변론

단락구분 1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고소 / 2-9 더들로가 총독에게 바울을 송사하다 / 10-23 믿음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바울의 변론 / 24-26 바울이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하다 / 27 벨릭스가 바울을 계속해서 구류(拘留)하다

- 1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 2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송사하여 가로되
- 3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 무지하옵나이다
- 4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 5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염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요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 6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하므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 7 당신이 친히 그를 심문하시면
- 8 우리의 송사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 9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 10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 11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못 되었고
- 12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또는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 13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 14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좇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 15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 16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 17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제물을 가지고 와서
- 18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 19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송사하였을 것이요
- 20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 21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의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심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가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 22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 23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 24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거늘
- 25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 26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 27 이태를 지내서 보르키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1. **㉠ 본장의 사건을 간략히 설명하라.**
㉡ (1) 본장에는 가이사라의 헤롯 궁에 머물고 있는 바울을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무리들이 송사

하는 장면과 이에 대한 바울의 변명이 기록되어 있다.

- (2) 그런데 바울의 변명은 단순히 송사하는 무리들의 울무를 일순간 모면하기 위한 임기응변(臨機應變)이 아니었다.
- (3) 오히려 그는 유대인들의 거짓 송사를 깨뜨리며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였다(14-21절).
- (4) 그 결과 그는 어느 정도의 자유를 벨릭스 총독에게로부터 부여받았을 뿐 아니라 총독 내외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까지 얻게 되었다(23-26절).
- (5) 이런 와중에서 복음을 접하게 된 벨릭스 총독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 (6) 즉 장차 자신이 당하게 될 일을 두려워하면서도 당장의 눈앞에 놓인 이익을 위해서 바울을 놓아 주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 (7) 이와 같이 음모와 거짓 송사가 횡행하고 자신의 정권 유지에만 급급해 있는 권력자의 욕심이 소용돌이치는 가운데서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을 더욱 꺾끗이 지키고 복음을 담대히 전한 모습은 오늘날 성도들에게 귀감(龜鑑)이 된다.

2. **㉠**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난 지 닷새 후에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한 자는 누구인가? (1절)

- ㉠** (1) 그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로서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공회에서도 바울의 입을 치라고 외친 바 있었다(23:2). 그로 인해 그는 바울에게 회칠한 담이라는 심한 면박을 받았다(참조, 23장 **㉠**3-5).
- (2) 이처럼 바울에 대해 심한 적대감을 품고 있던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이라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바울을 반대하는 장로들과 변사(辯士) 더들로(Tertullus)를 대동하고 총독 앞에 나선 것이다.
- (3) 여기에서 아나니아가 대동한 변사 더들로는 로마인인지 헬라인인지 유대인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로마인이 아니면 로마법이 시행되었던 주 행정 장관의 법정에서 일하는 직업적인 로마의 변호사였음은 분명하다.

3. **㉠** 변사 더들로는 바울에 대한 송사를 무슨 말로 시작하였는가? (2, 3절)

- ㉠** (1) 그는 다음과 같은 은갓 미사 여구(美辭麗句)의 증상과 아부의 말로써 송사를 시작하고 있다.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先見)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감사 무지하옵나이다.’
- (2) 이 말은 바울을 기소하기 위한 더들로의 변론의 요약에 불과하다. 당시 관례상 송사하는 사람은 송사를 간결하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 (3)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6절에 불과한 더들로의 송사 중 2절이 변론 서두의 과도한 아침에 할애된 것은 그가 얼마나 서론을 길게 말했는가를 암시해 준다.
- (4) 또한 이 상황을 규제하지 않은 벨릭스 총독의 모습은 아침받기를 좋아하는 불의한 권력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 (5) 이와 같이 성도를 폄박하는 악인들은 성도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은갓 수단을 다 동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다.
- (6) 그 수단 중 특별히 그들의 입술은 두 가지 현상을 보여 준다. 즉 독설(毒舌)과 아침인데 이것들은 모양을 달리한다 할지라도 그 목적은 동일하다(참조, **㉠** 4).
- (7) 그러므로 성도는 악인들의 독설과 더불어 아침하는 혀를 분별하여 항상 경계해야 한다(참조, 약 3:6; 4:11; 벰전 2:1).

4. **㉠** 변사 더들로의 아침이 지닌 거짓된 부분을 지적하라 (3절).

- ㉠** (1) 첫째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泰平)을 누리고’라는 귀절이다. 그 이유는 당시 계속되는 반란과 폭동을 벨릭스가 무력으로 진압하려고 하였는데 이러한 그의 정책에

대해 유대인들은 더욱 거센 반감을 가졌으며 이로 인해 민심은 흉흉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참조, 21장 Q 24).

- (2) 둘째는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이라는 귀절이다. 여기에서 ‘선견’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프로노이아스>로 하나님께 대하여 사용되는 ‘섭리’(providence)와 같은 말이다.
- (3) 유대 민족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후부터 하나님의 성민(聖民)으로 택함 받은 구별된 백성으로 그들의 앞길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있었다.
- (4) 그래서 그들의 삶은 율법을 적용하는 삶이었으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당신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살 때 축복해 주신 반면에 당신을 경외치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형식주의에 치우칠 때 준엄한 징계의 매를 드셨다.
- (5) 그러므로 벨릭스의 선견으로 인해 유대인들이 개량되었다는 더들로의 아침은 유대 백성의 신앙의 근간(根幹)을 뒤집어엎는 거짓말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 (6) 세째는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 무지(感謝無地)하옵나이다’라는 부분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대 백성을 이끌어 왔던 분은 하나님이시다.
- (7) 따라서 더들로의 이 말은 언제, 어디서나 경배와 감사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망각한 인본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 (8)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악인들의 아침은 외양(外樣)으론 그럴싸하지만 그 내면은 거짓이 팽배해 있다.
- (9) 이런 면에서 음모와 비방, 헐박이 가득 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성경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통해 거짓과 진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더욱 요구된다(참조, 왕상 3:9; 사 11:3; 고전 2:14; 히 5:14).

5. Q 악한 자의 말과 의인의 말과의 차이점을 도표로 그려 보라.

A

	내 용	참 조 귀 절
악 한 자 의 말	거짓되고 망령된 말	시 58:3; 단 2:9
	저주의 말	시 59:12
	피는 말	잠 7:21
	헛된 말	엡 5:6
	아침하는 말	살전 2:5
	속이는 말	롬 16:18
	참람한 말	단 7:25
	모욕	삿 12:4
의 인 의 말	웨사	시 144:8, 11
	패역	잠 2:12
	아름다운 말	전 12:10
	권하는 말	고전 2:4
	분명한 말	고전 14:9, 19
	바른말	딤후 6:3
	충성된 말	에 7:9
	진실한 말	에 9:30
지혜로운 말	잠 23:9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	단 2:14	

	선한 말	잠 12:25
	감사하는 말	엡 5:4

6. **㉠** 더들로는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이 어떤 자라고 모함하였는가? (5, 6절)

- ㉠** (1) 더들로는 총독 앞에서 바울을 염병(染病)과 같은 존재라고 규정하면서 ①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요케 하는 자 ② 나사렛 이단의 괴수(魁首) ③ 성전을 더럽힌 자라는 죄목을 열거했다.
- (2) 여기에서 ‘염병’ (헬, 로이몬)이란 콜레라나 장티푸스를 의미하며 천연두, 선(腺) 페스트, 폐(肺) 페스트 등도 이 부류에 속하는데 그 특징은 전염성 및 치명성이었다.
- (3) 따라서 염병과 같은 존재라는 말은 백성들을 선동하는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위험한 인물이며 그와 같은 바울의 선동은 신속하고 빨라서 견잡을 수 없음을 암시한다.
- (4) 한편 그가 제시한 죄목 중 ①②는 정치적인 성격이 강하다. 벨릭스는 로마의 평화를 깨뜨린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소요 사건들의 주동자들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고 그들의 추종자들마저 수없이 죽였기 때문에 그런 죄목으로 바울을 송사한 것이다.
- (5) 또한 ③은 종교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 죄목은 바울이 제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머무는 때 유대인들이 뒤집어씌운 성전 모독죄와 같은 누명이었다(참조, 21장 **㉠** 19, 20).
- (6) 그러므로 더들로가 주장하는 바울의 죄목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바울을 꼼짝달싹 못 하게 하는, 즉 사형을 당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도가 없음을 강력히 암시한다.
- (7) 이와 마찬가지로 주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들에게는 때때로 이런 절대 절명의 순간들이 찾아온다. 우리는 이때가 신앙의 시련기요 믿음의 성장기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더욱 주를 의지해야 한다(참조, 단 6:10-18).

7. **㉠** ‘나사렛 이단의 괴수’란 무슨 뜻인가? (5절)

- ㉠** (1) ‘나사렛’은 남부 갈릴리 지방의 한 마을로서 예수의 고향이다(참조, 마 2:23; 눅 2:4).
- (2) 그런 까닭에 ‘나사렛’이란 말은 일차적으로 예수께 적용되었고, 이차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사용되었다.
- (3) 한편 ‘이단’에 해당되는 헬라어 <하이레스시스>는 ‘종파’(sect)나 ‘당파’(party)를 의미한다(참조, 5:17; 15:5).
- (4) 따라서 ‘나사렛 이단’이란 말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집단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 (5)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산헤드린의 입장에서 보면 파괴적이고 이단적인 당파였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입에서 나온 ‘나사렛’이란 말 속에는 기독교인에 대한 경멸과 조롱, 적의 등이 숨어 있다(참조, 마 26:71; 막 14:67; 요 19:19).
- (6) 그러므로 바울에 대한 더들의 나사렛 이단의 ‘괴수’(헬, 프로토스타탄; 주모자, 장본인이라는 뜻)란 말은 바울에 대한 적의와 혐오감을 표시한 최고의 욕이라고 할 수 있다.
- (7) 이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는 슬한 모욕과 박해의 수렁이 널려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다면 이 길도 기쁘게 갈 수 있다.
- (8)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마 5:10-12).

8. **㉠** 더들로는 어떻게 하면 그들의 송사 전모를 알 수 있다고 벨릭스에게 고하였는가? (7, 8절)

- ㉠** (1) 그는 ‘당신이 친히 그를 심문하시면 우리의 송사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라고 하였다.

- (2) 여기에서 ‘그’란 벨릭스 앞에 있는 바울을 가리키기도 하고, 22절의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내려올 때까지 바울의 재판관을 연기한 것으로 보아 천부장을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다.
- (3) 그러나 어느 견해를 취하던 간에 더들로의 말 속에는 예루살렘에서 바울에 대한 정당한 재판을 열지 못한 것이 천부장의 잘못 때문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참조, 21: 31-36; 22:24-29; 23:23-33).
- (4) 이와 같이 악인들은 의인 뿐만 아니라 그 동조자들조차도 파멸시키기를 열망한다. 이런 시점에서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오직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를 바라보고 마음을 더욱 굳게 가지며 조그마한 악점이라 할지라도 악인들에게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다(시 7:11-16; 뱀전 5:8, 9).

9. **㉠** 바울은 더들로의 송사에 대해 어떻게 변론을 하였는가? (10-21절)

- ㉡** (1) 바울은 10절에서 그의 변론의 서론적 인사말을 한 후 더들로가 그에게 던져서왔던 3가지 죄목을 조항마다 들어가며 논리 정연하게 논박하였다.
- (2) 이러한 그의 논박을 더들로의 송사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더들로의 송사		바울의 변론	
죄 목	참조 구절	변 론	참조 구절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요케 하는 자	5 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리를 소동케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짧음 •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었다 	11-13절
나사렛 이단의 괴수	5 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들이 이단이라 주장하는 도를 좇았음을 시인 • 그들과 같이 하나님께 향한 소망, 즉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믿고 있다 • 위와 같은 사실들에 대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 	14-16절
성전을 더럽힌 자	6 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루살렘에서 단지 구제금을 전달하고 결례를 행했다. 따라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죄목은 아시아로부터 온 자들이 꾸민 음모에 불과하다 	17-21절

(3) 바울의 변론이 지닌 의미에 대해서는 **㉠** 10-14에서 다루고자 한다.

10. **㉠** 바울은 변론을 어떻게 시작하였는가? (10절)

- ㉡** (1) 바울은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裁判長)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辯明) 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변론을 시작하였다.
- (2) 벨릭스가 유대의 총독이 된 것은 A. D. 52년이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은 A. D. 58년이기 때문에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관이 된 것’ 이란 말은 사실이다.
- (3)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기쁘게 변명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벨릭스가 유대 총독으로 부

입한 지 약 6년이나 된 관계로 당시에 그가 처한 상황이나 그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4) 따라서 바울의 변론의 서두는 더들로의 송사의 서두처럼 아침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며 또한 거짓도 아닌 사실 그 자체였다(비교, 3절).
- (5) 이 같은 바울의 변론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성도는 자신이 처한 궁핍하고 위급한 상황 때문에 자신을 속이고 남의 귀에 달콤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참조, 시 12:3; 잠 24:24; 살전 2:5).

11. **㉠**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게 밝힌 예루살렘에 머무른 날은 며칠인가? (11절)

- ㉡** (1)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날이 12일이라고 밝혔다.
- (2) 이 12일에 관해서 대부분의 학자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취하고 있다.

날	행 한 일	참조 구절
1 일	예루살렘에 도착	21:15
2 일	야고보와 장로들을 방문	21:18
3-6 일	서원을 한 4인을 데리고 결례를 행함	21:26
7 일	무리들에게 붙잡힘	21:27
8 일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섬	22:30
9 일	40명의 암살단을 피해 예루살렘을 떠남	23:12-31
10 일	가이사라에 도착 후 곧바로 헤롯 궁에 감금당함	23:32-35
11, 12일	헤롯 궁에 감금된 상태가 계속됨.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 무리들의 가이사라 도착 1-2일 전	
13 일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그 무리들의 고소로 법정에서 섬	1절

(3)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볼 때 더들로의 송사와 같이 바울이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반란을 조장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짧다.

12. **㉠** 유대인들을 소요케 하였다는 더들로의 송사에 대해 바울은 어떻게 변론하였는가? (11-13절)

- ㉡** (1) 바울은 더들로의 송사가 거짓임을 밝히기 위해 ①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12일밖에 안 됐다(참조, ㉠ 11) ② 성전에서 사람들과 변론하거나 회당 또는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한 것을 목격한 자가 고소자들 중 아무도 없다는 2가지 이유를 내세웠다.
- (2) 바울이 사람들에게 붙잡힐 때 그 혼자였다는 사실은 두번째 이유를 잘 입증해 준다(21:27-31).
- (3) 오히려 예루살렘 성중이 소동하고 천부장이 출동한 것은 바울을 이전부터 죽이려고 애썼던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한 것이었다(참조, 21장 ㉠ 19).
- (4) 따라서 본질의 논박은 더들로가 주장한 첫번째 송사 내용 뿐만 아니라 세번째 송사 내용도 거짓됨을 입증해 준다(참조, ㉠ 6).
- (5) 이와 같이 우리도 악인들의 거짓된 증언을 감정과 혈기로써 대응할 것이 아니라 적당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신앙에 근거한 냉철한 이성(理性)으로 제어할 필요가 있다(참조, 속 2:13).

13. **㉠**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두번째 죄목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무엇인가? (14-16절)

- ㉡** (1) 첫째, 그는 그들이 나사렛 이단(참조, ㉠ 7)이라 부르는 기독교를 믿고 있다고 시인했다.
- (2) 그러면서 그 도를 좇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는다고 하였다.
- (3) 사실 율법이나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로서(히 10:1) 이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 완전해졌다(마 5:17).

- (4) 따라서 그리스도를 좇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를 믿는 것이다.
- (5) 둘째, 하나님께 향한 소망, 즉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고 단언하였다.
- (6) 이러한 바울의 부활관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지닌 부활관과 동일한 것이며 성경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참조, 23장 ㉔ 8; 단 12:2; 요 5:28, 29; 계 20:12-15).
- (7) 그런데 바울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본질이 유일한 것이다. 보통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형상을 좇아 부활하게 되는 믿는 자들의 부활을 언급했다(참조, 롬 1:4; 6:5; 고전 15:13, 21).
- (8) 지금까지 언급한 것들이 바울의 신앙관이고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는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고 고백했다(16절).
- (9) 우리는 그 당시 바울이 가진 신앙관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악인이 부활해 그 행위대로 심판받고 의인은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순전한 삶을 살지 않을 수 없다(참조, 시 62:12; 뱀 17:10; 마 16: 27; 고후 5:10).

14. ㉔ 바울은 성전을 더럽혔다는 더들로의 송사에 무엇이라고 변론했는가? (17-21절)

- ㉔ (1)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요약하면서 성전에서 붙잡힌 사건(18절)과 산헤드린에서 문책받았던 사건(20절)을 설명하였다.
- (2) 이 변론에서 그는 무리를 지어 소란을 공모하거나 시도한 적이 없었음을 밝히면서 오히려 결례 의식을 행한 후 성전에 조용히 있을 때 무리들이 그를 붙잡았다고 주장했다.
 - (3) 만일 바울을 붙잡기 위해 소동을 일으켰던 아시아계 유대인들이 바울을 정식으로 고소했었다면 그들은 총독 앞에서 다시 바울을 송사하기 위해 재판장에 출정했어야 했다.
 - (4)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것은 법정에서 있던 바울에 대해 아무것도 비난할 것이 없음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불참은 곧 고소의 철회를 뜻하기 때문이다.
 - (5) 덧붙여서 바울은 산헤드린에서도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던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자기에게서 쫓겨 만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하였다(23:6-10).
 - (6)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재판을 받고 있는 이유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믿음 때문이라고 강력히 주장하였다(21절; 참조, 23장 ㉔ 7, 8).
 - (7) 이처럼 바울의 변론은 정정당당하고 논리적이었다. 이 힘은 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거짓이 없었다는 데서 나온 것으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참조, 롬 9:1, 2; 고후 1:12; 뱀전 3:16).

15. ㉔ 벨릭스가 바울의 재판을 연기한 이유는 무엇인가? (22절)

- ㉔ (1) 그 이유는 벨릭스 자신이 이 ‘도’, 즉 기독교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 (2) 다시 말해서 벨릭스는 그 재판이 정치 선동이라는 명목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본질적인 성격은 완전히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 (3) 이것은 그가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약 10년이란 세월을 팔레스타인에서 지낸 경험에서 나온 것이다.
 - (4) 그래서 그는 단순히 논쟁자들 사이의 대립의 가능성을 없애고 재판을 연기함으로써 그의 관할권 내의 평화를 지켜 나가려 하였다.
 - (5) 그는 그런 의도에서 바울을 헤롯 궁전에 보호하도록 조치하였고 아나니아에게는 천부장 루시아가 도착하면 그의 증언을 듣고 결정을 내리자고 거짓 약속을 하였던 것이다.

- (6) 이미 천부장 루시아의 편지로부터 모든 사건의 진상을 알고 있는 그가(23:26-30) 바울의 재판을 연기한 것은 본질의 이유를 제외하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 이유들에 대해서는 ㉑ 16에서 다루겠다.
- (7) 우리는 여기서 한 죄없는 백성이 부패한 권력자 때문에 수년간 죄인으로 남아 있는 광경을 목도하고 있다. 이처럼 부패한 권력자는 무죄한 양민을 괴롭히고 사회를 혼란으로 몰고 가는 원인이 된다(참조, 미 3:9-11).
- (8) 우리도 부패한 벨릭스 총독과 같이 나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이웃을 이용하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자.

16. ㉑ 벨릭스 총독이 바울의 재판을 연기한 기타의 이유를 나열해 보라(23-27절).

- ㉑ (1) 첫째, 그의 임기 기간을 조용히 끝마무리짓고 후임자인 보르기오 베스도(참조, ㉑ 22)에게 총독의 지위를 넘겨 주기 원했기 때문이다.
- (2) 이처럼 그가 자신의 임기가 만료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바울을 풀어 줌으로써 유대인들의 감정을 건드려 그렇지 않아도 나쁜 자신의 평판을 더 이상 악화시키려 하지 않았다(27절).
- (3) 둘째, 바울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를 허용하면서(23절) 계속 그를 부른 것은 바울에게 뇌물을 받고자 원했기 때문이다(26절).
- (4) 이처럼 바울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면(放免)해 주지 않고 재판을 연기한 채 그를 자주 부른 것은 뇌물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으로 오늘날 불의한 권력자나 압제자들이 쓰는 방식과 동일하다.

17. ㉑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에 대해서 설명하라(24절).

- ㉑ (1) 드루실라는 유대 왕 헤롯 아그립바 1세(Herod Agrippa I, B. C. 10-A. D. 44)의 세째 딸이자 막내 딸로서 A. D. 38년경에 태어났다.
- (2) 그녀는 처음에 콤모게네의 왕자인 에피파네스와 혼약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결혼은 에피파네스가 아그립바 1세에게 유대주의를 신봉할 것을 약속했다가 마음을 바꾸어 개종할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았다.
- (3) 그 후 그녀가 16세 되던 해인 A. D. 53년경 그녀의 오빠 아그립바 2세(A. D. 30-100)에 의해 에메사의 왕 아지주스(Azizus of Emesa)와 결혼하였다.
- (4) 그러나 1년 후 그녀는 벨릭스의 유혹을 받아 남편과 이혼하고 벨릭스와 결혼함으로써 그의 세번째 아내가 되었다.
- (5) 한편 그녀와 벨릭스 사이에는 아그립바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A. D. 79년 8월 24일 베스비우스 화산 폭발 때 죽었다고 한다.

18. ㉑ 벨릭스가 바울의 강론(講論)을 중단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25절)

- ㉑ (1)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한 바울의 강론이 그에게 두려움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 (2) 사실 벨릭스는 해방 노예 출신이었지만 로마 황실의 왕자 팔라스의 후광을 등에 업고 유대 총독이 된 인물로 유대인들을 무력과 탄압으로 다스렸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역대 총독들 중 가장 악독한 자였다(참조, 23장 ㉑ 19).
- (3) 뿐만 아니라 세째 부인인 드루실라와의 결혼도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 어엿이 남편이 있는 그녀를 그의 친구를 이용해 유혹해 낸 불법적인 것이었다.
- (4) 물론 벨릭스와의 결혼 생활이 아지주스와의 결혼 생활보다 더 행복하리라고 생각한 드루실라의 뼈뿔어진 애정관도 간과할 수 없다.
- (5) 어쨌든 바울의 강론은 이러한 그들의 잘못을 예리하게 파헤친 것으로서 그들의 잠자는 일말의 양심을 자극했고 그들은 자신들이 당할 암담한 미래에 두려움을 느꼈던 것이다.
- (6)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지은 잘못을 돌이키는 적극적인 방법보다는 바울의 강론을 중

지시키는 소극적인 방법을 택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선택이었다.

- (7) 이와 같이 우리도 생활 속에서 성경 말씀을 대하거나 진실한 친구들의 조언을 듣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 우리가 성경을 덮거나 친구의 조언을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며 진실로부터의 도피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참조, 왕상 12:6-15).

19. **㉠ 벨릭스가 바울을 자주 부른 이유는 무엇인가? (25, 26절)**

- ㉠** (1) 벨릭스가 바울을 자주 부른 것은 2가지 이유, 즉 ① 바울의 강론을 듣기 위해서이며 ② 돈을 받기 원했기 때문이다.
- (2) 그러나 이 2가지 이유 중 신앙적인 열심보다는 물질에 대한 탐욕이 앞섰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 (3) 한편 이 사실은 그가 바울이 어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음을 보여 준다.
- (4) 그래서 혹자는 벨릭스가 바울에게서 돈을 기대하게 된 이유를 그가 ① 바울은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았을 것이다 ② 바울이 찾아오는 친구들로부터 어느 정도의 돈을 가질 수 있었을 것(참조, 23절; 27:3) 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 주장하기도 한다.
- (5) 어쨌든 당시 뇌물 수수를 금지하는 엄격한 포고령이 반복해서 내려지는 상황에서도 그가 바울의 강론보다 돈을 원했다는 사실은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발로 차버리고 멸망이 약속되어 있는 이 세상으로 달려갔음을 의미한다.
- (6) 우리는 이런 벨릭스의 태도를 보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一萬) 악의 뿌리가 되며 그 결국은 영원한 멸망이라는 사실을 재삼 인식하고 탐욕이 신앙적인 열심을 압도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참조, 잠 1:19; 딤후 6:9-11).

20. **㉠ 두 해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所任)을 대신 한 이유를 설명하라(27절).**

- ㉠** (1) 벨릭스의 퇴임은 당시 가이사라에 있던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사이의 적대 감정의 충돌 때문이었다. 그들은 서로서로 가이사라의 시민으로서 주도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 (2) 유대인들은 그들의 수가 헬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았고 경제적 부권을 쥐고 있었으며 더구나 유대인이었던 헤롯 대왕이 가이사라를 재건시켰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주도권을 주장하였다(참조, 23장 **㉠** 17).
- (3) 반면에 헬라 사람들은 군부(軍部)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가이사라가 항상 이방인들의 도시였다는 사실을 내세워 그들의 주도권을 주장했다(참조, 23장 **㉠** 17).
- (4) 벨릭스는 이 주도권 싸움에 그의 지휘하에 있던 수리아 군대를 개입시켰는데 그 목적은 유대인에게 군사적인 보복을 가하기 위한 것이었다.
- (5) 그 결과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고 감옥에 투옥되었으며 그들의 재산을 약탈당했다.
- (6) 유대인들은 이런 부당한 결과를 호소하기 위해 대표를 로마에 보내서 그들의 불만을 로마 정부에 전했다.
- (7) 때마침 로마 정국은 벨릭스를 밀어 주던 팔라스가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물러났고 글라우디오의 뒤를 이어 네로(Nero, A. D. 54-68)가 로마의 황제가 된 상태에 있었다.
- (8) 결국 이런 이유로 인해 벨릭스는 네로에 의해 로마로 소환당했고 그 뒤를 이어 보르기오 베스도(A. D. 59-61)가 유대 총독이 되었다.

21. **㉠ 벨릭스는 퇴임하면서 바울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가? (27절)**

- ㉠** (1) 그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拘留)하여 두었다.
- (2) 즉 벨릭스는 바울을 헤롯 궁전에 감금시키면서 외형적으로는 바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내세웠다.
- (3) 하지만 바울을 억류시킨 행동의 이면에는 이러한 행동이 유대 당국자들에 의하여 최소한의 호의의 표시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란 그의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
- (4) 결국 이런 배경하에서 바울의 재판이 유대인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그들의 종교에

대해 경험이 없는 신입 베스도 총독에게 넘겨졌다는 사실은 이 재판이 바울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하에서 재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5) 이 같은 상황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섭리(참조, 19:21;23:11)의 한 단계에 불과하다.
- (6)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당신의 자녀를 환난과 역경 속에서 연단을 시키실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다(참조, 벧전 1:7).
- (7) 한편 이러한 불리한 환경에서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 한 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불평하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참조, 출 14:10-12; 욥 2:9).

22. ㉠ 벨릭스의 뒤를 이어 유대 총독이 된 보르기오 베스도는 어떤 인물인가? (27절)

- ㉠ (1) 벨릭스의 뒤를 이어 유대 총독이 되기 전까지의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 (2) 보르기오 베스도(Porcus Festus)는 A. D. 58년에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이후 전임자 벨릭스가 늘어놓은 골치 아픈 문제, 즉 유대에 팽배해 있는 무질서와 무법, 종파간의 세력 다툼 등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동분 서주(東奔西走) 했다.
- (3) 그가 전임자로부터 떠맡은 문제들 가운데는 바울의 재판 건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그는 유대인들의 민심을 중시하면서도 무고(誣告) 한 시민을 다치게 하지 않으려는 세심한 주의를 보여 주었다.
- (4) 한편 그가 바울의 문제를 아그립바에게 말한 내용을 볼 때 그는 냉철한 이성의 소유자요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인물임에 틀림없다(25: 13-22).
- (5) 그는 그 후 임기 중인 A. D. 61년에 사망하였는데 후임자 알비누스(Albinus)에 비해 선량한 정치를 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연구자료

로마의 항소(抗訴)제도. 법정신이 가장 잘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는 로마법에는 시민들이 부당한 처벌을 당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제도화되어 있었다. 즉 로마법에는 항소권에 대한 법령이 발달되어 있었는데 로마인이면 로마 시 경계 밖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일지라도 언제나 항소권을 주장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생명과 관계된 문제이거나 중요도가 높은 문제일 경우에는 로마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재판은 황제가 직접 심리(審理)하거나 아니면 원로원 또는 칙명 재판소가 심리하였다. 그러므로 로마인들간에서는 '로마인이면 가이사에게 호소하라'는 말이 유행하여 속담으로 굳어지게 되기도 하였다. 본장에는 바울이 총독 벨릭스의 심문을 받는 장면이 언급되어 있는데(1-23절) 바로 이 같은 것이 이에 속하는 경우이다. 한편 바울이 항소를 신청한 것은 단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이다(25: 10, 21). 이는 그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권리였다(22: 28, 29).

제 25 장 바울을 재판하는 베스도

단락구분 1 베스도가 예루살렘을 방문하다 / 2-5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소하다 / 6-12 베스도의 재판과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바울 / 13-22 헤롯 아그립바 2세가 베스도를 방문하다 / 23-27 바울이 아그립바 앞에 서다

1 베스도가 도입한 지 삼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2 대체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새

3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러라

4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미구에 떠나갈 것을 말하고

5 또 가로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송사하라 하니라

6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팔 일 혹은 십 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7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송사하되 능히 증명하지 못한지라

8 바울이 변명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9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심문을 받으려느냐

10 바울이 가로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심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11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의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 줄 수 없삼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한대

12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가로되 네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13 수일 후에 아그립바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14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

하여 두었는데

15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체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16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어 주는 것이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17 그러므로 저희가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오나

18 원고들이 서서 나의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사건은 하나도 제출치 아니하고

19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의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뿐이라

20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사실할는지 의심이 있어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심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21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키 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 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22 아그립바가 베스도더러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가로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23 이튿날 아그립바와 버니게가 크게 위의를 베풀고 와서 천부장들과 성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신문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24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립바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 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25 나는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저가 황제에게 호소한 고로 보내기를 작정하였나이다

26 그에게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뢴 것이 없으므로 심문한 후 상소할 재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립바 왕 당신 앞

에 그를 내어 세웠나이다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27 그 죄목을 베풀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1. **㉠** 본장에 나타난 베스도의 활동상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본장에 나와 있는 베스도의 활동상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하다 ②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바울에 대한 고소를 받다 ③ 가이사라에서 바울을 재판하다 ④ 바울의 문제를 아그립바와 버니게에게 말하다.
- (2) 물론 그가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은 유대인 지도자들과 인사를 나누기 위함이었다(1절).
- (3) 이런 그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의 고소를 상정(上程)하여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 주기를 부탁했다. 이 부탁의 이면에는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매복(埋伏)했다가 그를 죽이려는 저의가 깔려 있었다(2, 3절).
- (4) 그는 이 부탁을 즉각적으로 승낙하지 않고 고소자들을 대동하여 가이사라에서 바울의 재판을 열게 되었다(5, 6절).
- (5) 여기서 그는 바울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유대인들로부터 환심을 사기 위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기를 종용했다(7-9절).
- (6)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바울이 이를 강하게 거절하여 가이사에게 상소(上訴)를 하게 되었다(10-12절).
- (7) 이로 인해 베스도는 아그립바와 버니게에게 도움을 구하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는 이미 모든 사건의 추이(推移)를 정확히 표현하였다(13-22절).
- (8) 이런 모든 점을 감안해 볼 때 베스도는 10여 일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고소 사건과 여러 가지 일 중 선결해야 할 문제를 정확히 파악한 뛰어난 총독이었다.
- (9) 우리는 본장을 통해 성도를 꺾박하는 악의 세력이 매우 집요하며 성도를 파멸시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다(참조, 잠1:16; 6:18; 사59:7).

2. **㉠**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한 지 3일 후에 한 일은 무엇인가? (1절)

- ㉠** (1) 그는 도임(到任)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 (2) 여기에서 '가이사라'는 유대 총독의 관저가 있는 해안 도시로 자세한 것은 23장 **㉠** 17을 참조하라.
- (3)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유는 유대의 지도자들, 즉 산헤드린과 기타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서 인사를 나누기 위함이었다.
- (4) 물론 이 일은 의례적인 일이지만 그 배후에는 그의 선임자 벨릭스로부터 떠맡은 문제들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간의 세력 다툼을 어느 정도 종식시키는 것이 선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 그의 의도가 깔려 있다.
- (5) 한편 그가 이 일들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내려간 것은 여전히 예루살렘이 유대의 정치, 종교,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의 중심지임을 잘 나타내 준다.
- (6) 또한 그가 유대 땅에 들어온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은 부지런한 모습을 보여 준 것이다. 이런 그의 일면들이 그를 역대 유대 총독들 가운데 가장 부지런하고 선량한 총독이라는 칭호를 받게 했다(참조, 24장 **㉠** 22).
- (7) 우리는 이런 베스도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청지기라고 자처하면서도 시간을 아끼지 않으며 소극적이었던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고 그의 적극성과 근면성을 교훈으로 얻어야 한다(참조, 전12:1; 롬15:1; 엡5:15, 16).

3. **㉠** 예루살렘에서 베스도에게 바울을 고소한 자들은 누구인가? (2절)

- Ⓐ (1)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었다.
 (2) 당시 유대의 대제사장은 파비(Phabi)의 아들인 이스마엘로 헤롯 아그립바 2세에 의해 벨릭스 통치 말기에 대제사장이 되었다.
 (3) 그런데 이스마엘의 전임자인 아나니아는 공식적인 대제사장직은 물러났지만 A. D. 66년 유대 군중들에게 붙잡혀 살해당하기까지 계속 예루살렘의 제반 문제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참조, 23장 ㉔3).
 (4) 한편 당시 대제사장 이스마엘은 아그립바 2세와 쟁점이 되었던 성전 담에 관한 문제를 로마 황제 네로에게 호소하기 위해 로마에 갔다가 억류되어 있었다.
 (5) 이때 아그립바 2세는 시몬의 아들 요셉(Joseph Cabi)을 대제사장으로 뽑아 이스마엘의 뒤를 잇게 했다.
 (6) 이런 이유들로 해서 본서의 저자 누가는 '대제사장들'이라는 복수 명사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은 산헤드린의 회원이 아닌 유대인 중 유력자들을 가리킨다.
 (7) 이와 같이 바울에 대한 적대감은 2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참조, 24:27) 변함이 없었으며 오히려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더욱 팽배해 있었다(비교, 21:27-31; 23:12-15).
 (8) 분명히 그들은 벨릭스의 뒤를 이은 베스도 총독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그때를 바울을 죽일 수 있는 호기(好期)로 생각하였음이 틀림없다.
 (9) 이처럼 죄로 물든 인간들은, 말씀의 순수성에서 떠날 때에 오히려 더 악해지고 거짓에 미혹되어 그 거짓을 마치 진리인 양 착각하며 그것을 사수하기 위해 온갖 열정을 기울이는 오류를 쉽게 범한다.
 (10)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에 미혹당할 때 그것이 거짓임을 알기 위해 끊임없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취 보며 기도해야 한다(참조, 롬16:17, 18; 엡5:11; 딤후3:5; 요일4:1-3).

4. ㉔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 베스도에게 무엇이라고 요청하였는가? (3절)

- Ⓐ (1) 그들은 베스도의 호의(好意)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요청하였다.
 (2) 여기에서 '베스도의 호의로'란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는 그가 앞으로 유대의 모든 일들을 원활하게 통치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잘 보여야 된다는 의미이다.
 (3) 이와 같이 그들은 베스도가 신임 총독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바울의 재판 문제를 예루살렘에서 결정하게 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였다.
 (4) 이 요청의 배후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에 자객들을 매복시켜 바울을 암살하겠다는 그들의 음흉한 저의가 숨어 있었다(비교, 23:15).
 (5) 또한 이 계획이 실패하더라도 일단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성전을 모독했다는 죄목으로 그를 산헤드린 법정에서 세워 사형 선고를 내리겠다는 음모가 담겨 있었다(참조, 21장 ㉔20).
 (6) 이와 같이 행악자들은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는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해 성도를 파멸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는 길이다(참조, 시140:1-13; 143:1-12).

5. ㉕ 베스도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유력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였는가? (4, 5절)

- Ⓐ (1) 그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는 사실과 곧 자신도 가이사랴로 떠날 것을 말하면서 바울을 송사할 자들은 자신과 함께 떠나자고 제의했다.
 (2) 이 제의는 뜻하지 않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유력자들의 음모를 산산이 부숴뜨렸다.
 (3)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생각과 계획을 결국에는 흐트러뜨리신다(시33:10).

- (4) 왜냐하면 악인들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과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이다(욥21:16).
- (5)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떠난 제아무리 좋은 계획을 마음에 세운다 할지라도 필경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되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잠19:21).

6. **㉠** 베스도는 예루살렘에서 며칠을 머물렀는가? (6절)

- ㉡** (1) 베스도는 예루살렘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8일 혹은 10일을 함께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왔다.
- (2)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머무른 기간에 대해서 헬라이어 성경들(사본) 가운데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 (3) 예를 들면 The Trinitarian Bible Society에서 발행한 헬라이어 성경(The Greek text of the New Testament)에는 <헤메라스 프레이우스 에 데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은 '10일 이상'이라는 뜻이다.
- (4) 반면 화란 네슬 알란드 성경(Nestle-Aland)에는 <헤메라스 우 프레이우스 오크토 에 데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은 '8일 혹은 10일 이상을(지내지) 앗고'라는 의미이다.
- (5) 그래서 영어 성경들간에도 이 부분의 번역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KJV	more than ten days	10일 이상
NIV	eight or ten days	8일 혹은 10일을
Living Bible	eight or ten days later	8일 혹은 10일 후에
RSV	not more than eight or ten days	8일 혹은 10일이 넘지 않게

- (6) 그런데 전통적으로는 '8일 혹은 10일' 설을 일반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여드레인가 열흘인가 지낸 뒤에'라고 번역되었고, 개역 성경에도 '8일 혹은 10일을'이라고 번역되었다.
- (7) 한편 혹자는 '8일'이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머무른 순수한 날수이고 '10일'은 머무른 순수한 날수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날과 떠난 날을 포함시킨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7. **㉠** 베스도는 가이사라로 내려온 다음날 무슨 일을 하였는가? (6, 7절)

- ㉡** (1) 그는 바울의 재판을 집행하였다.
- (2) 이 자리에는 재판장으로 베스도가, 원고인(原告人)으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그리고 피고인(被告人)으로 바울이 참석했다.
- (3) 여기에서 유대인들은 과거 성전에서 행한 것(21:27-30)과 벨릭스 총독 앞에서 변사 더들로가 송사한 것(24:5, 6)과 같이 바울을 송사했다.
- (4) 누가는 이들의 송사하는 장면을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송사하되'라고 묘사하였다.
- (5) 아마도 이들이 주장한 송사 내용은 ①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요케 하는 자 ② 나사렛 이단의 괴수 ③ 성전을 더럽힌 자라는 등의 내용이었을 것이다(참조, 24장 ㉠ 6).
- (6) 그러나 그들은 아무 중인도 세우지 못했고 그들의 고소를 입증할 수도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은 모두가 거짓이었기 때문이다(참조, 24장 ㉠ 9).
- (7) 이와 같이 거짓은 그 위세가 제아무리 거셀지라도 진실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다(시 101:7; 잠 12:22).
- (8)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거짓과 외적인 거짓과의 타협을 버리고 진리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진실을 견지(堅持)해야 할 것이다(출 23:7; 시 119:104).

128).

8. **㉠** 바울은 유대인들의 송사에 무엇이라고 변명하였는가? (8절)

- ㉠** (1) 바울은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고 변명하였다.
- (2) 이 말은 곧 그가 무죄하다는 뜻으로 벨릭스 총독 앞에서 더들로의 송사에 대답했던 그 변론을 한 마디로 축소시켜 놓은 듯하다(24:11-21).
- (3) 또한 이 말은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24:16)는 그의 고백과 맥을 같이한다(참조, 24장 **㉠** 13).
- (4) 한편 바울은 이때 자신이 법정에서 제기 된 것은 유대 율법이나 용어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지 로마 법률에 저촉되는 점이 있었기 때문은 아님을 확실히 주장하였다.
- (5)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이면서도 세상의 법을 충실히 지킨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불신자보다도 못하게 세상의 법, 예를 들면 교통 법규 등을 어기기를 즐겨 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반성해 보자.

9. **㉠** 가이사는 누구인가? (8, 10, 11절)

- ㉠** (1) 원래 가이사는 율리우스 케사르(Julius Caesar, B. C. 102-44)의 속명이었다.
- (2) B. C. 44년 그가 암살당한 후 그의 양자 가이우스 율리우스 케사르 옥타비아누스(Gaius Julius Caesar Octavianus)가 로마를 정리한 후 B. C. 27년 로마의 초대 황제로 즉위한 이후부터 가이사는 황제의 칭호가 되어 실제로는 황제의 동의어로 쓰였다.
- (3) 역대 가이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가이사 아구스토(=가이우스 율리우스 케사르 옥타비아누스): B. C. 27- A. D. 14년
 - ② 디베로 가이사: A. D. 14-37년
 - ③ 칼리굴라: A. D. 37-41년
 - ④ 클라우디오 가이사: A. D. 41-54년
 - ⑤ 네로 가이사: A. D. 54-68년
 - ⑥ 갈바: A. D. 68-69년
 - ⑦ 오토: A. D. 69년
 - ⑧ 비텔리우스: A. D. 69년
 - ⑨ 베시파시아누스: A. D. 69-79년
 - ⑩ 티투스: A. D. 79-81년
 - ⑪ 도미티아누스: A. D. 81-96년
 - ⑫ 네르바: A. D. 96-98년
 - ⑬ 트라야누스: A. D. 98-117년
 - ⑭ 하드리아누스: A. D. 117-138년

(4)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가이사는 당시의 로마 황제인 네로를 뜻한다.

10. **㉠** 상호간의 변론을 들은 베스도는 바울에게 어떤 재의를 하였는가? (9절)

- ㉠** (1) 베스도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사건에 대해 그 앞에 심문을 받을 것을 제안하였다.
- (2) 그는 변론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바울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제 막 새로운 유대의 총독으로서의 직무를 시작한 관계로 그들간에 진정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없었다.
- (3) 그래서 그는 로마의 국법을 준수하면서도 그가 통치하기 시작한 유대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는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법정을 예루살렘에서 재개하는 방법을 생각해 내

있고 이를 바울에게 제안했을 것이다.

- (4) 이처럼 바울의 무죄를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도 이런 제안을 한 이면에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강한 정치욕이 숨어 있었다(비교 24:27).
- (5)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것이 정의인 줄 알면서 우리의 이익과 관계 있다는 이유로 모른 척하거나 왜곡하는 경우가 있지 않는가 살펴보자(약 4:17).

11. **㉠** 바울은 베스도의 제안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였는가? (10, 11절)

- ㉠** (1) 바울은 자신의 무죄를 다시 한번 호소하면서 베스도의 제안을 거부한 후 가이사에게 상소하였다.
- (2) 그것은 그 자신이 무죄하다는 이유도 있겠지만 일단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산헤드린 법정 에 선다면 성전 모독죄로 죽음을 면키 어렵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 (3) 그래서 그는 로마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권리를 주장하기에 이른 것이다.
- (4) 당시 로마 법률에는 로마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황제에게 호소할 수 있는 권리’가 규정되어 있어서 로마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방 행정관의 심한 압제나 중요한 재판 문제가 생겼을 때 황제에게 호소함으로써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 (5) 한편 흑자는 당시의 황제 네로가 기독교 박해자이기 때문에 베스도에게 재판을 받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 (6) 그러나 네로는 통치 초기인 A. D. 62년까지는 유능한 정치가 세네카(Seneca)와 근위대장 불루스(Burrus)의 영향으로 짜임새 있는 정치를 하였고, 그 이후부터 기독교를 박해하며 난폭한 정치를 하였다.
- (7) 그러므로 흑자의 견해는 로마의 당시 상황을 잘 모른 데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12. **㉠** 바울의 상소를 듣고 베스도가 내린 재판의 결론은 무엇인가? (12절)

- ㉠** (1) 베스도는 배석자(陪席者)들과 상의한 후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 (2) 여기에 참석한 배석자들이란 산헤드린 회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총독의 행정부 고급 관리들과 법률 고문들로, 베스도는 그들로부터 조언을 구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모든 결정에 대한 책임은 그가 혼자 져야 했다.
- (3) 당시 로마 법률에 의하면 로마 시민이 그 법에 호소할 때 그에게 관련된 고소가 특수한 죄목인 경우에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 (4) 그런데 고소자들이 바울에게 씌웠던 죄목은 크게 로마법에 따르면 사형에 해당되는 정치적 선동의 죄와 유대법 사형에 해당되는 성전 모독죄였다.
- (5) 따라서 이것은 특수한 죄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베스도는 바울의 상소를 접수한 것이다.
- (6) 물론 베스도가 무죄 방면의 선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소를 받아들인 것은 정치적으로 볼 때 새로이 부임한 통치자가 그 지역의 지도자들이 강력히 대적하는 한 사람을 방면함으로써 해서 그들에게 적대 감정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7) 결국 이로 인해 베스도는 바울의 문제로 야기된 곤경에서 벗어났다.
- (8)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비록 베스도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바울의 상소를 허락했지만 그로 인해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은 진일보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 (9)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성취키 위해 통치자를 사용하기도 하시는 분이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역시 변함없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참조, 단 4:28-37).

13. **㉠** 바울의 재판이 있었던 수일 후에 베스도를 방문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13절)

- ㉠** (1) 그들은 아그립바 2세와 버니게였다.
 (2) 먼저 아그립바 2세(A. D. 30-100)에 대해 살펴보면, 그는 아그립바 1세의 아들이며 아리스토틀루스의 손자이고 헤롯 대왕의 증손이었다.
 (3) 그는 로마의 클라우디오 황제의 총애를 받으면서 황실에서 성장하였고 23세 되던 해인 A. D. 50년 클라우디오 황제에 의해 유대 북동쪽에 있는 작은 나라인 갈기스의 왕으로 임명되었다.
 (4) 그 후 A. D. 53년 클라우디오는 그에게 갈기스 왕국 대신 헤롯 빌립(B. C. 4-A. D. 33)의 관할 지역과 아빌라, 트라코니티스, 아크라 지역을 주었다.
 (5) 또한 클라우디오의 뒤를 이은 네로는 그 주변의 갈릴리 지역과 함께 다리게아와 디베랴, 베외아 성읍과 거기에 속한 14개 마을을 덧붙여 주었다.
 (6) 그런 까닭에 북쪽에 인접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그는 유대의 새 통치자인 베스도에게 경의를 표하게 되었다.
 (7) 한편 버니게(Bernice)는 그의 누이로서 그보다 한 살 아래였다. 그녀는 일찌기 철학자 필로(Philo)의 조카인 마르쿠스(Marcus)와 약혼하였고 후에 갈기스의 왕이며 그녀의 삼촌인 헤롯 빌립과 결혼했지만 그가 A. D. 48년에 죽자 오라비 아그립바 2세와 함께 살았다.
 (8) 근친 상간의 소문이 퍼지자 그녀는 이를 막기 위해 A. D. 63년 길리기아의 플레모 왕과 결혼하였고 후에 로마 장군 티투스(Titus)의 부인이 되기도 했지만 A. D. 79년 그가 로마의 황제가 되자 그들의 관계도 일단락되어 다시 팔레스틴으로 돌아온다.

14. **㉠** 베스도가 아그립바에게 말한 사건의 경위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13-21절)

- ㉠** (1) 첫째, 그는 로마법에 따라 바울의 재판 문제를 처리하였음을 강조하였다. 즉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를 주었다고 하였다(16절).
 (2) 둘째,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지체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왜냐하면 그와 유대인 지도자들이 가이사라에 온 바로 다음날 그 문제를 심문하기 위해 재판을 소집했기 때문이다(17절).
 (3) 셋째, 재판을 진행하는 가운데 그는 그 고소 문제가 로마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 종교 내의 메시아에 대한 견해 차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이다(18, 19절).
 (4) 왜냐하면 유대인 종교자들이 제기한 문제들은 ‘그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사건’, 즉 폭동, 살인 등이 아니라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의 죽은 것을 살았다’고 하는 종교적인 문제였기 때문이다.

15. **㉠** 아그립바는 베스도의 설명에 어떤 반응을 나타냈는가? (22절)

- ㉠** (1) 아그립바는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고 대답하였다.
 (2) 여기에서 ‘나도...듣고자 하노라’에 해당되는 헬라어 <에블로멘>은 미완료 시제로 ‘내가...하기를 원한다’는 뜻인데 이는 아그립바가 크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3) 그 이유는 아그립바가 기독교 운동에 대한 충분한 사전 지식을 지닌 인물로서 베스도의 말에 흥미가 돋우어졌기 때문이다(Hendriksen).
 (4) 그래서 아그립바와 바울의 대면이 그 다음날 이루어졌다.

16. **㉠** 이튿날 아그립바와 버니게가 신문소(訊問所)에 들어오기 전에 행한 일은 무엇인가? (23절)

- Ⓐ (1) 그들은 크게 위의를(威儀)를 베풀었다.
- (2) 여기서 '위위'(헬, 판타시아스)란 '과시', '허식', '나타냄', '화려한 행렬'이란 뜻이다.
- (3) 그들은 권위와 위엄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화려한 옷과 행렬을 준비하였다.
- (4)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불륜과 부도덕으로 가득 찬 그들의 생활과 내면의 모습을 가리고 치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참조, ㉑ 13).
- (5) 한편 혹자는 자신들의 추악한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화려하게 차려 입고 그것을 과시하는 그들의 인위적인 위엄과, 휘황 찬란한 장식들로 치장할 필요 없는 바울의 본래적인 위엄을 대비시키기도 한다.
- (6)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내면은 더러우면서도 외양만 번지르르하게 꾸미는 것은 성도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바가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참조, 마6:2, 5; 23:25; 눅6:42; 벰전2:12).

17. ㉑ 아그립바와 버니게는 누구와 함께 신문소에 들어왔는가? (23절)

- Ⓐ (1) 그들은 위의를 베풀고 난 후 천부장들과 성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신문소에 들어왔다.
- (2) 여기에서 '천부장들'(참조, 21장 ㉑22)은 당시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던 5개의 후원 보병대의 수자에 따라 5명이었을 것이고, '성중의 높은 사람들'은 가이사라의 시의원들이었을 것이다.
- (3) 그들은 아그립바와 버니게와 함께 치안 판사나 행정 장관 앞에서 사건의 경위를 듣고 심문하는 강당인 신문소에 모여서 바울을 심문하기 위한 공청회를(公聽會) 열었다.

18. ㉑ 베스도는 우리들에게 공청회를 열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하는가? (24-27절)

- Ⓐ (1) 베스도는 황제에게 상소할 재료(材料)를 찾기 위해 공청회를 열었다고 설명하였다.
- (2) 그는 먼저 재판에서 바울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야심을 위해서 바울을 로마로 송환키로 결정을 내렸다(12, 21, 25절).
- (3) 그러나 당시 로마법에 따르자면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기 위해서는 먼저 황제에게 아뢴 확실한 죄목이 필요했지만(25, 26절) 그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이유 외에는 마땅한 죄목을 찾지 못하였다(18, 19절).
- (4) 그래서 자신보다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에 박식한 아그립바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었고 그의 요청에 따라 공청회를 열게 되었던 것이다.
- (5) 이로 인해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들도 복음을 접하게 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 (6)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善)을 이루시는 과정에서 성도를 환경적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담대한 믿음과 마음을 허락하신다.
- (7)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환경과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그것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참조, 고전10:31; 갈6:9; 벰전3:13-17).
- (8)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롬8:28)는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

본장의 요점

'바울이 변명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8절).

제 26 장 아그립바 앞에서 변증하는 바울

단락구분 1-11 자신의 일생을 진술하다 / 12-18 자신의 개종을 설명하다 / 19-23 자신의 복음 전도의 사명을 설명하다 / 24-29 정신 병자로 오해받는 바울 / 30-32 아그립바가 바울의 무죄를 인정하다

1 아그립바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2 아그립바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3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십니까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4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애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5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좇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6 이제도 여기 서서 심문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7 이 약속은 우리 열 두 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립바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이다

8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9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10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 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11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12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13 왕이여 때가 정오나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14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 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15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16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17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18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케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19 아그립바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20 먼저 다메섹애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하므로

21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22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23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24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25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차린 말을 하나이다

26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 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27 아그립바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28 아그립바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 도다

29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 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30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31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32 이에 아그립바가 베스도더러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더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1. **㉠ 본장의 사건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본장에서 바울은 아그립바에게 자신의 일생과 개종하게 된 동기 그리고 복음 전도의 사명 등을 변증하고 있다.
 (2) 베스도가 이 변증을 듣고 바울을 정신 병자로 취급하지만 그는 오히려 자신의 말이 '참되고 정신차린 말'(25절)이라고 설명을 한다.
 (3) 뿐만 아니라 아그립바와 신문소(訊問所)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도한다.
 (4) 이와 같이 진리를 외치는 성도들에게는 때때로 인간의 힘으로 견디기 어려운 욕심과 모욕, 육체적인 고통이 가해지기도 한다.
 (5) 그러나 바울과 같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고후 4:17)을 이루게 하는 것임을 깨닫고 성도는 이를 순종하며 즐거워하고(롬 5:3; 약 1:2-4) 극복하며(롬 8:35-37) 오래 참으면서(롬 12:12; 약 5:11)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엡 3:13).
 (6) 더 나아가 이 기회를 선용(善用)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어야 한다(참조, 갈 2:20).

2. **㉠ 아그립바가 말하기를 허락하자 바울은 어떻게 자신의 변증을 시작하였는가? (1절)**

- ㉠** (1) 바울은 말을 하게 해준 아그립바에게 인사의 표시를 하는 동시에 청중의 주의를 집중시키고자 사슬로 묶인 두 손(29절)을 들면서 변증을 시작하였다.
 (2) 그의 변증은 과거 예루살렘의 안토니아 요새로 올라가는 층대 위에서 분노한 유대 군중들에게 행하였던 연설과 동일한 배경을 가지고 있다(비교, 21:40-22:21).
 (3) 그러나 내용이나 어조는 그때보다 한층 세련되고 논리적이며 문학적인 색채를 지니고 있었다. 그 이유는 청중이 왕과 총독 그리고 시의원들이었기 때문이다(25:23).

3. **㉠ 바울은 아그립바에게 먼저 무엇이라고 말하였는가? (2, 3절)**

- ㉠** (1) 그는 유대인들이 숭사하는 모든 내용을 아그립바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여긴다고 말문을 열었다.
 (2) 여기에서 '다행스럽게'에 해당되는 헬라어 <마카리오스>는 '행복된', '행운의'라는 뜻이다.
 (3)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는 첫째, 아그립바가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비교적 바울의 문제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며 둘째, 바울이 개인적으로 아그립바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4) 사실 아그립바도 예수를 재판한 헤롯이 그의 삼촌이기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이며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도 소문으로 들었을 것이다.
 (5) 이와 같이 들은 것으로만 그친 아그립바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사실이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던 그리스도의 사환(使喚)이요 증인인 바울에게는 더할 수 없이 다행한 일이었을 것이다(16절).
 (6)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한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다행스러운 일이 되어야 한다(참조, 마 28:19; 막 16:15).

4. **㉠ 바울은 자신을 일찍부터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다고 증언하였는가? (4, 5절)**

- Ⓐ (1) 바울은 그들이 자신에 대해서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派)를 좇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한 인물로 평가하리라고 증언하였다.
- (2) 사실 바울은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22:3; 22장 ㉓).
- (3) 또한 바울은 바리새인들의 자유파를 대표하는 힐렐(Hillel) 학파의 가말리엘로부터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었다(참조, 22장 ㉔).
- (4)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을 젊었을 때부터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가 정통적인 바리새인임을 잘 알고 있다고 증언할 수 있었다.

5. ㉑ 바울은 자신이 심문받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하였는가? (6, 7절)

- Ⓐ (1) 바울은 그 이유를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라 하였다.
- (2)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창18:18)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자손(민24:17)이며 유다 지파의 후손(창49:10), 다윗의 계승자(사9:7)인 메시아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3) 사실 메시아의 도래는 열 두 지파, 즉 유대 백성 모두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소망’이었다(7절).
- (4) 그러나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대부분의 백성들은 영접하기를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그분을 못박아 버렸던 것이다(비교, 사53:3과 요1:11; 사50:6과 막14:65; 사53:4, 5과 마8:16, 17).
- (5) 또한 그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도마저도 핍박하였는데 바울이 심문받는 이유도 예수가 메시아이시며 그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했기 때문이다(참조, 23절).
- (6) 이와 같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백성들은 아이로니컬하게도 그토록이나 열망해 왔던 메시아를 자기들의 손으로 죽이고 그를 좇는 성도들마저도 죽이려고 애쓰는 어리석음을 범하였다.
- (7)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거나 암송하지만 실상은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키지 못하는 영적인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자(참조, 마7:1-5).

6. ㉒ 바울은 아그립바에게 자신의 개종하기 이전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였는가? (9-11절)

- Ⓐ (1)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다고 설명하였다. ① 대제사장들에게 기독교인을 박해할 권세를 얻고 ②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며 ③ 죽일 때에 가편 투표(可便投票)하였고 ④ 회당에서 성도에게 예수를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⑤ 외국 성까지 나가서 성도를 핍박하였다.
- (2) 이 같은 그의 행동은 기독교인들이 전하는 예수의 부활 소식이 사기라고 생각하고 나서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 것이 그의 의무라고 생각한 데서 기인했다고 하였다.
- (3) 성경에 기록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대표적인 박해 모습은 예루살렘의 일곱 집사 중 한 사람인 스테반의 순교 사건에서 무리들이 그를 증인으로 세웠던 것을 들 수 있다(7:58, 59).
- (4)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에게 직접 찾아가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체포 명령서인 공문을 요구하여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기독교인을 박해하였던 사건을 들 수 있다(9:1, 2).
- (5) 이외에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바울이 주동이 된 기독교 박해 사건들은 무수히 많을 것이다.
- (6) 이처럼 참진리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들은 오히려 참진리를 거짓 진리로 판단하는 오류를 쉽게 범한다.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은 참진리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경건 생활에 박차(拍車)를 가해야 한다(롬12:12; 갈2:5; 딤후5:5; 히12:2).

7. **㉠**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온 사건은 무엇인가? (12-15절)

- ㉠** (1) 그 사건은 바울이 기독교인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었다(참조, 22장 **㉠** 5, 6, 7).
 (2) 이 사건을 누가 본서에서 3번이나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본장; 9, 22장) 그것이 바울의 생애를 변화시킨 중대 사건임을 알 수 있다.
 (3) 그런데 본문의 기록에는 앞의 기록에서 볼 수 없었던 점들이 상세히 진술되어 있고 그 의미가 강화되어 있으면서도 다른 본문의 기록과 모순되지 않는다.
 (4)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강하고 밝은 빛이 비추었다. ② 그 빛이 바울과 그의 동행자들을 둘러 비추었다(참조, 9:3; 22:6). ③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렸다. ④ 하늘로부터의 소리는 히브리 방언으로 들렸다(참조, 9:4; 22:7).

8. **㉠**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바울에게 들렸던 말은 무엇인가? (14절)

- ㉠** (1)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참조, 9장 **㉠** 6-8) 가시 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는 히브리 방언이 들렸다.
 (2) 여기에서 ‘가시 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는 말은 농경 생활에서 잘 알려진 속담이다.
 (3) 그 말은 길들여지지 않은 소나 기타 짐을 실은 짐승들이 주인의 뜻에 복종치 않고 가시 채(헬, 쾀트론), 즉 쇠로 된 가시가 달린 소몰이 채를 뒷발질할 경우 상처를 입는다는 것으로 헛되고 위험한 저항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4) 또한 헬라 세계에서 이 속담은 신을 대적하는 행동에 대한 널리 알려진 표현이었다.
 (5) 따라서 바울에게 들린 이 말은 ① 그의 일, 즉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며 ②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은혜에 즉시 굴복하지 않는다면 준엄한 징계의 매를 맞게 되리라는 경고의 말씀이었다.
 (6) 우리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와 성도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이며 결국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행위임을 알 수 있다(참조, 요 15:20-23; 16:1-3; 갈 5:11; 6:12; 살전 2:15; 계 12:13).

9. **㉠** 바울은 예수께서 그에게 나타난 이유를 무엇이라고 증언하였는가? (16절)

- ㉠** (1) 바울은 예수께서 ① 그가 예수를 본 일과 ② 장차(將次) 예수께서 그에게 나타날 일에 대해 사환과 증인으로 삼기 위해 나타나셨다고 증언하였다.
 (2) 여기에서 ‘사환’(헬, 휘페레텐)은 곧 종을 의미하며 주인에게 복종하고 주인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3) 또한 ‘증인’(헬, 마르투라)은 보고 들은 것을 입증하는 자로, 이 말에서 순교자를 뜻하는 헬라어 <마르튀스>가 나왔다.
 (4)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증언은 다메섹의 아나니아를 통해 주어졌고(22:14, 15) 후에 예루살렘에서의 환상 가운데 받았던 말씀(22:18-21)과 동일하다.
 (5) 바울은 이 증언을 통해 자신을 사도로 세우시고 복음 전도자로 세워 주신 분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과 그분이 주(Lord)라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6) 더 자세한 내용은 22장 **㉠** 8-11을 참조하라.

10. **㉠** 바울은 자신을 예수께서 사환과 증인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했는가? (17, 18절)

- ㉠** (1) 바울은 그 이유를 그를 통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그를 믿어 거룩케 된 무리가운데서 기업(基業)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다.
 (2)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선교의 사명을 위해 바울을 부르셨다는 이 말씀은 에스겔과 예

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받을 당시를 상기시켜 준다(렘1:7, 8; 켈2:1, 3).

- (3) 또한 그의 사명 자체도 사42:6, 7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의 사명을 연상시킨다.
- (4) 물론 바울이 받은 이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선지자적 사명으로, A. D. 67년 로마에서 그의 생명의 불꽃이 꺼지는 순간까지 계속 타올랐다.
- (5) 그러나 그의 사명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제자들을 통해 전세계에 확산되었으며 그의 많은 서신들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골1:12-14).
- (6)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께서 부여하신 이 사명을 그대로 물려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당연히 영적 이방인, 즉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참조, 사2:3; 미4:2).

11. Q 바울은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한 이유가 무엇이라 하였는가? (19-21절)

- A** (1) 바울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그가 거스리지 않고 그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2) 즉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15절)는 음성을 듣고 회심한 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였을 뿐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고 외쳤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3) 이 말과 같이 바울은 다메섹과 예루살렘 뿐만 아니라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 이방인들에게도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생활을 요구하였다.
- (4) 그런 까닭에 바울은 예수를 이단으로 보는 유대인들에게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고 급기야는 예루살렘에서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요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魁首)요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라는 누명을 쓰고 죽을 뻔한 위기를 맞기도 했다(참조, 21:28-30; 22:22; 24:5, 6).
- (5) 한편 흑자는 행위를 구원의 근거로 보는 견해를 가장 강력하게 거부했던 인물이 바울이며, 구원의 결과로서 선행이 나타나야 한다고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도 바로 바울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 (6) 우리는 본질을 통해 회개와 선행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알았다. 우리는 성도로서 얼마나 합당한 일을 행하고 또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날마다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갈5:22-24).

12. Q 바울은 이제까지 자신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22, 23절)

- A** (1) 바울은 자신이 이제까지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다고 하였다.
- (2) 즉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시22:6-8; 69:4-8; 사50:6; 53:3, 7)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시16:10)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는 것이다(사9:2).
- (3) 이 말씀대로 예수는 거짓 증인들의 모함을 받고(마26:60, 61) 조롱과 모욕을 당하신 후(마27:39, 40; 막14:65),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마27:38) 3일 만에 부활하셨다(마28:9).
- (4) 그래서 예수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고전15:20)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셨다(요1:4; 8:12; 12:35; 고후4:6; 엡5:14; 계21:23).
- (5) 그러므로 바울의 증거는 이스라엘의 신앙과 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며 모든 선지자와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과 조화를 이룬다.
- (6)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그것을 증거했다고 고백했다.

(7)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들이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신앙 생활을 하고 또 삶의 현장에서 건강하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섭리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시28:7;40:17;사41:10;히13:6).

13. **㉠** 바울의 변론을 들던 베스도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24절)

- ㉠** (1) 바울의 변론이 예수의 부활 문제에 이르렀을 때 베스도는 갑자기 그의 말을 끊으면서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고 크게 소리쳤다.
- (2)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유대의 종교적인 지식이 거의 없었던 베스도는 예수의 부활이나 한 유대인에 불과한 예수가 광대한 로마 세계에 빛을 비추고 있다는 개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 (3) 그래서 그는 바울의 철학적인 변론이 그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면서도 매우 논리 정연했기 때문에 바울이 높은 학문으로 인해 미쳐 버렸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 (4) 비단 이와 같은 오해는 베스도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자에게도 해당된다.
- (5)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에 속한 자들로부터 ‘미친 자’라는 소리를 들을 때 실망하기 보다는 예수께서도 미친 자 취급을 받으셨던 것(마3:21)을 기억하며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예수의 흔적을 지녔음을 기뻐해야 한다(고후5:13;갈6:17).

14. **㉠** 베스도의 미쳤다는 말에 바울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였는가? (25절)

- ㉠** (1) 바울은 ‘베스도 각하(閣下)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차린 말을 하나이다’라고 대답하였다.
- (2) 즉 이 대답은 베스도에게 이해할 수 없는 것같이 보이는 그리스도의 부활 문제가 바울에게는 가장 단순한 진리요 참되고 이성적인 말들이라는 뜻이다.
- (3) 이어서 바울은 아그립바의 도움을 요청하였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그 증거가 충분할 뿐만 아니라 이미 30년 이상 팔레스틴 지역에 전파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아그립바도 들어 알고 있었을 것이다(참조, ㉠3).
- (4) 바울은 이와 같은 상황을 ‘이 일은 한 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라고 말하면서 아그립바에게 암시를 주었다(26, 27절).
- (5) 한편 우리가 복음을 떨치하며 성도를 미친 자 취급하는 자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말은 바로 바울이 베스도에게 한 본질의 말일 것이다.

15. **㉠** 바울이 변론 중에 아그립바에게 호소한 것은 무엇인가? (26, 27절)

- ㉠** (1) 바울이 호소한 것은 결국 복음이었다.
- (2) 즉 바울은 ① 그리스도의 탄생과 고난 그리고 죽음과 부활의 소식이 유대의 한 편 구석에서만 땀들었던 소문이 아니며(참조, 1:3; 마2:3; 4:24; 24:25; 눅24:18) ② 그 모든 일은 아그립바가 믿는 선지자들의 말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아그립바에게 호소하였다(참조, ㉠11).
- (3) 왜냐하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그토록이나 폄박했던 예수가 주라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부터 그의 증인으로서 살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이다(12-20절).
- (4) 그는 그때부터 헬라인이나 야만(野蠻)이나 지혜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복음의 빛진 자로 차처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썼다(롬1:14, 15).
- (5) 이런 그의 삶의 자세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그의 편지 가운데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딤후 4:2).
- (6) 이와 같이 최심한 이후로 바울은 복음의 사자가 되어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열망하였다. 이런 그의 모습이 오늘날 성도들의 추구해야 할 삶의 대표적인 모습이다(롬14:8; 갈2:20).

16. ㉠ 아그립바는 바울의 호소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였는가? (28절)

- ㉠ (1) 아그립바는 바울에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대답하였다.
- (2) 이 대답은 단지 바울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공청회를 자원했던 아그립바가 (25:22) 바울의 논리 정연한 호소에 몹시 당황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3) 즉 그는 자신의 지식에 비추어 볼 때 바울의 호소가 지극히 당연한 귀결(歸結)임을 알았지만 베스도와 다른 고관들이 보는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정신 이상’이라 공격으로 공격하는 문제를 체면상 인정할 수 없었다.
- (4) 그래서 그는 이 곤경을 해결하기 위해 본질의 대답으로 바울의 질문을 슬쩍 받아넘긴 것이다. 이것은 아그립바가 처세술(處世術)에 밝은 왕임을 보여 준다.
- (5) 어쨌든지 이러한 그의 처세술은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 더할 나위 없는 최적의 판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한낱 거짓에 불과하다(참조, 23:3; 마23:27).
- (6) 우리는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이 때로는 더 큰 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고 진실을 진실로 외칠 수 있어야 한다(참조, 잠8:7; 12:19; 14:25).

17. ㉠ 바울은 아그립바와 신문소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하였는가? (29절)

- ㉠ (1) 바울은 아그립바 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고 하였다.
- (2) 여기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이란 표현은 곧 ‘자신과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이란 의미이다.
- (3) 그리스도인이란 진리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영적인 자유인이다(참조, 요8:32).
- (4)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인은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들로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野人)이나 스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의 분별이 있을 수 없다(골3:9-11).
- (5) 하지만 현재 바울을 심문하고 있는 그들은 비록 육체적으로는 고관 대작(高官大爵)이며 자유인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죄의 중에 불과했다(롬1:16, 17).
- (6) 그러므로 비록 그들의 앞에서 죄인된 신분으로 결박된 채 심문받고 있지만 바울의 눈에는 그들이 당할 중국의 영원한 멸망이 비쳤고(롬1:16) 이를 안타까이 여기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호소한 것이다.
- (7) 우리는 바울이 보여 준 이와 같은 심정이 불신자를 향한 복음 전도자의 마음 자세임을 알아야 한다(비교, 사1:2-9).

18. ㉠ 바울을 심문하는 자들이 바울에 대해 내린 결론은 무엇인가? (30, 31절)

- ㉠ (1) 아그립바와 총독, 버니게,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은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行事)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 (2) 이와 같이 바울이 로마법에 따르면 무죄하다는 결론을 이미 천부장(23:26-29)이나 베스도 총독(25:25)도 내린 바 있었다.
- (3) 이런 바울의 무죄성은 그를 송사했던 유대인들이 아무 증인도 세우지 못했고 그들의 고소를 입증할 만한 바울의 범죄 사실도 증명하지 못했던 데에서 잘 나타난다(25:7).
- (4) 한편 혹자는 아그립바와 무리들이 내린 결론을 포함해 3차례에 걸친 바울의 무죄 선언을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에게 3번이나 무죄 선고를 받았던 사실과 결부시키기도 한다(요18:38; 19:4, 6).
- (5) 그리스도나 바울이 죄가 없으면서도 세상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받았듯이 오늘날 성도들의 앞에도 언제나 세상에 속한 자들의 핍박이 도사리고 있다.

(6) 왜냐하면 성도는 빛 가운데 거하지만 그들은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요일 2:9, 10). 그러므로 성도는 장차 받을 영광을 바라보며 이 모든 일을 이겨내야 한다(히 2:5; 벰전 4:16-19).

19. **㉠** 아그립바는 바울이 무죄라는 결론을 내린 후 베스도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였는가? (32절)

- ㉠** (1) 아그립바는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편하였다’라고 베스도에게 말하였다.
- (2) 아그립바가 의미하는 바는 죄수가 가이사에게 상소한 후에는 지방 행정관이 그를 석방시킬 수 없다는 뜻은 아닐 것이다.
- (3) 여기에는 법률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가 함축되어 있는데 자세한 것은 25장 **㉠**12를 참조하라.
- (4) 한편 누가는 유대 재판관 뿐만 아니라 로마의 재판관 앞에서의 바울의 변호에 대한 그의 기록을 끝맺기 위해 아그립바의 발언들을 간추려 기록하였다.
- (5) 사실상 이 발언들은 본서에 나타난 누가의 변증 주제에 대한 결론을 짓고 있으며 바울과 기독교가 폭동이나 선동에 대한 어떠한 의심에서도 벗어나도록 그 정당함을 입증하고 변호해 주고 있다.

화보자료

예수를 만난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바울이 땅에 엎드러지는 장면이다(12-15절; 9: 1-5). 15세기경의 그림으로서 현재 파리 국립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본장에는 바울이 베스도와 아그립바 왕에게 자신이 예수를 만났던 사건에 대해 들려주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내용이 나온다. 그런데 우리도 때로는 자신이 예수를 만나게 된 체험담을 들려줌으로써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예수를 만났던 최초의 순간을 늘 생생하게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제 27 장 바울의 항해와 난파

단락구분 1-8 로마로 호송되는 바울 / 9-10 파선에 대한 바울의 예언 / 11-13 백부장이 바울의 예언을 무시하다 / 14-26 광풍(狂風) 유라골로를 만나다 / 27-44 배가 난파되다

1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야로 갈 일이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말기니

2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뭇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새 마게도나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3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니

4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의 거스림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5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 성에 이르러

6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야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7 배가 더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모네 앞을 지나 그레테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8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새아 성에서 가깝더라

9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10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11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12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조룩 뵈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뵈닉스는 그레테 항구라 한 편은 동북을, 한 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13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의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테 해변을 가까이하고 행선하더니

14 열마 못 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골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15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16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17 끌어 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들러 감고 스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18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스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19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 버리니라

20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을 때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21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테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22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 이리라

23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25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니

26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27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저리 쫓겨가더니 밤중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와지는 줄을 짐작하고

28 물을 재어 보니 이십 길이가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열 다섯 길이라

29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닻 넷을 주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더니

30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주려는 채하고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31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32 이에 군사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33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주린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34 음식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터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35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36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37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이백 칠십 육 인이라
 38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39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40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킷줄을 늦

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41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당하여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불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42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43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44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1. **㉠** 본장의 사건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전장(前章)에서 가이사라의 바울의 재판은 일단락되고 본장에서부터 28:14까지는 바울이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2) 그런데 바울이 탄 배는 로마로 항해하는 도중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파선하게 되었고 바울을 포함한 전승무원은 천신 만고(千辛萬苦) 끝에 멜리데 섬에 상륙하게 되었다(44절).
 (3) 이 모든 일은 죄수들의 호송을 책임진 백부장이 하나님께로부터 영감받은 바울의 충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9-11절).
 (4) 이와 같이 개인이든 단체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고 거부하며 인간의 방법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려 할 때에는 큰 시련을 받게 된다(왕상 11:9-13, 29-39).
 (5) 그러므로 성도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 119:105)는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표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적용시켜 나가야 한다.
 (6) 그럴 때에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며(시 23:2; 눅 1:79) 평강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게 된다(요 10:4; 16:13).

2. **㉠** 로마까지 바울과 다른 몇 사람의 죄수들의 호송 책임을 맡은 사람은 누구인가? (1절)

- ㉠** (1) 그는 아구사도대(the Augustan Cohort)의 백부장 율리오(Julius)였다.
 (2) 그가 지휘하는 아구사도대는 헬라어로 <스페이이라 세바스테>인데 한글로 정확하게 표기하면 '아우구스투스의 군대'이다.
 (3) 이 부대에 대해서는 ① 가이사라에 주둔한 5대의 보조 군대 중 하나로 아우구스타(Augusta)라는 칭호를 지닌 부대 ② 가이사라와 사마리아 출신의 군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이사라 주둔의 외인 부대라는 설이 있다.
 (4) 이 부대는 황제와 그의 군대 사이에 통신을 전달해 주며 죄수를 로마로 호송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는데 바울이 이 율리오라는 아구사도대의 로마인 백부장 손에 들어간 것이다.

3. **㉠** 바울의 일행이 승선한 배의 선적(船籍)은 무엇인가? (2절)

- ㉠** (1) 그들이 승선한 배는 아드라뭇데노(Adramyttium) 성에서 온 상선이었다.
 (2) 아드라뭇데노 성은 소아시아 북서 해안에 있는 무시아(Mysia)의 중요한 항구이며 레스보스(Lesbos) 섬 맞은편에 위치해 있었다(참조, 서론, 지도 자료).
 (3) 이 배는 연안을 항해하면서 아시아 각 도의 여러 항구에 머무를 예정이었다.

(4) 율리오는 이 배를 타고 가다가 적당한 연안에서 로마로 가는 큰 배로 갈아탈 계획이었다(참조, 6절).

4. **㉠** 누가 바울과 함께 동행한 인물로 누구를 소개하였는가? (2절)

- ㉠** (1) 바울은 마게도나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를 소개하였다.
 (2) 그는 이방인 바울의 동료로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이유로 아데미 여신의 신봉자들이 에베소에서 소동을 일으켰을 때 그곳에서 바울과 함께 체포된 적도 있었다(19:29).
 (3) 마게도나로부터 바울과 동행했던 그는 이번 바울의 로마 여행에도 의사인 누가와 함께 시증드는 사람의 자격으로 승선하였다.
 (4) 또한 전승에 따르면 그는 네로 치하의 로마에서 순교당했다고 한다.
 (5) 한편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쓴 편지에 아리스다고가 언급된 사실은(골 4:10; 몬 1:24)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와 함께 머물러 있었음을 암시해 준다.
 (6) 그러므로 아리스다고의 회생과 봉사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열심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참조, 고전 10:6; 골 2:6-10).

5. **㉠** 율리오가 시돈에서 바울에게 베푼 친절은 어떠한가? (3절)

- ㉠** (1) 가이사라를 떠난 그 이튿날 배가 시돈에 닿았을 때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持接) 받음을 허락하였다.
 (2) 시돈은 가이사라에서 북쪽으로 약 112km 지점에 위치한 고대 페니키아(Phoenicia)의 성읍으로, 두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스테반의 순교 당시(11:19)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던 헬라파 기독교인이 세운 교회가 있는 곳이다.
 (3) 그러므로 율리오가 바울에게 만나도록 허락한 친구들은 그 교회에 속한 기독교인들이었을 것이다.
 (4) 한편 율리오가 바울에게 친절을 베푼 이유는 그가 베스도에게서 바울을 관대하게 다루라는 충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좋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6. **㉠** 시돈에서 루기아의 무라 성에 이르기까지 바울을 호송하는 아드라뭇테노 배의 항로는 어떠한가? (4, 5절)

- ㉠** (1) 시돈에서 출발한 그 배는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 성에 이르렀다.
 (2) 이와 같이 그 배가 지중해를 가로질러 곧바로 무라 성이 위치한 북서쪽으로 항해하지 않은 이유는 동 지중해에서 봄부터 가을까지 부는 서풍 때문이었다.
 (3) 그래서 그 배는 항로의 반대쪽으로 부는 바람을 거슬러 구브로와 길리기아 사이의 바다를 지나 북쪽으로 가서 소아시아 남서 해안에 있는 루기아의 무라 성을 향해 항해했던 것이다.
 (4) 물론 이렇게 함으로써 그 배는 서풍을 어느 정도 피하면서 또한 그 지방의 미풍과 그 해안을 따라 흐르는 서쪽 해류의 도움을 받았다.

7. **㉠** 백부장은 루기아의 무라 성에서 바울의 일행을 어디로 옮겨 타게 했는가? (6절)

- ㉠** (1) 백부장은 이탈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에 바울의 일행을 오르게 했다.
 (2) 바울의 일행이 승선한 알렉산드리아 배는 곡물 선단에 속한 선박으로 나중에 통계한 바로는 276명이 탔던 큰 배였다(37절).
 (3) 당시 무라 성의 안드리카 항구는 애굽과 로마 사이를 왕래하는 곡물 선단의 주요 항구

중의 하나로 알렉산드리아 배처럼 큰 배가 입항할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 (4) 한편 이 곡물 선단은 로마 정부의 한 부서로 조직되어 있으며 이 선박 소유주들의 조합은 로마 정부로부터 특별한 인정을 받고 있었다.
- (5) 그런 까닭에 백부장을 포함한 로마 군병들과 그들이 호송하는 죄수들을 쉽게 태워 줄 수가 있었다.

8. **㉠ 알렉산드리아 배가 항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 무엇인가? (9절)**

- ㉠** (1) 그 이유는 바람의 영향으로 항해가 길어지므로 인해서 금식(禁食)하는 절기가 이미 지나 행선하기가 위태해졌기 때문이다.
- (2) 여기에서 ‘금식하는 절기’는 음력 디스리(Tishri) 월 10일에 거행되는 속죄일을 가리키는데 양력으로는 9월 24일이다(양력의 경우 디스리 월은 9월 하순과 10월 초순에 해당된다).
- (3) 그런데 지중해의 이 해역을 항해하는 일은 초겨울인 9월 14일 이후에는 위험한 일로 여겨졌고,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되는 11월 11일 이후부터 겨울이 끝나는 시기인 3월까지는 불가능했다.
- (4) 그러므로 여행에 오랜 경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참조, 고후 11:25) 하나님께로부터 영감받은 바울은 이 항해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리라고 충고했다(10절).
- (5) 그러나 이 충고를 무시한 결과 알렉산드리아 배는 바울의 예언대로 난파(難破)하게 되었고 많은 손해를 입게 되었다(14-44절).
- (6) 우리는 이와 같은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 때문에 초래되었음을 인식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데에 우리의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참조, 욥 42:5; 사 28:23).

9. **㉠ 백부장은 누구의 의견을 따랐는가? (11, 12절)**

- ㉠** (1) 백부장은 바울의 의견보다(10절) 선장과 선주(船主)의 말을 믿고 그 의견에 따라 뵈닉스로 항해할 것을 명령했다.
- (2) 여기서 선장과 선주의 말이란 미항(美港)이 겨울을 나기에 불편하므로 미항에서 서쪽으로 약 64km 떨어진 그레데 항구 뵈닉스로 가 거기서 겨울을 나자는 의견이었다(12절).
- (3)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에 따라 정박하기 좋아 보이는 그레데 항구가 있는 뵈닉스로 행선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 (4) 그리하여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바다의 전문가, 즉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이 의견을 따르고자 결정하게 되었다.
- (5) 그 결과 그들은 뵈닉스에 닿기도 전에 유라쿨로라는 광풍(狂風)을 만나게 되었다(14절).
- (6) 여기에서 우리는 백부장의 잘못을 크게 2가지로 지적할 수 있다. ① 하나님의 영감받은 바울의 말보다 인간의 말을 더 신뢰했다. ② 선장과 선주가 비록 바다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바다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깨닫지 못했다.
- (7) 그러므로 성도들은 일생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며, 비록 외형적으로 인간의 말과 생각이 타당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인생의 발걸음을 한걸음씩 옮겨야 한다(참조, 벰전 2:21).

10. **㉠ 남풍이 불자 백부장과 선장, 선주는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가? (13절)**

- ㉠** (1) 그들은 남풍이 순하게 불자 득의(得意)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하고 행선하였다.
- (2) 그들은 뵈닉스로 항해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지 얼마 후 순한 남풍이 불자 몇 시간 안에 그들이 원하는 뵈닉스 항구에 도착하리라고 생각하며 의기 양양해 있었을 것이다.
- (3) 그러면서 항해를 반대했던 바울에게 조소와 멸시를 보냈을 것이다.

- (4) 그러나 배가 그레데 남부 해안의 마다라 곶을 돌아서 멧사라 만에 들어서자마자 곧 이다(Ida) 산에서 북쪽으로 불어오는 폭풍인 ‘유라굴로’를 만나게 되었다.
- (5) 결국 조금 전까지 의기 양양했던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그들은 두려움(17절)과 굶주림(21절)에 시달리며 폭풍의 엄청난 위력 앞에 자포 자기(自暴自棄)할 수밖에 없었다.
- (6) 이와 같이 인간의 능력과 생각은 그 한계(限界)가 명확해서 인생의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눈앞의 이익과 상황에 민감하며 조그마한 일에도 언제나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인간이다.
- (7) 그러므로 우리는 유한(有限)한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무한(無限)한 전능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이 마땅하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시 44:6),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시 9:10).

11. **㉠** 알렉산드리아 배가 멜리데 섬에 이르기까지의 항해 일정을 설명하라(13-44절).

㉡

일시	항해 일지
첫째 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풍이 순하게 불므로 그레데 해변을 향해 항해를 시작하다 • 섬 가운데서(멧사라 만) 폭풍 유라굴로를 만나 밀려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에서 거루를 끌어 올린다 • 스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며 연장을 내리고 그냥 폭풍에 쫓겨가다
둘째 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공(沙工)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다 • 풍량은 여전하다
세째 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량은 여전하고 사공들이 배의 기구를 바다에 내어 버리다
네째 날- 열 세째 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날 동안 해와 달이 보이지 않고 풍량은 여전하다 •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다 • 바울이 사람들을 위로하다
열 네째 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드리아 바다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폭풍에 밀려가다 • 군사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사공들의 도망을 막기 위해 거룻줄을 끊다 • 바울의 권유로 사람들이 음식을 먹다 • 멜리데 섬에 상륙하다

12. **㉠** 첫째 날 사공들이 연장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가? (17절)

㉡

- (1) 그들은 배가 스킨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헬, 스큐오스), 즉 돛대를 내리고 폭풍에 쫓겨갔다.
- (2) 여기에서 ‘스킨디스’란 얇은 만(灣)을 가리키는데 이 만은 암초와 모래더미로 이루어져 있어서 배가 여기에 걸리거나 부딪힐 경우 파선하게 될 위험이 있었다.
- (3) 이 스킨디스는 지중해에 2개가 있는데 그중 대스킨디스는 아프리카의 북부 해안에 접한 넓은 만으로, 오늘날 튀니스와 트리폴리 사이에 뻗어 있는 시드라 만을 가리키며, 소스킨디스는 오늘날 가베스 만으로, 카르다스 부근에 있다.
- (4) 그런데 지형적으로 보아 사공들이 두려워하는 스킨디스는 대스킨디스로, 지금 상태로 바람이 분다면 24시간 이내에 거기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다.
- (5) 그래서 사공들은 가능한 한 흔들림을 줄이면서도 배를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돛대를 내린 것이다.

13. **㉠** 바울은 절망적인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하였는가? (20-26절)

㉡

- (1) 바울은 지난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한 말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인명에는 아무

런 해가 없으며 단지 배만 손상(損傷) 될 것이라고 위로의 말을 하였다.

- (2)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한 말이란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24절)라는 말이었다.
- (3) 물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자의 말은 바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다. 이 응답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판단하시는 기준은 인간의 판단 기준과 다르다(참조, 사55:8, 9; 롬 11:33).
- (4) 왜냐하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사실 죽은 목숨과 다를 바 없으나 바울로 인해 생명을 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비교, 겔14:14-20).
- (5) 바울의 말은 여러 날 동안 큰 풍랑 때문에 구원의 여망(餘望) 을 잃어버리고, 음식을 먹지 못하고 배멀미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제시했다(20, 21절).
- (6) 이와 같이 성도는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임재(臨在) 를 깨닫고 성령의 인도를 통해 새 힘을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지치고 굶주린 이웃들에게 그 힘을 전해 주어야 한다(참조, 사40:1, 2; 살전5:11, 14)

14. **㉠** 14일째 되는 날 사공들은 어떤 음모를 꾸렸는가? (27-30절)

- ㉠** (1) 사공들은 자기들만 도망하기 위해서 닻을 내리는 체하며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았다.
- (2) 그 이유는 폭풍에 밀려 배가 아드리아 바다에까지 쫓겨왔을 때 그들이 육지가 멀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27절).
- (3) 그 당시 배 위의 사정은 배가 암초에 걸려서 파선되지 않도록 4개의 닻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기다리는 상황이었다(29절).
- (4) 이와 같이 사공들의 도움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망치려고 했던 그들의 생각은 근본적으로 바울의 예언을 믿지 못하는 데서 나온 것이다.
- (5) 이들의 행동은 배와 승객의 안전을 책임진 자들로서 자신들의 생명을 위해 그 책임을 망각한 무책임한 것이었고 더 나아가 그들을 신뢰하고 있는 승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충분한 소지(素地)가 있었다.
- (6) 이러한 사공들의 모습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낙심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하며 구원의 소망을 제시한 바울의 모습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21-26절).
- (7) 같은 배에 뒀으면서도 이처럼 두 부류의 사람이 있듯이 오늘날 우리가 속한 이 사회에도 그러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 (8) 그런데 자신들의 안일만을 생각했던 사공들과 같은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사회는 불신감이 팽배하고 혼란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가 자신을 살펴보면서 바울과 같이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참조, 고후2:15).

15. **㉠** 바울은 도망하기 위해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은 사공들의 모습을 보면서 백부장에게 무엇이라고 경고하였는가? (31, 32절)

- ㉠** (1) 바울은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고 경고하였다.
- (2) 이것은 이미 바울이 이물에서 닻을 주려는 체하고 거루를 바다에 내려놓은 사공들의 행동을 보면서 그들의 도망치려는 생각을 간파했음을 의미한다.
- (3) 바울은 이전의 해상 경험(참조, 고후11:25)을 통해서 사공들이 없으면 알렉산드리아 배가 움직일 수 없어서 마침내는 파선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 (4) 이와 같은 바울의 경고에 군사들은 즉각적으로 사공들이 내려놓은 거루의 줄을 끊어버렸다.

- (5) 이런 백부장과 군사들의 태도는 미항에서 겨울을 나는 것이 안전하다고 주장했던 바울의 충고를 거부했던 이전의 그들의 모습과 좋은 대조가 된다(9-12절).
- (6) 결국 그로 인해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는데(44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 바울에게 약속하셨던 말씀(24절)의 성취이다.
- (7)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거저 땅에 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삼상3:19).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삶의 결단을 내리고 즉시 행하는 것이 살길이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마땅히 할 바이다(참조, 눅5:4-7; 히11:8).

16. **㉠** 14일째 되는 날 동이 틀 무렵부터 날이 밝을 때까지 바울이 한 일은 무엇인가? (33-38절)

- ㉠** (1) 바울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해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위로하면서, 말 뿐만 아니라 본을 보임으로써 그들을 격려했다.
- (2) 그가 보여 준 본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 음식을 먹기를 권하면서 그것이 살기 위한 활동의 에너지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②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祝謝) 하고 떼어먹기를 시작했다.
- (3)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모두 안심하고 음식을 먹었다. 음식을 먹고 힘을 얻은 후 그들은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다.
- (4) 한편 누가는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총수자가 276명에 이른다고 적고 있다(37절).
- (5) 이처럼 정확한 수자가 산출될 수 있었던 것은 음식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정확한 인원을 파악했음을 의미한다.
- (6) 또한 바울과 마찬가지로 누가도 음식을 사람들에게 분배해 주는 일에 앞장섰음을 나타낸다.
- (7)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이웃을 향한 기독교인의 올바른 태도가 ‘이웃의 고통을 함께 나누자’라고 말로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말과 더불어 그것을 책임질 행동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약2:18; 벰전2:12).

17. **㉠** 바울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그들의 안전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였는가? (34절)

- ㉠** (1) 바울은 ‘너희 중 머리터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격려했다.
- (2) 이러한 바울의 담대한 태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23, 24절)을 그대로 이루시리라는 그의 믿음에 근거하였다(25절).
- (3) 한편 ‘머리터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는 말은 절대적이고 완전한 안전을 의미한다(참조, 삼상 14:45; 삼하 14:11; 왕상 1:52).
- (4)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어느 위치에 처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의 손길을 체험하게 된다.
- (5)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섭리가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 ① 반석으로 보호하심(출33:22; 신32:11)
 - ② 환난 중에 보호하심(시57:1; 63:7; 91:1; 121:5; 아2:3)
 - ③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심(사25:4; 32:2)
 - ④ 손 그늘에 보호하심(사51:16)
 - ⑤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심(마23:57)
 - ⑥ 나그네의 동반자(창28:5; 시34:20)
 - ⑦ 주무시지 않고 지키심(시121:4)
 - ⑧ 능히 지키시는 아버지(요17:11; 빌4:7; 살후3:3)

⑨ 전능하신 보호자(답후1:12; 벧전1:5; 유1:24; 계3:10)

(6)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인 상태에 있는 성도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낙심치 않고 인내하며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더욱 담대해질 수가 있다(롬5:3,4).

19. **㉠** 배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몇 명인가? (37절)

- ㉠** (1) 누가는 총인원 수를 276명이라고 기록했다.
 (2) 그런데 어떤 사본에는 그 수가 76명으로 언급되어 있으며 이 입장을 일부 학자들이 지지하기도 한다.
 (3) 왜냐하면 276명이 승선하려면 최소한 그 배의 적재량이 500톤 이상 되어야 하는데 당시의 선박 건축 기술로는 그만한 용량의 배를 만들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4) 그러나 대다수의 사본에는 276명이라고 언급되어 있다는 점과 요세푸스(Josephus)의 기록에서도 A. D. 63년경 승객 600명을 태운 배가 로마를 향해 운항하던 중 지중해에서 파선당한 사건이 있었음을 언급한 사실은, 당시의 해운업의 발달과 더불어 276명이나 태울 만큼 큰 배가 있었겠는가 라는 질문이 불필요한 것임을 시사한다.

20. **㉠** 배가 난파되어 더 이상 나가지 못하자 군사들은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가? (42-44절)

- ㉠** (1) 배가 난파되자 군사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 것을 염려하여 그들을 모두 죽이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 왜냐하면 당시 로마 군법에 의하면 죄수를 지키던 군사가 그 죄수를 잘 지키지 못하여 도망가게 할 경우 그 죄수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참조, 12:18, 19; 16:25-28).
 (3) 당시 상황으로 보아 배는 파선했고 육지는 멀지 않았기 때문에 죄수들이 바다에 뛰어 들어 도망갈 가능성은 충분했다(39-41절).
 (4) 이런 절대 절명(絶大絶命)의 상황에서 백부장은 바울을 살리기 위해 군사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은 먼저 뛰어내려 육지로 올라가며 나머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매달려 육지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였다(43, 44절).
 (5)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상륙(上陸) 해서 구원을 얻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약속하신 대로(24절) 당신의 섭리 가운데 그들을 모두 구원해 주셨다.
 (6) 우리는 백부장의 행동을 통해서 성도의 선행은 가장 무지하고 세상적인 사람들에게 영향 미칠 수 있으며(벧전2:13-15)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은 여하한 경우에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왕상8:56; 겔12:25).

본장의 요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뜰어 버리고’
 (18절).



제 28 장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

단락구분 1-10 멜리데 섬에서의 바울 / 11-16 로마에 도착하다 / 17-22 로마의 유대인들과 첫번째 대화 / 23-28 두번째 대화 / 29-31 복음이 로마에서도 전진하다

1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2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차매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3 바울이 한뭇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 지라

4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5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6 그가 붓든지 혹 갑자기 엎드려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7 이 섬에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8 보블리오와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9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10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11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과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 배 기호는 디오스구로라

12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13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14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15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압비오 저자와 삼관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사례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16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

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17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 준 바 되었으니

18 로마인은 나를 심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놓으려 하였으나

19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치 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함이었으니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로라

20 이러하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죄사슴에 매인 바 되었노라

21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서 너에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너에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고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22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압이라 하더라

23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24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25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흠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26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27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들으랴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28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줄 알라 저희는 또한 들으리라 하더라

29 (없음)
 30 바울이 은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
 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
 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
 었더라

1. ㉠ 본장에 나타난 바울의 활동상을 설명하라.

- ㉠ (1) 본장에 나타난 바울의 활동상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철저한 복음 전도자의 삶이었다고 할 수 있다.
- (2) 먼저 본장의 전반부에는 불시착한 멜리테 섬에서 뱀에게 물리고 병든 섬 주민들을 치료하는 바울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1-10절).
- (3) 비록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섬 주민들이 그를 ‘신’이라고 했을 때 바울은 과거 루스드라에서 했듯이 자신이 신이 아님을 밝히고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것이다(14:8-18).
- (4) 그리고 후반부에는 로마에 도착해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바울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16-31절).
- (5) 바울은 로마에서 2년간 머무르는 동안 유대인들을 만나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설교하는 등 언제나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께 관한 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했다.
- (6) 한편 이 기간 동안 죄수의 몸으로 부자연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가 옥중 서신(獄中書信), 즉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등을 집필하였다는 것은 매우 특기할 만한 사실이다(참조, 엡3:1; 빌1:7; 골4:10; 몬1:9).
- (7) 우리는 이와 같은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결코 불리한 환경이 복음 전도의 열정을 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핑계로 복음 전도를 기피했던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반성해 보자.

2. ㉠ 바울의 일행이 상륙한 곳은 어디인가? (1절)

- ㉠ (1) 그곳은 멜리테라는 섬이었다.
- (2) 이 섬은 길이가 약 29km, 넓이가 약 13km 정도 되는 섬으로 시실리 남쪽 약 93km, 아프리카 해안의 북동쪽 약 288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참조, 서론, 지도 자료).
- (3) 이 섬은 B. C. 1000년경에 페니키아인의 식민지가 되기도 했다가 제 2차 포에니 전쟁 초기인 B. C. 218년에 로마에 의해 점령되었다.
- (4) 그 후 로마는 이 섬에 무니시피움(municipium)이란 지위를 주고 상당한 지방 자치권을 허용했고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멜리테시움 프리무스 음니움(Melitesium primus omnium, ‘멜리테의 자치에 있어서 모든 일을 관할하는 우두머리’라는 뜻)이라는 명칭의 행정관을 세워서 이 섬을 관할하게 했다.
- (5) 또한 아우구스투스는 많은 로마의 퇴역 군인과 그들의 가족을 이곳에 정착시켰다.
- (6) 바울 당시 이 섬의 원주민은 대부분 페니키아인과 카르타고인의 혈통을 이어받았고 방언으로 페니키아어와 카르타고어를 사용했으며 라틴어와 헬라이어도 사용했던 것 같다.

3. ㉠ 멜리테 섬의 토인(土人)들은 바울의 일행을 어떻게 대하였는가? (2절)

- ㉠ (1) 토인들은 낭패한 물골로 바다에서 기어 나온 바울 일행을 특별히 동정하여 불을 피워 주며 그들 모두를 영접하였다.
- (2) 당시에도 여전히 폭풍의 영향으로 날씨는 차가웠고 비가 오고 있었기 때문에 불을 피운 것은 옷이 물에 흠뻑 젖어서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친절하고 적절한 것이었다.
- (3) 한편 누가는 그 섬 주민들의 호칭으로 ‘토인’(헬, 바르바로이)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 (4) 그 말에서 ‘야만인’에 해당되는 영어 ‘발베리언’(barbarian)이라는 단어가 생겨났지

만 그런 경멸의 의미로 누가가 그 말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

- (5) 왜냐하면 헬라인들은 흔히 <바르바로이>를 ① 발음이 거치른 사람 ② 외국어를 말하거나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사람(고전14:11) ③ 헬라어나 헬라 문화를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모르는 외국 사람(롬1:14)에게 사용했기 때문이다.
- (6) 우리는 비록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생전 처음 본 사람들에게 특별한 동정과 친절을 베푼 토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면서도 이웃에게 사랑과 친절을 행하지 않은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을 반성해야 한다(참조, 마5:38-48).

4. **㉠ 바울이 불속에 한 아름의 나무를 집어 넣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3절)**

- ㉠** (1) 바울이 나무 가지를 불에 집어 넣자 나무 가지에 붙어 있던 독사가 그의 손을 물었다.
 (2) 독사는 비와 추위로 인해 나무 가지에 가만히 붙어 있다가 뜨거운 불의 열기를 느끼고 깜짝 놀라 자신을 잡고 있는 바울의 손을 물었던 것이다.
 (3) 그런데 현재 멜리테 섬에는 독사가 전혀 서식하고 있지 않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로서 관찰력이 뛰어난 누가가 독 있는 뱀을 가리키는 헬라이어 <에키드나>를 사용한 것이나 뱀에게 물린 바울을 보고 틀림없이 죽으리라고 확신했던 원주민들의 태도(4,6절)는 당시 바울을 물고 있던 뱀이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독사(毒蛇)라는 사실을 강력히 입증한다.
 (5) 그래서 학자들은 현재 독사가 서식하지 않는 이유를 약 1900여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르면서 멜리테 섬의 인구가 급증하고 환경이 파괴되므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으로 본다(Ramsy).
 (6) 바다 위에서 뿐만 아니라 육지에서도 남을 위해 봉사하다가 독사에게 물린 바울처럼 때때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다가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7) 그러나 여하한 경우에도 우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해서는 안 된다(갈6:9; 살후3:13; 딤후3:14). 왜냐하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로, 때가 되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다(참조, 히2:18).

5. **㉠ 토인들은 독사에 물린 바울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하였는가? (4-6절)**

- ㉠** (1) 토인들은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公義)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라고 말하였다.
 (2) 여기에서 '공의'에 해당되는 헬라이어 <헤 디케>는 회랍 신화에 나오는 여신으로 제우스(Zeus)의 딸이자 범죄에 대한 보복자인 디케(Dike)나 혹은 디케 여신에 대응되는 페니키아의 신을 가리킨다.
 (3) 그러나 독사에 물린 바울에게 ① 몸이 붓든지 ② 독성이 강해 급사하는 일반적인 증상이 한참을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자 그들은 바울을 치명적인 재난에도 끄떡없는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겼다.
 (4) 그들의 이 같은 행동은 앓은뱅이를 일으킨 바울과 바나바의 이적을 보고 그들을 신으로 오인해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루스드라 사람들의 행동과 일맥 상통(一脈相通)한다(참조, 14:8-13).
 (5) 이와 같이 어리석은 인간은 같은 피조물인 인간이나 자연 만물 또는 더 나아가 돌이나 나무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오류를 범했고 현재도 범하고 있다(신4:48; 사40:20; 45:20; 렘10:5).
 (6) 우리는 이 같은 행위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는 어리석고도 악한 일임을 인식하고 우리 자신을 이런 일에 미혹되지 않도록 지켜야 한다(출20:4; 레26:1; 신7:25; 11:16; 롬1:22, 23; 요일5:21).

6. **㉠ 바울이 멜리테 섬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 행한 일은 무엇인가? (7-10절)**

- Ⓐ (1) 누가는 3개월 동안 바울이 행한 일 가운데 병든 보블리오의 부친과 섬 주민들을 고쳐 준 일만을 기록하였다.
- (2) 누가는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한 죄수의 몸으로 멜리데 섬에 있었지만 그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나타나고 있음을 실증하려고 이 삽화적인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다.
- (3)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참된 종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일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여야 한다(고전15:58).

7. ⓐ 바울의 일행은 3일 동안 친절하게 대접한 사람은 누구인가? (7절)

- Ⓐ (1) 그는 멜리데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Publius)였다.
- (2) 여기에서 ‘제일 높은 사람’에 해당되는 헬라어 <프로토>는 멜리데 섬에서 발견된 비문(碑文)들에 의하면 한 관직의 호칭이었다.
- (3) 그래서 학자들은 보블리오가 멜리데 섬을 관할한 로마의 행정 관리였다고 주장한다(Ramsy).
- (4) 그런데 그의 부친과 함께 멜리데 섬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살고 있는 점으로 보아 보블리오가 멜리데 출신이라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

8. ⓐ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병을 고쳐 준 사람은 누구인가? (8, 9절)

- Ⓐ (1) 그 사람은 보블리오의 부친으로, 열병(熱病)과 이질(痢疾)에 걸려 누워 있었다.
- (2) 보블리오의 부친이 걸린 열병은 1887년 그 병원체인 미생물 마이크로코쿠스 멜리텐시스(Micrococcus melitensis)가 발견되고 멜리데의 염소 짚을 먹고서 발병한다는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멜리데를 포함한 일부 지중해 지역에 널리 퍼져 있던 병이었다.
- (3) 이 병에 걸릴 경우 보통 4개월 이상을 고생해야 했는데 그 병이 간헐적으로 환자를 괴롭혔기 때문에 누가는 이 열병을 복수형으로 묘사하였다.
- (4) 바울은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보블리오의 부친에게 안수, 즉 손을 얹고 기도함으로써 그의 병을 치료하여 주었다.
- (5) 한편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고 안수로 병을 고친 바울의 행위는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이전에 말씀하신 믿는 자들에게 따를 표식과 관계가 있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막16:18).
- (6) 이러한 표식은 복음을 확증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 주는 능력으로서, ‘사도의 표’ 가운데 하나였다(고후12:12).
- (7)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병원에서 포기한 수많은 병들을 안수로써 낫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 참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이적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야 한다(참조, 고전12:28-31).

9. ⓐ 보블리오의 부친의 병이 나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어떤 자들이 바울을 찾아왔는가? (9절)

- Ⓐ (1) 멜리데 섬에 거하는 다른 병든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병 고침을 받았다.
- (2) 이때에 바울은 단순히 육체의 질병만을 고쳐 준 것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도 고쳐 주었다. 즉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다.
- (3) 보블리오가 멜리데 섬의 최초의 감독(bishop)이 되어 순교했다는 전승(傳承)이나 멜리데 섬에 기독교인의 카다쿰이 많다는 사실이 이러한 바울의 사역을 잘 증명해 준다.
- (4)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름대로의 독특한 은사와 재능을 주셨으며 이를 통해 영광을 받기 원하신다. 바울과 같이 우리는 어떠한 처지에 처할지라도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복음 증거의 도구로 사용해야 한다(참조, 벧전4:10, 11).

10. **㉠** 바울에게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바울의 일행에게 어떤 보답을 하였는가? (10절)
- ㉠** (1) 그들은 후한 예로 바울 일행을 대접하고 떠날 때에 바울 일행이 쓸 것을 배에 실었다.
 (2) 여기에서 '예'에 해당되는 헬라어 <티마이스>는 '가격', '사례금', '보상금', '존경', '공경'이라는 뜻을 지녔다.
 (3) 그러므로 후한 예로 대접했다는 말은 그들의 병을 고쳐 준 바울과 그 일행에게 그들의 정성이 담긴 답례, 즉 심심한 감사를 표했다는 뜻이다.
 (4) 뿐만 아니라 그들은 태풍 유라굴로로 인해 모든 것이 파손되거나 바다에 버려졌음을 알고 바울의 일행이 떠날 때 식량과 의복 등 앞으로의 항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배에 실어 주었다.
 (5) 이와 같이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은혜를 베푼 자를 향해서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 인지 상정(人之常情)이다.
 (6)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가 값없이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는 감사를 표하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엡5:20; 빌1:3; 골1:12; 3:15; 살전5:18).
11. **㉠** 바울의 일행이 멜리데 섬에서 보낸 기간은 얼마 동안이었는가? (11절)
- ㉠** (1) 그들이 멜리데 섬에서 지낸 기간은 약 3개월이었다.
 (2) 그들이 멜리데 섬에 도착한 날을 10월 중순이나 하순으로 보았을 때 그곳을 떠난 날은 2월 초순경이 된다(참조, 27장 ㉠8).
 (3) 그런데 흑자에 따르면 지중해에서의 봄철 항해는 2월 7일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서풍이 불기 때문이었다.
 (4) 한편 그들이 타고 떠난 배는 디오스구로, 즉 스파르타의 황제 레다(Leda)의 두 아들인 카스토르(Castor)와 폴룩스(Pollux)를 기호로 한 또 다른 알렉산드리아 배였다.
 (5) 뱃사람들은 제우스에 의해 제미니(Gemini) 별자리로 변형된 카스토르와 폴룩스를 폭풍 가운데서도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쌍둥이 신으로 여겼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 배가 이들을 이물에 장식한 것은 당연했다.
12. **㉠** 로마로 가기까지 알렉산드리아 배의 일정은 어떠한가? (11-14절)
- ㉠** (1) 멜리데 섬을 떠난 알렉산드리아 배는 북동쪽으로 항해하다가 시실리 동해안에 위치한 수라구사(Syracuse) 항구에 이르렀다(12절).
 (2) 이곳에서 배는 3일 동안 화물을 싣고 내리며 순풍을 기다리다가 이탈리아의 변방에 있는 중요한 항구로서 메시나(Messina) 해협의 이탈리아 쪽에 위치한 레기온(Rhegium)으로 향하였다(13절).
 (3) 레기온에서 하루를 지낸 알렉산드리아 배는 다음날 불기 시작한 남풍을 따라 2일 만에 이탈리아 해안을 올라가 보디움(Puteoli)까지 약 288km를 항해했다(13절).
 (4) 바울의 일행은 보디움에서 7일간 형제들의 청함을 받아 머무른 후 로마로 올라갔다.
 (5) 더 자세한 바울의 멜리데-로마 여행은 서론, 지도 자료를 참조하라.
13. **㉠** 바울은 로마로 가기 앞서서 보디움에서 누구를 만났는가? (14절)
- ㉠** (1) 바울은 보디움에서 형제를 만났다.
 (2) 여기서 '형제'(헬, 아델포스)란 말은 혈육적인 형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 믿음의 형제를 의미한다.
 (3) 한편 이탈리아의 항구인 보디움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났던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4) 그것은 보디움의 환경이 항구인 까닭에 기독교가 들어가기에 적합하였고 게다가 로마 다음으로 오래된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리라 보여진다.
 (5) 보디움의 믿음의 형제들은 바울을 초청해 7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그에게 복음에 대한

강론을 듣고 또한 깊은 성도간의 교제를 나누었을 것이다.

- (6) 바울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7일 동안 그곳에서 머물 수 있었던 것은 ① 백부장이 특별한 업무로 그곳에서 7일 동안 머물러야 했기 때문이거나 ② 시돈에서처럼(27:3) 백부장이 바울에게 동료 신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했기 때문 등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 (7) 오늘날 성도간의 교제도 바울의 경우처럼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이 주가 되어야 한다. 그럴 때에 그 교제 속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요일 1:3, 7).

14. **㉠ 로마로 들어오는 바울을 맞이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15절)**

- ㉠** (1) 바울과 그 일행을 영접한 사람들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었다. 누기는 이들에 대해서도 역시 ‘형제들’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 (2) 그들은 이미 바울이 보디움에서 7일을 머무는 동안 그의 소식을 듣고 그를 영접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 (3) 그러다가 바울이 로마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그들은 로마에서 약 69km나 떨어진 압비오 저자와 약 53km 정도 떨어진 삼판까지 나와서 바울을 맞이했다.
- (4) 여기에서 ‘압비오 저자’는 일종의 휴식처로서 그 주변에는 장이 서는 마을이 있었고 로마로 연결된 압비아 대로(B. C. 312년에 로마의 검찰관 압피우스 글라우디우스의 이름을 딴)가 있었다. 또한 ‘삼판’은 휴식을 위한 장소로 일종의 여인숙이었다.
- (5) 이러한 로마 교인들의 모습은 허례 허식(虛禮虛飾)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 것으로 오늘날 참된 기쁨과 진실이 없는 형식주의에 찌든 성도간의 교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참조, 삼상 20:30-42).

15. **㉠ 그를 영접하는 로마 교인들을 본 바울의 모습은 어떠한가? (15절)**

- ㉠** (1)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사례(謝禮) 하며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 (2) 왜냐하면 주께서 그를 로마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며(19:21) 그 자신도 계속적인 복음 증거를 위해 로마에 가기를 열망했는데(23:11) 그것이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 (3) 또한 3차 전도 여행 시 로마 교회를 위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교회의 방문길을 열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그것이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이었다(롬 1:8; 15:14-17).
- (4) 비록 그가 예상했던 방법, 즉 자유인의 모습으로 로마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는 멀리까지 나와서 환영해 주는 로마 교인들의 따뜻한 행동을 보면서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느꼈고, 장차 로마에서 해야 할 복음 증거의 사명에 대해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게 되었다(참조, 23, 31절).
- (5) 이와 같이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들의 만남은 상호간에 새로운 믿음의 용기를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충분한 조건이 된다(참조, 골 3:9-14).

16. **㉠ 로마로 호송된 바울에게는 어떤 특전이 주어졌는가? (16절)**

- ㉠** (1) 바울에게는 그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개인적인 거처에서 지내도 좋다는 특전이 주어졌다.
- (2) 로마법으로는 이런 경우에 죄수와 간수를 하나로 묶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바울의 손목도 그를 지키는 군사의 손목과 쇠사슬로 연결되어 있었다(참조, 빌 1:13).
- (3) 당시 로마에는 약 9,000명의 병력이 궁정 수비대로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윤번제(輪番制)로 죄수를 감시하였다.
- (4) 그런데 이런 제도가 군사들을 복음의 포로가 되도록 하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참조, 엠 6:20). 왜냐하면 그들은 돌아가면서 바울을 감시할 때마다 복음을 들었을 것이고 그 나머지 군사들도 바울을 만나 본 군사들을 통해 복음을 들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 (5) 한편 바울이 이와 같은 특전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로마에까지 호송한 백부장의

호의적인 평가 때문이었다(참조, 27:2, 31, 43).

- (6) 즉 백부장으로부터 바울을 인계받은 황제 근위대의 대장이 배 위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공들의 음모를 분쇄하여 많은 생명을 구하며, 멜리데 섬에서 병자들을 고쳐 준 것과 같은 바울의 선행에 대한 보고를 듣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 바울에게 특혜를 허락했기 때문이다.
- (7) 이런 하나님의 환경적인 인도가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며 옥 중 서신을 집필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23, 30, 31절; 참조, ㉠ 1).

17. ㉠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3일 후에 초대된 사람들은 누구인가? (17-20절)

- ㉠ (1) 바울은 로마에 거하는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였다.
- (2) 여기에서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란 로마에 있는 회당과 유대인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의미한다.
- (3) 바울이 그들을 초청한 목적은 자신을 변증하기 위함이었다.
- (4) 즉 자신이 죄인으로 로마에 호송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조상의 규모를 배척(排斥)한 일이 없는데도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그를 고소하여 로마인에게 넘겨 주었고, 로마인들이 그의 무죄를 확인했으나 그를 죽이고자 했던 유대인들의 반대로 그 자신이 마지못해 가이사에게 호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17-19절).
- (5) 이와 같은 그의 변증은 과거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21:27-23:10)과 가이사라의 벨릭스 총독 앞에서 변론한 일(24장) 그리고 베스도 총독과 아그립바 왕 앞에서 있었던 일(25, 26장)을 압축, 요약한 것이다.
- (6)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쇠사슬에 매이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라고 밝혔다.

18. ㉠ 바울이 쇠사슬에 매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20절)

- ㉠ (1) 그 원인은 '이스라엘의 소망', 즉 메시아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이었다.
- (2) 바울은 이미 벨릭스와(24:21) 베스도(25:19) 그리고 아그립바(26:7) 앞에서도 밝혔듯이 이스라엘의 소망이 나사렛 예수에게서 성취되었다고 믿었다.
- (3) 그러나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그 사실을 부정하면서 예수를 믿는 자를 나사렛 이단으로 몰아붙였다.
- (4) 왜냐하면 그들이 고대했던 메시아는 예수처럼 가난하고 초라한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속박, 즉 로마의 통치로부터 구출해 내는 정치적인 해방자요 통치자였기 때문이었다.
- (5)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으면서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적인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심을 증거한 바울이 눈에 가시 같은 존재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
- (6)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① 나사렛 이단의 괴수 ② 전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소요케 하는 자 ③ 성전을 더럽힌 자라는 죄목을 씌워서 죽이려고 했고 그 덕분에 바울은 쇠사슬을 매고 로마에까지 끌려오게 된 것이다(참조, 24:5, 6).
- (7)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불신자들로부터 조롱과 핍박을 받는 가장 큰 요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유일한 자랑거리는 십자가뿐이다(참조, 고전 1:17, 18; 갈 6:14).

19. ㉠ 바울의 변론을 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은 어떤 반응을 나타냈는가? (21, 22절)

- ㉠ (1) 그들은 바울에 대한 편지를 유대로부터 받은 적도 없고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이 그에 대해 좋지 못한 것을 이야기한 적도 없었다고 대답했다.
- (2) 그러나 이미 그 당시 기독교는 로마의 유대인 사회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고, 바울이 유대인들의 최초의 송사를 받은 지 2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21:27-30) 바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알려져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 (3) 따라서 그들의 대답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바울과 기독교에 대해 관여하기를 꺼리는 그들의 심정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 (4)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에 의해 A. D. 49년이나 50년경에 기독교 문제로 인해 폭동이나 소동을 근절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로마에서 추방되었던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이다(참조, 18:2).
- (5)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기독교를 지지한다거나 반대한다는 확답을 하지 않았다. 단지 그들은 어디서나 사람들의 반대를 받고 있는 기독교를 목숨을 내걸고 전파하고 있는 바울의 사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 흥미를 표시했을 뿐이다.

20. **㉠** 바울은 유대인 지도자들과 재차 모임을 가졌을 때 무엇을 하였는가? (23절)

- ㉠** (1)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증거하였으며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였다.
- (2)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일’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전한 메시지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이며(마 4:17; 막 1:15) 예수께서 하신 일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마 4:23; 9:35; 눅 8:1; 9:11).
- (3) 바울이 권한 예수의 일은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을 예수께 적용시킨 것으로,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행한 설교(13:17-41)와 로마서에서 그 강론의 요지를 짐작할 수 있다(참조, 롬3:21-26).
- (4) 이를 한 마디로 말하면 예수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시며, 인간들의 죄를 대속해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사 당신을 믿는 자에게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주셨다는 것이다(참조, 31절).
- (5)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와 같은 바울의 강론에 대해 믿는 자들도 있었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있었다(24절).
- (6) 이처럼 복음이 선포될 때 받아들이는 자세에 따라서 일차적으로 알곡과 가라지가 가려진다(참조, 마 3:12). 그러나 우리는 종말의 알곡과 가라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한다(참조, 고후 2:1-5).
- (7) 한편 바울이 복음을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강조했던 장소는 그가 우거하는 집으로 30절에 나오는 그 ‘셋집’이다.

21. **㉠** 바울은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지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25-28절)

- ㉠** (1) 바울을 그들에게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라고 말하였다.
- (2)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웃시야가 죽던 해에 이사야를 불러서 회개치 않는 패역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하신 사 6:9, 10을 인용하였다.
- (3) 이 말씀은 이미 메시야가 오셨는데도 영접치 않으며 회개치 않는 영적인 소경들을 향해 예수께서 인용하여 말씀하신 적이 있다(마 13:14, 15; 막 4:12; 요 12:40).
- (4)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곳에 모인 유대인 지도자들의 영적인 소경 상태를 지적하였고 그것이 복음을 고의로 거부한 그들의 완악함 때문에 유래하였다고 비난하였다.
- (5) 더 나아가 그는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구속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직접 주어지게 되었다고 선포하였다(28절).
- (6) 이제는 육적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에 의한 믿음의 자손, 즉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참 이스라엘이 되었다(롬9:6-13; 갈3:7).
- (7) 이처럼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들은 언제라도 그들이 누릴 특

권을 빼앗기게 마련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성도의 특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더욱 단단하게 복음의 줄로 허리를 동여야 할 것이다(참조, 마11:12).

22. ㉠ 바울은 하나님의 이 구원이 누구에게로 보내지게 되었다고 하였는가? (28절)

- ㉠ (1) 바울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말씀이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지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2) 이와 같은 결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고(신7:6, 1) 그들에게서 메시아가 나셨으며(2:22-39) 복음을 누구보다 먼저 접하였음에도 불구하고(롬1:16)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죽었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마8:10-12; 요9:39-41; 12:37-40).
 (3)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누린 모든 특권은 택함 받은 이방인, 즉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주의 백성에게로 이양되었다(마 21:43; 롬 11:5-7; 벧전 2:5-10).
 (4) 이사야와 미가는 이런 상황을 이미 오래 전에 성령을 통해 예견받고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말일(末日)에 여호와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사 2:2; 미 4:1).
 (5) 그러므로 이방인의 전도는 유대인의 완악함 때문에 이루어졌지만 이미 창세 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의 한 과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6) 한편 본질의 기록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바울의 수차례의 말들 가운데 기록과 시간 상으로 볼 때 가장 나중에 한 말이다(비교, 13:46; 18:6; 22:21; 26:20).

23. ㉠ 누가는 그 후 2년 동안의 바울의 생활상을 어떻게 기록하였는가? (30, 31절)

- ㉠ (1) 누가는 바울이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유하면서 그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였다고 기록하였다.
 (2) 혹자는 바울이 셋집에서 머무른 2년에 고소자의 법정 기한인 18개월과 바울의 석방 수속에 걸리는 기간까지 포함되었다고 주장한다(Ramsay).
 (3) 어쨌거나 바울은 표류하는 알렉산드리아 배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셨듯이(27:24) 가이사에게 재판권을 받고 무죄가 선고되어 A. D. 63년에 풀려 났다(아마도 바울에 대한 산헤드린의 소송은 결석(闕席)으로 진행되었을 것이다).
 (4) 그 기간 동안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그리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 4편의 서신이 그 유명한 옥중 서신이다.
 (5) 그는 이 편지들을 두기고와 오네시모,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보냈으며, 그 기간 동안 바울의 옆에는 에바브라, 마가, 요한, 데마, 유스도 등의 친구들이 함께 있었다.
 (6) A. D. 63년 풀려 난 바울은 마게도냐와 여러 곳을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A. D. 66년 다시 투옥되어 A. D. 67년 순교하였다. 그 기간에 바울은 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를 기록하였다.

연구자료

로마의 군대 조직

본서에는 ‘이달리아대’(10:1)라든가 ‘아구사노대’(27:1) 또는 백부장(23:17)과 같은 로마의 군대 체제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따라서 신약 시대 당시 로마의 군대 조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는 것은 본서를 읽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로마 제국에 상비군(常備軍) 제도가 확립된 때는 마리우스(Gaius Marius, B. C. 157-86) 황제 시대이다. 그 이전에는 다만 필요에 따라 백성들을 차출하여 병역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마리우스가 극빈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그들을 모아 군대 체제를 갖추기 시작한 이후 점차 상비군 제도가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하여 체제를 갖추기 시작한 로마의 군대 조직은 황제를 보호하는 황제 근위대와 로마 제국의 수도를 방어하는 로마 주둔군이라는 특수군 외에 다음과 같은 군 조직으로 발전하였다.

1. 군단(legion)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Marcus Aurelius, A. D. 160-180) 황제 당시에는 30개의 군단이 조직되어 있었다. 1개 군단은 6,000명으로 구성되었는데 대개 로마의 식민지를 통치하던 총독이 자기 통치령에 있는 군단의 최고 사령관직을 맡았다. 한편 1개 군단의 조직은 10개 보병대로, 1개 보병대는 3개 중대로 그리고 1개 중대는 2개 백인대(centuries)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백인대를 지휘하는 자가 곧 백부장(27: 1)이었다.

2. 보조 부대(auxiliary)

보조 부대는 위난시(危難時) 주로 군단 전병력의 이동이 용이하지 않을 때 이를 타개하는 보조적 역할을 도맡아 하였는데 독립된 보병과 기병 또는 보병 기병이 혼합된 병력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개 보조 부대는 대개 500명으로 조직되어 있었지만 경우에 따라 어떤 부대는 1,000명으로 구성되기도 했다. 따라서 우리는 본서에 나오는 천부장(23: 18)이 바로 이 같은 보조 부대의 최고 지휘자 직위에 해당되는 직책을 가진 자였음을 알 수 있다.

3. 본서에 나오는 로마 군대

① 이탈리아대 (Italian Cohort) : 팔레스틴의 가이사라(Caesarea) 및 그 주변 지역에 배치되어 있던 로마 군단의 5개 보병대 중 1개 보병대이다. 이 보병대의 병력은 모두 로마인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넬료(Cornelius, 10: 1)가 바로 이 부대의 백부장이었다.

② 아구사도대 (Augustan Cohort) : ‘아구사도대’란 뜻은 곧 ‘황제의 보병대’ (the Imperial Cohort)이다. 이 부대 역시 이탈리아대와 마찬가지로 가이사라 및 그 주변 지역에 배치되어 있던 1개 보병대이다.

4. 기타

로마 제국은 이상과 같은 군대 외에도 식민지의 민병들을 흡수하여 자신들의 군사 지휘하에 두었었는데 천부장이 바울을 호송하기 위하여 차출하였던 보병과 마병, 창군(槍軍)들(23: 22, 23)이 바로 이러한 민병들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